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박사학위 논문

남북분단과 6·25전쟁 시기(1945-1953) 민간인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최 태 육

2014년 12월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남북분단과 6·25전쟁 시기(1945-1953) 민간인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연구

지도교수 김흥수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최 태 육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최태육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김 기 범 (인)

심 사 위 원 이 덕 주 (인)

심 사 위 원 유 장 환 (인)

심 사 위 원 김 용 수 (인)

심 사 위 원 최 성 기 (인)

2014년 12월

목원대학교 대학원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감사의 글

논문을 작성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한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20여 전 낯선 땅 교동으로 인도하신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 온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난 교인들과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내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줌과 동시에 나의 내면에 깊은 갈등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갈등은 화두가 되었고, 이 논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민간인학살을 조사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쏟아낸 수많은 이야기들은 나로 하여금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와 그곳에서 만난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언제나 따듯하게 반겨준 최충렬, 박은성, 길기환, 김산영,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특유의 꼼꼼함으로 거뜬히 문제를 해결해 준 현석이와 그의 아내 박현정 선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인집단학살을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논문은 작성자 혼자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논문을 심사해 주신 김기련 교수님, 류장환, 교수님, 최정기 교수님, 이덕주 교수님 그리고 김홍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인내심을 갖고 논문을 지도해 주신 김홍수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논문과 책을 탐독하면서 교수님의 주장을 공감할 수 있었고, 논문의 기초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주신 장인, 장모님 그리고 동생에게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작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조언을 아끼지 않은 황미숙 선생님과 용기를 주신 남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논문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내준 친구 송광석과 의견을 준 이성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기독교역사박물관 설립자 향산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동생을 돌보듯 보살펴 주신 이덕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쉴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치유, 화해, 통일 신학 잊지 않겠습니다.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과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조바심 때문에 다소 두꺼운 분량의 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채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강화 선원에서
최태육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목 차

국문요약 ····· iv

Ⅰ. 서론 ····· 1

1. 연구 동기와 목적 ····· 1

2. 선행 연구 ····· 4

3. 연구 방법 ····· 11

Ⅱ. 해방정국의 진영형성과 기독교 ····· 12

1. 진영론 ····· 12

2. 동·서 진영형성과 기독교의 동조 ····· 27

3. 미군정·이승만 정부의 정책 ····· 63

4.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상전 ····· 91

Ⅲ. 대구10월사건과 기독교인의 활동 ····· 126

1. 대구10월사건의 배경과 경과 ····· 126

2. 민간인 희생사건과 기독교인들의 활동 ····· 135

3. 조병옥의 진압정책과 기독교인들의 진영선택 ····· 149

Ⅳ. 여순사건과 기독교인의 활동 ····· 155

1. 사건의 전개와 분류 기준 ····· 155

2.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 ····· 166

3.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종교 논리 ····· 187

Ⅴ. 제주4·3사건과 기독교인의 활동 ····· 18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 제주4 · 3사건의 배경 ····· 189
2. 사건의 전개 ····· 198
3. 비인간화 ····· 219
4. 기독교인들의 활동 ····· 228

Ⅵ. 6 · 25전쟁 시기 민간인집단희생과 기독교인의 가담 ····· 245
1. 학살의 논리와 국민보도연맹원 분류 ····· 245
2. 개전(開戰) 직후 민간인희생 사건과 정부의 조치 ····· 252
3. 내무부 치안국과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 266
4. 육군정보국 방첩과와 군 · 검 · 경합동수사대 ····· 291
5. 개전초기 민간인희생 사건과 CIC의 활동 ····· 311
6. 낙동강 전선 형성기 CIC의 활동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323
7. 학살에 가담한 지휘 · 명령 체계 속의 기독교인들 ····· 339
8. 지역별 학살 사건과 기독교인들의 활동 ····· 356
9. 민간인희생 사건에 가담한 종교적 논리 ····· 374

Ⅶ. 6 · 25전쟁 시기 기독교인 희생 사건 ····· 402
1. 김화 · 철원지역 ····· 402
2. 강화지역 ····· 417
3. 병천 · 염산지역 ····· 424
4.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배제 · 제거 정책 ····· 429
5. 진영을 넘어선 기독교인들 ····· 436

Ⅷ. 결론 ····· 443
참고문헌 ····· 448
영문요약 ····· 47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표

<표 1> 국민회 출신 기독교인 ····· 113
<표 2> 해방 이후 각 지역 국민회 회원들의 활동 ····· 119
<표 3> 경상북도 각 지역 국민회 · 청년연맹 결성시기 ····· 139
<표 4> 시기별 토벌사령부 ····· 156
<표 5>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이유 ····· 163
<표 6> 반군토벌전투사령부의 지휘 · 명령 체계 ····· 167
<표 7> 호남방면전투사령부의 지휘 · 명령 체계 ····· 168
<표 8>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 · 명령 체계 ····· 168
<표 9> 순천지역 여순사건 당시 국군 제3연대의 지휘 · 명령체계 ····· 170
<표 10> 국회양민학살보고서 ····· 224
<표 11> 제주4·3사건위원회 신고서 ····· 224
<표 12> 개전초기 내무부장관 · 치안국장 · 사찰과장 ····· 267
<표 13> 심사기준표 ····· 286
<표 14> 울진군 희생자 소속 잔체별 분포 ····· 288
<표 15> 육군 정보국 방첩과 명칭과 담당자 ····· 297
<표 16> 개전 전후 CIC 파견대 현황 ····· 299
<표 17> 방첩업무 당당 기관과 담당자 ····· 301
<표 18> 전쟁 전후 기독교출신 국민회원의 활동 ····· 387
<표 19> 신한청년회 임원 및 실형을 받은 회원 ····· 406
<표 20> 강화군 기독교인 희생자 ····· 421
<표 21> 사건유형별 피해자 현황 ····· 42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국문요약

남북분단과 6·25전쟁 시기(1945-1953) 민간인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연구

이 논문은 해방정국과 6·25전쟁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집단희생 사건과 한국기독교가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당시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을 상술하고 이것에 나타난 내적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상호 적대를 기조로 한 냉전의 진영논리라고 보았다. 이 진영논리는 자신을 긍정적 자아로,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하면서 이를 자신의 신앙체계 안에서 신념화 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이원론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진영을 선과 진리로,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악과 거짓으로 규정하는 이원론이 기독교의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였다.

"Ⅱ. 해방 직후 진영 형성과 기독교"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형성되는 과정과 냉전의 진영논리가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기독교, CCIA, WCC 일부 교단들이 이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했다. 이 진영논리는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과 부정적 타자를 배제·제거하여야 한다는 배타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군정·이승만정부와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한국 기독교인들은 부정적 타자로 분류된 특정집단과 개인을 붉은 용, 공산독균, 사탄의 진영 등과 같이 비인간화하기도 했다.

Ⅲ-Ⅵ에서는 남북분단과 6·25전쟁 시기 민간인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우선 당시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학살이 정책이었으며, 국가권력의 지휘와 명령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지침과 논리가 존재했다. 그것은 공산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진영논리이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편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다. 우선 국군·경찰·검찰 등 국가의 핵심권력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국민보도연맹원 결성을 주도하거나, 집단 살해를 지휘하고 명령한 기독교인들이다. 두 번째는 학살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이에 가담한 교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처형될 자를 분류하는 일에 주로 가담했다. 따라서 어떤 논리와 지침을 가지고 처형될 자를 분류하였는지 파악했다. 이 논문은 이것을 신념화된 냉전의 진영논리라고 보았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공산주의를 적대하는 배타적 신앙이었다. 배타적 신앙은 자신을 선으로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과 부정적 타자를 배제·제거해야 한다는 배타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민간인학살에 가담한 논리이고 이는 그들의 활동과 주장을 통해 확인되었다.

"Ⅶ. 6·25전쟁 시기 기독교인희생 사건"에서는 북한당국과 기독교인들의 갈등과 북한당국이 점차 기독교인들을 배제·제거 과정을 다루었다. 이러한 배제·제거 정책이 6·25전쟁 개전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살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도 냉전의 진영논리에 따라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한 것이다. 이는 북한 당국의 치안문서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한편 손양원, 서기훈, 강성갑 등은 진영을 넘어 양측 모두를 포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은 진영 논리에 동조·연동하기보다 기독교적 가치, 특히 십자가의 신앙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모두 순교하였다는 점과 그들의 희생이 자신과 입장이 다른 타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들은 약자에 대한 보호, 좌우와 남북의 화해, 용서의 삶을 살다 희생되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주제는 해방 이후 계속된 한국 사회와 기독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6.25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집단학살, 국민보도연맹원, 냉전, 진영논리, 동조, 연동, 부정적 타자, 경직된 이원론, 비인간화, 순교.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서해 끝 교동이라는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던 중 6·25전쟁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접하면서 받은 충격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기독교인들이 민간인학살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집단희생사건과 한국교회의 관계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충격은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평화와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왜 분쟁과 폭력에 익숙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했다.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논문이 준비되었다.

지난 11년 동안 전쟁과 학살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살해되었는지, 왜 희생되었는지를 들어왔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쳐버릴 만큼 평범한 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했다. 이것을 인지할 무렵 민간인학살에 일정한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가해자의 지침인 동시에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와 논리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 학살을 명령한 지휘자의 지시와 명령에는 일정한 지침과 논리가 존재했고, 이를 실행하는 군·경·민간인단체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관철되었다. 이 논리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민간인집단희생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논리를 진영논리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세계2차 대전 이후 진영논리를 매개로 국가권력, 정치단체, 사회단체, 종교·문화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서로 동조·연동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진영을 형성했다.[1] 국가권력과 정치단

1) 엘리엇 에런슨, 『사회심리학』 , 이훈구 외 역 (서울: 탐구당, 2010), 21, 35-37. 에런슨(Alliot Aronson)에 의하면, 동조는 특정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실제, 혹은 가상의 압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동조는 순종, 동일화, 내재화의 과정을 거친다. 동일화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는 욕망의 반응이다. 내재화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믿을 만하고 훌륭한 판단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면, 그가 주장하는 신념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가치체계 속에서 통합한다. 따라서 동조는 타자의 논리와 사상을 받아들여 이를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타자의 논리와 신념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수동적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자신의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체는 물론 사회단체와 종교·문화단체 그리고 개인들 까지도 자신의 진영의 논리를 기준으로 진영 밖의 사람과 진영 안의 사람을 분류했다. 이것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이에 대해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마치 거대한 자석이 생겨나 대부분의 국가들, 심지어는 그 국가들 내에서의 집단들이나 개인들까지도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서 발생되는 역장(力場)을 따라 정렬" 되었다고 했다.[2] 진영의 논리는 단순한 말과 글이 아니라, 사람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진영논리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생존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소와 같은 세계 패권국과 각 국가의 권력은 물론 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단체와 개인들까지도 진영의 논리에 동조·연동하면서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다. 따라서 진영의 각 구조들은 수동적인 지침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체화한 진영논리를 토대로 능동적으로 활동했다. 정치에서는 이를 정치이념(理念)으로, 종교에서는 이를 종교적 신념(信念)으로 변형시켰다. 그러기에 진영논리를 중심으로 상호 동조와 연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이 논리는 양극화라는 경직된 이원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디스에 의하면, 근대 역사에서 가장 극명한 정치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양극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였다. 경직된 이원론, 즉 진영을 구별하는 선은 상호 적대를 표방한 미국과 소련의 냉전논리였다. 냉전의 논리는 각 진영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근거였다. 트루먼이 말한 것처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개의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3] 냉전 초기 자신이 속한 진영에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존재들은 진영의 안전보장을 위해 배제·제거되었다. 먼저 진영의 안전과 생존보장을 위해 진영의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존재들은 특정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즉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분류의 기준은 공산주의 적대, 혹은 제국주의 적

신념과 동일화되었을 때, 매우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2) 존 루이스 개디스,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박건영 역 (서울: 사회평론, 2003), 60.

3) Harry Truman, "President Harry S. Truman's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Congress," March 12, 194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대라는 냉전논리였다. 따라서 냉전의 논리는 경직된 이원론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진영논리와 결합되었다.

분류의 기준이 된 냉전의 진영논리는 객관적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생존과 안전을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말처럼 튼튼한 벽 속에서 타자를 판단하고 규정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분류·제거된 사람들 중에는 애매한 사람들이 많았다. 확실한 자신의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논리로 규정되고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판단의 기준이 희생자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보다 가해자와 그가 속한 진영의 안전과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에 따라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개인과 집단은 부정적 타자로 규정되어 배제되었다. 당시 가해자, 피해자,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이 애매한 사람 많이 죽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생존, 분류, 애매한 사람의 희생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많이들은 단어들이었다. 이 개념들을 토대로 경직된 이원론과 동조·연동의 속성을 가진 냉전의 진영논리라는 개념을 유출할 수 있었다. 냉전의 진영논리는 생존의 경쟁자인 타자를 부정함으로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타자부정을 통해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냉전의 진영논리의 속성이다. 그러나 진영이 경직되거나 극단화되었을 때, 양진영이 서로를 대체하려는 "대체주의"(supersessionism)가 발생했다.[4] 대체주의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은 반대편으로 규정하는 배타적 속성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냉전의 진영논리와 동조·연동한 기독교의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6·25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을 지배하는 논리는 서로를 적대하는 경직된 이원론으로 이것은 냉전의 진영논리로 나타났다. 경직된 이원론은 한국교회일부 세력이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관여하는 회랑(回廊)의 역할을 했다. 냉전의 진영논리에 나타난 경직된 이원론과 한국교회

4) 존 도커,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 신예경 역 (서울: ㈜알마, 2012), 25-26. 도커는 라파엘 렘킨의 제노사이드, 대체주의, 피해자학, 선민, 약속의 땅 등의 용어를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대체주의는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파괴적인 신념의 하나로, 역사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든 특정한 민족과 집단이 다른 민족을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대체해야만 한다는 관점."이라고 하였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일부세력이 갖고 있던 극단적 이원론이 상호 동조·연동한 것이다. 냉전의 진영논리는 부정적 타자를 적으로 자신과 입장을 같이하는 진영을 아군으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일부기독교인들은 이 논리를 신념화하는 가운데 적을 악마로 자신을 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모습을 보였다. 적과 아군이라는 이원론과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마로 규정하는 기독교의 이원론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원론에 바탕을 둔 기독교의 배타성은 한국기독교 초기부터 나타나는 두드러진 신앙양태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민간인학살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냉전의 진영논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민간인학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냉전의 진영논리와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논리가 어떻게 상호 동조·연동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기독교인들이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에 개입하게 된 종교적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 연구

해방정국과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집단희생은 인민군·정치보위부·내무서·자위대 등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과 군인·경찰·우익단체에 의한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우선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군인·경찰·우익단체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문헌과 기독교와 민간인희생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참고했다.

첫째,『한국기독교수난사화』, 『한국기독교수난사』,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6·25전란의 순교자들』,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등은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대부분 순교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였다. 『6·25공산남침과 교회』는 전쟁과 민간인희생에 대 내용을 담았고, 윤정란의 “6·25전쟁 기 염산면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은 기독교인들의 희생사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분 실증적 연구부족과 신념에 의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 기록으로 인해 사건의 발생배경 · 경과 ·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순교 외에 다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논문과 기록이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희생을 분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발생한 기독교관련 사건과 북한당국의 보안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제정책이 냉전의 진영논리를 타고 기독교인 희생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기독교일부세력과 북한당국과의 갈등과 이어 발생한 기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제정책이 북한지역뿐 아니라 개전(開戰) 이후 남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피해자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두 번째, 6·25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구10월사건을 거치면서 상호 적대적인 진영이 형성되는 과정과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했다. 정해구의 『10월 인민항쟁 연구』, 정영진의 『폭풍의 10월』, 심지연의 『대구10월항쟁 연구』는 대구10월사건을 폭동과 인민항쟁으로 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항쟁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인희생에 대한 실증적 연구보다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에 발표한 「대구10월사건관련 민간인희생사건」과 김상숙의 “한국전쟁 전 대구경북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실태와 특징 :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는 대구10월사건 당시 민간인희생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국가권력 · 사회 · 정치 · 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제주4 · 3사건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는 2003년 발행한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4·3사건의 발발원인, 사건의 경과, 희생자, 가해주체, 진압상의 문제, 연좌제 등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와 피해자 · 참고인들을 조사하였다. 이후 이 위원회와 관련단체는 4·3사건을 분석하는 작업과 추모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정근식이 발표한 “집단적 기억의 재생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복원”, 권귀숙의 “제주4·3의 기억들과 변화”,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연대운동의 가능성 – 제주도의 역할” 등은 집단학살에 대한 기억과 그 변화를 분석함과 아울러 4·3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평화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권귀숙의 “대량학살의 사회심리–제주4·3사건의 학살 과정”은 4·3사건을 우리편과 적을 구별 짓는 배제정책과 폭력문화의 상호관계 속에서 바라보았다. 4·3사건의 내적논리를 찾고자 한 것이다. 폭력의 내적논리를 탐구하였다는 점과 배제정책과 관련된 그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이 논문은 당시 무장대와 이에 동조한 중산간마을 주민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한 논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 분류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것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럴 때 제주도주민들에 대한 학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력문화라기 보다 냉전의 진영논리를 반영한 배제정책이라고 보았다. 특히 냉전의 진영논리가 경직되면서 나타난 비인간화현상, 즉 주민들을 문화적으로 종 분화하는 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허준호의 “냉전체제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와 제주4·3사건 전후로 생성된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 그리고 남한의 유력 정치인과 관료들의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여순사건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종 보고서와 연구 자료를 분석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발행한 「여순사건 피해실태조사보고서」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여수지역 여순사건」, 「보성·고흥 지역 여순 사건」, 「구례지역 여순 사건」, 「순천지역 여순사건」등의 보고서는 여순사건의 발생배경·경과·결과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당시 발생한 민간인학살의 일부를 규명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하기 전 발표된 노영기의 “여순사건과 육군의 변화”, “여순사건과 구례–여순사건 직후 군대의 주둔과 진압을 중심으로”, 김득중의 “여순사건과 이승만반공체제의 구축”, 최정기의 “국가형성과정에서의 국가폭력” 등은 여순사건이 군·국가권력·이념의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 즉 이 사건을 통해 군과 권력자가 어떻게 국가권력과 통치이념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당한 진척을 보았다. 그런데 학살에 참여한 수많은 협력자들이 어떤 생각과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협력했는지, 이것이 이후 사회 각 집단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용한 내적 논리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겼다. 여순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규모 지역주민들을 학교와 넓은 공터로 소개하고 이들 중 반군협력자를 분류하는 모습이다. 당시 적용된 분류의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이를 적용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들의 활동에 나타난 논리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희생사건에서는 이 사건을 지휘·명령한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현장에서 분류를 포함하여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지휘·명령자의 지시에 나타난 지침과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 사건에 개입한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평상시 그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 기독교일부세력의 사상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보도연맹원·부역혐의자·형무소재소자 사건 등 6·25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희생사건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한 규명은 1960년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자유당 중앙당 사무실에서 결성된 전국유족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 유족회의 노력으로 제4대국회에서 구성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것은 8,715명에 대한 희생경위, 가해기관, 시기, 장소,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 등을 담았다.

1986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 교육부장으로 “6·25때 미군은 무수한 우리 동포를 죽였다.(노근리 학살사건)”는 내용의 편지를 학생들에게 보낸 오연호는 1994년 「말」 7월호에 “6·25 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00여 명 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한 1992년 월간 「말」 2월호는 “대전형무소 4천 3백 명 학살사건”을 보도했다. 조성구는 1990년 “경남·전남지역의 보도연맹원·양민학살”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부산일보 기자 김기진은 그간의 조사를 토대로 2002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을 발간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기자들과 각 지역 연구자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했고, 여수순천 · 대전 · 고양 · 해남 등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각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가 2005년 발행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실태보고서』는 전국 민간인학살사건의 대략을 수록하였다. 국회가 2005년 5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 조직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원사건 등을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문헌들은 주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사건과 지휘명령체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청사건에 대한 개별적 조사와 결정은 이루어졌으나 국가권력기관의 처형지시 및 집행에 관한 사실규명은 미진했다. 개전 직후 치안국장의 처형지시에 대한 추정치와 육군정보국 방첩과의 부분적 활동만을 확인하였다. 민간인 학살은 전쟁 중 국가권력의 정책에서 비롯된 사건이기에 권력자와 권력기관의 현실인식,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논리와 정책, 집행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최종 권력자의 학살지시 목적과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지휘명령체계의 핵심인 육군정보국 방첩과(CIC)와 내무부 치안국이 어떻게 이 명령을 실행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학살의 내적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서에는 민간인희생과 한국교회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내용이 일부 담겨있다. 이런 내용은 한국교회가 민간인희생에 개입하게 된 내적 논리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민간인희생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분석하였다. 김동춘의 『전쟁과 사회』, 제노사이드 학회가 2007년에 발행한 『제노사이드 연구』, 전갑생의 “경남지역 민간인 학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병준의 “한국전쟁 초기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 · 학살사건의 배경과 구조”, 강성현의 “전향에서 감시 · 동원, 그리고 학살로”, 홍순권 등이 저술한 『전쟁과 국가폭력』은 민간인학살 사건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비해 서동수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는 정치 · 사회라는 거시적 시각을 벗어나 문학이라는 정해진 범주에서 부역자 처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리의 내적 논리는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부역자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논리, 즉 작가들을 지배하던 내적 논리가 반공프로젝트와 이를 내면화 한 고해성사이었다고 보았다. 이 고해성사는 문학의 내용을 형성하여 이후 한국 문학계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처럼 학살의 내적 논리를 탐구하는 연구방법은 해외연구에서 발견된다.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나치 협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슈테판 마르크스(Stephan Marks)의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은 동조, 협력자, 연동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1차 세계대전패배 직후 독일의 경제 · 정치 · 사회 붕괴와 민족적 수치심은 독일국민들로 하여금 히틀러와 그가 제시한 제3제국에 대한 열망을 갖게 했다고 보았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튼튼한 벽에 갇혀 벽 밖에 있는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지 않는 것이 홀로코스트의 출발점이이라고 했다.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슈테판 마르크스의 주장을 심리 실험을 통해 확인해 주었다. 그의 실험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수동적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자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는 이를 대리자적 상태로 설명했다. 이 세 사람의 주장은 튼튼한 벽, 즉 진영에 갇힌 존재는 권위자의 지시에 충실하게 협력한다는 가설을 제공해 주었다. 진영의 논리와 통제에 갇힌 존재가 이를 자신의 신념으로 내면화 했을 때, 극단적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학살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공했다. 이것은 민간인희생사건과 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논리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제인 구달(Jane Gudal)은 『희망의 이유』에서 곰배의 침팬지들의 전쟁과 잔인한 폭력을 언급한다. 카사켈라 침팬지 공동체가 카하마 공동체를 멸족시키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적 종 분화와 비침팬지화에 관심한다. 그녀는 잔인한 폭력과 문화적 종분화가 생존을 위한 집단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제인구달이 생존동기에서 폭력의 기원을 파악했다면, 존 도커(John Docker)는 문화적 동기에서 폭력의 기원을 본다. 그는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에서 서사와 폭력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수천년 동안 내려온 서사 속에 담긴 인간의 생각과 이를 반영한 문화가 폭력의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기원이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얀 아스만(Jan Assman)의 『이집트인 모세』는 폭력은 구별, 즉 자신에 대한 긍정과 타자에 대한 부정이라는 경직된 이원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 자아로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구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이 구별의 동기는 생존과 생각(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폭력의 동기는 생존과 이를 담고 있는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흥수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는 충분히 분석되어져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생존과 문화, 즉 생존과 종교를 연결지우기 때문이다. 그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의 설교, 논문, 관련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전쟁경험과 그 충격이 생존을 사유와 행동의 근거로 삼게 하였고, 이것이 기복신앙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생존과 기독교의 신앙을 연결시켰다는 점은 주의 깊게 분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당연히 전쟁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대두된다. 그는 전쟁의 충격에 의한 생존 본능이 먼저고, 이를 반영하여 나중에 기복신앙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자는 시기적으로 그 역관계에서 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항상 존재했다. 생존 본능은 냉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책에 반영되었고, 한국에서 해방 직후와 냉전이 열전으로 바뀐 6·25전쟁에서 국가권력과 이에 동조·연동하는 집단들의 정책지침에도 반영되었다. 한국교회일부세력도 이 지침에 동조연동하면서 생존의 조건들을 만들어 갔다. 특히 북한에서 기독교가 생존할 수 없다고 파악한 월남 기독교인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기독교인들, 군·경·검·정치단체 소속 기독교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상전을 전개하면서 기독교의 생존조건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독교일부세력의 사상전은 개전(開戰) 이전부터 존재했고, 미군정과 국가권력의 정책지침에 따라 전개되었다. 즉 냉전의 진영논리와 이에 근거한 정책을 신념화하는 과정에서 사상전이 전개되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동조의 결과였다.

해방 후와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집단희생과 한국교회의 관계는 순교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기억된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인 희생에 집중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관련 기록을 통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순교 외에 다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반면 민간인희생에 대한 일반학계의 연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여 이에 대한 일부 성과를 이루었으나 사건의 내적논리가 무엇인지, 이 논리가 국가,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따라서 먼저 민간인희생과 한국교회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다음으로 그것의 내적 논리를 파악한 후, 이것을 해석하는 순으로 진행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서, 보고서, 기관 자료와 같은 문서자료와 관련사건에 대한 구술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경찰 관련자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등의 군 자료, 국가기록원 · 국립중앙도서관 · 통일부 · 국가보훈처 · 법원자료, 방송 · 신문자료, 국회와 지방의회자료, 구술 및 면담자료, 그리고 해외자료 등을 검토할 것이다. 해외자료들은 민간인희생사건의 간략한 경과를 알려주는 기록을 담고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대부분 간접적인 기록이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들은 군 · 경 · 국가기록원 · 보훈처 · 법원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또한 구술 자료는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검증이 필요하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민간인희생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북한과 한국 당국의 학살지침과 이것에 나타난 논리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이 지침과 논리가 한국교회의 어떤 세력에 의해 어떤 신앙양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6.26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을 조사 · 연구한 연구자들의 분석을 참조할 것이다. 또한 해외 제노사이드학자들의 논문을 참조하여 학살의 내적 논리를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Ⅱ. 해방정국의 진영형성과 기독교

1. 진영론

1) 진영론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서울에서 후퇴한 직후, 부산에 피난해있던 목회자들이 제주도로 후송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후송을 담당했던 강원룡 목사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것은 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장로들까지 몰려와 어떻게 목자들이 양떼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칠 수 있느냐면서 달려들어 수송선은 서로 먼저 타려는 목사와 장로들, 그 가족들로 마치 꿀단지 주변에 몰려든 개미떼처럼 혼잡의 극을 이루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타기 위해 앞에서 올라가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서로 먼저 타기 위해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했다. 상황이 이처럼 난리판이 되자 헌병들이 와서 곤봉으로 내리치며 질서를 잡으려고 해도 사태는 좀체로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곤봉을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 배를 놓치면 죽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 때문에 필사적으로 배에 달려들었다.[5]

1·4후퇴 당시 부산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행동 동기는 생존이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나 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3연대 2대대 7중대 소속 토벌군으로 참전한 한 군인은 민간인들이 많이 처형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순천 시내에 좌익으로 보이는 민간인이 많아,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6] 울진경찰서 온정지서 한순경은 6·25전쟁 당시 "부역혐의자를 죽이지 않으면 아군이 죽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역활동을 한 사람들은 마땅히 처단해야 했다"고 했다.[7] 여순사건과 전쟁을 지배하는 논리가 생존이었음을 말해준다.

---

5) 강원룡, 『빈들에서』 1 (서울: 도서출판 열린문화, 1993), 340-341.
6) 참고인 박충식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8), 263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런데 그 생존은 좌익과 부역혐의자를 배제·제거함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이었다. 좌익과 부역혐의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정치논리와 이에 근거한 정책지침에 의해 구별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 논리와 지침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1950년 7월 24일자 미군의 정기보고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토착민은 아군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반드시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8] 확실한 아군이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이다. 이것은 제임스 캐럴(James Caroll)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형성된 냉전의 논리를 "우리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고 표현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9] 바로 이 논리가 6·25전쟁을 관통하는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논리였다.

이 논문은 이를 진영논리라고 보았다. 진영논리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인물·집단·사물·사건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대상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다. 이 경우 판단하는 주체와 같은 진영에 속하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쉬운 반면, 주체와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10]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 사실보다 판단의 대상이 어느 진영에 속해있는지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진영론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진영론은 일종의 집단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제인 구달은 "한 집단 성원들(내부집단)이 자신들을 다른 집단의 성원들(외부집단)과 다르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집단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 다르게 행동한다." 고 했다.[11] 종교사회학자 이원규는 집합주의(collectivism)를 언급하면서 "집합주의는 내집단에 대한 연대감과 충성심을 촉진하지만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고 했다. 집합주의는 자신을 선택된 백성으로 타인을 열등한 존재로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어진다고 했다.[12]

---

7) 참고인 이재호 진술조서 (2008년 1월 24일): 진실화해위원회, 「울진 부역혐의희생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6월 3일) 62에서 재인용.
8) RG324 Entry 5AF, Box3579, INTEL 5TH AF [NoGunRi File No. 342.212]. 1950년 7월 25일에 작성된 정기보고.
9)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전일휘·추미란 역 (서울: 동녘, 2009), 214.
10) https://mirror.enha.kr/wiki. 2014년 9월 1일 접속.
11)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 박순영 역 (서울: 궁리, 2013), 171-172.
12)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도서출판 감신, 1998), 65, 100-10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따라서 진영론은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을 구별하는데서 출발하며, 이는 자신을 진실을 추구하는 우월적 존재로 인식하고 이에 동조·협력하지 않은 집단을 구별하여 타자화, 즉 부정적 타자로 구별하는 배타적 속성과 이원론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집단이 배타적 진영을 구성하고 자신의 진영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진영론의 첫 번째 특징일 것이다. 진영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생존 및 기득권 유지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생존과 기득권은 진영논리의 동인(動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영의 논리와 구조가 유연할 경우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정적 타자를 구별·분류한다. 그러나 공황, 전쟁, 폭동 등으로 진영의 논리와 구조가 경직되는 상황에서는 부정적 타자의 생명과 그 생존기반을 파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자는 경쟁의 구도 속에서 부정적 타자를 점차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후자의 경우 직접적인 배제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 타자를 구별하여 분류하는 것, 즉 타자구성이 씨족·종족·계급·민족·경제·군사·정치·종교·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듯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타자구성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구달은 구별된 "내부 집단들을 만들어 민족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확신, 종교적 믿음 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는 "전쟁이나 폭동, 갱 폭력, 그리고 다른 종류의 분쟁들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다.[13] 진영논리는 민족, 경제, 정치,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유지와 생존은 진영의 경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진영논리와 행동을 유발하는 영역들 즉 씨족, 종족, 계급, 민족, 경제, 군사, 정치, 종교,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영은 생존과 기득권유지를 위한 일정한 논리를 형성한다. 이 논리는 정치적 이념, 국가권력의 정책, 종교적 신념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이 논리를 매개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종교 집단이 서로 동조·연동하

13)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 173-17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면서 거대하지만 촘촘한 진영의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진영론의 두 번째 특징은 진영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과 집단들이 이 논리를 매개로 서로 동조·연동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슈테판 마르크스(Stephan Marks)는 "히틀러청년단, 독일소년연맹, 나치돌격대, 나치친위대, 국방군 나치당, 또는 나치의 다른 조직들의 구성원이나 지도적인 인사들처럼 당시 나치즘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는가? 그들이 나치의 제3제국을 인정하고 동조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왜 히틀러를 추종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14] 혹자는 추종자들의 "맹목적인 복종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거나 어떤 책은 추종자들에게 가해진 "강요"와 "압력"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업무상 세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행위의 결과를 조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총통에게만 초점이 고정되면서" 권력자의 강제와 추종자들의 수동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제3국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치즘에 헌신한 동기와 원인들"을 파악하지 못했다.[16]

그는 1차 대전 패배 이후 나치가 독일의 정권을 장악하고 독일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된 배경을 1차 대전 패배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국민들의 민족적 수치심에서 찾는다. "1차 대전에서의 패배, 베르사유에서의 '치욕적인 조약', 부분적인 무장해제, 부채, 빈곤, 경제위기, 화폐가치의 하락, 실업,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허약 등과 같은 이 모든 사실을 많은 독일 국민들은 명예의 훼손이자 모욕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치의 프로파간다가 독일 국민들의 "수치심을 방어해주며 그 수치심의 방어를 정당화"해 주었다. "수치심의 방어는 히틀러와 독일인의 이상화('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지배자 아리아 인종')와 세계지배자라는 위대한 환상, 독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약속 등을 통해," 그리고 "유

14) 슈테판 마르크스,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 신종훈 역 (서울: 책세상, 2009), 21-22.
15) Ibid., 23.
16) Ibid., 55-5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대인 시민들을 포함해 나치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17]

> 나치즘은 추종자들에게 수치심을 방어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정당화해줌으로써,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독일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수치심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화할 수 있었다. 개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들의 수치심을 투영한 대표 그룹은 유대인 집단이었다. … 수치심을 품고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수치심을 외부로 이전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수치심을 떨쳐버려서 수치를 모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파렴치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8]

1차 세계대전의 패배는 독일민족에게 경제적 파탄과 패배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이것을 일시에 해결한 것이 나치의 제3제국이라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나치즘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제3제국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연동했다. 슈테판은 이러한 현상을 히틀러와 추종자들의 공모로 설명한다. 즉 "나치즘 추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제3국'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 속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마치 납땜을 하듯이 메울 수 있었다. 그리고 나치즘의 입장에서 볼 때 … 추종자들의 자아도취적 욕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9]

한편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은 권위적 체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지 파악했다. 그는 이것을 권위자의 명령과 지시에 대한 피험자의 복종의 정도를 파악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20] 그는 실험

17) Ibid., 134-135.
18) Ibid., 149-150.
19) Ibid., 174.
20) 스탠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정태연 역 (에코리브르 출판사이야기, 2009), 57-77. 밀그램은 1명에게 최소 15볼트에서 최고 450볼트까지 총 30단계에 걸친 전기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하였다. 피험자가 권위자(지시자)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희생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다. 중간단계인 300볼트에서 희생자가 벽을 치고 315볼트에서는 더 이상의 응답이 없고 쾅쾅치는 소리도 나지 않아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40명 중 26명의 피험자가 450볼트까지 전기충격을 희생자에게 가했다. 그 결과 사람은 타자의 생명이 위험해도 권위자의 지시에 충실하게 복종하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을 통해 피험자들의 극단적 자발성이라는 예상 못했던 결과를 얻었다.

> 놀라운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실험자의 지시에 너무나 기꺼이 따른다는 점이다. 실제로, 실험의 결과는 놀랍고도 당혹스럽다. 많은 피험자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실험자에게 항의를 하지만, 상당수의 피험자가 전기충격기의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한다. … 희생자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애원하더라도 많은 피험자들은 실험자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우리의 실험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고, 이 실험을 반복한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의 근간이고 또한 가장 긴급하게 설명해야 할 점은 권위의 명령에 끝까지 따르려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자발성이다.[21]

그는 극단적 자발성에 빠진 사람들의 궁극적 형태를 대리자적 상태(agential state)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즉 대리자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갖지 않으며 스스로를 다른 소망을 달성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22] 이에 대해 밀그램은 이 연구는 “잔인한 처벌을 통해 순응을 강요받는 박해자의 복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응하는 사람들의 복종” 을 다룬 것이라고 했다.[23]

슈테판 마르크스는 나치에 대한 수동적 복종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추종, 즉 동조와 연동이 있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그런데 동조와 연동은 나치가 제시한 제3제국의 논리, 즉 진영논리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밀그램은 이를 대리자적 상태에서 발현되는 극단적 자발성이라고 보았다.

진영론의 세 번째 요소는 진영적 사고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적극적 자발성을 유발하는 것이 진영적 사고에서 출발하며 그것이 홀로코스트의 출발점임을 주장한다. 그녀는 진영이라는 단어가 아닌 튼튼한 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녀가 저술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는 진영논리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인간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같은 책 79-197 참조).

21) Ibid., 30-31.

22) Ibid., 196-197.

23) Ibid., 24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아렌트는 이 책에서 나치즘의 폭력성을 아이히만(Adolf Otto Eichmann)의 재판을 통해 조명한다. 그녀는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bility of evil)”[24]을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출발점이자 원인으로 보았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전문가로 통했던 독일군 나치 친위대의 중령이었다. 그는 제2차 대전 초기 유대인을 해외로 이주시키거나 추방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어 전쟁이 확대되면서 유대인들의 해외 이주가 불가능해지자 유대인을 집단 수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담당했다. 그리고 전쟁 말기에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등 학살 장소로의 이송하는 책임을 맡았다.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현장 지휘자는 아니었지만, 학살 현장까지 수백 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송한 장본인이었다.[25]

예루살렘 재판부는 아이히만 “자신이 사악한 동기에서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니고, 누구를 죽일 어떤 의도도 결코 갖지 않았으며, 결코 유대인을 증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으며, 또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26] 아이히만 자신도 단 한 사람의 유대인도 죽이지 않았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27]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톱니바퀴의 하나의 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유대인들을 학살 장소로 이송하는 역할만하였고, 이것은 제3제국의 법과 지시를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다.[28] 아렌트는 그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송 후 집단 살해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파악했다.

---

24)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김선욱 역 (서울: 한길사, 2006), 349.

25) Ibid., 230. 최종해결장소까지 이송 명령은 하인리히 힘러→제국중앙본부장 칼텐부르너→제국중앙본부 제Ⅳ부 케슈타포 대장 뮐러→제Ⅳ부-B-4부 아이히만으로 전달되었다. 친위대 제국지휘관 하인리히 힘러가 이송명령을 문서 형태로 칼텐부르너에게, 칼텐부르너가 뮐러에게, 뮐러가 구두로 아이히만에게 전달했다. 유대인을 처형, 사역, 생존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힘러가 결정했고, 이 명령은 오스발트 폴의 행정경제본부를 거쳐, 죽음의 수용소 검열관인 리하르트 글리크스에게 전달되었으며, 글리크스는 이를 수용소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26) Ibid., 380.

27) Ibid., 303

28) Ibid., 209, 23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아렌트가 파악한 것은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 동안 관청용어(Amtssprache)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종해결책(집단학살), 재정착(이송과 수용) 등 암호화된 용어들만 사용했다. 또한 그 스스로도 재판정에서 "관청용어(Amtssprache)만이 나의 언어입니다." 라고 했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말하는 데 무능력(inability to speak)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inability to think)" 을 의미했다. 이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 하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그가 말(the words)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the presence of others)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29]

튼튼한 벽에 갇힌 아이히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벽 밖에 있는 타자와의 소통이나 공감이 없었다. 인간에 대한 학살 역시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튼튼한 벽은 무엇인가? 아이히만은 이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였다. 히틀러의 "성공만으로도 제게는 이 사람에게 복종해야만 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라고 하였다. 관용어의 실체는 제3제국이 좋은 사회라는 확신, 그리고 그 제국의 최고 권위자인 히틀러에 대한 복종(obedience to authority)이었다. 그는 제3제국이라는 권위적 정부의 정책 지침과 명령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였다.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제3제국이라는 튼튼한 벽, 즉 제3제국이라는 진영에 갇혀 그 제국의 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그 정책에 따라 행동했다. 그의 진영적 사고와 행동은 타자에 대한 사고를 멈추게 했고, 진영논리와 정책지침에만 충실하게 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 학살의 출발점이었다. 이럴 때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튼튼한 벽, 즉 제3제국의 진영논리와 정책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영적 사고는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생존과 기득권유지는 진영 형성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영의 권위적 체계에 대한 복종은 수동적인 속성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자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자발성은 진영론에 대한 동조와 연

29) Ibid., 106-10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동을 통해 나타난다. 또한 진영적 사고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진영이 지니고 있는 논리(정치적 이념과 정책, 문화, 종교적 신념 등)에 충실하게 하는 반면에 진영논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차단한다. 진영적 사고는 내집단(in-group)에 대한 연대감과 충성심을 촉진하는 반면에 외집단(out-group)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하여 이들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진영적 사고는 자아에 대한 긍정과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는 이원론적 속성을 갖고 있다.

2) 이원론과 타자 구성

얀 아스만은 구별이라는 개념으로 이원론을 설명한다. 이원론은 진리와 거짓 간의 구별이다. 그는 제노사이드의 종교·문화적 배경을 주목하면서 유일신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 구별을 기억사적으로 탐구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부정한 데서 탄생했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극복했던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즉 "이스라엘은 진리"이고 "이집트는 거짓"이라는 구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30] 구별은 자아를 진리와 선으로 타자를 거짓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는 자기 집단을 긍정적 자아로, 자기 집단과 다른 입장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분류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구별은 부정적 타자를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타자 화된 집단을 구성하는 타자구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스만과 마찬가지로 이원규도 부정적 타자에 대한 규정·분류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종교적 이원론에서 찾고 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로 구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이원론이 강화된 상태를 종교적 특수주의라고 했다. 종교적 특수주의는 내집단이 진리·지식·선함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와 다른 것들은 어리석고 사악하다는 것이다. 이 종교적 특수주의가 강화되면 내 집단과 다른 입장을 가진 타집단에 대해 적대감과 배타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31]

30) 얀 아스만,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변학수 역(서울: 그린비, 2009), 22-24, 2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는 종교적 배타성에 기초한 이원론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때로 이들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보았다.

이덕주는 이러한 종교적 배타성에 기초한 이원론이 한국교회 초기 신앙양태 중에 하나였다고 했다. 그는 초기 한국기독교의 신앙양태를 분석하면서 종교적 배타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는 통합지향적 신앙, 분리지향적 신앙, 변혁적 신앙의 양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중 분리지향적 신앙은 기독교우월주의 입장에서 토착종교와 문화를 우상으로 폄하하며 서구 기독교 전통을 모방하려는 자세이다. 자신의 입장을 선으로 타종교, 타문화, 타 집단의 윤리를 마귀 등으로 규정하는 배타적 속성을 보인다는 것이다.[32]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의 신앙양태 중에 배타적 속성을 지닌 이원론이 존재했다. 또한 이원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양태를 분석하였다. 한국교회가 타 종교에 비해 배타적 속성이 강하다는 주장과 함께 “나의 종교 진리만을 인정하고 타종교(혹은 타 교파)의 진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종교적 배타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종교적 배타성은 모든 옳은 것은 우리와 동의어로, 모든 그른 것은 그들과 동의어로 하는 경직된 이원론의 형태를 띤다고 보았다.[33] 이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이 한국기독교의 신앙양태 중에 하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집단을 긍정적 자아로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구별하는 것은 종교(아스만), 한국기독교(이원규, 이덕주)에 국한 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한국의 정치·사회·군사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1946년, 남선(南鮮) 순행 이후 가장 확실한 이승만의 정치조직이 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국민회)에 대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1948년에 발행한 『해방죠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만일에 그 세력 밋흐로 드러가지 안코 그 독직적 힝사와 봉건적 틱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잇스면 좌익이라고 혹은 공산당이라고 지명하야 반박하고 심지

31)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101-103.
32)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30-31, 267-372.
33)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100-10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어 테로단으로 탄압 ᄉᆡ지하며 군정과 경찰은 극우파의 총ᄌᆡ(이승만-인용자)를 동정하니 극우파의 정ᄎᆡᆨ을 반대하고는 견대기 어려울만치 되어서….[34]

국민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공산주의자, 즉 적으로 규정되었다. 정확하게 국민회의 입장이 아니면, 적이라는 진영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제주군정청 법무관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대위도 국민회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내 놓았다. 1947년 4월 제주도지사로 임명된 유해진(柳海辰)에 대해 "제주도지사는 심지어 한독당이나 독립촉성회의 사소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동적으로 좌익분자로 가정하는 극우의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35]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경직된 이원론은 당시 가장 유력한 정치단체인 국민회의 정치적 이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서있는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여 특정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이 분류는 일회적이거나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타자구성으로 구체화되었다.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진영논리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 적대를 매개로 한 것이었다. 이 공산주의 적대를 매개로한 진영논리는 사회, 경제, 정치, 종교에 깊게 자리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950년 4월 사설에서 "요구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빨갱이, 사감(私憾)이 있으면 빨갱이, 같이 사업하다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다른 쪽을 빨갱이, 정치노선이 달라도 빨갱이라고 몰아대어 사람들이 언제 어떤 모략에 걸릴지 안심하고 지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36]고 했다. 이러한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적대는 구체적인 타자구성으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보도연맹원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34) 미주라셩과 하와이재미한국련합위원회 집행부, 『해방죠션』 (미국: 미주라셩과하와이재미한국련합위원회 집행부, 1948), 18.

35) "Opinion of Political Situation in Cheju Do as of 15 November 1947," November 21, 1947,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36-137에서 재인용.

36) 「조선일보」 (1950년 4월 1일): "모략과 중상을 버리자,"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서울: 역사비평사, 1999), 681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평시 공산주의적대라는 진영논리에 의해 구성된 타자는 전시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확실하게 배제·제거되는 과정을 거쳤다. 육군정보국 방첩과(CIC) 장교는 6·25전쟁 개전(開戰) 직후 CIC의 역할이 빨갱이를 잡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했다.[37] 그런데 빨갱이라는 타자를 규정하는데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대해 한 미군 보고서는 "한국 CIC는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아닌 반대자들 까지도 아무런 재판 없이 수많은 처형을 저질렀다."라고 했다.[38] 즉 확실한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 반대편으로 규정하는 진영논리가 대규모 집단학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CIC에 국한된 논리만은 아니었다. 앞에서 토착민은 아군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반드시 적으로 간주하라는 1950년 7월 24일자 미군의 정기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확실한 우리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는 6·25전쟁 당시 미군의 전쟁논리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진영논리는 자신의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반면, 이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한다. 타자규정은 평시 경쟁, 갈등, 정치적 배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폭동, 혁명,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타자로 규정되었던 개인과 집단은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제거된다. 여순사건의 반군협력자, 제주4.3사건의 무장대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정적 타자 규정, 분류, 배제, 제거를 관통하는 논리는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근거한 진영논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영논리는 종교·한국기독교·정치·경제·사회·문화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었다.

이처럼 민족, 종교, 정치집단 등 한 집단이 갖고 진영논리에 근거해 규정된 부정적 타자를 배제·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특정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타자구성이라고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자구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반군협력자, 무장대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이라고 할 수 있다.

---

37) 장경순 구술녹취 (2009년 3월 4일).

38) NARA, RG319 "CIC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Box6. CIC school, Fort Holabird, 볼티모어, 'Counterintelligence Corps operation in Korea, 1951.11.15. 진실화해위원회,『국민보도연맹원 사건』(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1월), 199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3) 극단적 이원론과 비인간화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원론에 근거한 진영논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타자를 비인간화하는 극단적 이원론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제인 구달(Jane Gudall)은 이를 문화적 종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에 속하는 한 집단이 타집단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인간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적으로 종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탕가니카 호수에 접한 곰베에서 25년 동안 카사켈라 계곡의 침팬지를 연구하였다. 특히 『곰베의 침팬지』 제17장 "영역"에서 카사켈라 침팬지 공동체와 이 공동체에서 1972년에 분리되어 나간 카하마 공동체 간에 발생한 폭력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문화적 종분화 현상을 설명한다. 카사켈라 공동체는 4년(1974년-1978년) 동안 카하마 공동체를 잔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그 결과 카하마 공동체는 멸족되었다.[39]

구달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침팬지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카하마 공동체에 속한 "골리앗을 공격한 카사켈라 다섯 마리의 수컷 침팬지들은 한때 카사켈라 계곡에 함께 거주한 종족이었고, 이들은 서로 털 고르기를 해줄 정도로 친숙"했었다. 그러나 이 다섯 마리 침팬지들은 늙은 골리앗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치고, 물고, 끌고, 한쪽 다리를 계속해서 뒤틀"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처럼 카하마 침팬지들에 대한 카사켈라 침팬지들의 "공격 패턴은 집단 내의 싸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카하마의 희생자들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져나가고 … 사지가 뒤틀렸다. 심지어 공격자는 희생자의 피를 마시기도 했다." 구달은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종분화, 즉 비침팬지화라고 하였다.[40] "한 집단의 성원들(내부 집단)이 자신들을 다른 집단의 성원들(외부 집단)과 다르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집단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문화적 종분화가 극단적으로 되면, 외부 집단의 구성원들을 비인간화"하고, "그

39) Jane Gudall, *The Chimpanzees of Gombe: Patterns of Behavior*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86), 500, 504-514.
40)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 17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들을 다른 종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집단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타자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았다.[41]

그런데 문화적 종분화는 인간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오히려 인간사회에서의 문화적 종분화는 “고도로 발전”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별된 내부 집단들을 만들어 민족적 배경, 사회 경제적 지위, 정치적 확신, 종교적 믿음 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내부 집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도시나 시골, 마을, 학교, 이웃으로부터 타자를 배제”시키는 것이다.[42] 그녀는 “내부·외부 집단 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외부집단에 대한 배제가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러한 사례로 르완다, 부룬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북아일랜드, 앙골라, 소말리아에서 민족적·정치적·종교적 증오가 발생했고, 이것이 수백만의 대량 학살 또는 인종 청소로 이어졌다.[43]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집단에 대한 문화적 종분화, 즉 비인간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구달의 연구가 비인간화의 출발점과 근원을 보여주었다면, 허시(Herbert Hirsch)의 핵 제노사이드는 인류 사회의 가장 발달된 비인간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NSC)는 소련에 의해 베를린이 봉쇄된 지 3개월 만인 1948년 9월에 NSC30을 정책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국가군사처(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가 국가 안보를 위한 핵무기 사용과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명시하고 있다.[44] 1950년 4월 7일에 「미국 국가 안보의 목표와 계획」이

41)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 171-172.
42) Ibid., 168, 173-174; Jane Gudall, *Ibid.,* 532: 존 도커,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 50에서 재인용.
43)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 174.
44) “United States Policy on Atomic Warfare” (NSC 30), *FRUS*, 1948, 2, 624-628; Jeremy Issacs and Taylor Downing, *Cold War* (Boston: Little Brown, 1998), 75; 제임스 캐럴은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전일휘·추미란 역(서울: 동녘, 2009), 255. 캐럴은 Cold War의 75쪽을 인용하면서 국가군사처(The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가 아닌 ‘전략공군사령부’(SAC)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문을 확인해본결과 ‘국가군사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국가군사처는 1947년에 설치되었는데 이전의 육군부와 해군부를 산하에 두었다. 1949년 공군부를 병합하여 국방부가 된다.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를 지휘한 거티스 르메이가 지휘하는 전략공군사령부는 핵무기 폭격을 담당했지만 이 사령부가 조직된 것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NSC68은 소련에 대한 기습공격(surprise attack)과 반격전(counter-attack)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소련의 타격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공격하여야 한다."고 했다.[45] 이 공격에는 소련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핵공격을 퍼붓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시는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에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다가 생존한 프리모 레비(Primo Levi)에 주목하였다.[46] 레비는 핵무기에 대해 경고하면서 "지구상의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릴 만한, TNT3-4톤에 맞먹는 핵폭탄이 비축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고 … 그것의 1퍼센트만 사용되어도 그 즉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모든 인간 종과, 아마도 벌레들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유전적 손상의 위험이 닥칠 것이다."고 하였다. 핵무기 사용은 적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적 진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적은 그 진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제거해야 할 정도로 절대적인 악, 혹은 결정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물리학자 이시도어 래비(Isidor Rabi)는 핵 제노사이드를 홀로코스트와 연결지운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유슈비츠 시체 소각실 앞의 사람들처럼 늘어서 있고, 그동안 우리는 그 소각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였다.[47] 원조 아유슈비츠의 생존자의 눈에는 아우슈비츠 시체 소각실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처럼 현대인들이 핵공격 앞에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레비는 핵을 적 진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핵무기는 적군이 아닌 적 진영에 속해있는 시민, 동물, 식물, 무기물을 멸족하거나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시도어 래비가 핵을 가장 강력한

은 1949년 3월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군사처로 추정된다.

45) "NSC 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53.

46) 레비는 1943년 9월 이탈리아 빨치산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12월에 체포되어 1944년에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47) Primo Levi, *The Drowned and the Saved* (New York: Summit Books, 1988) 165-166; G. Herken, *Counsels of War*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7) 346: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강성현 역 (서울: 책세상, 2009), 98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유대인을 비인간화 했던 독일의 이념처럼, 마찬가지로 핵을 사용하고자하는 국가는 핵공격을 당하는 적을 비인간화 한다.

타자를 절대적인 악으로,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으로 규정하는 논리는 한국의 기독인들의 주장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와 그 교회 집사 오제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한경직은 1949년 설교에서 "공산주의야 말로 일대 괴물"이고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비인간화 하였다.[48] 오제도도 마찬가지로 『적화삼삭구인집』의 서문(1950년 12월 14일 작성-인용자)에서 공산주의와 동조자들을 붉은 마귀라는 의미의 '적마'(赤魔)라고 했다.[49] 이는 한경직의 '붉은 용'과 같은 의미로 묵시록에 있는 사탄을 뜻한다. 이렇게 규정된 부정적 타자들을 국민보도연맹원으로 분류하였다. 국민보도연맹원은 일종의 타자구성이었다. 이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제를 받거나 제거되어야할 존재들이었다.

이처럼 경직된 이원론이 극단적 이원론으로 발전하면서 자신의 진영을 선과 의의 집단으로 타 진영을 적룡과 같은 악마, 혹은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극악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자구성이 국민보도연맹원처럼 구체적인 실체로 분류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분류라는 단어는 타자구성의 관청용어로 6.25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문맥에 따라 타자구성과 분류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겠다.

2. 동·서 진영형성과 기독교의 동조

냉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세계는 상호 대립하는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분리되었다. 두 개의 진영을 형성한 논리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반대편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정책과 거리를 두려고 하였던 미국 연방교회협의회는 냉전이 심화되

48) 한경직, "기독교와 공산주의," 『건국과 기독교』 (서울: 서울보린원, 1949), 212.
49) 오제도, "서,"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는 과정에서 점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의 논리와 정책에 동조하면서 미국정부와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미국의 기독교는 소련을 절대적인 악의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핵공격을 포함한 평시 및 전시 정책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즉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진영을 선과 진리로 규정하고 적대적 진영을 악과 거짓으로 규정하는 냉전의 진영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1) 미국의 대외정책과 배타적 세력권 형성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50] 이것은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라는 양대 진영으로 분리되었다는 선언이고, 이 선언에는 각 국가들이 양 진영 중에 하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강제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에서 1947년이 되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근대 역사에서 가장 극명한 정치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는 "마치 거대한 자석이 생겨나 대부분의 국가들, 심지어는 그 국가들 내에서의 집단들이나 개인들까지도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서 발생되는 역장을 따라 정렬하도록 만드는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 정치체계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51]고 했다. 경직된 이원론은 양측의 입장에 서지 않는 중간파들을 빠르게 파괴하면서 상호 배타적 세력권, 즉 적대적 진영을 형성했다.

1941년 8월 14일, 루스벨트와 처칠(Winston Churchill)은 대서양 함상에서 회담을 갖고 8개 조항의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였다. 9월, 소련을 비롯한 33개국은 이 헌장을 승인하였다. 그 내용은 양국의 영토 및 세력 확장 불

50) Harry Truman, "President Harry S. Truman's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Congress," March 12, 1947.
51) 존 루이스 개디스,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6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가, 모든 국민이 정부 형태를 선택할 권리존중, 자유무역과 국가 간 경제 분야의 협력, 안보체제 확립 등이었다.[52] 이것은 루스벨트의 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53] 미, 영, 중, 소가 개방된 세력권을 형성하여 세계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 대서양헌장 중 미국과 소련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한 것이 각 국가가 정부의 형태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친소, 친공, 친미 정부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정부형태 결정을 둘러싼 미·소간의 갈등관계로 이어졌다. 특히 폴란드의 정부형태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다. 그렇다면 미국과 소련은 폴란드 정부형태를 놓고 갈등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디스는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제 경제를 미국자본주의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 하지도 않았다." 고 하였다.[54] 전후 예상되는 경제문제가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전시 군사비의 삭감만으로도 전후 약 4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미국은 잉여 생산물을 소비할 시장과 잉여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구와 투자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번스(J. F. Byrnes)는 1945년 1월 이와 관련하여 "만약 미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미국은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대금을 지불할 달러가 없다면, 수출은 어려울 것이다." 고 했다.[55] 루스벨트는 종전 후에도 고용 수준을 유지하려면 해외시장이 미국의 잉여생산물을 흡수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유럽과 소련의 경제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미국의 잉여자본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무역주의를 관철시킨다는 루스벨트의 전후 경제정책의 이면에는 미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안보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작용하였다. 개디스에 의하면, 전후 미국 대통령 참모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감축하려 하지 않았고, "전쟁

52) Flanklin D. Roosevelt, Winston S. Churchill, "The Atlantic Chapter," (1941).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 2014년 5월 9일 접속.
53) 존 루이스 개디스,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35-36.
54) Ibid., 35-36.
55)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1), 6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 제공한 두 번째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이 중심 역할을 하는 세계 안보 기구를 구축" 하고자 했다.[56] 미국은 핵무기를 통해 세계 군사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했다. 1945년 9월 21일 미국의 각료회의는 스팀슨(Henry Stimson)의 핵무기 공유를 반대하면서 핵독점을 공식 확인했다.[57]

소련의 대외정책은 안보에 집중되었다. 독일로부터 두 번에 걸친 침략을 당하고, 2차 대전 당시 2700만이라는 희생자와 기간산업의 파괴를 경험한 소련에게 안보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다. 이에 따라 소련은 침략의 발판이 되었던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을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세력권으로 두는 것이 자국의 생존을 위해 필연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후 세계질서를 주도하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소련이 자국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침략의 발판이 되었던 동유럽을 세력권으로 두려고 한 소련의 정책이 충돌하면서 상호 갈등과 불신을 일으켰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소련의 요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련 인접국가에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58] 이것은 발틱해로부터 아드리아 해에 이르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서양 헌장과는 대조되는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미군 등 연합군이 제2전선형성을 1944년 6월로 지연시킨 점, 미국과 영국이 1943년 9월에 이탈리아 점령하는 과정과 이후 내린 조치에서 소련을 제외시키는 사례를 남긴 점, 1944년 10월 처칠 영국 수상과 퍼센트 협정을 맺어 동유럽에서의 소련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점 등 때문이었다.[59]

---

56) 존 루이스 개디스,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35-36.

57) Henry Stimson and McGeorge Bundy, *On Active Service in Peace and War,* (New York: Haper & Brothers), 1948, 642;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180. 1944년 4월 25일 스팀슨은 트루먼에게 보낸 첫 번째 메모에서 이미 핵무기 공유를 언급했었다.

58) 존 루이스 개디스,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41.

59) Churchill, *Triumph and Tragedy*. 227-228; X. Xidis, "The Secret Anglo-Soviet Agreement on the Balkans of October 9, 1944," Journal of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특히 제2전선 형성의 지연은 2700만 명이라는 사망자를 낸 소련을 격분시켰다. 1944년 6월, 영국군과 미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나서야 소련군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 3년 동안 미국은 유럽에서 독일과 전선을 형성하지 않았고, 소련은 유럽 동부전선에서 홀로 분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련은 미국이 전투부담을 소련에 떠넘기는 등 "자국의 이해득실을 완전히 다져놓고, 전쟁의 결과에 손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60] 참전했다고 생각했다. 제2전선 형성지연은 소련이 미국과 영국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된 반면 독일 일부와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세력권 형성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수뇌들은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소련의 크리미아반도 얄타에서 회동하였다. 핵심 쟁점은 폴란드의 정부구성의 문제였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전후 미국, 영국, 소련의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루스벨트는 집정회의(執政會議 Presidential Council)를 조직하고, 이 집정회의가 폴란드 국내외에 존재하는 정당지도자로 구성되는 정부를 재조직할 것을 제의했다.[61] 소련은 1, 2차 대전 당시 폴란드가 서쪽으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침략의 회랑(回廊)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폴란드에는 친 소련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다.[62] 소련 외상 몰로토프와 스탈린은 폴란드가 소련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루블린

Central European Affairs 15 (October 1955):248-271. 김진웅, "얄타회담과 미소관계," 「역사교육논집」 11 (역사교육학회, 1987. 12), 163-164에서 재인용. 처칠과 스탈린이 합의한 지배비중은 루마니아(10:90), 그리스(90:10), 유고슬라비아와 헝거리(50:50), 불가리아((25(여타국가들):75)이었다; 존 루이스 개디스,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정철 외 역 (서울: 에코리브스, 2010), 37-38.

60) Nikolai Novikov to Soviet foreign ministry, September 27, 1946, in Kenneth M. Jensen, ed., *Origin of Cold War*: The Novikov, Kennan, and Roberts "Long Telegram"of 1946, revised edition (Washingt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3), 3-4: 존 루이스 개디스,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37에서 재인용

61)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668: 김진웅, "얄타회담과 미소관계," 「역사교육논집」 11호, 170에서 재인용.

62)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669-670: 김진웅, "얄타회담과 미소관계," 「역사교육논집」 11호, 170-171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임시정부를 확대하여 정부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63] 재조직과 확대라는 방안이 맞서는 가운데 3개국 외상들은 폴란드정부 구성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적군(赤軍)에 의한 폴란드의 완전해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황이 야기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적군에 의한 서부폴란드의 해방이전에 가능하였던 것보다도 더욱 광범위한 기초 위에서 폴란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폴란드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임시정부는 폴란드 국내 및 국외의 민주적 지도자들을 포함한 보다 더 광범위한 민주적 기초위에서 재조직되어야 한다. 그 신정부(新政府)는 전국통일폴란드임시정부라고 호칭될 것이다. 보통, 비밀투표에 의한 …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할 것이다.[64]

위 협정문은 루블린임시정부의 '확대'를 주장했던 소련의 입장과 '재조직'을 주장했던 미국의 입장을 모호하게 결합시켜 놓았다. 즉 "현재 폴란드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임시정부는 폴란드 국내 및 국외의 민주적 지도자들을 포함한 보다 더 광범위한 민주적 기초위에서 재조직"은 주체 면에서 루블린임시정부를 인정하는 소련의 입장과 '재조직'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애매한 문구였다. 또한 시기를 비롯한 자유선거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적시하지 않았다.[65] 루스벨트는 소련이 자유선거를 통한 정부의 재조직을 지연시킨다고 보았고, 소련은 자국에 우호적인 루블린임시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당연히 임시정부를 토대로 폴란드에 친소련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상호협력에 기초한 개방된 세력권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배타적 세력권으로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63)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788-790: 김진웅, "얄타회담과 미소관계," 「역사교육논집」11호, 173-174에서 재인용.

64)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867: 김진웅, "얄타회담과 미소관계," 「역사교육논집」11호, 176에서 재인용.

65)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788-790: 김진웅, "얄타회담과 미소관계," 「역사교육논집」11호, 174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믹국과 소련의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트루먼과 소련외상 몰로토프 회담 · 스탈린 연설 · 케넌의 장문의 전문 · 처칠 연설로 이어지는 대외 정책의 문제, 미국 각료회의(1945. 9.) · 크리포드보고서 · 바루크플랜 · NSC-30으로 이어지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안보정책, 그리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으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을 거치면서 크게 증폭되었다. 그 결과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진영이라는 배타적 세력권으로 분리되었다.

트루먼과 소련외상 몰로토프 회담(1944. 4. 23) 직후 트루먼은 "러시아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66] 라고 했다. 그는 회담 중에도 몰로토프를 심하게 몰아붙였고, 이것은 몰로토프로 하여금 미국과 소련의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 세력권이라는 루스벨트의 대외정책이 폐기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1946년 2월 9일 스탈린은 모스크바 유권자들에게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은 매끄럽고 심지어 진보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기와 전쟁의 파국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결과로 자본주의 세계는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이들 간에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계 자본주의경제 체제의 첫 번째 위기의 결과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두 번째 위기의 결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고 하였다.[67] 이 연설을 접한 애치슨 국무차관과 포레스털 해군장관은 스탈린이 "평화로운 국제질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해했다.[68] 서방 쪽에서는 처칠이 이에 응답하였다.

1946년 3월 5일, 미국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윈스턴 처칠은 "철의 장막"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그는 "모스크바의 지시에 절대적인 복종"하는 "공산당과 오열이 도전적으로 커져 기독교 문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통해 소련이 "자신의 세력과 이념을 무한히 팽

66)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186.
67) J. Stalin, "Stalin Speeches." (1946).
68) Dean G.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s Department* (New York W. W. Norton, 1969), 151; Walter Millis, ed., *The Forrestal Diarie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1), 135: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80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창” 시키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유럽이 단결해야 세계의 안보”가 이뤄진다는 것이다.[69] 처칠의 연설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와 기독교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가 상호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했다는 선언이었다.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간의 적대의식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 냉전 형성 시기 미국의 외교이념과 전략을 만들어 낸 사람은 케넌(George F. Kennan)이었다. 그는 ‘봉쇄’(containment)라는 개념을 가지고 미국의 대외정책을 정립하였다. 그는 1946년 2월 22일 ‘장문의 전문’을 작성하여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에게 보냈다.[70]

케넌은 스탈린이 1927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중심이 상호 적대적 경쟁과 다툼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이라 예측한 점, 자본주의 내적 모순에 의해 영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본주의국가 간의 전쟁과 사회주의 세계에 대한 자본주의국가의 개입전쟁을 예측했다고 전하고 있다. 즉 그는 세계가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이 상호 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탈린과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해석하였다.[71]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미국과 영구적인 잠정적 협정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그리고 소련의 힘이 확고해지려면 우리 사회의 내적인 조화가 무너지고 우리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파괴되며 우리의 국제적인 권위가 추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신념에 광적으로 몰두하는 정치 세력이 이곳에 있다.[72]

그는 소련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적 입장을 지니고 있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

69) Winston Churchill, “Iron Curtain.” (March 5, 1946).
70) 1946년 2월 22일 케넌이 “Moscow Embassy Telegram #511”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국무부에 보낸 전문으로 “Long Telegram”으로 알려졌다.
71) Kennan, “Moscow Embassy Telegram #511(February 22, 1946),” 1-2.
72) Ibid., 1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러나 그는 이러한 소련과 세계 공산주의에 대책의 “많은 것들이 우리 자체의 사회의 건강과 활력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를 극복할 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세계 공산주의를 “질병에 걸린 조직을 먹고 자라는 악성 기생충”으로 정의했다.[73] 이처럼 케넌은 소련 공산주의를 거대한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였고, 소련 공산주의에 맞서는 미국을 긍정적 자아로 정의하였다.

1947년 7월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소련행동의 원천”이라는 글에서 소련의 팽창에 맞서는 미국의 정책을 ‘봉쇄’(containment)라고 했다. 그는 소련행동의 원천을 독재권력 유지와 이를 위한 자본주의 적대로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기만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안에 자멸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74] 독재 권력 유지와 자본주의국가들을 적대적으로 보는 소련 외교정책의 문제는 팽창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의 실현을 통해 해소된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 곳곳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궁극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이 가장 강력한 소련행동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은 “장기적이고 끈기 있으면서도 확고하고 주의 깊게 봉쇄”하는 것이다.[75] 즉 서구세계가 10년이나 15년의 기간 동안 소비에트 권력을 봉쇄할 힘과 자원을 발견한다면, 자멸의 씨앗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76] 봉쇄정책의 목적은 소련공산주의 붕괴였다.

케넌은 1947년 국립국방대학 강의에서 스탈린과 소련을 가리키며 “이 악(惡)의 천재를 억누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밝은 확신과 안전보장뿐이다.”[77]라고 하였다. 반면 이에 대항하는 미국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라고 했다. 따라서 봉쇄정책의 영혼은 미국사회를 긍정적 자아로 소련을 부정적 타자로 정의하는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케넌은 경직된

73) Ibid., 17.
74) 조지 케넌, “소련행동의 원천,” 『조지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유강은 역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2013년), 276.
75) Ibid., 266-267.
76) Ibid., 268－269.
77) 존 루이스 개디스,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7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원론에 기초한 윤리적 정당화를 신학화 한다. 즉 미국국민들이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여야만 국가안보가 달성될 수 있게 만들어 준 신의 섭리에 감사할 것이다.” 78)라고 했다. 미국국민들이 국가안보의 목적, 즉 봉쇄를 통한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를 이루는 것을 신의 섭리로 판단한 것이다. 그는 봉쇄정책의 이념을 신학의 반열로 올려놓았다. 소련과 스탈린은 절대악이 되었고, 미국은 이 악과 싸우는 신의 백성이 된 것이다. 경직된 이원론은 미국의 대 소련정책의 영혼이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소련과 적대적 진영을 형성했다.

경직된 이원론, 즉 냉전의 진영논리는 봉쇄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미국은 구체적인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해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우선 군사정책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월등한 군사력으로 소련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45년 9월 21일 미국무부 각료회의, 클리퍼드 보고서, NSC30, NSC68 등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1945년 9월 21일에 열린 각료회의는 도로위의 분기점처럼 종전 이후 미국의 군사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각료회의가 열리기 10일 전인 9월 11일 스팀슨은 “원자폭탄 통제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대통령에게 보냈다. 즉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원자폭탄 문제에 의해 사실상 지배될 것”이라는 점과 언젠가 소련이 원자폭탄을 보유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원자폭탄의 비밀과 독점과 원자폭탄 사용 권리와 이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공유(share)할 것을 주장했다.79) 트루먼은 스팀슨의 제안을 열흘 뒤인 9월 21일에 각료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일 각료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부장관 번스는 스팀슨의 제안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인 해군장관 포레스털은 원자폭탄을 미국 국민의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적 통제 대신 미국의 단독수탁을 제안했다. 미국의 핵독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80) 스팀슨의 전기 작가인 고드프리 호지슨

78) 조지 케넌, 「소련행동의 원천」, 279-280

79) Henry Stimson and McGeorge Bundy, *On Active Service in Peace and War*, 642: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179-180에서 재인용.

80) Walter Millis ed., with the collaboration of E. S. Duffield. *The Forrestal Diaries* 95, 97: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184-187에서 재인용.이 회의에서 노동장관 루이스 유웰레바흐와 우정장관, 육군부 차관 로버트 패터슨, 국무부 차관 딘 애치슨은 스팀슨을 지지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은 9월 21일의 각료회의를 도로의 분기점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후 극단적인 대립의 역사를 미리 상정하고 있었다.[81] 미국 핵무기 독점을 토대로 한 군사적 패권유지하고자 했다.

1946년 9월, 트루먼의 지시에 따라 보좌관 클라크 클리퍼드(Clark Clifford)는 「American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적어도 수년 동안 서유럽, 중동, 중국, 일본이 소련의 영향력 밖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련의 영향력이 "발칸, 동유럽, 근동, 만주 그리고 한국"으로 팽창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소련이 미국 본토와 위에 나열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방어를 권고하였다.[82]

>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 혹은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지역에 대한 소련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군사력일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떤 공격도 격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소련을 패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소련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 소련의 취약점은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산업과 천연자원이 소련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폭탄, 생물학무기, 그리고 장거리 비행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소련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핵무기와 생물학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83]

이 보고서는 소련 군사력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면서 원자폭탄, 생물학무기 그리고 해군과 공군력의 증강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재차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원자폭탄과 생물학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84] 이 보고서는 소련과의 전쟁의 가능성을 검토

---

81) Chace, James. "After Hiroshima: Sharing the Atom Bomb,"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996):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187에서 재인용.

82) Report, "American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by Clark Clifford" ["Clifford-Elsey Report"], September 24, 1946. Conway Files, Truman Papers 72.

83) Ibid., 73.

84) Ibid., 24, 74. 이 보고서는 "전쟁상태에서 소련에게 원자폭탄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지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고 하면서 핵공격은 "소련이 유사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하였고, 전쟁 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 보고서는 소련과 세계 공산주의를 핵무기와 생물학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배제, 제거해야할 절대적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였다.

클리퍼드 보고서에 충실하려면, 미국은 소련보다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해야해야했다. 따라서 핵무기 독점은 미·소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핵무기 독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했다. 그것이 바루크플랜(Baruch Plan)이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수탁하면서 실질적으로 핵무기 독점을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1946년 7월, 버나드 바루크(Bernardo Baruch)는 유엔 원자력위원회에 바루크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핵 원료의 국제적 통제, 규정 위반을 막기 위한 감사·통제·조사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불인정,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의 세계적 배분, 원자폭탄 제조의 중지, 기존 원자폭탄의 파괴, 미국의 원자폭탄 독점 포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안대로라면 소련의 핵시설과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어떤 곳도 조사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이것은 소련이 유엔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소련이 광범위한 사찰과 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이미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거부권불인정 등 바루크안의 다른 규정들이 지켜진 후 미국의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공동관리 하거나 원자폭탄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바루크안에는 원자폭탄 파기에 대한 시기·방법·규정이 없었고, 이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폭탄 파기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를 자국이 주관하는 국제수탁 형태로 핵무기 독점을 포기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국제수탁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단독수탁인 것이었다.[85] 1946년 12월 31일 바루크는 표결처리를 강행해 찬성 10표, 기권 2표(폴란드, 소련)로 통과되었다. 바루크의 조언자였던 그로브스(Leslie R. Grobes)

85) 스팀슨의 핵무기 공유 제안을 토의한 각료회의(1945년 9월 21일) 5일 후인 26일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실험장에서 첫 번째 WAC 코포럴 미사일실험이 있었다. 이것은 트루먼이 포레스털의 핵무기 독점을 지지한다는 의미였다.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325: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189 참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는 “우리는 확고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 어떤 열강도 원자무기를 제작하거나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런 국가가 원자무기 제작에 착수한다면 “그러한 국가가 우리를 위협할 정도가 되기 전에 원자무기 제작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86]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내용으로 하는 바루크 안은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독일이 봉쇄된 지 3개월 만인 1948년 9월 16일 미국의 국가안정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NSC30을 미국의 안보정책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1948년 9월 10일, “미국의 핵전쟁 정책”(United States Policy on Atomic Warfare)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되었다. NSC30은 “국가군사처(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고, “전시에 원자폭탄 사용에 관한 결정은 그러한 결정이 요청된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했다.[87]

미국의 핵공격은 단순히 계획 단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48년 초 봄, 전쟁이 발발한다는 소문이 미국을 흔들었다. 특히 1948년 3월 5일에 베를린 주재 미국인 부영사 클레이(Lucius D. Clay) 장군이 “지난 수주일 동안 나는 소련의 태도에서 매우 급박하게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육군 정보부에 보냈다. 이후 미국은 봄의 전쟁 공포에 빠졌다.[88] 1948년 3월 17일 「워싱턴타임즈-헤럴드」에 “트루만 대통령이 대규모 전쟁준비를 요구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89] 그러나 CIA는 향후 2개월 내에는 소련이 전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

86) Rpbert s. Norris, *Racing for the Bomb,: General Leslie R. Grobes, the Manhattan Project's Indispensable Man*. (South Royalton, Vt.: Steerforth Press, 2002), 472: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189에서 재인용.

87) “United States Policy on Atomic Warfare” (NSC 30), *FRUS,* 1948, vol. I, Part 2, 624-628; Jeremy Issacs and Taylor Downing, *Cold War*, 75; 제임스 캐럴은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55.

88) Walter Millis, ed., with the collaboration of E. S. Duffield. *The Forrestal Diaries*, 387: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18에서 재인용.

89) Richard M. Freeland, *The Truman Doctrine and the Origins of McCarthy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5), 271: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20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는 없다고 밝혔다.[90] 이것으로 봄의 전쟁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1948년 6월, 베를린 장벽이 쳐지기 시작하였고, 베를린 서부지역은 섬처럼 고립되었다. 거티스 르메이(Curtis Emerson LeMay)는 B-29로 베를린에 석탄, 식량, 생필품을 비행기로 나르기 시작했다. 르메이의 공수는 소련에 충분히 위협이 되었다. 그는 B-29로 일본 핵공격을 지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당시 "우리는 소련 비행기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독일의 공황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의 레이더 위치에 사격을 퍼부을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 작전명은 하프문이었다.[91] 더군다나 당시 베를린 위기가 닥치자 포레스털은 "꺼림칙한 일인 만큼 상황이 보장된다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트루먼의 확약을 받은 상황이었다.[92] 봄의 전쟁 공포는 결과적으로 소련의 위협을 이용한 미공군과 해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군과 해군은 핵무기 작전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남에 따라 각 군의 예산 삭감과 인원·조직 축소는 각 군이 직면한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병종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각 군은 병종간의 경쟁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은 예산을 자신 쪽으로 끌어오려 했다. 각 군은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했다. 공군과 해군은 소련의 위협을 이용했다. 공군과 해군 모두가 내 논 대응책은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반면 가장 확실하게 적대국을 제압할 수 있는 핵무기였다. 해군과 공군은 핵 작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했다.

즉 소련의 위협은 해군과 공군의 군비경쟁을 정당화시켜 주었고, 이것은 미국의 냉전의 원동력을 규정하는 양식이 되어갔다. 공군과 해군은 핵무기 통제권을 두고 계속 다투었다. 해군은 B-29 폭격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초대형 신형 항공모함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봄의 전쟁위기 확산은

---

90) Hoopes, Townsend, and Douglas Brinkley, *Driven Patriot: The Life and Times of James Forrestal*. (New York: Knopf, 1992) 347: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20에서 재인용.

91) Thomas M. Coffey, *Iron Eagle: The Turbulent Life of General Curtis leMay* (New York: Crown, 1986), 68: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24-225에서 재인용.

92) Melvyn P. Leffler,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226: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25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공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1948년 4월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공군장관 사이밍턴이 의회에 제출한 70대의 폭격기편대 안건을 가결시켰다. 사이밍턴은 공군이 육군이나 해군뿐 아니라 소련의 공격적인 군대와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93] 커티스 르메이가 지휘하는 전략공군사령부가 1949년 3월에 창설되었고, 공군은 5월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36기 수십 대를 컨솔러데이티드벌티사(Consolidated-Vultee Corporation)로 부터 사들였다. 공군이 핵무기 작전권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전략공군사령부는 1949년 300개의 원자폭탄으로 소련의 100개 도시를 파괴할 드롭샷 작전을 계획했다.[94] 1949년, 르메이의 전략공군사령부가 원자폭탄 통제권을 장악했다.

미국은 드롭샷 작전과 같은 핵공격을 계획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전쟁위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인 폭격계획이었다. 또한 수백개의 핵무기로 소련 전역을 완전히 파괴하는 작전이었다. 핵공격의 정당성은 소련의 위협이었다. 소련위협이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2700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기간산업이 거의 파괴된 소련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미국 군부와 군 내부의 핵무기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의 산물이었다. 경쟁을 위해 소련의 위협, 즉 악한 세력의 위협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악한 세력은 예외적 공격, 핵공격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그야말로 극단적 이원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정적 타자에 대한 '적대' 강조는 긍정적 자아의 생존 조건이 되는 동시에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공군과 해군의 병종간의 경쟁은 소련의 위협 → 안보의 위기 → 군사력 강화 → 핵무기 강화니 → 군비경쟁 → 냉전 진영의 구조 형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NSC68은 이러한 내용을 집약·강화했다. 이 정책은 소련의 원자폭탄 보유와 수소폭탄 개발 가능성, 중국의 공산화 및 소련과 중국의 조약체결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정책이다. 이것은 1950년 1월 31일에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구되기 시작되었고, 의회에서 수소폭탄 개발계획을 승인 한 지 2 달이 지난 1950년 4월 7일에 「미국 국가 안보의 목

93)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21-222.
94) Seven Lindqvist, *A History of Bombing*, (New York: New Press, 2000) 120: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35-236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표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미국의 "평시와 전시의 목표들에 대한 재고"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케넌에 이어 1949년에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된 폴 니체(Paul Nitze)였다.[95] 그는 소련의 위협, 배타적 세력권 형성, 봉쇄정책이라는 기존의 정책 논리를 따라 이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달라진 것은 핵전쟁을 예상하고, 수소폭탄 개발·기습공격·반격전·경계체제구축·제한전 등 다양한 전쟁의 형태를 예상하고 수소폭탄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을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제임스 캐럴은 케넌이 "소련의 팽창에 대해 선택적이고 차별적으로 저항할 것을 주장"했고, "군사적 위협을 최소한으로 신뢰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노골적이거나 암시적인 위협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NSC68에서 니체는 "군사력과 핵 위협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최전방에서 저항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96] 우선 NSC68은 세계가 상호 적대적인 두 개의 신념 및 정치 체제로 나뉘어져 있고,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대체(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야망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즉 경직된 이원론에 기초해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파악했고, 이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았다.

> 크레믈린은 미국을 자신의 근본적인 계획을 달성하는 데 유일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한다. 법치 정부 아래 있는 자유사상과 잔인한 소수 독재 정치 하에 있는 노예사상 사이에는 근본적인 갈등(conflict)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권력의 양극화라는 위기가 초래되었고, 양국이 원자무기를 독점하게 되었다. 게다가 자유사상은 노예사상을 전복시킨다. 그러나 그 반대는 사실이 아니다. 자유의 도전을 제거하려는 노예국가의 무자비한 의도로 인해 가장 강력한 두 강대국이 정반대 편에 서게 되었다.[97]

---

95)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64-266. 폴 니체와 폴레스털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1929년에 딜런리드라는 투자회사에서 니체를 채용했고, 그 후 1940년에 그를 워싱턴 정가로 데려왔다.

96) Ernest R. May, *American Cold War Strategy: Interpreting NSC-68* (Boston Bedfold Books, 1993), 140;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74에서 재인용.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 A Critical Appraisal of Postwar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90-98, 104-106 참조.

97) "NSC 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우선 NSC 68은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화 되었다고 선언한다. 두 번째, 미국을 긍정적 자아로 소련을 부정적 타자로 각각 규정한다. 세 번째, 이 양자 간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 번째, 따라서 긍정적 미국이 부정적 소련을 전복시킬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제노사이드의 주요 용어 중에 하나인 대체주의가 담겨져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소련과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양극화의 핵심으로 두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가까운 미래에 소련은 많은 수의 원자폭탄을 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98]점과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고자 수소폭탄을 개발"[99]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자유세계에 대한 소련의 위협은 대단히 크게 증가하거나 미국에 대한 공격의 위험도 대단히 크게 증가할 것"[100]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전쟁의 개전 국면에서 선제 기습공격은 대단히 유리" 하며, "철의 장막 뒤에 생존하는 경찰국가(소련-인용자)는 안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고 하였다.[101] 그리고 "4년 안에 소련이 미국의 주요 전략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기습적인 선제공격은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하였다.[102]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 목표는 "전쟁의 위기를 억제"하고, "크레물린의 세계지배 야욕을 저지(check)하고 이를 격퇴(roll back)" 하는 것이라고 했다.[103]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소련의 선재공격을 버텨낼 수 있고, … 소련의 (견딜 수 있는-인용자) 능력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104]고 하였다. 즉 NSC68은 소련에 대한 기습공격(surprise attack)[105]을 배제하지 않았고, 소련의 공격에 대한 반격(counter-attack)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자마자 곧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반격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이 요청되며 가능한 소련의 타격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기

98) Ibid., 37.
99) Ibid., 38.
100) Ibid., 38.
101) Ibid., 37.
102) Ibid., 37.
103) Ibid., 53.
104) Ibid., 32.
105) Ibid., 5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전에 공격하여야 한다.”[106]고 하였다.

세계가 소련과 미국이라는 상호 적대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양극화되었고, 소련은 자신이 지배하는 영역을 팽창(expansion)하기 위해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소련의 핵무기 무장, 수소폭탄 개발, 전시 선제 기습공격 등 군사적 위협과 자유세계 전복이라는 정치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봉쇄정책을 골간으로 하는 전시와 평시 군사, 정치, 경제적 대책을 마련했다. “‘봉쇄’(containment)정책은 … (1) 소련 권력 팽창을 차단, (2) 기만적인 소련의 거짓을 폭로, (3) 크렘린의 통제와 영향력 축소 유도함으로 (4) 소련 체제 내에 파멸의 씨앗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107]라고 하였다. NSC68에 나타난 미국 정책의 목표는 소련의 파멸, 즉 붕괴였던 것이다. NSC68의 영혼은 소련을 적대로 하는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소련공산주의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전시에는 핵공격으로, 평시에는 경제·정치적 고립과 월등한 군사력으로 소련공산주의를 봉쇄함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봉쇄정책의 다른 한 축은 경제적 봉쇄였다. 마셜 플랜으로 알려진 유럽 재건을 위한 미국의 경제지원계획은 단지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서유럽에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공산주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것이었다. 1947년 6월 5일, 하버드 대학에서 국무장관 조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은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을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은 세계의 경제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 어떤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지원이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셜 플랜은 소련 적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강력한 봉쇄정책이었다. 개디스는 “미국은 대단한 독창력을 가지고 공동 안보 위에 마련한 단일한 국제질서의 창출이라는 본래 비전을 소련의 팽창하는 힘과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급조된 두 번째의 개념과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개념은 봉쇄였고, 주된 도구는 마셜플랜이었었다.”[108]고 했다. 마셜플랜은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었지만, 서유럽을 하나

106) Ibid., 53.
107) Ibid., 21.
108) 존 루이스 개디스,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75-7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의 경제단위로 묶어 소련을 봉쇄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109]

1947년 5월에 열린 마셜 참모회의는 유럽 부흥 계획에 소련과 동유럽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이 회의는 동유럽이 일반적인 친 소련 경향을 포기한다면 그들이 계획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되 동유럽의 참가 문제는 동유럽국가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였다.[110] 이는 유럽부흥계획에 동유럽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소련은 확실하게 배제시키기로 하였다.[111] 케넌이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즉 지원 조건으로 소련이 자국의 경제·재정 상태를 전부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자는 것이었다.[112]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계산한 것이었다. 케넌의 예상대로 소련은 이를 거부하였고, 동유럽도 이 계획에 찬성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샬플랜을 통해 서유럽에 강력한 경제블록을 형성했다.

유럽 부흥 계획은 서유럽의 경제통합을 통해 소련고 동유럽을 배제시키고, 서유럽의 재건을 토대로 공산주의 진영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 정책은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졌다는 트루만의 이원론을 전제로 하였고,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적대를 토대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이것의 목적은 케넌이 "소련 행동의 원천"에서 "그 안에 자멸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이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이 착착

109) Charlles P. Kindleberger, "Toward the Marshall Plan: Memoir of Policy Development in Germany," in Maier, ed., *The Marshall Plan and Germany,* 77-86: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74에서 재인용. 1946년 5월 클레이 독일주둔 미 군정장관은 산업수준계획(Level of Industry Plan)으로 인한 독일의 생산억제를 풀어줄 것을 자국정부에 요청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루스벨트 행정부 당시 독일을 농업국으로 만들고자한 소위 모겐소 안(Morgenthau Plan)을 폐기하는 대신에 독일의 재건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미국이 소련을 배제하고 소련의 적대국이었던 독일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의미였다.

110) Ward P. Allen, Summary of Discussion on Problems of Relief,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Europe, 29 May 1947, *FRUS* 1947Ⅲ, p. 235: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194-195에서 재인용.

111) 1946년, 미국 하급 경제 관리들이 유럽경제통합 계획을 추진할 때, 국무부의 정치담당 관리들은 그 계획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그들은 소련의 의도를 팽창주의이라고 규정하고 동독과 동유럽을 아예 포기하자고 했다. 그들은 "새로운 서유럽 블록을 등장시키는 분단된 유럽"을 주장했다.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220.

112) Memo of Kennan, 16 May 1947, *FRUS* Ⅲ 1947, 222: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220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진행되고 있다."[113]고 밝힌 것처럼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유도였다.

2) 기독교의 동조

1946년,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주도한 바루크도 트루먼 독트린을 "이념 혹은 종교 전쟁의 선포와 마찬가지"라고 했다.[114]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전략기획실장이었던 인보덴(William Inboden)[115]은 "냉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 전쟁"이라고 하였다. 이어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고, 하나님은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부르셨으며, 무신론과 종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악으로 간주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안보 및 경제 분야와 함께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적을 방어하고 전쟁을 수행해야하는 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특히 트루먼이 조직하려 했던 반공종교동맹(a religious alliance against communism)을 사례로 들면서 종교를 통해 소련과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봉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116]

먼저 트루먼은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가치가 일치하고 있는 반면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1946년 3월, 그는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에게 "모든 인류는 지금 파멸의 문 앞"에 서있다고 하면서 악의 세력인 소련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우선 종교와 민주주의의 뿌리는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면서 그 뿌리가 같다고 했다. 반면, 소련공산주의를 독재로 규정하면서 "독재는 항상 그 원리를 부정"했고 "개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념에 기초"되어 있다고 했다.[117]

---

113) 조지 케넌, "소련행동의 원천," 276.

114) Richard M Freeland, *The Truman Doctrine and the Origins of McCarthyism*, 101: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15에서 재인용.

115) 그는 또한 국무부 정책기획 참모와 국제 종교 자유 사무국(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서 활동했다.

116)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Ⅲ.

117) Truman, speech to Federal Council of Churches, March 6, 1946.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nrry Truman,* 1946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2), 141: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51년 4월 3일 뉴욕 에비뉴 장로교회(Avenue Presbyterian Church)에서 트루먼은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영적인 가치’를 반대하는 것이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가혹하고 끔직한 광신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했다. 반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아래서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무신론적인 교리에 받치는 것과 똑 같은 헌신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118] 소련공산주의와 미국의 갈등의 본질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묵시록적 종말론 간의 영적 갈등으로 보았다. 인보덴은 “비록 냉전 역사가들이 영적인 요인들을 무시하였을지라도 1940년대와 50년대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과 그러한 믿음을 금지한 국가들 사이 보다 더 분명한 경계선”은 없었다고 했다.[119]

트루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고 어떤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강력하고 힘 있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신의 명령”으로 “악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이 세계를 보다 더 살기 좋게 하라”는 것이다.[120] 그는 이것을 유업(religious heritage, 선민이 부여받은 유업 - 인용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구약성서시대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유업이 미국의 유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종교적 유업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21] 계약백성으로서의 미국의 유업은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108-109에서 재인용.

118) Truman, address at New York Avenue Presbyterian Church April 3, 1951,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rry Truman*, 1951 (Washington: United States Overment Printing Office 1965), 210-213: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1에서 재인용.

119) William Inboden, Ibid., 4.

120) Truman, address at New York Avenew Presbyterian Church, April 3, 1951,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 Harry s. Truman*, 1951, 210-213: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114에서 재인용.

121) Truman, address at New York Avenew Presbyterian Church, September 2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소련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악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소련을 악으로 자국을 계약백성으로 규정한 트루먼의 경직된 이원론은 핵공격을 포함해 미국의 평시·전시의 경제, 정치,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 하는 정치신학이었다. 그는 실제로 영적 능력과 원자력을 연결시켰다.

즉 "만약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세계가 생존하려면 인간이 원자력을 통해 얻어온 거대한 힘은 보다 위대한 영적 능력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했다.[122] 이는 영성에 의한 원자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2차 대전 종전 직후 미국 연방교회협의회(Federal Council of Churches, FCC)[123] 총무 카버트(Samuel McCrea Cavert)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일본 원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편지를 보냈다. 트루먼은 이에 대해 "당신이 짐승과 대적할 때는 짐승을 처리하듯이 해야 합니다."[124]라고 했다. 또한 1948년 봄과 1950년 11월 트루먼은 핵무기 사용을 허락하거나 공언한 적도 있었다. 즉 원자력과 영성의 결합은 절대적 악의 세력에 대한 신앙적 단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트루먼의 정치신학은 미국을 하나님의

1951,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 Harry s. Truman*, 1951, 547-550: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115에서 재인용,

122) Truman, speech to Federal Council of Churches, March 6, 1946,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Hanrry Truman,* 1946, 141: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108-109에서 재인용.

123)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는 1950년에 결성된 미국기독교연합협의체. 미국 연방교회협의회(FCC)와 북미해외선교협의회·북미국내선교협의회·북미캐나다교육선교협회 등 13개 초교파 선교·교육·협의단체들이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FCC는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등 미국의 교단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1943년 FCC 내의 '정의와 항구적 평화 위원회'는 미국의 감리교, 장로교, 북침례교 등에게 의회와 정부에 UN의 형성에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권면하였다. 한편 FCC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의와 항구적 평화 위원회'의 의장인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소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국제 무역변호사로서 미국개신교에서 유력한 평신도 지도자인 그는 1946년 6월 Life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평화적인 화해가 결코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해서 미국이 대 소련외교에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케넌의 봉쇄정책과 비슷했다.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29-37참조.

124) Ibid., 3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계약백성으로, 소련 공산주의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신학은 부정될 악의 세력을 핵공격을 통해서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트루먼의 정치신학은 종교단체를 토대로 한 소련 봉쇄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내부에서 반공주의자들을 강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공산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법으로서 종교를 활용하고자 했다. 즉 미국 연방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WCC), 교황청, 동방정교회, 유럽의 개신교들과 협력하면서 반공종교동맹(a religious alliance against communism)을 조직하고자 했다. 트루만과 함께 이를 주도한 사람은 미국 성공회 영향력 있는 평신도이자 미합중국 철강회사의 중역이었던 테일러(Myron Taylor)였다.[125] 1947년, 트루먼과 교황 피우스 12세(Pope Pius XII) 테일러를 통해 편지를 교환했다. 트루만은 천주교회가 반공종교동맹에 참여해주기를 호소했고, 교황은 이에 동의했다.[126]

이런 상황에서 테일러는 1947년 뉴욕에서 미국 연방교회협의회 주요 인사와 1948년 WCC의 주요 인사를 만나 천주교의 반공종교동맹의 참여를 타진한다. 1947년 10월 2일 연방교회협의회의 맥크레(Samuel McCrea)와 감리교감독 옥스남(Bromley Oxnam), 북침례교의 델버그(Edwin Dahlberg), 그리고 장로교의 푸(William Pugh) 등 미국의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테이러는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이탈리아가 중요함으로 로마 가톨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른 유럽의 개신교지도자들이 반공종교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이 단체의 주요인사들은 공산주의 반종교성에 대한 테일러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비민주성과 독재적인 조직을 들어 천주교의 참여를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1948년부터 트

125) 그는 독일의 핵과학자들을 미국에 비밀리에 입국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루스벨트의 개인특사로 임명받은 테일러는 교황 피우스 12세(Pope Pius XII)에게 루스벨트의 편지를 전달한다. 편지는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증진하고 고통을 절감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당시 테일러는 영국의 처칠, 스페인의 프랑코의 자문역할을 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Cordel Hull 국무부 장관의 자문위원으로 전후 세계질서형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트루먼은 이런 경력을 가진 테일러가 이탈리아에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로 생각했다.

126)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122~12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루먼과 테일러는 WCC를 통하여 소련의 공산주의를 견제하고자했다. 그 첫 작업은 바티칸을 설득해서 바티칸의 대표자를 참관인 자격으로 암스텔담 WCC 총회에 참여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테일러는 세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제네바로 가서 WCC의 총무 비서트 후프트(Visser’t Hooft) 박사를 만났다. 미국의 대사가 WCC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천주교회의 WCC 참석가능여부, WCC에서 러시아정교회의 퇴출이었다. 후프트는 이 세가 안건 모두를 반대했다.[127] 이어 테일러는 다섯 명의 WCC 공동의장 중에 한사람인 프랑스의 마르크 보에그너(Marc Boegner)와 런던의 켄터베리 주교를 만났다. 이들은 천주교회에 대하여 열려진 입장을 취하였으나 미국정부 대사가 WCC에 참여하는 것과 러시아정교회를 퇴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했다. 결국 WCC를 통하여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려던 트루먼과 테일러의 노력은 실패하였다.[128]

1949년 5월 3일, 테일러는 뉴욕에서 FCC의 사무엘 맥크레와 감리교감독 브롤리 옥스남, 장로교의 윌리암 푸 등 미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다시 만났다. 이들은 천주교의 구조는 마치 공산주의 그것처럼 전체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트루먼에게 “WCC는 공산주의를 억제하거나 무신론을 막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129]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 다마스키노스(Damaskinos)가 갑자기 사망하고, 트루먼의 정책을 지지하는 스피디온(Spydion)이 대주교로 선정되었다. 정확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테일러는 스피디온이 대주교로 선정되는데 일역을 담당했다. 또한 로마 교황 피우스 12(Pope Pius XII)세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개신교와 협력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투르만은 부위기가 성숙되었다는 판단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종교지도자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켄터베리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지도자들의 반대로 이 회의는 무산되었다.[130] 이유는 반공종교동맹에 천주교를 참석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

127) Ibid., 126~133
128) Ibid., 135~137
129) Ibid., 137-140.
130) Ibid., 140~14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렇다고 이것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연대를 통한 소련 봉쇄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카톨릭과 개신교가 트루만의 정책에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연방교회협의회와 WCC의 일부세력은 소련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봉쇄정책에 동조·연동하였다. 즉 미국연방교회협의회와 WCC 일부 세력의 입장변화는 트루먼의 반공종교동맹이 일정부분 성공을 의미했다.

1945년 12월 말, 미국 연방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교신앙의 관점에 따른 교회와 전쟁의 관계 위원회"(Commission on the Relation of the Chruch to the War in the Light of the Christian Faith)를 열었는데, 이들은 일본의 핵공격에 대한 격론을 벌인 끝에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1946년 3월 6일 "핵무기와 기독교 신앙"(Atomic Warfare and the Christian Faith)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원자 폭탄 투하는 하나님과 일본 국민에게 깊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131] 이것은 트루먼 행정부와 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다.

한편 1948년 WCC 창립총회는 기독교적인 대안을 '책임사회'라고 했다. 이는 "자유가 곧 정의와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되고, 정치권위 혹은 경제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들의 복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로 정의되었다.[132]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WCC 총회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기독교 교회는 공산주의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모두를 거부해야만 하며, 이러한 극단적 형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133] WCC는 세계가

131) Ibid., 33-35. 니버 형제, 로버트 칼훈, 존 버넷 등 미국 신학자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132) WCC ed.,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The Amsterdam Assembly Series* (New York : Harper & Brothers Publisher, 1948): 강인철, 『한국기독교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92에서 재인용.

133) WCC,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 종합보고서』,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3) 57: 강인철, 『한국기독교와 국가·시민사회 : 1945-1960』, 99에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진영으로 급격히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삶의 형태 중 하나만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WCC창립총회는 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팽팽한 적대 정책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대한 죄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134] 이에 따라 WCC는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두개의 “적대적 진영”(hostile camps) 사이에 어떤 윤리적인 구별(moral distinction)도 그리지 않기로 했다. 즉 양측 모두 동등하게 적법하며 그리고 똑 같이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WCC의 정책기조는 상호 적대를 정당화하는 윤리적 구별, 즉 소련을 적대하는 미국의 윤리적 정당성 혹은 미국을 적대하는 소련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화해를 전제로 양 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연방교회협의회도 WCC의 이러한 입장을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1949년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에서 감리교 감독인 옥스남은 소련을 알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연방교회협의회는 미국정부가 소련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갈등을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할 것을 주문하였다.[135]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소련공산주의에 대한 미 연방교회협의회의 동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1949년, 맨해튼 호텔에서 미 연방교회협의회에 속해 있는 감리교 감독 36명은 두 주일 동안 세계정세와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했다. 특히 사흘 동안 순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토론하였다. 이 자리에서 옥스남 감독은 "지금 전 세계는 '자유'에 대하여 비상한 위기에 부닥치고 있다. 로마 카토릭교회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한편 공산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부인한다"고 말하였다. 공산주의가 사회적 전체주의라면 천주교는 종교적 전체주의라는

재인용.

134) WCC, 『세계교회협의회 역대총회 종합보고서』, 61-63: 강인철, 『한국기독교와 국가·시민사회 : 1945-1960』, 98에서 재인용.

135) March 22, 1950 statement from CCIA; WCC Papers, RG162, BOX 20, Folder 141A; YDSA: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52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것이다.[136]

공산주의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윌스칼렛(Will Scalett)에게 보낸 편지에서 "애초에 한국이 트루먼 행정부에 의해 배제되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방어를 위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치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련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없는 세계대전을 피하려고 할 것이지만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자 할 것이다. 그런 곳들 중에 어떤 곳, 특히 아시아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반드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한다고 생각 한다."라고 하였다.[137] 니버는 계속해서 미국 상원 정책 입안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1951년 1월 14일자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그는 미 행정부가 "국제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이틀 동안 열린 회의에 초대된 12명 중에 한명이었다.[138]

한편, 국제적인 긴장과 핵무기가 증가 일로에 있을 때인 1949년 하반기에 연방교회협의회는 "기독교양심과 대량 파괴 무기"(The Christian Conscienc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재검토하기 위해 산하단체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 따른 교회와 전쟁의 관계 위원회(Commission on the Relation of the Chruch to the War in the Light of the Christian Faith)를 다시 소집하였다. 이 위원회의 새로운 의장은 워싱턴 디시의 연회감독 던(Angus Dun)이었다. 그는 1946년에 소집된 로버트 칼훈(Robert Calhoun) 위원회의 의장 칼훈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니버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139]의 물리학

136) 김재준, "西雲과 南雲-미국 감리교와 공산주의," 「십자군」2, (1950.2), 31.
137) Updated letter in 1950 from Niebuhr to will and Leah Scarlett; RN Papers, Box 27, Folder: Niebuhr-William Scarlett correspondence, undated; LOC: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53에서 재인용.
138) Walter H. Waggoner, "U.S. Calls in Cvic Leaders to Help Fight Red Idelogy," New York Times, 14 January 1951, A1: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53에서 재인용. Henry Steele Commager, Arthur Schulesinger, Jr. 그리고 노동운동가 James B. Carey 등과 같이 니버는 공산주의의 계획과 매력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공산주의를 대항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 컴프톤(Athur Compton)·웨이맥(William Waymack)과 함께 잔여 임기가 조금 남아서 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위원회는 1950년 내내 논쟁을 하다가 그해 12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전의 칼훈 위원회가 현대 분쟁의 야만성, 시민에 대한 공격, 그리고 예방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반면, 새로운 위원회는 "인류를 위협하는 두 가지의 큰 위험요소"를 "전체주의 폭압의 팽창"과 "세계 전쟁"이라고 했다. 이 위원회는 전체주의가 전 세계적인 전쟁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140]

> 미국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거나 사용하지 않으려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공산권 세계를 놓아두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을 옹호한 기독교인들은 폭정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은 세계대전과 폭압을 모두 저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다른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군사력 증강에는 핵무기가 반드시 포함된다. 핵무기, 혹은 그와 유사한 파괴력의 무기가 우리에게 사용되거나 아시아와 유럽의 우리 친구들에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부가 모든 가능한 힘으로 보복하는데 핵무기를 사용해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141]

핵무기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어떤 국가, 즉 적대국가인 소련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 이에 대비한 평시 군사력 증강, 전시 핵공격을 통한 반격전은 마치 NSC30과 NSC68의 전시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연방교회협의회는 한국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미국의 연방교회협의회와 미국의 안보정책이 똑 같은 목소리

---

139) 원자력위원회는 1949년 3월 전략공군 사령부로 핵무기 통제권을 넘기기 전까지 핵무기통제를 담당했다.

140)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52-54.

141) "The Christian Conscienc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ristian Century, 13 December 1950, 1489-1491. For more on Niebuhr's influence on this report, see Box 240-241: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54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를 내고 있는 것이다. 연방교회협의회와 미국의 NSC가 서로 연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동조와 연동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서 미국이 한국에서 행하는 모든 전쟁의 행태에 대해 윤리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연방교회협의회의 입장변화는 제3차 WCC 중앙위원회의 결정과도 유사하다. 1950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토론토에서 열린 제3차 WCC 중앙위원회는 6·25 전쟁에 대한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6·25 전쟁을 "북한군에 의해서 비밀리에 준비되고 시작된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이 침략에 맞서 신속한 결정을 해준 것과 모든 회원국이 지원하는 경찰조치(police measure)를 허가해 준 것을 칭찬" 했다.[142] 3차 WCC 중앙위원회는 북한과 지원세력인 소련에 대한 강력한 반격전을 요청했고, 아울러 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경고했다. 반격전, 제한전은 미국의 NSC68의 핵심개념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WCC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 WCC와 국제선교위원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연합기관인 국제문제교회위원회(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이하 CCIA)는 WCC 중앙집행위원회에 1950년 3월 19일 세계평화회의가 발표한 스톡홀름 평화 호소(Stockholm Peace Appeal)를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스톡홀름 평화 호소는 "원자무기 금지", "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엄격한 국제적 억지", "타국에 대한 원자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정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며 전범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143] 그런데 이 편지에서 CCIA는 "원자무기의 금지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침략자들을 제지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원자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여하한 계획도 효율적인 사찰조치에 입각해야 하

142) "Statement on the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 *Minutes and Report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oronto: Canada, July 9-15, 1950), 91-92: 김흥수, "한국전쟁과 세계교회협의회, 1950-1953,"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12-113에서 재인용.

143) Ralph Lord Roy, *Communism and the Churche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60), 212: 김흥수, "한국전쟁과 세계교회협의회, 1950-1953," 114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며, 사찰 방식은 소련이 지금까지 반대해 온 지속적인 국제적 감독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144] 소련이 지금까지 반대해온 사찰방식이란 바루크 플랜에서 논의된 핵사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바루크 플랜은 미국의 핵독점을 공식화하는 계획이었다. 이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제국주의의 확대로 보고 이것을 전쟁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전쟁 발생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CCIA의 편지를 받은 WCC 중앙위원회는 스톡홀름 평화 호소를 "진정한 평화의 제안이라기보다는 프로파간다의 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다.[145]

WCC 중앙위원회의 성명에 대해 동유럽 교회들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특히 체코의 로마드카(Josef L. Hromardka)는 유니온신학교의 라인홀드 니버가 편집하고 있던 *Christianity and Crisis*에 기고한 "다른 쪽으로부터의 음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토론토 성명을 비판하였다. 그는 "WCC가 자신을 강대국들의 한 그룹과 동일시하고, 그 그룹의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전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그것에 참여하도록 조장했다!"고 했다.[146] WCC가 자신을 강대국들의 한 그룹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로마드카의 주장은 WCC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되면서 그 진영논리를 따라 연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WCC내에서 미국을 지지하는 교회들은 6·25 전쟁이 잘 준비된 기습적 남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쟁의 개념을 전면적인 반격전과 제한전으로 설명했다. 또한 미 연방교회협의회는 핵공격을 배제하지 않았고, 전쟁 직전 CCIA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재래무기와 핵무기

144) "Letter concerning Stockholm Appeal," *Minutes and Report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oronto: Canada July 9-15), 93-94: 김흥수, "한국전쟁과 세계교회협의회, 1950-1953," 115에서 재인용.

145) Ralph Lord Roy, *Communism and the Churches*, 212: 김흥수, "한국전쟁과 세계교회협의회, 1950-1953," 114에서 재인용.

146) Josef L. Hromadka, "A Voice from the Other Side," *Christianity and Crisis* (March 19, 27), 29; Federal Council of Church in U.S.A., "A Message of World Order Day," *Federal Council Bulletin*, October 1950, 18: 김흥수, "한국전쟁과 세계교회협의회, 1950-1953," 117-119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공격은 전쟁 당사자 간의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민간인을 대량 살상하였다. 1946년에 미 연방교회협의회는 바로 이점을 문제시하였던 것이다. 즉 미국의 전략공군사령부의 핵무기는 북한과 소련의 군사기지는 물론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향하고 있었다.[147]

미국의 연방교회협의회와 CCIA는 재래무기를 사용한 전쟁과 핵공격과의 질적 차이를 간과했다. 핵공격은 적 진영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절대적 이고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제노사이드 학자인 허시(Herbert Hirsch)는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에서 1940년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다가 생존한 프리모 레비(Primo Levi)에 주목하였다. 레비는 핵무기에 대해 경고하면서 "지구상의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릴 만한 … 핵폭탄이 비축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고 … 그것의 1퍼센트만 사용되어도 그 즉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모든 인간 종과 …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유전적 손상의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물리학자 이시도어 래비(Isidor Rabi)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우슈비츠 시체 소각실 앞의 사람들처럼 늘어서 있고, 그동안 우리는 그 소각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였다.[148] 레비는 핵을 적 진영에 있는 모

147) 전략공군사령부가 1949년 3월에 창설되었고 원자력위원회로부터 핵 통제권을 인수받았다. 공군은 5월에 컨솔러데이티드벌티사(Consolidated-Vultee Corporation)에서 생산된 B-36기를 수십 대 사들였다. 1949년 미 전략공군사령부가 세운 드롭샷(Operation Dropshot)은 300개의 원자폭탄을 소련의 100개 도시를 퍼붓는 것이었다. Seven Lindqvist, *A Hestory of Bombing* (New York: New Press, 200), 120: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35-236에서 재인용. 아이젠하워는 취임 몇 주 뒤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리는 개성지역에 전술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이런 유형의 무기를 사용하기에 알맞은 목표물입니다."라고 말했다. Neal Rosendorf in Gaddis et al, "1953년 2월 11일 제13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Cold War Statesmen Confront the Bomb*, 71: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301에서 재인용. 6·25전쟁 당시 르메이가 이끄는 전략공군사령부는 중국에 핵공격을 개시하면서 곧바로 소련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이크다운 작전(Operation Shakedown)을 세웠다. 이 작전에 따르면 미국의 메인주·래브라도·아조레스 제도·괌과 영국의 기지들에서 출격한 폭격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00개 이상의 원자폭탄을 소련 도시들에 투하하는 것이었다. 백악관과 국방부의 관리들은 전략공군사령부의 의도를 거의 파악하지 못했다. 1984년 르메이는 한국전쟁 당시 이 계획에 대해 "그것은 우리 계획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Air Force History Office. Strategic Air War, 90: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82-283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든 생명체를 멸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핵무기는 적군이 아닌 적 진영에 속해있는 시민, 동물, 식물, 무기물들 멸족하거나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시도어 래비가 핵을 가장 강력한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유대인을 비인간화 했던 독일의 이념처럼, 마찬가지로 핵을 사용하고자하는 국가는 핵공격을 당하는 적을 비인간화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남침이 근거가 없다는 일부 동유럽의 교회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미국 연방교회협의회가 소련과 공산주의 적대를 기조로 한 미국의 진영논리에 동조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미국에 제공했다는 동유럽 교회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비판은 아니다.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급격히 양극화 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화해를 주장했던 WCC의 주장을 미국교회는 귀담아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WCC의 이러한 취지는 6·25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크게 손상되었다. 즉 WCC에 속한 교회들은 각자 양 진영으로 분리되면서 양 진영의 정책을 윤리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1946년 3월에 발표된 “기독교양심과 대량 파괴 무기”의 보고서가 적대국, 즉 일본에 대한 핵공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면, 이와는 상반되게 1950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는 적대국, 즉 소련 및 전쟁 중인 북한·중공에 대한 핵공격이 윤리적·신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의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4년 동안의 트루먼의 반공종교동맹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트루먼의 반공종교동맹 운동은 미국 기독교대중을 파고들었고, 큰 호응을 얻었다.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거의 한달 후에 이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은 지 며칠 후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은 LA에서 수십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시민들은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의 원자폭탄 소유로 인해 공산주의의 위협이 극대화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레이엄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선택권을 주십니다.”라고 하면서 “부활할 것인지 심판을 받을

148) Primo Levi, *The Drowned and the Saved,* 165-166; G. Herken, *Counsels of War,* 346: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98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쪽은 하느님과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모든 종교와의 전쟁을 선포한 공산주의입니다… 서구 사회가 옛 방식으로 부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했다.[149] 그레이엄이 자신의 부흥집회를 십자군 운동이라고 불렀다. 그의 설교는 트루먼 독트린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바꾸었다. 즉 세계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로 분리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을 하나님의 백성, 소련을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을 핵심으로 한다.

트루먼의 반공종교동맹 운동은 직접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1951년 4월 "심리 전략 위원회"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이하 PSB) 조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유명 목회자들이 자문을 맡은 이 단체의 목적은 "사악한 공산주의와 도덕적인 미국을 세계 사람들에게 납득" 시키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종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 냉전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함으로 얻는 목표는 세상의 영적 건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작성된 문서들은 중앙정보국(CI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로 뿌려졌고, 이에 따라 "미국 정보 교환" (United States Information Exchange)는 매주 종교 지도자들이 반공에 대하여 역설할 것을 권면했다.[150]

---

149) Walter L. Hixson, *George F. Kennan: Cold War Iconoclast*, 77: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74에서 재인용.

150) For background on the PSB, see Edward P. Lilly, "The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and Its Predecessors: Foreign Policy Coordination, 1938-1953" in Gaetano L. Vincitorio,, ed., *Studies in Modern History* (New York: St. John's University Press 1968), 337-382, and Scott Lucas, *Freedom's War: The American Crusade Against the Soviet Un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128-162 and 175-177; Department of State Information Program Guidance on "Moral and Religious Factors in the USIE Program," June 22, 1951 and "Memorandum from Gordon Grayto Joseph B. Phillips," August 23, 1951; SMOF: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Files1, folder 000,3; HST Papers; January 5, 1952 PSB "Inventory of Resource Presently Available For Sycological Operation Planning," SMOF : PSB34, folder 385; Hst Papers,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117-119에서 재인용. USIE는 매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공을 주제로 설교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국무부는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들을 평가하게하고 이를 영적인 요소들과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것을 "미국 정보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인보덴은 “안보 및 경제 분야와 함께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적을 방어하고 전쟁을 수행해야하는 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특히 트루먼이 조직하려 했던 반공종교동맹을 사례로 들면서 종교를 통해 소련과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봉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151] 1945년 제2차 대전 직후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와 WCC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트루먼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트루먼의 반공종교동맹 운동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와 WCC 일부 세력은 미국의 소련적 대정책에 동조·연동하였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NSC68에 명기된 핵공격에 대한 윤리적·신학적 정당성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이는 자국을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소련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을 매개로 트루먼과 미국연방교회협의회가 연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교회와 트루먼의 정치신학은 부정적 타자로 규정된 적을 비인간화 하였다. 이 논문은 이것을 NSC30과 NSC68에 명기된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연방교회협의회의 정당화 작업이라고 보았다. 허버트 허시(Herbert Hirsch)는 “증오의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는 그 이데올로기가 겨냥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기능을 하고 억압 혹은 심지어 절멸의 방법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비인간화 이데올로기는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 시각에서 보면 비인간화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인데 왜냐하면 비인간화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152] 허시는 현대의 가장 전형적인 비인간화 이데올로기 중 하나

교환”(United States Information Exchange, 이하 USIE) 프로그램이라 했다. 1951년 이 자문단과 이 자문단 중 몇 명의 유명인사(Francis Cardinal Spellman과 트루만의 개인 목사인 제일 침례교회의 Rev. Edward Pruden)들은 공공업무담당자인 미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 정보 교환 프로그램의 윤리와 종교”에 대한 특별정책 지침(Special Policy Guidance)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지침서는 냉전의 영적 차원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히 취약하고 부족한 범주를 분석했으며, 미국의 주장을 알리는 종교적인 이념을 정립하였다. 미국과 세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 치침서는 트루먼과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즉, “윤리적이고 영적인 자유를 소중히 하는 세계 모든 자주적인 시민들이 전체주의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유를 수호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151)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Ⅲ.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를 핵 제노사이에서 찾는다,

리프턴(Robert Jay Lifton)과 마커슨(Eric Markusen)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허시는 “나치의 제노사이드와 잠재적인 핵 제노사이드에는 공통의 유형”이 존재한다. 한 가지 유사한 점은 양쪽 모두 제노사이드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다는 것이다. 나치의 제노사이드적 이데올로기는 인종주의에 대한 나치의 “생의학적 시각”에서, 또는 “북 유럽 게르만족의 병에 대한 치료는 이른바 유대인이라는 병인을 파괴하는 데 달려있다는 생각”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한편 “무기의 경우에는 핵무기주의 이데올로기, 무기의 지나친 용인, 안전과 평화 및 구원에 가까운 어떤 것을 위해 무기에 의존하는 것”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153] 허시는 홀로코스트와 잠재적인 핵 제노사이드의 유사성을 경고하면서 핵 제노사이드에는 핵공격이 자국에 위협이 되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함으로 안전과 평화가 온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 대해 허시는 “전시이든 평시이든 간에 국가는 옳고, 국가의 적들은 틀리다. … 신과 올바름은 항상 자국의 편에 있다. 내셔널리즘과 기독교는 다른 국가에 대한 한 국가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신화”를 만든다고 하였다.[154] 그의 논리는 미국이 신의 유업을 받은 민족이라는 트루먼의 주장이 왜 나왔고, 이것이 소련공산주의와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국가와 단체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그리고 반대편으로 규정된 이들을 왜 핵으로 멸절하려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교회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트루먼 정부에 동조·연동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냉전의 진영논리

앞에서 진영론이 자신을 긍정적 자아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는 이원론적 속성을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은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으로

152)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167.
153) Robert Jay Lifton · Eric Markusen, *The Genocidal Mentality: Nazi Holocaust and Nuclear Threat* (New York : Basic Books, 1990), 12: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150에서 재인용.
154)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26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발전하게 되면서 인종, 민족, 계급, 체제 등을 기준으로 부정적 타자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특정한 논리와 정책지침에 따른 타자구성, 즉 분류는 이들에 대한 배제와 제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종전 직후에 형성된 배타적 세력권은 거대한 진영을 형성했다. 이 진영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냉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냉전의 시기 진영은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한 미국과 소련이 대립과 적대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소련은 폴란드와 헝거리 등 동유럽 각국에 친 소련 공산주의 정부를 세움으로 철의 장막을 구축하였다. 이를 소련의 세계 적화(赤化), 즉 팽창 정책이라 판단한 미국은 봉쇄를 통해 소련공산주의의 붕괴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팽창과 봉쇄는 소련 공산주의와 미국 자본주의가 서로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적화(赤化)를 목적으로 하는 팽창과 공산주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봉쇄의 영혼은 대체주의이었다.

미국의 소련 적대 정책은 클리퍼드 보고서, 바루크 플랜, NSC30, NSC68의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정책과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플랜으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으로 구체화 되었다. 특히 미국은 핵무기 독점과 핵공격 그리고 월등한 핵전력을 토대로 소련공산주의 진영을 봉쇄·붕괴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은 소련공산주의의 팽창이 미국의 안보와 생존에 결정적으로 위협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소련이 미국의 안보와 생존에 극심한 위협이 된다는 미국정부의 판단과 국민들의 불안은 예외적인 방법, 즉 핵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와 정책을 만들어 냈다.

미국의 정책에서 나타난 냉전의 진영논리는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소련 지도자를 악(惡)의 천재로, 자국을 신의 섭리를 따르는 계약백성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이 냉전의 진영논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이 극단화되었을 때, 부정적 타자를 비인간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비인간화의 전형적인 모습은 핵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 사용은 적인 소련공산주의는 물론 그 진영에 속한 민간인과 모든 생물체에 대한 멸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비인간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미국 연방교회협의회와 국제문제교회위원회(CCIA)는 소련공산주의 적대를 기조로 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동조·연동하면서 대량 살상무기인 핵공격을 정당화했다. WCC 내의 친미교회들은 6·25전쟁의 참전을 독려하면서 미국의 전쟁정책에 동조·연동했다. 연방교회협의회, CCIA, WCC 일부 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구조에 편입되면서 그 정책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이들이 미국의 정책에 동조·연동할 수 있었던 교회 내적 논리는 자국을 하나님의 계약백성으로 규정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를 악으로 규정한 경직된 이원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경직된 이원론은 냉전의 진영논리의 핵심인 동시에 기독교와 미국이 서로 동조·연동할 수 있는 회랑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은 중간적 존재들을 빠르게 훼파하면서 적으로 규정된 타자들을 구성하고 이를 배제제거하려는 배타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3. 미군정·이승만 정부의 정책

1) 미국무부의 대한정책

극동에서 미국의 전략은 일본열도를 방어 및 공격선으로 하여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팽창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외부의 무력공격과 내부반란에 의한 국가전복을 봉쇄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립적인 자본주의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경제, 군사, 정치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남한도 역시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1949년 3월 22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는 "1948년 4월 2일자 NSC8에서 한국에 관한 미국의 태도를 규정하였으나, 그 이후 상황발전을 고려하여 이를 재평가·사정한다."[155]고 하였다. 그렇다면 NSC8에 나타난 대

155)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1949년 3월 22일)," *FRUS* 1949. 969, (『자료대한민국사』 제11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반도 정책과 이후 상황발전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NSC8은 대한 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 a. NSC 8에 규정된바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
(1) 한국과 관련된 미국정책의 포괄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가능한 한 조속히 외국 지배로부터 독립되며 유엔회원국 자격이 있는 통일되고 자치적인 주권국가 한국의 건설
(c) 독립적이며 민주적 국가건설의 필수토대인 건전한 경제·교육체제 수립에 있어 한국인들을 원조보다 즉각적인 목표는 전술한 목표와 일치하게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에서 잔류 미 점령군을 철수하는 것이다.[156]

NSC8은 "미국정부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에서 미국의 철수를 가능하게 할 한국문제의 안정에 영향을 줄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남한에서 예상했던 정부를 수립한 후, 미국은 경제원조의 확대와 '북한 혹은 여타 세력의 공공연한 침략행동을 제외한 여타에 대해서도 남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토착무장력의 훈련·장비보급을 포함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원조계획을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행해야한다."다고 했다. 그리고 NSC8은 "1948년 12월 31일까지는 철군을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157] 그런데 "북한 혹은 여타 세력의 공공연한 침략행동을 제외한 여타에 대해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NSC8은 이것을 "외부공격, 혹은 내부 (국가-인용자) 전복"으로 표현하고 있다.[158]

156)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1;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3월 22일, 970.

157)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9-10;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3월 22일, 970.

158)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1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편 NSC8은 “한국에서의 소련의 목표는 소련이 한국 전 지역을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다.[159] 또한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의 전 지역의 지배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160] NSC8은 소련과 북한이 자신의 지배력을 한반도 전 지역으로 팽창시키려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과 북한 등 공산주의가 팽창정책의 구체적인 형태는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외부공격, 혹은 내부 (국가-인용자) 전복”이라는 것이다.

소련과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든, 혹은 내부세력의 반란에 의해서든 “소련의 지배력이 한국 전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련의 정치·전략적인 지위를 증대”시키는 반면에 “이 두 지역과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NSC8의 입장이다.[161] 그럼에도 “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과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이해를 거의 갖고있지 않다’는 책임 있는 군사당국의 판단 (합참의 견해 - SANACC 176/38을 참조)을 포함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했다. 철수로 생긴 남한 안보의 문제는 “실행가능 한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함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남한에 민주적인고 안정적인 독립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162]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남한 정부를 공고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련과 북한의 위력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NSC8은 소련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 즉 외부세력의 공격과 내부 반란세력의 국가 전복을 소련의 팽창정책으로 보았다. 1948년 4월 2일 이전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내부세력의 국가전복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NSC8에서 결정된 미군철수를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1948년 12월 17일, “미국 국무부 동북아시아부 부장 비숍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극동국 국장 버터워쓰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비숍은 “주한미군 철수 완료

159) Ibid., 7.
160) Ibid., 5.
161) Ibid., 7.
162) Ibid., 8-12;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975-97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가 대한민국정부의 안보와 안정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것이므로 철수가 좀 더 연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전 한반도 지배가 기정사실화 되고 일본열도가 세 방면에서 공산주의 국가들로 둘러싸이고, 일본의 섬들이 동북쪽 끝으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로부터 소련의 사정거리" 안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에 대항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독립적 국민들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이것은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조기 철수하게 되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NSC8을 시급히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163]

미국 국무부 점령지역 차관보 살쯔만도 유사한 의견을 내 놓았다. 1948년 9월 7일, "미국 국무부 점령지역 차관보 살쯔만의 대한경제원조 정책안에 대한 비망록"에서 그는 NSC 8이 "소련의 대한국정책의 주요 목표는 궁극적으로 소련의 전 한반도 지배를 달성하는 것", "소련의 전 한국 지배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전략적 입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이 지역 및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 "남한에 수립된 정권이 소련이 사주하는 세력에 의해 전복된다면 이것은 유엔의 권위와 영향력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유엔의 그것과 … 평행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NSC8이 남한에서 "미군 철수 직후에 최소한의 구호와 복구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초래될지도 모를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 점을 강조했다.[164] 살쯔만도 한국내의 상황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내부반란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163) "미국 국무부 동북아시아부 부장 비숍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극동국 국장 버터워쓰에게 보내는 비망록," 1948년 12월 17일, *FRUS* 1948, 1337~1340, (『자료대한민국사』 제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그의 입장은 미국무부와 일치했다.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무한정 점령하거나 한국에 군대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 기본목표와 태평양에서의 항구적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164)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7-13; "미국 국무부 점령지역 차관보 살쯔만의 대한경제원조 정책안에 대한 비망록," 1948년 9월 7일, *FRUS* 1948, 1292~1298,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구호와 복구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NSC8, 비숍, 살쯔만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소련공산주의 정책이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려고 한다는 것이다. 소련과 북한은 전쟁과 내부반란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무부는 한국의 상황발전에 대해 인지하고 한반도 정책을 재고했다. 이것은 NSC8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6개월 정도 연기하는 것과 구체적인 경제 지원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NSC8/2로 귀결되었다.

NSC8/2는 "NSC8의 채택이후 상황발전을 고려"하여 "1948년 12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하는 계획"을 개정했다. 이곳에 명기된 개정 이유는 우선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2일까지 한국문제 검토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절차의 문제였다. 또 하나는 1948년 11월 12일, 주한미군의 최종철수를 수개월 동안 연기해달라는 주한 미특별대표의 요청과 상당기간 동안 주한미군철수를 보류해달라는 한국정부의 공식 요청때문이었다. 특히 주한 미특별대표는 "현존하는 조건 하에서 군대만이 성공적인 경제부흥과 기초적 정치경제문제에 대한 여하한 공격에도 필수불가결한 한국의 내외안전"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외부의 침략이나 외부의 사주를 받는 반란 같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권위에의 도전을 지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165] 바로 이것이 미국무부가 NSC8을 재고한 결정적 이유였다.

그러나 애치슨을 비롯한 미국무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시기를 조정하되 주한민군 철수는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166] 이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철수는 1948년

165)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03월 22일, 971-972.

166)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애치슨 美국무장관이 무쵸 주한미대사에게 보낸 전문," 1949년 5월 9일, FRUS 1949, 1014~1016, (『자료대한민국사』 제12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이 전문에서 애치슨은 "즉각적으로 6월 30일경에 병력의 철수를 완료하려는 우리의 의도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李承晩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반대 발언과 관련해 애치슨 美국무장관이 존슨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 1949년 5월 10일, FRUS 1949, 1016. (『자료대한민국사』 제12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애치슨은 "NSC 8/2에 제시되었듯이, 우리가 한국에서 성취하길 바라는 다른 목표들에 비추어 우리에게 손실로 작용할 위험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 철군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2월 말에서 1949년 7월 1일 이전으로 연기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향후 대한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는 다음과 같다.

(a) 남아있는 현 회계연도와 1950회계연도에 대한민국보안군에 대한 훈련, 무장, 보급의 현행 및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행. 이는 보안군이 남한의 내부질서의 수호자이자 외부침략의 억제자로 효과적으로 복무함을 보증하는 것이다.
(b) 1950 회계연도와 장래 발전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한국 정부에 대한 경제·기술원조계획의 실행
(c) 유엔의 체제 내외에서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
… 제시된 보상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뒤이어, 소련이 지배하는 북한정권 측에서 직접적인 군사침략이나 배후조정에 의한 폭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 미국 국방기구의 견해는 단순히 잠정적인 철군 연기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반면, 주요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잔류한 주한미군이 붕괴되거나 한국을 포기해야만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추가위험을 영구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란 견해이다. 극동군 사령관은 현행 계획의 범위 안에서 한국보안군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이 부대의 훈련 상태 및 전투준비태세는 미 점령군의 완전철수를 정당화시킬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고했으며, 현시점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철군이 일본 내 미국의 지위에 역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했다.[167]

미국무부는 주한미군철수를 확인하면서 외부공산주의 침입과 내부 반란세력에 의한 국가전복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경제적 지원과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는 것이었다.[168] 미국무부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했고, 합참과 극동군사령부는 전쟁이 발생했을 시 주한미군의 후퇴와 패배를 예측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철수를 권고했다. 반면 미국무부 동아시아부와 극동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해 줄 것, 즉 남한이 소련의 세력권으로 흡수될 경우 일본의 공산화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 3면으로부터 일

167)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3월 22일, 976-977.
168) Ibid., 977-97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본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한미군의 조기철수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NSC8/2는 철수를 관철시켰고, 다만 시기를 연기했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군사고문단을 통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남한의 자립 정부를 수립함으로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소련 공산주의를 봉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무부가 내부 반란으로 판단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NSC8은 소련공산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봉쇄정책임이다. 이것은 남한의 단독정부를 통해 외부 군사적 침입과 외부의 사주를 받은 내부 반란세력의 국가전복 시도를 봉쇄한다는 것이었다. NSC48은 이를 집약하고 있다. NSC48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일본, 류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열도를 소련의 공격에 대한 제1방서선인 동시에 제1공격선으로 두었다.[169] 즉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열도를 미국의 대 소련 봉쇄 방어벽 및 공격선으로 삼은 것이다. NSC48은 소련과 공산주의를 봉쇄할 수 있는 이런 지정학적 역할 속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1) (내부의) 공산주의의 확장 위험을 통제하고 (외부적으로) 소련 지배하에 있는 공격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야기 되는 위력을 봉쇄(containment)할 정도로, (2) 그리하여 궁극 적으로 전국을 민주주의적 기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170]

NSC48에 나타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그리스의 정책과 거의 똑같았

169)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Containment: Document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71-84: 도진순,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의 성립과 분화," 『역사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0), 81;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를 주장한 NSC8은 첫째, 외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UN회원국이 되도록 하며 가능한 빨리 통일, 자치, 주권 국가를 수립하고 둘째, 수립된 민족 정부가 조선인민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대표하도록 보장하며 셋째, 독립민주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로서 건전한 경제, 교육체계를 갖추도록 조선인민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 하도록 하고 있다. "NSC8: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1164, 1168.

170)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Containment: Document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256: 도진순,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의 성립과 분화," 82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 1948년 2월 12일 미국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NSC5/2는 “미국은 그리스가 외부의 무력 공격이나 소련이 지배하는 그리스 내부의 공산주의 운동을 통한 소련의 지배하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정치, 경제,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고했다.[171] 외부 공산주의 국가의 공격과 이에 지원을 받는 내부 반란세력의 국가전복을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제, 정치, 군사적 지원을 통해 이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봉쇄정책의 목적은 해당 국가의 안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즉 1948년 1월 6일 작성된 NSC5는 “그리스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통합을 파괴하려는 소련의 시도를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전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이라고 했다.[172] 미국은 지중해 동부와 중동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를 선택했고, 이것은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반도에서의 봉쇄정책은 태평양에서의 자국의 안보를 위해 소련의 팽창을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에 따라 그 방법이 결정되었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외부공산주의의 침입과 내부 반란을 봉쇄함으로 소련의 팽창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립적 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에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 즉 일본열도를 확실하게 자신의 세력권에 포함시킴으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은 극동에서의 세력권 유지와 이를 통한 미국의 안보를 기준으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일본열도를 주축으로 하고 남한을 보조 축으로 하는 봉쇄정책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세력권에 편입됨으로 외부 침입과 내부 반란에 의한 국가전복을 봉쇄하고자 했다. 미국과 한국은 미군철수라는 점에서 서로 이견을 보였지만, 소련 공산주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입장에서는 일치했다. 따라서 소련 공산주의 적대와 자본주의 진영의 사수하는 진영적 사고와 정책지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였다. 그런데 이 진영

171)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President Truman NSC 5/2.” February 12, 1948, 51.

172) “NSC5: The Position of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Greece,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uncil(Souers),” January 6, 1948, 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적 사고는 공산주의를 적대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을 파괴하면서 진영을 구별하였고, 동시에 부정적 타자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해방정국에서 한국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2) 미군정과 이승만의 두 개의 진영론

1945년 11월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하 독촉중협) 조직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은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을 이 단체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미·소간의 협력을 염두에 둔 행보이었다. 당시 미 국무부의 공식입장은 미·소간의 협력에 기초한 다자간 신탁통치였다. 그러나 세계는 변하고 있었다.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개방된 세력권은 미국과 소련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배타적 세력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미군정과 군정의 지원을 받는 남한의 유력 정치인 이승만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미국의 정책변화를 감지하면서 신탁통치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독촉중협를 구상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민족주의 우파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합작하는 형태의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이를 북한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변수는 신탁통치였다.

1945년 10월 23일자 「매일신보」는 10월 20일에 미 국무부 극동국장 빈센트(John Cartter Vincent)가 "蘇·中 양국과의 협력관련을 강화하여 극동에 있어서 미국정책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에 대하여서는 동 국의 신탁관리제를 수립함에 앞서서 우선 소련과의 사이에 의사를 소통"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조선은 … 지금 당장 자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은 우선 신탁관리제를 실시하여 그 간 조선민중의 독립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173]

한국이 당장 자치할 능력이 없다고 한 빈센트의 견해에 반해 이승만은 맥아더·하지가 한국이 자치능력이 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신탁통치 반대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귀국 직후인 1945년 10월 19일, 김영섭·류경근·유억겸·김창제·김활란·이극로·오천석·이묘묵·김유순·정인과·백낙준·

173) 「매일신보」 (1945년 10월 23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현동완 등 기독교 각계의 대표 80여 명과의 회담에서 이승만은 “하지장군은 우리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할 일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주독립은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다.[174] 이어 10월 22일 조선호텔에서 그는 “태평양방면 최고지휘관 맥아더장군도 조선인의 자주실력이 없다는 것은 허위선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하지중장과 아놀드 군정장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각 정당이 상호 협력하여 합동통일하면 훌륭히 자주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주에 있을 때에 … 반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지칭을 받았으나 나 자신은 소련에 대하여 하등의 감정이 없다. 그러나 오늘의 현상에 비추어 국제적 우의도 좋으나 우리나라의 생명 주권도 이 국제적 우의보다 선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나는 또한 주장하고 싶다.”라고 하였다.[175] 이는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 협력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정책도 마찬가지의 기조 아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런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 한국의 생존에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즉 이것은 한국이 자치능력이 있다고 한 맥아더·하지·아놀드의 입장과 신탁통치를 한국 정책으로 채택한 미 국무부를 대조시킨 것이었다. 아울러 이승만은 “桑港(샌프란시코-인용자)에 있을 때부터 이러한 신탁통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176] 10월 26일, 황금정 일본생명빌딩에서 열린 각 정당행동통일위원회는 독촉중협 조직 등을 협의한 후, “완전한 자주독립을 주장하며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177]

이승만은 신탁을 독립의 반대 개념으로 고정시키길 원했다. 최소한 이승만이 한국의 자치능력을 인정했다고 한 미군정 하지 장군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조차도 임시정부, 혹은 과도정부를 계획했고, 이는 민주의원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군정의 실질적인 남한만의 신탁통치였다. 그런데 이에 가장 충실한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즉시 독립론의 초점은 독립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정부의 형태를 공산주의로 하느냐

174) 「자유신문」 (1945년 10월 20일).
175) 「자유신문」 (1945년 10월 23일).
176) 「자유신문」 (1945년 10월 23일).
177) 「매일신보」 (1945년 10월 29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본주의로 하느냐에 있었다. 공산주의 적대와 친미를 근간으로 하는 냉전의 논리가 그의 정치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남로당 박헌영의 주장을 소련의 연방화로 규정하고, 한국을 소련의 속국, 혹은 노예로 만들고자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공산당은 물론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중간파, 김구를 비롯한 중국망명 임시정부 요인조차 독립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규정되어 배제되었다. 특히 1948년 5·10선거를 반대하면서 남북회의를 주도한 김구를 배제할 때 그의 진영논리는 최고에 달했다. 그의 정치노선은 공산주의 배제 → 중간파 배제 → 김구 민족주의 배제로 나타났다. 그를 지배하는 논리는 냉전의 진영논리였다.

맥아더가 한국의 신탁통치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훨씬 이전일 것이다. 1945년 10월 1일, 마셜이 극동군 사령관맥아더에게 "가장 빠른 현실적 시일" 내에 "국제적 신탁통치가 한국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 무부·전쟁부·해군부 3부조정위원회(States·War·Navy Cooperation Council) 에 제출되었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면서, 맥아더와 그의 정치고문 애치슨에게 논평을 요청했다.[178] 하지와 이승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의 고문이자 이승만의 친구인 베닝호프(Merrell H. Benninghoff)는 1943년부터 국무부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계획한 사람이고, 1945년 8월 초에는 3부조정위원회의 극동문제 소위원회를 주관했기 때문에 국무부의 한국 신탁통치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는 자신의 군정 고문인 베닝호프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10월 21일, 이승만은 올리버(Robert T. Oliver)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지가 국무부로 보낸 문서의 사본을 자신에게 보냈는데, 여기서 "국무부가 조기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179] 또한 그는 10월 25일 동경에서 맥아더와 신탁 문제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고 돌아와 이승만과 면담을 하였다.[180] 10월 29일, 이승만은 하지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즉 미국의

178) "Marshall to Macrthur," October 1, 1945, *FRUS*, 1945, vol 6, 1067-168: 정병준, 『우남 이승만』 , 452 재인용. 당시 마셜은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부조정위원회는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고 따라서 육군부 마셜이 남한을 관할하던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한 것이었다.

179) "Syngman Rhee to Oliver," October 21, 1945, Oliver Papers: 정병준, 『우남 이승만』, 453에서 재인용.

180) MA, RG 5, Box 66, Folder 6: 정병준, 『우남 이승만』, 478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극동부장 빈센트가 말한 신탁통치문제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보지 않으며, 독촉중협는 아직 착수치는 못했으나 희망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맥아더 역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81]

하지와 맥아더 그리고 이승만은 10월 초 이미 미국과 소련의 협력에 근거한 신탁통치가 한국에서 실시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하였다. 이 세 명은 모두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점과 그 대안으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의 각 정당을 토대로 통일전선을 형성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독촉중협라는 점을 공유하였다. 그 시작은 이승만의 귀환 중 1945년 10월 13-14일 동경에서 열린 맥아더 · 하지 · 이승만의 회담이었다.[182]

10월 15일, 극동군 사령부 정치 고문 애치슨이 번스 국무장관에게 전문을 보냈는데, 이를 통해 이승만 · 맥아더 · 하지의 동경 회합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이 전문에서 이승만이 동경을 방문했고, 10월 13일 자신은 하지와 만나 회담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했다. 즉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이승만과 김구 및 김규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집행부는 한국 임시정부(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라기 보다 전 한국 국민집행부(National Korean People Executive)로 부를 수 있다고 했다.[183] 하지는 귀환 직후인 10월 16일 정치 고문 베닝호프에게 비망록을 전달했고, 베닝호프는 국무부와 협의차 미국으로 들어갔다. 비망록에서 하지는 "다만 명목상의 최고 지도자를 가진 정부라도 좋으니, 임시적으로나마 한국 정부를 조속히 수립하고, 가급적 빨리 총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84]

이승만 · 맥아더 · 하지의 동경 회담 후, 맥아더의 정치 고문인 애치슨이

---

181)「자유신문」(1945년 10월 30일);「매일신문」(1945년 10월 30일)

182) 10월 4일 워싱턴 출발한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괌을 경유하여 12일 11시 동경에 도착했다. 하지도 동경으로 와서 13일 맥아더의 고문인 애치슨과 만났다. 13일과 14일 이승만 · 맥아더 · 하지 회담이 열렸다. 하지는 귀경, 애치슨 "한국국민행정부" 계획안을 작성했다. 16일 이승만은 서울에 도착했고, 하지는 회담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베닝호프를 통해 국무부로 전달했다. 정병준, 『우남 이승만』, 443-444.

183) "Atcheson to Byrnes." October 15, 1945, *FRUS,* 1945, vol. 6, 1091-1092: 정병준,『우남 이승만』, 444-445에서 재인용.

184) "Hodge to Benninghoff," October 16, 1945, OPD 336 Korea, sec. I, FG 319: 정병준, 『우남 이승만』, 447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번스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과 하지의 정치 고문인 베닝호프가 국무부에 전달한 비망록은 유사하다. 이것은 '전(全)한국국민집행부' 와 '명목상의 임시정부' 로 요약된다. 애치슨과 베닝호프를 통해 맥아더와 하지는 다자간 신탁통치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의 자치능력을 주장하면서,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우파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명확하게 임시정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전한국국민집행부를 세워 가급적 빨리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임시정부는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조직된 집행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맥아더, 하지가 생각하는 이 집행부는 바로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었다.

11월 2일 맥아더에게 보내고, 5일 육군참모총장 마셜에게 전달된 하지의 전문은 이승만이 좌우 정당통일을 잘 이끌고 있고, 김구가 귀국하면 이승만과 합류해 통일의 전진을 이룩할 것, 대의적이고 확대된 통합고문회의(a coalition advisory council) 설치, 통합고문회의가 잘 진행되면 미군정의 감독 하에 명목상의 한국행정부를 설치, 일정 시기 후, 총선을 통해 국민정부(a popular government)를 선출, 해방을 전제로 북한 지역까지 이 조치를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185] 이전문은 분명히 하지가 10월 16일에 미국으로 귀환하는 베닝호프에게 건네준 비망록의 "h. 명목상의 최고 지도자를 가진 정부라도 좋으니, 시급히 남한에서 임시 한국 정부를 조직하고, 총선거를 통해 이를 합법화 한다." 라는 구상과 동일한 내용이었다.[186]

1945년 11월 20일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진 랭던(William R. Langdon)은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Governing Commission)를 통한 과도정부 수립과 국가수반 선거를 제시했다. 즉 (1) 군정 내에 김구를 중심으로 하여 회의체(Council)를 조직하고, 이 회의체가 정무위원회를 조직, (2) 정무위원회와 군정을 통합, (3) 정무위

185)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to the Chief of Staff, Marshall," November 5. 1945, CA 54311, 740.00119 control(Korea)/11-545: 정병준, 『우남 이승만』, 478에서 재인용.

186) "Memorandum by Hodge for Benninghoff," October 16, 1945, Subject : Vist of Washington, October 16, 1945, 1945, RG 165, OPD 091 Korea: 정병준, 『우남 이승만』, 478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원회가 과도정부(Interim Government)로 군정을 승계하고, 사령관은 미국인 감독관과 고문들에 대한 임명권과 거부권 보유, (4) 정무위원회는 국가수반을 선거로 선출하고, 국가수반은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련 측의 참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계획은 38도 이남의 한국에서만 실행한다는 것이다.[187]

하지의 전문은 한국행정부 → 총선거 → 한국국민정부라는 계획을 제시했고, 랭던 안은 이를 좀 더 발전시켜 정무위원회 → 과도정부 → 국가수반 선거 선출 → 정부구성을 제시했다. 모두 신탁통치와 대조되는 한국의 자치정부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승만이 귀국한지 1달여 만에 이루어진 애치슨의 전문, 베닝호프가 전달한 하지의 비망록, 맥아더를 통해 마셜에게 전달된 하지의 전문, 국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랭던의 전문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이를 북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이승만과 군정은 한국인들의 자치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했고, 각 정당의 통일을 통해 이를 입증하려 하였다. 그 첫 걸음인 10월 26일, 황금정 일본생명빌딩에서 열린 '각 정당행동통일위원회'는 독촉중협 조직 등을 협의한 후, "완전한 자주독립을 주장하며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188]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지의 전문 중 "총선을 통해 국민정부를 선출, 해방을 전제로 북한지역까지 이 조치를 확대(further)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랭던안은 소련 측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남한에서만 정부를 구성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안 모두 남한의 자유민주정부를 세우고 이를 북한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병준은 이를 "조숙한 냉전의 용사였던 하지가 민족주의적이고 대소 봉쇄적인 발상으로 취한 일"이라고 평하였다.[189] 남한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북한가지 확대한다는 정책지침은 처음부터 북한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엄밀히 말해 미군정이 주도하는 남한만의 신탁은 인정하되 미·소가 합의한 다자간 신탁은 배제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

187)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20, 1945, 740.00119 control(Korea) 11-2145: 정병준, 『우남 이승만』, 481-482.
188) 「매일신보」 (1945년 10월 29일).
189) 정병준, 『우남 이승만』, 48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 이런 측면에서 정병준 교수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지금 우리나라의 국운이 조석에 달려 있음이다.(중략) 시기가 대단히 절박하니(중략) 최근 개최될 모스크바 각국 회상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있을 터인데(중략) 독촉중협은 원래 민의 대표기관을 만들려 한 것이 목적이다. … 우리는 임정의 승인을 목표로 싸워 나갈까, 독촉중협을 육성하여 나아갈까 어름어름 하는 사이에 신탁 단체 같은 것이 음생(蔭生)되면 참으로 야단이다. … 외교 관계 신탁문제 등에 대한 것은 나의 독단적인 의사만이 아니다. 군정 당국에서도 극력으로 자기 나라의 국무성과 싸워 가면서 우리를 조력해주고 있다.[190]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최종 확인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직된 것이 독촉중협이고, 이것의 중앙집행위원회가 랭던 안의 정무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이를 위해 군정 당국이 미 국무부와 대립하면서 독촉중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1945년 11월 2일, 오후 2시 서울 천도교 대강당에서 조선공산당 박헌영을 비롯한 각 정당, 각 단체대표들이 독촉중협 결성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회의참석자들은 “조선의 즉시 독립, 38도선 철거, 신탁통치 절대 반대”를 결의하였다.[191] 독촉중협의 이러한 결정은 자주독립과 제 단체의 통일을 통한 과도정부(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를 북한으로의 확대한다는 미군정의 안(랭던안)과 이승만의 정치 노선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조선공산당과 중국망명 임시정부는 이를 반대했다. 독촉중협은 조선공산당을 포함한 좌익과 우익 39명의 중앙집행위원을 선정하였다. 12월 13-14일에 열린 독촉중협 전형위원회에서 박헌영은 중앙집행위원을 민족주의 측 반과 공산주의 측 반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이 제안이 거부되자 독촉중협에서 탈퇴했다. 그 결과 12월 15일에 개최된 제1회 중앙집행위

190) 『獨立促成中央協議會 中央執行委員會 第1會 會議錄』(1945년 12월 15일), 『雲南李承晩文書』13권, 39, 45, 94-95, 102-103, 123-125: 정병준, 『우남 이승만』, 493.
191) 「자유신문」 (1945년 11월 3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원회에는 39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우익인사 15명만 출석했다. 중국에서 귀국한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25일 임정과 독촉중협이 전혀 무관함을 강조하며, 임정은 정당 간의 통일과 임정 기구의 확대 보강이라는 두 가지 길을 병진할 것이라고 했다.[192] 곤경에 빠진 이승만은 12월 17일에 방송연설을 통해 공산당원들은 그들의 조국인 소련으로 돌아가라고 비난했다.[193] 한편 미군정도 12월 19일에 CIC를 급파해 중앙인민위원회 사무실을 포위하고 서류 등을 압수했다.[194] 이승만과 미군정은 조공의 독촉중협 탈퇴로 곤경에 처하자 조선공산당을 배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모스크바 3상회의는 한국에 대한 국제 신탁통치를 결정하였지만, 조공이 빠진 독촉중협으로는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이를 토대로 조정·협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잃었다.

1945년 12월 27일 신탁통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자 28일 임정은 긴급국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임정 내부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것은 내무부장 신익희와 그가 이끌던 정치공작대·행정연구위원회였다. 내무부는 1945년 12월 31일 "현재 전국행정청 소속의 경찰기관 及 한인 직원은 전부 本 임시정부 지휘 하에 예속"한다는 國字 第1號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경찰대표들은 임정지시에 따르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서울공업전문학교직원회 등은 탁치반대 총사직을 결의하는 등 임정의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195] 그러나 하지의 경고로 군정을 접수하려던 임정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1946년 1월 17일 조소앙 외무부장은 "임시정부는 개정방침에 의하여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고 과도정권을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196] 군정 접수 실패 후, 임정은 그 대안으로 비상정치회의소집과 임시정부 수립을 제시했다. 이승만은 독촉중협으로 비상정치회의를 흡수하고자했고, 김구를 설득하였다. 그 결과 1월 21일, 비상정치회의주비회와 독촉중협이 연합하여 비상국민회의주비회가 되었다.[197] 그런데 23일에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이,

192) 「신조선보」 (1945년 12월 26일).
193)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
194) 「동아일보」 (1945년 12월 20일).
195) 「동아일보」 (1945년 1월 2일).
196) 「동아일보」 (1946년 1월 17일).
197) 「중앙신문」 (1946년 1월 23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24일에 무정부주의총연맹이 각각 비상국민회의주비회를 탈퇴하였다.[198] 독촉중협과의 결합과정에서 임정 내의 좌파들이 제거된 것이다. 2월 8일, 이승만과 김구는 임정의 반탁총동원위원회와 독촉중협의 지방 지부를 합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는 대중 조직을 구성했다.[199]

2월 13일, 이승만과 김구는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최고정무위원 2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최고 정무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다음 날 이를 토대로 민주의원을 결성되었다. 이러한 정치 일정은 1945년 10월, 이승만·맥아더·하지의 회합의 산물인 과도정부 수립이라는 폭표에 따라 진행되었다. 또한 하지의 정치고문이자 이승만의 사설고문인 굿펠로우는 자신의 약력을 기술하면서 "존 R.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으로 남한에 최초의 임시정부(the first temporary governmet)를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했다.[200]

1945년 10월 중순 동경회합 이후 이승만·맥아더·하지가 협의한 정무위원회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정책은 1946년 2월 13일에 최고정무위원회가 구성되고, 민주의원이 조직되면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신탁통치에 대비해 조직하고자 했던 과도정부는, 모스크바에 3상회의에서 이미 신탁통치를 결정한 이후 조직되었고, 조선공산당과 여운형 등 중간파가 배제된 상황이어서 신탁을 대신할 정부로서의 명분도 약했다. 더군다나 이승만이 광산 스캔들로 인해 민주의원 의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과 미군정은 공산주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민주의원이 조직된 직후인 1946년 3월 4일, 돈암장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의 맹성을 촉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의심 없이 세계에 증명한 것은 한국이 지금은 공산주의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확실한 단절을 주장했다. 즉 "누구나 공산분자와 합동을 이루지 못하고는 통일이 될 수 없다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곳 내 집에 불 놋는 자와 함께 일하라는 말과 같으니 될 수 없는 일임으로 불 놋는 사람이 주의(主義)를 곳치기 전에는 합동될 수 없으며 그이들이 주의를 고집할 동안에는 한

198) 「조선일보」 (1946년 1월 24일); 「조선일보」 (1946년 1월 26일).
199) 「조선일보」 (1946년 2월 8일).
200) 『굿펠로우 문서철』 box 2, Biograpical Material: 정병준, 『우남 이승만』, 530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없는 터이다.”라고 했다.[201] 그는 공산주의자는 물론 이와 협조를 요구하는 세력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조선공산당에 대한 배제는 공산주의 적대를 표면화 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련공산주의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의 단절, 즉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1946년 5월 정읍발언 이후부터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한국의 의회가 조직되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주장하는 김규식 등 중간파와 남북한의 통일을 주장하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측 인사들을 배제하였다. 당시 이승만과 미군정은 총선연장이나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공산당에 협조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1946년 1월 신탁통치를 논의할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1월 15일에 미소공위 소련측 대표 73명 입경하고,[202] 하지가 미소공위 1차 회담 개최일자와 양측대표를 발표하였다.[203] 이승만과 군정은 1946년 초,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변하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미소공위가 신탁통치에 대한 결론 없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미소공위는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정과 이승만의 대책은 단정이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던 1946년 4월 6일에 샌프란시스코발 AP통신은 미군정이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을 미 본국에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4월 7일에 이를 인용한 서울신문은 “미국 桑港(상항)으로부터의 外電(외전)에 의하면 미점령군당국은 남조선에 한하여 단독정부를 수립”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군정장관 러취는 이를 강하게 부정하였다.[204] 또한 러취는 미소

---

201) 이승만, “개전하면 포옹동진 – 공산주의자의 맹성을 촉진,”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서울 : 독립정신보급출판부, 1949년), 109. 이 책의 초판은 1948년 10월 10일 발행되었고, 상편과 하편으로 되어있다. 상편은 이승만의 독립노선에 대한 양우정의 설명이고, 하편은 이승만의 성명서 및 담화문 등이다.

202) 「조선일보」 (1946년 1월 16일).

203) 「중앙일보」 (1946년 1월 16일).

204) 「서울신문」 (1946년 4월 7일). 이 기사에 의하면, 민의원 총리 김구는 우리는 오직 남북통일과 좌우협조로 된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원하며 끝까지 노력할 뿐이라고 하였고, 한민당 함상훈, 국민당 안재홍, 재미한족협회 송종익, 인민당 여운형, 신민당 선전부장, 전농, 공산당 선전부, 민전 선전부장, 신한민당, 비상국의, 문화단체총련맹 등 국내외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단정반대와 통일정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승만만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공위 휴회 직후인 5월 20일 하지가 “조선은 아직도 임시정부 하에 통일해야 된다. 미국 측 대표는 대서양 헌장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였다.[205] 대서양 헌장은 미국, 소련, 영국이 상호 협력을 토대로 다자간 자유무역, 집단 안보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점령지의 국가들이 선거를 통해 자국의 정부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얄타회담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영국·소련 간의 협력에 기초한 개방적 세력권이 점차 배타적 세력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도 변하고 있었다.[206]

러취 군정장관은 단정에 대한 반대가 하지의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이승만은 5월 11일 민주의원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하지 중장과도 회견”하였다고 하면서 미소공위의 “휴회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하였다. 그 대책은 자율적 정부수립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족 사상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수립되기를 갈망”한다고 했다.[207] 이는 20여일 뒤에 선언될 단정에 대한 암시였다. 그런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정에 대한 입장을 하지와 공유하였다는 이승만의 주장이다.

4월 8일 업무협의차 맥아더를 방문했던 하지 중장이 12일 귀국할 당시, 국내 신문들은 미소공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정이 수개월 내에 철폐되어 행정권이 한국인들에게 이관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하지의 동경 방문이 단정 수립 제의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8] 이승만의 친구였던 굿펠로우는 1946년 5월 25일 경 소련이 조속히 무산된 제1차 미소공위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남한 단독정부의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9]

---

205) 「서울신문」 (1946년 5월 22일).
206) 「조선일보」 (1946년 1월 15일). 1946년 1월 12일 미소공위를 며칠 앞두고 미국의 육군부 장관 패터슨이 내한 했다. 그의 방문은 국내의 많은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미국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미행정부의 각료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방문 기간 동안 이러한 세계정세와 미국의 핵심 정권에서 흘러나오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하지와 공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7) 「동아일보」 (1946년 5월 12일).
208) 「서울신문」 (1946년 4월 13일). 1946년 4월 12일 “하지中將은 東京에서 聯合軍最高司令官 맥아더將軍과 조선행정문제에 관한 중요회담”하고 귀경하였다고 하였다; 「한성일보」 (1946년 4월 13일): 정병준, 『우남 이승만』, 565에서 재인용.
209) 「자유신문」 (1946년 5월 25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승만은 물론 미군정 내부에서도 단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1946년 6월 3일에 열린 정읍 환영강연회에서 이승만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고 하였다.[210]

정읍발언은 이승만의 38선 이남 순행과정에서 나왔다.[211] 이 집회를 주도한 것은 각 지역의 독립촉성국민회 지부였다. 이승만의 남선순행 동안 독립촉성국민회의 각 지부와 우익 단체들이 새롭게 조직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좌익타도로 이어졌다.[212] 이는 또한 이승만의 대중적 지지도를 끌어올렸다. 5월 10일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남선순행을 중단한 이승만은 미소공위 무기 휴회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상경했다. 우익은 독촉국민회를 중심으로 5월 12일 서울에서 반탁 시위를 개최했고, 시위대는 소련 영사관과 공산당사 앞에서의 시위를 필두로 좌익신문사 3곳을 공격했다.[213] 5월에 발생한 정판사 위폐사건은 좌익 타도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건이 되었다.

남선순행을 통해 이승만은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6월 10-11일에 개최된 독촉국민회 전국대회를 통해 이승만은 우익 대중 조직의 수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1946년 6월 임정의 정치공작대의 수장인 신익희가 임정과 갈등을 빚고 이승만과 연합하여 독촉국민회 부의장에 임명되면서 임정의 조직력은 급속히 약화된 반면 이승만의 조직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6월 23일 2만 명이 모인 개성연설에서 3만 명의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2,997만 명의 여타 한국인들은 통일과 독립을 원한다면, “독립을 위한 우리 투쟁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두 친미파이다”라고 하면서 “하지 장군의 목적은 나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했다.[214] 그는 미국과 소련, 자유민주주

210) 「서울신문」 (1946년 6월 4일).

211) 4월 17일 천안을 필두로 대전, 옥구, 옥천, 김천, 대구, 영천, 경주(4월 26일), 울산 부산, 동래, 마산, 진해, 함안, 진주, 하동, 순천(5.5), 보성 장흥, 목포(5,8), 광주, 정읍(6.3), 전주, 이리, 군산으로 이어졌다.

212) 「청년해방일보」 (1946년 5월 30일). 예를 들어 순천환영식에서 이승만 연설이 끝나자 우익 관계자 수백 명이 시내를 행진하며 인민위원회, 공산당, 민주주의민족전서, 부녀총동맹 사무소를 습격하고 간판을 모두 떼어버렸다.

213) *G-2 Weekly Summary*, no. 35(1946. 5. 15): 정병준, 『우남 이승만』, 558에서 재인용.

214) *G-2 Weekly Summary*, no. 42(1946.7.5.): 정병준, 『우남 이승만』, 563에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고 공산주의자를 독립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의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진영론이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6월 3일 정읍에서 단정을 주장하며 "우리는 …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해야 한다[215]는 말과 같은 맥락이었다. 즉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강해지자 본래의 입장인 반공주의로 돌아 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하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한국의 북반부를 영원히 소련지배 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승만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듯 했지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박헌영 지배 하의 공산주의자들만을 제외하고 이런 요소(여운형, 허헌-인용자)들을 정부에 끌어들이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216]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배제한 그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통일전부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미군정의 하지와 남한의 유력한 정치가 이승만은 반소·반공이라는 입장에서 정확히 일치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국가를 건국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미군정과 이승만의 정치노선이 미 국무부의 정책과 다른 듯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해방 직후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상황변화에 따라 공산주의와 협력을 통한 건국, 중간파와의 협력을 통한 건국, 민족주의 우파만의 건국으로 그 형태가 변화했지만 결국 미국무부의 정책, 즉 공산주의 적대와 자본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는 하지와 국무부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이승만의 남선순행은 첫 번째, 대중들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는 좌익 파괴와 우익 건설의 효과를 내었다. 세 번째, 이승만이 반소·반공이라는 이념적 통일을 토대로 단정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의 정책은 소련과 공산주의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 예를 들어 중간파 적대라는 정책기조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단정의 정책이념이 되었다. 이러한 이승만과 하지의 정치적 기조는 1946년 2월의 민주의원, 1946년 여름의 좌우합작운동과 같은 해 11월의 과도입법의원구성까지 유지

재인용.

215) 「서울신문」 (1946년 6월 4일)

216) "이승만이 굿펠로우에게 보낸 비망록" (1946. 6. 19): 정병준, 『우남 이승만』, 571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되었다. 그 결과 1948년 5.10선거를 통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선거 직후인 1948년 5월 26일 이화장에서 이승만은 기자단과 회견하고 국회 소집 후 정부수립 기타 고문단 설치 문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問) 앞으로 金九·金奎植 양씨와 합작할 용의는 없는가?
> (答) 나는 지금까지 양씨와의 합작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쓰러진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먼저 세워놓고 다음에 쓰러진 다른 부분도 살려야 된다는 것이 본래부터의 나의 주장이며 세계가 다 옳다고 인정하는 바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합작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양씨가 뜻을 고친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인천으로 가는데 서로 악수하면서 갈수는 없는 것이니 그러자면 한군데로 방향을 고쳐야만 되는 것이다.[217]

이승만은 김규식과 김구가 "뜻을 고친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협상을 그만두고 단정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1947년부터 나타났다.

이승만은 1947년 9월 18일에 발표한 "선거 반대파와 협동할 수 없다"는 성명서에서 "총선거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중립태도를 가지거나 혹 좌우간 결정을 못하는 등 단체에는 … 협동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였다.[218] 그에 따라 UN대표로 조소앙과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조소앙은 총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규식은 좌우합작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이제 그는 좌우합작과 총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배제하였다.[219] 이승만은 1948년 4월 1일, 남한 총선거를 앞두고 "남북회담 문제는 세계에서 소련정책을 아는 사람은 다 시간 연장으로 공산화 하자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220] 단정을 막아 보려는 김구의 남북회담을 총선거 연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소련의 공산화 정책에

---

217) 「경향신문」, 「조선일보」 (1948년 5월 27일).
218) 이승만, "선거 반대파와 협동할 수 없다(1947. 9. 18)," (서울 : 독립정신보급출판부, 1949년), 177.
219) 이승만, "民思 받드러 단독 투쟁 - 유엔대표는 민족의 대변자로(1947. 10. 16),"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82.
220) 이승만, "대세판단에 몽매(1948. 4. 1),"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22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승만은 민족주의 우파도 배제하였다.

미군정과 이승만의 공통점은 남한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에 포함시키려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정부형태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했다. 독촉중협, 민주의원, 단정주장, 임시정부, 단선(5·10총선거), 남한정부수립 등 일련의 정치 사안들은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해방정국의 일련의 정치적 사안들은 철저하게 정부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좌·우 진영 간의 싸움이었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하는 개인과 집단은 적으로 규정되어 배제되었다. 독촉중협과 민주의원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이승만과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을 배제시켰다. 또한 단정과 이를 실현하는 5·10 총선거의 과정에서 중간파와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우파를 배제했다. 해방정국에서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나타난 정치논리는 소련 공산주의 적대를 기준으로 하는 진영적 사고, 즉 냉전의 진영논리였다.

3) 이승만의 냉전의 진영논리

NSC48에서 확인된 미국의 주요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내부의 "공산주의의 확장 위험을 통제하고 (외부적으로 – 인용자) 소련 지배하에 있는 공격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야기 되는 위력을 봉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전국을 민주주의적 기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목표이다.[221] 외부 공산주의 침입과 내부 반란에 의한 국가전복을 봉쇄할 수 있는 자본주의 정부를 남한에 수립하고 이를 북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한에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공산주의를 비롯한 위 정책에 반하는 중간파 등을 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우선 공산주의 배제를 명확히 하였다. 그는 1949년에 발행된 『일민주의개술』에서 소련 공산당의 "거짓 선전에 빠져서 남의 부속국이나 노예가 되거나 또는 공산당과 싸워 이겨 민주국가들이 자유 복리를 누리게

221)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Containment: Document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256: 도진순,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의 성립과 분화," 82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야만 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222]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해방 직후부터 나타났다. 1946년 1월경, 이승만은 "나는 최근 국무성을 떠난 나의 친우들에게 처참한 내란을 이르킬 수 있는 조선의 공산주의자 문제를 그들이 만드러 노앗는가를 뭇고 십다."라고 했다.[223] 그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를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적으로 분류하였다. 미소공위에서 임시정부, 혹은 과도정부로 인정받고 이를 38선 이북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직된 민주의원이 실패로 돌아가자 3월 4일, 그는 "공산주의자의 맹성을 촉진"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즉 "우리가 의심 없이 세계에 증명한 것은 한국이 지금은 공산주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극소수인 공산분자 외에는 우리 한족이 모다 합심합력하야 통일을 이룬 것을 우리는 세계에 선언"한다고 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확실한 단절을 주장했다.[224]

이승만은 1946년 8월 19일 좌우합작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1년 동안 … '하지' 중장의 협력으로 여러 가지 안을 세웠으나 결국은 공산당 측에서 반대하는 까닭에 모두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라고 하면서 좌우합작의 실패 원인을 공산주의에 돌렸다.[225] 또한 9월 7일에 "미국은 조선공산분자가 조선위한 것 아님을 확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산당과의 협력하고자 했던 목적을 드러냈다. "우리가 극력 좌우합작을 지지한 것은 최후적으로 공산분자를 포섭하여 연합국의 승인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즉 민주의원의 실패 후 좌우합작 운동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이어 그는 실패의 원인이 공산주의자 때문이고 따라서 "극소의 공산분자의 조선통일을 방애(妨礙)"가 된다고 하였다.[226]

---

222)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서울: 일민주의보급회출판사, 1954), 11. 2006년 유영익이 저술한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498쪽에는 『일민주의개술』 초판이 1949년에 출판된 것으로 되어 있다.
223) 이승만, "1946년 1월 담화문,"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99-100.
224) 이승만, "개전하면 포옹동진 - 공산주의자의 맹성을 촉진,"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09.
225) 이승만 "국민회소집은 필요(1946. 8. 19),"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17.
226) 이승만 "미국은 조선공산분자가 조선위한 것 아님을 확인,"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2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런데 그의 공산주의 배제는 미국대외정책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1946년 9월 30일에 발표한 “공산파는 대오(大悟)하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10여 년 간에 … 루스벨트 대통령의 공산당을 보호하는 정책 하에서 … 우리 독립운동이 … 장애(障礙)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소수 공산분자들과 합동하기를 미 국무성에서 고집하는 것을 우리가 응종(應從)치 않으므로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인심이 크게 변하여 공산파나 공산을 옹호하는 자나 미국에서 점점배책을 받을 것이니 이번에 윌레스 씨의 밀어나간 것도 이 관계”라고 하였다. “세계 대세가 이와 같이” 변하였다는 것이다.[227] 이승만은 소련공산주의와의 협력을 통해 개방된 세력권 형성을 주장한 루스벨트와 그 입장에 서 있는 국무부 관료를 공산주의 협조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그 대표적 인물인 헨리 윌리스(Herny Agard Wallace)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보고 미국의 정책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228]

또한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물론 이에 협력한다고 판단한 중간파를 배제하고자 했다. 이는 윌리스의 배제와 트루먼 독트린 이전부터 발생했다. 1946년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공산분자와 합동을 이루지 못하고는 통일이 될 수 없다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곳 내 집에 불 놋는 자와 함께 일하라는 말과 같으니 될 수 없는 일임으로 불 놋는 사람이 주의(主義)를 곳치기 전에는 합동될 수 없으며 그이들이 주의를 고집할 동안에는 한 집에서 평안히 살 수 없는 터이다.”라고 하면서 중간파를 공격했다.[229] 그는 공산주의자는 물론 이와 협조를 요구하는 세력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자 그는 더욱 확실하게 중간파를 배제하기 시작했

---

227) 이승만 “공산파는 대오(大悟)하라(1946. 9. 30),”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25.

228) 제임스 캐럴,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207. 미국 상무 장관인 헨리 윌리스는 1945년 9월 21일 각료회의에서 스팀슨의 핵무기 공유에 찬성했던 인물로 충실한 루스벨트론자였다. 이 각료회의 이후 그는 가장 확실한 반소련주의자 해군장관 포레스털의 감시를 받기도 했다. 1946년 9월 번스 국무부 장관은 해군부 장관 포레스털과 당시 소련 전문가로 알려진 케넌과 대립하고 있었다. 번스는 소련과의 군사적 분쟁을 외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윌리스는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트루먼은 대 소련 강경파인 포레스털의 편을 들어주면서 9월에 윌리스를 해임하였다.

229) 이승만, “개전하면 포옹동진 – 공산주의자의 맹성을 촉진,”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0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 1947년 4월20일 이승만은 “주의주장만 고집 말고 정권회복에 노력하자”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그의 적극적 지지였다. 즉, “3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루만 씨가 … 동서 각 국 문제에 소련이 미국과 합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이 단독 진행할 것과 공산세력이 확대를 어디서든지 제지하여야 될 필요를 주장하여 세계에 선포하였나니 이것이 모든 나라에 한 서광을 비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책이 변하므로 하지 중장도 절대 우리와 합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은 갈팡질팡했지만 좌우합작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그간의 태도를 바꾸어 “지금부터는 좌우합작이라는 문제도 민족통일에 방해하는 행동이나 언론은 일절 없기를 갈망한다.”라고 하였다.[230] 좌우합작을 주장했던 중간파의 우파를 배제한다는 뜻이었다. 1947년 4월 27일에 발표한 “자유 입장서 소(蘇)와 절충보선(折衝普選)으로 임정수립(臨政樹立)”라는 성명에서 “나는 좌우합작의 성공을 믿지 않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동포는 한데 뭉치어 남북통일을 위한 남조선 과도정권을 수립하여야한다.”고 했다.[231] 남한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즉 단정을 하고, 이를 북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간파 배제는 남부협상을 위해 총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김구 등 민족주의자 배제로 이어졌다. 1947년 9월 18일에 발표한 “「선거 반대파와 협동할 수 없다”라는 경명서에서 그는 “총선거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중립태도를 가지거나 혹 좌우간 결정을 못하는 등 단체”에 대해서는 “협동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였다.[232] 그에 따라 UN대표로 조소앙과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조소앙은 총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규식은 좌우합작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이제 그는 좌우합작과 총선거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배제하였다.[233] 1948년 4월 1일, 남한 총선거를 앞두고 “납북회담 문제는 세계에서 소련정책을 아는 사람은 다 시간

230) 이승만, “주의주장만 고집 말고 정권회복(政權恢復)에 노력하자(1947. 4. 20),”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56-167.
231) 이승만, “자유 입장서 소(蘇)와 절충보선(折衝普選)으로 임정수립(臨政樹立)(47. 4. 27),”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59.
232) 이승만, “선거 반대파와 협동할 수 없다(1947. 9. 18),”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77.
233) 이승만, “民思 받드러 단독 투쟁 – 유엔대표는 민족의 대변자로(1947. 10. 16),”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8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연장으로 공산화 하자는 계획에 불과한 것”[234]이라고 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주도하는 남북회담을 겨냥했다. 즉 남북회담을 위한 총선거 연장은 소련의 공산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민족주의 우파도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의 성명서와 담화문은 임시정부에 찬성하지 않는 공산주의 배제, 단정에 찬성하진 않고 좌우합작 주장하는 중간파 배제, 남북통일을 위해 총선거 연장을 주장하는 김구와 민족주의자 배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1949년에 저술된 『일민주의개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은 “나는 일민주의를 신흥국가의 국시(國是)를 명시하고저 한다.”[235]라고 하면서 일민주의의 근거를 “우리 민족은 하나다. 국토도 하나요, 정신도 하나요, 생활에도 하나요, 대우에도 하나요, 정치상 문화상 무엇에고 하나다.”라고 했다.[236] 즉 다른 입장, 혹은 다른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 즉 공산주의와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이념적 통일을 분열시키는 소련공산주의 진영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철저하게 진영적 사고에 충실했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정부수립 과정에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배제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귀속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극동지역에서 반공의 보루를,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진영적 사고, 정책, 총선 등 정치적 사안에 부합되지 않는 집단은 배제되었다.

그의 진영적 사고는 소련 공산당의 “거짓 선전에 빠져서 남의 부속국이나 노예가 되거나 또는 공산당과 싸워 이겨 민주국가들이 자유 복리를 누리게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야만 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237]라는 말속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그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좌우합작과 김구의 남북대화와 총선거 연기는 공산세력을 키우는 화근이고, 분열을 키우는 공산진영의 공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자신의 편에 서지

234) 이승만, “대세판단에 몽매(朦昧)(1948. 4. 1),”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226.
235)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3.
236) Ibid., 7.
237) Ibid., 1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않는 세력은 적이라는 경직된 이원론이 그의 정치이념이었다. 즉 자신을 긍정적 자아로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 규정했다.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이승만의 정치노선에 서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는 "하나를 만드는 데에 장애"가 되면, 이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38] 그는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니 이 싸움이 아직은 사상적 싸움이므로 이 정도가 변하여 군사적 싸움이 될 때 까지는 사상으로 사상을 대항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239] 1949년 현재 그는 이미 사상전을 통해 공산주의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배제·제거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했다. 그의 사상전은 대단히 실질적인 것이었다. 1946년 8월 19일에 4월부터 있었던 남조선 순행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는 "지방순회 할 때에 공산당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독립을 방해하는 짓이니 부락에서 혹은 직장에서 추방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240] 실제로 순천환영식에서 이승만 연설이 끝나자 우익 관계자 수백 명이 시내를 행진하며 인민위원회, 공산당, 민주주의민족전서, 부녀총동맹 사무소를 습격하고 간판을 모두 떼어버렸다.[241] 그의 사상전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금에도 종시 회개치 못하고 우리 국권 회복을 방해하는 자들은 우리 민중이 그 죄상을 기록하여두었다가 이후 우리정권을 회복하는 날에는 응당 범죄자 같이 국법에 밝힐 것"이라고 했다.[242]

이승만의 정책 기조는 공산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냉전의 논리였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냉전의 논리가 아니라, 중간파와 민족의 우파마저 적의 협조자로 구별하는 진영논리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냉전의 진영논리에 근거해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집단이나 개인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

238) Ibid., 7.
239) Ibid., 11-12.
240) 이승만 "국민회 소집은 필요(1946. 8. 19),"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17.
241) 「청년해방일보」 (1946년 5월 30일).
242) 이승만, "개전하면 포옹동진 - 공산주의자의 맹성을 촉진,"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 11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4.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상전

기독교인들의 동조는 사상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상전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이론투쟁과 기독교 단체·사회단체·군검경에 소속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통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 타자를 비인간화 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1) 기독교인들의 사상전

신의주 제일교회 윤하영 목사와 제이교회 한경직 목사는 1945년 8월 16일 신의주 자치위원회(Self-Rule-Council)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는 25일 평안북도 자치위원회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8월 30일 소련군이 신의주에 주둔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경직과 윤하영은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해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다. 그러던 중 9월 말 동경주둔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신의주와 평안북도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보고하였다. 편지형식의 이 보고서는 한국주둔 24군단을 거쳐 26일 동경주재 극동군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보고자는 24군단 소속 군종감 로위(Lowe)이었다. 또한 이 편지는 10월 1일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를 전달한 이는 24군단 정치고문 베닝호프였다.

베닝호프는 한경직과 윤하영이 소련군의 활동과 북한의 정세를 알리려 하였다는 것이다. 편지에서 두 목사는 미군을 "평화와 자유의 십자군"이라고 하면서 사령관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한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신의주를 비롯한 평안북도의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일본이 항복한 다음 날 신의주의 지도자들이 모여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신의주를 자치하고 있었고, "8월 25일 (평안북도의-인용자) 모든 시와 군의 대표들이 모여 도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도내의 질서를 유지"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8월 30일, 소련군이 신의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상황"이 변하였다고 했다.[243]

243) "740.00119 Control(Korea)/10-145: Letter, Ha Young Youn & Kyung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소련군 사령관은 두 개의 공산주의그룹[244]과 자치위원회가 새로운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평안북도의 모든 시군 대표자들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그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며칠 후 공산당은 공개적으로 조직되었고, 강제로 지방법원을 점거하여 본부로 사용하였습니다. 민주주의자였던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소련 사령관에게 이를 항의하였습니다. … 신의주의 시민들은 …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이 만나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였습니다. …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평안북도 경찰 책임자는 사회민주당이 정당 간판을 내걸고 활동을 하면 소련군이 당원들을 살해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게다가 9월 16일 낮에 길에서 평안북도 경찰에 의해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풀려나서 평상시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245]

소련군이 지시로 새롭게 조직된 단체는 “인민정치위원회”(Peoples Political Committee)였다.[246] 윤하영, 한경직, 베닝호프는 이 인민정치위원회를 소련 군정이 주도하여 조직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당시 신의주에서 “법원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오제도는 신의주 자치위원회 회장이 이유필, 부회장이 한경직과 윤하영이었고, 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고 했다.[247] 이로보아 자치위원장이자 인민정치위원회 회장은 이유필이

Chik Han to the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September 26, 1945),” 28; 한경직, 『나의 감사』 (서울: 두란노서원, 2012), 305.

244) 오제도, “오제도회고록 中,” 155. 두 개의 공산당은 신의주공산당과 평북공산당으로 추정된다. 오제도에 의하면, 해방 직후 신의주에는 평북공산당·신의주공산당·민청·예술동맹·직업동맹·동방사회과학연구소·신의주귀환민구제사업회·우리청년회·평북여자청년회 등이 있었고, 이중 구제사업위원회, 평북여자청년회, 우리청년회 외에는 좌익단체였다. 오제도는 보안부장이 한웅(韓雄), 차장 차정삼(車正三), 특별보안부대장이 차정삼의 동생 차룡(車龍)이라고 했다.

245) “740.00119 Control(Korea)/10-145:Letter, Ha Young Youn & Kyung Chik Han to the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September 26, 1945),” 28-29.

246) Ibid., 28; 한경직, 『나의 감사』 (서울: 두란노서원, 2012), 305.

247) 오제도, “오제도회고록 中,” 「북한」 8호 (서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74.8.), 154; 한경직 목사는 당시 신의주제일교회의 평신도였던 이유필이 위원장이었고, 자신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었다. 이유필은 1944년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하였고,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건준이 인민위원회로 전환하자 평안북도 임시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윤하영, 한경직은 인민정치위원회가 소련군정의 지시로 조직된 단체라고 했다.[248] 따라서 이것이 건준의 인민정치위원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경직과 윤하영은 "공산당이 라디오 방송국을 독점"했고, "신문을 통제"하면서 공산주의 프로파간다 외에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에 "적색단체가 모든 공장에서 조직되어 공장주로부터 공장을 강탈"했고, "적색연맹이 많은 마을에서 조직"되었는데, 당시 적색연맹은 "땅을 농민들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소련군은 비행기로 프로파간다을 담은 삐라를 뿌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 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249].

이러한 행동에 대해 윤하영과 한경직은 "소련군이 물러가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지역을 공산화"하려한다는 결론을 내렸다.[250] 즉 소련군이 북한을 적화(赤化)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적화된 한국"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맥아더에게 "북한지역에 즉시 위원회를 파견하여서 그곳의 상황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251]

우선 이 편지를 접한 베닝호프는 1945년 10월 1일, 편지를 분석한 내용과 24군단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 편지를 미 국무부에 송달하였다. 윤하영과 한경직이 보고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이들이 요청한 조사위원회 파견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아울러 전달하였다.[252]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서신을 읽은 베닝호프의 반응이다. 그는 편지 내용을 분석하면

과 윤하영 목사가 부위원장이었다고 하였다. 한경직, 『나의 감사』, 307.

248) "740.00119 Control(Korea)/10-145: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H. Merrell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Otober 1, 1945) NO.7 Subject : Soviet Political Activity in Northern Korea," 28, 32.

249) "740.00119 Control(Korea)/10-145: Letter, Ha Young Youn & Kyung Chik Han to the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September 26, 1945)," 29.

250) Ibid., 29-30.

251) Ibid., 30.

252) "740.00119 Control(Korea)/10-145: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H. Merrell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Otober 1, 1945) NO.7 Subject : Soviet Political Activity in Northern Korea," 32-3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서 이것을 소련 공산주의의 “확장”이라고 했다.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19946년 케넌이 소련의 정책을 “팽창”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이미 1945년 9월에 소련과 공산주의의 적화, 즉 팽창에 대한 적대의식이 존재했던 것이다.[253] 이러한 적대의식은 평북의 유력한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945년 9월 신의주자치위원회 소속 기독교인들과 소련군정 및 북한당국 간에 나타났던 갈등은 점차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45년 11월 용천군 용암포 사건과 신의주학생시위 사건, 1946년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전개된 평양 교회와 시민들의 3·1운동 기념식 및 김일성·김책·강양욱·최용건 암살미수 사건, 11월 3일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개신교일부 세력의 거부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북조선노동당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개신교일부세력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1946년 7월 이전에 황해도 각 지역의 치안 기관은 기독교일부 세력이 공공연하게 이남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를 요시찰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보안국과 각 도 보안부 감찰과는 일부 기독교인들을 반동으로 규정하고 주민들과 구별하여 사찰하거나 이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1947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립에 대한 감상문”에서 신석구 목사가 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독교가 북조선에 있어서 건국에 비협력자니 선거에 반대자니 친미파니 하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254] 여기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기독교를 친미파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미 제국주의에 동조하고 연동하는 협력자는 인민위원회의 반대편이라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냉전의 진영 논리를 통해 기독교일부 세력을 주민들과 구별하여 분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

253) “740.00119 Control(Korea)/10-145: Letter, Ha Young Youn & Kyung Chik Han to the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September 26, 1945),” 30; “740.00119 Control(Korea)/10-145: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H. Merrell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Otober 1, 1945) NO.7 Subject : Soviet Political Activity in Northern Korea," 32-33.

254) 이덕주, 『신석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십자가를 지다』(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2), 29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배제된 일부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했고, 이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북한 당국과 공산주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감은 남한에서 강력한 반소반공주의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들은 서북청년회과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군대·검찰·경찰·정치·종교 및 문화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반공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정부 각 기관과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사상전을 주도하였다.

또한 감리교인이자 남한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 이승만은 해방정국에서 "군사적 싸움이 될 때 까지는 사상으로 사상을 대항하는 싸움", 즉 사상전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255] 그런데 이 사상전은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는 이것을 독립이라고 보았다. 이 목적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배제·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기독교는 이승만의 독촉중협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1945년 12월 조직된 독촉중협의 기독교조직인 독립촉성기독교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 단체는 1945년 12월 "1. 백만 기독자는 총력을 집중하여 민족통일로써 독립을 촉성함. 1.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함."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이 단체는 "우리 백만 기독자는 하루라도 빨리 민족통일로써 자유독립을 위하여 총진군의 합력을 맹서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256]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건국조선의 촉성을 명하노라"고 했다.[257] 이 단체의 강령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촉성함."과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하여 민족통일을 기함"이었다. 규약 중에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달성을 목적함"과 "한성에 중앙협의회를 置(치)하고 도, 군, 면협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이 있다.[258] 이를 이룩하기 위해 내부의 통일로 이루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이북까지 확대하여 조선의 독립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

255)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11-12.

256) 일제강점기 중국에 있었던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아니라, 랭던 안 등에 담겨 있는 과도정부로 이승만이 수립하고자 했던 임시정부를 지칭함.

257) "독립촉성기독교중앙협의회 성명서," 『해방 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493.

258) "독립촉성기독교중앙협의회 綱領 及,規約," 『해방 후 북한교회사』, 49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 내용은 이승만의 정치노선인 독촉중협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독립촉성기독교중앙협의회 지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군산노회가 독촉중협의 지부를 자기 노회 내에 설치했다. 1946년 1월 23일 군산노회는 제6회 제1차 임시노회를 개회하였다. 군산노회는 해방 후 어지럽던 정국을 하루 속히 안정시키고 독립된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하였다.

> 됴선독립촉성기독교협회에 관한 건은 본 노회에 지회 각 교회에 분회를 조직하되 강령과 귀약은 중앙협회 강령귀약에 준비하기로 하고 리재봉, 계승일, 량윤묵, 리상귀, 김응규 5씨를 전형위원으로 회장이 자백하니 여좌히 역원을 선정하다.
> 독립촉성기독교군산로회지회
> 회장: 리창규, 부회장 : 김응규 리수현, 서기장 : 리상귀, 부서기 : 김한규, 총무부장 : 량윤묵, 조직선전부장 : 계일승, 조사기획부장 : 리재봉, 지방연락부장 : 권우진, 청년부장 : 장하원, 재무부장 : 김석두[259]

이 노회는 이 조직을 통해 개 교회마다 애국심을 불어넣어 주고, 부흥전도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애국운동을 전개하도록 권고하였다. 독립촉성기독교협의회와 군산노회지부가 존재했고, 그 강령은 이승만의 독촉중협의 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런데 한국교회일부 세력은 이러한 조직적 연계보다도 이념과 문화를 통해 유력정치인의 정치노선에 동조하였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상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해방직후 대통령, YMCA, 형목, 교회 목사, 천주교 등 기독교 각계의 인사들은 공산주의와의 사상전을 전개했다. YMCA는 「기독교청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 “전국청년신앙동지들께 檄함 – 우리들의 투쟁대상”이라는 권두언에서 YMCA는 국제 공산주의가 “일견 숭고하여 보이는 救世濟人(구세제인)의 종교적 사명감을 갖인 것같이 진리를 위하여 … 순교자적 정렬을 가지고 전 세계인류를 상대로 과감하고 苛烈(가열)한 思想戰(사상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260] 또한 “무신론

259) 조선야소교장로회군사로회 제6회 회의록, 27-28; 개복교회역사편찬위원회, 『개복교회 110년사(1894-2004)』 (쿰란출판사, 2004), 26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 “진리투쟁의 복음적 항쟁”, 즉 “3십만 남녀기독교청년의 十字軍 동지들”이 “外敵을 격파할 복음의 聖戰”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261] YMCA연합회 간사였던 김형도(金瀅覩) 목사는 1948년 당시 “금일 세계문명에는 2대 조류가 있어 우리는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중간적 존재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유물주의를 취하느냐 가장 높은 인격주의를 취하느냐”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유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였다.[262] 형무소 형목이었던 장성옥(張聖玉) 목사[263]는 1949년 “공산주의와 민족의 위기”에서 “세계의 거대한 2대 조류”가 존재하고 이것이 한국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둘 중에 하나를 독립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264] YMCA연합회 총무 김치묵(金致默) 목사는 기독교청년들이 “한데 뭉치여 천국건설”을 위해 전진하고 “유물적인 외적(外敵)에 대항하여 싸울 때”라고 하였다.[265]

천주교의 도마수(道磨秀)는 유물론자들이 과학적 실증 이외에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과학의 신비자들이라고 하면서 유물론은 비과학적인 신비철학이요 독단적이라고 하였다.[266] 천주교의 강아오스딩도 『천주교와 공산주의』에서 세계가 “미영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국가군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국가군이 뚜렷이 대립”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세계가 “공산 대 비공산의 두 개의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공산주의와 사상전

260) 主幹, “전국청년신앙동지들께 檄함 – 우리들의 鬪爭對象,” 「기독교청년」창간호 (서울: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1948.10.17.), 6.
261) Ibid., 7.
262) 김형도,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청년」창간호 , 24. 그는 한국최초의 군목 중에 한 사람이었다.
263) 장성옥 목사는 1904년 12월 2일 북제주군 애월면에서 태어나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1928년 결혼, 1933년 3월 동경성서학원을 졸업, 7월 1일에 일본 호리네스 교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35년 2월에 교오토(京都) 조선인교회 개척 목사로 임명되었고, 오사카(大阪) 구로몽정에 나사렛교회 개척, 이후 한국에서 목회를 했다. 전쟁 전부터 광주형무소 형무목사를 했으며 1977년 2월 22일 사망했다.
264) 장성옥, “공산주의와 민족의 위기,” 『사회문제와 기독교』, (서울: 십자가사, 1949), 52-53.
265) 김치묵, “YMCA 운동의 전망,” 「기독교청년」창간호 , 29-30.
266) 도마수, 『가톨릭사사의 기초』 (서울: 가톨릭연구회, 1949), 3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사상전은 “우익 대 좌익, 민주주의 대 독재주의라 한다. 종국은 유신론 대 유물론의 싸홈”으로 진정의 구세주가 “예수냐? 막스냐? 카톨릭의 白이냐? 맑시즘의 赤이냐?”를 가리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유물론 사상에 대항하고 격파하는 思想的 十字軍을 준비할 시기”라고 했다.[267]

기독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진영의 논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상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상전의 토대는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으로 양분되었으며, 중간은 없다는 경직된 이원론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신이 속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선·하나님의 백성·진리로 규정하는 반면 공산주의를 무신론, 악, 독재주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타자구성방식은 이들에 대한 배제와 제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이었다.

2) 사상전과 비인간화

한국교회일부 세력은 공산주의 적대를 내용으로 하는 냉전의 진영논리를 기독교적인 신념으로 신학화했다. 황은균(黃恩均) 목사는 1948년 3월에 간행된 「부흥」이라는 잡지의 “삼팔선과 기독교청년”에서 “조선도 내란은 불가피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남북 전쟁이 왔습니다. 유신론과 유물론, 푸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유신론, 즉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일치시키고 유물론, 즉 무신론과 독재를 일치시켰다. 이어 그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유물주의 폭력혁명에서 나라를 구하고 무신론자의 마수에서 동포를 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위에 건국하여 3천리를 자유의 복음으로 복지가 되게 함이 우리 기독청년의 과업”이라고 했다.[268]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자”, 즉 공산주의자와 중간파를 “칼맑스의 우상숭배자”이며 “소련을 조국으로 하는 레닌주의 불한당”이라고 하였다.[269] 우선 소련을 조국으로 한다는 말은 당시 조선공산당이 한국을 소

267) 강아오스딩, “自序,“ 『천주교와 공산주의』 (서울: 종현가톨릭청년회, 1948), 1.
268) 황은균, “삼팔선과 기독교청년,” 「부흥」8호, 24.
269) 황은균, “삼팔선과 기독교청년,” 「부흥」(1948년 1월호), 1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련의 부속국으로 만들려 한다는 민족주의 우파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공산주의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와 중간파를 우상숭배자로 규정하였다.

유재헌(劉載獻) 목사는 공산주의를 적룡으로 간주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 5월까지 대한수도원에서 박경룡 목사·전진 원장과 함께 기도원운동을 하였다.[270] 『부흥회, 전도회, 주일학교 용 복음성가』의 "구국기도단 선언문"에서 "우리 조선은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최후로 발악하는 적룡(赤龍) 사탄이에 단말마적 활동"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간교한 사탄이는 … 영원한 멸망의 굴혈로 삼천리 민족을 끌고" 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 땅에서 축출하는 사명을 가진 자는 담대하게 말하노니 다만 우리 기독교 신자뿐이로다."고 하였다.[271] 이처럼 유재헌은 공산주의를 사탄으로 규정했고, 이 나라를 기독교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고 했다.

월남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회는 영락교회였다. 이 교회 담임자 한경직 목사는 「신학정론」 창간호에서 "새 조선의 건국도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다. …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이 힘을 의지함으로서만 건국할 수 있다."고 하였다.[272] 그런데 그의 건국론은 공산주의 적대를 기조로 하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력권의 논리, 즉 냉전의 진영논리에 대한 동조와 연동의 결과였다. 1946년 설교에서 그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기독교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273]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일치시킨 반면 공산주의를 반대편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냉전의 진영논리를 윤리적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이념이 아닌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족아 깨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

270) 기독교대한수도원 출판위원회,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철원:기독교대한수도원, 1994), 122.
271) 유재헌, "구국기도단선언문," 『부흥회, 전도회, 주일학교 용 복음성가』 (구국기도단, 1948), 67.
272) 한경직, "교회진흥의 비결," 「신학정론」 창간호 (1949.1), 56-57.
273)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1946년)," 『건국과 기독교』 (서울보린원, 1949), 14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각성과 도덕적 향상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독교를 떠나서 어디서 이를 기대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274] 또한 1947년 12월 설교에서 “새 나라는 고상한 개인 급 사회의 도덕적인 국가”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물론적 공산주의” 를 “반도덕적 사상” 이라고 주장했다. 즉 “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 불택’ 의 악덕 사상” 으로 그들은 “공공연히 (1) 이중인격을 가지라.(거짓말하라) (2) 다른 계급은 모주리 숙청하라(강탈 강도를 감행하라) (3) 무자비한 투쟁을 하라(테로, 살인, 방화, 무엇이나 좋다)” 고 했다.[275] 공산주의는 “반도덕 야만주의 사상” 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를 인격적이며 성서적이라고 했다. 즉 “이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은 1) 개인 인격의 존중 사상 2) 개인의 자유사상 3)만인의 평등사상” 으로 “이 사상의 근본은 신구약성경” 이라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사상은 “(1)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그 형상대로 지셨다는 그 신앙, (2)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분별이 없다는 그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는 사실입니다.” 고 하였다.[276]

그는 또한 민족주의와 계급주의를 대조시킨다. 민족주의는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으로, 계급주의는 프로레타리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서있으면서 양자의 협력을 주장하는 중간파를 비판한다. 한경직은 “최근에는 신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 [조선공산당과 중간파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인용자] 니 하고 창시개명을 하여 뭇사람의 뇌수를 혼미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승만의 『독립노선의 승리』와 『일민주의개술』 그리고 양우정의 『일민주의 본바탕』 에도 그대로 나타난 표현이다. “우선 독립” 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계급의식만이 있을 뿐이요 민족이란 관념은 없다.” 라는 표현은 당시 이승만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좌우합작을 주도했던 ‘중간파’ 를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승만과 일치했다. 중간파를 제외하고 양극

274) 한경직, “대한민족아 깨여라,” 『건국과 기독교』, 106.
275)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1947년 12월),” 『건국과 기독교』, 195-196.
276) Ibid., 194-19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단의 정치적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려 했다.[277]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에 관심이 없고, 프로레타리아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이익집단으로 간주하면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대조시켰다.

한경직은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도덕, 성경 및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공산주의, 계급이기주의, 반도덕, 야만주의"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이념의 문제를 윤리 문제로 전환시켰고, 이를 다시 신학화 한다. 정치적 대립을 윤리적 적대 그 다음에는 신앙적 적대 관계로 발전시켜 극단화했다. 그 결과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 곧 진리의 종교"[278]인 반면에 "공산주의야 말로 일대 괴물"이고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279]이라고 하였다. 기독교는 참과 진리이고, 공산주의는 절대 악인 마귀가 되는 것이다. 한경직, 유재헌, 황은균 목사들은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붉은 용 등으로 비인간화 했다.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의 종에 속하지만, 종교·문화적으로는 종분화하여 마귀로 구별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동조세력을 문화적으로 종분화 시킨 것은 일종의 정당화 작업으로 그 정당화의 목적은 필연적 제거와 멸족이었다. 묵시록의 붉은 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버트 허시는 "증오의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는 그 이데올로기가 겨냥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기능을 하고 억압 혹은 심지어 절멸의 방법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비인간화 이데올로기는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했다. 즉 가해자의 "시각에서 보면 비인간화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인데 왜냐하면 비인간화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80] 사탄은 인간이 아닐뿐 아니라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위협적 존재이다.

한국교회일부 세력은 공산주의 적대를 내용으로 하는 트루먼과 이승만의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윤리적, 신학적 정당화 작업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277) 한경직, "기독교와 공산주의," 『건국과 기독교』, 198, 206.
278)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1947년 12월)," 『건국과 기독교』, 196.
279) 한경직, "기독교와 공산주의," 『건국과 기독교』, 212.
280)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16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와 자유민주주의를 선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였다. 즉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묵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혹은 사탄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사상전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정적 타자로 규정된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제거, 혹은 멸족을 정당화 하는 신학적 정당화 작업이었다.

1947년 "기독교와 정치"라는 설교에서 한경직은 "건국하되 유물론적 독재국이 되면 어찌하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상교화운동에 나서야 되겠다.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므로써 잡지나 소책자를 발간하므로써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오늘 기독교인은 …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노동운동도 좋고 정치운동"을 전개하고 "참 신앙을 가지고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일으켜야"한다는 것이다.[281] 사상전을 전개하되 이 사상전은 정치, 노동, 문화, 종교 등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상전의 방향은 붉은 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교회 청년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현장에서 사상전을 전개했다. 오제도 검사는 국민보도연맹원을 분류하였고, 이 교회출신 서북청년회원들은 각종 정치집회와 4·3사건에 개입했으며, 장도영은 소련공산주의 적대를 주장하는 이념 군대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자본주의 체제를 기독교의 신념과 일치시킨 세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재준 강원룡 등 조선신학교 계열의 건국에 대한 입장은 『기독교의 건국이념』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1945년 8월 19일에 선린형제단 집회에서 김재준 목사가 한 강연을 선린형제단에서 정리하여 11월 21일에 간행된 책자이다. 당시 선린형제단 대표인 강원룡 목사는 "참된 양심의 소유자이며 우리의 참된 지도자들은 아직도 멀리 이역 중경(異域 重慶)을 떠나 상해에 와 계신 것을 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이 최고 지도자들을 학수고대하면서 현하 조선정계와 교계에 이 적은 책"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면서까지 중국 망명 임시정부를 지지하였다. 또한 건국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50만교도가

281)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1946년 설교)," 『건국과 기독교』, 148-14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대동 단결하야 위국(危國)에 돌입하랴는 전야에 우리는 멀리 계신 우리지도자들의 무사환국하셔서 젖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건설하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열도(熱禱)하면서 이글을 담대히 내여놓습니다.” 고 하였다. 중국망명정부 지지와 기독교국가 건설이 그의 정치 신학적 입장이었다.[282]

그러나 강원룡 목사는 반공주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강원룡 목사는 기독교청년연합회 청년들과 돈암장으로 이승만 박사를 만나러 가곤 했는데, “그때의 심정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았다.” 고 하면서 “우리 순진한 기독청년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나라가 기독교국가가 되어간다고 열광을 했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이 박사와 임정 인사들을 더욱 지지해야한다고 거듭 결의를 다졌다.” 고 했다.[283] 또한 그는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이하 기청전국연합회)의 정치부장이었다. 그는 “내가 정치부장을 수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극성을 떨고 있던 공산주의세력 때문이었다. 연합회에 가입하게 된 것도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맹위를 떨치도록 그냥 놔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284] 일제강점기에 그가 은진중학교 2학년 당시 그는 공산주의 학생에 맞서 싸운다. 그는 “은진중학을 비기독교 화 시키려는 투쟁을 전개해 아침조회 때, 교단에 올라가 브루스 교장을 끌어 내리고 집에 가라고 야유하는 행패” 를 부렸다고 한다.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그는 “그들의 작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기독학생들을 모아 그들에 대한 투쟁을 주도했다.” 다른 선생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이사장 김약연 목사만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우리를 격려했다.” 는 것이다.[285]

한국교회일부세력은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정치적 논리에 동조·연동하면서 이를 신념화하였다. 이 신념화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세력을 비인간화하였다. 이 논문은 이를 문화적 종분화 현상이라고 보았다. 문화적 종분화는 부정적 타자로 규정된 단체나 개인을 배제·제거해야 한다는 윤리적, 신학적 정당화 작업이었다. 이에 고무된 기독교단체와 군·

282) 강원룡, “머리말,” 『기독교의 건국이념』 (서울: 선린형제단출판부, 1945. 11).
283) 강원룡, 『빈들에서』1, (도서출판 열린문화, 1993), 171.
284) Ibid., 167-168.
285) Ibid., 6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검·경·사회단체에 속한 기독인들은 이 논리에 따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편이 아니라고 판단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제거했다.

3) 기독교인들의 활동

기독교인들의 사상전은 교회, 기독교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군·검·경 등 정부기관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즉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286](이하 기청전국연합회)회와 같은 기독교 단체, 국민회 소속 기독교인, 검찰·경찰·국군 소속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면서 냉전의 진영논리를 신념화 했고, 이에 따라 행동했다.

---

286) 김흥수,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학생 청년운동," 「신학과 현장」 제23집 (대전: 목원대학교신학연구소, 2013), 56-66; 윤판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천성을 듣는 사람』 (서울: 보이스사, 1977), 231-234, 243. 윤판석 장로의 『천성을 듣는 사람』에 따르면, 1946년 3월 28일 승동교회에서 기독청년동맹을 해체하고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조선연감』(1947년) (서울: 조선통신사, 1946년 12월) 352. 그런데 1947년판 『조선연감』에는 "기독교청년전국연합회"가 1945년 11월 26일에 창립되었고, 사무실은 중앙감리교회 주소인 "서울 인사동 246번지"이고, 임원이 회장 김규식, 부회장 이강훈·엄요섭, 총무 김희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연감』(1948년) (서울: 조선통신사, 1947년 12월) 447. 1948년판 『조선연감』은 1947년판과 모두 같았지만 창립일을 1945년 11월 25일로 기록하고 있다; 「자유신문」 (1945년 12월 1일). 「자유신문」 은 1945년 11월 29일에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 명의로 "38선철폐등 결의문을 하지에게 제출"하였다는 기사를 실었다; 朝鮮基督靑年會全國聯合會, "聲明書," 『愛國 삐-라 全集』(第1集) (서울: 祖國文化社, 1946.6·25.), 71-72. 1945년 11월 26일, "朝鮮基督靑年會全國聯合會"의 목적과 취지를 담은 창립선언 "聲明書"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단체가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1945년 11월 26일경으로 추정된다; 성청전국연합회, 『성청사』 (서울: 성청장학회, 1959), 37-38.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 창립과 관련된 성결교청년회전국연합회와 윤판석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성결교청년회전국연합회가 발행한 『성청사』 는 1946년 3월 서울 정동교회에서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 조직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47년 3월 승동교회에서 이 청년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고 했다. 한편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전신인 기독교청년동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교영, 부위원장: 윤원호, 총무: 김희운, 종교부장: 김태범, 섭외부장: 양하근, 사업부장: 이종환, 선전부장: 최영준, 선전부장: 맹기영, 음악부장에 신충현, 구호위원회위원장: 윤판석. 이후 김태범이 총무가 되고 위원장은 고향 함남으로 돌아감.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 임원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규식 박사, 부회장 엄요섭, 총무 김희운, 종교부장 조향록 이일선, 재정부장 정훈 최영휘, 정경부장 강원룡 이상로, 농촌부장 이태현 이강목, 사회부장 배보석 김영주, 소년부장 윤판석 정달빈, 지방부장 이규석 이명하, 음악부장 신충현 이종환 (이하 중앙위원) 강원룡 김성섭 김수간 김영주 김홍범 김희운 노세우 양하근 신충현 윤계상 유원호 윤판석 윤재근 엄요섭 이일선 이규석 이상로 이명하 이극호 이종환 이태연 배복석 정달빈 정훈 조향록 최영준 최영희 한상; 강원룡, "예언자의 무리," 『천성을 듣는 사람』 (서울: 보이스사, 1977), 168-17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해방 후 초교파적으로 구성된 기청전국연합회의 목표는 “조국을 참된 축복의 땅으로 아름다운 민주주의국가”로 건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287]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국과 이것의 정치적 구현체인 민주주의를 주장함과 아울러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민족을 건국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앙의 반석에 건국한 민주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288]

기청전국연합회는 1946년 10월 좌우합작을 지지한 거의 유일한 기독교 단체로 알려졌다.[289] 그렇다고 이 단체의 회원들이 좌우합작을 지지하고, 이를 통해 좌익과 협력을 모색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엄요섭 목사는 기청전국연합회의 활동을 “해방 직후 … ‘그리스도화’의 조국을 건설해 보자는 애국운동이었다.”[290]고 하였다. 그러기에 건국의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윤판석은 이 단체의 모체였던 “기독청년동맹”의 목적을 “새나라 건설에 역군으로 … 공산당 타도를 위한 집약적인 선무, 그리고 기독청년들의 지방조직과 전국적인 행동통일을 위한 체계화”[291]이었다고 하였다. 김성섭은 “기독교청년들은 국가 장례를 위하여 좌익분자들과 정면대결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292]고 하였다. 맹기영 장로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건국의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주장하였다.[293]

이 단체의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제1차미소공위와 신탁통치로 인해 한국사회가 갈등으로 혼란스러울 때 유력정치인들과 관계 속에서 들어난다. 강원룡에 따르면 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는 “정동교회에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김규식 박사 등을 위시한 조소앙, 최동오, 엄항섭 등 임정요인 귀국환영회를 주최했다.” 이 환영식에서 김구는 “경찰서를 열 개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한 개 짓는 것이 나라의 안정에 유익하다”고 했고, 김규식은 “우리나라의

---

287) Ibid., 71-72.
288) 조세장 편, 『원대한 건국』 (서울: 朝鮮基督敎靑年會全國聯合會發行, 1947년 6월), 11-12. 이 책자는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정책을 담은 소책자이다.
289) 「자유신문」 (1946년 10월 11일).
290) 엄요섭, “기독청년운동에서 잊을 수 없는 일들,” 『천성을 듣는 사람』 (서울: 보이스사, 1977), 188.
291) 윤판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천성을 듣는 사람』, 239
292) 김성섭 “실감나던 일,” 『천성을 듣는 사람』, 171-172.
293) 맹기영, “지방 계몽 갔을 때,” 『천성을 듣는 사람』, 18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건설은 …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뭉쳐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민중을 붙잡아 굳세게 나가야 한다.' 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니 우리 순진한 기독청년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나라가 기독교국가가 되어간다고 열광을 했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이 박사와 임정 인사들을 더욱 지지해야한다고 거듭 결의를 다졌다." 고 했다.[294]

한편 이 단체는 1946년 1월 16일에 열리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회의를 겨냥하여 대대적인 신탁통치 반대집회를 열었다.[295] 이를 위해 종교감리교회 담임목사 "김희운은 한국학생 총연맹 위원장 이철승"과 윤판석은 "김두한"과 각각 접촉하기로 하였고, "이강훈은 기독교 사회에 연락"하기로 하였다.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반탁집회는 초만원을 이룰 정도로 대규모 집회였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동대문에서 종로로 행진하기도 했다.[296] .

그런데 1946년 5월 7일, 제1차미소공위가 제7호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응한 단체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의 임시정부 계열의 비상국민회의[297], 한독당의 김구, 그리고 이승만의 사조직화 되어가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독촉중협는 물론 기청전국연합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도정부 수립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 美蘇共同委員會第7號聲明에 의한 試問에 응할 南朝鮮에 있는 단체는 다음의 25단체로 대체

294) 강원룡, 『빈들에서』 1, 171.

295) 윤판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250-252. 미소공동위원회 개회 전날(1946년 1월 15일) 김규식 박사 집에서 회의가 예정되어있었다. 그런데 유판석을 비롯한 임원 일부가 먼저 이승만을 만난 후 김규식과 만나 미소공위에 참석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투표결과 "불참 8명, 참석 6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미소공동위원회 불참을 가결한 바 있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윤판석과 다수의 회원들은 김규식의 중간파 노선보다 이승만의 강력한 반공운동을 지지하였다.

296) 윤판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253-254; 강원룡, "강원룡 목사의 체험 한국 현대사 ①," 「신동아」 (2003년 12월호).

297) 「중앙신문」 (1946년 1월 23일); 『굿펠로우 문서철』 box 2, Biograpical Material: 정병준, 『우남 이승만』, 530에서 재인용. 이승만은 독촉중협으로 비상정치회의를 흡수하고자했고, 김구를 설득하였다. 그 결과 1월 21일, 김구 임시정부계열의 비상정치회의주비회가 독촉중협을 합류시켜 비상국민회의주비회로 개칭되었다. 또한 2월 8일, 이승만과 김구는 임정의 반탁총동원위원회와 독촉중협의 지방 지부를 합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는 대중 조직을 구성했다. 또한 비상국민회 주비회를 토대로 2월 13일에 이승만과 김구는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최고정무위원 2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최고 정무위원회' 를 조직하였고, 다음 날 이를 토대로 민주의원을 결성하였다. 민주의원의 의장은 이승만이었다. 민주의원은 한국최초의 과도정부였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결정”되었는데, “이 25단체는 미국 측이 제안한 것으로 규문(窺聞)된다.”고 하였다.[298] 기청전국연합회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면서 이를 시행하려는 미소공위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7호 성명에 응했다. 신탁의 독립의 반대 개념이라기 보다 과도정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규식의 중간파에 속해 있으면서 미소공위에 찬성한 유일한 기독교단체였지만, 이 단체는 공산주의 및 중간파의 좌파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분명히 하였고,[299] 이를 사상전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이 단체는 1945년 12월 중앙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순회 과정에서 이 단체는 독촉중협의 지방 조직, 혹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지역조직과 결합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기청전국연합회의 지방순회는 경기·충청도·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권으로 나누어져 실시되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이 활동의 근거지이었다. 윤판석 장로에 의하면 강연자들은 “아놀드 장관의 자유여행증”[300]을 교부 받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호남방면은 윤판석, 영남방면은 강원룡·조향록, 영동지방은 맹기영·이명하 등이 담당했다. 이들은 1945년 가을에서 1948년 말까지 천안, 전주, 풍기, 영주, 단양, 제천, 포항, 경주, 영천, 감포, 대구, 안동, 정읍, 진안, 장수, 남원, 일실, 삼례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였다.[301]

이와 관련하여 기청전국연합회의 임원이었던 김성섭은 “기독교청년들은 국가 장례를 위하여 좌익분자들과 정면대결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방유세에도 중앙위원들의 갖은 어려움과 위험을 당하여 가며 용감하게 계몽강연으로 공산당의 허위선전을 분쇄하는데 목숨을 걸고 힘껏 싸

298) 「조선일보」 (1946년 5월 7일). 당시 해당 단체는 非常國民會議 韓國獨立黨 金九, 韓國民主黨 元世勳, 民主主義民族戰線, 朝鮮共産黨, 朝鮮新民黨, 新韓民族黨 崔益煥, 朝鮮人民黨, 韓國農民總聯盟 金尙德, 天主敎 張勉, 大倧敎 趙琬九, 大韓獨立促成愛國婦人會 朴承浩, 女子國民黨 任永信, 國民大會準備會 金俊淵, 獨立促成中央協議會 李承晩, 國民黨 安在鴻,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吳夏英, 新韓民主黨 金朋濬, 大韓獨立勞動總聯盟 金山, 基督敎南部大會 咸台永, 天道敎 吳世昌, 朝鮮基督敎靑年會全國聯合會 金奎植, 中央佛敎總務院 金法麟, 儒道會 鄭寅普, 韓國赤十字社 白象圭

299) 1945년 1월 미소공위 개회 전날 김규식의 집에서 열린 기청전국연합회의 미소공위 가입단체 불참 결정은 당시 대표적인 중간파인 김규식을 비토하고 이승만의 손을 들어주는 실질적인 행동이었다.

300) 윤판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천성을 듣는 사람』, 239.

301) 맹기영, “지방 계몽 갔을 때,” 181-184; 엄요섭, “기독청년운동에서 잊을 수 없는 일들,” 『천성을 듣는 사람』, 18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웠다.”고 하였다.[302] 윤판석은 1945년 12월 중순, “우리 기독청년동맹은 … 공산당 추동타도를 위한 집약적인 선무, 그리고 기독청년들의 지방조직과 전국적인 행동통일을 위한 체계화 등으로 … 남한 일대를 순회의 길에 올랐다.”고 하면서 “아놀드 장관의 자유여행증을 교부”받기도 했다고 했다.[303] 기독교청년회 임원들의 지방순회의 목적은 공산주의 타도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체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엄요섭 목사는 지방순회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화의 조국을 건설해 보자는 애국운동”이었다라고 했고,[304] 조향록 목사는 “반공강연과 민주자유국가의 이상”을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했다.[305] 1945년 12월경부터 1948년까지 실시된 기독교청년회의 전국순회는 남한의 정부형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는 것, 이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 건국을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일치시켰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강연자들은 미군정으로부터 자유여행증을 교부받는 특혜를 받거나, 각 지역 경찰들의 호위를 받기도 한다.

이들의 지방순회 강연은 단순히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을 수반한 사상전이었다. 조향록과 일행들은 포항에서의 집회 당시 인민위원회와 마찰이 발생했다. 그는 자신과 일행이 경주로 빠져 나올 때, 군정의 지시를 받은 “경북경찰대”가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포항 좌익세력을 검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것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인민위원회와 보안서를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기점이 되기도 했다.”고 하였다.[306]

강원룡은 “천안 같은 데서는 김재복(金在福) 장로를 위시해서 기독청년들의 세력이 매우 강해 방해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하였지만, “경북의 모스크바’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좌익세력의 재정지원 지역”에서는 “조향록이 강연을 하는 도중에 불화로가 막 날아와서 우리 일행은 냅다 도망쳐 나와야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경상북도 춘양이라는 곳에서는 “영주경찰서에서 보낸 사복형사들”의 호위를 받았다고 했다.[307]

---

302) 김성섭 “실감나던 일,”『천성을 듣는 사람』, 171-172.
303) 윤판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천성을 듣는 사람』, 239.
304) 엄요섭, “기독청년운동에서 잊을 수 없는 일들,” 『천성을 듣는 사람』, 188.
305) 조향록, “좌익단체와 정면대립,” 『천성을 듣는 사람』, 209-210, 212.
306) 조향록, “좌익단체와 정면대립,” 『천성을 듣는 사람』, 209-210, 21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맹기영은 이명하와 12월 중순에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 장로교회 방문하여 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 중앙위원회의 뜻을 전하고 대구에 지부 조직을 종용하였다. 이후 의성을 방문하여 의성교회 목사와 상의 후 의성극장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연회를 가졌다.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강연 중 "좌익"들의 방해를 받았다. 이후 안동으로 이동하였는데, 안동역에 "시국강연 강사 기독청년 중앙위원 맹기영"이라는 환영이라는 글씨가 부착되어 있었고, "철도국 군악대의 거리 행진"이 있었다. "안동장로교회의 강연회"에는 5-6백 명 참석하였다. 이어 풍기, 영주, 단양, 제천, 원주를 거쳐 12월 31일에 서울로 왔다.[308]

조향록 목사는 1945년 11월(음력-인용자) 당시 부회장 엄요섭 목사와 농촌부장 이태현 장로와 영남지방을 순회했다.

> 우리는 안강에서 잠시 교회집회를 갖고 포항으로 갔다. … 그런데 촉포와 기계(경주 강동면-인용자) 집회에서 이미 공산주의자들과 싸움이 붙고 말았다. 그 지역은 그때까지도 인민위원회와 보안서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판국이었다. 우리들의 반공강연과 민주자유국가의 이상을 들은 가운데 온전한 우익세력과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듯 기뻐했고 그때까지 공산주의 선전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끌려 오던 민중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보안서원들이 와서 어서 민중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사과한 후에 이곳을 떠나라는 요구였다. … 그러나 우리는 다음 주일날 오후 2시 포항 극장에서 강연회를 그대로 강행했다. 각 지방에 기세를 얻은 교회 청년들이 모여 주어 예정시간이 되니 극장은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찼다.[309]

그런데 강연자들을 보호한 것은 인민위원장 등 좌익계열 인사였다. 청중석에서 비난이 빗발치자 인민위원장이 행동대원들에게 길을 열게 하고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 교회 사택까지 인도해 주었다. 이들은 "그날 밤차로 그곳을 떠나 경주로 나왔고 그날 밤으로 미군정 당국의 지휘를 받은 경북 경찰대가 포항 좌익세력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북에서 처음으

307) 강원룡, 『빈들에서』 1, 179, 181.
308) 맹기영, "지방 계몽 갔을 때," 『천성을 듣는 사람』, 181-184.
309) 조향록, "좌익단체와 정면대립," 『천성을 듣는 사람』, 209-21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로 인민위원회와 보안서를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310] 기청전국연합회 순회강연은 각 지역 우익단체를 결성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주 지역 내동면 국민회 조직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구정교회 60년사』는 "1945년 초겨울 엄요섭 목사를 교회에서 초청하여 교회당에서 시국강연회"를 가진 적이 있다고 했다. 강연회 직후 엄요섭은 최현순 장로 집에 모인 교회 청장년에게 "좌익의 행동이 심상치 않으니 좌익에 대항하는 단체를 만들도록 권유"하였다. 교인들은 "이것이 아마도 '국민회'를 조직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311] 이에 따라 내동면 주민들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국민회를 조직했다. 당시 경주 안강도 기청전국연합회의 순회강연 직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국민회를 조직했다.

기청전국연합회은 각 지역 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상전을 전개했다. 정읍제일교회 집사 이규석은 해방 직후 "유물론자들의 재빠른 규합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려고 온갖 획책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급한대로 교회청년의 규합을 부르짖고 공산청년들과 사상대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제일먼저 정읍교회 내의 기독청년 조직을 완료하고 회장이 된 나는 그 뒤 이어서 기독청년 정읍군연합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었다."고 했다.[312] 기청전국연합회의 지방조직이 지역 우익세력을 대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주 서문밖 교회에서 잘 나타난다. 강원룡은 당시 임시정부의 재정부장 엄항섭(嚴恒燮)과 함께 전주 서문교회 강연자로 초청된 강원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313]

> 내가 이남에서 강연무대에 초청강사로 처음 서게 된 것은 아마 1945년 12월쯤이라고 기억되는데, … 당시 각 지방의 기독교청년 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전북기독청년연합회의 회장은 배보석이라는 사람으로 이승만 박사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독촉중협'의 요직을 맡기도 했던 민족지도자의 하나인 배은희 목사의 아들이었다. 여하 간에 그런 괴상한 모습으로 기차에서 내렸는데, 몇 발자국 걸어가니 눈앞에 십자가 완장을 찬 젊은이들이 일렬로 주욱

310) Ibid., 211-212.
311) 구정교회, 『구정교회 60년사』 (경북 경주: 구정교회, 1984), 111.
312) 이규석, "기독교청년운동을 회고하면서," 『천성을 듣는 사람』 (서울: 보이스사, 1977), 193-194.
313) 강원룡, 『빈들에서』 1, 17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늘어서 있는 게 보였다.[314]

강원룡이 이교회에서 엄항섭과 함께 강연을 한 것은 1945년 12월 24일이다.[315] 또한 1946년 3월 28일 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제1회 정기총회 당시 전북기독교청년연합회의 회장인 배보석은 사회부장 겸 중앙위원이었다.[316] 따라서 전라북도기독교청년연합회가 조직된 것은 1945년 12월 25일경으로 추정된다.

해방 직후 배보석 장로의 집은 민족주의 우파를 표방한 기독교인들이 자주 모여 회의를 하던 곳이다. 배보석은 기청전국연합회의 전북기독교청년연합회의 회장으로 서문밖교회 장로였다. 이 청년연합회에 참여한 교회는 서문밖교회, 중앙교회, 남문밖교회 와산교회, 동부교회 등으로 추정된다.[317] 서문밖교회는 일제 강점기 배은희 목사가 목회하던 곳이고, 그의 장남 배보석은 이 교회의 장로이자 전주의 제중의원 원장이었다.[318] 즉 배은희를 중심으로 조직된 국민회와 배보석을 중심으로 조직된 기청전국연합회 전북지부가 이 지역 민족주의 우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전북기독교천년연합회의 사상전은 단순한 이론전이 아닌 좌익과의 폭력도 불사했다. 이는 1946년 3월에 있었던 안기성과 전주기독교청년들의 대립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3월에서 9월까지 남원 미군정의 통역관이었던 배민수 목사에 의하면, “일생의 대부분을 일본인 밑에서 옥살이를 한 유명한 공산주의 지도자 안기성이 남원에 와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전주에서는 70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원으로 찾아와 “안기성과 그 무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319] 70여 명의 기독교청년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개 교회에서 불가능

---

314) Ibid., 176.

315) Ibid., 177-178. 당시 연설을 끝낸 강원룡은 다음날 추가 연설을 해달라는 청년회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귀경하였다고 하면서 연설회 다음날 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교회의 난간이 무너지는 바람에 여자 하나가 죽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45년 12월 25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주지역 각 교회가 참석하는 연합집회에서였다.

316) 윤판석, 『천성을 듣는 사람』, 243.

317) 전주서문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100년사(1893-1993』 (서울: 쿰란출판사, 1999), 448, 450-451.

318) Ibid., 45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하고 이는 전북기독교청년연합회 차원에서 동원되었다. 기독교청년들은 십자가완장을 차고 조직적으로 반공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기독교단체는 아니지만 기독교 출신 국민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사상전을 전개했다. 한국교회일부 세력은 이승만의 정치이념에 동조하면서 그가 총재로 있는 국민회에서 활동했다. 1946년 2월 8일, 이승만과 김구는 임정의 반탁총동원위원회와 독촉중협의 지방 지부를 합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국민회)를 조직했다.[320]1946년에 발행된 『국민』에서 "1. 우리는 대한의 완전자주 독립을 위하야 최후까지 싸울 것. 2. 우리의 운동은 정당정파를 추월한 순연한 국민운동임. 3. 우리는 남북과 좌우의 통합을 기하야 지역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통일완수를 위하야 사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각 정당과 정파, 좌우가 사상과 지역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독립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321]

국민회 본부 임원인 이종영(李鐘榮)은 1946년 8월 현재 국민회가 2천여 개의 지부와 7여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1946년 6월 10일-11일 경성에서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이승만 박사를 총재로, 김구 주석을 부총재로 추대하였다. 이 회의에서 이승만이 "무슨 단체나 정당이 생겨나서 민족통일을 방해한다면 이것을 어떠케 조치할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일동이 거수하고 웨치되 '민족 분열의 반역으로 규정하여 우리가 배격하고 진압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맹서(盟誓)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322] 또한 국민회선전부는 "우선 국가와 민족을 부인하는 민족반역자를 숙청하야 장애물을 芟除(삼제, 베어버림-인용자)할 것이며, 독립운동에 비협력하고 있는 일부 자본가에 대한 민족적 책임감을 추

319) 배민수, 박노원 역, 『배민수 자서전: 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312-313. 안기성의 연설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한 배민수는 경찰에게 그의 연설을 기록하게 했고 이것을 근거로 그를 고발했다; 「서울신문」 (1946년 04월 11일. 안기성은 1946년 4월 9일 "군정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에 저촉된 것이 판명"되어 "6개월의 체형을 받게 되었다."

320) 「조선일보」 (1946년 2월 8일).

321) 오하영, 『國民』 (대한독립촉성국민회선전부, 대한민국 28년 8월 7일), 2. 이 책자는 국민회 선전부가 문교부와 편집위원회를 조직하여 7월 중순 발행했다.

322) bid., 6-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궁하야 그 에 대한 반성을 促(촉)할 것이며 무능한 악질 정권 야욕자를 배격하야 민족적 기생충을 撲滅(박멸)할 것”[323]이라고 하였다. 국민회의에 대해 『해방죠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만일에 그 세력 밋흐로 드러가지 안코 그 독직적 힝사와 봉건적 틱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잇스면 좌익이라고 혹은 공산당이라고 지명하야 반박하고 심지어 테로단으로 탄압 ᄉᆡ지하며 군정과 경찰은 극우파의 총지를 동정하니 극우파의 정칙을 반대하고는 견대기 어려울만치 되어서 필경에 좌경으로 가는 사람이 잇고 그리하야 남조션에 만치 안튼 공산당원의 수효를 늘이여주고 잇스며….[324]

국민회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입단을 독립과 사상통일을 방해하는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이를 배제·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 단체는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교인이었고, 감리교 목사인 오하영은 국민회의 부위원장, 전주 서문밖 교회 배은희 목사 등 다수의 임원과 회원들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국민』은 한국교회의 활동을 언급하면서 “삼팔선을 경계로 하야 그 이북에서는 惡劣(악렬)한 野蠻輩(야만배)를 상대로 과감한 투쟁을 계속하야 오는 무순한 청년학생과 오십 만 기독교도의 피눈물 겨운 과거 1개년 간의 업적은 사실 그대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민족에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였다.[325] 실제로 국민회는 교회 혹은 각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도 혹은 시군지부 지부장 내지 임원들이었다.

<표 1> 국민회 출신 기독교인[326]

---

323) Ibid., 24.
324) 미주라셩과 하와이재미한국련합위원회 집행부, 『해방죠션』, 18.
325) 오하영, 『國民』, 25.
326) 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setId=180583&totalCount=52&kristalProtocol=&itemId=im. 2013년 1월 15일. ‘국민회 기독교’로 검색.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강익형 姜益亨	國民會 김천 支部長	신현돈 申鉉燉	무주군 국민회 지부장 및 청년단 단장	박근영 朴根永	1950년 現在 國民會 溫井支部 顧問
권병로 權炳魯	國民會	신현모 申炫模	國民會 黃海道 代議員	박영구 朴榮求	1950년 現在 國民會 新泰仁支部 副委員長
김병서 金秉瑞	延白郡 龍道面 國民會 會長	심문 沈文	국민회 중앙총본부 조직부장	배은희 裵恩希	國民會 全北支部 委員長, 寶石 기청연합
김병수 金炳洙	국민회·민족통일총본부·반탁위원회 익산지부 위원장	엄병학 嚴秉學	國民會 임실군부지부장.	백태성 白泰星	1950년 國民會 安東支部 厚生部長,
김복문 金福文	國民會 淸道支部 委員長	오석주 吳錫柱	대국민회 고흥군지부 지부장	송봉해 宋鳳海	國民會海南郡 支部長, 時局收拾對策委員長
김봉학 金鳳鶴	國民會 延安溫泉支部 副會長	오하영 吳夏英	國民會 副委員長,	송진백 宋鎭伯	國民會 大田市支部 監察委員長
김상돈 金相敦	在美 韓國 人 國民 會 교육부장	원무경 元戊慶	의정부지부 국민회 청년단 後援會長 및 國民會 委員長	신창균 申昌均	1949년 현재 國民會常務委員
김선 金善	大韓獨立促成國民會 明洞支部 婦女部長	원창규 元暢珪	國民會 光州支部 文敎部長	신충현 申忠賢	국민회 강원도선전부장 및 사무국장, 韓靑 경기도지부 부단장
김양수 金良洙	국민회 순천지부장, 1950년 現在 國民會 中央本部總務	윤석구 尹錫龜	大韓 獨立促 成國 民會,	허장 許璋	獨促國民會 江陵支部 副委員長
김준희 金俊熙	1950년 현재 국민회 진안군지부장, 경찰후원회장	윤선욱 尹善旭	國民 會新泰 仁支 部顧問	황두연 黃斗淵	國民會 順天支部 지부장. 順天郡 農勞部長,
김호열 金浩烈	獨促國民會 鎭安郡支部 副會長	윤형중 尹珩重	國民會 論山郡支部長	구연직	국민회 충북 지부장
나판수 羅判洙	國民會 全羅南道支部 監察部長,	이남규 李南圭	國民會	이윤영 李允榮	獨促國民會 副委員長
남송학 南松鶴	國民會 龍山區支部長·中央常務委員·서울市支部 財政部長, 대한청년단 龍山區團 단장	이만녕 李萬寧	韓靑 예천군위원장, 국민회 예천군위원장	이일래 李一來	獨促國民會馬山支部幹部
정등운 鄭登雲	국민회 수원지부설립, 수원 국민보도연맹원 임원.	이요한 李要漢	國民會 全羅北道委員長	이종순 李鍾淳	국민회 春城지부 지부장
정순모 鄭順模	獨促國民會全羅南道支部委員長	조중서 曺仲瑞	大韓獨立促成國民會 組織部 次長 等	임영호 任永鎬	國民會順天支部 監察委員長, 大同靑年團順天團部 部團長
최지한 崔芝翰	國民會 永同支部 委員長	조필현 趙弼顯	獨促 간사. 1950년 국민회 총무차장·서울시 부회장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전국의 각 지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위의 표를 통해 상당수의 지부장과 임원이 기독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살펴보자. 배태준 장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경산군 청년부장과 군 지부의 총무로 활동하게 되면서 건국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유를 달지 않고 1946년 10·1 사건 당시 경산에서는 자신을 "살해하기 위하여 100여 명의 폭도들이 우리 집 앞까지 몰려와서 고함을 지르고 대문을 부수던 긴박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였다.[327]

경주 내동면에 위치한 구정교회는 해방직후 교인들을 중심으로 국민회를 조직했다. 국민회 회장은 물론 총무, 조직부장, 선전부장 모두 구정교회 교인들이었다. 1946년 12월에 부임한 이춘증 목사는 내동면지부 국민회 부회장이었다.[328] 당시 국민회원이자 구정교회 교인이었던 최성근 장로는 "저희 청년들이 천부, 안강면, 외동면, 내남면 등지에 가서 국민회를 조직해 주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내남 청년회장 이협우(제헌국회의원)씨는 청년회의 조직, 빨갱이와 싸우는 전술에 대해 문의하러 왔습니다."고 하였다.[329] 당시 국민회원들은 "현(1984년 현재-인용자) 운송부 창고, 예배당, 이좌수 묘 뒷산, 해양못 둑, 철둑 등 여러 곳에 초소"를 두고 "2명씩 10분간 보초를 서다가 옆으로 이동하여 한 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보초를 섰다고 했다. 마을 경계는 "6·25사변까지 계속"되었다.[330] 또한 이들은 1950년 전쟁 전까지 "지방(내동면 일원)의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또한 "인접지방(월성군 외동, 천북, 안강, 강동면 등)의 국민회 조직 강화"를 지원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게 된 동기는 "1946년 10월 5일 밤 11시 40분경 동원된 3,000여명의 폭도들을 격퇴시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 부터였다.[331]

---

327) 배태준(裵泰俊), 『내가 살아온 한국교회』 (도서출판 생동, 1993), 22.

328) 구정교회, 『구정교회 60년사』, 1984), 131-132. 당시 내동면 국민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현순 부회장: 이강우, 이춘증 목사 총무: 박상원 조직: 김건 선전: 황창운 재정: 김명룡 감찰: 김관제 청년부: 최선탁. 국민회원 중에 기독교인은 최현순, 박상원, 최성근, 황창운, 황경운, 우병준, 이윤우, 김건, 강정학, 백광진, 박영태, 최성옥, 김병식, 양승원, 이학도, 김소택, 김망복, 김수식, 김제식, 최경도, 유수진 김청원, 최선도, 최영내, 백일출이었다.

329) Ibid., 110-111, 116.

330) Ibid., 117.

331) Ibid., 13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웃한 안강면도 마찬가지였다. 안강면의 국민회 책임자는 안강제일교회 심능양 장로였고, 그 아들 심의진은 국민회 청년연맹 안강지부장이었다 대한청년단 단장이 되었다. 안강면도 국민회 주축 인사는 기독교인들이었다.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에 의하면 심능양은 "1949년 5월 25일(양력 6월 22일 수요일-인용자) 삼일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 공산 폭도에게 수난을 당하여 큰 칼로 흉부를 찔려 숨을 거두었다." 고 하였다. 이 사업회는 "심능양 장로의 둘째 아들 심의진"이 "안강면 대동청년단 단장"이라고 했다.[332] 당시 안강면 육통리에 거주하던 손병윤은 1949년 6월 경 체포되어 안강면 지서에 구금되었는데, 이때 같은 마을에 사는 심능양 장로의 보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손병윤과 함께 지서에 구금되어 있던 수십 명의 주민들은 당일 육통리 능골에서 지서경찰들에게 집단 살해되었다. 손병윤은 "심능양의 아들 심의진이 대한청년단 단장"을 했고, "국민회 회장"을 했으며, "서북청년단원들하고 빨갱이 잡으러 다녔다"고 하였다.[333] 당시 육통리에 집단학살이 발생했을 때, 심의진이 희생된 주민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수원종로 교회의 담임자 정등운(鄭登雲) 목사는 국민회 수원지부를 조직해 전쟁 전까지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수원 각 지역의 교회를 토대로 국민회를 조직하고 반공운동을 전개했다. "1946년 수원지방 감리사"가 된 그는 "수원 독립촉성국민회라 하고 발기 총회를 열고 … 내가 회장직을 맡아 4-5년간을 일했다."고 했다.[334] 수원 "국민회는 각 교회 조직을 통해 확대되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직접 간접으로 가입되어 주로 공산당을 막는 일에 앞장섰다."[335] 그런데 수원 국민회 회장인 정등운은 수원 국민보도연맹원을 조직하는데 관여했다. 11월 22일자 「자유신문」에 의하면, 11월 10일 수원 신풍초등학교 강당에서 전향자 6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국민보도연맹이 결성식이 있었는데 이때 경과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정등운이었다.[336] 국민회가 국민보도연맹원을 조직하는데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

332) kcmma.org/board/bbs/board.php?bo_table=bd1&wr_id=42 2014년 1월 5일 검색. 심 장로는 창마을교회 설립, 안강제일교회 개척. 영창학교 설립. 육통리교회 설립했다. 조카 심만섭은 대동청년단 선전부장으로 1948년 5월 좌익에게 살해되었다.

333) 손병윤 구술녹취 (2008년 12월 17일).

334) 홍석창, "정등운 목사 자필이력서," 『화성군사』(화성: 화성군, 1990), 753-754.

335) 홍석창, 『화성군사』, 754~755. 반월면 천곡 교회의 목사 전재풍(全在豊, 1887-1966)은 전쟁 중 투옥되기도 하였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국민회가 보도연맹원 결성, 운영, 처리에 관계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들어 거제 하청면의 경우 “하청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 신용우, 하청면 대한청년단장 김병현, 신종율 등이 지서 순경들과 의논해서 국민보도연맹원 명단을 만들고 관리하였다.”[337] 그리고 진천군의 경우는 국민회와 보도연맹원의 관계를 자세하게 밝혀준다. “진천군 보도연맹 결성은 ‘진천국민회’에서 주도”하였다고 한다. 진천면 삼덕리 분회장이었던 박시덕은 “좌익활동을 한 바가 없으나 국민회 회원이 장부를 내밀며 이름을 쓰라고 해 이름을 쓰고 가입”이 되었다고 했다. 국민회원들은 “빨갱이가 어디 나타났다’고 하면 찾으러 다니는 일”을 했다고 한다. 국민회 간부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진천국민회’ 앞 마당으로 진천군보도연맹원을 소집하여 “빨갱이를 몰아내자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때로 보도연맹원은 진천면 냇가에 동네별로 모여 제식훈련을 받기도 했다. 진천군 국민회는 보도연맹원들에게 신분증과 수첩을 지급하였고, 마을 책임자는 수첩을 가지고 사무실로 가 매일 출석 도장을 받았다. 진천군연맹은 한동네에 30여 명 정도 되었다. 진천면 16개리를 계산하면 읍에만 300~400여명 정도의 보도연맹원들이 있었다. 전쟁 직후 이들은 진천읍 인근에서 경찰들에게 집단 살해되었다.[338] 따라서 진천군 국민회가 국민보도연맹원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하동군에서도 발견된다.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동곡부락 보도연맹원이었던 정계화는 옥종면 독립촉성국민회 지부장이 보도연맹원을 조직했다고 했다. 대곡리 동곡부락에서는 3명이 가입하였다. 이들은 해방 후에 좌익운동을 하다가 자수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단체이기에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입”하였다고 한다. 보도연맹원들은 하동경찰서 강당에 모여 궐기대회를 하였는데 각 면에서 책임자들 10명 정도씩 참여를 하였고, 약 120명가량 모였다. 이후 신분증 비슷한 것을 만들어주었다. 보도연맹원들은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집단 살해되었다.[339] 진천군 국민회와

336) 「자유신문」 (1949년 11월 22일).
337) 신청인 여영오 진술조서 (2008년 3월 4일); 진실화해위원회,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 44.
338) 박시덕 구술녹취록 (2009년 5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영동·옥천·보은·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서울:진실화해위원회, 2009), 147－148.
339) 정계화 면담조사 (2009년 7월 14일); 진실화해위원회,『경남 고성 · 남해 · 하동 국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마찬가지로 하동 옥종면 국민회도 보도연맹원 결성을 주도하고,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등 이들을 직접 관리했다.

국민회는 국민보도연맹원 군과 도의 간부급으로 활동했다. 1949년 12월 14일 대동극장에서 노기용 군수가 참석하고 윤 사찰주임의 사회 하에 보련 고성지부결성선포대회가 열렸다.[340] 지도위원으로 김기활 고성 경찰서장 및 노기용 고성 군수 등이 임명되었고, 천재환·이상신 고성국민회장, 홍태주, 김갑성 마암면 지서주임이 지도위원으로 임명되었다.[341] 고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출신 오만수가 간사장을 맡으면서[342] 보도연맹 고성지부는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343] 1949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로당원 자수기간과 더불어 경상남도 보도연맹시국발기대회가 11월 11일 개최되었다. 임시발기인은 경남국민회 위원장 탁임조를 비롯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정국, 부산지방법원장 김동환, 경찰국장 최철용, 사찰과장 신영주, 23연대장 장석윤, 대한청년 도단장 강인달, 민주국민당 위원장 박승주 등이었다. 국민보도연맹경남도연맹 선포대회는 1949년 11월 20일 개최되었다.[344] 경남지부 국민회 위원장이 보도연맹원 임시발기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회 수원지부, 경주지부, 거제 하청면 지부, 진천지부, 고성지부, 하동군 옥종면지부의 활동을 통해 국민회가 해방 직후 좌익관련자들을 색출·검거했고, 일부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결성과 운영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독교 출신 국민회원들은 야산대·반군에게 협력한 민간인을 색출·검거하는 역할과 국민도연맹원 결성하고 주민들을 이 단체에 가입하는 등 좌익관련자들을 주민들과 구별하여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정등운 목사의 사례처럼 보도연맹원을 주민들로부터 분류하는 역할을 한 국민회원 출신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많이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아래의 표를 통해 국민회원들이 해방기와 전쟁기 좌익관련자 색출 및 검거,

---

민보도연맹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2009), 33-34.

340)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1일자).

341)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1일자).

342)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1일자).

343) 참고인 김봉례 진술조서 (2009년 6월 24일).

344) 「남선경제신문」 (1949년 11월 6일); 「부산일보」 (11월 4일); 「자유민보」 (1949년 11월 9일); 「자유민보」 (1949년 12월 23일); 「민주중보」 (1949년 11월 12일); 「자유민보」 (1949년 11월 20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국민보도연맹원·부역혐의자 색출과 분류 등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기독교 출신 국민회원들의 활동을 추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표 2> 해방 이후 각 지역 국민회 회원들의 활동[345]

시기	사건	지역	명칭	활동내용
해방기	10·1 사건	경주 내동면	내동면 국민회	·10.1사건 당시 구정교회 주축으로 구성된 국민회가 좌익과 전투 ·1948년 최병호 등 지역주민 살해에 개입함.
	10·1 사건 토벌	경주 안강면	안강 국민회 청년단	·안강 국민회청년단장 심의진 총 소지하고 특경대와 함께 야산대 협력 민간인 책출 및 검거. ·안강제일교회 심응섭 목사와 김진수 장로는 10월 사건 당시 좌익과 협상한 지서주임 마군정에 고발.
	토벌	거제	국민회 거제지부	·국민회 거제지부장 하전원 ·야산대 가족에 대한 정보는 경찰에게, 빨치산 등 좌익활동에 대한 정보 사찰계에게 제공.
	토벌	거제	국민회 거제지부	·국민회 거제 지부장 이종정 토벌군 요청. 군에게 토벌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50년 5월 경찰에 의해 희생됨
	반탁 집회	고흥	국민회 고흥지부	반탁집회 주도.
	여순 사건	순천	목사 전도사	·목사와 전도사가 순천 북초등학교 모인 주민 중 우익분류. ·분류된 우익이 반군가담자 색출, 분류된 주민3-4백 명 봉화산 골짜기에서 처형됨.
			국민회	·주민 중 좌익 및 반군 가담자 색출
	여순	상사면	상사면	·국민회장 백학성(이후 한청단장)

345)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사건」 (2009); 「경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2010년 6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9월); 「괴산·청원(북일, 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1월);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11월);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 (2009년 9월);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 (2010년 3월);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2010년 6월); 「남양주 진접·진건면 부역혐의희생 사건」 (2008년 5월); 「보성·고흥 지역 여순 사건」 (2009년 11월); 「서부 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희생 사건」 (2010년 6월); 「순천지역 여순 사건」 (2008년 12월); 「아산 부역혐의희생 사건」 2009년 5월); 「안동 부역혐의희생 사건」 2008년 12월); 「여수지역 여순사건」 (2010년 6월); 「여주 부역혐의희생 사건」 (2009년 5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 (2008년 11월); 「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2009년 12월); 「완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2009년 2월);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2008년 6월); 「전남 동북부 국민보도연맹 사건– 광주·광산·여수·순천·광양·고흥·곡성·구례·나주·보성·장성·화순 – 」 (2009년 8월);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2009년 4월); 「해남군 민간인희생 사건」 (2008년 6월);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8년 11월);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영동·옥천·보은·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2009년 9월); 「포항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10월) 참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사건		국민회	·청년단원 마을 마다 2명 배치, 사찰과형사와 지서에 반군협조자 정보 제공.
	10.1, 토벌	영천	국민회 영천지부	·국민회 청년단 정기환, 국민회장 정도영 ·청년단 경찰과 함께 10.1사건 관련자 체포. 지서 경비. ·1949년 국민회 청년단 토벌 참여.
	토벌	완도 약산면	약산면 국민회	·약산면 국민회 서기 박병환 전쟁 중 한청 약산면 단장. 곤고지산 토벌 참여
전쟁기	보도연맹	하동군 옥종면	옥종면 국민회	·하동군 옥종면 국민회지부장 보도연맹원 조직 주도. ·이승만 정권의 단체이기 때문에 가입하면 좋을 것이라 설득함. ·1946년 5월 하동군 국민회집회에 이승만과 주민 3만 명이 모임.
		고성군	국민회 고성지부	탁임조 고성국민회 회장 고성보도연맹 지도위원.
		경상남도	국민회 고성지부	탁임조 고성국민회장 경남보도연맹 선포대회 임시발기인.
		고령군	국민회 고령지부	고령국민회지부 자수격려대회 및 보도연맹조직 주도.
		성주군	국민회 성주지부	성주국민회 지부장 성주보도연맹원 지도위원.
		광산군 삼도면	삼도면 국민회	국민회장 권유로 보도연맹가입. 전쟁 후 국민회 사무실로 연행된 주민 암탁골에서 처형됨.
		구례	국민회구례지부	국민훈련원 설치, 좌익혐의자(보도연맹원) 800명 대상으로 교육함. 10기 300명 교육 마침. 구례군 국민회가 보도연맹원에 대한 교육은 담당했고, 주로 국민회장들이 교육함.
		득량면	득량면 국민회	국민회장의 권유로 보도연맹원 가입됨. 이중 약 80명이 덕고개, 150명이 그럭재에서 희생됨.
		청원	국민회 충북지부	국민회 지부장 차근호 등이 보도연맹충북지부 결성. 차근호 충북지부 감찰부장.
		진천	국민회 진천지부	· 국민회 회원이 국민보도연맹원 결성주도. 국민회원이 내민 장부에 이름을 작성하면 보도연맹원으로 가입됨 · 국민회 간부 1달에 1회 국민회 사무실 마당에서 보도연맹원에게 "빨갱이 몰아내자"는 취지로 교육함. · 국민회에서 진천군 보도연맹원에게 신분증과 수첩 지급 · 마을책임자 매일 사무실로 가서 수첩에 출석도장 받음
		포항	국민회포항지부	· 지부장 이일우 · 국민회 등 우익단체 오학생, 성영도 등 7-8명 총살.
		정부 내무위 법제위	심사 위원회	심사위원회 : 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부인회 책임자, 시장 및 군수, 읍면장, 사찰주임, 지서주임, 보도연맹원 탈맹 심사. 심사 후 합격자 도민증 지급
	부역	남양주	진접 국민회	국민회원 이진수(국회의원) 민족청년단 이준범을 좌익으로 분류
		아산	국민회 아산지부	국민회 등의 단체가 부역혐의자 체포 및 분류. 치안대 – 한청, 국민회 등으로 조직
		해남	국민회 해남지부	국민회회장 김만제 등이 참석하여 시국수습대책위원회 조직, 이 위원회 부역자처벌기준 마련 후 서장지시로 각 지서에 통보.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위 표를 통해 각 지역의 국민회가 주민들 중에 좌익관련자를 색출하여 국민보도연맹원에 가입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시민으로부터 이들을 구별하여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분류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관리·통제·교육하였다. 위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교육내용에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빨갱이 적대이었다.

YMCA·기청전국연합회·교회 등 기독교 단체와 국민회·서북청년회 등 사회단체에 소속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통해 일부 기독교인들이 냉전의 진영논리를 신념화 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사상전을 전개했다. 특히 이들의 사상전은 좌익관련자들을 시민들과 구별하여 특정집단으로 분류하는 단계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대구 10월사건, 제주4·3사건, 여순사건, 6·25전쟁 등 각 시기마다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지휘명령체계 안에 포진되어 있었다. 이들은 냉전의 진영논리와 이를 신념화한 신앙을 따라 행동했다.

감리교 초기 기독교인이자 국내에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를 소개한 조병옥은 1946년 10월부터 1948년 정부수립 직전까지 경무부장, 개전 직후인 1950년 7월 초부터 10월까지 내무부장관으로 국내치안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트루먼 독트린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사탄의 진영으로 분류하여 제거했다. 1948년 4월에 "민족운명의 기로"라는 글에서 그는 "조선 문제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세계문제의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예증"이라고 하였다.[346] 또한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이라는 글에서 그는 "공산당과 그 추종자"들을 "파괴진영", 혹은 "사탄의 진영"이라고 하였다.[347] 기독교신앙으로 신념화한 냉전의 진영논리를 따라 좌익관련자들을 검거, 분류, 처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남감리교 초대기독교인지자 목사인 원익상의 아들 원용덕은 여순사건 당시 토벌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반군은 물론 이에 협조했다고 추정된 민간인들에 대한 검거, 분류, 처형을 지휘했다. 특히 그가 선포한 계엄령에는

346) 조병옥, "民族 運命의 岐路," 『民族 運命의 岐路』 (서울: 경무부경찰공보실, 1948.), 27-28. 이 책은 1948년 4월 20일 발행된 것이다.
347) 조병옥,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 『民族 運命의 岐路』, 1, 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즉결처형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토벌군은 군인과 민간인을 연대장 혹은 토벌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즉결처형 할 수 있었다.[348] 1950년 7월 27일-1952년 1월 12일 경북관구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대구·경북지역민간인 희생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어떤 입장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는지는 1952년 발생한 부산정치파동에서 확인된다. 그는 연행된 국회의원 중 곽상훈, 정헌주 등 12명을 국제공산당관련 혐의로 구속[349]하고 공산주의 적대를 이용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을 관철시켰다.

6·25전쟁 개전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리를 지시한 장석윤도 기독교인이었다. 1988년에 쓴 「風霜 끝에 얻은 攝理」에서 장석윤은 "나는 미국으로 간 뒤부터 기독교인으로 예배당에 나갔으며 미국대학에서 종교교육을 선택한 일도 있었다. 그 후 귀국해서도 예배당에 나가 기독교인과 접촉하며 신앙심을 두터이 하기 30여년"을 지냈다고 했다.[350] 그는 미국 유학 당시인 1923년 12월 25일부터 1980년경까지 기독교인으로 생활했다. 그의 처갓집은 남감리교회 최초의 교인인 윤치호이고, 그의 장인은 윤치호의 동생 윤치왕으로 새문안교회 안수집사였다. 한편 내무부 치안국은 무선전보로 1950년 6월 25일 전국 각도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의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이라는 비상통첩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했다. 통첩의 주요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과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연령·주소를 명기하여 보고할 것"이었다.[351] 치안국은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하였다.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348) 「동광신문」 (1948년 11월 5일);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260-262.

349) 「민주신보」 (1952년 7월 5일) 공산당 자금사건 혐의로 徐範錫·任興淳·郭尙勳·金意俊·李錫基·張洪琰·梁炳日·鄭憲柱·權仲敦·李容卨의원 등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이들 10명은 원용덕에 의해 보석되어 국회에 출석하였고, 개헌에 찬성한다.

350)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격랑반세기』1 (강원도 춘천 : 강원일보사, 1988), 340.

351) 제주도 성산포경찰서가 1950년 6월 25일 14시 50분에 접수한 공문을 보면,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내무부 치안국에서 제주도 경찰국에 무선 전보로 보낸 문건.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 86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건」은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7월 11일 불순분자에 대한 예비 검속을 내용으로 하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지시했다.[352]

원산출신으로 평양숭실중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감리교계통인 일리노이 웨슬리안대학 범죄학·사회학 BA학위와 보스턴대학 종교사회학 학위를 받았고, 시카고한인교회에서 활동한 김태선도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 그는 개전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 장석윤에 이어 치안국장이 되어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와 수복 직후 부역자처리를 지휘하였다. 1950년 10월 23일, 치안국장 김태선은 특히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부역자 심사위원회 조직을 지시하는 등 부역자의 검거, 조사, 분류를 지휘했다.[353]

영락교회 집사 오제도는 한경직 목사의 주장과 논리를 따라 사상전을 전개했고, 그 결과 국민보도연맹원을 시민들과 구별하여 특정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국민보도연맹원 분류는 기독교적 신념이 작용했다. 즉 그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전향 작업은 이전의 죄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진전향은 “그 非(罪의 오기-인용자)를 … 悔改(회개)한 것이며 공작전향은 이러한 자각이 불충분해서 아직도 사상적 미로에서 방황하는 동포에게 반성과 회개케 하는 지도교화에 따라서 전향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온정정책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작전향, 즉 보도연맹원의 전향은 “피눈물 섞인 속죄와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354] 보도연맹의 목표인 전향을 기독교의 회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1930년대 중반 중학교 때부터 한경직 목사와 관계를 가졌고, 전쟁 전부

352)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내려 보낸 통첩 원문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위 보고에서 “同件에 관하야는 據 6월 25일 치안국장 통첩(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통첩(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통첩(불순분자 구속 처리의 건), 7월 11일 치안국장 통첩(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하야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고”라고 되어 있어 치안국장이 상기 통첩을 하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과거진상규명위원회,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중간조사결과: 종합발표문」, 21~24; 진실화해위원회, 「김해국민보도연맹원희생사건」 (2008년 11월), 123; 「부산경남지역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2008년 12월), 165.

353) 「조선일보」 (1950년 10월 23일).

354) 오제도, 『思想檢事의 手記』 (昌信文化史, 1957), 14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터 영락교회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진 장도영 육군정보국 국장은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이념적 군대론을 주장했다. 또한 1950년 6월 28일 수원에서 “내려가면서 잔비(殘匪)소탕을 하고, 숨어있는 보도연맹원이나 후방을 교란시키는 적색분자를 색출” 할 것을 정보국 1, 2, 3과장에게 지시했고, 이 업무를 김창룡이 담당하게 했다.[355] 그의 집안에는 평안북도의 유명한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회 설립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평안북도 초기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기독교신앙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생활했다고 한다.

또한 영락교회에는 서북청년회 출신 교인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들은 4·3사건에 투입되어 무장대와 그 협력자들을 체포하고 처리하기도 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연맹을 영락교회 청년들이 “쳐부수고 해산시켰” 다고 했다. 또한 “서북청년회” 가 “영락교회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 되었다고 하면서 “그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 했다고 했다.[356] 한경직 목사는 설교와 강연을 통해 붉은 용을 제거할 것을 주장했고, 이 교회 청년들은 자신이 속한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좌익관련자들을 분류, 제거했다. 즉 한경직의 사상전은 강연과 설교를 통해 전개 되었고, 이 교회 청년들은 이를 지침으로 좌익관련자를 배제·제거하는 형태로 사상전을 전개했다.

1948년 육군정보국 첩보과장 김점곤과 특별정보대(Special Intelligence Service, 이하 SIS) 과장 김안일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여순사건관련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을 수사하였다. 반군토벌전투사령부에는 육군 정보국장 백

355)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 (경기출판사, 2001), 229, 264. 오상근(吳尙根) 1922년 4월 1일 경기도 용인 출생. 1942년 일본 경찰 입문 후 군정 경찰을 거쳐 1949년 6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 수사계장, 1959년 방첩대 수원지구 방첩대장, 1961년 중앙정보국 제6국에 근무. 그는 1949년 6월 10일 입대와 동시에 일등 상사로 진급하였다. 일등 상사 이전에 그의 계급은 경사였고, 수원, 인천, 용인 등지에서 ‘범죄수사’ 를 담당했다. 이런 경력이 인정되어 입대와 동시에 2등 상사로 진급했고, 군 경력 기록상에는 1950년 10월 26일 특무대로 전입하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보직에 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1949년 입대 당시 이미 9년 동안 범죄수사의 경력을 인정받아 2등 상사로 특채된 것으로 보아 입대 직후부터 군 수사 기관(방첩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3년 6월 특무대 경북지구대, 1954년 1월 계엄군 파견 특무대, 2월 서울지구파견특무대, 9월 21사 파견 특무대, 1957년 특무처 특무과 등 예편까지 대부분 특무대 혹은 방첩대에서 근무했다. 한편 1953년 5월 23일 소위로 임관했다.

356) 김병희 편저, 『韓景職 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1982), 55-5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선엽 중령, 정보과장 김점곤 소령이 정보참모로서 참모부장과 토벌사령관을 보좌하면서 진압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357] 또한 육군 정보국 특별조사과(Special Investigation Section) 과장 김안일과 소속 대원들이 여순사건 발생 직후 광주에 설치된 반군토벌사령부로 파견되었다.[358] 『對共三十年史』는 김창룡, 김안일, 이세호, 정인택, 양인석, 박평래, 송대후 이희영 등이 광주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하였다고 했다.[359] 여순사건 당시 첩보과 과장 김점곤과 특별정보대 대장 김안일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을 검거, 수사, 분류하였다. 이들 중 김안일, 양인석, 이희영은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논리로 신념화한 냉전의 진영논리를 따라 특정 민간인들을 적대세력으로 분류하고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 기독교인 한 개인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당시 한국교회에 널리 퍼진 신념화된 냉전의 진영논리를 따라 행동했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러한 이념과 기독교적 신념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이 분류되었고, 좌익관련자들이 검거 및 분류되었으며 종국에 처형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의해 신념화된 냉전의 진영논리가 각 사건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57) 참고인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김점곤 구술녹취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년 4월 7일) 김점곤의 본적은 경상남도 합천이지만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났다. 6살 경 전라북도로 이사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광주로 내려왔다.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가장 먼저 교회를 다녔다. 그는 양림리에 거주하면서 기독교문화권에서 자라났다; 사사키 하루다카, 『한국전비사 – 건군과 시련』상권 (병학사, 1977), 329~33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Ⅱ: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64.

358) 참고인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김안일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9일)

359)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1978), 6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Ⅲ. 대구10월사건과 기독교인의 활동

1. 대구10월사건의 배경과 경과

1) 사건의 배경

1946년 10월 13일자 「자유신문」은 “갑오 동학 이후의 대폭동, 경북 지방 소요 상황”이라는 기사에서 인민당의 최문식(崔文植), 민성일보 사장 이목(李穆), 공산당의 손기탁(孫基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윤장혁(尹章赫) 등 1,000여 명이 검거되었다고 하였다.[360] 대구10월사건을 비롯한 조선공산당이 주도한 총파업은 좌우합작위원회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면서 발생했고, 그 시기도 일치했다. 10월 7일 좌우합작위원회는 합작7원칙을 발표하였고, 8일 하지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의 대구10월사건을 둘러싼 인민당의 여운형, 미군정의 하지,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의 입장이 「최문식 대법원 판결문, 西紀 一九四七年 刑上第 一五〇號」에 담겨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문식에 대해 “포고 제2호 법령 제19호 위반 급 주택 침입”건으로 유죄를 선고하였다.[361] 그런데 1948년 2월 대법원은 최문식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947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내린 “원 판결을 破毁(파훼)”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1) 피고인은 당시 부윤관사에 폭도가 침입하였다기에 이재복 등과 같이 달려가 이를 수습하기에 노력하였으며, (2) 10월 3일에 래디오를 통하여 ‘경관은 조선민족이 아닙니까 웨 동족상살을 합니까’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점, (3) 피고인은 인민당원으로서 과거에 무혈혁명을 강조해 온점, (4) 피고인은 43세이며 평양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가진 자로서 1946년 10월 3일에 검거되여 1년이 경과되도록 영어(囹圄)의 생활을 하여 그 노모를 위시한 가족생활을 파탄에 달한 점, (5) 당신 군정 재한을 〇한 자는 대부분

360) 「자유신문」 (1946년 10월 13일).
361) 정해구, 『10월 인민항쟁연구』 (서울; 열음사, 1988), 15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출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은 과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362]

우선 변호사는 최문식이 여운형의 "인민당" 소속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가 방송을 통해 폭도들의 폭력사태를 수습하는 한편 주민을 살상하는 경찰들의 행위를 저지한 점, 그리고 그가 무혈혁명을 주장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의 이러한 행동에는 여운형의 정책 노선이 담겨 있었다. 여운형과 박헌영은 임시정부 수립과 총파업에 대해 이견을 보였었고, 이것은 대구10월사건을 통해 나타났다.

우선 변호사가 최문식을 조선공산당이 아니라 인민당이라고 밝힌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의 정치 노선은 선배 목사인 배민수와의 대화에서 확인된다. 10월사건 직후 배민수는 최문식에게 "공산주의의 일원이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문식은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한 반면에 그렇다고 미군정이나 이승만의 정치노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363] 그는 조

362) 대법원, 「최문식 대법원 판결문, 西紀 一九四七年 刑上第 一五〇號」 (서울: 대법원, 1948년 2월 6일).

363) 배민수, 『배민수 자서전: 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321-322; 유호준, 『역사와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95. 기독교 계통의 기록들은 최문식이 이재복이 대구10월사건의 배후라고 한다. 배민수는 최문식과 이재복이 "공산주의의 지도자이고 대구사건을 주도했다"고 하였다. 1951년경부터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였던 유호준은 "대구 폭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 이재복 목사와 최문식 목사 두 사람으로 이재복 목사는 사건 진압 후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최문식은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최문식은 6·25사변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감하여 나와는 악연을" 맺었다고 하면서 "최문식이 목숨을 부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향친구 이자 훗날 YMCA 전국연합회 총무를 지낸 김태묵 목사가 당시 미군정 고급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 목사의 변호로 최 목사는 대구 폭동 주모자로 몰려 붙잡혔다가 풀려났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되면서 다시 구속되어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최문식 대법원 판결문, 西紀 一九四七年 刑上第 一五〇號」 (서울: 대법원, 1948. 2. 6). 그를 변호한 변호사는 金承弼였고, 대구에서의 그의 행적을 증언해준 사람은 金俊九였다. 따라서 유호준과 배민수가 기억하고 있는 대구사건과 최문식의 관계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조향록, 『팔십자술』 (서울: 도서출판신지성사, 2000), 202-207. 조향록은 1949년 봄부터 8월 15일경까지, 강원룡의 부탁으로 현재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교회에 최문식 목사와 함께 거주하였다. 신사교회는 조향록이 담임하던 교회였다. 최문식은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했고, 한국기독교협의회의 총무이자 평양신학교 스승인 남궁혁 박사를 가끔 만나기도 하였다. 8월 15일이 며칠 지나 조향록은 체포되어 "미8군영 지역의 단층 집 군대 막사"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김창룡을 만나 최문식에 대해 들었고, 당시 "국방부 정보국장"의 주선으로 풀려났다. 정보국장은 연결한 것은 연세대학생으로 반공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이창남이었다. 최문식이 체포된 시기가 1949년 8월 이었으므로 당시 그를 체포한 기관은 육군정보국 특별정보대(SIS)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선공산당의 폭력투쟁을 반대했고, 동시에 경찰의 강경진압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는 최문식의 개인적 성향일 수 있지만 10월 총파업을 둘러싼 인민당의 여운형과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사의의 의견 충돌을 반영한 것이다.

1946년 여름, 여운형과 박헌영은 좌우합작과 좌익계열 3당(조선공산당, 인민당, 남조선신민당) 합당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고, 이것은. 대구10월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박일원에 의하면, 1946년 7월 22일 박헌영의 "신전술에 관한지시서"가 배포되었다. 이것은 우선 "(가) 수세에서 적극적 공세로 또는 작년 8·1○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던 좌우합작노선을 근본적으로 ○○(저지-인용자)시키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나) 미국의 트루먼 정책이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적 반동적 노선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반미운동을 적극화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위원회에 넘겨라'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등이었다.[364] 박헌영은 1946년 7월, 미국 적대에 근거한 반미운동을 기본 노선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를 비롯한 어떤 사안도 미군정과 일체 협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바로 이지점에서 인민당의 여운형과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의 입장이 갈렸다.

박헌영은 1946년 7월에 있었던 민전의장단회의에서 자신의 좌우합작원칙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당시 여운형은 이 회의소집에 초청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 개최사실 조차 몰랐다. 8명의 민전의장단 중 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원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대 2의 표결로 박헌영의 합작 5원칙이 통과되었다.[365] 1946년 7월 27일, 민전은 좌우합작 5개 원칙 발표하였다.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하는 삼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
2) 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여) … 을 위시한 민주주의 제 기본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3) 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팟쇼 반동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 의 즉시 석방 … 할 것

였다. 최문식과 조향록이 체포된 곳은 바로 김창룡의 사무실이었고, 최문식은 당시 검거된 이승엽의 탈출과 관련되어 체포되었다. 재판에 회부된 최문식은 2년형을 받고 평양신학교 동기인 주채원 목사가 교무과장으로 있는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364) 박일원, 『남로당의 내막』 전편 상권 (서울, 1947), 48-50.

365)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28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4) 남조선에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토록 기도할 것
5) 군정고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366]

박헌영의 의중이 반영된 합작 5원칙의 핵심은 1), 4), 5)에 잘 나타난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지지와 입법기관창설을 반대하고 권력을 즉시 인민위원회에 넘길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중간파와 미군정간에 진행되는 임시정부 협상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민전의 좌우합작 5원칙을 본 "우익 역시 박헌영의 의도가 합작을 방해하고, 합작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당기려는 속셈"이라고 보았다.[367]

여운형의 입장은 1946년 7월 25일에 덕수궁에서 열린 제2차 정식 예비회담의 14개 항의 의사진행 규정 중 "1. 좌우합작위원회의 목적은 민주적 임시정부의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안전한 민족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다."에 나타난다.[368] 좌우합작위원회의 목적은 입법기구를 매개로 임시정부수립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6월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운형은 "좌우익 간에 개재(介在)되고 잇는 이해와 감정을 초월한 대표적 기관을 설치하야 미소공위 재개에 노력하고 완전한 임정(臨政)이 수립될 때까지 군정에 협력하여가야 될 것이다."[369]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1946년 7월말 박헌영이 좌우합작 5원칙을 제출하며 합작에 제동을 걸 무렵 여운형은 "우리는 소극적인 반탁진영이 반동적 지도자와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산당에 대한 반동적 공격을 약화시켜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조공과 미군정·이승만 간의 적대관계를 완화시키려했다.[370] 그러나 박헌영은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에 대해 야심가 여운형이 미군정을 등에 업고 새 국면을 주도해 나가려는 음모라고 했다.[371]

366) 「서울신문」 (1946년 7월 27일).
367)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286.
368) "Second Report, Korean Joint Committee," Signed by 2nd Lt. L. M. Bertch, American Delegation, U.S.-Soviet Joint Commission, 26 July 1946, G-2 File 8-30 Reports on korean Joint Committee: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267-268에서 재인용. 이것은 버취가 작성한 「합작위원회 제2차 보고」이다.
369) 「자유신문」 (1946년 6월 12일).
370)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263-264.
371) Ibid., 27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렇듯 조선공산당과 중간파는 물론 군정과 이승만도 좌우합작에 의해 구성될 입법기구에 대한 입장을 각기 달리하였다. 그것은 입법기구의 위상의 문제였다. 여운형은 “입법기구가 미군정의 통치기구가 아니라 통일적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와 같이 자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자치적 입법기구 구성이라는 전제하에서 미군정과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만약 입법기구가 미군정의 예속기관이 되면 그때 가서 탈퇴하면 된다는 것이다.[372]이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10월 7일에 “합작7원칙과 입법기관에 대한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이 위원회의 목적을 “민주주의 임시정부들 수립하여 조국의 완전 독립을 촉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등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373] 좌우합작을 주도한 여운형과 김규식은 입법기구 설치가 남한에서의 좌우합작과 남북합작을 통한 임시정부와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박헌영은 입법기구는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반대했다.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자 하지는 이를 적극 환영했다. 9월 18일 서면으로 입법기구 수립문제를 김규식에게 밝히면서 하지는 “9월 23일은 귀 합작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명확한 예비적 조치들이 유효할 수 있는 최후의 시점”이라고 했다.[374] 하지는 입법기구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이 입법기구의 첫 임무 중에 하나가 직접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선인 대표로 구성될 (신)입법기구로 자신을 대체하는 계획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75] 미군정의 관심은 오직 입법기구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 입법기구를 통해 과도정부를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전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5차례의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홍남표·허헌은 그 내용을 여운형에게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박

372) Ibid., 324.
373) 「동아일보」 (1946년 10월 8일).
374) 하지는 “합작위원회는 약 60명으로 구성된 남조선과도입법기구의 수립을 승인”하고, “1/2은 전통적인 대의방식으로 남조선 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1/2은 합작위원회가 자의로 지명,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승인을 위해 추천된다”고 하였다.
375) 「하지가 김규식에게 보내는 1946년 9월 18일자 편지」, RG.332, Box85: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315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헌영과 이강국의 체포령을 취소할 것, 둘째 정간된 좌익신문 관계자를 석방하고 정간을 해체할 것, 셋째 자유언론을 보장할 것 등의 세 가지 요구가 관철되니 않으면 어떠한 합작운동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9월 20일, 여운형은 홍남표의 세 가지 요구를 하지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하지는 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미국은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 재 고려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루스벨트 이전으로 돌아가든지 지금 곧 개전하든지 두 가지 길이다. 미국군정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용서 없이 체포 처벌하겠으니 여 씨도 주의함이 필요하다.”고 했다.[376] 하지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이란, 그리스에서 벌어진 소련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었고,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상호 적대적인 진영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미군정은 소련 공산주의를 적대로 하는 정책을 펼쳤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라는 상호 적대적 진영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박헌영은 이를 신전술에 반영시켰다. 따라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은 미군정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1946년 9월 조선공산당은 서울·인천 등지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민들의 추수투쟁을 연결하여 미군정과 전면전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운형과 김규식은 미군정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한편 미군정과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배제한 입법기구와 이를 통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계획하고 있었다. 상호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운형은 조선공산당의 9월 총파업에 대한 우려를 박헌영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박헌영은 완강했고, 이어 대구10월사건이 발생했다.

1946년 9월 하순, 미군정과 조선공산당 간의 전면적인 충돌이 있었다. 조선공산당은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농민들의 공출 반대 추수투쟁을 통해 “미군정에게 타격을 가하고 3당(인민당·공산당·남조선신민당) 합동사업을 촉진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운형은 박헌영의 총파업이 “3당 합당과 좌우합작을 어렵게 하며, 결과적으로 미소공위재개”를 가로막을 것, “나아가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의 길을 열어주고 미군을 장기적으로 주둔시키는

376) Ibid., 312-31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편 탄압의 빌미만 제공” 할 것이라고 했다. 여운형은 합당사업과 좌우합작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결렬된 미소공위를 재개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평화적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377]

최문식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러한 여운형의 입장은 최문식의 행동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부윤관사에 “폭도가 침임” 하였다는 소릴 듣고 이를 수습한 것은 조선공산당의 정책과 일치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이는 총파업을 반대한 여운형의 정책에 부합되는 행동이었다. 또한 그는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해서도 라디오를 통해 항의하였다.[378] 최문식은 공산주의 진영과 경찰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극한의 대립과 이로 인해 발생한 폭력적 상황을 수습하고자하였다. 기청전국연합회 조향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남은 남한대로 해방 후 연쇄적으로 일어난 정치 요인의 테러로 민족세력의 지주이던 몽양, 설산, 백범 등이 거세되고 김규식, 안재홍 등 다수 민족인사들의 납치 월북으로 인한 정치 공백지대에 이어, 죽산 조봉암의 제거에 이르기까지, 이승만의 정치권력 기반이 된 친일 반민족 세력이 정치기반을 굳혔다. 그래서 진보적 통일세력과 민족주의적 민주세력, 그리고 민주 사회주의적 중간세력 등이 완전히 제거되는 기형적 정치풍토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을 지배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정치권력의 주도세력은 근세 1세기 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자주 독립 민족세력을 깡그리 제외시켜 민족의 영구한 분단을 예견케 하는 극단적 대결구조를 만들어 버렸다.[379]

민족주의 민주세력과 민주 사회주의적 중간세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범주에 있는 여운형, 김규식, 김구 등은 모두 좌우합작과 남과 북의 통일정부를 주장하던 정치인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살해되거나 피랍되었다. 남한의 단정을 주장하는 이승만에 의해 김구는 살해되었고[380], 여운형 등 중간파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에 의해 견제 및 배

377) Ibid., 325-326.
378) 「대구시보」 (1946년 10월 19일).
379) 조향록, 『팔십자술』 , 151-152.
380) 박태현 구술녹취 (2008년 6월 6일). 박태현은 해방 직후 월남하여 서울에서 서북청년회 구월산특별지부(지부장 김종벽)와 서북청년회 본부 사무실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48년 봄 KLO 1기로 훈련을 받았고, 위스키대 대장이 되었다. 전쟁 전 북한에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척되는 동시에 미군정과 이승만의 독촉중협과 국민회에 의해 제거되었다.

대구10월사건은 조향록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극단적 대결구조”에서 파생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정 · 김일성 ·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 미군정 ·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경직된 이원론이 한반도의 정치를 지배했다. 하지의 말처럼 이 시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소련공산주의 적대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고, 이것이 입법기구 설치에도 반영되었다. 여운형은 입법기구를 통해 좌우와 남북이 합작된 임시정부와 통일정부라는 그림을 그렸고, 박헌영은 이를 미제국주의 정책에 부합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군정 · 이승만을 축으로 하는 우익과 조선공산당을 축으로 하는 좌익 간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적대와 미제국주의 적대라는 이원론, 즉 냉전의 진영논리가 대구10월사건의 배경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양진영이 뚜렷해지고 경직되었다.

2) 사건의 경과

기민시위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시작된 대구10월사건은 좌우양극화와 상호 적대적 진영이 고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10월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대구10월사건은 1946년 초부터 있었던 ‘기민(飢民)시위’와 9월의 노동자 총파업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구에서는 1946년 1월, 3월, 7월, 8월 등 4차례에 걸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부청이나 도청에 몰려가 식량 배급을 요구했던 ‘기민시위’가 있었다. 경북에서도 토지개혁 문제로 1946년 한 해 동안 1,552건의 소작쟁의가 발생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식량공출을 둘러싸고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다. 한편 전국노동조합평의회가 주도하여 9월총파업이 일어나자 대구에서는 9월 23일부터

약 300명의 첩보원을 파견하였다. 그는 매일 아침 10시 에봇트 소령에게 첩보사실을 보고했고, 에봇트는 이를 극동군사령부 윌로우비에게 보고했다. 김구 선생의 암살은 문봉재와 김성주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안두희가 선택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안두희가 구속되었을 때 옥바라지를 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고 9월 27일에는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가 결성됐다. 9월 29일부터는 부청과 도청으로 몰려가 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미군정은 경찰, 우익청년단, 대한노총을 동원해 파업본부를 진압하고 노동자 1,200여 명을 검거했으며, 이에 9월 30일에는 파업 기간 동안 대치해온 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의 대립이 시투 간판 철거 문제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대립은 10월 1일과 2일에는 대규모의 봉기로 나타났다.[381]

기민시위와 노동자 파업이 대구10월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946년 10월 1일, 아침부터 노동자 수천 명이 대구역과 대구공회당 인근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이하 시투)본부 사무실 주위에 집결하여 경찰 100여 명과 대치했다. 이 날 오전, 부녀자와 어린이 등 시민 1천여 명은 대구부청 앞에서 쌀을 달라며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도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했다. 당일 오후 1시경, 경찰당국이 30여 명의 경찰을 파견하여 시투 간부들과 군중 해산 문제를 협상하던 중 약 1만 5천 명으로 불어난 군중들이 경찰을 포위했다. 당일 오후 6시경에는 대구역 앞에서 경찰과 운수노동자들의 충돌이 일어나자 경찰이 발포하여 노동자가 사망했다. 10월 2일에는 오전 8시부터 대구역 앞에서 수천 명의 군중과 무장경찰이 대치했다. 또한 최무학 등 대구의전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시위대는 시신 한 구를 들것에 메고 전날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이라고 외치며 대구경찰서에 도착했다. 당일 오전 10시경 대구경찰서 앞에 학생과 교수, 노동자, 시민 1만 명이 모였다. 이에 권영석 제5관구 경찰청장과 미국인 경찰청장이 시위 군중을 해산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미군정 경찰부장 프레이저 소좌로부터 무력으로 시위 군중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성옥 대구경찰서장은 본정소학교(지금의 종로초등학교)로 철수했다. 시위대는 무장경찰 100여 명을 무장해제 시키고 일부는 대구경찰서로 들어가 유치장 문을 열고 수감자 100여 명을 석방했다. 학생대표단은 미군정을 상대로 “구금자 석방, 경찰의 무장해제, 대중 발포와 폭력 진압 중지”를 요구했고 미군정 측 담당자가 이를 수용하자 학교로 돌아갔다. 한편 최문식, 이재복은 시민들의 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했다. 당일 오후 미군의 명령을 받은 경찰 150명은 시투 본부에 모인 군중에게 발포했다. 그 결

381) 진실화해위원회,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2월), 1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과 민간인 17명과 경찰 4명이 사망했다. 이 무렵 대구 시내 도처에서 군중들이 봉기하여 지서를 점거했다. 일부 군중은 경찰을 살해하고 경찰·관리·부호의 집을 공격했고 한편에서는 관리·부호의 집에서 몰수한 식량과 재산을 빈민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오후 5시경 미군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시위를 진압했다. 대구의 시위가 미군정에 의해 진압되자 군중들은 화물차나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탈취해 경북 각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 농민들과 합세했다. 시위는 10월 1~2일에 달성군부터 시작해 2~3일 칠곡·고령, 3일 성주·김천, 4일 영주·영일 등 경북 19개 군으로 파급됐다. 경북의 시위는 10월 6일경에는 대부분 진압되었으나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 12월 중순까지 계속됐다.[382] 또한 이 사건은 경북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시위자 중 일부는 각 지역 산에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49년까지 각 지역에서 갈등과 폭력이 발생했다.

2. 민간인 희생사건과 기독교인들의 활동

1) 안강면의 사례

대구10월사건은 경상북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이 폭력은 좌우 양 진영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한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진영논리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동했다. 대구10월사건 당시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면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383] 1946년 11월 14일 「안강지역 폭동 보고서」에 따르면,

382) Ibid., 12-14; 정영진, 『폭풍의 10월』 (서울: 한길사, 1990); 정해구,『10월 인민항쟁연구』, 81, 105; 대구·경북역사연구회, 「역사속의 대구, 대구사람들」 (중심, 2001), 127; 참고인 김종길 진술녹취록 (2009년 2월 26일.); 참고인 김실 진술녹취록 (2009년 2월 26일); 참고인 김윤배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7일); 참고인 성기연 진술녹취록 (2008년 7월 23일); 참고인 안재구 진술녹취록 (2008년 1월 28일); 참고인 이일재 진술녹취록 (2008년 1월 4일); 참고인 정남기 진술녹취록 (2009년 2월 26일); 참고인 노승만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6일); 참고인 손규선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6일); 참고인 최홍주 진술녹취록 (2009년 3월 27일).

383)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주군 강서면으로 개칭, 1949년 안강읍으로 승격, 1955년 경주읍이 경주시로 승격 군 명칭을 월성군으로 하였다. 따라서 경주군 안강읍으로 표기하고 연대를 적시하기로 하겠다. 단 원문의 지역명은 그대로 표기하겠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0월 3일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주동자 약 20명이 우익의 집에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10월 6일 지원부대의 협조로 “좌익 주동자 약 70명을 체포했으나 지서장이 보증”을 서고 모두 석방시켰다. 또한 10월 9일에 철도경비대가 체포한 40명 중 35명을 10일 영천으로 이송했는데 폭동 주모자로 알려진 손위달이 영천에서 사망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측 담당관이 지서장을 면담한 결과, 지서장 채승은 유혈사태를 막고 경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좌익과 우익 양쪽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구금된 시위가담자 70명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우익진영의 이석, 김진수, 심응섭이 1946년 10월 29일에 “안강지서장이 폭도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주한미군 대구지방청에 고발하였다.[384]

지서장을 고소한 우익대표 중 김진수와 심응섭은 각각 안강제일교회 장로와 목사였다.[385] 이교회의 장로 이었던 심능양은 이승만의 직계조직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안강지부장이었고, 그의 아들 심의진은 국민회청년연맹 안강지부장이었다.[386] 특히 심의진은 대구10월사건 이후 주민들 중 좌익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체포하기도 하였다. 안강지역 주민인 손병윤, 손병환, 이인석, 한의석 등은 1946년 10월사건 당시 외지 경찰과 안강지서 경찰, 특경대, 서북청년회, 안강 국민회청년연맹(회장 심의진) 등의 단체가 서로 섞여 다니면서 안강 일대에서 10월사건 가담자들을 체포했다고 했다. 특경대와 마찬가지로 국민회 청년들도 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외지에서 지원 나온 경찰들을 안내하면서 좌익관련자들을 색출했다는 것이다.[387]

---

38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안강지역 폭동 보고서 Report of Angang Area Disturbances(1946.11.14.)」,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1945.9-1948.6)』 1권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5), 604-609; 진실화해위원회,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38-39. 심응섭 목사는 전쟁 직후 군목으로 있다가 1970년대 부산에서 목회를 하였다.

385) http://www.anjeil.or.kr/n_intro/intro04.php 2014년 4월 16일 접속. 안강제일교회는 1908년 설립되었다. 심능양 장로는 1933년 1월 15일, 김진수 장로는 1943년 8월 8일에 장립을 받았다. 연혁에 의하면, 심응섭은 1947년 1월에 안강제일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1948년 9월에 사임했다. 그러나 그는 1947년 1월 이전부터 목사로 재직했다.

386) 참고인 손병윤 진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참고인 손병환 진술조서 (2008년 12월 11일); 참고인 이인석 면담보고서 (2008년 12월 15일); 참고인 한의석 면담보고서 (2008년 12월15일)

387) 참고인 손병윤 진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참고인 손병환 진술조서 (2008년 12월 11일); 참고인 이인석 면담보고서 (2008년 12월 15일); 참고인 한의석 면담보고서 (2008년 12월15일; 진실화해위원회,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처럼 당시 가장 강력한 우익단체인 국민회장과 국민회청년연맹 회장이 모두 안강제일교회 출신이었다. 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채승 지서장에 의해 수습되었던 폭력사태는 심응섭과 김진수의 고발로 재발되었다. 안강의 10월 사건은 기독교인이 주축을 이룬 우익단체의 개입으로 크게 증폭되었고, 이는 이후 좌익과 우익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1949년에는 안강면에서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는 심능양 장로가 “1949년 5월 25일(양력 6월 22일 수요일-인용자) 삼일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 공산 폭도에게 수난을 당하여 큰 칼로 흉부를 찔려 숨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그는 안강면 “국민회의 책임자”이자 “대동청년단장”이라고 하였다. 또한 “심능양 장로의 둘째 아들 심의진”도 “안강면 대한청년단 단장”이라고 하였다.[388] 당시 1949년 6월 안강지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처형 직전에 심능양의 보증으로 풀려난 손병윤도 “심의진이 대한청년단 단장”과 “국민회 회장”이었으며, “서북청년단원들하고 빨갱이 잡으러 다녔다”고 하였다. 야산대가 심의진을 잡으려다 심만길을 살해했다고 한다.[389] 그런데 손병윤과 이인석에 의하면, 심능양이 살해되기 직전인 1949년 6월 안강면 육통리 능골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지서 경찰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희생자들을 체포한 사람은 심의진과 국민회 청년단원들이었다.[390]

육통리 학살 사건은 제4대국회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권택주 등 안강읍 주민 23명에 대한 신고서에는 1949년 6-7월경 안강읍 주민들이 군경에게 연행된 뒤 지서에 구금되었다가 안강읍 육통리 능골, 노당리(재말낭이) 산림, 강교리 산골, 두류리 저수지 제방 근처, 하곡동 산골에서 각각 집단학살 되었다고 했다. 또한 여기에는 10월사건 이후부터 전쟁 전까지 육통리 능골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희생된 231명의 신원이 기록되어 있다.[391] 1946

건(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38-39.

388) kcmma.org/board/bbs. 2013년 4월 5일 접속.

389) 참고인 손병윤 진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390) 참고인 손병윤 진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참고인 이인석 면담보고서 (2008년12월 15일). 이 사건은 안강면 소재지에서 큰 불이 난 직후 발생했다.

391) 월성군 안강읍 권택주(1901) 등 12명에 대한 신고서, (제4대국회, 『6-5 월성군 보고서』); 월성군 안강읍 이도연(여, 1934) 등 3명에 대한 신고서, (제4대국회, 『6-5 월성군 보고서』); 월성군 안강읍 최원택(1927) 등 3명에 대한 신고서, (제4대국회, 『6-5 월성군 보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년부터 육통리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안강면 주민들이 집단살해된 것이다. 심의진과 기독교 출신 국민회 청년단원들은 희생자들의 체포를 주도했다.

그렇다면 희생자들이 살해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육통리 학살현장에서 생존한 양월리 주민 이조우(1923년생)는 집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안강지서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조사내용은 야산대 "누구하고 소통했냐"라는 것이었다. 그는 남로당원도 아니고, 야산대와 소통한 적도 없고, 시위에 가담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람들을 패서 혐의를 입증했다. 그는 "무조건 때리는 거지 뭐. 엎어 놓고도 때리고 앉혀 놓고도 때리고 막. 무조건 때리지. 맞기는 많이 맞았어"라고 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진짜 빨갱이는 잡히지 않았고 "억울한 사람 많이 죽었어."라고 하였다. 그 증거로 육통리 능골 희생자 중 "중학교 학생들이 반이 넘었다"고 하였다.[392]

분류 기준은 산 사람과의 협력 여부였다. 이것으로 빨갱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었다. 즉 분류의 기준은 공산주의 적대를 내용으로 하는 냉전의 논리였다. 이 논리에 따라 안강지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이에 반대되는 진영 간의 적대가 형성되었다. 자유민주주의진영은 미군정, 경찰, 국민회와 국민회 청년연맹 안강지부, 서북청년회 그리고 대동청년단 및 대한청년단이었다. 반대진영은 조선공산당과 인민위원회로 추정되는 사람들, 야산대 그리고 여기에 이조우가 언급한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안강에서의 냉전의 논리는 애매한 입장에 있는 억울한 사람들조차 적으로 분류하는 진영의 논리가 작용했다. 이것은 억울한 사람 많이 죽었다는 이조우의 말과 희생자 중 중학생이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심의진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빨갱이를 색출했고, 그 과정에서 확실한 우리편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논리가 작동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냉전의 진영논리인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정책에 동조·연동 하였던 것이다.

안강면 국민회는 언제 조직되었는가? 국민회 경주지부는 1946년 3월말 결성되어 5월 15일 독립전취국민대회를 가졌다. 이어 5월 24일 '독립촉성

고서』); 월성군 안강읍 정인조(여, 1914) 등 3명에 대한 신고서, (제4대국회, 『6-5 월성군 보고서』); 월성군 안강읍 황명준(1915) 등에 대한 신고서, (제4대국회, 『6-13 월성·청도·성주·안동·금릉군 보고서』); 김상숙, "한국전쟁 전 대구경북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실태와 특징"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참조.

392) 참고인 이조우 진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경주군연맹’(대한독립촉성국민회경주청년연맹-인용자, 이하 경주국민회청년연맹)이 결성되었다.[393] 이 두 단체는 1946년 4월 26일 이승만의 경주방문 전후로 결성되었다.[394] 당시 경상북도 각 지역의 국민회 결성은 이승만의 남선순행의 일환으로 경북지역을 방문한 시기와 일치한다. 한편 경상북도엔 독촉중협 지부인 조선독립경북촉진회와 이 조직을 이어 받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있었다.[395] 이 단체의 각 지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96]

<표 3> 경상북도 각 지역 국민회·청년연맹 결성시기

결성시기	지부명칭
1946년 5월 11일	성주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1946년 4월 2일	칠곡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1946년 5월 6일 1946년 2월 현재	칠곡군 구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김천군 독립촉진회 존재
1946년 5월 5일	영천군 대한독립촉성영천청년총연맹 결성
1946년 5월 7일 5월 20일	경산군 하양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하양분회 교회예배당에서 결성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하양지부 독립전취국민대회 개최
1946년 3월 말 5월 15일	경주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경주군 독립전취국민대회 개최

393) 「대구시보」 (1946년 4월 23일, 4월 1일, 5월 18일, 5월 28일); 정해구, 『10월 인민항쟁연구』, 74.

394) 남선순행은 4월 17일 천안을 필두로 경주(4. 26), 순천(5.5), 목포(5,8), 정읍(6.3), 전주, 이리, 군산으로 이어졌다.

395)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경상북도사』 중권 (경북: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1983), 526-527. 조선독립경북촉진회는 1945년 11월 7일 대구 향교에서 결성되었다. 11월 16일 “기독교협회가 합류”했고, 28일 경북기독교장로회, 유학생동맹, 학생동맹경북본부, 영남 민보단, 대구불교청년회 등 각 단체 대표자 60명이 모여 민족통일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경상북도촉진회는 대한독립총성국민회 경상북도지부로 이어진다.

396) 「대구시보」 (1946년 5월 17일, 4월 30일); 「영남일보」 (1946년 5월 9일, 2월 8일, 3월 6일, 4월 30일); 「대구시보」 (1946년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교회 예배당에서 하양분회 결성식을 하였고, 5월 20일에는 국민회 경산지부의 독립전취국민대회가 열렸다; 「대구시보」 (1946년 4월 1일, 5월 18일, 5월 28일); 「영남일보」 (1946년 3월 27일); 6사단본부, G-2 Periodic Report, No. 64, 1945년 12월 21일; 「영남일보」 (1946년 5월 3일, 6월 9일); 봉화군 문화공보부실, 『봉화군지』 (봉화군청, 1978), 140; 「영남일보」 (1946년 5월 17일); 정해구, 『10월 인민항쟁연구』, 71-7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5월 24일	대한독립촉성경주청년연맹 결성
1946년 4월	영덕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1946년 12월 14일	안동군 조선독립안동촉진회 결성
1946년 5월 1일 6월 5일	상주군 함창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모동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1946년 초	봉화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존재
1946년 5월 7일	청송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경상북도 각 군의 국민회지부 결성 시기는 이승만이 경상북도를 방문한 4월 직후였다. 남선순행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 결집과 지역단위 국민회 조직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주의 경우 국민회경주청년연맹이 결성되었다. 경주군 안강면과 내동면 등 국민회청년연맹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이들은 미군정 및 경찰과 함께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다.

2) 영천군의 사례

1946년 6월 16일에 경북 경산군 와촌면 덕촌과 박사 두 교회에 부임한 박용묵은 1949년 10월 10일, “팔공산에 준동하는 공산도배 백여 명이 내려와서 백 호나 되는 농촌초가집 처마 짚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다 태우고 장정 38명을 무자비하게 악착한 방법으로 학살하고 20여 명을 중상을 입히고 모든 물건을 탈취하여 가지고 팔공산으로 도망가고 말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중 교인 김영달 영수가 희생되었다고 하였다.[397]

진실화해위원회도 이 사건을 조사하였다. 박용묵의 주장과 달리 사건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희생사건」 결정서에 의하면, “팔공산 아래 마을인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주민 도달권이 팔공산에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유격대에 잡혀 와촌면 박사리 주민이라 하였고 이후 풀려나 와촌지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10월 15일 대대적인 토벌이 실시되어 유격대 78명이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되었는데 11월 29

397) 박용묵, 『질그릇에 보화』 (신애사, 1978), 42, 46-47; 박용묵, 『신애보』 (신애사, 1973), 13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일 밤 유격대원 60여명이 박사리에 대해 보복을 실시하여 가옥 105채를 불사르고 주민 38명을 학살하였다.” 는 것이다.[398] 김영수 영수가 살해된 박사리 사건은 군경이 야산대와 지역 주민들을 집단 살해한 직후 발생한 야산대의 보복조치이었다. 경산지역은 10월사건 이후 야산대를 축으로 한 좌익과 군경토벌대·우익청년단을 축으로 하는 우익진영으로 분리되어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박사리 사건은 이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경산과 이웃한 영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진영과 좌익진영으로 양분되었다. 정확하게 한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양 진영으로부터 적으로 분류되었다. 양하우(梁夏雨, 白痲)와 그 교인들 사건은 그 전형을 보여준다. 양하우가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여 1964년에 간행한 『은총에 포로 된 나의 투쟁』은 대구10월사건 직후 경상북도 영천군 일대의 사건을 담고 있다. 1947년 12월 13일 경상북도 영천군 자양면에서 한 노인이 이승만 박사의 사진을 사달라는 청년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청년들은 “노친의 턱수염을 잡아들고 치기를 시작했다.”[399] 이를 본 양하우와 가족들이 청년들을 말리자, “장작깨비고 뭐고 손에 닥치는 대로 쥐고” 가족들을 “때려눕히기 시작하였다. 식구들은 순간에 붓고, 절고 병신처럼 되었다고 한다. 또한 다음 날 그들은 양하우와 교인들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영천에서 파견된 서북청년단원들이 '청년단 사무소'로 남녀신도들을 소집했다. 서북청년단원들은 미리 준비한 참나무 몽둥이로 양하우와 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팼고, 양하우는 의식을 잃었다. 이들은 양하우와 교인들을 영천경찰서로 넘겼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타와 취조를 당했다.[400]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1946년 10월부터 이듬해인 1947년 봄까지 3~4개월 동안 화북면 등 영천에서 충남경찰부대의 진압과정에 민간인이 다수가 살해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는 별도로 이 지역에 들어온 서북청년회원과 현

398)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2월), 13.

399) 양백마, 『은총에 포로 된 나의 투쟁』 (1964), 101. 양백마(梁白痲)의 다른 이름은 梁夏雨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2003), 263. 서북청년회는 1947년부터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후 대다수가 경찰이나 경비대로 투입되었다.

400) 양백마, 『은총에 포로 된 나의 투쟁』, 10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지 우익단체 청년단원들이 봉기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산간지역 마을 주민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고 하였다.[401] 영천지역에 서북청년회원들의 폭력행사를 확인해 준 것이다. 양하우와 교인들이 겪은 폭력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청과 경찰의 폭력의 성격이었다. 그것은 태극기 판매와 배례를 부정하면 빨갱이로 단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에서 출발했다.

해방 직후 영천에서 청년단 활동하던 중 대구10월사건 당시 예비경찰로 참전한 박영기는 "'수레 차' 자, '고를 균' 자, '심을 식', 車均植"을 영천경찰서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서북청년단과 우익청년단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경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402] 차균식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 경찰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차균식은 평안북도 출신으로 기독교인이었다.[403] 영천경찰서장은 냉전의 진영논리를 따라 치안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양하우에 의하면, 1948년 2월 7-8일 경북 영일군 죽장면 입암동(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의 손해도(孫海道) 집사는 국기배례가 일제의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와 유사한 점[404]을 들어 "국기 문제로서 인권 유린하는 데가

401). 김용만 통화보고서 (2009년 2월 16일);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9월 25일), 10. 서북청년회를 벼락부대라고도 했다고 한다.

402) 박영기 구술녹취 (2011년 11월 19일). 그는 해방 직후 서북청년회, 대한청년단원들이 각 지역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경찰관이 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403) 1949년 현재 49세인 그는 영천에 거주했고, 1947년부터 영천경찰서, 왜관경찰서, 봉화경찰서 서장을 역임하였다; 「시대일보」 1926년 2월 2일. 차균식은 1926년 평안북도 선천 신성학교내 학생 기독교 청년회 총회에서 체육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양백마, 『은총에 포로 된 나의 투쟁』, 101-102; 국사편찬위원회, "車均植," 「민국인사」 (1949년), 167; 「남선경제신문」 (1950년 3월 23일, 3월 20일); http://www.gbpolice.go.kr/yc/intro. 2014년 3월 15일 접속. 또한 양하우는 그로부터 "평양 山臺峴教會長老"라는 소릴 들었다고 하였다. 장대현교회와 산정현교회 중 하나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차균식은 두 교회 중 한 곳의 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04) 이와 유사한 사건이 경상남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발생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 「國旗拜禮問題에 對하야 그리스도敎의 立場을 闡明함」 (1949년 5월), 4; 「敬愛하는 李 大統領閣下」 (1950년 3월) 일부 기독교는 국기배례의 반대했다. 1949년 5월 5일, 경기도 학무국은 "國旗 拜禮 거부한 경기도 파주군 奉日川국민학교생 42명 퇴학처분"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 구세군본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전국YMCA연합회, 전국YWCA연합회, 조선기독교서회, 조선성서공회, 기독교청년전국연합회, 기독교신민회로 조직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봉일천초등학교 학생 42명을 경기도 학무국이 퇴학 처분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 단체는 "국기 자체가 우상인 것도 아니오 국가가 우상인 것도 아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어디 있는가?" 라며 입암지서 주임에게 항의하였다. 그 결과 청년단에게 체포되어 지서에서 구타를 당해 빈사 상태에 빠져 가족이 대소변을 받았다. 이에 항의 한 양하우와 교인들은 이후 다시 영천경찰서에 구금되어 마찬가지의 구타를 당했다. 그런데 당시 양하우는 "서청의 활약은 아주 맹활약" 이었다고 하면서 매일 교인들을 청년단 사무실로 불러내어 "풀뽈 차듯이 하였다." 고 했다.[405]

양하우와 자양교회 교인, 그리고 입암동의 교인들은 서북청년단 등 우익청년단들에게 좌익으로 분류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사례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당시 분류의 기준은 이승만 사진과 태극기에 배례였다. 이승만의 사진을 사지 않거나 태극기에 배례하지 않을 경우 적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경직된 이원론이 대구10월사건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서북청년 출신인 영천경찰서장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진영의 논리에 따라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3) 내동면의 사례

대구10월사건 당시 안강읍의 사례는 기독교인 국민회원들이 야산대와 협력한 민간인들을 색출, 분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경주 내동면 기독교인 출신 국민회원들의 사례는 교인들이 냉전의 진영논리를 어떻게 기독교의 틀에서 신념화 했는지를 보여준다. 내동면 구정교회 최성근 장로는 1978년

니나 국가 '至上', 민족 '至上' 이라하여 국가나 민족을 절대화하는 때에는 그 국가나 민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니 만치 '우상' 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표징인 '국기' 는 偶像的인 표징이오, 이에 拜禮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로서의 偶像崇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기에 대해 절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拜禮가 아닌 注目으로 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하였다. 같은 해인 1949년 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국기에 대한 배례를 폐지하고 주목으로 할 것을 결의한 후, 「敬愛하는 李 大統領閣下」 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청원하였다.

405) 양백마, 『은총에 포로 된 나의 투쟁』, 102-1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2003), 148. 입암리는 영일군에 속해 있었으나 이곳에서 사상관계로 체포된 주민들은 영천경찰서소 이송되었다. 옆에 위치한 자양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자양교회 교인과 입암교회 교인들이 영천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월 27일, 구정교회 목사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1945년 초겨울(음력-인용자) 엄요섭 목사를 교회에서 초청하여 교회당에서 시국강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좌익파를 막론하고 수많은 청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 강연을 마친 후 최현순 장로 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지방의 유지인 황재식, 박상원, 손만룡, 김명룡, 이강우 등 20여 명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엄요섭씨도 참석하여 이들에게 좌익의 행동이 심상치 않으니 좌익에 대항하는 단체를 만들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국민회'를 조직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전준씨 집(구 침례교회당 건물:현 내동지서 맞은편)에 간판을 달고서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406]

기청전국연합회의 순회강연 일환으로 열린 구정교회 집회와 이 단체의 임원인 엄요섭의 권고가 내동면 국민회 조직으로 이어졌다. 한편 구정교회 최성근 장로는 “해방되던 해 가을 주재소 건물(현 내동지서)에 인민위원회란 간판”이 붙었다고 하면서 “이 동네 거주하는 최병호라는 인물이 위원장”이었다고 하였다. 당시 구정교회 담임자인 “이여진 목사님께서 '인민'이라는 말은 좌익, 즉 공산당이 쓰는 용어”로 “공산당은 교회와는 적이라 하시면서 이 지역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기독교청년회였다. 그는 해방 직후 내동면 우익진영은 구정교회 교인 밖에 없었고, “교인 외에는 대부분이 좌익이라고” 하였다.[407] 이승만에 대한 동경도 국민회를 조직하게 된 동기였다. 『구정교회60년사』에는 1946년 4월 26일 이승만과 이기붕·경주 국민회 당원들과 함께 경주 불국사에서 촬영한 사진이 실려 있다.[408] 해방 직후의 구정교회와 국민회 그리고 이승만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10월사건 이전부터 내동면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냉전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동면 기독교인들은 냉전의 논리에 동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신앙의 틀

406) 구정교회, 『구정교회60년사』 (경북 경주: 구정교회, 1984), 111.
407) 구정교회, 『구정교회60년사』, 110-111. 여기서 언급된 “기독교청년회”는 엄요섭 목사 방문 후 조직된 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구정지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408) Ibid.』, 사진.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안에서 신념화화 했다.

대구10월사건 당시 내동면 국민회 임원이면서 구정교회 교인은 국민회 회장 최현순(崔鉉淳) 장로, 부회장 이춘증 목사[409], 총무 박상원(朴相原), 조직부장 김건(金健), 선전부장 황창운(黃昌運)이었다.[410] 또한 국민회의 절반 이상이 구정교회 교인들이었다. 내동면 국민회는 강력한 사상전을 전개하면서 천부, 안강, 외동면, 내남 등지의 국민회 결성을 지원했다. 또한 내남청년회장 이협우(제헌국회의원-인용자)가 "청년회의 조직, 빨갱이와 싸우는 전술에 대해 문의"하여 이를 지원했다.[411] 1946년 10월 5-6일, 이들의 사상전은 폭력화 되었다.

> 이 사건을 구정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뚜렷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해방직후부터 이 지역 우익진영은 본 교회 청년회와 교역자들에 의해 구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이 지역의 치안유지가 이루어졌다. 둘째 본 교회 청년들이 이 지역의 대규모 좌익진영의 세력들을 직접 진압하여 좌익세력의 근거를 분쇄시켰다. 셋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이 좌익세력들과의 대립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412]

대구10월사건 당시 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된 우익진영이 좌익진영의 폭동을 진압했다. 내동면에서 10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교회청년들은 최현순 장로 집에 모여 대책을 상의했다. 이 회의는 여운형 계열의 최병호는 우익청년단과 교인들에게 협상을 전제로 한 면담을 요청한 직후 열렸다. 백일출 등 몇 명의 교인들은 "좌익계 최병호(좌익계 두목)의 면담" 요청이 있으니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교인들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서 싸우자"하였다.[413] 이로 인해 최병호와 주민들의 협상시도는 무산되었고, 마을은 폭력에 휩싸였다.

1946년 10월 6일 경구정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된 47명의 결사대는 사제 수류탄, 대창, 몽둥이, 엽총 등으로 무장했다. 이들은 소요를 일으킨 주민

409) 이춘증은 1946년 12월에 부임하였고, 10월사건 당시 담임 목사는 이여진이었다.
410) 구정교회, 『구정교회60년사』, 131.
411) Ibid., 116.
412) Ibid., 102-103.
413) Ibid., 14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3,000명과 맞서 난투극을 벌였다.[414] 김병식은 쇠스랑에 머리를 맞았고, 우병준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제 수류탄을 잘못 사용하여 손을 날렸다.당시 그는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죽은 시체가 수두룩하였다.”라고 하였다.[415] 내동지서 소속 경찰과 미군은 국민회와 구정교회교인들을 지원했다. 이종원 지서주임과 경찰은 새벽 2시경과 4시경 사격을 가해 폭도들의 재집결을 차단했다.[416] 또한 미군도 지프자 2대를 동원하여 회영못 연려각 부근에서 수십 발의 기관포 공포를 쏘았다.[417] 다음날 아침 충청도 응원 경찰부대가 좌익 색출을 시작했다.[418] 당시 이 싸움을 주도한 사람들은 최현순 장로 등 구정교회 교인들이었다. 47명의 결사대 중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은 5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419]

1946년 10월 사건 발생 직후부터 1950년 6·25 전쟁 전까지 교회청년들은 마을의 치안과 경계를 담당했는데 이는 “빨갱이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구정교회교인들이 중심이 된 국민회는 경찰과 협력하면서 내동면의 치안을 유지했다. 이들은 “잠이 오면 책상 위에서 구부러져 잤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잠을 잤을 정도였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신을 벗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을 경계는 “2명씩 10분간 보초를 서다가 옆으로 이동하여 한 바퀴를” 도는 방식이었다. 자금조달은 내동면의 “부자명단을 작성하여 능력에 따라 100원, 60원, 50원, 30원식 배당을 하여 모금”했고, “그때 감히 돈을 내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한다.[420] 밀그램의 말처럼 이들은 극단적 자발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극단적인 자발성은 냉전의 논

414) Ibid., 112, 153. 6자 길이의 죽창 60개를 제작했다.
415) Ibid., 112-114, 156. 그러나 본문에서 우익청년단의 피해상황을 일일이 나열하였지만, 이 중 희생자는 없었다. 순교 관련 기독교 서적, 그리고 다른 자료에도 이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416) Ibid., 114.
417) Ibid., 156.
418) Ibid., 114.
419) Ibid., 115, 131-133. 10·1동지 중 교인은 최현순 박상원 최성근 황창운 황경운 우병준 이윤우 김건 강정학 백광진 박영태 최성옥 김병식 양승원 이학도 김소택 김망복 김수식 김제식 최경도 유수진 김청원 최선도 최영내 백일출이다. 당시 내동면 회관에 모인 사람은 최현순 이강우 박상원 황창운 황경운 이윤우 백일춘 백광진 최성근 최성옥 김수식 김제식 김영준 김병식 우병준 우도범 박영태 서동준 최건탁 손마룡 김봉식 황운이 황윤범 황대운 황덕운 김영호 김영진 최상복 유수진 김망복 이학도 최해봉 유재수 김소택 김청원 한갑수 최경도 최선도 양승원 장영봉 조길수 최영내이다.
420) Ibid., 115-11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리를 기독교 틀에서 신념화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자발성은 민간인학살 가담으로 이어진다.

구정교회 교인 황창운은 “최병호는 대구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형을 받고 출감 후(당시 미군정 하)에 내동지서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에게 작은 호의를 베푼 후 영지에 가서 사형을 처했습니다.”고 하였다.[421] 이를 통해 황창운 등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국민회가 최병호의 처형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좌익진영의 “두목”이라는 불분명한 직함을 갖고 있는 최병호(崔炳鎬)는 당시 내동면 주민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주의 부호로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해방 직후부터는 여운형 쪽에 자금을 대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10월사건 직후 구속되었다. 그는 출감 후인 1948년 4월 14일 지서에서 호출하여 갔다가 불국사 인근에서 여러 명과 함께 사살되었다.”고 했다.[422] 당시 최병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처형되었다. 황창운의 말대로라면, 이 처형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국민회와 관계되어 있었다.

이후 내동에서는 계속해서 경찰과 군인에 의한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했다. 1948년 4월 1일(음력 2월 22일) 내동면 남산동 손장호는 빨치산 활동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국군과 경찰에게 연행된 후 희생되다.[423] 그는 “내동지서에 연행된 후 지서 옆 하천에서 마을사람 박연수, 손씨(명 불상)과 함께 부산에서 왔다는 토벌국군 제5연대에 의해 총살되었다.”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 6명이 집에 찾아와 ‘억울하게 죽은 면이 있는데, 복수를 계획하면 집안에 해가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4개월 후 대한독립촉성국민회원과 경찰 1명이 와서 집을 태우고 양곡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424]

---

421) Ibid., 115.

422) 진실화해위원회,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2009년 12월), 39, 67-68, 90; 참고인 최영자 통화보고 (2008년 11월 4일, 11월 11일); 경주경찰서,『신원기록편람』(1980)에 “10월사건 관련 처형”된 자로 기록되었고, 최병호의 딸 최영자는 아버지가 처형되었다고 하였다.

423) 진실화해위원회,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6월 29일), 3.

424) 손중락 진술조서 (2008년 3월 25일); 손홍락 전화진술 (2008년 10월 7일); 임홍순 면담보고 (2010년 2월 20일): 진실화해위원회,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10년 6월), 27-28, 8, 16-17에서 재인용. 부친 손장호는 1948년경 청년단 단원(보급품 지급)으로 5개월간 주야 근무를 하던 중 1948년 4월 1일(음력 2월 22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또한 1949년 7월 26일 내동지서 경찰 5-6명에게 체포된 황용리 김원식, 김원대은 3-4일 뒤 신평 야산에서 총살당했다. 이들이 연행된 이유는 집에 들어 온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한 것 때문이었다.[425]

최성근 장로에 의하면, 교인들이 다수였던 내동면 국민회는 1950년 전쟁 전까지 마을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했고, 이들은 "빨갱이를 잡기 위해" 활동하였다.[426] 안강의 경우처럼 국민회는 경찰 및 토벌 나온 군인과 함께 이른바 "빨갱이"를 잡으러 다녔다. 그 결과 최병호와 내동면 주민들, 손장호, 박연수, 손씨, 김원식, 김원대, 이수하 등이 지속적으로 경찰과 군인들에게 희생되었다. 그러나 위에 드러난 사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427] 이들은 야산대에게 식량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희생되었다. 지서에는 7명 내외의 경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면 전체의 치안을 감당하지 못했다. 국민회청년연맹,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등이 경찰을 도와 치안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동향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안강의 경우처럼 국민회 청년단들은 공산주의자나 산사람을 도와준 이른바 빨갱이들을 찾아내고 이를 경찰과 함께 체포했던 것이다.

국민회 회원들이 색출한 빨갱이는 누구인가? 구정교회는 빨갱이가 인민위원회 소속인지, 민청인지, 남로당원인지, 야산대인지, 인민당 소속인지, 마을 주민인지, 야산대의 가족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희생자의 신원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최병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소속과 직위는 "좌익계의 두목"이었다. 또한 그는 인근지역에서 일련의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회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는 최문식과 마찬가지로 여운형 계열이었다. 여운형 계열은 총파업과 추수투쟁을 좌우합작위원회가 입법

새벽1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새벽 4시경 허위 투서에 의해 내동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425) 김재호 진술조서, (2008년 3월 26일); 면담진술, (2009년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10년 6월), 14, 51에서 재인용. 효현동 이수익, 박용만, 최행식, 이원석 등 4명은 1949년 7월 25일 내남면 백운대 산골짜기에서 총살되었다. 내동면사무소 호적계에 근무하던 이수하는 내동지서에 연행되었다가 1950년 7월 26일 경주시 천군동 연못 안에서 희생되었다.

426) 구정교회, 『구정교회60년사』, 115.

427)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한 사건을 위주로 조사했다. 서산의 경우 17건이 신청되었지만 희생자는 1865명이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극히 일부만 신청하였고, 신청사건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기구를 구성한 이후로 연기할 것과 미군정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폭력시위를 반대하고 평화적 시위를 할 것을 박헌영에게 요구했다. 최문식이 시위자들과 경찰들 양측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상황을 수습하려했듯이 최병호도 국민회에게 면담을 통해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회는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냉전의 논리를 따라 행동했다.

최성근은 자신이 경험한 10월 사건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428] 또한 최영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을 10·1 대구폭동 사건을 통해 어린 나에게, 그리고 47명의 기독청년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구정마을을 지켜 주셨고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구정교회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였다.[429] 구정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정의의 하나님의 편으로, 시위에 가담한 공산주의자와 다수의 주민들을 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내동면 10월 사건은 하나님의 편에 선 기독교인이 붉은 무리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냉전의 진영논리를 기독교의 선악의 논리로 신학화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대구10월사건 진압을 지휘한 조병옥 경무부장에게도 나타났다.

3. 조병옥의 진압정책과 기독교인들의 진영선택

1) 조병옥의 진압정책

대구10월사건은 공산주의 적대와 미 제국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 즉 경직된 이원론이 현실화되는 과정이었다. 하지와 이승만의 국민회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조선공산당 간의 상호 적대는 대구10월사건을 관통했다. 기독교인들은 독립촉성국민회를 비롯한 우익진영에 속하면서 그 논리와 정책에 따라 행동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능동적으로 동조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428) 구정교회, 『구정교회60년사』 115.
429) Ibid., 136-13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하는 미군정과 관료를 통해 나타났다. 당시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 대구에 도착한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은 "폭동에 가담했던 폭도들은 모조리 체포·구속하고 주모자는 즉결처분해버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모자와 가담자들이 연행, 고문, 즉결처분되었다. 경부부 고문 매글린 대령이 "민주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으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하고 장택상에게 항의할 정도였다.[430]

경무부 부장 조병옥도 마찬가지였다. 대구10월사건 당시 그는 "경무부 고문 맥클린 대령을 대동하고 폭도발생 지인 대구로 항하여 그곳에 4, 5일 체재"하였다. 그는 맥클린 대령이 시민들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찰을 체포하려고 할 때, "보복행위를 한 경찰관은 대구 폭동진압 후에 내가 책임을 지고 체포하여 의법 처단할 것이니 지금 그런 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면 "폭동진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경찰관체포명령을 막았다고 했다.[431]

조병옥이 강경진압을 밀어붙인 이유는 1948년 4월 『民族 運命의 岐路』에서 확인된다. 그는 대구10월사건에 대해 "재작년 시월 영남을 중심으로 경향각지에 봉기된 야만적 폭동은 일시적이나마 우리 독립에 적지 않은 암영(暗影)과 지장을 갖어 왔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는 "독립을 지연 혹은 불가능하게 하여 모국의 일연방(一聯邦)으로 만들랴한 매국적 공산계열의 모략적 파괴행위임이 판명"되었다고 하였다.[432] 그는 대구10월사건을 공산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이 행위는 소련의 부속국가가 되기 위한 폭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10월 사건이 발생한 당시인 1946년 10월 7일에 "대구소요사태의 경위"와 10월 15일에 "소요사건 진상과 수습방안" 그리고 10월 30일에 "소요 수습책과 경찰행정쇄신"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433] 특히 10월 30일에 발표된 "소요 수습책과 경찰행정쇄신"에서 그는 이 사건의 원인을 "조선민족의 본위를 이탈하고

430) 강원룡, 『빈들에서』1, 212. 강원룡은 미군정장관의 지시로 10월사건을 조사했다.
431) 조병옥, 『나의 回顧錄』 (서울: 民教社,1959), 171-172.
432) 조병옥, "國際聯合朝鮮委員會를 맞이하야," 『民族 運命의 岐路』, 19.
433)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1946년 10월 8일);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6년 10월 16일);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6년 10월 31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려는 도배들이 엄청난 기만적 선전”에 의한 것으로 이에 “순진하고 무지한 일반 대중”이 결합된 것이라고 하였다. 10월 사건을 “악도배”의 “잔인무도한 소행”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주모자 선동자 및 중대한 직접 범죄자의 형사범은 물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434]

그가 언급한 “악도배”는 공산주의자는 물론 중간파 그리고 일제출신 경찰의 탄압에 반대하거나 추수투쟁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었다. 그는 대구10월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와 이에 동조하는 주민들에 의한 폭동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악도배”로 규정했다. 이것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하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즉 공산주의자 검거와 강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공산주의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중간파를 흡수한 입법기구를 구성한다는 미군정의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군정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용서 없이 체포 처벌하겠다는 하지의 발언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대구10월사건에 대한 조병옥과 장택상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좌우합작위원회는 강경진압과 진압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을 보호한 점을 문제 삼아 조병옥을 파면할 것을 주장했다. 대구 10월사건 조사원이었던 강원룡은 10월 26일 미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와 한미공동회담을 열어 이 사건의 수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합작위는 군정청에 일제 잔재 청산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조병옥 경무부장의 인책파면을 요구”했다고 한다.[435] 그런데 당시 경무부 고문인 맥클린 대령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일제하 한국인 경찰 8천명 가운데 5천 명이 미군정 경무부에 의해 재임용되었으며 그들이 경찰의 핵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대구 10월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친일경찰의 잔혹행위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좌우 합작위원회는 11월 25일 “조병옥과 장택상의 해임을 건의”하는 편지를 미군정에게 제출하였고, 김규식은 “대구사태에 대한 책임은 특히 조병옥에게 있다고 지적”하였다.[436] 이에 대해 “로마넨

434) 「조선일보」, 「서울신문」 (1946년 10월 31일).
435) 강원룡, 『빈들에서』 1, 212.
436) RG 338 「주한미군사령부, 하지장군 문서철」 Records of the U.S. Army Field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꼬가 메레츠꼬브 동지와 쉬띄꼬브 동지에게 보낸 남조선 정세에 대한 정보자료”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437] 주한미군 CIC는 “1946년 12월 21일, 조미공동회의에서 조병옥, 장택상의 해임안을 투표. 황진남이 투표결과를 보고”하였다고 했다.[438] 그러나 조병옥과 장택상이 쫓겨나지 않은 것은 순전히 하지(John R. Hodge)의 명령 때문이었다.[439]

앞에서 확인되었듯이 조병옥은 대구10월사건을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한 세력, 즉 악도배의 폭동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보복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폭도들을 진압한다는 진압지침을 지시했다. 이러한 진압지침은 공산주의진영과 자유민주주의진영이라는 진영구분과 공산주의 적대를 기조로 하는 진영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경무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그의 정치적 행보는 공산주의적대, 중간파배제, 자유민주주의진영 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하지와 아놀드에게 인민공화국 불법화와 인민위원회 해체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하지는 1945년 12월 12일에 조선인민공화국 해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하지에게 진언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과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을 해체시켰다고 한다. 반면 서북청년회를 해산시키라는 아놀드와 러치 군정장관의 지시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북청년회와 같은 반공단체를 해체하면 “독립경찰로서만으로는 남한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고, “한민족의 자유 독립을 완성하

Commands, 1940~1952, RG 338, Entry 11071, 11070, U.S. Army Forces in Korea File and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1948 Box No.3 General Hodge의 각종 Conference.

437) “로마넨꼬가 메레츠꼬브 동지와 쉬띄꼬브 동지에게 보낸 남조선 정세에 대한 정보자료, (나) 미 군정청의 행동,”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Ⅳ.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1, 문서철 10, 2. (『해외사료총서』 6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438) RG 332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W Ⅱ, U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No.25 History of Police Department(incl. Source Material, Drafts,+Notes)

439) RG 332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W Ⅱ, US Army Forces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No.27 Police History : Notes+ Early Drafts(3 of 9) Brown과 국립경찰 Inspector와의 인터뷰, 1947년 3월 2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기 위한 준비기관인 미군정의 본래의 임무와 사명에 어긋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요청에 따라 하지는 “서북청년회의 해체를 중지”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京電勞組事件, 龍山鐵道事件, 印刷勞組事件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전평을 해체”시키고 “민족진영의 노동단체”인 “대한노총을 육성”시켰다고 하였다.[440] 그의 공산주의 배제 정책은 중간파 배제로 확대되었다. 즉 “통일 독립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더욱이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이 혈투하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간로선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441] 그는 대구10월사건에 이러한 논리를 진압지침으로 그대로 적용했다. 그에게 시위대는 모두 공산주의자와 선동에 넘어간 폭도들이었다. 조병옥은 공산주의진영을 사탄의 진영이라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제거해야할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였다.[442] 이러한 시각은 공산주의진영과 자유민주주의진영만이 존재한다는 경직된 이원론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이러한 진압지침은 대구10월사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기민시위(饑民示威)와 친일경찰의 잔혹행위에 반대하는 시민들 시위를 악도배의 기만적 선전과 이에 동조한 대중의 폭동으로 판단했다. 즉 대구10월사건을 공산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이 행위는 소련의 부속국가가 되기 위한 폭동이라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중간파 배제, 시위와 진압, 폭도와 건국세력, 좌익과 우익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즉 대구10월사건은 상호 적대적 진영을 현실화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경직된 이원론에 근거한 적대적 진영이 해방정국을 주도하게 된다.

2) 좌우양극화와 기독교인들의 진영선택

대구10월사건에 나타난 논리는 공산주의 적대와 제국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였다. 당시 미군정은 공산주의 적대 정책에 근거하여 우익을 중심으로 하고 중간파를 흡수한 입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남한만의 단독

440) 조병옥, 『나의 回顧錄』, 154-157.
441) Ibid., 186-188.
442) 조병옥,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 『民族 運命의 岐路』, 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좌우합작을 주도한 인민당의 여운형은 입법기구를 토대로 남한의 좌우합작과 남북합작을 이루고,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상호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미군정과 이승만이 조선공산당을 배제하고 우파중심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박헌영은 미제국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신전술을 발표하고 추수투쟁과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으로 미군정에 맞서기로 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박헌영, 여운형의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구10월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냉전의 진영논리가 공고하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선공산당과 미군정 간의 충돌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미군정 및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좌익진영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한은 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즉 대구10월사건은 상호적대라는 냉전의 진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정과 경무부는 공산주의 적대에 기초해 시위자들을 강경 진압했고, 조선공산당은 폭력으로 맞섰다. 이 사건을 지배한 것은 냉전의 진영논리였다. 그런데 이 논리의 특징인 두 개의 삶의 방식 중에 한 곳을 선택하지 않은 여운형 · 김규식 · 최문식 · 최병호 등 중간파는 배제 · 제거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기민시위와 친일경찰의 잔혹행위에 대한 반경활동은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경주, 영천 등 이 지역 일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 조병옥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진영의 논리에 동조하고 연동했다. 이러한 동조와 연동은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그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일부교회들이 주장하는 신앙논리였다. 이들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를 기독교라는 틀에서 신념화 하였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악도배로 규정하고 자신이 속한 진영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선한 집단으로 판단하는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즉 대구10월사건은 일부기독교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선택하면서 그 진영의 논리에 따라 연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Ⅳ. 여순사건과 기독교인의 활동

먼저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고 이 사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그들의 종교적 논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수, 순천, 구례, 보성·고흥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을 개괄한 후 순천지역 사건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과를 검토할 것이다. 즉결 처형을 적시한 계엄령, 반군 협력 혐의자 색출과 분류 논리, 그리고 민간인처형의 지휘명령체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지,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논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반군 협력자 색출과 분류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전개와 분류 기준

1) 사건의 전개

1948년 10월 19일, 14연대 반란사건으로 촉발된 여수순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은 순천, 여수, 구례, 보성·고흥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으로 살해된 민간인 중 신원이 확인한 희생자의 수는 최소 3,2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443] 10월 20일, 임시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 사무실에서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범석,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 로버츠 준장, 국방부 고문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usman) 대위 등은 회의를 갖고 광주에 토벌군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444] 이에 따라 육군 총사령부는 1948년 10월 21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사령관 송호성 준장)를 설치하고, 국군 제2여단(원용덕 대령)과 제5여단(김백일 중령)을

443)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순천 439명·보성고흥 89명·구례 165명·여수 125명으로 총 818명이었다. 여기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포함하면 순천 약 2000여 명, 보성고흥 300-400명, 구례 800명으로 3100-3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여수, 완도 등지의 희생자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 총수는 최소 32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444) 노영기, “여순사건과 육군의 변화,” 「전남사학」 제22집 (2004), 26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예하에 두었다.[445] 이후 토벌군 조직은 아래와 같다.

<표 4> 시기별 토벌사령부

시기	토벌사령부 명칭	사령관	예하부대	사령관
1948. 10. 21 이후	반군토벌사령부	송호성	2여단	원용덕 대령
			5여단	김백일 중령
1948. 10. 30 이후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원용덕 대령	북지구전투사령부	원용덕 대령
			남지구전투사령부	김백일 중령
1949. 3. 1. 이후	호남지구전투사령부	원용덕 준장		원용덕 준장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정일권 준장		정일권 준장

먼저 순천지역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재수 외 438명은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시내, 승주읍 … 등 순천시 일대에서 국군 제2연대(1·2대대)·제3연대(1·2·3대대)·제4(20)연대(1·2대대)·제12연대(1·2·3대대)·제15연대(1·2·3대대) 소속 부대원, 그리고 순천경찰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사살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중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와 희생 추정자는 각각 433명과 5명이었다. 또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주민을 포함한 희생자는 약 2,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제2연대는 1대대·2대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순천 진압작전부터 1949년 초까지 순천시내 민간인을 연행, 북국민학교·순천농림중학교에서 고문 및

445)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군사처, 『육군1.2.년사(초안)』 (1969), 203. 반군토벌사령부의 구성과 주요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전투사령관 육군준장 宋虎聲, 제2여단장 육군대령 元容德, 제5여단장 육군중령 金白一, 비행대장 육군대위 金貞烈, 수색대장 육군대위 姜玼遠(장갑차). 작전부대로는 제4연대 3개 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李成佳, 제3연대 2개 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咸俊鎬, 제6연대 1개 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金鍾甲, 제15연대 1개 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崔楠根, 제12연대 3개 대대 연대장 육군중령 白仁基.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1945~1950.6)』제1권(1967), 459-460; 주한임시군사고문단 장교는 하우스만(Houseman : 국방부 작전고문), 리드 대위(Reed : 국방부 정보고문), 트리드웰 대위(Treadwell : 전 제5여단 고문), 프레 대위(Frye : 제5여단 고문)였고, 국군참모는 채병덕 대령(국방부 총참모장), 정일권 대령(육군 참모장), 백선엽 중령(육군 정보국장), 고정훈 중위(육군 정보국 장교) 등이었다. G-3 Section, X X IV Corps, 1948.11.10.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14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39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취조한 후, 북국민학교 · 순천농림중학교 건물 뒤편에서 집단 사살했다." 제2연대의 지휘 · 명령 계통은 "반군토벌전투사령부(사령관 송호성 준장) → 제2여단장(원용덕 대령) → 제2연대장 → 제1대대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군 제3연대 1대대와 2대대는 순천진압작전 이후 1949년 초까지 순천농림중학교와 순천철도국에 주둔하면서 순천거주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살하거나, 연행하여 고문 및 취조한 후, 북국민학교, 순천역, 낙안면 … 등지에서 위법적으로 사살했다. 이 연대의 지휘 · 명령계통은 "반군토벌전투사령부 → 제5여단장(김백일 중령) → 제3연대장 → 제1대대장 · 제2대대장 · 제3대대장"이었다. 국군 제4(20)연대는 순천진압작전과 1949년 토벌작전 과정에서 순천시 남국민학교와 풍덕동 옛 펄프공장 등지에 주둔하면서 별량면 · 순천시내 등지에서 민간인들을 주둔지로 연행하여 고문 및 취조한 뒤, 집단 사살했다. 지휘 · 명령 계통은 "반군토벌전투사령부 · 호남방면전투사령관(제2여단장 원용덕 대령) → 남지구전투사령관(김백일 중령) → 제4연대장 → 제1대대장 · 제2대대장 · 제3대대장"이었다. 제12연대 2대대와 3대대는 1948년 10월 하순에서 1949년 1월에 순천농림중학교, 풍덕동 펄프공장, 구례읍 등에 주둔하면서 순천시내 · 황전면 · 월등면 등지에서 색출한 반군협력 추정 민간인들을 주둔지와 북국민학교 · 황전지서등지에서 취조한 후, 순천농림중학교 · 양지맷골 등지에서 사살하였다. 지휘 · 명령 계통은 "반군토벌전투사령부(육군준장 송호성) · 호남방면전투사령관(제2여단장 원용덕) → 남지구전투사령관(제5여단장 김백일) → 제12연대장 → 1대대장 · 2대대장 · 3대대장"이었다. 제15연대는 순천 탈환 이후부터 1949년에 걸쳐 순천남국민학교, 순천농림중학교 등지에 주둔하면서, 순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을 수색하고 주민을 소개하면서 연행된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집단 사살했다. 지휘 · 명령 계통은 "반군토벌전투사령부(육군준장 송호성) · 호남방면전투사령관(제2여단장 원용덕) → 남·북지구전투사령관(제5여단장 김백일·제2여단장 원용덕) · 광주5사단(사단장 원용덕) → 제15연대장 → 1대대장 · 2대대장 · 3대대장이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순천지역 계업사령관과 제8관구경찰(경남경찰국)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아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말까지 관내 반군 토벌 및 반군 협력자 색출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본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나 읍면별 지서로 연행하여 고문 및 취조한 뒤, 해당 관내에서 불법적으로 사살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현지 토벌작전 지휘관의 명령 아래 발생했지만, 최종적인 감독 책임은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과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였다.[446]

구례지역 여순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박덕서 외 164명이 “여순사건 직후인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7월까지 구례읍, 산동면” 등지에서 “국군 제3연대(1대대, 2대대)와 제12연대(1·2·3대대) 소속 부대원, 그리고 구례경찰서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사살”되었다고 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와 희생 추정자는 각각 165명과 9명이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은 약 800명으로 추산되었다. 제3연대 1대대와 2대대는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7월까지 지리산 일대의 반군 토벌을 위해 산동면 원촌국민학교 등지에 주둔”하면서, “구례군 일대의 민간인들을 반군 및 좌익 협조 혐의로 산동면 원촌초등학교” 등으로 연행하여 고문 및 취조한 후, “산동면 시상리 꽃쟁이재 등지에서 집단 학살”하였다. 이 연대의 지휘·명령 계통은 호남방면전투사령관 원용덕(제2여단장) → 북지구사령관 원용덕(겸임) → 제3연대장 → 제1대대장이었다. 또한 제12연대 1·2·3대대도 3연대와 마찬가지로 반군협력자들을 색출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대의 지휘·명령 계통은 호남방면전투사령관(제2여단장 원용덕) → 남지구전투사령관 김백일(제5여단장) → 제12연대장 → 1대대장·2대대장·3대대장이었다. 그리고 구례경찰서 경찰은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7월까지 민간인을 구례경찰서 및 각 지서로 연행”하여 이들을 “고문·취조한 후, 구례경찰서 인근 공터” 등지에서 집단 사살했다. 구례경찰서는 구례지역 계엄사령관과 제8관구경찰청(전남경찰국)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 현지 지역 사령관은 “계엄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아래, 민간인을 반군 협력자라는 혐의만으로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살해”하였고, 또한 “군의 ‘즉결처분권’은 민간인 살해나 처형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근거”였다.[447]

보성경찰서·고흥경찰서와 제8관구경찰청(전남경찰국) 소속 경찰토벌대는

446)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223-230.
447)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 구례지역 여순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7월 8), 139-14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초까지 반군 토벌 및 반군 협력자 색출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경찰서나 관내 지서로 연행하여 고문 및 취조한 뒤, 보성군 득량면 지서 인근”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 국군 제4(20)연대는 “여순사건 이후 1950년 초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며 노동면 명봉리 야산 등지에서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다. 국군 제15연대는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경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고문하거나 고흥군 동강면 너릿재 등지”에서 집단 살해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보성·고흥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인은 정옥출 외 88명이지만 전체 희생자 수는 300~4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보성·고흥경찰서는 계엄사령관과 제8관구경찰청(전남경찰국)의 지휘명령을 받았고, 4연대와 15연대는 반군토벌전투사령부·호남방면전투사령관 → 남지구전투사령관의 지휘명령을 받았다.[448]

여수지역 여순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군 제2연대(1대대, 2대대), 3연대(1대대, 2대대), 4[20]연대(1대대, 2대대), 5연대(1대대), 12연대(2대대, 3대대), 15연대(1대대, 2대대) 소속 부대원들과 수도경찰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8월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민간인을 연행하여 고문 및 취조한 후, “강태효 외 124명”을 “여수도심권, 남면, 화양면” 등지에서 집단 살해했다고 했다. 제2, 3, 4, 5, 12, 15연대는 반군토벌전투사령부(사령관 송호성 준장), 호남방면전투사령부(제2여단장 원용덕), 호남지구전투사령관(원용덕)·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정일권 준장)의 지휘명령을 따랐고, 여수경찰서는 계엄사령관과 제8관구경찰청(전남경찰국)의 지휘명령을 따랐다.[449]

진실화해위원회는 수백 명의 군·경측 참고인, 신청자, 사건 목격자 등의 진술과 사건 관련 군·경측 자료를 토대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최소 3,200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참전 군인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먼저 여순사건 당시 원용덕 대령이 사령관으로 있던 2여단 소속 군인들은 순천지역 민간인들이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여단사령부 소속 한 군인은 “여

448) 진실화해위원회, 「보성·고흥 지역 여순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6월), 1-4.
449) 진실화해위원회, 「여수지역 여순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6월), 118-12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순사건 발발 후 약 2~3개월 정도 순천 남국민학교와 지리산 일대에 주둔" 하면서, "반군과 반군 협조 혐의 민간인을 잡아 법 절차 없이 사형에 처했다"고 했다. 당시 남국민학교에 주둔했던 2연대 2대대 소속 한 군인은 "순천진압 당시 민간인을 잡아다 죽여서 구덩이에 파묻었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2연대 1대대 한 하사관은 "순천농림중학교에 주둔하면서 순천시내"에서 약 70명을 체포하여 총살했다고 했다.[450] 2여단 예하 하사관 교육대 소속 한 군인은 "순천 진압 후 반군 300여명을 사살했다"고 했다. 같은 여단 하사관 교육대의 한 중대장은 "순천에서 이러한 대규모 반군 사살 전과는 없었다."면서, "상당수의 비무장 민간인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451] 이처럼 당시 참전 군인들도 민간인들을 즉결 처형하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반군토벌사령부, 호남방면전투사령부,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와 그 예하부대는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5월까지 반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구례, 보성·고흥 등지의 주민들을 처형하였다. 이 사건으로 최소 3,200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들의 희생 이유는 반군 협조 혐의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인희생 사건은 색출, 연행, 취조 및 가혹행위, 분류, 처형이라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 진행되었다. 때로 취조 및 가혹행위가 생략되고 즉시 처형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특히 지휘명령체계 안에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로 알려진 원용덕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집단희생의 이유와 분류 기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지방 학생 연합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여수에 도착한 김형도 목사는 14연대 반란군에 체포되어 경찰서 인근 창

450) 참고인 박희선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7일); 참고인 이규순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7일); "정수정 증언록," 『한국전쟁증언록』: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177에서 재인용.

451) 참고인 서국신 진술조서 (2007년 10월 29일). ; 참고인 서국신 면담보고서 (2007년 11월 2일); 참고인 서국신 면담보고서 (2008년 10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177-178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고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함께 조사를 받던 50여 명의 경찰관들 중 일부가 처형되는 총소리도 들었다. 10월 25일 경, 평상시 안면이 있던 김백일 중령이 여수 시내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것을 목격 한 직후, 그는 "살아남은 여러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동도로 모이시오" 라는 육군 지프차의 방송을 듣고 오동도로 갔다. 가는 도중 군인들이 주민들을 초등학교로 모이게 했고, 대략 천 명의 남자들을 오동도로 이송시켰다. 이후 이중 일부를 분류하여 처형했다.[452]

> 군인과 경찰관이 나와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불려나온 사람들을 돌로 된 창고 같은 곳으로 몰아넣는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야단을 친다. 그래도 억지로 몰아넣는다. 저들은 누구일까 하고 보고 있노라니까 얼마 후 군인들이 3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 몰살시키는 것이었다. 아마도 반란군이나 좌익괴수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갔다.[453]

오동도에 모인 시민 천 명 중에 군인과 경찰이 30여 명을 1차로 분류하여 집단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김형도는 이들을 반란군 혹은 좌익괴수라고 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였던 유호준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김종대 목사, 조민형 장로, 불교계의 박윤민 씨, 천주교의 윤을수 신부 등 7명과 함께 여순사건을 조사했다. 유호준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국군은 반란군으로부터 여수, 순천지역을 되찾으면서 공산 반란군 점령 하에서 누가 부역을 했는지 가려내기 위해 주민들을 초등학교 교정에 전부 모이게 했다. 색출 방법은 줄줄이 앉혀 놓고 눈을 감도록 하고는 공산반란군의 마수에서 벗어난 인사들로 하여금 줄 사이로 지나가며 부역자를 손가락 끝으로 지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손가락 끝도 좌익의 손가락 끝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들의 손가락에 의해 벌교 뒷산 계곡으로 끌려가 국군에 총살된 자 또한 부지기수였다. 주민들에 의해 좌익으로 몰려 죽은 사람들 중에도 실제 좌익이 아닌 사람들이 끼어 있기는 마찬가지였

452) 김형도, 『복의 근원』 (서울: 한국기독교문학연구소출판부, 1979), 150, 155, 161-162.
453) Ibid.,, 16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454]

1948년 여순사건 발생 당시 광양 진상면에서 목회를 한 정규오 목사는 손가락질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공비들(반란군-인용자)의 … 식량의 약탈로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언제 누가 모략, 중상, 보복으로 자기들을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에는 생살공비지권을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부대나 일선지서의 경찰관이 가지고 있었다. 밤에 속 졸이고 아침이 되어 들리는 소식은 어젯밤 어느 부락이 털렸고 누구가 지서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총살당한 그들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 책도 없는 농촌에서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있다면 관제 혹은 감정이나 이해로 만들어진 민제 빨갱이가 있었을 뿐이다.[455]

김형도 목사는 처형된 사람들을 반란군 내지 좌익괴수라 했고, 유호준 목사는 다수의 민간인이 국군에게 총살되었으나 일부는 좌익이 아니었다고 했다. 정규오 목사는 희생된 주민은 '관제', '민제'에 의해 만들어진 빨갱이라고 했다. 세 목사는 민간인들이 다수 처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희생된 주민들의 정체를 각기 다르게 규정했다.

그렇다면 최소 3,200에 달하는 희생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앞의 사건의 경과에 나타나듯이 이들은 토벌군이 반군 협조 혐의로 체포되었던 민간인들로 계엄령에 적시된 즉결처형에 근거해 희생된 주민들이었다. 즉결처형은 연대장·대대장·중대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들은 처형 전 반군 협조 혐의자들을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반군 협력자들을 분류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수의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진압군이 민간인들을 '자의적'으로 '분류'하였다고 했다.[456] 자의적이라는

454) 유호준, 『역사와 교회: 유호준 목사 회고록』, 199, 201.
455) 정규오, 『나의 나된 것은: 정규오 목사 회고록』 (광주: 한국복음문서협회, 1984), 100.
456)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13. 이 보고서에서 '자의적'이라는 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형된 민간인들의 희생 이유를 살펴보았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조사를 신청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희생 이유는 아래와 같다.

<표 5>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이유[457]

연번	피해 이유		희생자수(명)	비율(%)	비고
1	반군 협조 혐의	숙식 및 식량 제공 혐의	53	56.7	반군 가담 혐의에는 진압당시 시내권 희생자 상당수 포함
		반군가담 혐의	50		
		노무 동원 혐의	35		
		기타(반군 출몰지역 거주 등)	3		
		소계	141		
2	좌익 및 입산자 가족.동료 [대살(代殺)]		35	14	
3	무고 및 모략		25	10	
4	변복으로 유인 [살해]		13	5.2	
5	연행 및 피해 이유 모름		13	5.2	
6	등교 및 학교 근무 [사살]		14	5.6	
7	보복		5	2.1	
8	고문 및 허위 자백		3	1.2	
총계			249		

우선 반군 가담 혐의 50명을 제외하면 숙식 및 식량 제공 혐의 53명, 노무 동원 혐의 35명, 기타 3명 등 91명의 민간인들이 반군 협조 혐의로 희생되었다. 반군 협조 혐의와 관계없는 좌익 및 입산자 가족 · 동료 · 대살(代殺), 무고와 모략, 변복 유인, 보복, 고문 및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희생된 주민도 108명이었다. 반군 가담 혐의를 제외하면 199명이 반군과 관련이 없거나 숙식제공 등의 혐의만으로 희생된 것이다. 반군 협조 혐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숙식 및 식량 제공은 반군의 활동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현은 11, 13, 51, 173, 197, 204, 209, 213, 219, 220, 229, 230, 231 등에서 약 20여 회에 걸쳐 반복된 중요개념이다.

457)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31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예를 들어 김관은 거절하면 죽음을 당할 것 같아 반란군에게 어쩔 수 없이 밥을 제공한 아버지가 진압 후 순천경찰들에게 연행되어 순천 성동국민학교 옆 공터에서 사살됐다고 했다.[458]

그런데 군·경측 참고인들은 민간인 희생의 이유에 대해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군·경측 참고인 간에도 의견이 달랐다. 먼저 군·경측 참고인 가운데 일부는 희생자들이 반란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남로당원'·'지방폭도'·'빨갱이'였다고 하며, 가해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당시 3연대 1대대 2중대 3소대 한 군인은 "총살당한 사람들을 반군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는 "생존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459] 4연대 1대대 2중대와 20연대 2대대 8중대의 한 군인도 부대원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장, 혹은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즉결처분했다고 했다.[460]

실제로 14연대 반군이 여순 지역을 점령한 직후 경찰과 우익인사 약 300여 명이 희생되었다. 10월 27일자 영국 외무성문서에는 미 외교관 보고를 인용하여 300명의 경찰과 시민들이 반군에게 학살되었다고 했다. 또한 진압군측은 400여명의 경찰관이 사살 당했다고 했다.[461] 이것은 앞의 한 군인의 말처럼 생존을 위한 반군 협력 혐의자에 대한 살해를 정당화 하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3연대 2대대 소속의 한 군인은 당시 순천 시내에 좌익으로 보이는 민간인이 많았고,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들을 처형했다고 했으며,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462] 이들은 모두 반군에 협조한 혐

458) 참고인 김관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27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86에서 재인용.
459) 참고인 김금선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9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63에서 재인용.
460) 참고인 전판동 진술조서 (2008년 10월 21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27에서 재인용.
461) "The American Vice-Consul at Kwangju has reported that the rebels have butchered over 300 police and non-Communist civilians."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자료집·한국관계 영국외무성문서10』 17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272; 육본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 (1971), 205.
462) 참고인 박충식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66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의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민간인들을 집단 살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는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또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토벌군 중 일부는 희생된 민간인들이 반군협력자, 즉 빨갱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에는 편차가 있으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분류의 기준과 집단살해에서 발견된다. 우선 분류의 기준은 '반군'과 '좌익'이다. 여기서 좌익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의 구체적인 형태는 반군협조자이다. 즉 분류기준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였다. 또 하나는 '생존을 위한 조치'라는 개념이다. 냉전의 논리에 의해 적으로 규정된 존재는 우리편의 생존을 위해 제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군 협조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작용한 논리가 반군과 협조여부를 가리는 사실관계라기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확실한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되는 진영논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을 진실화해위원회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했던 것이다.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 논리와 생존을 위한 진영논리, 즉 냉전의 진영논리가 반군 협조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작동되었고, 그 결과 민간인 처리에 관한 아무런 교육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반군 협조자를 분류하였던 것이다.

토벌과정에서 비인간화 현상도 발생했다. 국군 제12연대 1948년 10월 하순과 1949년 상반기 순천시내와 구례읍에 주둔하며, 순천 시내, 황전 월등 지역에서 반군 토벌 및 반군 협력자 색출작전을 벌였다. 3대대 12중대 3소대 한 군인은 순천 북쪽 산골 마을 민간인 3명을 체포해 즉결 처형한 다음 칼빈에 착검한 대검으로 목을 잘라 잘린 목을 어깨에 메고 시내로 들어와 작전 전과로 보고했다.[463] 또한 2대대 8중대 4소대 소속 한 군인은 순천 진압 시 20여명의 반군 가담 혐의자를 색출했다. 북한 출신의 6중대장이 이들 중 1명을 2대대 병력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목을 베었다고 했다.[464] 6중대의 다른 군인은 순천 여학교에 주둔해 며칠 지났을 때, 여학생 1명을 잡아와서

463) 참고인 김재용 진술조서 (2007년 10월 23일) ; 참고인 김재용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277에서 재인용

464) 참고인 한창권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276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차로 양쪽 다리를 묶어서 찢어 죽였으나, 무슨 이유였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465] 1949년 4월 순천농림중학교에 주둔했던 15연대 1대대 1중대 한 군인은 “15연대 1대대가 1949년 봄 순천 황전면 괴목의 산골 부락(20~30여 호, 집성촌)에서 반군 협조 혐의자를 색출”해 그 가족 모두(5~6명 정도)를 그들의 친척으로 하여금 M-1에 착검된 대검으로 직접 척살하게 했다고 했다. 당시 대대장이 연대장에게 무전으로 보고한 후 중대장에게 척살을 지시했다고 했다[466] 당시 순천경찰서 한 근무자는 “반란군 협조자와 지방 좌익들을 체포하면” 사찰계 형사들이 취조를 하는데 이들은 “고춧가루를 물에 타 코에 붇거나, 전기고문을 가했다”고 했다.[467] 이상의 증언을 통해 고문, 전과를 위한 살해, 잔혹 살해 등 비인간화 현상이 일부 발견되었다. 냉전의 진영논리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될 때, 부정적 타자를 비인간화 하는 현상으로 발전했다.

2.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

1) 지휘·명령 체계 속의 기독교인 - 계엄사령관 원용덕

이상의 사건경과를 보면, 반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형이 있었고, 이것은 반군토벌사령부(1948, 10. 21)·호남방면전투사령부(10. 30)·호남지구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1949. 3. 1) 등 지휘부 → 여단 → 연대 → 중대 → 소대의 지휘명령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육군정보국과 예하 부대인 SIS가 색출된 반군은 물론 반군협력자를 조사·분류하였다는 일부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지휘명령체계 안에 핵심인사가 기독교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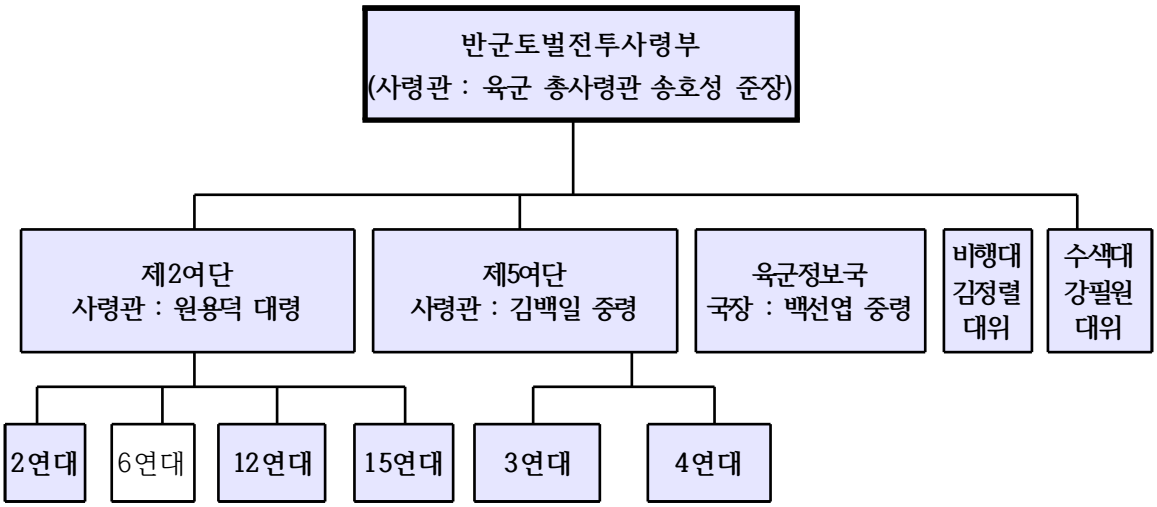
여순사건 진압군의 지휘·명령체계는 3차례 개편되었다. 1차로 육군 총사

465) 참고인 고오차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76에서 재인용.
466) 참고인 전유조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4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79에서 재인용.
467) 참고인 박경순 진술녹취록 (2008년 9월 3일); 참고인 최성웅 면담조서 (2008년 7월 29.):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285, 249에서 각각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령부는 제14연대 반란 직후인 1948년 10월 21일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휘하에 2여단과 5여단을 배속시켰다. 반군토벌사령부의 지휘명령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6> 반군토벌전투사령부의 지휘·명령 체계(1948. 10. 20. - 30.)[468]



반군토벌전투사령부에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대령, 육군 정보국장 백선엽 중령, 정보과장 김점곤 소령이 정보참모로서 참모부장과 토벌사령관을 보좌하면서 진압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469]

2차 개편은 10월 27일 여수를 탈환 직후에 이루어졌다. 10월 30일 육군총사령부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에 남지구전투사령부(김백일 중령)와 북지구전투사령부(원용덕 대령)두었다. 남지구전투사령부는 순천에 북지구전투사령부는 남원에 주둔했다.[470] 당시 실질적인 현지 진압은 남지구전투사령관인 5여단장 김백일이 주도했으나 원용덕 사령관은 호남방면전

468) 김안일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9일); 참고인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1945~1950.6.)』제1권, 45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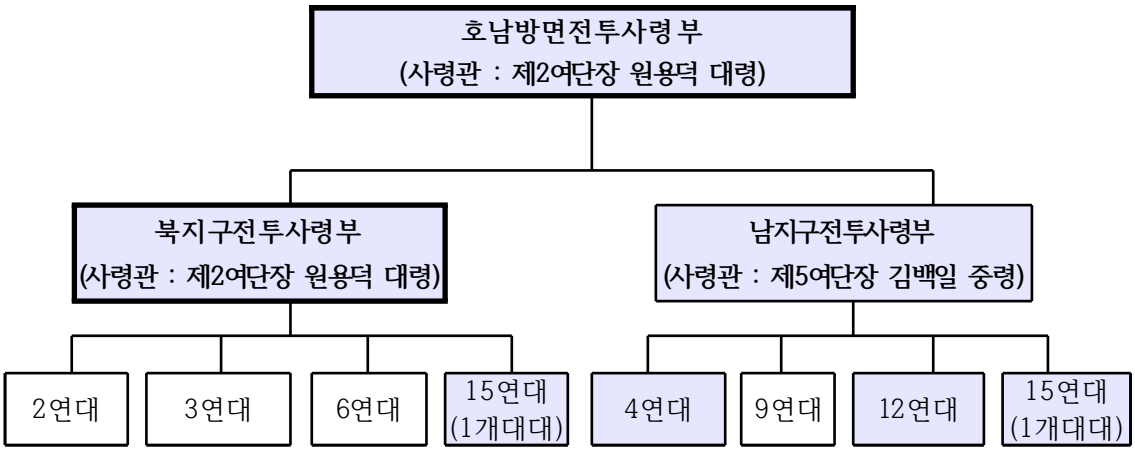
469) 참고인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김점곤 구술녹취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년 4월 7일); 사사키 하루다카, 『한국전비사 - 건군과 시련』상권, 329~33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Ⅱ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264.

470) 육군본부전사감실, 『공비토벌사』, 27-28; 육본정보참모부, 『공비연혁』, 23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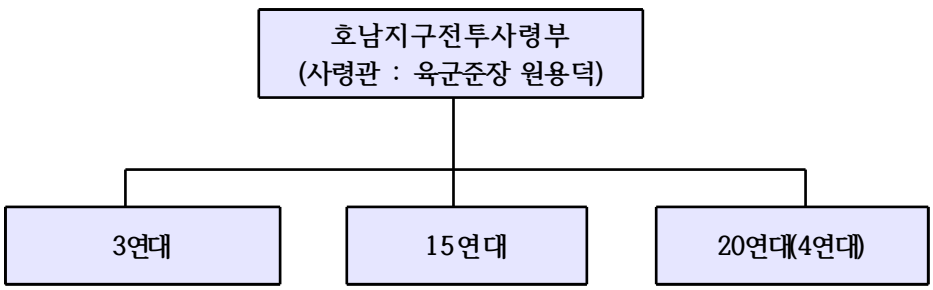
투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진압작전지휘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표 7>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지휘·명령 체계(1948. 10. 30 ~ 11. 30.)[471]



1948년 11월 30일 호남방면전투사령부가 해체되고 1949년 3월 1일 호남방면전투사령부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로 개편되었다. 원용덕이 호남지구사령관에, 정일권이 지리산지구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원용덕은 1949년 5월 15일 보직 없이 육군본부로 복귀했다.

<표 8>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지휘·명령 체계(1949. 3. 1. ~ 5. 9.)



471) 육본정보참모부, 『공비연혁』, 23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1945~1950.6.)』 제1권, 4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7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반군을 진압하는 현지 사령부가 3차례 개편되었고, 원용덕은 비록 만주군 군의(軍醫) 출신으로 뛰어난 토벌 지휘관은 아니어도 끝까지 반군토벌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남아있었다.

반군토벌 초기에 원용덕 대령이 지휘하는 2연대 소속으로 2여단 사령부 근무자였던 한 군인은 “당시 여단사령부 정보참모와 연대 정보과의 권한이 막강했다면서, 연대에서 반군과 반군 협조자를 잡으면, 여단사령부 정보참모가 조사하여 사형 결정”을 내렸고, “법 절차 없이 여단장 결재 후 사형에 처했다.”고 했다.[472]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연대장 함병선은 계엄사령관 겸 제2여단장 원용덕의 재가를 얻어 민간인 ‘임의처형’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국군 제2연대의 지휘·명령 계통은 반군토벌사령부(사령관 송호성 준장) → 호남방면전투사령관(제2여단장 원용덕) → 북지구전투사령관(원용덕 겸임) → 제2연대장 함병선”[473]라고 하였다. 2연대의 지휘명령체계에서 확인되었듯이 여단사령부 정보참모와 연대 정보과가 민간인들을 수사하여 분류하였다. 처형될 자로 분류된 민간인을 여단장 겸 계엄사령관인 원용덕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처형하였다. 즉 연대장들은 여단장의 허가를 얻어 처형 집행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처형집행의 지휘·명령자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 3연대의 한 군인은 “대대장에게 즉결권이 있었으나, 계엄사령관 원용덕에게 재가를 얻어 총살을 집행했으며, 상부의 지시가 없이 대대장 본위로 즉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였다.[474]

그런데 반군토벌사령부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의 토벌대의 실질적인 현장 지휘자는 5여단장 김백일 중령이었다. 반군토벌사령부 당시 2여단(원용덕 대령)에 속했던 12연대는 실질적으로 5여단 김백일 중령의 지휘를 받았다. 3연대도 이와 비슷했다. 3연대 3대대 9중대장은 “3연대는 2여단 소속이어서 행정적으로는 통제를 받았으나, 작전권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있었다”고 했다.[475] 현장 지휘는 김백일 중령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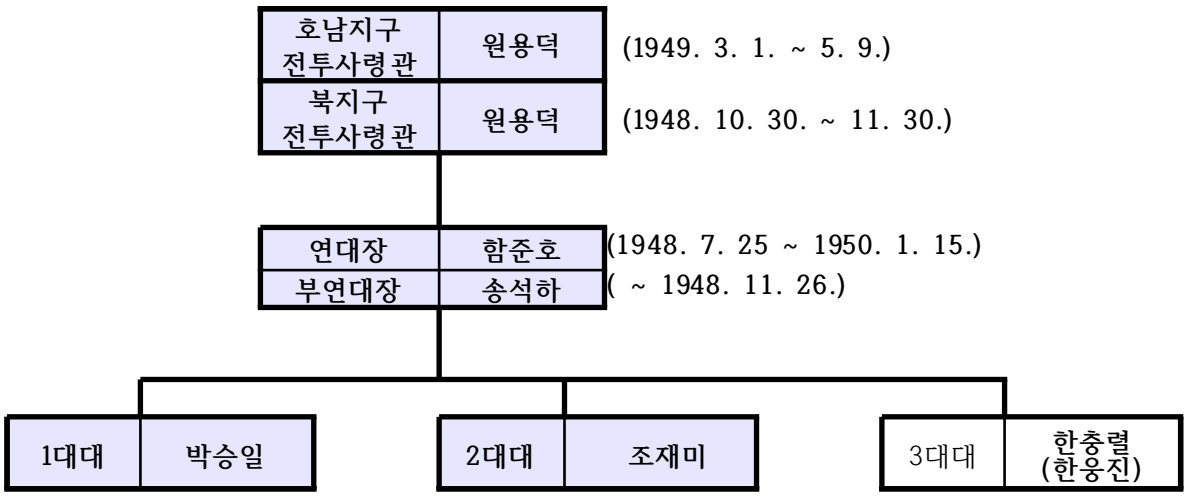
472) 참고인 박희선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7일).

473) 「조재미 장교자력표」·「김용 장교자력표」, 「자료 조회 결과 회신(진실위-정치석 외 85명)」 (육군기록정보관리단 보존활용과-8143, 2007년 10월 17일); 「한경수 증언록」, 『한국전쟁 증언록』,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참고인 서국신 진술조서 (2007년 11월 2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262-263에서 재인용.

474) 참고인 안재율 면담보고서 (2007년 7월 12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195, 263-264에서 재인용.

지휘는 소속 여단의 지휘를 받았다. 당시 3연대의 지휘·명령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9> 순천지역 여순사건 당시 국군 제3연대의 지휘·명령체계



그렇다면 국군은 토벌 중 어떻게 상부에 보고를 하였는가? 15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이었던 전유조는 "1949년 봄 순천 괴목의 산골부락에서 색출한 반군 협조 혐의자들(두 가족)이 혐의를 부인하자, 총으로 위협하여 친인척 관계인 마을주민들이 그들을 척살"하게 했다면서 "대대장 이소동이 연대장에게 무전으로 보고한 후 중대장에게 지시"하여 처형하였다고 했다. 당시 제15연대는 남·북지구전투사령관 제2여단장 원용덕과 제5여단장 김백일의 지휘 아래 있었다. 즉 반군토벌전투사령부(육군준장 송호성)·호남방면전투사령관(제2여단장 원용덕)·남·북지구전투사령관(제5여단장 김백일·제2여단장 원용덕) → 광주5사단(사단장 원용덕) → 제15연대장 → 1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였다. 2, 3, 15연대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2여단 예하 연대장과 대대장들은 계엄 사령관 및 2여단장인 원용덕의 지휘명령을 받아 처형으로 분류된 민간인들을 집단 살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475) 참고인 서국신 진술조서 (2007년 10월 29일); 참고인 서국신 면담보고서 (2007년 11월 2일); 참고인 서국신 면담보고서 (2008년 10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262-263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반군협력 혐의 민간인들을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계엄령을 발표한 것도 원용덕 대령이었다. 물론 최초의 계엄령을 포고한 것은 1948년 10월 22일 현지 지휘관인 5여단장 김백일이었다. 그러나 이 계엄령은 반도와 밀통하거나 반도를 은익한 사람 등에 대해 “군법에 의하여 사형 기타에 처”한다고 하였다.[476] 즉결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즉결’은 반군토벌사령부가 호남방면전투사령부로 개편된 직후인 1948년 11월 1일 호남방면 사령관 겸 계엄사령관인 원용덕이 발표한 “포고문”에 있었다. 원용덕은 포고문을 통해 “전라남북도는 계엄지구이므로 사법 급 행정일반은 본 호남방면군사령관이 督轄(독할)”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관공리는 직무에 충실할 것” 등 7가지 항을 제시하고 “이상 諸項(제항)에 위반하는 자는 군율에 의하여 총살에 즉결함”이라고 했다.[477] 이 계엄령의 각 조항은 매우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하였다. 반면에 ‘즉결’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열어 놓았다. 한편 계엄령들은 국회의 동의 없이 현지 사령관에 의해 내려졌다가 11월 25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13호로 공포되었다.[478]

계엄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군인 원용덕에 의해 발표되었다. 실행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인을 분류하고 처형을 결정하는 것이 계엄사령관의 자의적 판단, 즉 반군 협력자 여부에 따라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76) 사사키 하루다카, 『한국전비사 – 건군과 시련』 상권, 354.

477) 「동광신문」 (1948년 11월 5일).

포고문

1. 전라남북도는 계엄지구이므로 사법 급 행정일반은 본 호남방면군사령관이 督轄함
1. 관경민은 좌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 勵行할 것을 명령함
 1) 관공리는 직무에 충실할 것
 2) 야간 통행시 제한은 20:00시부터 5:00시로 함
 3) 각시·군·동·리에서는 국군주둔 시 혹은 반도번거 접근지역에서는 항상 대한민국기를 게양할 것
 4) 대한민국기를 제식 대로 작성하여 게양하며 不規襤褸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가민족에 대한 충실이 부족하다고 인정함.
 5) 반란분자 혹은 선동자는 즉시 근방 관서에 고발할 것
 6) 폭도 혹은 폭도가 지출한 무기, 物器, 금전 등을 은닉 又는 허위보고 치 말 것
 7) 군사행동을 추호라도 방해하지 말 것

이상 諸項(제항)에 위반하는 자는 군율에 의하여 총살에 즉결함

단기 4281년 11월 1일 호남방면 사령관 원용덕

478) 대한민국정부공보처, 「관보」 제10호 (1948년 10월 25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여순사건 발생 당시 제2여단장이었던 원용덕은 1949년 1월 15일 5여단장으로 부임하였고, 여순사건이 종결되자 동년 5월 12일 육군본부로 발령을 받았다. 계엄사령관으로서 그는 계엄지구인 전라남북도의 사법과 행정 일반을 독할(督轄)했다. 즉결처형을 포함하여 전라남북도의 사법과 행정을 감독관할(監督管轄)했던 것이다.

전라남도 광주에 주둔한 '보병 제5여단사령부' 사령관 원용덕 준장[479]은 "高等軍法令議命令 第17號"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1949년 1월 19일, 제5여단 고등군법회의에서 판결을 받은 반군 협력자들을 1949년 4월 2일내로 집행하라는 명령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허정봉, 박영규, 장종교 등 11명이 총살되었다.[480] 이들은 경성, 부산, 김천 형무소에 각각 수감되어 있던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들이었다. 또한 5여단장 김백일의 명의로 1948년 12월 15일 발행된 '호남계엄지구사령부'의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3호"에 따르면 전주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순관련 민간인들 중 박창래[481] 등 26명을 총살하라는 명령이 집행되었다.[482] 흥미로운 것은 이 문서 상에는 박창래가 전주 형무소에서 총살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1924년 생인 박창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친척인 박인현(朴仁炫)은 그가 1948년 겨울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돌아가는 길", 즉 "여수역전 뒤 만성리"에서 총살되었다고 했다.[483] 며느리 이길례도 박창래가 경찰에 연행 된 후 만성리 굴 앞에서 처형되었다고 했다.[484] 1924년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서 태어나 같은 곳에 거주

479) 원용덕은 1949년 1월 15일 5여단장으로 부임, 동년 2월 3일 준장으로 진급했다.
480) 원용덕, "보병제5여단사령부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7호" (광주: 제5여단, 1949년).
481)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1931. 9. 4. 형공(刑公) 선고 제19호 판결(피고인 尹炅鉉) 등 14명」;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Ⅱ :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10) 71-7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거주하던 박창래(朴昌來)는 여수공립수산학교 독서회 사건으로 1931년 30년 9월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에 송치되었다. 9월 4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독서회는 공산주의 사회수립과 이를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함께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백인렬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경찰이 독서회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적 투쟁으로 격하하였다고 하였다.
482) 김백일, "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3호" (여수: 1948년 12월 15일).
483) 박인현 진술조서 (2008년 6월 10일).
484) 이길례 통화보고 (2009년 7월 8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 조순환은 박창래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독립운동가로 교회와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여순사건 발생 직후 집에 있던 그는 화양면 지서 소속경찰에게 체포되어 여수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겨울에 만성리에서 처형되었다고 했다.[485] 따라서 박창래는 전주형무소에서 처형된 것이 아니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창래의 사례에 따르면 문서의 조작 가능성이 보인다. 즉 처형 후 문서를 정리하였다는 추정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상의 자료는 원용덕과 김백일이 현지 사령관으로 민간인들을 심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문서들은 계엄 하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인들을 재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록 1회에 불과하지만, 원용덕이 총살집행명령을 내린 주민의 수는 11명이고 김백일이 총살집행명령을 내린 주민의 수는 26명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들이 재판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그렇다면 원용덕 준장에 의해 내려진 "高等軍法令議命令 第17號"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간인 집단 처형의 현장 책임자가 원용덕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김백일과 더불어 사법권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의미이다.

계엄사령관겸 호남방면전투사령관이었던 원용덕은 즉결처형권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이승만과 계엄사령관 원용덕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용덕과 이승만의 관계는 그의 아버지 원익상(元翊常)과 이승만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익상은 미국 남감리회 조선연회와 조선감리회 소속 목사였다.[486] 1876년 경성부 회동(會洞)에서 출생한 그는 1892년에 세례를 받은 남감리회 초기 교인이었다.[487] 이승만은 1897년 미국 북감리회 소속

485) 조순환 진술조서 (2009년 10월 19일). 그는 박창래가 일제 강점기에서 수산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다가 옥고를 치루었다고 했다. 일경에게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말을 더듬을 정도였다. 또한 1920년대 후반 화양면 나진교회 설립자로 이 교회 집사겸 주일학교 교사였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휘하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인들로만 구성된 화양면 어업조합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486) 한영제 편, "원익상," 『기독교대백과사전』 12권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4), 344.

487) 하리영 편, "원익상," 『조선남감리교회 30년기념보』 (경성: 조선남감리교회전도국, 1930년), 190-191. 1913년 7월에 전도자로 활동, 1913년 영국성서공회 권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내한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에 의해 설립된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영어와 서양의 근대식 교육을 접하였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박영효 옹립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1899년 1월 9일부터 1904년 8월 7일까지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1899년 1-2월경 한성감옥에서 신약성서를 읽으면서 회심을 체험[488]한 그는 옥중에서 『신약성서(新約聖書)』, 번연(John Bunyan)이 지은 『천로역정(天路歷程: Pgrim's Progress)』 등 기독교문서들을 탐독하였다. 해방 직후 이승만에 대한 개신교의 지지는 강력했다. 기독교계는 1945년 11월 28일 서울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을 초대하여 "임시정부 領袖 환영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이제 우리는 新國家建設을 할터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곳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우에 이 나라를 세우자. 건국은 먼저 땅을 차지하여야 하고 땅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이 되어야 한다."[489]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정치신학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1948년 12월 1일 그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개최된 각 교파 해외선교부 연합회의에 보낸 전문에 잘 나타난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 연료, 의료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인, 1914년 홍천구역장, 1917년 정식 전도사 직첩, 1918년 피어선성경학원 졸업, 1922년 집사 목사, 1925년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 1926년 장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30년 현재 그의 집은 서울 삼각정 113번지이었다.

488) From "Mr. Rhee's Story of His Imprisonment," O. R. Avison, "Memoris of Life in Korea," 275-276. 이승만은 "어느 날 나는 선교학교(배재학당-인용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정식, 「청년 이승만 자서전」, 『뭉치면 살고… 언론인 이승만의 글모음(1894-1944)』 (서울: 조선일보사, 1995), 90. 그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6년 반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1904년 8월 7일 나는 사면을 받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기독교 신앙서적 중에서 이승만이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은 『新約聖書』였고, 그 다음은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天路歷程: Pgrim's Progress)』이었다.

489) 김유연, "臨時政府 領袖들의 주신말씀," 「活泉」20권 1호 (서울: 활천사, 1946), 2-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우리들에게 가장 중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건너 기독교국가(Christian lands)의 친우들의 자애로운 마음에 호소합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련의 훈련을 받은 붉은 군대는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위협합니다.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한국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멸절시키려 하고 있고 영적·지적인 각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490]

그는 소련 공산주의 위협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전문에서 그는 한국이 양진영으로 나뉘어져 있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공산화하는 한편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키려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 사건들을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내부반란세력의 국가전복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강경진압 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원조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영적·지적 영역은 기독교와 남한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이를 파괴하는 진영은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그의 사고를 지배하는 정치신학은 공산주의 적대에 기초한 진영론으로 이를 기독교적인 틀에서 신념화하였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기독교계의 많은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491]

---

490) Harold H. Henderson(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President Syngman Rhee's Message to the Korean Missions Conference,"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1. 안종철, "미군정참여 미국선교사·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기독교와 역사」제30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23-24에서 재인용.

491) 오하영, 『國民』 (대한독립촉성국민회선전부, 대한민국 28년 8월 7일), 6; "기독교인의 정치생활," 「기독공보」 (1952년 8월 4일); "성명서," 「기독공보」 (1956년 4월 3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회 동부연회회의록』 (1956) 25;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회 중부연회회의록』 (1956) 81-83. 1946년 8월 현재 전국에 2천여 개의 지부와 7백여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회의 전국대표자대회(1946년 6월 10일-11일)가 열린 곳도 정동제일감리교회였다.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췌개헌이 통과된 직후인 1952년 8월에 제 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 직전인 7월 한국기독교연합회는 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권연호, 김종대, 안창기 등 각 교파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을 선임하였다. 기독교선교대책위원회는 약 3,500여 교회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승만을 지지하였다. 1956년에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정·부통령기독교독중앙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승만과 이기붕의 선거를 지원하였다. 이들이 속해 있던 감리교의 동부연회와 중부연회는 1956년 3월 이승만의 재출마를 건의하는 성명을 내기로 결의했다. 이승만은 기독교, 특히 감리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승만이 이끄는 동지회의 국내조직인 흥업구락부는 감리교와 기호지역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원익상도 감리교 목사로서 흥업구락부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경성지방법원 검사정(京城地方法院 檢事正)이 1938년 8월 9일에 법무국장에게 보낸 "민족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동지회(비밀결사 흥업구악부)사건 검거에 관한 건" 라는 제목의 "연희전문학교 동지회 흥업구악부 관계보고"에는 원익상이 등장한다.[492] 이승만과의 인연은 아들 원용덕에게 이어진다.

원용덕이 어떤 입장과 정책지침을 갖고 여순사건을 진압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의 사상과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정치파동, 반공 포로석방, 김성주 암살사건 등으로 알려진 그의 친 이승만 행보는 그가 여순사건 토벌사령관 당시, 혹은 1950년 7월 이후 대구·경북지역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어떤 입장에서 좌익관련자들을 처리하였는지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원용덕은 남감리교 초기 신앙인이자 목사인 원익상의 아들로 전통적인 감리교 교인이었다. 그는 1930년 8월 21일부터 27일에 금강산에서 열렸던 "제 4회 조선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연합하령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하령회에서 발표된 강연과 토론은 "현대사조문제와 우리의 태도", "현실문제와 우리의 鮮決策(선결책)", 그리고 "학생청년사업연구와 토의" 등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대의 사상의 문제와 조선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고, 그에 따른 기독교청년학생의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용덕, 심복기(瀋福奇) 김성실(金誠實) 하경덕(河敬德), 홍병선(洪秉璇) 이대위(李大偉) 등은 "신의 실재와 성경", "사회주의: 이상촌주의의 유래, 다수와 소수, 균일주의와 자유경쟁", "농촌의 경제적 조직", "농촌위생"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세브란스의학전문대 학생이었던 원용덕의 강연 제목은 "현대학생이 요구하는 기독교"이었다. 1930년대 원용덕은 현실을 분석하고 기독교의 사상을 토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기독교청년학생이었다.[493]

---

492) 京城地方法院 檢事正, "연희전문학교 동지회 흥업구락부 관계보고," 「地檢秘 제1253호」 (1938년 8월 9일)

493) "第4回 朝鮮男女基督敎靑年會 聯合夏令會의 건,"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6冊』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러나 기독교청년으로서 민족에 대한 그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1934년경 만주육국군의학교를 졸업하고 군의가 되었다.[494] 세브란스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학력은 어학 전공으로 1941년 경성제국대학교를 졸업했다. 군의가 된 그는 1936년 4월 중위, 1937년 2월 대위, 1938년 9월 소좌, 1942년 2월 중좌, 1945년 7월 대좌로 진급했다. 대좌로 진급한지 한 달 만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비록 군의였지만 최소 10년 이상을 만주군으로 활동했다.

원용덕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감리교신학대학 내에 설치된 군사영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의 학생겸 부교장으로 이 학교를 졸업했다. 미군정 군사국장 참페니 대령(Athur S. Champeny)은 사설군사단체의 6개 대표를 초청하여 경비대 창설 계획을 설명하고 나서 각 단체의 자격자들을 군사영어학교에 입학시키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만주군 출신은 원용덕의 추천으로 들어왔고, 경찰계통은 경무국장(조병옥)의 추천으로 들어왔다.[495] 원용덕은 만주군의 통로역할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군사영어학교가 설치된 곳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의 신학교였다. 한편 그는 이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1946년 1월 15일 소령으로 임관했다.

원용덕은 1949년 8월 1일 '(?)政참모(?)장' 으로 보직이 결정된 지 2일 만인 8월 3일부터 김구 암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안두희의 재판을 담당했다. 8월 3일·4일·6일에 열린 제1·2·4회 고등군법회의의 주심재판관이었던 것이다. 제4회 고등군법회의에서 검찰은 안두희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지만, 원용덕을 비롯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496] 또한 1950년 7월 27일 경북관구사령관, 부산정치파동 당시인 1952년 5월 25일 영남지구계엄사령관[497]을 각각 역임하였고,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을 주도하기

(京鍾警高秘 제8814호, 1930년 6월 11일) 이것은 경성 종로경찰서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에게 보내는 서류에 첨부된 "제 4회 조선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연합하령회" 전단지에 실린 내용이다.

494) 「조선중앙일보」 (1934년 6월 15일).

495)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 258.

496) 「국도신문」 (1949년 8월 4일); 「자유신문」 (1949년 8월 5일, 6일); 「경향신문」 (1949년 8월 5일, 6일, 7일).

497) 강인철, 『한국기독교와 국가·시민사회 : 1945-1960』, 18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도 했다.[498] 그리고 한국전쟁 전 서북청년단 부단장이었다가 이승만의 정적인 조봉암진영의 핵심인물이 된 김성주 살해사건의 주모자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499] 이승만과 원용덕의 사후에도 이 두 집안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여순사건, 안두희 재판, 전쟁 중 경북지역 사령관, 부산정치파동, 반공포로 석방, 김성주 살해라는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원용덕은 전면에 나서 이승만 정권을 보호하였다.

원용덕이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낸 사건은 북산정치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영남지역 계엄사령관 원용덕은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0년 5·30선거 결과 60% 이상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고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자유당을 창당했다. 1952년 1월 28일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장택상을 임명하여 개헌을 다시 시도했다.[500]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신태영(申泰英) 국방장관은 1952년 5월 24일 “계엄사령관(은) 육군 중장 이종찬으로 하되 따로이 南지구계엄사령관 육군소장 元容德(원용덕)을 임명하여 경상남도 비상계엄 선포지구를 담당케 한다.”고 하였다.[501]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날인 5월 26일, 원용덕은 중앙청에서 버스로 국회에 출석하는 야당 의원들을 연행하여 구금하였다. 그는 5월 27일 “계엄령 선포 및 국회의원 버스 연행사건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근간 각지에 공비 출몰이 빈번”하고 “적색분자의 준동으로 치안을 교란할 징조가 현저”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했다.[502] 7월 초 연행된 국회의원 중 정헌주, 이석기,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503] 한편 의원

498) 「부산일보」 (1953년 6월 20일).
499) 박태현 구술녹취 (2007년 2월).
500)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은 1952년 1월 28일 표결에 들어갔는데, 재석 의원 163명중 143명이 반대함으로 부결된다.
501) 「대구매일」 (1952년 5월 26일).
502) 「경향신문」 (1952년 5월 29일).
503) 「민주신보」 (1952년 7월 5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들이 국회등원을 거부하자 원용덕은 7월 4일까지 개헌안 의결 정족수 123명을 모으기 위해 의원들을 강제로 국회에 등원시켰다. 특히 군재에 회부된 서범석 · 임흥순 · 곽상훈 · 김의준 · 이석기 · 장홍염 · 양병일 · 정헌주 · 권중돈 · 이용설의원을 7월 3일 석방하여 국회에 등원시켰다.[504] 7월 4일, 국회에 출석한 166명(총 국회의원 185명)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여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기립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505]

원용덕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이승만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 협조자들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강제하여 개헌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곽상훈처럼 확실한 우파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와 개헌반대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는, 즉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이었다.

또한 김성주 살해 사건은 이승만과 원용덕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례다. 1948년 KLO(Korea Liaesong Office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사무소)의 위스키 대(whisky net) 대장이었던 박태현은 서북청년단 부단장 김성주(金聖柱)가 이승만 대통령의해 원용덕이 살해했다고 했다. 직접 살해한 사람은 임 상사라고 했다. 박태현의 주요 직무는 북한첩보였지만, 이승만의 정치자금 등 남한 내의 정치적 동향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김성주 암살 사건은 김구 암살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치부를 파악하고 있는 김성주가 정적인 조봉암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이 증폭되자 원용덕을 시켜 김성주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김성주가 조봉암의 진영으로 합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10월 이후 북한을 점령하였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평안남도 출신인 자신을 배제하고 평안북도 출신인 문봉제를 도지사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06]

그러나 UN군은 김성주를 평안남도도지사로 임명하였다. 이것으로 김성주

504) 「민주신보」 (1952년 7월 5일).
505) 「민주신보」 (1952년 7월 5일).
506) 박태현 구술녹취 (2008년 6월 6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와 이승만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승만은 김구 암살의 내막을 알고 있는 김성주가 조봉암 진영에 있는 것이 불안했다. 이승만은 원용덕에게 김성주를 살해 할 것을 지시했다. 원용덕의 부하인 김진호(金鎭浩)는 국제공산당원 혐의와 이승만 암살 예비 죄로 체포되어 7년 구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김성주를 연행했다. 이후 김성주는 1954년 4월 17일 새벽 원용덕의 집에서 권총으로 살해되었다. 임정수(林正洙)는 재판 당시 상관의 명령에 다라 어쩔 수 없이 김성주를 직접 총살했다고 했다.[507] 1961년 9월 30일 육군중앙고등군법회 재판장 장창국(張昌國) 중장은 김성주 살인죄를 인정하여 원용덕과 그의 부하인 김진호 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508]

그런데 문제는 왜 원용덕이 김성주를 살해했느냐는 것이다.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성주는 김구암살의 배후자인 김지웅의 허위정보로 1953년 6월 25일 국제공산당원 혐의와 이승만 암살 예비 죄로 헌병총사령부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군법회의에서 7년형이 구형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쓴 영문 메모를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에게 보내 김성주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 원용덕이 김성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이승만의 지시서에는 “원 장군. 지금 감옥에 있는 김성주는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한다. 그는 외국인이 임명한 평양지사였고 우리 정부가 치안국장으로 임명한 문봉제를 죽이려 했다. … 나는 국방부장관에게도 말했지만, 당신에게도 명령한다. 신속하고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리승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509] 박태현은 이 사건의 배후에 이승만이 있다고 하면서 김성주가 살해된 것은 김구 암살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10]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 조사보고서』 도 “포병사령부 대령 이기련이 증언하기를, ‘김성주는 김구선생 암살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박사가 죽였다고 본다’ 라고 하였고, … 김성주 자신도 스스로 ‘내가 안두희를 시켜 김구를 살해한 것’ 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공언한 일”도 있다고 하였다.[511]

---

507) 「동아일보」 (1961년 2월 1일).
508) 「동아일보」 (1961년 9월 30일).
509) http://kimkoo.or.kr/01kimkoo/sub.asp?pagecode=m01s04t09c;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 조사보고서』 (1995년).
510) 박태현 구술녹취 (2008년 6월 6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상의 진술과 보고서를 통해 김성주가 김구 암살 사건에 개입하였고, 그 개입의 정도가 배후에 이승만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추정된다. 따라서 조봉암 진영에서 활동하는 김성주는 이승만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존재였고, 이것이 살해동기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원용덕과 이승만은 정적 제거를 지시하고 이를 시행할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전쟁 당시에도 나타난다. 1950년 6월 10일 현역에서 예편한 원용덕은 국군이 연패하면서 후퇴하던 7월 7일 육군 소장으로 재 임관하여 7월 27일 경북관구 사령관으로 부임하였고, 그 직을 1952년 1월 12일까지 유지한다. 대구·경북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낙동강 전선이 형성된 곳이었다. 이승만은 원용덕을 이곳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승만이 원용덕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승만과 원용덕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1953년에 발생한 반공포로 석방이다.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남한의 각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출신 반공포로 석방을 명령하였다. 같은 날 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은 18일 공보처를 통해 “본직은 단기 4286년 6월 18일 영시를 기하여 관할 지휘관에 한인 애국포로수용소 접수를 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512]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결행한 반공포로 석방을 주도한 사람도 원용덕이었다.

여순사건, 안두희 재판, 낙동강전선 형성기 경북지역 사령관, 부산정치파동, 반공포로 석방, 김성주 살해 등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승만은 원용덕을 중용했다. 이승만과 원용덕의 관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밀접했다. 이들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 성향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용덕의 정치적 성향은 부산정치파동에서 잘 나타난다. 원용덕과 이승만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를 앞세워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 협력자로 규정하여 강제함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고자 했다. 개헌 반대세력에 대한 강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개헌안에 동조하지

511) http://kimkoo.or.kr/01kimkoo/sub.asp?pagecode=m01s04t09c; 김삼웅, 『백범 김구 평전』 (서울: 시대의 창, 2014), 605.
512) 「부산일보」 (1953년 6월 20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않으면 반대편이라는 전형적인 진영논리에 따라 행동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원용덕과 이승만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냉전의 진영논리와 이승만에게서 발견되는 것처럼 이를 신념화한 종교논리라는 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여순사건 당시 원용덕 계엄사령관을 통해 여순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원용덕은 반란군은 물론 이에 협력했다고 추정되는 민간인들을 처형할 것을 지시하였다. 확실한 우리편이 아니면 반대편으로 규정되었고, 반대편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 논리가 원용덕을 통해 여순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2) 육군정보국

여순사건 당시 반군토벌전투사령부에서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대령, 정보국장 백선엽 중령, 정보과장 김점곤 소령 등이 참모로서 사령관을 보좌했다.[513] 이들은 국방부 장관 이범석과 직접 협의하여 반군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또한 정보국 특별조사대(Special Intelligence Service, SIS) 김안일과 소속 대원들이 파견되었다.[514] 당시 정보국 소속이었던 김안일도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여순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했다고 했다.[515] 『對共三十年史』는 김창룡, 김안일, 이세호, 정인택, 양인석, 박평래, 송대후 이희영 등이 광주에 내려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516] 이들은 모두 SIS 1기 교육생들로 반군과 그 협조자 색출·조사·분류를 담당했다. 김점곤은 "2기생 한두 사람하고 20명 정도가 미국식 CIC 교육"을 받았고 그 팀이 여수순천사건에 배치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반군이 체포되면 그들에게 넘겼다고 했다.[517] 김안일은 수사상황을 육

513) 사사키 하루다카, 『한국전비사 – 건군과 시련』, 329~336;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Ⅱ,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264.

514) 참고인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김안일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9일).

515) 김안일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9일); 참고인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김안일은 기독교 학교인 숭실 출신으로 전역 후 목회자로 활동했다.

516)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6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군정보국 정보국장 백선엽에게 보고했다고 했다.[518] 이처럼 수사의 문제는 육군 정보국이라는 지휘부뿐만 아니라, 각 연대 이하의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연대 소속으로 2여단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한 군인은 당시 여단사령부 정보참모와 연대 정보과의 권한이 막강했다면서, 연대에서 반군과 반군 협조자를 잡으면, 여단사령부 정보참모가 조사하여 사형 결정"을 내렸고, "법절차 없이 여단장 결재 후 사형에 처했다."고 했다.[519] 4연대 본부 정보과 작전정보 근무자였던 한 군인은 여순사건 당시 반군 포로를 취조했는데, 포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농민들이 많았고, 이들은 실제 포로들이라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순천에 CIC(SIS-인용자)와 HID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520] 보성에서 별량면을 통해 순천에 진입한 4연대 1대대 4중대 소속 군인은 "당시 중대마다 2명 정도씩 정보과나 특무대(SIS-인용자) 요원을 배치하여 정보 수집"했고, 정보에 따라 토벌작전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군 협조 혐의 민간인을 조사와 재판 없이 총살하거나 일본도로 참수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521]

3연대 2대대 소속이었던 참고인 박충식은 "순천 진압 후 헌병대와 CIC가 반군 협조 혐의 민간인을 색출하여 처리"하였다고 했다.[522] 4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와 5사단 사령부 법무부 소속 군인은 "경찰 사찰계와 군 방첩대·정보과·헌병 정보수사요원들(사복 차림)이 반군 협조 혐의자를 색출하여 순천경찰서 유치장(방 4개 정도 규모)에 구금시키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523] 3연대 2대대 5중대 특무상사는 "학교를 비롯한 주둔지로 주민을 연

517) 참고인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518) 김안일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9일). 김안일은 수사상황을 백선엽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하우스만과 정보 공유는 했지만 그것이 정식 보고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반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직접 심문했다. 그 과정에서 그로부터 국군 내 남로당 계열의 명단을 입수하였다.
519) 참고인 박희선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7일)
520) 참고인 전정용 진술조서 (2008년 8월 27):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267. 당시 CIC의 정식명칭은 특별정보대(SIS)이다.
521) 참고인 조규성 진술조서 (2008년 10월 21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74.
522) 참고인 박충식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10.):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66.
523) 김형본 진술조서 (2008년 10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행하거나 소집하면, 전주 및 남원 특무대 하사관이 와서 전기 고문하며 취조했다”고 하면서 “특무대원과 중대장 및 소대장이 협의하여 총살 대상자 결정한 뒤 몇 십 명 씩 검은 천을 눈에 두르고 주둔지 뒷산에서 구덩이를 파고 사살했다”고 했다.[524] 3연대 2대대(조재미) 7중대 소속이었던 한 군인은 “순천 진압 후 헌병대와 CIC가 반군 협조 혐의 민간인을 색출하여 처리했다”고 했다.[525] 순천 남국민학교에 주둔했던 5단 예하 4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 소속 한 군인도 “마을 이장 등이 국군에게 반군 협조 관계를 제보하면 정보과에서 조사”했다고 했다.[526] 3연대 2대대 5중대 4소대 참고인 유형근은 국군 제3연대장 함준호가 “여순사건 당시 연대 및 대대 정보과 장교나 특무대를 통해 민간인을 연행하거나 취조하도록 명령하였다.”고했다. “대대 정보과와 특무대는 군주둔지로 연행된 민간인을 직접 취조·고문하였으며, ‘즉결’ 대상자를 결정하였다.”고하면서 정보과와 특무대에 의해 “‘즉결처분’ 대상자가 결정되면 대대장을 거쳐 연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즉결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대대장은 각 중대장과 소대장에게 사살을 명령했다.”고했다.[527]

이상의 진술을 통해 육군정보국 첩보과 및 SIS와 각 연대에 파견된 정보국 및 SIS 부대원이 반군협력 민간인을 색출·조사·분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특무대, 방첩대, CIC로 표현된 SIS(특별정보대)의 주요 업무는 색출 대상에 대한 규정, 민간인 반군협력자 색출 및 수사, 처형될 자에 대한 분류를 담당했다. 이러한 사례는 2, 3, 4, 15연대에서 발견되었다. 사례들은 각 연대에 파견된 정보과 및 SIS가 반군은 물론 이에 협조하였다고 추

269-270에서 재인용.

524) 참고인 한경수 면담보고서 (2008년 11월 14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300에서 재인용.

525) 참고인 박충식 통화보고서 (2008년 11월 10.):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66에서 재인용. 4연대 정보과 소속 군인들도 민간인 분류작업을 담당했다. 4연대본부 정보과 소속으로 일등중사 참고인 전정용은 4(20)연대가 순천 풍덕동 옛 펄프공장에 주둔하면서 반군 협조 혐의자 색출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참고인 전정용 진술조서 (2008년 8월 27),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 사건」, 267.

526) 참고인 임홍택 진술조서 (2008년 10월 15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71-272에서 재인용.

527) 참고인 유형근 면담보고서 (2008년 1월 18일), 진실화해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19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정되는 민간인들을 수사하였고, 연대장 및 대대장과 함께 민간인들에 대한 분류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당시 첩보과와 SIS를 담당자는 각각 김점곤과 김안일이었다. 김점곤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의 기독교인이었고, 김안일은 평양 숭실 출신으로 당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특히 김안일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본격화된 숙군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안일과 SIS 1기 동기생인 이희영은 “초창기에는 김안일 과장이, 그, 직접 숙군들 장교들 잡아오고 취조하고 뭐 다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라고 하였다.[528] 즉 여순사건 당시 반군 및 동조자 수사를 담당한 것은 SIS의 김안일 과장과 소속 대원들이었다. 김안일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여순사건 핵심인물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이재복 목사를 직접 취조했다.[529] 이재복은 평양신학교로 알려진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와 도시샤(同志社)에서 신학을 전공한 장로교 목사였다.[530] 그래서 김안일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워 이재복을 설득하려 했다. 김안일이 어떤 입장에서 반군과 이에 협력한 민간인들을 수사했는지 파악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재복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잊지 않았다.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순사건의 반군과 협력 민간인들을 수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각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활동

한편 각 지역 기독교인들도 현장에서 반군 협력자를 분류하는데 참여하였다. 여순사건 당시 반군 협력자 색출은 주로 경찰·우익요원·청년단원 등 반군 치하에서 피해를 입었던 단체나 사람들이 담당했다. 그 속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순천중학교 학생연맹 출신의 황용운은 “목사, 전도사 등 이런 사람들이 민족진영사람들을 가려내고, 가려진 그 사람들보고 반

528) 이희영 구술녹취록, (2012년 10월 17일).
529) “金昌龍이 살리자고 했다: 朴正熙 수사책임자 金安一 당시 특무과장,” 「월간조선」1989년 12월호, 329.
530)「朝鮮人留學生 名簿: 1988－1945年」 이재복은 1940년 4월 8일에 도시샤(同志社) 문학부에 입학하여 1942년 9월 21일에 졸업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군에 가담한 (사람들을-인용자) 색출해내라 했어요. 그들이 손짓을 하면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동천 건너 봉화산 골짜기에 데려다가 무참히 죽였어요." 라고 했다.[531]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수시 율촌면에서도 발생했다. 율촌 초등학교 인근에서 목회를 하던 차남진 목사는 율촌면을 진압한 국군들이 "동리 사람들을 모두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였다"고 한다. 당시 수백 명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12연대 소속 군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국군은 군중을 향하여 "목사님은 앞으로 나오시오"라고 하였다. 차남진이 앞으로 나가자 연대장인 국군 대령이 악수하면서 "고생하였다"고 위로 하였다. 또 차남진에게 교인들을 골라 따로 세우라고 하자 차남진은 교인들을 줄 세웠다. 그후 애국자를 골라내었다. 남은 사람들 중에 반란군 협력자들 골라내었다. 그중 반란군 보안서장이었던 유제형이 나오게 되고, 십수 명을 이어서 골라내었다. 이를 즉결처분하려고 하자 차남진은 앞으로 나가 국군 장교를 붙잡고 즉결처분을 간곡히 만류하였다.[532]

차남진 목사는 당시 현장 지휘자를 12연대장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계급을 대령이라 하였다.[533] 그가 언급한 것처럼 즉결저분 시도가 있었다. 따라서 반군 협력자를 분류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분류작업에 참여했던 것이다.

14연대 의무병이었던 곽상국은 14연대 반란 발생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돌산 봉양에 김종원과 부대원 약 20명이 들왔다고 한다. 당시 "김종원이 마을 보리밭에 주민 집결시키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분리시켜 기독교인은 귀가시키고 비기독교 주민들(김경배, 정순태, 이영만 등)을 구타하면서 죽포와 여수로 연행"했고, "피연행자들 전원 귀가"시켰다고 한다.[534] 기독교인이냐 비 기독교인이냐가 분류의 기준이 된 것이다. 주민 중 가장 확실한 기독교인을 통해 누

531) 참고인 황용운 면담조서 (2008년 7월 10일).
532) 김남식, 『사형수의 전도자 차남진 박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126, 102.
533) Ibid., 126-127.
534)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심의·의결 여수지역 여순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6월)(집단 희생국 소위), 18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선행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여순사건 당시 여수 서국민학교에 진압군에 의해 구금되어 있었던 김정인(金貞仁)은 1948년 10월 말경 12연대가 남산동 산에서 철모에 흰 띠를 두르고 남산동과 군자동 등지로 진입한 후 “남산동, 군자동 등 거주 주민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서국민학교로 집결”시켰다고 한다. 천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고 좌익색출을 하였는데 분류된 “주민들이 진압 군경에 의해 교사 뒤편 넓은 밭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 끌려간 직후 총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진압군이 우익계 학생과 기독교인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좌익 색출 지시”했다고 했다.[535]

황용운, 곽상국, 김정인, 차남진은 각각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반군 협력자를 분류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했다. 특히 여수 율촌국민학교와 서국민학교의 사례를 통해 12연대가 반군 협력 혐의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목회자와 기독교인들 최소 2회 이상 동원하였고, 기독교인들은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 다른 지역에서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반군 협력자들을 색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진압군은 가장 먼저 현지 주민 중 가장 확실한 자기편의 사람들을 분류하였다. 이어 그들로 하여금 혐의자들을 지목하게 했다. 개인적 감정에 의해 지목되건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판단 오류로 지목되건 일단 지목되면 분류되었다. 분류의 기준은 반군 협력 여부, 즉 빨갱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냉전의 논리를 기준으로 진영 구분을 하고 분류를 통해 구별이 된 민간인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제거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확실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 진압군은 분류의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켰고, 기독교인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협력하였다. 진압군과 기독교인들은 반군 협력자 적대라는 공통된 논리, 즉 공산주의 적대를 근거로 한 진영논리로 주민들을 분류한 것이다.

3.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종교 논리

대구10월사건이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좌익진영과 자유민주주의를 중심

535) Ibid., 21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으로 한 우익진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여순사건은 이러한 진영 구분이 명확하게 현실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적대를 지침으로 반군과 반군 협력자를 제거한다는 국가권력의 정책으로 토벌군이 조직되었다. 그러므로 토벌군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목표는 반군은 물론 이에 협력하였다고 추정되는 민간인들을 색출, 수사, 분류하여 제거하는 것이었다. 정부와 토벌군은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진압군의 진압논리와 정책에 동조하였다. 기독교인들은 토벌군 사령관, 육군정보국 첩보과 및 SIS 등 핵심 지휘명령체계 안에 있으면서 반군과 이에 협력한 민간인 처리를 주도했다. 특히 이들을 수사하여 분류하거나 처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각 지역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반군 협력자를 색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사탄의 진영, 적룡, 붉은 마귀 등으로 규정하였다. 교계에 널리 퍼져있는 이러한 종교적 논리가 여순사건에 참여한 기독교 출신 토벌군과 이에 동조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정당화하였고, 이에 근거해 이들은 국가권력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 있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Ⅴ. 제주4·3사건과 기독교인의 활동

1. 제주4·3사건의 배경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과 남로당 제주지부의 조직적 위기에 따른 단선·단정 반대 운동은 제주4·3사건으로 이어졌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는 1947년 3·1절 당일 경찰의 발포로 인한 시위군중의 희생사건, 제주도민들의 파업과 단선·단정반대, 이에 대한 미군정과 경무부의 강경진압정책으로 발생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4.3사건의 배경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 강경진압정책은 미국무부의 대한정책(NSC8)에 근거한 미군정의 진압방침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NSC8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제주도 주민의 반경찰활동, 단정·단선으로 인한 남로당 제주지부의 조직적 위기와 무장투쟁, 이에 대한 미군정과 경무부의 강경진압정책이 제주4.3사건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3사건 발생 초기 미군정장관 딘(William Dean) 소장과 조병옥의 강경진압 정책, 5·10선거 직후 하지의 조기진압 정책, 그리고 1948년 말 이승만 대통령의 발근색원 지시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 요약하면, 경찰의 가혹행위와 주민의 반경활동 →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와 단선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 남한의 단선·단정을 통한 북한 및 소련 공산주의 봉쇄 → 고립된 남로당 제주지부의 무장투쟁 → 강경진압을 통한 선거 보장 → 재선거를 위한 조기진압 → 미국원조를 위한 대통령의 발근색원 지시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주도 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발생했다.

1) 3·1절 발포사건과 제주도민의 파업

경찰의 3·1절발포사건과 이에 항의하는 제주도민의 파업을 강경 진압이 제주4·3사건으로 이어진 첫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4월 1일 시점에서 4·3사건을 분석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서는 3·1절 사건을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4·3사건의 도화선으로 보았다.

> 1947년 3월 1일 경찰이 제주읍에서 일단의 좌익 3·1절 행사 참가자들을 공격하여 몇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제주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 일으킨 소요들은 제주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의하여 비교적 느슨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복을 하였고, 1년여에 걸친 유혈폭력이 시작되었다.[536]

1947년 3월 8일, 미군정은 3·1절 기념일 발포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카스티어(James A. Casteel) 대령을 책임자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제주에 파견하였다.[537]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카스티어는 3월 13일 제주를 떠나면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파업의 근본 원인은 3월 1일 폭동 당시 경찰의 행동에 대한 증오심 때문인 것 같다. 최근 남로당이 이러한 증오심을 주민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3월 14일자 미 6사단 정보보고서는 카스티어의 조사결과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3월 11일, 강인수 감찰청장은 카스티어의 조사를 통해 이 총격사건이 "무 사려한 발포"였다면서 "도립병원 앞 발포사건에 대하여는 대단히 미안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538] 이로서 3·1절 당시 경찰의 발포 사건은 경찰의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파업은 경찰의 발포를 규탄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경찰발포사건을 경찰서 습격사건이라고 고집하면서 강경대응을 했다. 목포 경찰 100명이 제주로 들어왔고, 제주 경찰은 3월 2일 하루만에 3·1절 행사 위원회 간부와 중학생 25명을 검거했다. 남로당 제주지부는 3·1절 발포사건에 대해 "평화적인 항의의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써 전도 총파업"을 결정하여 3월 7일 각 읍·면 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란 장문의 지령서를 하달했다. 이 지령서는 3·1사건 투쟁위원회와 3·1사건 대책위원회를 읍·면·리·구에 구성할 것과 "3월 10일 정오를 기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3월 10일부터 166개 기관·단체

53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53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479, March 13, 1947; 「濟州新報」 (1947년 3월 12일).
538) Hq. 6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12, March 14, 1947; 「濟州新報」 (1947년 3월 14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41,211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이 시작되었다.[539] 이 파업에 관공서와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의 직장 95% 이상이 참여하였다. 미군정은 총파업이 경찰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경진압을 선택했다. 유재흥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의 군정 수뇌부들이 전원 외지사람들로 교체됐고, 육지에서 온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원 등이 파업 주모자를 검거했다.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4·3 발발 직전까지 2,500명이 구금됐다. 테러와 고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1948년 3월에는 일선 지서에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직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지부 신진세력들은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무장투쟁을 결정하였다.

제주4 · 3사건은 처음부터 내부반란에 의한 정부 전복이라는 의도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무부는 반 경찰(反 警察) 활동을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반란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누가 그리고 왜 제주4 · 3사건을 이렇게 규정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이 사건의 발생배경과 초기 미군정과 경무부의 대응논리와 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제주도 남로당의 단선 · 단정 반대

제주4 · 3사건 두 번째 배경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조직 노출과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남로당 제주지부의 판단 때문이다. 5 · 10선거를 통해

539) 이운방, 「4·3사건의 진상」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햄수다』, 한울, 1989, 208쪽에 수록):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2003), 113에서 재인용. 당시 대정면당의 조직부장 李承晋이 파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유격대 총사령관 金達三이었다; 濟州道警察局, 「제주경찰사」 (1990), 289-290;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3·1사건 대책투쟁에 대하여」, 1947. 3. 7. (제주4·3연구소, 『제주항쟁』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189~195). 직능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청을 비롯한 군·읍·면사무소 등 23개 기관 515명, 제주농업학교 등 중학교 13개교 교직원·학생 3,999명, 제주북교 등 국민학교 92개교 35,861명, 제주우체국 등 우체국 8개소 136명, 제주여객 등 운수회사 7개 업체 121명, 식산은행 등 은행 8개소 36명, 남전 출장소 등 15개 단체 542명. 그러나 이 기록에도 경찰관 파업 숫자는 빠져 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남로당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 당 조직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 노출은 선거 이전부터 발생했다. 경찰은 1월 22일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린 공산주의자들의 회의장소를 급습하여 106명을 검거했고, 이 날부터 26일까지 추가로 115명을 검거했다.[540]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결정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구체화 되자 남로당은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반대 등 9개항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2·7구국투쟁을 전개했다.[541] 이에 따라 2월 9-11일, 제주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17건의 폭동과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6개의 경찰지서가 습격당했고, 경찰 2명이 심하게 구타당했다. 반면 경찰은 이를 계기로 3일 동안 약 290명을 체포했다.[542] 그리고 1948년 3월 경찰에 연행된 조천중학원 2학년 학생 김용철(金用哲)과 모슬포지서에 연행된 대정면 영락리 양은하(梁銀河)가 3월 6일과 14일에 각각 고문으로 사망했다. 3월 말에는 서청 경찰대에 붙잡힌 한림면 금릉리 청년 박행구(朴行九)가 곤봉과 돌로 찍힌 상태에서 총살당했다.[543]

1948년 2월 신촌회의에 참석하고 무장투쟁에 참여했다가 일본으로 피신한 이삼룡은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무장투쟁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어 그는 당시 무장투쟁에 대한 "중앙당의 지령[544]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

---

54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52, February 6, 1948; No. 753, February 7, 1948. 검거 전 1948년 1월 중순경 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 김생민은 경찰에 검거되자 전향했다. 그의 정보로 경찰은 1월 22일 조천면 신촌리에 있는 제주도당 조직부 아지트를 급습했다. 조직부장은 김달삼이었다.

541) 大檢察廳 公安部,『左翼事件實錄』第1卷 (1965), 372.

542)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781, March 12, 1948.

543) 「濟州新報」, (1948년 3월 12일).

544) 박갑동,『박헌영』(인간사, 1983), 198~199; 朴甲東(84세. 日本 東京 千代田區,『박헌영』저자, 2002. 7. 11.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63.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의 근원은 박갑동(朴甲東)의 글에서 비롯되었다.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냈다는 박갑동은 1973년부터 중앙일보에 연재된 「남기고 싶은 글」에서 4.3 사건의 중앙당 지령설을 주장했다. "중앙당에서는 이 사건이 터질 무렵 당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과 군내의 프락치 책임자 이재복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소위 현지 집중지도로써 군사활동의 확대를 기도" 했으며, "폭동의 두목 김달삼의 장인이며 중앙선전부장 강문석을 정책 및 조직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현지로 보냈었다." 고 하였다. 이후 박갑동은 이 글을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내 글을 신문에 연재할 때 외부에서 다 고쳐서 그렇게 된 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삼용(79세. 日本 東京 荒川區,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 2002. 7. 11. 채록) 증언. 남로당 제주도당 정치위원이었던 이삼룡은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고, 제주도 자체에서 결정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정한 것”이며 “악질 경찰과 서청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지 경비대와 미군에게 대응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였다.[545]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는 “도상위는 3월 15일경 도(道) 파견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였다고 하면서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단정 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시간에 전 도민을 총궐기시키는 무장 반격전을 기획 결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546]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의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함으로 4·3사건이 시작되었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와 단선·단정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주장했다. 무장대의 전단지에는 “친애하는 경찰관들이여! 탄압이면 항쟁이다.”라고 하였다.[547] 또한 무장대가 도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는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548]라고 기록하고 있다. 남로당 제주지부와 주민들의 의도는 국가전복이라기 보다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했으며,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수준이었다.

3) 미군정과 경무부의 진압지침

제주4·3사건의 세 번째 배경은 미군정과 미승만 정부의 진압정책이다. 이 정책은 미국무부의 대한정책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단독선거를 통해 남한에 자립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과 소련공산주의 팽창을 봉쇄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남로당 제주지부의 단선·단정 반대운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白善燁,『實錄 智異山』(고려원, 1992), 157; 김점곤,『한국전쟁과 남노당전략』(博英社), 142-160. 백선엽과 김점곤도 4·3사건에 대한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설을 부정하였다.

545) 李三龍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58에서 재인용.

546)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文昌松 편),『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1995, 16-1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61에서 재인용. 3월 28일 점검 결과 무장대는 8개 읍면에서 유격대 100명, 자위대 200명, 특경대 20명 등 모두 320명이었다. 무기는 99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 그리고 죽창이었다.

547) 김봉현·김민주,『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文友社, 1963), 84-85.

548) Ibid., 8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립정부를 수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이에 동조하는 모든 행위는 내부 반란세력에 의한 국가전복 행위로 규정되었다. 초기 4·3사건 진압을 담당했던 조병옥 경부부장이 4월 16일에 발표한 「도민에 고함」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 친애하는 제주도의 동포여러분! 우리의 동경하던 자주독립이 목첩(目睫)에 박두한 이 때, 무모한 폭동을 일으켜 여러분의 골육인 건국의 일꾼을 살상하여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의 재산을 파괴하고 독립을 방해함은 그 무슨 일인가. 여러분은 민족을 소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 하는 공산분자의 흉악한 음모와 계략에 속은 것이다. 현명한 여러분은 총선거가 조선독립의 천재일우의 호기이고 그 완성의 유일한 방도임을 인식하라. 1948년 4월 14일. 경무부장 조병옥.[549]

제주4·3사건을 건국을 방해하는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 폭동을 민족을 소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는 공산분자의 음모라고 했다. 미군정 경무부는 제주4·3사건을 내부 반란세력에 의한 국가전복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진압정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내부반란세력에 의한 국가전복은 미국의 대한정책인 NSC8에서 예측되었던 핵심 사안 중에 하나였다.

1948년 3월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4월 2일 미국의 대한정책으로 채택된 NSC8의 불분명한 내용은 1949년 말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된 NSC48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류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열도를 소련의 공격에 대한 제1방어선인 동시에 제1공격선으로 두었다.[550] 그러면서 대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1) (내부의) 공산주의의 확장 위험을 통제하고 (외부적으로) 소련 지배하에 있는 공격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야기 되는 위력을 봉쇄(containment)할 정도로, (2) 그리하여 궁극 적으

549) 「제주신보」 (1948년 4월 8일, 4월 18일).

550)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Containment: Document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71-84: 도진순,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의 성립과 분화," , 81 참조; NSC8: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FRUS* 1948, Vol. Ⅵ, pp.1164, 116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로 전국을 민주주의적 기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551]

NSC48의 이러한 입장은 NSC8과 이후 한반도의 상황발전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론이었다. NSC8은 "한국과 관련된 미국정책의 포괄적 목표"를 담고 있다. 그 목표는 한국이 "가능한 한 조속히 … 통일되고 자치적인 주권국가"를 건설하는 것, "독립적이며 민주적 국가건설의 필수토대인 건전한 경제·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원조이었다. 그런데 이 원조보다 즉각적인 목표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에서 잔류 미 점령군을 철수하는 것"이었다.[552] 최종 철수일은 1948년 12월 31일이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 '주한미군과 기지를 유지할 전략적 이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는 책임 있는 군사당국의 판단(합참의 견해 - SANACC 176/38을 참조)"에 의한 것이었다. 철수로 생긴 남한의 안보는 "실행가능 한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지원조건을 설정"하는 것이었다.[553] 즉 "남한에서 예상했던 정부를 수립한 후, 미국은 경제원조의 확대와 '북한 혹은 여타 세력의 공공연한 침략행동을 제외한 여타에 대해서도 남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토착무장력의 훈련·장비보급을 포함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원조계획을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북한 혹은 여타 세력의 공공연한 침략행동을 제외한 여타에 대해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NSC8은 이것을 "외부공격, 혹은 내부 (국가-인용자) 전복"으로 표현하고 있다.[554]

---

551) Thomas H. Etzold and John Lewis Gaddis, *Containment: Document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56: 도진순,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의 성립과 분화," 82에서 재인용.

552)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1;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3월 22일, 970.

553)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8-12;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3월 22일, 975-976.

554)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편 NSC8은 “한국에서의 소련의 목표는 소련이 한국 전 지역을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다.[555] 또한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 지역의 지배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556] 이것은 “소련의 지배력이 한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련의 정치·전략적인 지위를 증대”시키는 반면에 “이 두 지역과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미국무부와 미군정은 NSC8이 예측하고 있는 미국 안보에 불리한 상황이 5·10총선거와 이를 통해 수립된 단독정부 통치 기간에 “외부공격, 혹은 내부 (국가-인용자) 전복”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1948년 4월 2일 이전부터 미국은 내부세력의 국가전복을 예측하고 있었고 이를 대한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할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반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것을 예측했다. 일본에서의 미국 장악력 축소는 태평양방어선에 영향을 주어 자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반도에서의 미군을 철수하되 남한에 자립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 소련의 팽창을 방어하고자 했다. 문제는 내부반란세력의 국가전복이었다. 미국무부와 군정은 5·10선거에 반대하는 행위를 자치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았고, 따라서 제주 4·3사건처럼 자치정부수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내부반란세력의 국가전복 행위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5월 20일경 미군정의 딘 군정장관은 미 6사단 예하 광주 주둔 제20연대장인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제주도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하도록 하면서 6월 23일로 예정된 재선거 이전에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라는 특명을 내렸던 것이다.[557] 브라운은 제주 4·3 사건의 원인이 “경찰의 잔악성과 비효율적인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9-10;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3월 22일, 970.

555)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7.

556) Ibid., 5.

557)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본도(제주도-인용자)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비하면 지엽적인 원인”이라고 하였다.[558] 미군정은 실패한 2개의 선거구에서의 재선거를 통해 확실한 정부수립을 보장하고자했다. 이에 따라 브라운 대령에게 제주도 반란세력을 조기에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브라운이 말한 제주도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은 무엇인가? 브라운은 그것을 총선 무산과 이에 따른 남한의 정부수립 저지, 즉 단정저지가 공산주의자의 계획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바로 이지점에서 미군정과 이승만의 정책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1948년 4월 1일, 남한 총선거를 앞두고 “남북회담 문제는 세계에서 소련정책을 아는 사람은 다 시간 연장으로 공산화 하자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559] 단정을 막아 보려는 김구의 남북회담을 총선거 연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소련의 공산화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4·3사건 초기진압을 책임진 경무부장 조병옥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다. 그는 5·10선거 3-4주 전에 “反民族 非國民인 共産徒輩는 … 민중을 기만 선동하고 선거사무소와 경찰서를 습격”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는 “모스코바의 지령에 驅使(구사)”된 “국가의 반역자”의 폭동이라고 했다.[560] 미군정, 군정 치안 책임자인 경무부장, 유력정치인 이승만 모두 총선 연기를 주장하는 김구를 비롯한 남북협상파와 단선·단정 반대하는 남로당을 소련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국가반란세력 동조행위로 규정했다. 문제는 경찰의 가혹행위에 분노한 반 경찰활동도 함께 묶어 남로당의 노선에 동조하는 협력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우리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전형적인 진영논리였다.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이 진영논리와 이에 근거한 진압지침은 NSC8, 미군정, 이승만 정부 정책의 근거임과 동시에 토벌지침이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 주민들은 적으로 규정되어 배제·제거되었다.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 213에서 재인용.

558)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 216에서 재인용.

559) 이승만, “대세판단에 몽매(1948. 4. 1),” 『독립노선의 승리』 226.

560) 조병옥,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 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러므로 제주도 4·3사건의 진압정책에 나타난 지침과 지시내용은 미국의 대한정책인 NSC8에 나타난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한 봉쇄, 즉 외부공격에 대한 방어와 내부반란세력에 대한 확실한 제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 적대를 기조로 하는 냉전의 논리였다. 바로 이러한 정책지침은 총선거 관철과 이를 통한 남한단독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이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을 반란세력으로 규정하여 강경진압 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2. 사건의 전개

1) 3·1절 발포 사건과 4·3사건의 발생

1947년 3·1절 기념일 경찰의 발포와 이에 항의하는 제주도민의 총파업, 1948년 2월 단선·단정 반대운동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제주도 주민들의 반감에 남로당 제주지부 조직붕괴위기 의식이 더해지면서 4·3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무장대의 무력 충돌이 반(反)경찰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4·3사건을 제주도 전체를 공산화 하겠다는 국가반란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희생자만 3만여 명에 달했고, 이중 절대다수가 무장대의 활동과 무관한 주민들이었다. 따라서 희생사건이 이렇게 증폭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47년 3월 20일자에 작성된 미 24군단 주간정보요약서는 "제주도는 인구의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좌익분자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561] 1947년 3월 12일 경무부 차장 최경진(崔慶進)도 기자들에게 제주도 "주민의 90%가 좌익색채"라고 했다.[562]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입장에서 제주도민을 좌익색채라고 하였는가?. 박경훈에 이어 1947년 4월 10일 제주도지사로 임명된 유해진(柳海辰)에 대해 제주군정청 법무관 스티븐슨(Samuel J. Stevenson) 대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56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79, March 20, 1947.
562) 「한성일보」 (1947년 3월 13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제주도지사는 심지어 한독당이나 독립촉성회의 사소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동적으로 좌익분자로 가정하는 극우의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다. 그는 … 온건 좌익과 일부 중도파들을 더욱 좌파로 몰고 갈 것이다.[563]

제주 주둔 미 방첩대(CIC) 대표 메리트(Henry C. Merritt)가 넬슨 중령에게 한 보고에 따르면 "유 지사는 광복청년회와 대동청년단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그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강력한 좌익분자로 분류"한다고 하였다.[564] 위에서 언급된 '독립촉성회'는 이승만의 정치조직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국민회)이다. 미주라성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1948년에 발행한 『해방죠션』에서 국민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만일에 그 세력 밋흐로 드러가지 안코 그 독직적 힝사와 봉건적 틱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잇스면 좌익이라고 혹은 공산당이라고 지명하야 반박하고 심지어 테로단으로 탄압 ᄉᆡ지하며 군경과 경찰은 극우파의 총직를 동경하니 극우파의 정칙을 반대하고는 견대기 어려울만치 되어서 필경에 좌경으로 가는 사람이 잇고 그리하야 남조션에 만치 안튼 공산당원의 수효를 늘이여주고 잇스며 ….[565]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와 우리 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 즉 냉전의 진영논리로 공산주의자는 물론 자신과 입장이 다른 모든 사람을 좌익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민의 70%, 혹은 90%를 좌익으로 분류한 것이다. 조병옥 경무부장도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3·1절 발포사건과 이어 벌어진 파업사태를 바라보았다. 그는 1947년 3월 14일 제주

---

563) "Opinion of Political Situation in Cheju Do as of 15 November 1947," November 21, 1947,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36-137에서 재인용.

564) "Governor Ryu, Hai Chin, Activities of," November 21, 194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37에서 재인용.

565) 미주라셩과 하와이재미한국련합위원회 집행부, 『해방죠션』, 1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도를 방문하여 3·1절 이후 경찰에 항의 하는 파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기만적 선전과 파괴적 모략으로써 제주도의 사회를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 근본적 요소를 제거할 근본방침도 수립되어 있다. 도정 책임자와 협의하여 그 실현에 옮기겠다. … 폭동과 같은 무질서의 행동같이 조선건국의 전도를 위험케 하는 것은 없다. 폭동의 빈발은 조선민족의 정치적 자치력과 도덕적 자율성이 결여함을 세계의 이목 앞에 폭로시켜 우리의 위신과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동포여, 반성 자중하여 일상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건국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566]

경무부장은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파업을 기만적 선전과 모략으로 조선민족의 자치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세계에 폭로하여 조선의 건국을 위험하게 하는 폭동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폭동의 근본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제주도청을 방문한 그는 도청 직원들에게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불온 “하며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567] 그가 말한 ‘자치력’은 미국무부의 남한만의 자립정부를 의미하고, 이승만의 표현대로라면 이것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통한 즉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무부의 정책은 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남한에 자립 정부를 수립함으로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공격과 외부의 사주를 받은 내부 반란에 의한 국가전복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48년 1월에 작성된 미 24군단 정보보고서는 다른 의견을 내 놓는다. 제주도의 “좌익분자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익인사들은 ‘빨갱이 공포’를 강조하며 주로 청년단체와 공직에서 좌익인사들의 척결을 통하여 섬을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568] 이들은 빨갱이 공포를 이용하여 경찰과 우익단체의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파업관련자는 물론 이와 관련이 없는 주민들을 검속하였다.

---

566) 「濟州新報」 (1947년 3월 16일).
567) 金亨中(88세. 제주시 이도1동,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 2002. 9. 13.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22에서 재인용.
568)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23, January 23, 1948: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46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경무부장은 응원경찰대가 충원된 1947년 3월 15일부터 파업 주모자를 검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569] 제주도 총파업 투쟁위원회 간부들의 검거를 시작으로 3·1절 행사를 주도했던 민전 간부들과 남로당 간부들도 연행됐다. 3월 18일 강인수 제주경찰감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거된 사람이 약 200명이라고 했고, 4월 10일엔 검거된 500명 가운데 군정재판에 송치된 자가 199명, 송치 예정자가 61명으로 결국 군정재판 회부 건수는 도합 260명이라고 했다.[570] 대량 검거는 가혹해위로 이어졌다. 1947년 4월경부터 취조과정에서 경찰들은 연행자들을 고문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찰의 청취서는 사실무근이다. 고문이 심하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다시피 되었지만 이런 자백을 한 바는 없다"거나 "말도 듣기 전에 구타 고문"을 했다고 했다."[571] 결국 1948년 3월에는 일선 지서에서 김용철 등 3명이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1947년 3·1사건부터 1948년 4·3 사건 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약 2,500명이 검속됐다.[572]

한편 우익단체와 경찰이 대폭 증가되었다. 해방 직후 제주도에는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 제주도지부(위원장 김충희)와 광복청년회 제주도지회(단장 김인선) 등이 있었다. 1947년 12월 21일 대동청년회 제주도단부 임시대회를 열어 단장에 김인선을 선임하고 김충희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당시 단원 수는 약 1천 명이었다.[573] 또한 서북청년회 제주도본부(단장 장동춘)가 11월 2일 정식 결성되었다.[574] 서청 단원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47년 3·1사건 직후부터인데 처음에는 태극기나 이승만 사진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1947년 하반기부터는 경찰, 행정기관, 교육계에서 근무하는 단

569) Hq. 7th Inf Div, G-2 Periodic Report, No. 59, March13, 1947;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 3월 14일). 목포항을 떠난 전남 경찰 122명과 전북 경찰 100명은 다음날 제주항에 도착. 3월 18일, 경기 경찰 99명이 파견되었다. 이 경찰들과 2월 말 제주에 온 충남·북 경찰 100명을 합치면 응원경찰은 총 421명이었다.

570) 「濟州新報」 (1947년 3월 20일, 4월 12일).

571) 「濟州新報」 (1947년 4월 22일, 5월 10일).

572) 홍한표, "動亂의 濟州島 이모저모," 「新天地」, (1948년 8월);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 Governor Ryu, Hai Chin of Cheju-do Island," March 11, 1948, Report of Special Investigation by Lt. Colonel Lawrence A. Nelson, USAMGIK: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28에서 재인용.

573) 「濟州新報」 (1947년 12월 24일);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688, November 19, 1947.

574) 「濟州新報」 (1947년 11월 8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원들이 늘어났다. 4·3사건 발발 이전 제주도에는 제주읍 300명을 포함해 모두 760명이 있었다.[575] 4·3사건이 발생하자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우익청년단,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을 비롯한 본토 경찰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도내 지서를 습격함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경무부장은 4월 14일자로 「도민에게 고함」이라는 선무문에서, 이사건의 본질을 "민족을 소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분자의 흉악한 음모와 계략"이라고 했다.[576] 음모의 정체는 5·10 총선거를 저지하고 자립정부수립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이 경찰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주민들의 반감에 의해 촉발되었다기보다 외부의 사주를 받은 남로당 제주지부의 국가전복 활동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목표가 5·10 총선거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루기 위해 무장대를 강경진압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1948년 7월 23일 발표한 "제주도 사태 해결에 관한 견해"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제주도에는 약 1,000명의 폭도들이 있으며 지지자는 6만여 명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는 거의 모든 제주 도민이 폭도 가운데 자신들의 가족, 친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577] 조병옥은 무장대와 이를 지지하는 6만 여명의 지지자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제주도민 전체가 폭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제주도 주민들을 무장대의 협조자이므로 강경진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이용되었다.

미군정은 4월 5일 전남 경찰 약 100명을 파견하는 동시에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해 사령관으로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金正浩)를 파견하였다.[578] 4월 10일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을 제2차로 파견했다.[579] 경무부장은 서북청년단원들을 대거 투입하였다. 서북청년단장 문봉제는 잡지 「북한」과의 인터뷰에서 "4·3사건이 나자마자

575) 金奉鉉·金民柱, 『濟州島人民들의 4·3武裝鬪爭史』, 日本 文友社, 1963, 5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44에서 재인용.
576) 「濟州新報」, 1948년 4월 8일·4월 18일.
57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경무부장 조병옥의 제주도 사태 해결에 관한 견해" 1948년 7월 23일 『제주4 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 ③]주한미육군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FIK 54-58.
578) 「獨立新報」 (1948년 4월 7일); 「濟州新報」 (1948년 4월 10일).
579) 「東光新聞」 (1948년 4월 13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조병옥 경무부장이 나를 불러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500명을 보내달라기에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580] 김정호 비상경비사령관은 도착 즉시 "오후 8시 이후 전도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사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581]

딘 군정장관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다. 그는 4월 17일 제주주둔 미군 제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에게 경비대 9연대의 작전통제권을 부여하였다. 4월 18일에는 20일 제주도에 도착하는 추가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그에게 부여하면서 "제주도의 폭도들을 진압"할 것과 "소요집단의 지도자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는데 모든 노력"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582]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은 맨스필드는 제9연대와 육지에서 파견된 제5연대의 1개 대대를 지휘하면서 사건을 진압했다.

딘 군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와의 협상을 시도했다. 그런데 하지 장군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자 이 협상은 무산되었다. 미 24군단 작전참모 타이센(A. C. Tychsen) 대령의 지시에 따라 슈(M. W. Schewe) 중령이 무장대와의 협상 하루 전인 4월 27일 제주에 도착[583]해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미 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 등과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브라운 대령은 맨스필드 중령에게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의 지시사항, 즉 경비대는 즉시 임무를 수행할 것, 모든 종류의 시민 무질서를 종식시킬 것, 무장대 활동을 신속히 약화시키기 위해 경비대와 경찰이 확실한 결속을 할 것, 미군은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알렸다.[584] 하지의 지시는 단순히 사건의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강경진압을 통

580) 北韓硏究所, 「북한」 1989년 4월호 (서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89), 127.
581) 「서울신문」 (1948년 4월 30일).
582) "Cheju-Do Operation," April 18,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91에서 재인용.
583) 슈 중령은 4월 27일 제주도에 도착하자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미 20연대장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 제주도에 파견된 미 20연대 병력을 책임지고 있는 가이스트(Geist) 소령, 경비대 제5연대 고문관 드루스 대위 등과 만나 상황을 논의했다.
584) "Disposition Form,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 Do Island," April 29, 1948,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1942-), US Army Forces in Korea, 1945-49, Entry No. 11071, Box No. 68, NARA, Washington, D. C.,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94-195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온 5·10선거 때문이었다.

슈, 맨스필드, 브라운 등이 회합을 가진 다음날인 4월 28일 김익렬과 김달삼은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산발적으로 충돌이 있으면 연락 미달로 간주하고, 5일 이후의 전투는 배신행위로 본다.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를 재개한다.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히 이뤄지면 주모자들의 신병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보았다.[585] 그러나 협상 사흘만인 5월 1일 오라리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무장대와 9연대 간의 평화협상은 깨졌다. 4·3사건이 180도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5월 3일에는 미군은 경비대에게 총 공격을 명령했다.

2) 4·3 사건의 확대 – 오라리 사건과 외부 사주에 의한 반란

오라리 방화 사건은 제주읍 중심에서 약 2㎞ 가량 떨어진 오라리 연미마을에 우익청년단원들이 대낮에 들이닥쳐 10여 채의 민가를 태우면서 시작됐다.[586] 이 소식을 접한 무장대가 우익청년단들을 추격했다. 오후 2시경, 서청·대청 단원들로부터 무장대 출현 소식을 접한 경찰기동대가 2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오라리 마을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장대는 이미 마을을 떠났고, 주민들은 불붙은 집을 진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총을 쏘며 진격해오자 주민들은 산쪽으로 도망했다. 이 과정에서 고무생 여

585)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97-198.

586) 林甲生(제주시 이도2동, 당시 납치됐다 탈출한 대청단원의 부인)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②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4), 152~153쪽)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819, April 27, 1948. 오라리에서는 4·3무장봉기 이래 무장대와 경찰로부터 각각 죽임을 당하는 인명희생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4월 29일 오라리 마을의 대동청년단 부단장과 단원이 납치된 후 행방불명되었고, 4월 30일 동서간인 대청단원의 부인 2명이 납치됐는데 두 여인 중 한 명은 맞아 죽고 한 명은 가까스로 탈출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오전 9시경 마을 부근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경찰 3~4명과 서청·대청 단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매장이 끝나자 트럭은 경찰관만을 태운 채 돌아갔고 청년단원들은 그대로 남았다. 청년단원들은 오라리 마을에 진입하면서 좌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들을 찾아다니며 5세대 12채의 민가를 불태웠다. 우익청년단원들이 민가에 불을 지르고 마을을 벗어날 무렵인 오후 1시경, 무장대 20명 가량이 총과 죽창을 들고 청년들을 추격했다. 청년단이 급히 피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때 어머니를 잃은 박기하는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졌을 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오랫동안 머리 위를 맴돌았다"고 했다.[587] 경찰은 경비대 지프와 트럭이 출현하자 마을을 떠났다.

김익렬 연대장은 사건 발생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경찰의 후원 아래 서청·대청 등 우익청년단체들이 자행한 방화로 판단, 미군정을 찾아가 이를 보고했으나 묵살 당했다. 당시 제9연대 정보주임이었던 이윤락 중위는 "김익렬 연대장과 함께 맨스필드 중령을 찾아가 보고했더니 평화협상 결과에 만족해하던 지난번과는 달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동화여관에 미군 CIC(방첩대)와 G-2(정보참모부) 간부요원들이 와 있으니 그들과 만나 협의하라' 고 말했다. 만나보니 G-2 간부는 중령이었고 CIC간부는 소령이었는데, 그들은 우리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경찰 보고와 다르다. 그것은 폭도들의 짓이다' 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해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왔다"고 했다.[588] 그러나 김익렬 연대장은 다음 날인 5월 2일 오라리 주민들이 방화 주동자로 지목한 이 마을 출신 대동청년단원 박 씨를 제주읍내에서 검거해 모슬포 영내에 구금 조치했다.[589]

존 메릴의 논문 「제주도 반란」에도 그 내용이 소개된 바 있는 '제주도의 메이데이' (May Day on Cheju-Do)라는 필름은 미군이 오라리 사건을 촬영한 것으로 오라리 방화사건을 무장대 측에 의해 저질러진 것처럼 편집해 놓았다.[590] 따라서 이 영화는 강경진압의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4월 18일 딘 군정장관의 지시와 4월 28일 하지 중장의 지시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군정과 조병옥은 제주도 소요를 강경진압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 오라리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

58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199. 오라리 방화사건은 미군 촬영반에 의해 입체적으로 촬영됐다. 미군 비행기에 의해 불타는 오라리 마을이 공중에서 찍혔는가 하면, 지상에서는 오라리로 진입하는 경찰기동대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다. 긴박하게 돌아간 당시의 상황들이 촬영됐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588) Ibid., 199-200.

589) Ibid., 200. 박 씨는 김익렬 연대장이 해임된 후 신임 박진경 9연대장에 의해 곧 풀려나 경찰이 되었다.

590)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1980, p.169,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오라리사건 발생 3일 후인 5월 5일, 딘 장군 · 목사 출신 통역관 김 씨 · 유해진 도지사 · 맨스필드 중령 · 안재홍 민정장관 · 송호성 경비대 총사령관 · 조병옥 경무부장 · 9연대장 김익렬 중령 ·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 등이 제주도에 모여 4.3사건 처리를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김익렬 중령은 오라리사건이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사진첩과 물적 증거물을 제시했다. 그러자 딘 군정장관이 조병옥 경무부장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당신의 보고내용과 다르지 않소"라고 질책했다. 딘과 조병옥이 오라리 사건에 대해 정보교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오라리 사건이 4 · 3사건을 강경 진압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것이다.[591]

그러나 오라리 사건의 진상은 딘 군정장관의 생각과 4 · 3사건의 진압정책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이는 회합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5월 6일 딘 장관의 두 가지 조치에서 확인된다. 첫 번째는 제주4 · 3사건에 대한 규정이다. 딘 장관은 5월 16일 기자들에게 "이번 폭동은 도외(道外)에서 침입한 소수의 공산분자들의 모략에 선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선동으로 인해 "양민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현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하면서 "이 사건도 경찰과 경비대의 노력으로 곧 회복되리라고 본다"고 하였다.[592] 5월 5일 제주회의 이전에 이미 그는 4 · 3사건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진압지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폭동은 외부 공산주의자들의 모략과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오라리 사건은 폭동진압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의지는 두 번째 결과로 이어진다. 즉 같은 날인 5월 6일 9연대장을 박진경으로 교체한 것이다. 5월 5일 제주회의와 5월 6일의 연대장 교체는 5·10선거를 앞두고 제주사태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미군정 수뇌부의 조치였고, 경무부장 조병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던 것이다.

---

591)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3; 김익렬,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4), 338-342. 오라리 사건이 무장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조병옥과 우익청년단의 소행임을 확인한 김익렬 간의 언쟁과 폭력이 오갔다. 조병옥은 이미 사망한 김익렬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고위직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김익렬을 음해했다. 함께 참여한 목사 출신 통역관 김 씨는 안재홍과 송호성이 김익렬을 꾸짖고 있다고 거짓말로 딘 소장에게 통역했다.

592) 「大東新聞」 (1948년 5월 7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러나 미군정의 의도와 달리 제주도 선거 투표소 세 곳 중 두 곳이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되었다.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총선거인수 37,040명 중 32,062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북제주군 갑구는 43%, 북제주군 을구는 46.5%의 투표율로 과반수에 미달되었다.[593] 이에 따라 딘 군정장관은 '제주도 2개 선거구에 대하여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포고(5월 24일부)를 발표했다.[594]

미군정은 6월 23일 재선거를 위해 제주소요를 조기에 진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선거 전까지 신속한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5월 20일경 딘 군정장관은 미 6사단 예하 광주 주둔 제20연대장인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제주도의 모든 진압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는 선거 전까지 사태를 조기에 진압하라는 딘 장관의 특명을 받았다.[595] 브라운은 강경일변도의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이유는 미 6사단장 워드(Orlando Ward) 소장과 오고간 서신에서 확인된다. 워드는 자신의 부하인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 토벌사령관으로 떠나게 되자 5월 19일 "본인은 주요한 문제가 경찰에 대한 증오심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소요들은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고 했다.[596] 그러나 7월 2일에 답신에서 브라운은 "제주도가 공산주의자들의 거점으로 조직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은 너무도 명백합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의 잔악성과 비효율적인 정부도 원인이었지만 본도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비하면 지엽적인 원인들입니다"[597]라고 하였다.

그는 딘 장관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소요를 공산주의자들의 계획, 즉 공산

593) 「朝鮮日報」 (1948년 5월 20일).
594) 「朝鮮日報」 (1948년 5월 27일).
595)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13에서 재인용.
596) "Letter from Ward to Brown," May 19,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15쪽에서 재인용.
597) "Letter from Brown to Ward," July 2,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16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주의의 지원을 받는 내부 반란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장대와 이에 협조한 주민들을 강경하고 신속하게 진압하고자 했다. 그는 경찰에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도로로부터 4㎞까지 사이에서 치안을 확보할 것, 국방경비대에게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릴 것, 해안경비대에게 하루에 두 번씩 제주도 일대 해안을 순회할 것을 지시했다.[598]

브라운의 지휘를 받는 국방경비대 9연대장 박진경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김익렬 전임 9연대장에 따르면, 연대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박진경은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했다고 한다.[599] 박진경을 직접 저격했던 손선호(孫善鎬)도 재판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가 화북이란 부락을 갔을 때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하였다. … 사격연습을 한다 하고 부락의 소(牛) 기타 가축을 난살(亂殺)하였으며 폭도의 있는 곳을 안다고 안내한 양민을 안내처에 폭도가 없으면 총살하고 말았다. 또 매일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는 등 부하에 대한 애정도 전연 없었다.[600]

박진경의 참모였던 임부택(林富澤) 대위는 재판에서 박진경 중령으로부터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601]

6월 16일 기록된 브라운 대령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대대가 동시에 공동 목표로써 산간 고지대를 향해 내륙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경비대 지역의 수색은 완료될 예정"이며, "이 작전에서 약 3,000여 명이 체포"되었다고 했다.[602] 이 작전은 바로 브라운 대령이 기자에게 밝힌 바처럼 제주도의 서

598) 「現代日報」 (1948년 6월 3일).
599)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18.
600) 「朝鮮中央日報」 (1948년 8월 15일).
601) 「漢城日報」 (1948년 8월 19일).
602)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Despatch No. 199, dated July 2, 1948, from American Political Advisor Joseph Jacobs to State Department: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19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무고한 주민의 인명살상을 수반했다. 체포된 3,000명은 폭도라고 단정될 수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대해 1948년 6월 종군기자로 제주사태를 취재했던 조덕송은 "12-1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가 "무엇 때문에 폭도로 규정받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었는가."라고 했다.[603]

경찰도 브라운의 지휘 아래 있었지만 경무국장 조병옥의 지시에 따랐다. 조병옥은 각 경찰관구에서 차출한 응원경찰 450명과 수도경찰청 최난수(崔蘭洙) 경감이 지휘하는 형사대를 제주도로 파견했다. 이들은 5월 18일 서울을 떠나 19일 목포에서 제주도로 향했다.[604] 이때 들어온 응원경찰을 포함해 1948년 7월경 경찰 병력은 약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605].

> 사건이 발생하자 약 1개월 후에 경찰응원대가 폭도들을 소탕한다고 하여 70 노인과 소학생까지 포함한 18명의 도민을 마을에서 사살하였습니다. … 우리 학교의 어린 두 학생이 그 당시 무참히도 희생을 당하였습니다.[606]

이에 대해 브라운조차도 "지나친 잔혹 행위와 테러가 제주도에 도착한 응원경찰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다면서 5월 22일 폭동진압을 위한 조치로 양민에 대한 경찰의 테러와 살해를 중지하도록 했다고 했다.[607] 하지만 경찰의 잔혹행위는 계속되었다. 6월 7일에는 저지지서 경찰이 금악리에서 불구자인 소년 1명과 노인 1명, 부녀자 7명을 연행하던 중 5명을 총살하였다.[608] 경찰들의 잔혹행위는 브라운의 강경진압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제주도 사건에 대한 조병옥의 강경진압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경찰들의 잔혹행위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6월 23일, 조병옥은 폭동 발발의

---

603) "流血의 濟州島," 「新天地」 (1948년 7월호), 91.
604) 「朝鮮日報」, 1948년 5월 18일; 「獨立新報」 (1948년 5월 19일); 「서울신문」 (1948년 5월 21일).
605)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30일).
606) 「朝鮮中央日報」 (1948년 7월 23일).
607)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Island from 22 May 1948 to 30 June 1948," July 1, 1948, The Rothwell H. Brown Papers, Box 3, 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Pennsylvania, U. S. A.: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22에서 재인용.
608) Hq. 6th Inf Div,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66, June 11, 194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원인을 경찰관의 비민주적 과오에서 찾으려는 것은 사고와 판단의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제주폭동 만행 수습의 근본방침은 종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거듭하여 발표한바 있기 때문이다.[609]

그러나 브라운으로 대표된 미군정과 조병옥으로 대표되는 경무부의 제주사태에 대한 조기진압은 실패로 돌아갔다. 또한 이승만이 집권 한 이후 제주 4·3사건이 장기화 되고, 이것이 여순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미국은 남한에 자치능력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과 미군철수를 골자로 하는 NSC8의 목표를 일부 수정해야 했다. 이것은 NSC8/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미군철수 연기와 남한 정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승만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지원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지만, 제주사태와 여순사건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미군철수와 남한의 안정적인 자립정부수립을 통한 공산주의 세력 봉쇄라는 미국의 정책을 흔들고 있었다.

3) 진압정책의 강화 - 이승만의 발근색원 지시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하였다. 4·3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에 신고 된 4·3사건 희생자 수가 14,028명이라고 했다. 또한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610] 그런데 전체 희생자 중 80% 이상이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령이 선포된 1948년 10월부터 1949년 3월까지 발생했다. 또한 15세 이하 전체 어린이 희생자 중 76.5%가, 61세 이상 희생자 중 76.6%가 이 기간에 희생되었다.

1948년 12월 29일자로 제주주둔 9연대(연대장 송요찬)는 대전주둔 2연대(연대장 함병선)와 맞교대되었다. 교체되기 전까지 9연대는 무장대와 협력하였다고 추정되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대량 살상했다. 한 미군보고서는 9연대의 작전을 대량

609) 「現代日報」 (1948년 6월 24일).
610) 이 수는 1950년 4월 김용하 제주도지사가 밝힌 27,719명과 한국전쟁 이후 발생된 예비검속 및 형무소 재소자 희생 3,000여 명도 감안한 숫자이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학살계획이라고 했다.

> 9연대는 반란자들에 대해 상당히 성공적인 전투를 수행했다. 그러나 9연대는 이와 동시에 모든 저항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 1948년 12월까지의 9연대의 점령기간 동안에 섬 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살상이 자행됐다.[611]

9연대 군수참모이었던 김정무는 이 대량살상계획을 "초토화작전"이라고 하면서 "싹 쓸어버린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것은 중산간마을에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산에 올라간 무장세력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적이라는 작전개념"이었다.[612] 9연대 선임하사였던 윤태준도 "초토화작전이 상부의 지시인지 또는 연대장 독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요찬 연대장은 일본군 출신으로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613] 따라서 희생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주도 주둔 연대장은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2명의 반란자들을 생포했고, 576명을 사살했다고 보고했다. 10월 1일에서 11월 20일 사이에는 1,625명을 사살하고 1,383명을 생포했다고 보고했다. 많은 물건들이 노획되었으나 무기는 약간의 일본식 소총이 노획되었을 뿐이다.[614]

무려 1,625명이 사살되고 1,383명이 생포된 반면, 국군의 피해는 전무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무장대의 수가 500명 안팎이었다는 것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 국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1948년 11월 21일부터

---

61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612) 金貞武 (77세·서울시 종로구 부암동·당시 제9연대 군수참모, 준장 예편, 육사2기 동기회장. 2002. 9. 25.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80에서 재인용.

613) 尹太準 (73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당시 9연대 보급과 선임하사, 중령 예편, 2001. 5. 2.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94에서 재인용.

61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9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틀간 남제주군 중문면 부근 한라산록 일대를 소탕해 폭도 88명을 사살했는데 국군 측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615] 11월 14일 노형리에서 폭도 79명을 사살했는데 국군 측 손해는 없었다.[616]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범석이 12월 8일에 국회에서 한 보고는 희생자 신원을 확인해 준다.

> 가. 적정(敵情) : 국군의 맹렬한 섬멸전과 협력자 멸소(滅少)에 따라 무장폭도 현재 근근 50~60명에 불과하나 도민 중 다수가 폭도의 정신적 가담자라는 것은 참 유감사임.
> 나. 제9연대 장병이 … 도내 도로 양측 총림(叢林)을 벌채하여 폭도 급습에 대비하며 폭도에 대한 보급선을 완전 차단하는 동시 폭도에 대한 협력자의 철저한 처단을 단행함….[617]

희생자 중에 절대 다수는 총림벌채로 생긴 도로에서 중산간마을에 남은 주민들이었다. 이범석의 말대로라면 이들은 정신적 가담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무장대의 협력자로 분류되었다. 당시 9연대 선임하사였던 이기봉은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을 전부 해안지대로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안 내려오는 사람은 전부 공비로 인정을 했다"고 했다.[618] 총림을 경계로 진영을 구분하고 중산간진영에 있는 주민들을 모두 무장대 협력자, 곧 폭도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 적대와 우리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냉전의 진영논리가 총림 건너편 중산간마을에 있으면 적이라는 논리로 확대적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냉전의 논리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무장대와 주민들에 대한 집단 살해를 정당화 시킨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안보를 보장받고자하는 미국과 이승만 정부의 정책적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이승만은 1949년 1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전남사건을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미국도 원조를 적극화할 것을 지시했다.

---

615) 「朝鮮日報」 (1948년 11월 26일).
616) 「독립신문」 (1948년 11월 27일).
617) 「國會速記錄」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618) 李基鳳(40세, 경북 성주, 당시 9연대 선임하사, 중령 예편, 1966. 3. 15 채록) 증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참전자 증언록」에 수록):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97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대통령)=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 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619) **(밑줄 인용자강조)**

미국의 경제원조와 4·3사건에 대한 강경진압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그리스 내전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은 그리스에 대한 경제, 정치 군사적 지원을 하였다. 1948년 1월 6일 작성된 NSC5는 "그리스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통합을 파괴하려는 소련의 시도를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전 동부 지중해와 중동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620) 미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그리스를 선택했고,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함으로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리스에 경제, 군사, 정치적 지원을 했다. 1948년 2월 12일 미국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NSC5/2는 "미국은 그리스가 외부의 무력 공격이나 소련이 지배하는 그리스 내부의 공산주의 운동을 통한 소련의 지배하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정치, 경제,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621)

1948년 4월 2일 한국정책으로 채택된 NSC8도 그리스의 NSC5와 유사했다. 이 정책은 1948년 12월 31일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문제의 안정에 영향을 줄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예상했던 정부를 수립한 후, 미국은 경제원조의 확대와 '북한 혹은 여타 세력의 공공연한 침략행동을 제외한 여타에 대해서도 남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토착무장력의 훈련·장비보급을 포함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원조계획을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

619) 『國務會議錄』, 1949년 1월 21일.
620) "NSC5: The Position of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Greece,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uncil(Souers)," January 6, 1948, 2.
621)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President Truman NSC 5/2" February 12, 1948, 5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서' 수행해야한다."다고 했다.[622] 그런데 NSC8은 소련과 북한 등 공산주의의 공격과 내부반란에 의한 국가 전복을 예측하고 있었다. 즉 미군 철수 이후 "외부공격, 혹은 내부 (국가-인용자) 전복"으로 인해 국가가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623] 이렇게 미군 철수로 생긴 안보의 공백을 자립정부 수립을 통해 메운다는 것이었다. 남한에 자유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가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624] 즉 남한 정부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소련과 북한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전략이었다.

NSC8에서 결정된 미군철수를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1948년 12월 17일, 미국 국무부 동북아시아부 부장 비숍은 극동국 국장 버터워쓰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주한미군 철수 완료가 대한민국정부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철수 연기를 주장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 한반도 지배가 기정사실화"되면 "공산주의 국가체제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안보가 손상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있다.[625]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1948년 12월 31일에서 1949년 7월 1일 이전으로 연기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원조였다. 미국은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자 경제원조를 구체화했다. 1948년 8월 트루먼은 이것을 관련기관에 지시했다.[626]

---

622)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9-10;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1949년 3월 22일)," 970.

623)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10.

624) Ibid., 8-12; 국사편찬위원회,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3월 22일, 975-976.

625) "미국 국무부 동북아시아부 부장 비숍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극동국 국장 버터워쓰에게 보내는 비망록," 1948년 12월 17일, 1337~1340. 그는 한국에서의 미군철수를 일부 인정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무한정 점령하거나 한국에 군대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 기본목표와 태평양에서의 항구적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626) "트루만 미국 대통령, 대한경제원조 지속을 위한 행정조정을 지시: 트루만 미국대통령이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1948년 8월 25일)," *FRUS* 1948, 1288-1289, (『자료대한민국사』 제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48년 8월 25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48년 9월 7일, 미국 국무부 점령지역 차관보 살쯔만도 “남한에 수립된 정권이 소련이 사주하는 세력에 의해 전복” 된다면 이것은 유엔과 미국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SC8이 “미국은 미군 철수 직후에 최소한의 구호와 복구 지원이 계속되지 않으면 초래될지도 모를 (남한의 -인용자)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원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살쯔만은 한국정부가 내부반란세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호와 복구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627] 즉 경제지원의 목적은 소련 공산주의의 지원에 의한 국가전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남한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에 작성된 “대한경제원조 정책안에 대한 비망록”에서 살쯔만은 “이 원조계획은 1949 회계년도의 후반부에는 시작되어야 하고, 195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개입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전체 계획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해당 위원회 의회 지도자들의 비밀회의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628]

1949년 3월 22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제출한 NSC8/2은 1949년 1월 1일, 대통령이 한국점령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했다고 하면서 “1949 회계연도 동안 한국에서의 구호·부흥비용을 포함해 의회가 육군에 승인한 기금의 운영책임을 육군부에서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로 이관”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였다. 또한 NSC8은 “경제자급 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한국에서 미국의 장기적 이해

트루먼은 대한경제원조 지속을 위한 행정조정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1. 대한경제원조는 경제협조처장(폴 호프만)이 업무를 맡을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올 때까지 육군부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
2. 경제협조처장은 가능하다면 1949년 1월 1일까지, 늦어도 1949년 3월 15일 이전에 대한 원조업무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야 한다.
3. 관할권 이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하고, 국무부가 요청하는 원조는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와 육군부가 공동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다. 계획은 경제협조처로 관할권을 이양하는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원조를 단절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627) "NSC8: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7-13; “미국 국무부 점령지역 차관보 살쯔만의 대한경제원조 정책안에 대한 비망록,” 1948년 9월 7일, 1292-1298.

628) “미국 국무부 점령지역 차관보 살쯔만의 대한경제원조 정책안에 대한 비망록,” 1948년 9월 7일, 1292-129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에 부합” 한다고 하면서, “경제협조처는 현재 1950 회계연도에 약 1억 9천 2백만 달라를, 현재 경제협조처의 존립인가 시한인 1952년 6월 30일까지는 총 4억 1천만 달라의 대한지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의 기초를 수립한 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두 정부 대표가 서명했으며, 3일 후 한국 국회의 승인을 얻었다.” 고 했다.[629] 이처럼 미국의 경제 원조와 이승만의 발근색원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630]

NSC8시리즈의 정책, 즉 외부 공격과 내부 반란에 의한 국가전복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무부의 군사·경제 정책 중 하나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제시되었고, 권력기반이 취약한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경제 원조가 필요했다. 미국은 1억 5천만 불의 지원금과 군사고문단을 지원함으로 남한에서 안정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했다. 이것은 NSC8시리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지원금과 국무회의록에 명기된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즉 제주4·3사건의 집단학살을 규정한 논리와 정책은 소련을 적대로 하는 공산주의 봉쇄라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냉전의 진영논리와 그에 따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1949년 7월 1일자 국무회의록에 적시된 반공조건부라는 단에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된다.

> 보고사항(대통령)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미 상원의원의 발언 중 반공조건부 대한원조안 주장에 대하여 감사 사함(謝緘)을 외무장관이 보냄이 좋겠다.
> 보고사항(공보) 시사보고의 건=미국 하원 외교위(外交委)에서 1억 5,000만 불 가결이나 반공(反共)조건부임[631]

NSC8/2는 1억 9천만 달러, 국무회의록은 1억 5천만 달러로 다소 차이가

629)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 1949년 3월 22일, 969-978.
630) 시기를 봐도 알 수 있다. 1948년 12월 10일 원조안에 대해 양국의 정부 대표가 서명했다. 1948년 12월 19일 9연대가 2연대와 맞교대되어 2연대가 제주사건을 진압했다.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발근색원 지시를 했다. 원조한 협정, 2연대 제주도 진압군 주둔, 발근색원 지시가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631) 「國務會議錄」 제63회 (1949년 7월 1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있지만 이를 통해 양국 정부가 경제지원과 반공조건부를 가지고 충분히 상의했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12월 10일 양국 정부 대표가 협정을 맺었고, 3일 후 한국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 앞에서 확인되었다. 위의 국무회의록과 아래의 내용을 통해 양국이 정책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제주4·3사건의 집단학살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4월 7일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제주도를 방문한 신성모 국방부장관[632]과 이윤영 사회부장관은 "잔존 무장대를 하루 속히 전멸시키고, 제주도 경제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특명"이라고 밝혔다.[633] 4월 9일 제주를 찾아와 치안상황을 점검한 이승만 대통령은 관덕정 앞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인 환영대회에 참석, "아직도 반도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섭섭하다. 그러기 때문에 양 장관을 맞이한 군경민은 합의하여 하루 속히 제주의 평화를 건설할 것을 바란다"며 조속한 사태 진압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나 미국인은 항상 제주에 대하여 많이 근심하고 있으며 구호물자도 곧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634] 제주도를 비롯해 각 지역의 부대 시찰을 마치고 14일 귀임한 신성모 국방장관은 15일 기자단과 만나 "제주도 한라산 폭도는 전부 분산되어 대통령의 말과 같이 섬멸 진압은 시간문제다. 일선 장병에게 최후의 1인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고 격려하였다"고 했다.[635]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응준(李應俊)은 "제주도 공비토벌이 시일을 끌게 되어 대통령 이 박사의 독촉을 받은 일도 있었다. 공비토벌작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보고는 관두고 공비가 없어졌다는 보고가 듣고 싶다는 것이다."[636]라고 했다. 폭도에 대한 발근색원과 시기의 재촉은 1949년 5월 10일 제주도 재선거를 무사히 치러내고자 하는 이승만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제주사건을 확실히 진압하고 5·10 재선거가 무사히 치러지자 미국은 '한국원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철수가 종결되는 날인 6

632) 초대 국방부장관은 이범석 총리가 겸직하였으나, 1949년 3월 21일자로 내무부장관이던 신성모가 국방부장관이 되었으며 이범석은 총리직만 전임케 됐다(「官報」 제68호, 1949년 4월 2일).
633) 「國都新聞」 (1949년 4월 10일).
634) 「自由新聞」 (1949년 4월 12일).
635) 「서울신문」 (1949년 4월 16일).
636) 이응준, 『回顧 90年』 (산운기념사업회, 1982), 27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월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비밀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런데 미 하원은 "대한민국에 1인 또는 1인 이상의 공산당원 또는 현재 북한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의 당원을 포함한 연립정부가 조직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원조를 즉시 중지한다." 는 조건을 달았다.[637] 6월 30일 하원외교위원회에서 '한국원조법안' 이 통과된 다음날인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반공조건부 대한원조안' 이라고 했다.[638]

1949년 5월 진압작전을 전개하고 귀경한 경찰에게 이범석 총리는 "여러분의 공적으로 진압된 제주도의 완전 진압은 …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을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방어하는데 큰 공적" 이라고 했다.[639] 국내의 한 언론도 "외국 기자들은 이 사태를 가리켜 가장 흥미롭기나 한 듯이 '마샬' 과 '모로토프' 의 시험장이니, 미소 각축장이니, 38선의 축쇄판이니 하고 이곳 제주도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을 붓끝으로만 이리 왈 저리 왈 한 사실" 도 있다고 하면서 제주도는 "극동의 반공보루로써 새로운 시험장" 이 되었다고 했다.[640]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정책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권에 편입하려는 이승만의 정책이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제주 4·3사건에 대한 강경진압 지침이 내려졌다. 강경진압의 성공을 통해 미국은 소련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자본주의 진영인 남한을 획득함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방어선을 보다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한편 이승만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보장받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반공조건부, 즉 제주4·3사건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재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룰 때 충족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승만 집권 이후 가장 강경한 진압정책이 펼쳐졌고,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637) 「自由新聞」 (1949년 7월 2일).
638) 「國務會議錄」 제63회 (1949년 7월 1일).
639) 「自由新聞」 (1949년 5월 19일).
640) 「朝鮮中央日報」 (1949년 9월 1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3. 비인간화

1) 비인간화의 배경

4·3사건 진압군으로 참전한 한 장교는 "어떤 때는 동물을 잡는 기분도 내고 굉장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포로 약 1,000-1,500여 명을 수용했고, 이 중에 "현지에서 군법회의를 열어 가지고 A급은 총살집행을 한 것도 많습니다."라고 하였다.[641] 그의 증언에는 무장대와 포로에 대한 비인간화 현상이 그대로 담겨있다. 당시 비인간화는 개별적인 사건에 국한된 특수한 것이 아니라,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였다.

비인간화 현상은 냉전의 진영논리를 적용한 진압정책을 확대·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진압정책의 강화는 9연대의 대량살상계획과 이승만 대통령의 발근색원 지시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이것은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와 11월 17일 계엄령 선포로 구체화 되었다. 당시 진압지침을 집약하고 있는 것은 총림을 가르는 길을 경계로 영역을 구분하고 중산간마을을 적의 진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진영구분이 사상적 영역에서 영토적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 진영으로 구별된 중산간마을의 주민들은 무장대에 동조하는 협력자로 규정되었다.

적 진영으로 구별된 중산간마을의 무장대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9연대와 2연대는 어린이를 포함한 거주민들을 집단 살상했다. 특히 어린이 살해는 특수한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살해는 4·3사건의 대표적인 비인간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량살상계획과 발근색원지시에 따른 강경진압정책이 비인간화현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중산간마을에 존재하는 모든 주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살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 29일 제9연대는 여순사건 진압에 공적을 세운 대전 준둔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와 맞교대되었다. 맞교대 직전 9연대는 전과를 올리기 위해 도피자의 가족을 대살(代殺)하고 자수자들을 집단 살해했다. 12월

6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이근양 HA01570," 「증언록」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64. 8. 2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3일 토벌대는 73세의 할머니를 포함하여 대정면 상모리와 하모리 주민 48명을 도피자가족이라 하여 총살했다.[642] 조천면 관내에서 자수자 200명을 수용하고 있다가 12월 21일 "토벌에 따라갈 사람은 차에 타라"고 속여 150명을 제주읍 '박성내'라는 하천 변에서 집단 총살하였다.[643] 9연대는 잔류 병력의 철수 마지막 주인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려 463명을 총살했다.[644]

이승만 대통령은 9연대장 박진경을 암살한 기존의 제주 주둔 병사들을 믿지 못했다. 그 결과 2연대를 제주에 주둔시켰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토벌대로서 서북청년회를 지목했다. 내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서청을 군에 6,500명, 경찰에 1,700명가량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645] 이렇게 하여 제주도에 주둔할 2연대 제3대대도 대부분 서청 단원들로 구성되었다.[646] 특히 12월 20일 제주도에 파견된 서청 단원들로 구성된 '특별중대'(elite company)는 2여단내의 반대자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았다.[647] 서북청년단원들은 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집중 배치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북청년단원을 경찰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원 20명, 50명, 200명을 인솔하고 온 자들에게 각각 경사, 경위, 경감 계급을 주었다. 서청의 중간 간부 출신으로 삼양지서 주임으로 근무했던 정용철은 이 지시에 따라 경위로 특채됐다.[648] 서북청년 단원들은 불과 12일간의 훈련만을 받은 채 1948년 12월 초 정규경찰의 자격으로 제주도에 파견됐다.[649]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모슬포경찰서와 성산포경찰서를 신설하라는 대통령령 제50호를 1949년 1월 18일에 발표하였다. 이로서 제주도에는 4개의 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어 2월 19일에는 경찰특별부대(사령관 김태일 경무관) 505명이 파견되었다.[650]

1948년 12월 29일 교체된 제2연대는 "소련 표시를 한 3천 톤급 선박

642)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99.
643) Ibid., 299.
644) Ibid., 301.
645)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05, December 6, 1948.
646) 「陸本 作命 甲發」제81호 (1949년 5월 5일).
64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8, December 21, 1948.
648) 金時訓(79세, 표선면 가시리, 당시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 2002. 2. 26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307에서 재인용.
64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11, December 13, 1948.
650) 「自由新聞」 (1949년 5월 19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2척이 1월 3일 제주도 삼양리 약 5마일 지점에서 발견됐다"면서 "이 선박은 제주도 무장대를 지원하기 위한 북(北)으로부터의 물자를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651] 이것은 무장대 토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 소련 표시를 한 선박이 발견된 지 3일 후인 1월 6일 부터 제2연대의 강경진압이 시작되었다.

> 6일 상오 6시 반 명덕리(明德里, 제주읍서 약 8㎞)에 도착한 국군 ○○부대는 … 무장폭도 약 250명으로 추산되는 적 주력이 잠복 중임을 발견하여 … 맹렬한 일대 포위섬멸 작전을 개시하여 … 적을 완전 섬멸상태에 빠지게 하 … 였다. 적의 유기시체 153, M1소총 1정, 탄약 500발, 일본도 및 죽창 다수, 피복, 선전삐라 다수 압수, 국군 피해 전사 3명, 부상자 5명【현지 군 검열제】[652]

약 250명으로 추정되는 무장대와의 전투의 결과는 적의 유기 시체 153구와 국군 전사 3명으로 나타났다. 이제 무장대는 100여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인 2월 4일 2연대는 제주읍 봉개지구(봉개리·용강리·회천리)에서 360명을 사살하고 130명 포로를 생포하였다.[653] 피살자 360명과 포로 130명은 1949년 1월 중순경 남은 약 100여명의 무장대를 웃도는 수치였다. 또한 제주 시찰을 마치고 귀경한 이범석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15일 군은 … 한라산 서남쪽에서 폭도의 주력에 대하여 총공격"하였는데 "무장폭도는 약 260명"이라고 했다.[654] 한 잡지는 제2연대가 2월 15일 밤 현지로 가 야영을 했다가 16일 새벽 남원면 산록지대에 잠복한 무장대를 기습공격을 해 16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이 섬멸적 타격을 받은 후로 종래와 같은 하산 습격이 없었다"라고 기록했다.[655] 이 작전으로 결정타를 입은 무장대는 거의 활동을 못했다.

무장대가 거의 괴멸되었음에도 국방부의 전과에 사살자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국방부 보도과가 발표한 1949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전과는

65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9, January 5, 1949.
652) 「독립신문」 (1949년 1월 12일). 제주도에 명덕리라는 마을 이름은 없음.
653) 「朝鮮中央日報」 (1949년 2월 9일).
654) 「京鄕新聞」 (1949년 3월 17일).
655) 徐載權, "平亂濟州島紀行," 「新天地」 1949년 9월호, 176-17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전과=사살 821명, 포로 999명, 무기 35정, 실탄 30발 △아방피해=군 전사 27명·부상 15명, 경찰 전사 17명, 민간 전사 1명”이었다.[656] 제주에 파견된 경찰특별부대(대장 김태일 경무관)는 2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495명의 폭도를 사살하고, 1,524명을 포로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피해는 중상 2명, 경상 3명이었다.[657] 그리고 미군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토벌대의 전과를 반도(rebel) 사살 1,075명, 반도 체포 3,509명, 반도 투항 2,065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rebel)’는 토벌대가 섬 안쪽 산악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자동적으로 반도라고 분류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658] 중산간지역에 있는 주민을 반도로 규정하고 이들을 사살·체포한 후 전과로 보고한 것이다.

완전한 진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에 무산됐던 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실시했다. 1949년 5월 10일 실시된 재선거 갑구에는 97%의 주민이, 을구에는 99% 주민이 참여하였다.[659] 남한 정부와 미국은 5·10재선거를 제주4·3사건의 공식적인 종식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이러한 강경진압의 과정에서 토벌대에 의한 비인간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정부의 냉전정책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연대는 강경진압의 명분으로 제주도 해안에 나타난 “소련 표시를 한 3천톤급 선박” 2척이 발견되었다는 것과 무장대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했다.[660]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제주도사건에 NSC8 시리즈가 예측한 “외부 사주에 의한 국가전복”이라는 냉전의 논리와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반공조건부 1억 5천만달러 지원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응답인 발근색원 지시로 이어졌다.

미국은 자신의 안보에 직결되는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소련을 봉쇄하고자 했다. 남한을 포기할 수 없었음에도 군사전략상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켜야 했던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통해 남한에서의 소련봉쇄라

656) 「東光新聞」 (1949년 4월 10일).
657) 「京鄕新聞」 (1949년 5월 22일).
65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113, May 9, 1949.
659) 「國都新聞」 (1949년 5월 14일) ; 「東光新聞」 (1949년 5월 14일).
66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29, January 5, 194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는 목적을 달성하고자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입과 외부의 사주를 받은 내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국가전복에 대처해야 했다. 바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내부반란에 의한 국가전복 행위로 간주한 미군정은 조병옥과 함께 강경 대처했고, 이러한 기조는 이승만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경해졌다. 즉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를 외부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국가전복 기도로 규정하고 강경진압을 적용하여 이를 점차 확대·강화한 것이다. 바로 냉전의 논리와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과정에서 비인간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2) 비인간화 현상

비인간화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치적 판단 능력도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집단살해이다. 부성방(夫成邦)의 피신으로 인해 해안으로 소개된 직후 그의 가족과 친척 12명이 처형되었다. 당시 희생자 중에는 12살, 10살, 8살, 6살 난 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661] 조천면 교래리의 학살은 중산간지역에 대한 집단 살해와 비인간화 현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었다. 1948년 11월 13일(음력 10월 13일) 새벽 5시께, 군인들이 중산간마을인 교래리를 포위한 채 100여 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사살했다. 당시 확인된 희생자는 양재원(60) 양재원 처(60) 김만갑(57) 양관석(여, 50) 부자생(44) 부영숙(여, 38) 부영숙 아들(3) 고계생(여, 18) 고옥심(여, 14) 김순재(여, 14) 김문용(9)이고, 김인생의 가족 14명 즉 할머니 강씨(70), 어머니 김채화(45), 여동생 김영자(15), 남동생 김순생(10), 이름 안 지은 남동생(5), 형수 양남선(25), 여조카(8), 남조카(5), 남조카(3), 5촌 김성진(65), 5촌 김성지(63), 김성지 처(60), 사촌형수 신보배(25), 그리고 형님댁 '애기업게' 신아무개(15) 등 이었다. 대부분 노약자들이었고, 10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7명이이었다. 시신들 대부분은 총에 맞은 채 불에 탔고, 14살 난 소녀는 대검에 찔려 사망했다. 현장에서 생존한 양복천(梁福天)은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세 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홉 살 난 아들이 '어머니!' 하며 내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군

661) 夫成邦(86세, 조천읍 조천리, 2002. 12. 12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97-298쪽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인들은 아들을 향해 또 한발을 쏘았습니다.” 라고 했다. “이 새끼는 아직 안 죽었네!” 라며 가슴을 쏘았고, 총상으로 아들의 “심장이 다 나왔어요.” 라고 했다. 6살의 김용길(아명 김창식)은 세 군데나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총에 맞아 숨져 가면서도 급히 손자를 담요에 싸 대밭으로 던진 증조할머니 덕분에 불에 타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총 25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희생자 중 3살 난 부영숙 아들 등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7명이었다. 군인들은 어린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향사격으로 어린이들을 반복 사살했다.[662]

비인간화현상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어린이와 유아살해이다. 제주도 4·3사건에서 어린이 살해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학살의 한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양민학살보고서와 제주4·3사건위원회 신고서에 나타난 연령별 희생자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663]

<표 10> 국회양민학살보고서 (단위 : 명)

구분 / 계	10세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기타
합 계	676	2,119	4,257	1,851	1,159	817	706	658
비율(%)	5.5	17.3	34.7	15.1	9.5	6.7	5.8	5.4

(기타란은 나이가 불명인 경우임)

<표 11> 제주4·3사건위원회 신고서 (단위 : 명)

구분 / 계	10세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합 계	814	3,026	4,956	2,108	1,365	899	860
비율(%)	5.8	21.6	35.3	15	9.8	6.4	6.1

10세 이하 어린이 희생자 수는 20-30대의 희생자 수에 비해 적지만, 676명(5.5%)과 814명(5.8%)으로 나타났다. 676명과 814명이라는 수는

662) 梁福天(여, 84세, 조천읍 대흘2리, 2001. 10. 17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379-380에서 재인용.
66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368-36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어린이 희생이 사고나 우발적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단살해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임을 보여준다.

1948년 12월 29일 9연대와 2연대의 교체를 전후해 서북청년회원이 속한 군인과 경찰 토벌대는 잔혹한 살상을 하였다. 서북청년회의 중앙본부 단장인 문봉제는 “우리는 어떤 지방에서 좌익이 날뛰니 와 달라고 하면 서북청년회를 파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지방의 정치적 라이벌끼리 저 사람이 공산당원이다 하면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처단케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라고 밝혔다.[664] 외도지서 특공대 활동을 하던 고치돈은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 이윤도(李允道)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 날 지서에서는 소위 ‘도피자가족’을 지서로 끌고 가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총살터로 끌려갈 적엔 이미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됐지요. 이윤도는 특공대원에게 그들을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스스로 칼을 꺼내더니 한 명씩 등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눈이 튀어나오며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그때 약 80명이 희생됐는데 여자가 더 많았지요. 여자들 중에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윤도는 젖먹이가 죽은 엄마 앞에서 바둥거리자 칼로 아기를 찔러 위로 치켜들며 위세를 보였습니다. 도평리 아기들이 그때 죽었지요.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며칠간 밥도 못 먹었습니다.[665]

당시 제주도에서 서북청년회의 위세는 대단했다. 서청 제주단장 김재능은 1948년 11월 9일 자기 사무실에서 제주도청 총무국장 김두현(金斗鉉, 53)을 고문하여 죽게 했다.[666] 서북청년회가 제주도 총무국장을 고문으로 살해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서 주둔군과 이승만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 6일에 작성된 미 정보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664) 北韓硏究所, 「북한」1989년 4월호, 127.

665) 高致敦(애월읍 광령리, 당시 외도지서 특공대원)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제442회, 1999년 4월 23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72에서 재인용.

66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87, November 13, 194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보고에 의하면 최근 대통령(이승만)과 내무부장관(신성모)의 합의에 따라 서북청년 단원들이 한국군에 6,500명, 국립경찰에 1,700명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은 남한 전역에 있는 9개 경비대와 각 경찰청에 배정될 것이다. 모든 단체들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서북청년회는 경찰에서 단원 20명당 경사 1명, 50명당 경위 1명, 2백명당 경감 1명 등의 비율로 경사급과 간부급 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합의돼 있다.667)

즉 단원 20명을 모아오면 1명을 경사로, 50명엔 경위 1명을, 200명에는 경감 1명을 특채했다는 것이다. 서청 단원으로 1948년 12월 19일 동료 250명과 함께 제주에 도착, 경찰의 길을 걸었던 박형요는 1948년 12월 10일경 명동 서울시 공관에서 서북청년회 총회가 열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여 모병을 역설하는 연설을 듣고 제주도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재판도 없이 민간인들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공산당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 하나를 앞세워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대원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이승만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668)

1948년 5월 초 제주를 시찰했던 광주지검 김희주(金禧周) 검찰관조차 5·10선거 반대가 4.3 사건발단의 직접 원인이라면, 서북출신 경관들의 과도한 태도에 분개한 인민의 반항이 간접 원인이라고 할 정도였다.669) 검찰관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가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과 군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양리 사건은 공산주의 적대를 토대로 한 냉전의 진영논리가 비인간화를 수반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1949년 2월 22일도 무장대가 삼양리를 습격해 보초를 서던 주민 4명을 학살하고, 경찰관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자 토벌대는 이튿날인 2월 23일부터 보복총살극을 벌였다. 삼양리 주민 김양근은 "당시 삼양지서에는 정 주임, 백 경사, 강 순경, 이 순경 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서북청년회 출신이었다"고 했다. 제주경찰 10기생으로 당시 삼양지서에서 잠시 근무했던 김제진(金濟珍)은 서북

66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05, December 6, 1948.
668) 朴亨堯(서청 출신 경찰관)의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4·3은 말한다』④, 1997, 전예원, 151쪽):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68쪽에서 재인용.
669) 「漢城日報」 (1948년 5월 22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청년회 출신 정용철 주임이 “여자들 옷을 벗겨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였다. 또한 정 주임은 “추운 겨울날 여자들의 옷을 벗긴 채 망루 위에 오랜 시간 앉혀 놓았”다가 “날이 밝으면 삼양지서 옆 밭에서 남자고 여자고 수십 명씩 잡아다 죽였”다고 했다. 그는 마을 대동청년단원들에게 체포된 사람들을 창으로 찌르도록 강요했다고 한다.[670] 또한 대한청년단 분대장이었던 고봉수는 1949년 2월 24일 정용철이 남편이 입산 때문에 살해된 여자에 관해 말했다. “정 주임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젊은 여자를 홀딱 벗겼어요. 임신한 상태라 배와 가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 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 아래 속으로 찔러 넣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용철은 그녀를 “지서 옆 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다고 한다. 당시 고봉수는 지시에 따라 “시신 위로 흙을 덮으라고 했는데 아직 덜 죽어있던 상태라 흙이 들썩들썩 했습니다.”라고 했다.[671] 이 여자의 이름은 김진옥(金辰玉, 21)으로 당시 산으로 도피한 김태생(金泰生)의 아내였다. 김태생은 24-25일에 아내와 부모, 처조부를 잃었고, 며칠 후 장모와 처제를 잃었다. 김태생의 입산으로 양가 식구들이 몰살되었다.

그런데 정용철은 김시훈과 함께 제주에 왔고, 올 때부터 경위로 특채돼 삼양지서 주임이 되었다고 했다.[672] 그는 50명의 서북청년단을 데리고 오면 경위로 특채되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경위로 특채되었다. 남한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서북청년회 총회에서 단원들에게 군·경에 지원할 것을 독려하고 이렇게 선발된 군·경찰에게 제주도 소요를 진압하라고 지시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월남한 청년들이었기에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로 비인간화하였다. 비인간화 작업은 무차별적인 살해를 정당화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이승만의 발근색원 지시와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

670) 金濟珍(78세, 한림읍 귀덕1리, 제주경찰학교 10기생, 2001. 11. 19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419쪽에서 재인용.

671) 高奉洙(79세, 제주시 삼양2동)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제456회, 1999. 8. 28):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419-420에서 재인용.

672) 金時訓(79세, 표선면 가시리, 당시 서청 출신 경찰, 2002. 2. 26 채록) 증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419-420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제주4·3사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살해는 진영 밖에 있는 외집단(外集團)에 대한 일종의 비인간화에서 비롯된 학살의 현상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할 수 있다. 진압군경과 정부는 적대진영과 자신의 진영 사이에 낀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무장대의 편에 설 수도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이들이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유동적 존재는 때로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외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분류기준은 무장대, 즉 공산주의자들에게 협력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산주의 적대를 내용으로 하는 냉전의 논리와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4. 기독교인들의 활동

1) 서북청년단 출신 기독교인들의 활동

4·3사건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과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독교인들의 학살 가담에서 그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조병옥, 이승만, 서북청년회는 학살의 지휘명령자 이거나 시행자들이었다. 이들이 십자군처럼 교회의 이름을 걸고 4·3사건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4·3사건의 진압에 관여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비인간화하는 문화, 즉 적룡(赤龍)으로 간주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지휘 명령계통에 있는 일부기독교인들은 이 신념에 입각해 정책을 수립해 지시했고, 일선에 있는 군경과 청년단은 이에 근거해 학살에 가담했다. 이 논문은 이를 서북청년회, 조병옥 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서북청년회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피해를 입고 월남한 사람들이었다. 존 도커는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의 제5장 “피해자학과 제노사이드: 출애굽기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 “예전에 박해받던 사람들이 자신이 박해자로 그리고 과거의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사례는 제노사이드의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특징”이라고 했다.[673] 제주도에서의 서북청년회도 마찬가지였다. 공산주의에 피해를

673) 존 도커,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 17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입고 월남한 청년들은 공산주의와 이에 협조한 사람들을 살상하는 가해자들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월남기독교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82년 발행된 『한경직 목사』에서 그는 4·3사건과 서북청년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거 '기독교연맹'이란 거이 그런 성격이외다. 아 그래서 우리교회 청년들이 열렬한 반공청년들이라 가서 쳐부수고 해산시켰거든. 지금은 그 청년들이 다 장로됐수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자꾸 대립을 하고 그러니까니 그런 설교도 하고 대립했시오. 또 그때 '신탁통치' 문제가 나오지 않았시오? 그때도 우리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적극 반대도 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심지어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김규식 박사 그분드랴도 찬성을 하려고 그랬시오. 또 '기독청년회'가 있었는데 그때 회장으로 있던 이용설 박사도 찬성을 했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막 싸웠시오. 나는 절대 반대니까니 아예 타협을 안했시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았갔시오.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시오. 그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되었지요.[674]

한경직은 서북청년회가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과 이 청년들이 제주도반란 사건을 평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통해 이 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영락교회 누가 파견되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영락교회 출신 서북청년회 중 일부가 4·3사건 발생 직후 제주도에서 토벌대로 참전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 답 변 그건 그렇죠. 박용범씨는 서귀포 경찰서로 갔는데, 4·3사건에서 폭동일으킨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홍형균인데 용산역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여주인이 제주도 사람이라서 제주도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어 제주도 제주시로 가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
> 질 문 이분들이 장로가 되었습니까?

674) 김병희 편저, 『韓景職 목사』, 55-5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김성보 박용범씨는 장로가 되었고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질 문 그래도 이들이 한경직 목사의 말처럼 제주 4.3을 진압하러 간 것은 아니잖습니까?
답 변 그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영락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중에 서북청년단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시 영락교회 안에 서청단원들의 사무실처럼 쓰여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들이 서청을 주도했습니다. 오제도 검사도 검사되기 전에 서청원으로 활동했고요. 현재 고당 기념관 건너편에 서청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질 문 그럼 오제도 검사가 검사되기 전에 영락교회내의 서청을 주도했습니까?
답 변 그분은 곧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질 문 그렇다면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답 변 김섭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질 문 이분이 어느 서북청년회 입니까?
답 변 그건 잘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 서청원들이 모일 때 주도했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들이 서청을 거의 주도해 나갔습니다. 김섭태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675]

우선 김섭태는 1975년 12월 8일,[676] 박용범은 1965년 12월 19일, 홍형균은 1970년 12월 16일에 각각 영락교회 안수집사가 되었다.[677] 이들 모두 1960년대와 1970년대 영락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경직의 말처럼 영락교회 내에 서북청년회원들이 자주 모였고, 모이는 장소도 있었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가 김섭태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구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박용범은 4·3사건 직후 서귀포 경찰서 형사로 부임하였고, 홍형균은 제주도에 경찰로 파견되어 제주도 방언을 통역하였다고 했다. 그러므로 한경직의 주장처럼 영락교회 출신 서북청년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들 중 일부가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

675) 김성보 통화구술 (2014년 7월 12일).
676) 영락교회35년사편찬위원회, 『영락교회 35년사』 (서울: 영락교회출판부, 1984), 348.
677) Ibid., 34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적으로 4·3사건 진압을 주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한경직은 1946년 설교에서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기독교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678]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1947년 12월 설교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 곧 진리의 종교”라고 했다.[679] 반면에 1949년 설교에서 “공산주의야 말로 일대 괴물”이고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라고 하면서 이 “용을 멸할 자 누구냐?”라고 했다.[680] 기독교는 참과 진리이고, 공산주의는 절대 악인 마귀라는 것이다. 그는 설교를 통해 공산주의를 제거해야할 뿐만 아니라 멸족해야할 대상이라고 교인들을 독려한 것이다. 그 결과 이 교회 청년 오제도는 공산주의 적대에 근거해 공산주의자는 물론 이에 동조한다고 추정되는 시민들을 특정부류로 분류하여 국민보도연맹원을 조직하였다. 1930년대 신의주에서부터 한경직 목사의 영향을 받은 교인 장도영 육군정보국장도 1950년 6월 28일 수원에서 잔비와 보도연맹원 등 적색분자 처리를 지시했다. 또한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영락교회청년임과 동시에 서북청년회 단원 중 일부는 제주4·3사건 진압에 가담했다.

한경직 목사의 신념은 오제도, 장도영, 김윤근 그리고 서북청년회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들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진영논리를 따라 상호 연동하고 있었다.[681] 그리고 검사 오제도, 정보국장 장도영, 그리고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들 모두 한경직 목사처럼 공산주의를 적대·제거해야한다는 정당성을 신앙에서 찾고자 했다. 즉 오제도의 경우 1950년 12월 14일에 작성한 『적화삼삭구인집』의 서문에서 공산주의와 동조자들을 붉은 마귀라는 의미의 ‘적마(赤魔)’라고 했다.[682] 이는 한경직의 붉은 용과 같은 의미로 묵시록에 있는 사탄을 뜻한다. 오제도, 장도영, 영락교회출신 서북청년회는 공산주

678)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1946년),” 148.
679)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1947년 12월),” 196.
680) 한경직, “기독교와 공산주의,” 212.
681) 1950년 8월 20일 모슬포 경찰서에 예비검속된 344명 중 252명이 새벽 2시경과 5시경 2차에 걸쳐 총살하고, 돌무더기와 함께 암매장되었다. 이 사건은 모슬포 주둔군 해병대 제3대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당시 지휘관은 김윤근 소령이었다. 김윤근은 목사의 아들로 해방 후 영락교회 교인이었고, 1984년 미국 시드니 영락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 http://sydyoungnak.cafe24.com/zbxe/?mid=p12 2013년 11월 1일 접속.
682) 오제도, “서,”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의자와 이에 동조한다고 추정되는 시민들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거해야한다고 했다.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산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냉전의 진영논리였다. 그런데 이들은 냉전의 진영논리를 신념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신학 화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신념 속에서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붉은 용으로 규정되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인간과 다른 종인 악마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신념은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말세의 마귀로 비인간화 한 것이다.

2) 지휘명령체계 속의 기독교인들 - 조병옥과 이승만

기독교인 이승만과 조병옥은 제주4·3사건에 대한 강경진압을 지휘·명령한 핵심인물이다. 이승만은 9연대를 2연대로 교체하고, 발근색원을 지시한 최고책임자이고, 조병옥은 4·3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3·1절 기념일 발포사건 이후 제주4·3사건 진압을 지휘한 인물이었다. 당시 제주도 지역 주둔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金益烈)은 "4·3사건에 총책임자가 조병옥씨야.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라고 하였다.[683] 그만큼 조병옥이 4·3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제주도 주민들은 총파업으로 맞섰다. 3월 14일 제주도를 방문한 조병옥은 주민들의 파업을 폭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폭동의 목적이 조선민족의 자치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세계에 폭로하여 조선의 건국을 방해하는 데 있다고 했다.[684] 이어 "제주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면서 "건국에 저해가 된다면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685]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48년 4월 16일, 조병옥은 "도민에 고함"이라는 선무문에서 이 사건을 5·10 총선거를 방해하여 "민족을 소련에 팔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분자의 흉악한 음모와 계략"으로 규정했다.[686] 이는 소련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를 4·3사건에 직접 적용한 것이다.

68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김익렬 HA00299," 「증언록」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66. 11. 28).
684) 「濟州新報」 (1947년 3월 16일).
685) 金亨中(88세. 제주시 이도1동,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 2002. 9. 13. 채록) 증언.
686) 「濟州新報」, (1948년 4월 8일, 4월 18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4·3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는 문봉제를 통해 서북청년단원 500명을 지원받아 진압작전에 투여했다.[687] 또한 조병옥은 오라리 사건을 조작하여 강경진압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688] 이상을 통해 4·3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강경진압의 정당성을 제공한 사람이 조병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진압정책을 만들어낸 논리와 지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병옥은 4·3사건 발생 직후 "조선은 지금 자유냐 노예냐 독재주의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족주의냐 생이냐 사냐 하는 십자로에 놓여있습니다."[689]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타협과 합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690] 그의 주장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논리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그는 이 냉전의 논리를 기준으로 하는 진영선택을 "생(生)이냐 사(死)냐"라는 생존의 문제로 확대시켰다. 진영선택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즉 " 조선 문제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세계문제의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예증입니다. 마치 전 인류가 삶이냐 죽엄이냐 하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자유냐 죽엄이냐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691] 그를 지배하는 것은 경직된 이원론을 내용으로 하는 진영논리였다. 여기에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냉전의 논리가 더해진 것이다. 그런데 진영을 선택하는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생존과 안정이 판가름 난다는 의미였다.

그는 한국에 대한 소련의 목표는 "한국을 그들의 '진보적 민주의의'(공산주의-인용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 보랴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민족을 분열하는 자는 공산당이요, 국토를 양단하는 자는 소련"이라고 하였다.[692] 그는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한국을 공산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민족을 분열시켰다고 했다. 이어 "남조선은 북조선에 의하야 조종되고 남조선에 있는 그 일당에 의하야 수행된 파괴적 선전과 파괴적 활동

687) 北韓硏究所, 「북한」1989년 4월호, 127.
688) 金益烈,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338-342.
689) 조병옥, "民族 運命의 岐路," 『民族 運命의 岐路』, 27.
690) Ibid., 25, 29.
691) Ibid., 27-28.
692) 조병옥,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 『民族 運命의 岐路』, 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의 대상”이라고 하였다.[693] 남조선에서 발생하는 파괴적 활동, 즉 제주4·3과 같은 사건을 북조선에 의하여 조종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남한에서 발생한 소요를 외부세력에 의한 내부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통한 국가전복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입장은 유력한 정치인 이승만과 미군정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었다. 1947년 4월 20일 발표한 「주의주장만 고집 말고 정권회복(政權恢復)에 노력하자」라는 성명서에서 이승만은 3월 20일 트루먼이 “동서 각 국 문제에 소련이 미국과 합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이 단독 진행할 것과 공산세력이 확대를 어디서든지 제지”하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트루먼 독트린을 적극 환영하였다. 이어 “좌우합작이라는 문제도 민족통일에 방해하는 행동이나 언론은 일절 없기를 갈망한다.”고 하였다.[694] 4월 27일에 발표한 “자유 입장서 소(蘇)와 절충보선(折衝普選)으로 임정수립(臨政樹立)”라는 성명에서는 “나는 좌우합작의 성공을 믿지 않었다.”라고 했다.[695] 좌우합작을 주장하는 김규식과 같은 중간파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1947년 9월 18일에 발표된 「선거 반대파와 협동할 수 없다」는 성명서에서 “총선거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중립태도를 가지거나 혹 좌우간 결정을 못하는 등 단체에는 … 협동”할 수 없다고 하였다.[696] 이에 따라 그는 UN대표로 조소앙과 김규식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조소앙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규식은 좌우합작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697] 당시 김규식이 회장으로 있었던 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총무였던 강원룡은 이승만이 김구와 함께 1946년 6월 29일 민족통일총본부를 조직한 직후 돈암장에서 가진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공개적으로 김규식 박사를 배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였다.[698] 이어 김구 등 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를 배제했다. 1948년 4월 1일, 이승만은 “남북

693) 조병옥, “民族 運命의 岐路,” 『民族 運命의 岐路』, 28-29.
694) 이승만, “주의주장만 고집 말고 정권회복(政權恢復)에 노력하자(1947. 4. 20),” 156-167.
695) 이승만, “자유 입장서 蘇와 折衝普選으로 臨政樹立(47. 4. 27),” 159.
696) 이승만, “선거 반대파와 협동할 수 없다(1947. 9. 18),” 177.
697) 이승만, “民思 받드러 단독 투쟁 - 유엔대표는 민족의 대변자로(1947. 10. 16),” 182.
698) 강원룡, 『빈들에서』 1, 208-20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회담 문제는 세계에서 소련정책을 아는 사람은 다 시간 연장으로 공산화 하자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699] 단정을 막아 보려는 김구의 남북회담을 5·10총선거를 연장시키기 위한 책략으로 간주하고, 이를 소련의 공산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승만의 성명서와 담화문은 공산주의 배제 → 좌우합작의 중간파 배제 → 남북통일을 위한 총선거 연장을 주장하는 김구와 민족주의자 배제로 이어지는 정치행보를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1949년에 저술된 『일민주의개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소련 공산당의 “거짓 선전에 빠져서 남의 부속국이나 노예가 되거나 또는 공산당과 싸워 이겨 민주국가들이 자유 복리를 누리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야만 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700] 소련을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소련의 부속국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한 길밖에 없다는 주장은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냉전의 진영논리를 완성했다.

소련의 “부속국이나 노예”라는 이승만의 말은 조병옥이 작성한 “도민에 고함”에도 나타난다. 또한 총선거가 독립정부 수립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폭동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병옥의 주장과 정치적 개입으로 연기되는 것을 공산주의 책동으로 간주하였던 이승만의 주장은 서로 일치했다. 이것은 냉전의 진영논리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논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논리에 따라 제주 4·3사건의 성격이 규정되고 진압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조병옥과 이승만의 논리는 미국무부 및 미군정과 일치했다. 미국은 대한정책인 NSC8을 1948년 4월 2일 발표했다. 4월 20일, 경무부경찰청공보실은 『민족운명의 기로』를 발행했다. 이 책에서 조병옥은 미국의 대한정책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조선을 援助함이 美國策에 符合되는 까닭입니다. 미국은 조선을 통일적인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므로써 民主主義 陣營을 世界的 規模로 防衛하고 極東의 地理的 樞要地인 조선반도를 미국의 友好圈으로 편성키 위함으로써 그 국방

699) 이승만, “대세판단에 朦昧(1948. 4. 1),” 226.
700)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1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상생명선인 태평양을 보위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방위가 깨어지는 날에는 태평양방위는 중대한 脅威를 받게 되는 까닭입니다.[701]

미국이 조선을 원조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가 깨어지는 날에는 태평양 방위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부분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련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은 NSC8에 나타난 미국무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일치했다. NSC8은 소련의 대한국정책의 주요 목표를 "소련의 전 한반도 지배"로 보았다. 그런데 "소련의 전 한국 지배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전략적 입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이 지역 및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한에 수립된 정권이 소련이 사주하는 세력에 의해 전복된다"면 유엔과 미국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702] 제주4·3과 여순사건을 경험한 미국무부 동북아시아부 부장 비숍은 1948년 12월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극동국 국장 버터워쓰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전 한반도 지배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일본열도가 세 방면에서 공산주의 국가들로 둘러싸이고 … 극단적인 경우 공산주의 국가는 일본을 그들의 영향 하에 두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 체제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태평양에서 미국의 안보가 손상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연쇄작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와 자립적 민주정부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NSC8에 대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703]

한반도에서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의 자치력을 공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무부와 조병옥 경무부장의 주장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렇다면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

701) 조병옥, "治安의 角度로 建國을 論함", 『民族 運命의 岐路』, 10-11.
702) "미국 국무부 점령지역 차관보 살즈만의 대한경제원조 정책안에 대한 비망록", 1948년 9월 7일, 1292~1298.
703) "미국 국무부 동북아시아부 부장 비숍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극동국 국장 버터워쓰에게 보내는 비망록," 1948년 12월 17일, 1337~1340쪽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는 미국과 조병옥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총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을 확실하게 제거하고자 했다.

그는 4·3사건의 무장대와 이에 협력하거나 방조하는 제주도민들을 배제·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제주도민 제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정책 지침을 만들어야 했다. 즉 그의 논리는 공산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냉전의 진영논리 – 윤리적 정당성(무장대와 협력자를 파괴진영으로 규정) – 신학적 정당성(무장대와 협력자를 사탄의 진영으로 규정)으로 이어졌다.

조병옥은 "공산당과 그 추종자들", 즉 "破壞陣營(파괴진영)의 동맹군이 된 자들"이 "폭력으로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704] 이어 그는 5월 10일 총선거투표까지 3, 4주일 간 "反民族 非國民인 共産徒輩는 … 민중을 기만 선동하고 선거사무소와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동포를 살상하고 國財를 파괴하는 反逆行爲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는 "미신적으로 모스코바의 지령에 驅使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徒輩는 法의 罪人이오 민족의 적이오 국가의 반역자다. 적과 반역자에 대하여서는 거긔 상당한 措處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705] 그의 5·10 총선거 반대에 대한 예측은 남로당의 단선·단정반대운동과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의 단정반대운동을 반영한 결과이었다. 그가 글을 쓰기 전에 총선거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선거반대세력을 공산당과 그 추종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파괴진영으로 규정했다. 파괴진영을 규정하는 논리는 공산주의 적대를 내용으로 하는 냉전의 진영논리였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적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윤리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산주의와 추종자를 죄인, 악도배, 반역자로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비국민', 즉 국민에서 배제시켰다. 총선거를 반대하는 이들을 '비국민'(非國民)으로 규정하고 이를 모스코바의 지령에 구사(驅使 사람이나 동물을 함부로 몰아쳐 부림)된 민족의 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비인간화 한다. 공산주의자와 "共産主義에 感染되여 亡國思想에 中毒된 일부 賣國徒輩"라고 했다.[706] 공산주의

704) 조병옥,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 『民族 運命의 岐路』, 1.
705) Ibid., 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를 질병의 보균자, 이에 동조하는 자들을 '감염' 되어 '중독' 된 매국도배로 각각 규정하였다. 일단 질병보균자와 감염된 자에는 단선과 단정 반대를 주도한 남로당과 총선거의 연기를 주장하는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도 포함된다. 이들을 감염과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인간화 하였다. 그래서 그는 "건설의 장애물인 이 돌짝밧과 가시덤불을 除去" 하는 것이 국립경찰과 민족에게 부과된 지상명령이라고 하였다.

감염과 중독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제거를 위한 정당화 작업이었다. 슈테판 마르크스는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에서 "프로이트는 '금기시되는'을 "한편으로는 성스러운, 신성한, 다른 한편으로는 섬뜩한, 위험한, 금지된, 불결한" 것으로 정의했다고 하였다.[707] 그러면서 이것을 "접촉을 통해 마치 감염되듯 전달되는 비밀스럽고 강력하며 마력적인 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금기는 전염될 것이라는 생각과 연관된다." 고 하였다.[708] 그의 주장처럼 조병옥은 공산주의를 금기로 보았고, 질병의 보균자로 보았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도달하고 따라서 반드시 제거하되 멸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조병옥의 이러한 사고가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 이라는 글에서 그는 "공산당과 그 추종자" 들을 "파괴진영", 혹은 "사탄의 陣營" 이라고 하였다.[709] 선거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윤리적 정당성을 신학의 반열로 올려놓는다. 이는 상대를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世界는 組織된 共産主義 惡徒의 跳梁을 막기 위하야 일어나 조직하고

706) 조병옥, "治安의 角度로 建國을 論함", 『民族 運命의 岐路』, 6.

707) Freud, Sigmund(1912-1913/1970), "Totem und Tabu", In : Alexander Mitcherlich · Angela Richards · James Strachey · Ilse Grubrich-Simitis (Hg.), Sigmund Freud Studienausgabe. Bd. 9 : Fragen der Gesellschaft. Ursprunge der Religion, Frankfurt a, M. : S, Fischer, 311: 슈테판 마르크스,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 신종훈 역 (서울: 책세상, 2009), 35에서 재인용.

708) Ibid., 34-35.

709) 조병옥,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 『民族 運命의 岐路』, 1, 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있다. 그것은 유엔이오, 美, 英, 佛, 中의 同心協力이요, 로마 法王의 命令이다. 이제 파괴되랴는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하야 防共勢力이 나날이 結束되고 있다. 저 사탄의 陣營 이 순순히 服屈하면 몰라도 여전히 그의 惡을 繼續한다면 그들이 無底抗으로 轉落하는 운명의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다.[710]

無底抗(무저항)은 한글 '무뎌항'을 한문 無底坑(무저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한 것으로 판단된다.[711] 1909년 대영성서공회가 순 한글로 발간한 『신약전서』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의하면 "내가 보매 텬ᄉᆞ가 하ᄂᆞᆯ노셔 ᄂᆞ려오ᄂᆞᆫᄃᆡ **무뎌항**(강조-인용자) 열쇠와 큰 쇠사슬이 그 손에 잇ᄂᆞᆫ지라 이에 룡을 잡으니 곳 녀ᄇᆡ암이오 마귀오 사단이라 일천년 동안 결박ᄒᆞ야 무뎌항에 던져 잠그고"라 하였다.[712] 즉 용은 말세에 나타나는 4개의 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다. 이 용을 결박하여 1천년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이 '무저항'이며 한문 성경의 표기대로라면 武底坑(무저갱)인 것이다. 이렇게 놓고 위 인용문을 해석하면, 조병옥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을 "사탄의 진영"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무저항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1910년대부터 1940년 전후까지 널리 유행한 요한계시

710) Ibid., 7.

711) 無底抗(무저항)은 두 가지 단어의 오기로 추정된다. 하나는 기독교 용어인 無底坑(무저갱)의 오기이거나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無抵抗(무저항)의 오기일 수 있다. 1911년 대영성서공회가 발행한 『新約全書』(국한문)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의하면 '無底坑'(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1909년 역시 대영성서공회가 순 한글로 발간한 『신약전서』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는 '無底坑'(무저갱)을 '무뎌항', 즉 무저항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후세도」(1930년대 말)에도 '無底坑'(무저갱)을 '무뎌항'으로 표기했다. 따라서 '무저갱'을 한문으로 쓸 때는 '無底坑'으로 표기하였지만, 동시에 한글 로 쓸 때는 '무뎌항' 즉 무저항으로 표기하고 있어 1900년대부터 1930년대 말까지 이 두 가지가 모두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뎌항은 마귀와 사탄으로 해석되는 용(龍)을 1천년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이다. 史嚴泰 編, 『믁시록히셕』 (경성: 三天使之奇別社 1914) 265쪽에도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해석하면서 '무뎌항'이라고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洪鍾肅, 『默示錄釋義』(Studies in the Book of Revelation) (경성: 야소교서회, 1913) 100쪽에는 '無底坑'이라는 한문으로 표기하고 있다. 묵시록 주석류와 「후세도」와 같은 그림들은 당시 널리 유행했던 것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들이었다. 따라서 당시 한글로는 '무뎌항', 즉 '무저항'으로, 한문으로는 '無底坑', 즉 '무저갱'으로 표기되었다고 판단되며. 그러므로 조병옥의 "사탄의 陣營이 … 無底抗으로 轉落"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진영, 즉 사탄의 진영이 무저항으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712) 『신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09)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록 2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전형적인 기독교 신앙을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은 “공산주의 악도의 도량”을 막는 방공세력이라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 적대를 기준으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을 구별하고 이에 신학적인 해석을 가하여 이를 악의 진영과 선의 진영으로 분리하였다. 즉 선과 악이라는 기독교의 이원론에 근거해 자유민주주의를 선, 공산주의와 동조세력을 악으로 규정하였다. 냉전의 진영논리를 신학 화하였던 것이다.

해방 이후 조병옥을 기독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그는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의 생각과 행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조병옥은 아버지 조택원(趙宅元, 조인원)과 어머니 남양 홍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천안 병천면 용두리다. 조인원은 1900년대 미 북감리회 선교사인 케이블(E. M. Cable)의 전도로 이 지역 최초의 감리교인이 되었으며 그의 사랑채는 사경회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케이블 목사는 조병옥을 공주에 있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인 영명학교에 추천하여 입학케 하였다.[713] 영명학교에서 2년을 공부한 후, 역시 기독교 학교인 평양숭실중학교를 입학하여 1912년에 졸업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911년 귀국하여 YMCA의 학생총무로 있었던 이승만의 영향을 받아 미국유학을 결심했다.[714] 1918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 킹스턴 시에 있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인 와이오밍고등학교를 입학하였다. 1922년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25년 동 대학원에서 「한국의 토지제도」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와이오밍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많은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다는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는 “기독교의 교리로서, 사회복음(Social Gospel)의 본질을 파악한 나로서, 언제나 기독교에 귀의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의 감화는 나의 인생항로에 커다란 지침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715] 해방 전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지

713) 조병옥, 『나의 回顧錄』, 27.
714) Ibid., 3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만, 조병옥 자신은 회고록을 쓸 당시인 1959년에도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기독교였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사회복음주의는 무엇이고, 이 신학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5년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그는 연희전문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였다. 또한 "YMCA이사로 있으면서 일요일이면 청년회 일요강습회에 나가 젊은 학생, 또는 청년들을 위하여 설교"도 하였다. 그는 "교회에서나 청년회 일요강좌에서의 나의 설교요지는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다. 즉 사회복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라고 하였다.[716] 그가 말하는 사회복음은 다음과 같았다. 그런데 그는 앞에서 기독교의 교리로서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것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가 표현한 것처럼 이것이 자신의 인행항로의 지침이기 때문이다.

>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온 것이라' 고, 그리하여 주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위에 이루었던 것이다고 제시하고, 주기도문 속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간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고 하였으니, 우리의 신자들이 모범이 되어 앞장을 서서 우리 조선사회를 지상낙원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었던 것이다. 즉 하나님의 땅에도 지상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 나의 주장이었던 것이다.[717]

그의 사회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조선사회를 지상낙원으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인간의 원죄의식을 매일 같이 되풀이 하여 기도로서 속죄나 용서를 빌고 호소하기보다 … 인간사회의 죄악인 질병, 무식, 궁핍 등의 3대 죄악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18]

한편 그는 "이러한 나의 주장은 기독교사회에다 다분히 사회성과 정치성

715) 조병옥, 『나의 回顧錄』, 40-41.
716) Ibid., 90.
717) Ibid., 91.
718) Ibid., 9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을 가미한 것으로써 그러한 사회성 및 정치성을 우리 기독교사회에나 또 우리 민족 사회에나 가미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도저히 지상낙원을 건설할 도리가 없다" 고 하였다.[719]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YMCA회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청년,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학생 등 60여 명으로 기독교신우회(基督敎信友會)를 조직하여 기독교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기독교혁신은 사회악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였다.[720]

그의 사회복음주의는 이원론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원론적 구조는 지상낙원이라는 이상과 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는 지상낙원을 방해 요소가 질병 · 무식 · 궁핍이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요소는 결핍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병옥은 이것을 인간사회의 3대죄악의 근원으로 규정했다. 이유는 이것들이 지상낙원을 이루는데 방해기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3대 죄악이든, 사회악이든 악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럴 때 앞에서 "기독교의 교리로서, 사회복음(Social Gospel)의 본질을 파악" 다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선과 악의 관념을 가지고 사회복음주의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자신의 입장을 선으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으로 발전했다.

그는 공산주의를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보았다. "露西亞人 교수인 '씽코뷔치' 교수" 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독일어 원서로 맑스의 '자본론' 도 심독한바" 있으며 그로 인해 "유물론적 입장을 취한 유물사관의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 하였다고 했다. 이것은 후일에 "공산주의 내지 공산주의전략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 이 되었다고 했다.[721] 또한 귀국 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주의 성향의 교수들과 갈등을 겪었다. 철학교수 이관용(李灌鎔), 경제학 교수 이순탁(李順鐸)과 백남운(白南雲)이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강의를 하였으나, 자신은 "자유민주주의 적인 입장에서 경제학 및 사회학을 강의" 하였다고 한다.[722]

719) Ibid., 92.
720) Ibid., 94.
721) Ibid., 44.
722) Ibid., 8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특히 이순탁 교수와 백운남 교수의 “무신론적 경제학 강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723] 그리고 1927년 신간회의 경험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을 “조국을 배반하면서까지 ‘코민테른’의 지령이라면 꼼짝 못하는 파괴분자”로 단정했다.[724]

그는 공산주의를 적대하는 당시 기독교 신앙의 바탕위에 러시아 교수의 공산주의 비판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연희전문대 좌익교수와의 갈등과 신간회에서의 공산주의자와의 갈등을 경험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를 무신론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이를 파괴분자 혹은 민족반역자로 판단하였다. 공산주의 적대의 출발점은 기독교 신앙이었고 그 바탕위에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이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선과 악의 구별과 대립에 익숙한 이원론자 조병옥은 그 악의 영역에 공산주의를 넣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사회악이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하며, 바로 그 악의 제거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해방 후 그의 이원론 적 시각은 한국사회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선의 세력과 이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구도로 보게 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선으로 부정적 타자를 악으로 구별하는 경직된 이원론은 “극단적인 자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725] 스스로를 선과 소망을 달성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대리자적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726]

바로 이 선과 악의 구별과 악은 제거되어야한다는 이원론적 신학이 그의 사회복음주의 신학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었다. 이것이 해방 직후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한다고 추정되는 모든 존재는 악의 진영에 속해 있고, 이를 제거하는 자신은 선의 진영에 속해 있다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와 공산주의에 동조한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사탄의 진영이라고 규정했고, 사탄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병옥의 신앙은 당시 기독교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었다. 당시 장로교를 대표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1946년 설교에서 “유

723) Ibid., 89.
724) Ibid., 116.
725) 스탠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30-31.
726) Ibid., 196-19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기독교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727]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 곧 진리의 종교”[728]인 반면에 “공산주의야 말로 일대 괴물”이고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729]이라고 하였다. 기독교는 참과 진리이고, 공산주의는 절대 악인 마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제거해야할 뿐만 아니라 멸족해야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조병옥의 극단적 이원론과 일치할 뿐 아니라 붉은 용으로 규정된 공산주의자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과도 일치하였다.

727)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 148.
728)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196.
729) 한경직, “기독교와 공산주의,” 21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Ⅵ. 6·25전쟁 시기 민간인집단희생과 기독교인의 가담

1. 학살의 논리와 국민보도연맹원 분류[730]

1) 학살의 논리와 문화

울진경찰서 온정지서 순경은 "부역혐의자를 죽이지 않으면 아군이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부역활동을 한 사람들은 마땅히 처단해야 했다"고 했다.[731] 생존을 위해 부역혐의자를 처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제거함으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1950년 7월 24일자 미군의 정기보고는 적의 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토착민은 아군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반드시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732] 전쟁 중에는 일상적이고 평범하기까지 한 이 말에는 확실한 아군이 아니면 적, 즉 확실한 우리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가 담겨있다. 바로 이 논리가 6·25전쟁을 관통하는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논리였다.

그렇다면 6·25전쟁 당시 진영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육군정보국 방첩과(CIC) 장교의 주장에서 확인된다. 그는 6·25전쟁 개전(開戰) 직후 CIC는 "민간인이고 군대고 없어. 그냥 빨갱이만 잡는 거야"라고 했다.[733] 진영을 결정하는 기준선은 빨갱이 적대, 즉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이었다. 따라서 6·25전쟁을 관통하는 논리는 냉전의

730) '분류'는 전쟁 당시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A, B, C로 분류할 때 사용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과 관련된 용어 중 '결성'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결성'은 결성 주체의 긍정적 입장을 반영한다. 따라서 특정집단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분류'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분류의 보다 적합한 개념은 타자구성이다. 이는 타자화의 집단적이고 구조적 형태를 말한다.

731) 참고인 이재호 진술조서 (2008년 1월 24일): 진실화해위원회, 「울진 부역혐의희생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6월 3일) 62에서 재인용.

732) RG324 Entry 5AF, Box3579, INTEL 5TH AF [NoGunRi File No. 342.212]. 1950년 7월 25일에 작성된 정기보고.

733) 장경순 구술녹취 (2009년 3월 4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진영논리였다. 이것에 근거해 전쟁의 개념이 형성되고, 좌익관련자들이 시민들과 구별되어 분류되었고, 분류된 이들 중 일부는 재분류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존재했다. 빨갱이에 대한 규정과 분류의 문제였다. 빨갱이의 정체에 관해 한 민군 보고서는 "한국 CIC는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아닌 반대자들 까지도 아무런 재판 없이 수많은 처형을 저질렀다."고 했다.[734] 즉 확실한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 반대편으로 규정하는 냉전의 진영논리가 대규모 집단학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형무소 재소자,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리를 지휘한 CIC의 핵심 논리는 공산주의는 물론 자기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반대편, 즉 빨갱이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6·25전쟁을 관통하는 논리는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였고, 그 진영을 결정하는 기준선은 소련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였다.

그런데 이 논리는 개전 직후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정국을 주도하는 대표적 정치논리이자 이념이었다. 남선(南鮮) 순행 이후 가장 확실한 이승만의 정치조직이 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국민회)에 대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만일에 그 세력 밋흐로 드러가지 안코 그 독직적 힝사와 봉건적 틱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잇스면 좌익이라고 혹은 공산당이라고 지명하야 반박하고 심지어 테로단으로 탄압 ᄉᆡ지하며 군정과 경찰은 극우파의 총지(이승만-인용자)를 동정하니 극우파의 정칙을 반대하고는 견대기 어려울만치 되어서…."라고 하였다.[735] 당시 가장 큰 정치단체였던 국민회의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좌익 혹은 공산당으로 규정하고 배제·제거하려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적대를 기준으로 하는 진영논리는 남한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 이승만과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국민회의 정치논리였다.

그런데 냉전의 진영논리는 공산주의 적대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한 정치이념, 즉 반공이념이 아니었다. 이는 국가권력과 이에 동조하는 협력자들이 만들어 낸 논리로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종교에 깊게 자리한 하나의 문화

734) NARA, RG319 "CIC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Box6. CIC school, Fort Holabird, 볼티모어, 'Counterintelligence Corps operation in Korea, 1951.11.15. 진실화해위원회,『국민보도연맹원 사건』(2009년 11월 17일), 199에서 재인용.

735) 미주라셩과 하와이재미한국련합위원회 집행부, 『해방죠션』, 1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적 현상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950년 4월 사설에서 “요구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빨갱이, 사감(私憾)이 있으면 빨갱이, 같이 사업하다 이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다른 쪽을 빨갱이, 정치노선이 달라도 빨갱이라고 몰아대어 사람들이 언제 어떤 모략에 걸릴지 안심하고 지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했다.[736] 냉전의 진영 논리가 단순한 이념이 아닌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했다는 것이다. 기독교도 이 문화 현상을 형성한 중요 단체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냉전의 진영논리와 문화에 근거해 국민보도연맹원이 시민들과 구별되어 특정집단으로 분류되었고, 개전 직후 점령지역에서의 안전을 확보함으로 국가의 생존을 지킨다는 정부당국의 정책지침과 담당기관의 일련의 지시에 따라 형무소재소자 · 요시찰인 · 좌익관련자들과 함께 처형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민보도연맹원을 특정집단으로 분류한 논리와 정책지침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기독교의 어떤 세력이 어떻게 이 논리에 동조(同調)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6 · 25 개전 직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기술하고, 지휘명령체계에 나타난 논리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이며, 한국 교회 내의 어떤 세력이 이것과 어떻게 연동(聯動)했는지 파악할 것이다.

2) 국민보도연맹원 분류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을 제정·공포하여 좌익관련자들을 색출하였다. 1949년 1월 10일 완료된 여순사건 관련 숙군(肅軍)의 결과 총 2,817명이 재판을 받고, 이중 410명이 사형, 563명이 무기징역, 나머지는 가벼운 형을 받거나 석방되었다.[737] 정부의 대대적인 좌익색출 결과, 1948년 9월 4일부

736) 「조선일보」 (1950년 4월 1일): “모략과 중상을 버리자,”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하)』(서울: 역사비평사, 1999), 681에서 재인용.

737) 노영기, “육군 창설기(1947~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36, 44-46쪽. 1949년 2월부터 11월까지 352명이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됨.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총 242명의 장교 파면, 4,133명의 사병이 불명예 제대함.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터 1949년 4월 30일 사이에 89,710명이 체포되고 그 가운데 21,606명이 기소되었다. 기소된 사람들 중 80% 이상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1948년 12월 현재 형무소 수용능력이 15,000명인데 비해 수감자가 4만 명이었다.[738] 이에 따라 좌익관련자들을 별도의 단체로 조직하여 이를 통제하고 전향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국민보도연맹은 기독교인 오제도 검사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와 사회지도자들의 동의를 거쳐 정부 인사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4월 20일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을 거행하였다.[739] 보도연맹 창설 당시 정부의 표면적 의도는 보도연맹원을 심의하여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제도는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전향성적이 불호(不好)하거나 만약에 가맹동기가 일시적 도피수단으로 악용한데 있거나 연맹사업에 대한 불평과 중상을 일삼거나 전향을 가장하고 의식적으로 푸락치 행동을 음모한 악질분자에 대하여는 일반의 국가보안법위반자에 배가(倍加)하여 철저한 엄벌을 단행할 것이다.[740]

보도연맹원은 전향자인 동시에 감시·통제의 대상이었다. 그의 말처럼 "피눈물 섞인 속죄와 참회"[741]가 있기까지 보도연맹원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받는 심의 대상인 것이다. 심의기간 동안 보도연맹원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국민과 구별되어 분류(分類)된 특정집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보도연맹원에게는 1949년 10월부터 일부지역에서 발급되기 시작한 도민증 대신 보도연맹원 맹원증이 발급되었다. 이는 국민보도연맹원이 국민이 아닌 특정집단으로 분류 되었다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동시에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구별된 존재로 감시와 통제를 받고

738) Gregory Henderson, 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1968, 박행웅·이종삼 역,『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 2000), 252.
739)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애국자』창간호 (1949년 10월 1일), 10: 진실화해위원회,『국민보도연맹원 사건』, 37-38에서 재인용.
740) 오제도, 『思想檢事의 手記』, 148.
741) Ibid., 14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있었다.[742]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보도연맹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나타난다. 보도연맹원은 가입 당시 양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양심서는 전향자가 자신의 좌익전력을 모두 자백해야하는 자술서였다.[743] 양심서에는 자신이 연루된 좌익 세포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적어내야 했는데 대개 5-10명의 세포원을 자백했다. 양심서 내용은 가입 후 1년 동안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검증은 전향자가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심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누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도연맹원은 엄벌에 처해졌다.[744] "피눈물 섞인 속죄와 참회"가 없는 보도연맹원은 '공산독균'[745]과 나병에 감염된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치료하기 까지는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병에 "감염되였을 때는 최선의 방도로서 治療하도록 하는 것이나 만약 치료할 수 없고, 그 나병자 때문에 더 많은 나병자가 있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大國的 立場에서 희생(嚴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746] 치료가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 더 많은 감염이 우려될 경우 감염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도연맹원을 감시의 통제의 대상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거해야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전시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렇다면 국민보도연맹원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1949년 11월

742) 참고인 백봉의 진술조서 (2007년 7월 26일):『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9월 22일), 25에서 재인용. 부산시 대한조선공사 보도연맹원이었던 백봉의는 '보도연맹원 증명'이라는 신분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도민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참고인 백영선 조사내용,「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출장조사 결과보고」(조사3팀-222, 2007년 11월. 2일): 진실화해위원회,『국민보도연맹 사건』, 124에서 재인용. 경남 울산군 보도연맹원이었던 백영선은 당시 보도연맹원에게 도민증이 지급되지 않아 차표를 살 때도 보도연맹원증을 제시해야 살 수 있었다고 했다; 참고인 심재웅 진술조서 (2008년 12월 10일):『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서울: 진실화해위원회) 14에서 재인용. 경남 진주시 희생자 심희준의 아들 심재웅도 부친이 자신의 보도연맹원 맹원증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멀리 못 간다"라고 하였다.

743) Airgram(American Embassy, Seoul→Division of Northeast Asian Affairs,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NARA, LM 80, Reel 4, American Embassy(Seoul, Korea), Airgram. A-389(1949.11.28.): 진실화해위원회,『국민보도연맹』(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에서 재인용.

744) 김기진,『한국전쟁과 집단학살』(푸른역사, 2005), 30.

745) 오제도,『붉은 군상』, 130.

746) Ibid., 13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0일 결성된 보도연맹 촉진 통영군위원회는 보도연맹원 대상자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분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1. 현재 민전 산하의 좌익정당[남로당, 인공당(인민공화당), 민족애국청년동맹(민주애국청년동맹의 오기-인용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가입한 반국가적 만행에 가담한 자.
1. 좌익정당 등에 금품을 제공한 자
1. 좌익진영의 인물을 은닉한 자.[747]

보도연맹원은 좌익정당이나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물론 좌익정당 등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좌익진영의 인물을 은익한 좌익관련자들도 모두 보도연맹원의 가입대상이었다. 좌익관련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포항 구룡포읍 석병리 대한청년단장을 하던 정학로는 "빨치산에게 성냥 하나라도 주면 다 데려가서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시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748]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는 사찰주임 유봉순이 마을 사람들을 학교에 모아 놓고 빨치산에게 쌀을 주거나 협조했던 사람들을 설득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749] 경기도 이천 설성면 신옥남의 오빠의 경우 장호원읍 지서에 끌려가 심한 구타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서 지서 경찰이 손도장을 찍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도연맹원에 가입된 경우도 있다.[750] 즉 초기에는 좌익정당과 단체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연맹의 가입대상이었지만, 이후 좌익에게 협조했다고 추정되는 주민들도 가입대상에 포함되었다.

분류의 기준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였다. 통영군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남로당 등 좌익계열의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물론 좌익정당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진영의 인물을 은익한 사람들도 보도연맹원 가입대상이었다. 좌익계열의 정당과 단체 및 인물에 협조한 사람도 보도연맹원

747) 「부산일보」 (1949년 1월 13일).
748) 참고인 정복수 진술조서 (2009년 6월 23일) ; 참고인 하경진 진술조서 (2009년 6월 23일),『경북 포항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0월 6일). 48에서 재인용.
749) 참고인 김진양 면담보고서 (2009년 8월 27일),『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1월 3일), 29에서 재인용.
750) 신옥남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신옥남의 오빠는 1950년 7월 초 장호원 인근에서 이천 지역 보도연맹원과 함께 집단 살해 되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가입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 4·3 사건 당시 무장대에 협력하였다고 추정된 주민과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좌익진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형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였다.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가 분류의 기준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공산주의에 협력했다고 추정되는 민간인들도 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중간파 혹은 중간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원 및 좌익관련자로 예비검속되었다. 김해경찰서 문서들은 경찰서 이하의 단위에서 보도연맹원 및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예비검속과 처리과정을 설명해 준다. "1950년 7월 12일 김해경찰서 사찰계는 각 관할 지서에 「불순분자 구속에 관한 건(또는 불순분자 구속의 건)」이란 전화 통첩을 하달" 했고,[751] 각 읍·면단위 지서는 관내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을 비상소집했다.[752] 이에 따라 각 지서에서는 구속한 예비검속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김해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다. 각 지서별로 작성된 '불순분자' 명단은 ① 주소, ② 성명, ③ 연령, ④ 소속단체(정당) 및 지위, ⑤ 비고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753] 그런데 비고란에는 "중간좌경인물로서 위험성을 소지한 자" 등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자 대상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754] 이중 "중간좌경인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좌익적 경향이 있지만 완전한 좌경이 아닌 중간파에 속하는 좌경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슬포 경찰서가 1950년 9월 생산한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에 기록된 모슬포 관내 예비검속자 명부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명부에 나타나는 '범죄개

751) 「불순분자 구속의 건」(駕支 제1499호, 1950.7.13) ; 「불순분자 구속에 관한 건」(棄支 제969호, 1950.7.12), 「불순분자 구속에 관한 건」(鳴支 제1419호, 1950.7.13), 『부역자명부』, 5 ; 7; 13쪽. 진실화해위원회, 「김해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월 5일), 49에서 재인용.

752) 「불순분자 구속에 관한 건」 (鳴支 제1419호, 1950.7.13), 『부역자명부』 9, 14, 진실화해위원회, 「김해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49에서 재인용. 1950년 7월 13일 명지지서에서 김해경찰서에 올린 보고문서의 비고란에 '요시찰인으로서 12일 소집에 불참자' 라고 기록되어 있어 7월 12일 일제 소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53) 「불순분자 구속의 건」(駕支 제4031호, 1950.7.13), 『부역자명부』, 7. 진실화해위원회, 「김해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50에서 재인용.

754) 「불순분자 구속에 관한 건」(鳴支 제1419호, 1950.7.13), 『부역자명부』, 14; 「건명 : 요시찰인 검거 구속자 보고의 건」(제1809호, 1950.6.27.); 「(사찰)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에 관한 건」(각 서장, 1950.7.9. 城署査 접수); 「전 제주지구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에 대한 건」(제6294호, 1950.7.13. 입안), 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진실화해위원회, 「김해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51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요’나 ‘최근의 동향’ 항목에는 “만일의 경우에는 폭동을 야기할 우려 농후함”, “특이한 동향 무하나 만일의 경우를 우려함” 등 각 개인에 대한 성향분석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확고한 사상을 표현치 않고 중간적 태도를 취함”이라는 내용도 있다.[755] 확실한 자기편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 중간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예비검속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복 후 부역자 규정에 대한 오제도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1950년 11월 25일에 서울 천원(天園)이라는 곳에서 군·검·경합동수사본부 김창룡 대령(합동수사본부장) 장재갑(서울지검차장) 오제도(수사본부검사대표) 정희택(수사본부검사)이 참석하여 “부역처단은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제도는 처단될 부역자의 사례를 “6·25 전에 남·북로당에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이번에 나와서 날뛴 자”, “형무소에서 나와 날뛴 자”, “保聯에서 불순자라 규정받았던 자로서 날뛴 자”, “중간파로서 대한민국에 이롭지 못하였던 자가 나와서 날뛴 자” 등으로 들었다.[756] 보도연맹원과 더불어 확실하게 자기편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주민들도 배제 대상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보도연맹원을 시민과 구별하여 특정집단으로 분류한 논리는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념적 범주에 국한되지 않았다. 냉전의 논리 위에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가 더해졌다. 따라서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하지 않는 중간파를 포함하여 이들에게 협력하거나 동조하였다고 추정되는 좌익관련자들도 반대편 내지 적으로 규정되어 특정 집단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냉전의 진영논리는 개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전쟁의 논리임과 동시에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을 관통하는 논리였다.

2. 개전(開戰) 직후 민간인희생 사건과 정부의 조치

1) 수원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755)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摹署査 제3107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 9. 4.).
756) 「서울신문」(1950년 11월 27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50년 6월 28일 육군본부를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은 수원으로 후퇴했다. 이 시기부터 수원과 인근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이 처형되기 시작했다. 한강이남 수원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의 지휘명령체계는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복잡성은 초기 지휘명령체계의 혼란을 반영하고 있었다.

수원 토박이 이영재(李英宰)는 “보도연맹이라는 거 있죠.. 보도연맹에 들어간 애들도 꽤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6·25사변 나면서 다 죽었죠. 다 끌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 죽였으니까.” 라고 했다.[757] 수원 신풍동 307번지에 거주하던 이기환(李基煥)은 6·25전쟁 발발 3, 4일 후에 우익단체 사람들로 보이는 남자 5~6명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 제적부에는 이기환이 1950년 7월 2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758]

그런데 집단희생 사건은 수원보다 북쪽에 위치한 한강이남 지역에서부터 발생했다. 경기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에 거주하던 윤하영(尹夏榮)이 6월 28일경장군재라는 곳의 절로 피난해 있던 중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아들 윤수길는 윤하영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유족들은 윤하영의 시신을 안양 근교 야산에서 수습했다. 제적부에는 그의 사망일이 1950년 7월 1일로 기록되어 있다.[759] 또한 김종인은 경기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640-2번지에 거주하던 아버지 김한천(金漢天)이 안양 국민보도연맹 간사장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개전(開戰) 직후 안양경찰서 소속 경찰에 끌려갔다고 했다. 이후 가족들이 김한천의 시신을 시흥군 신동면 말죽거리(현재 서울 양재동)에서 수습하였다.[760] 당시 안양경찰서 과천지서에서 근무하였던 이병문은 김한천이 안양읍 국민보도연맹 간부였다고 하면서 개전 직후 그를

757) 이영재, 「이영재(李英宰)의 삶과 수원 교육」,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Ⅳ (경기도: 경인M&B, 2010), 261.

758) 진실화해위원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안성·횡성·안양·수원·인천·평택·원주」(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0월 13일), 3, 12.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불능을 결정했다. 사망 장소를 파악 못했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59) 신청인 윤수길 진술조서 (2008년 4월 25일): 진실화해위원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안성·횡성·안양·수원·인천·평택·원주」, 3에서 재인용.

760) 신청인 김종인 진술조서 (2009년 6월 4일): 진실화해위원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안성·횡성·안양·수원·인천·평택·원주」, 3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비롯한 “보도연맹원들이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말죽거리 뒷산”에서 집단살해되었다고 했다.[761] 한편 조태선에 의하면, 1950년 6월 28일 오제도 등이 서울을 철수하면서 직장연맹조직이었던 경성방직 소속 보도연맹원을 수원으로 데려갔으며, 이후 행방불명되었다.[762]

비록 소규모의 사건이지만 개전 직후인 6월 28일경 보도연맹원들이 검속되어 해방불명되거나 처형되었다. 제적부 상에는 이들의 희생일이 7월 1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당국이 국민보도연맹원 처리 방침을 최소 6월 28일 이전에 결정하였으며, 한강에 접한 시흥 말죽거리(현재 양재동)에서부터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천도 초기의 학살사례를 보여준다. 인천 국민보도연맹원과 시민들은 6월 29일경부터 처형되기 시작했다. 『인천개항 100년사』에 의하면, “보도연맹의 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천시청을 점령”하였다. 6월 29일 노량진으로 출동했던 경기도경찰국과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이 돌아와 “일거에 이들을 소탕하였다.”[763] 보도연맹원들이 쉽게 인천시청을 장악한 이유는 6월 25일 인천시장 지중세가 시의원들에게 “사태가 급박하니 피난은 각자 행동을 취하라.”고 하면서 인천을 빠져나가 인천의 행정기관이 텅 비어있었기 때문이었다.[764] 이런 상황에서 인천 보도연맹원과 시민들이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를 장악하였다.

육군본부는 “인천시에 폭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혼성5사단(混成五師團)에 1개 중대를 파견하면서 경기도경찰국과 협력하여 사태를 진압할 것

761) Ibid., 15.

762) 참고인 조태선(75) 면담보고서,「충남, 서울, 강원 국민보도연맹사건 통화조사보고」(조사3팀-137, 2009년 2월 19일). 조태선은 당시 16세였고,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였다. 그의 누나 조태순(당시 19세)은 영등포역 앞에 있던 경성방직(현, 신세계백화점 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 조태선은 당시 내발산동 이웃에 살던 류호중이 경성방직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경성방직에 취직을 많이 시켜주었고, 류호중의 사촌 류호득이 회사 내에서 보도연맹 가입을 주선하여, 그의 누나도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전쟁이 나고 회사에 있던 보도연맹원(몇 명인지는 모름) 모두를 수원 쪽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는 모르나, 호적상 누나가 행불상태로 되어 있다고 한다.

763)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 『인천개항100년사』 (인천: 경기출판사, 1983), 827-828.

764)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인천: 인천직할시, 1993), 53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을 지시했다.[765] 당시 경기도경찰국장 황규섭 총경을 비롯한 경기도경찰국 소속경찰들은 인천에 남아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1950년 6월 25일 육군본부가 헌병사령관에게 "헌병 20명을 25. 19. 00까지 인천부두에 파견하여 인천헌병대장과 협의하여 단양호(丹陽號) 및 기타 선박에 편승 경비를 담당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아 최소한 인천주둔 헌병대와 25일 증파된 헌병대도 인천에 주둔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766] 이런 상황에서 인천주둔 헌병대 혹은 경기도 경찰국은 시청을 점령한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이를 치안국과 육군본부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월 29일, 이정겸 등 영등포 등지로 지원을 나갔던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인천 시청에 모여 있던 시민들을 진압했다.[767] 복귀경찰들은 인천시청(현재 인천시 중구청) 정문으로 나오는 보도연맹원과 시민 수십 명을 총으로 사살했는데 당시 경찰 측의 피해는 없었다.[768] 동인천역 인근에 거주하던 김양수는 시청에 있던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한 사람들이 무장을 하였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하였다.[769] 이는 『인천개항 100년사』가 앞에서 시청 장악을 '반란'과 '점령'으로 표현한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경기도경찰국과 헌병대가 인천에 주둔하고 있었고, 시청 직원들은 후퇴한 상황이었으며, 시청을 장악한 시민들이 무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인천 주둔 군경은 7월 4일 철수할 때까지 인천시청에 모여 있던 보도연맹원의 명단을 입수하여 색출작업을 하였다. 이열헌에 의하면 경찰의 인천시청 진압 당시 '적군 환영회'와 관련된 '명단'이 입수되었다고 했다.[770] 또한 국민보도연맹 인천시연맹이 조직[771]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765) 전사편찬위원회, "작전명령(別) 제1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 1권 개정판 (서울: 국방부, 1977) 933-934.
766) 전사편찬위원회, "작전명령 제87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 1권 개정판, 930.
767) 김영일, 『격동기 인천』 (인천: 동아사, 1986), 354.
768) 김근배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10일). 김근배는 인천경찰서 및 경기도경찰국에서 사찰과 형사로 활동했고, 6월 29일 당일 인천시청 현장에 있었다.
769) 김양수 구술녹취록 (2007년 11월 24일).
770)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540-543.
771) 김영일, 『격동기 인천』, 283. 1949년 12월 4일 인천국민보도연맹원 결성식이 신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대한 명단과 자료를 경찰서에서 소장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양수는 경찰들이 시청에 모여 있던 좌익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소월미도로 끌고 가 총살을 하였다고 하면서 내리감리교회의 박남칠 권사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 시청에서 만세사건 난 그날. 그런데 아마 박남칠씨도 … 소월미도에 끌려가 죽었을 거예요. 누가 박남칠씨 잡혀가는 것을 봤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인천시내 한 바퀴를 돌렸거든요. … 우리 목재소 앞에 있는 동네 앞에서 이렇게 큰 길로 해서 용동 마루턱이로 해서 중구청 있는 쪽으로 끌고 갔다고. 끌려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이고 박남칠이 잿빛이 되었든데' 그러더라고. 772)

한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권충일(權忠一)도 박남칠과 같이 보도연맹원이었다. 권충일의 조카 권종순은 권충일이 개전 직후 경찰에게 총살되었다고 했다.773) 그의 아들 권종환도 전쟁발발 직후 아버지가 카키색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트럭에 실려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했다.774) 경찰자료도 권충일의

흥국교 교정에서 열렸다. 이 날 상임간사 박흥식 사회로 시작되어 김용규 간사장의 열렬한 개회사, 노승태간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오창섭 검찰지청장의 고사, 이보운 조직간사의 맹서낭독, 곽상훈과 하상훈의 격려사, 박남칠의 맹원선서, 장영복 국장, 표양문 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772) 김양수 구술녹취록 (2007년 11월 24일). 김양수는 박남칠이 내리교회 권사였다는 것을 모르는 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 잘 보이려고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일요일 마다 아침에 보면 빨간색 성경책 끼고 신사복 잘 입고 안경끼고 그리고 내리교회로 올라가는 것을 봤거든요."이라고 했다. 박남칠은 내리교회 초대 교인의 후손으로 이 교회 권사였다. 1938년 9월 27일자 「동아일보」는 박남칠이 "일방 사회적으로도 만흔 활동을 아끼지 안코 더욱이 육영사업에는 有意(유의)하야 만흔 喜捨(희사)가 이엇으미 永化學校(영화학교)가 금일의 盛運(성운)을 마지한데는 氏(씨)의 함이 興(여)한 바 큰 배잇으며 인간미가 잇는 씨는 또 소년지도에도 부단히 노력하는 사회적 유지로서 氏(씨)에 대한 인천사회의 촉망은 크다."고 했다; 기독교조선감리회인천지방, 『기독교 조선감리회 인천지방회의록』 (1940) 소년척후대장 박남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천 내리교회로나 영화학교로나 공로가 크신 고 박대여씨의 영부인 許海蘭(허해란)씨가 본년 삼월 십삼일 영면하신바 그의 令息(영식)인 박남칠 씨는 그 선친의 유지를 계승하야 그 유산인 사가 이천여 원의 値(치)의 부동산을 내리교회에 드리어 영화보통학교의 기금으로 하게 하엿습니다. 박남칠씨는 인천상공회의소의원으로 상공계에 활약하며 내리교회 사회사업위원과 소년척후대대장으로 활동하는바 일반교우급 인사는 씨의 미덕특지를 稱誦不已(칭송부기)한다" 이상에 따르면 박남칠은 대대로 인천내리교회의 교인으로 중직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특히 내리교회가 설립한 영화학교를 아낌없이 후원했다.

773) 권종순 구술녹취록 (2009년 10월 28일). 권종순은 권충일의 조카임.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처형사실을 확인하였다.[775] 박남칠과 권충일 모두 집에서 체포되었다. 이것은 군인과 경찰이 6월 29일 인천시청 진압 이후 보도연맹원을 검속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7월 18일자 미8군의 보고에 의하면, "6월29일 인천에서 … 주민 400명이 처형" 되었다.[776] 앨런 위닝턴은 6월 29일에서 7월 3일까지 인천에서 약 1,800명이 살해되었다고 했다.[777] 『인천시사』는 약 700명이 처형되었다고 했다.[778] 인천 소재 경기도 경찰국 순경 박두순, 경찰국 사찰과 형사 김근배, 인천경찰서 순경 최경모, 인천 대한청년단 부단장 김영일은 경찰과 헌병들이 이들을 월미도 인근에서 집단 총살했다고 했다.[779] 6월 25일 육군본부는 헌병사령관에게 "헌병 20명을 25. 19. 00까지 인천부두에 파견하여 인천헌병대장과 협의하여 단양호 및 기타 선박에 편승 경비를 담당케 하라" 고 지시했다.[780] 따라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인천헌병대, 헌병사령관이 파견한 헌병, 경기도경찰국·인천경찰서가 인천항 시내에 주둔하면서 최소 400명에서 최대 1,800명에 달하는 보도연맹원을 색출·처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9일 인천 시청에서 사살된 시민들은 30여 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최대 1,80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은 박남칠과 권충일처럼 색출을 통해 검거된 보도연

774) 권종환 구술녹취록 (2009년 1월 9일). 권종환은 권충일의 차남임.

775) 인천경찰서, 「월북 부역급 납치자 자녀 학생명부」 (인천: 인천경찰서, 단기 4288). 이 문서에 따르면 권충일은 "부역자로 사망"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48세인 권충일의 본적지는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당시 주소는 인천시 용동 17번지, 처의 이름은 황감실로 되어 있다.

776)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54.

777) Alan Winnington, *I saw the Truth in Korea* (England: People's Press Printing Society, 1950). 해방일보와 노동신문들은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인천에서 약 700명에서 1천명이 집단 살해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해방일보」 (1950년 7월 6일, 15일); 「노동신문」 (1950년 7월 16일).

778)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540-543.

779) 박두순 구술녹취록 (2008년 8월 9일). 박두순은 당시 경기도경찰국 소속 순경으로 해방 직후부터 경기도경찰국에서 근무했다; 최경모 구술녹취록 (2009년 3월 30일); 김영일 구술녹취록 (2008년 2월 2일, 28일, 29일). 그는 인천 평안청년회, 서북청년회에서 활동했고, 개전 직전 인천시 대한청년단 부단장이었다. 개전 직후 경찰들과 함께 보도연맹원을 검거하였다; 김근배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19일).

780) 전사편찬위원회, "작전명령 제87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 1권 개정판, 93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맹원들이었다. 인천시청 점거가 처형의 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희생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검거된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인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이 1950년 6월 25일 이후 내려진 치안국장의 일련의 지시와 육군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의 동남쪽에 위치한 안성에서도 7월 초부터 보도연맹원들이 처형되었다. 이종구는 아버지 이선재(李善載)가 "좌익활동으로 수원교도소 및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1949년경에 출소하였고 이로 인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했다. "경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밤에 자고 있는데 조사할 것이 있다며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하였다. 이선재의 제사는 음력 5월 19일(양력 7월 4일)이며, 제적부 사망기록은 1950년 5월 20일로 되어 있다고 했다.[781] 같은 마을 주민인 이선주는 개전 직후 아버지 이은철, 이선재 등 마을 보도연맹원들이 삼죽면에 살던 민봉기 등 한청단원들에게 연행되어 미양면 신기리 소머리고개에서 집단 살해되었다고 했다. 이은철의 제삿날도 이선재의 제삿날과 같다. 같은 마을 주민인 이용준 "삼죽면 북가현리 주민인 이은철, 이은백, 이은용도 국민보도연맹원이었고, 이선재와 함께 희생되었다."고 했다.[782] 소머리고개 학살을 목격한 윤희인은 "지금 포도원 하는 곳(소머리 고개)에서 사람들 손을 뒤로 묶고 구덩이를 파고 트럭으로 실어다 죽이는 것을 언덕에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했다.[783] 당시 안성경찰서 사찰계 형사 최형선은 "내가 실제로 업무취급을 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철수하기 한 2, 3일 전(7월 4일경) "헌병대가 유치인 출감 지휘서를 가지고 와서 (유치인들을-인용자) 자기네한테 넘겨달라고 했다. 한 30-40명 정도를 1톤 트럭 1대에 실고 갔고, 그 사람들을 미양면 신기리 소머리고개에서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다.[784]

---

781) 신청인 이종구 진술조서 (2008년 5월 29일): 진실화해위원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안성·횡성·안양·수원·인천·평택·원주」, 3에서 재인용.

782) 참고인 이용준 통화보고서, 2009년 8월 4일) 진실화해위원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안성·횡성·안양·수원·인천·평택·원주」, 4, 8에서 재인용.

783) 참고인 윤희인 진술녹취록 (2009년 4월. 3일): 진실화해위원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안성·횡성·안양·수원·인천·평택·원주」, 4에서 재인용.

784) 참고인 최영선 진술녹취록 (2009년 7월 28일): 진실화해위원회,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안성·횡성·안양·수원·인천·평택·원주」, 9에서 재인용. 안성의 경우 비슷한 시기 보개면 기좌리 자재울에서도 민간인들이 집단살해 되었다. 군인과 경찰이 두 대의 트럭에 민간인 복장을 한 주민들을 내리게 한 후 장재울에서 집단 총살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28일 서울을 철수하여 수원에 주둔하고 있었을 당시 정치범 1천 8백여 명이 집단 살해되었다. 이에 대해 미 공군 소속 니콜스(Col. Donald Nichols)는 "나는 전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두 대의 대형 불도저가 끊임없이 움직였다. 한 대는 참호모양의 무덤을 팠다. 그때 체포된 사람들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도착했다. 손이 모두 등 뒤로 묶여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판 무덤 언저리에 길게 줄지어 세워졌다. 그리고 순식간에 머리에 총탄을 맞은 채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했다.[785] 당시 수원경찰서 사찰계 외근 형사였던 전기순은 서울 등지에서 G2(CIC)가 몇 명인지 모르나 일부를 끌고 와 처리했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있던 27명쯤의 보련원들도 G2가 끌고 가 27, 8일쯤 광교 수리조합 뚝 인근 산자락 두 개의 구덩이에서 처리한 후 묻었다고 했다.[786] 당시 수원경찰서 경무과 계장 진태용은 광교에서 100여명, 화성 제암리(빨갱이촌)에서 수십 명이 처형되었고, 일부는 수원에서 후퇴도중 화차에 싣고 가다 대전에 못 미쳐서 처형됐다고 했다.[787] 「조선인민보」는 6월 27일에서 7월 3일까지 이 지역 주민 370명이 학살됐다고 보도했다.[788]

이상의 구술과 자료를 통해 수원 전방에 위치한 양재와 인천 그리고 후방에 위치한 안성은 물론 수원에서 1950년 6월 28일 경부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체포되어 6월 28일, 29일, 7월 1일, 7월 4일에 집단 살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형은 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인천, 안양, 안성, 평택 등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1950년 6월 28일부터 한강이남 경기도 지역에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과 처형이 일괄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건들은 치안국이 6월 25일 이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한 일련의 지시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비상사태하 특별조치령을 발표한 시기(6월 28일)와 수원에서 육분본부 정보국장 장도영이 잔비 소탕을 지시한 시기(6월 28일)와도 일치한다. 또한 CIC로 추정되는

785) Donald Nichols, *How Many Times Can I Die?* Brooksville, (Fla.: Brownsville printing, 1981), 128.
786) 참고인 전기순 조사내용, 「경기보도연맹 사건 주요경찰 참고인조사 1차 출장결과보고」(조사3팀-562, 2009년 6월 24일).
787) Ibid.,
788) 「조선인민보」(1950년 7월 14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G2가 6월 27일 혹은 28일경 경찰로부터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인도 받아 처형한 것으로 보아 육군정보국 소속 군인들이 개전 초기부터 처형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내무부 치안국 소속 각 지역 경찰과 육군 정보국 방첩과(CIC)가 개전초기,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곧바로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를 검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좌익관련자 처형이 후퇴라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결정이 존재했고, 그 담당기관도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도연맹원을 특정집단으로 분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한강이남 수원지역에서의 신속한 민간인 학살은 오제도가 주장한 국민보도연맹원 결성의 목적, 즉 개과천선시켜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보도연맹원 분류의 진정한 목적이 통제였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들을 제거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즉 "나병자 때문에 더 많은 나병자가 있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大國的 立場에서 희생(嚴罰)시켜야 한다."라는 오제도 검사의 말은 현실로 나타났다.[789] 개전 직후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희생 사건은 이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시민들을 특정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집단학살의 출발점이라는 본다. 이럴 때 특정집단을 시민들과 구별하는 논리와 문화가 민간인 학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개전 직후 한강이남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기관은 내무부 치안국과 육군(정보국과 헌병대)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부서는 정부가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는 6월 28일경부터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동시에 검거하여 처리하였다. 내무부와 육군에 동시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명령자는 정부의 최고위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리를 담당한 육군과 내무부 치안국을 중심으로 개전 직후 정부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89) 오제도, 『붉은 군상』, 13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2) 개전 직후 정부와 각 기관의 조치

정부는 1950년 6월 27일 새벽 경무대에서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원 이동을 결정했다. 황규면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새벽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열차로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대전으로 피난했다.[790] 그러나 개전 직후 이승만과 함께 있었던 치안국장 장석윤은 이와 조금 다른 주장을 했다. 그는 25일 새벽 5시 치안국으로 부터 "38선 각처에서 북괴군이 일제히 침입했다"는 전화 보고를 들으면서 이 전쟁을 전면전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통신연락망 조직을 강화"했다.[791] 통신연락망 강화는 전국경찰국과 경찰서에 대한 지휘명령을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장석윤은 6월 25일 무선전보로 전국 각도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을 하달했다. 그는 26일 오후 치안국에 들른 이승만 대통령은 매우 초조해 했다고 한다. 당일 내무부 김갑철(金甲喆) 차관과 함께 의정부와 포천 방면의 전선을 시찰한 후 중앙청으로 급히 돌아 온 그는 즉시 "경무대로 들어가 이 박사에게 전투현지 상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백성욱 내무장관에게 "국무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6일 저녁에 열린 긴급 각의에서 "피난을 가기로 결정했고 한강교를 폭파한다는 것이 결의됐다."고 한다. 이어 "27일 새벽 총무처 차관 전규홍 박사의 알선으로 이 박사 내외분은 수원으로 갔다."고 했다.[792]

우선 장석윤은 이승만 대통령이 27일 새벽 대구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수원을 거쳐 대구로 내려갔고, 국무회의가 27일이 아닌 26일 밤에 열렸으며, 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피난과 한강교 폭파가 결정되었다고 했다. 장석윤의 주장에 의하면, 각료회의가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열렸다. 바로 이날 밤에 있었던 긴급 각료회의에서 형무소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요시찰

790)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1, 5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참전군인 증언록」, 황규면 증언(HA03846).
791)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18
792) Ibid., 318-31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인 그리고 좌익관련자, 즉 불순분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대략도 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6월 25일 전국 각도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하달된「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이라는 제목의 비상통첩의 주요 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과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연령·주소를 명기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다.[793] 치안국은 6월 29일「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하였다.「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내용은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치안국장은 7월 11일「불순분자 검거의 건」통첩을 하달하여 불순분자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했다.[794]

한편 대통령은 6월 28일,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로「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 특별조치령은 3일 전인 6월 25일부터 소급되어 적용되었다.[795] 3조에서 8조까지는 각종 범죄와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제시되었다. 3-7조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각 조에 명기된 범죄행위와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것들은 전쟁 중 어떤 행위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었다. 또한 재판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9-11조에 의하면, 20일 이

793) 제주도 성산포경찰서가 1950년 6월 25일 14시 50분에 접수한 공문을 보면,「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내무부 치안국에서 제주도 경찰국에 무선 전보로 보낸 문건. 진실화해위원회,『국민보도연맹』(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 86에서 재인용.

794)「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내려 보낸 통첩. ; 경찰청과거진상규명위원회,「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중간조사결과: 종합발표문, 21~24; 진실화해위원회,「김해국민보도연맹원희생사건」, 123.

795) 이 특별조치령은 법령집 등 각종 자료집에는 1950년 6월 25일 공포하였다고 명기하고 있지만 6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의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한국전란1년지』(서울: 문영사, 1951), 일지편. 1950년 6월 28일자에는 "비상시법령공포식(式)특례에관한령(令)", "비상사태하법죄처벌특별조치령", "예금등지불특별조치령"을 공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6월 28일에 공포한 것을 소급적용하여 25일부터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하)』(서울: 역사비평사, 1999), 667-66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내에 공판을 열고 40일 이내에 판결을 하되 단독판사에 의한 단심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판결과정에서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있다.[796] 대통령은 특별조치령을 발표함으로 모든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950년 7월 초 정부는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긴급명령 제1호를 공포하여 비상사태 아래 취한 임시조치로서 군·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결과 군에서는 김창룡 육군 준장을, 검찰에서는 오제도 부장검사를, 그리고 경찰에서는 정보수사과장 선우종원 경무관을 각각 선출함으로써 대공수사활동의 일원화를 기하였고….[797]

이 글은 시기, 담당자, 조직명칭, 직급 등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0년 7월 초 김창룡의 계급은 준장이 아니었다. 또한 선우종원도 정보수사과장이 아니었고, 정보수사과 자체가 8월에 조직되었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언급된 "긴급명령 제1호"는 6월 28일에 발

---

796)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C48-4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단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제정 1950.6·25.) "본령은 단기428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살인 2. 방화 3. 강간
4.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5.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등 약탈 및 불법처분
6.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3.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4. 관권을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 방조한 행위

제5조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2조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6조 제3조제5호, 제4조제1호·제2호의 죄를 범한 자로서 비상사태종료 후 48시간이내에 원장을 회복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각기 본죄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79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卷 (서울: 국방부, 1971), 25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표된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단에관한특별조치령”에 밑줄 친 글과 일치한다.[798] 이렇게 볼 때 6월 28일 이후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형이 “긴급명령 제1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6월 25일 까지 소급 적용된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6월 28일 발표된 다음 날인 29일에 치안국은「불순분자 구속의 건」을, 30일에「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하였다.

육군본부는 1950년 6월 25일에 내린 “작전명령 제89호”에서 “군(軍)은 … 남침한 적과 호응하여 준동할 잔존공비를 철저히 소탕”할 것을 지시했다.[799] “작전명령 제89호”는 내무부 치안국장이 지시한「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보다 1시간 50분이 늦은 16시 40분에 각 군부대에 하달되었고, 그 내용도 치안국장의 지시사항과 유사한 내부의 잔존공비 소탕이었다. 장도영 육군 정보국장이 6월 28일 수원에서 “내려가면서 잔비(殘匪)소탕을 하고, 숨어있는 보도연맹원이나 후방을 교란시키는 적색분자를 색출하라.”[800]는 지시를 육국 정보국 내 각 과장에게 하달했다. 당시 잔비, 즉 잔존공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미 6월 25일 16시경부터 육군본부도 요시찰인과 적색분자에 대한 통제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육군본부와 내무부 치안국의 요시찰인, 형무소 재소자, 적색분자에 대한 통제는 개전 직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정일권을 임명하였다.[801] 7월 9일 육

798)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한국전란1년지』, C48.
799) 전사편찬위원회, “작전명령 제89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1권 개정판, 931.
800)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Ⅰ, 229, 264.
801)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한국전란1년지』(서울: 문영사, 1951), C5 ; C49.;「경제신문」(1950년 7월 12일).
계엄포고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법 제1조에 의하여 좌와 여히 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 이승만
단기 4283년 7월 8일
국무위원 국무총리서리·국방부장관 신성모(申性模)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군본부에 계엄사령부가 편성되었고, 7월 12일 헌병사령관(사령관 송요찬)은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선포하였다. 7월 21일, 이 계엄령은 전라남·북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7월 9일 육군본부에 계엄사령부가 편성되고 그 아래 헌병·방첩대·범죄수사대를 두었고, 육군의 각 사단과 해군의 진해통제부에 민사과를 두어 업무를 수행했다.[802]

특이한 것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육군 역사일지』(’50. 6. 25 ~ ’50 .8 .10)에 의하면 1950년 7월 25일 각 사단에 배속된 CIC 및 HID 파견대를 해체와 동시에 육군본부 정보국 직할로 편성하였다는 점이다[803] 따라서 계엄령 선포와 특별조치령 이후인 7월 중순 경부터 형무소 및 좌익관련자 처리를 담당한 군·경의 지휘체계는 육군본부에 설치된 계엄사령부(정일권) 예하 정보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방의 계엄 업무는 육군본부 정보국 내의 CIC가 주도하고 헌병과 경찰, 각 군G-2 등이 보조했다.

그러므로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를 예비검속하고, 이를 분류하여 처형한 지휘명령체계는 대통령 → 군(계엄사령부) → 육

국무위원 내무무장관 백성욱(白性郁)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우익(李愚益)
(그외 생략)
1. 이유: 북한 괴뢰집단의 전면적 불법 무력침구에 제하여 군사상의 필요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2. 종류: 비상계엄
3.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한지역
4. 계엄사령관 육군총참모장 육군 소장 정일권(丁一權)

8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3권, 35, 250~251.

8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 역사일지』(’50.6·25~’50.8.10), 등록번호 HC00117: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88에서 재인용; 전사편찬위원회, “작전명령 제53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 2권 개정판 (1979), 961.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은 육군은 물론 해군과 공군 그리고 경찰의 정보, 특히 감청을 통합지휘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육군본부는 1950년 7월 19일 “작전명령 53호”를 지시하였다. “군은 현재 육, 해, 공군 및 경찰에서 실시 중인 무선감청소 사무를 육해공군총사령부에 설치하여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7월 19일 17까지 육군정보국장은 현재 실시중인 “해군, 공군 및 경찰의 각 무선감청요원과 소요의 기재를 징수하여 대구 현 총사령부 내의 중앙 정보모집소에 설치하고 차(此)를 통합지휘하라”고 지시했다. 즉 육군정보국이 해군과 공군은 물론 경찰의 주요 정보처리 부분인 무선감청을 통합 지휘한 것이다. 이로 보아 7월 19일 전후 군경의 방첩과 첩보에 관한 정보의 행정적 지휘자는 장도영 정보국장으로 추정된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군정보국 · 헌병대 · 내무부 치안국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국은 내무부 → 치안국 → 사찰과 · 정보수사과 → 경찰서(사찰 · 정보수사계) → 지서로 연결되는 지휘명령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육군 정보국은 계엄사령부 → 육군정보국 → 육군정보국방첩과 · 방첩과경남지구CIC방첩대 → CIC 분견대로 연결되는 지휘명령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적색분자 처리에 대한 내무부 치안국과 육군정보국 방첩과의 정책지침과 지시 그리고 이를 정당화 했던 논리와 문화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이 지휘명령체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활동했는지 파악할하고자 한다.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가담한 종교적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3. 내무부 치안국과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1) 개전초기 보도연맹원 사건과 내무부 치안국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 · 정보수사과는 전국 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이들을 조사 · 분류 · 처형한 정부 기관 중 하나이다. 1950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찰과는 서무계(서무 · 保聯班), 사찰계(政文 · 형사취조), 외사계(외사 · 외사형사반)로 조직되었다. 1950년 8월 4일 내무부 직제 개편[804]에 따라 8월 10일 치안국은 사찰과와 수사과를 통합하여 정보수사과를 신설하였다.[805] 정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내무부장관 백성욱과 치안국장 장석윤은 조병옥과 김태선으로 각각 교체되었다.[806] 조병옥은 장관이 되자마자 치안국의 사찰관련 업무 강화와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사찰망을 조직하는 한편 사찰과를 정보수사과로 개편했다. 일반적인 치안 업무는 치안국장에게 일임하고, 사찰업

804) 대한민국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회,『한국전란1년지』, C57.
805) 경찰청 역사편찬위원회,『한국경찰사』, 1968.
806) 조병옥, 『나의 回顧錄』, 292-294. 조병옥은 1950년 7월 15일 내무부 장관에 부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7월 12일, 조병옥은 대전에 체류하면서 민주국민당, 국민회, 부인회, 대한청년단 등 각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구국총력연맹을 결성하고 이 연맹의 위원장이 되었다. 이승만은 국무총리서리 겸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를 통해 조병옥에게 내무부 장관에 부임할 것을 전달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무는 자신이 직접 챙겼다. 8월 10일 사상검사 선우종원을 정보수사과장으로 임명하였다.[807]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이 교체되고, 치안국 내의 사찰업무 담당 부서를 개편함으로 내무부장관 조병옥과 정보수사과 선우종원이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8월 10일까지 사찰업무를 담당한 사찰과장 장영복은 치안국 경무과장으로 부임했다[808] 평양 출신인 그는 1950년 5월 25일 현재 치안국 사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809] 따라서 장영복은 1950년 6월 25일 이전부터 8월 10일까지 치안국 사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전 직후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검속과 처리를 지휘한 핵심인물이었다.[810]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시기별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사찰과·정보수사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개전초기 내무부장관·치안국장·사찰과장

시기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사찰과/정보수사과
1950. 6. 25. 당일	백성욱	장석윤	장영복
1950. 7. 17 ~	조병옥	김태선	장영복
1950. 8. 10. ~	조병옥	김태선	선우종원(정보수사과)

각 도 경찰국, 경찰서, 지서 근무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전쟁 직후 발생한 보도연맹원 및 좌익관련자 검속, 분류, 처형에 관한 지휘명령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경찰국 사찰과 내근 형사 서재성은 1950년 6월 말에 치안국로부터 직접 보도연맹원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무선전보를 통해

807) 「대구매일」 (1950년 8월 13일); 선우종원, 『사상검사』 (서울: 계명사, 1992), 176, 218; 고정훈 외, 『명인옥중기』 (서울: 희망출판사, 1966), 303. 조병옥은 선우종원을 "약 1만 명의 사복경찰관을 거느리는 경찰 최대기구"인 정보수사과 과장으로 임명했다.

808) 「대구매일」 (1950년 8월 13일).

809) 「산업신문」 (1950년 5월 26일, 27일).

810) 장영복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해방 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판검사특별임용시험 합격, 평안남도 警部에서 다년간 활동. 해방 후 경무부 공안과장, 1946년 경무부 공안국 부국장, 1947년 경무부 수사국 부국장, 1948년 제1관구 경찰청장(경무관), 경기도 경찰국장, 1950년 치안국 사찰과장, 치안국 경무과장, 195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53년 경상북도 경찰국장, 1954년 치안국 보안과장, 1959년 치안국 보안과장(서기관). 1967년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받았다고 했다.[811] 이어 충청남도 경찰국은 보도연맹원 처리 지시를 도내 각 경찰서로 하달했다. 당시 서산경찰서 사찰계 내근 형사였던 정익철은 "공문 지시에 의해서… 보도연맹원들을 처형하라는 지시"가 충청남도 경찰국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였다.[812] 서산경찰서 팔봉지서 근무자 방명학은 팔봉 지서가 관할지역의 보도연맹원을 관리했다고 하면서 전쟁 발발 직후 서산경찰서 지시로 보도연맹원을 경찰서로 이송해 성연면 메지골에서 처형했다고 했다.[813] 희생자 유가족들도 서산군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들이 7월 초 서산경찰서와 각 지서에 구금되었다가 7월 12일경 서산경찰서가 후퇴하면서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메지골에서 처형되었다고 했다. 이 중 일부의 유족은 메지골에서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다.[814] 서산경찰서는 1950년 7월 12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산에서 철수했다.[815]

한편 충남경찰국 수사과 소속이었던 류기천은 충남경찰국이 각 경찰서의 보도연맹원 처리를 독려하는 독찰반을 조직했고, 자신도 이 독찰반에 선발되어 부여, 청양, 서천 등의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고 했다.[816] 충남경찰국 경무과에 근무하였던 조창현도 독찰반이 운영되었다고 했다.[817] 충남경찰국이 독찰반을 통해 각 경찰서의 보도연맹원 처형을 직접 지휘한 것이다.

충청남도 경찰국과 경찰서는 보도연맹원을 현지에 구금할 자와 대전형무소로 이송할 자로 분류하였다. 서산경찰서 사찰계 내근 형사였던 정익철은 서산경찰서에 구금된 보도연맹원 중 일부를 차량 두 대에 실고 대전으로 이

811) 서재성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29일). 그는 "딴스 딴스 딴스 딴 딴 … "이라고 하면서 무선전보를 받을 당시의 상황을 말했다.
812) 정익철 구술녹취록 (2008년 2월 12일, 4월 9일). 정익철은 당시 서산경찰서 사찰계 내근 형사로서 보도연맹원 처리에 관한 공문을 직접 접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813) 박명학 구술녹취록 (2008년 2월 14일, 5월 20일).
814) 이지황 진술조서 (2008년 3월 20일), 김중기 진술조서 (2008년 3월 19일), 김성원 진술조서 (2008년 3월 19일); 김길랑 진술조서 (2008년 3월 18일); 김정호 진술조서 (2008년 3월 18일); 김종수 진술조서 (2008년 3월 19일); 김석철 진술조서 (2008년 3월 19일): 진실화해위원회,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월 5)일, 9-10에서 재인용.
815) 서산경찰서, 『경찰연혁사』 (국가기록원소장자료, 1958), 644: 진실화해위원회,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월 5일), 33에서 재인용.
816) 참고인 류기천 면담보고서 (2009년 6월 18일): 진실화해위원회,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Ⅱ) 진실규명결정서」, 15에서 재인용.
817) 조창현 구술녹취록 (2009년 5월 1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송했고, 나머지는 철수(7월 12일) 직전 메지골에서 처형했다고 했다.[818] 당시 메지골에서 형 명창근의 시신을 수습한 명장근은 서산 해미면에서 고영귀 등 보도연맹원들이 홍성방향으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819] 서산경찰서가 생산한 『경찰서연혁사』는 태안경찰서 소속 조정찬(趙偵燦)이 "同年(1950년) 七月九日 左翼極烈分子(保聯)等을 大田刑務所에 압송도중 洪城 長谷面에서 ○ ○의 交通妨害로 因한 自動車發大事故로 不幸히도 燒死殉職(소사순직)"하였다고 했다.[820] 이상의 구술과 문서를 통해 서산경찰서와 태안경찰서가 서산군 보도연맹원들을 7월 9일과 그 이전에 대전 형무소로 이송했다는 것을 확인했다.[821]

이는 서산경찰서와 태안경찰서가 서산군 보도연맹원들을 대전으로 이송할 자와 서산경찰서 및 각 지서에 구금할 자로 분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7월 12일 이전에 서산경찰서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분류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확인된 것처럼 갑, 을, 병 혹은 A, B, C의 형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령 결찰서 소속 순경 이정철도 보령지역 보도연맹원 중 상당수를 대전형무소로 이송하였으며, 본인도 이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논산 경찰서 소속 이정학도 논산지역의 경우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한 후 일부는 대전으로 이송했다고 했다.[822]

이상의 사례를 통해 내무부 치안국 → 충청남도 경찰국(사찰과) → 서산

818) 정익철 구술녹취록 (2008년 2월 12일, 4월 9일).

819) 명장근 구술녹취록 (2010년 4월 10일); 고수국 구술녹취 (2008년 5월 22일). 서산 해미면 관유리에 거주하던 보도연맹원 고영귀는 지서로 회의하러 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서산경찰서에 구금되었다. 명장근은 음력 5월 28일(양 7월 13일)경 고영귀 등 보도연매우언을 실은 버스가 서산에서 해미를 거쳐 홍성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고수국과 그 가족은 고영귀가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메지골에서 보도연맹원이 처형되었던 날, 즉 7월 12일을 제삿날로 기억한다; 서산경찰서, 「신원기록심사보고」(서산, 1980)에 의하면, 해미면 삼송리 326번지에 거주하는 고영귀는 '3-8', "처형되였으나 부역사실이 없거나 부역사실 有無가 불확실한 자"로 분류되어 있다.

820) 서산경찰서, 『경찰연혁사』, (국가기록원소장자료, 1958) 646: 진실화해위원회,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39에서 재인용. 태안경찰서는 당시 서산경찰서와 독립된 경찰서였으나 1956년 서산경찰서에 흡수되었다. 당시 태안경찰서 관할 구역은 태안읍, 원북면, 이북면, 소원면, 근흥면, 남면, 안면이었다.

821) 당시 서산군은 현재의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대호지면과 정미면이었다.

822) 이규상 통화보고서 (2008년 12월 19일); 이정철 통화보고서 (2008년 9월 19일); 이정학 통화보고서 (2008년 9월 24일): 진실화해위원회,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16-17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경찰서(사찰계) → 지서에 이르는 지휘명령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군의 이송 사례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가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을 대전형무소로 이송할 자와 현지에 구금할 자로 분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충청북도 단양경찰서 사찰계 형사 김정인은 1950년 7월 초 중앙 경찰 수뇌부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충북도경을 거쳐 경비전화를 통해 전달 받았고, 며칠 후 도경으로부터 "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무전으로 받았다고 했다.[823] 인천 소재 경기도경찰국 사찰과 형사였던 김근배는 부역자처리와 보도연맹원에 관해 CIC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경찰들은 치안국의 지휘를 별도로 받았다고 했다.[824] 경기도 경찰국 통신과 소속이었던 황창범은 치안국에서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했다.[825]

전쟁 발발 당시 전북도경 사찰과 소속 전전희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검속지시가 여러 차례 도경에 하달되었다. 예비검속 등에 관한 지시는 전통(전화통지)으로 오는데 암호로 오기 때문에 같은 직원이라도 모를 수 있다. 도경은 예비검속 결과를 수시로 답하였는데 이런 지시는 전국 공통사항이다. 사살명령을 내릴 때는 치안국에서 사살일자와 사살자 등의 이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경 사찰과(3계대공)가 보도연맹 처리를 주로 담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전주에는 CIC와 헌병대가 있었고, 좌익의 우두머리 급들을 처리할 때는 국군이 관여를 했으나 대부분은 경찰서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했다.[826] 주요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형 지시는 CIC를 비롯한 국군이 지시하지만, 그 외에는 경찰국과 경찰서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CIC와 경찰이 보도연맹원 처리를 담당했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지휘명령체계는 내무부장관 백성욱 · 조병옥

823) 김정인 면담보고서 (2008년 10월 31일): 진실화해위원회,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 영동·옥천·보은·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2009년 10월), 56에서 재인용.
824) 김근배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10일).
825) 황창범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11일).
826) 참고인 전전희 면담보고서 (2008년 11월 18일): 진실화해위원회,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1월), 23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치안국장 장석윤 · 김태선(사찰과장 장영복 · 정보수사과장 선우종원) → 각 도 경찰국장(사찰과) → 시 · 군 경찰서(사찰계) → 지서이다. 이중 조병옥과 장석윤은 기독교인으로 확인되었고, 김태선도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827] 서울시경국장이었던 김태선은 1950년 7월 13일 「The Chicago Tribune」지 기자에게 남한경찰이 1,200명의 공산주의자와 그 혐의자들을 처형했다고 했다.[828] 보도연맹원과 좌익관련자를에 대한 검속, 분류, 처형을 지시한 지휘명령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기독교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2) 대구 · 경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내무부의 사찰망

1950년 7월 17일 내무부장관으로 부임한 조병옥은 경찰관의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대구에 남았다고 했다. 그는 "내무 일반 행정은 홍헌표(洪憲杓) 차관에게 정상적 치안유지는 치안국장"에게 일임했다.[829] 그는 "대구의 四圍에 경찰의 사찰망을 설치"하고 오열 색출을 지휘했다. 이 사찰망은 팔공산, 비슬산, 가산(가창골 입구), 신동 등에 설치되었다.[830] 그런데 그가 언급한 지역은 당시 군경이 민간인들은 집단 학살한 곳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경상북도 경찰국 사찰과 등 대구 지역 경찰이었던 김규현은 전쟁 당시 경찰이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를 처리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가창, 성서 양조장, 비슬산 등지에서 희생되었다고 했다.[831] 1960년 6월 6일자 「대구매일신문」은 "국회조사단 주병환, 윤영구 의원의 명령으로 6 · 25사변 직후 재감자 학살상황이 보고되었는데 형무소에서 기결수 371명과 검찰 및 법원, 경찰서에서 송치한 좌익관련 미결수 1,031명 등 총 1,402명이 특무대, 헌병, 경찰에게 인계되었으며 인계된 사람들은 대구시 달성군

827) 그는 평양숭실중학 졸업하고 교육계에 종사, 감리교계통인 일리노이 웨슬리안대학 범죄학 · 사회학 BA학위 수여받고, 보스턴대학 종교사회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기독교계통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유학 당시 오랜 동안 시카고 한인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바 있다.
828) Chicago Daily Tribune (1872~1963); Jul 14, 1950.
829) 조병옥, 『나의 回顧錄』, 301, 306.
830) Ibid., 300-301. 가산(현재 경북 칠곡군 가산면)은 가창골의 입구이다.
831) 김규현 구술녹취 (2009년 3월 26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가창면, 신동고개, 경산코발트 등에서 총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832] 4·19 이후 결성된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대구 유족회’의 여성 회원이었던 최찬은 “가창면, 경산시, 달서구 송현동, 팔공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유해발굴을 하였으며 발굴 된 유해가 수 백구에 달했다”고 하였다.[833] 팔공산에서도 집단학살이 있었고, 유해발굴이 시도되었던 곳이다.[834]

또한 당시 경북경찰국 부속실에서 근무한 노일출은 1950년 7-8월경 경찰국으로 연행된 경북지역 보도연맹원들이 가창과 경산코발트광산 등지로 끌려가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동료 사찰계 형사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경찰국 특경대에서 근무한 오만수는 특경대장의 지시로 가창면의 희생 현장을 살피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835]

또한 신동재 사건과 관련 미군 보고서는 “1950년 8월 10일 오후 3시에서 16시 30분경 대구와 왜관 사이를 순찰하던 도중 대구에서 8마일 떨어진 산 계곡에서 총성이 들려 현장을 가보니 한국 헌병이 200~300명의 한국인들을 살해하고 있었다. 그 무리 중에는 12~3세 정도의 소녀도 포함되어 있

832) 「대구매일신문」 (1960년 6월 6일).

833) 참고인 최찬 면담보고서 (2009년 8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보도연맹원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8월 25일), 69에서 재인용. 사건번호 다-2789호의 신청인인 이광달이 제출한 사진과 자료에 의하면 1960년 경북지구 피학살자유족회의 발굴조사 결과 대구시 송현동에서 500여 구의 유해, 대구시 공산구(팔공산)에 있는 계곡 모래사장에서는 100여구로 추정되는 유해가 각각 발굴되었다. 또한 「월간저널시대」 1991년 11월호는 송현동 동남방 500미터 지점과 본리동 박영수의 과수원 서남계곡에서도 학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834) 전사편찬위원회, “작전명령 제82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 2권 개정판 (1979), 972-973. 육군본부는 1950년 7월 29일 “작전명령 제82호”는 적 유격대가 팔공산 주변에 침투하여 후방교란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군은 공격을 개시하여 적을 보착(補捉) 중이며 팔공산에는 영등포학원 및 특공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치안국장은 경찰 1개 대대를 팔공산에 파견하여 제3사단에 배속시켜 팔공산 산악 1192고지(1167.5-1456)를 점령확보”하라고 명령했다.

835) 참고인 노일출 면담보고서 (2007년 9월 3일), 참고인 이봉상 면담보고서 (2009년 6월 1일), 참고인 오만수 면담보고서 (2009년 6월 11일); 참고인 오만수 면담보고서 (2009년 6월 11.):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보도연맹원 사건」, 62, 78에 재인용. 당시 대구경찰서 보안계 근무자 이봉상은 대구경찰서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을 트럭에 태워 가창으로 이송했고, 구덩이에 "보도연맹원들을 몰아넣고 처형을 하였다"고 했다. "남대구 경찰서에서도 함께 갔으며 경찰 이외에 사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당시 경북지방경찰국 특경대 근무자 오만수는 “가창골에서 처형이 있은 후 특경대장(경감)의 지시로 특경대원 80명이 3대의 트럭에 분승하여 현장을 확인”했는데 “ 사건현장에는 처형될 사람들이 직접 팠던 3개의 구덩이가 있었으며 각 구덩이마다 약 100명 정도 그러니까 총 300명이 묻혀있었다”라고 하였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었다”라고 했다.[836] 또한 당시 신동재 사건 현장에 동원되었던 임종현은 “전쟁 직후 보도연맹원으로 대구형무소에 구금되었던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헌병대에 의해 트럭에 실려와 신동재에서 총살”되었다고 했다.[837] 구자승은 1950년 8월말까지 신동고개에서 헌병과 경찰들에 의해 20여 차례에 걸쳐 500여명이 학살되었다고 했다.[838] 따라서 1950년 8월 10일 경부터 8월 말까지 신동재에서 헌병과 경찰이 대구형무소 등지에 구금된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집단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병옥 내무부 장관이 사찰망을 형성한 팔공산, 비슬산, 신동, 가창골(가산의 입구)는 모두 집단학살 장소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곳에서 희생된 이들은 주로 대구형무소, 대구 시내 경찰서, 극장 등지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민간인들이었다. 이들은 경찰, CIC, 헌병 등에 의해 검거, 수사, 분류 되어 이상의 지역에서 경찰과 헌병에 의해 집단 살해 되었다. 따라서 조병옥 내무부장관이 대구 사위에 설치했다는 사찰망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오열만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즉 대구와 인근지역의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검거, 분류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보도연맹원 등 대구지역 좌익관련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희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병옥은 『나의 回顧錄』에서 대구 사위에 사찰망을 형성하여 적 오열을 색출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사찰망을 설치한 팔공산, 신동, 비슬산, 가산은 모두 집단 학살 장소이었다. 또한 사찰망은 대구 외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1960년 5월 23일자 「대구매일신문」은 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 장모씨가 치안국 직원에 연행되어 시내 송죽극장에 감금된 후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다고 했다.[839] 또한 남대구 경찰서 현풍지서 의용경찰 엄상헌과 논공지서 김석암은 보도연맹원을 검거하여 남대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했다. 대구경찰서 역전지서 이용팔은 사찰계, 헌

836) RG 84, Korea, Seoul Embassy, Top Secret Records, 1950-56, Entry Seoul, Korea, 1950-54, Box 1. 미군 자료상의 현장 위치좌표와 정황은 실제 신동재 사건과 일치한다.
837) 김종현 진술녹취록 (2008년 6월 30일).
838)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23일).
839) Ibid.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병대(16헌병대), CIC 등이 보도연맹원을 검거했다고 했다.[840] 대구경찰서와 남대구경찰서 소속 경찰과 사찰계 형사들이 보도연맹원 등을 검거하여 송죽극장, 남대구경찰서, 대구형무소 등에 구금했다. 따라서 조병옥의 사찰망은 대구 외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내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검거된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은 조사와 분류 단계를 거쳤다. 당시 대구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한 이봉상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많은 수의 보도연맹원들이 대구경찰서로 잡혀와 심사를 받고 처벌되었는데 풀려 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841] 김규현은 검거된 보도연맹원은 A·B·C 또는 갑·을·병으로 분류되었다고 했다.[842] 검거된 보도연맹원에 대한 분류 작업이 존재했던 것이다.

김규현은 "보도연맹 처형하라는 지시는 CIC에서 내려왔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위에서"라고 하면서 "치안본부에서도 하지만 경찰에서 사찰과에서 하지."라고 했다.[843] 그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 일부가 치안국과 CIC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사찰과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리를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형을 누가 담당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규현은 "군인이고, 경찰이고, 그 당시에는 사건 책임 진 사람이 하지."라고 했다. 보도연맹원을 잡으면 CIC에게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리로 다 넘어가지."라고 대답하면서 이들을 A, B, C 또는 갑, 을, 병으로 분류하였느냐는 질문에 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덕산파출소 … 에는 CIC뿐 아니라 경찰들, 헌병들, 군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했다.[844] 김규현은 CIC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리를 주도했다는 점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 일부가 치안국과 CIC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간인학살과 관련하여 경찰은 사찰과의 지휘를 받았다고 했다.

김규현의 진술은 6·25전쟁 당시 경상북도경찰국장에 재직했던 조준영의

840)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보도연맹원 사건」, 60.
841) 참고인 이봉상 면담보고서 (2009년 6월 1일), 진실화해위원회, 「군위·경주·대구지역 보도연맹원 사건」, 61.
842) 김규현 구술녹취 (2009년 3월 26일).
843) Ibid.
844) Ibid.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주장을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 그는 1960년 경상북도 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1950년 8월 13일 취임하였던 조준영 경북도지사는 6·25 사변 당시 가창골서 자행된 학살은 당시 경찰국장인 한경록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예비검속을 실시한 요시찰인을 군당국서 인계받아 처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845]

내부무가 경상북도경찰국장 한경록에게 예비검속자 처형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지휘명령계통이라면 치안국이 도경찰국으로 상기 내용을 지시한다. 그러나 조준영은 한경록이 내무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가창학살을 지휘한 것이 치안국이라기 보다는 내무부라는 것이다. 사찰과 형사 김규현과 조준영 경북경찰국장의 진술은 내무부와 사찰과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 처리를 담당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대한 답은 조병옥의 회고록에서 찾을 수 있다. 1950년 7월 17일자로 내무부장관에 부임한 조병옥은 "대구의 四圍에는 경찰의 사찰망"을 설치하고 이를 직접 지휘하였다고 했다.[846] 조병옥 내무부 장관은 대구 철수 직후인 7월 중순부터 사찰망을 형성해 적색분자 색출을 직접 지휘했다. 이에 따라 내무행정과 치안의 일반적 업무는 내무차관과 치안국장에 일임했다. 또한 1950년 8월 10일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색출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사찰과와 수사과를 묶어 정보수사과로 조직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상검사 선우종원을 임명하였다. 즉 개전 직후부터 8월 10일까지는 치안국 사찰과, 8월 10일 이후부터는 정보수사과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검거, 분류, 처리를 담당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규현이 보도연맹원 처리를 사찰과에서 지시했다는 말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의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리의 지휘명령은 내무부 → 사찰과·정보수사과 → 경찰서 사찰계·

---

845)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23일); 조준영은 7대(1950. 1. 24 ~ 1950. 4. 16)와 9대(1950. 8. 11 ~ 1951. 7. 26) 경북 경찰국장이었고, 한경록은 8대(1950. 4. 17 ~ 1950. 8. 10) 경찰국장이었다.
http://www.gbpolice.go.kr/gbpolice/intro/directorhistory. 2014년 9월 10일 접속.

846) 조병옥, 『나의 回顧錄』, 300-30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정보수사계 → 지서라고 할 수 있다.

3) 부역혐의자희생 사건과 치안국

(1) 군·검·경합동수사본부의 부역자처리 관용론과 대규모 학살

경인지역군검경합동수사본부 검사 오제도는 부역자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내가 대전서 또는 부산에서 다시 서울에 들어가서 부역자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당시의 생각과 또 실질 여기에 들어와 본 결과가 달라요. 그때에는 … 6·25전에 남·북로당에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이번에 나와서 날뛴 자라든가 또는 형무소에서 나와 날뛴 자라든가 保聯에서 불순자라 규정받았던 자로서 날뛴 자, 중간파로서 대한민국에 이롭지 못하였던 자가 나와서 날뛴 자, 북한에서 공작대로 내려온 자 이러한 자들을 주로 처단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와 보니 일반국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의외로 달라서 자치회에 나가서 하루 이틀 일한 것 동회 반장을 좀 한 것까지 모조리 다 없애야 되겠다는, 쉽게 말하면 신생 打共者가 많이 속출되었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847]

오제도는 개전 직후 대전, 대구, 부산으로 후퇴하면서 부역자 처리 지침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일반국민들"이 자행하는 부역자 처리와 매우 달랐다는 것이다. 먼저 그는 인민군 점령시기에 "일반국민들"이 "자치회에 나가서 하루 이틀 일한" 사람까지 부역자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급속히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반수 이상이 나갔을 것", 즉 처형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일반국민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이런 방식의 부역혐의자 처리는 군경합동수사본부 의도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역자 처리 관용론을 주장했다.

847) 「서울신문」 (1950년 11월 27일). 오제도가 부역자 처리에 대해 이상의 입장을 피력한 것은 1950년 11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다. 당시 참석자는 경인지구 군·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본부장 김창룡 대령, 서울지검차장 장재갑, 수사본부 검사대표 오제도, 수사본부검사 정희택이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즉 “괴뢰치하의 총칼 밑에서 부득이 범할 수 있는 과오라면 이것은 불문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848] 그는 『적화삼삭구인집』에서 “되도록 本意아닌 附逆者에 對하여는 最大限의 廣大(寬大-인용자)한 處分”했다고 했다.[849]

그런데 부역혐의자 처리는 관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기 자치회에 나가 어쩔 수 없이 협력한 사람들까지 처단하라는 일반국민들의 주장으로 인해 반수 이상의 부역자들이 처단되었다는 오제도의 말은 책임회피성 발언이었다. 그는 개전 초기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수십만 명이 처형되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수복 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부역한 사람들도 처형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처형을 주도한 것이 “일반국민들”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일반국민들”은 단체나 조직이 없는 무차별적인 일반대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일반국민들”은 대책위원회·수습대책위원회·전시대책위원회 등으로 알려진 우익성향의 지역유지로 구성된 단체와 치안대·국민방위군 등으로 알려진 민간인단체로 전국 각 지역에서 부역자 분류를 심사한 “심사위원회”이다. 이에 대해 치안국장 김태선은 1950년 10월 23일 부역자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부역자 적발은 수사당국에서 하였지만 **각 동회 국민반** 단위로 그 반 내에서 유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역자 악질분자를 적발하여 이들을 **예심한 결과를 수사당국에 보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유는 어느 개인의 고발보다도 그 반 내에서는 그 누구가 악질분자인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부역자 숙청에 있어서 국민반을 통한다면 이웃사람간의 문제인 만큼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성안**이 서 있으나 이 심사위원회는 자치적으로 각 동회와 애국반에서 조직하기를 바란다.[850] **(밑줄은 인용자 강조)**

치안국장은 동회 및 국민반 단위로 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심사위원회가

848) 「서울신문」 (1950년 11월 27일).
849) 오제도, 『적화삼삭구인집』, 142.
850) 「조선일보」 (1950년 10월 23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부역혐의자를 예심하여 이를 군·검·경합동수사본부에 소속된 수사당국(경찰, CIC, 검찰)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계획은 “이미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성안”이 되었다 했다. 그러나 1950년 11월에 당시 오제도는 이를 모르는 것처럼 말했다.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는 수복된 모든 지역에서 이미 널리 실시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제도 역시 부역혐의자 처리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의 주장을 의식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부역자 적발 및 처벌의 화급을 주장하면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게 부역자 분류 심사를 권장하고 재촉한 것은 치안국장과 군·검·경합동수사본부였다. 더군다나 이 심사위원회에 처형될 자, 훈방될 자, 그리고 보류·재심사 후 처형될 자와 훈방될 자, 즉 A·B·C 혹은 갑·을·병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전달한 것도 CIC와 검경이었다.

한편 서울을 수복하기도 전인 1950년 9월 23일, 경상남도 도청회의실에서 조병옥 내무부장관은 경상남도 시장·군수·경찰서장 연석회의 중 부역자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역자 처단에 있어서는 ‘大韓魂’을 발휘하여 관에서 엄격 심사한 후에 처단할 것”이라고 했다.[851] 이것은 치안관계자 중 가장 먼저 부역자 처리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 측에서도 부역자 처리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신성모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1950년 10월 10일 국방부에서 환도 후 첫 번째의 기자회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당면 과제를 언급하였다. 이중 부역자에 대해서 “첫째 군경 그리고 일반 문화인 중 낙오된 자 가운데 피신하여 지하에서 공작을 한 자와 둘째 생명위협에서 몸만 피하여 간신히 연명한 자, 그리고 탄압에 눌려 본의는 아니나마 협력을 한 자인데 전기 2자는 무조건 포섭할 것이며 셋째에 해당하는 자는 죄상에 따라 처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852] 즉 “탄압에 눌려 본의는 아니나마 협력을 한 자” 조차도 “죄상에 따라 처단”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1950년 9·10월, 조병옥·김태선·신성모 등 당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군·경의 최고 지휘자들은 부역자 처리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였다. 특히 김태선 치안국장의 ‘심사위원회’의 도입은 인민군 점령기 피해자와

851) 「부산일보」 (1950년 9월 25일).
852) 「서울신문」 (1950년 10월 11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유가족에게 보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개인적 감정과 이권개입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학살 사건이 촉발되었다.

조병옥 부역혐의자들이 수십만 명이었고, 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즉결재판으로서 사형을 위시하여 무기징역, 30년 징역, 15년 징역, 5년 징역의 언도"를 받았다고 했다.[853] 그는 부역자가 전국에 수십만 명에 달했다는 점과 이중 일부가 즉결처형 되었다고 했다. 충청남도 경찰국장 김호우(金虎羽)는 1950년 11월 13일 치안국 부국장실에서 11월 12일 현재 충청남도 부역자 총 수가 약 2만 명이고 이중 9,000명이 석방되었으며 이외의 부역자들은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854] 그러나 11월 12일에는 충청남도의 부역자들 중 다수가 이미 처형된 상태였다. 따라서 조사 중에 있는 부역혐의자들 중 다수는 이미 처형된 상태였다.

전쟁 중 헌병대에 입대하여 1955년 당시 헌병부 특수 수사처 수사관이었던 최병필의 구술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경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답 예산 광시면 600명, (논산-인용자) 성동면 7~800명되고, 아산(배방면-인용자)도 많어 5~600명되고. 우리 군인이 관련되었나 보려고 조사를 했어. 거창 사건 때문에 일제히 조사했어.
질 담당조사관은 누구였어요?
답 몰러. 하사관들어었어. 내가 헌병학교 27기였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10기 이상이었어.
질 당시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답 헌병부 범죄수사. 헌병부 범죄수사처 군인관련 민간인 처형관련 건.[855]

헌병사령부가 1955년경 각 도별로 군에 지시에 의한 민간인처형 건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예산군 광시면에서 약 600여명, 논산 성동면에서 7~800명, 아산 배방면에서 5~600명의 부역혐의자들이 경찰에게 희생되었다는 결과보고서를 보게 된 것이다. 한편 최병필의 아내는 전쟁이 끝난 후

853) 조병옥, 『나의 回顧錄』, 308-309.
854) 「경향신문」 (1950년 11월 14일).
855) 최병필·최병필 처 구술녹취록 (2007년 10월 31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최병필과 결혼했다. 공교롭게도 전쟁 당시 그녀가 살던 곳은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였다. 이곳은 집단학살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1950년 7월 보도연맹원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집단의생 사건, 수복 후 부역혐의희생 사건 등 광시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직접 직접 목격했다. 그녀는 3가지 사건이 고리처럼 연결되면서 대규모 학살로 발전했다고 했다. 수복 후 10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매일 밤 자신의 집 앞 시냇가에서 처형이 있었다고 한다. 지서 경찰이 지시했고, 소방대원들이 총살을 했다. 이렇게 해서 광시면에서만 5백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856]

아산군 배방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목격자 임병철 등 다수의 구술자들이 수복 직후 아산군 배방면 면소재지 인근(현재 아산시 남동 1번지)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집단 살해되었다고 했다.[857] 또한 정부문헌자료를 통해 1.4후퇴 당시 배방면 중리 3구 금광에서도 최소 183명의 주민들이 살해되었음이 확인되었다.[858] 앞의 사건은 1950년 10월 직후에 발생한 것이고, 후자의 사건은 1951년 1월에 발생한 것으로 별개의 사건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군에서 대규모 부역혐의자 학살이 있었다고 했다.

> 함구범(咸九範) 등 서산군 민간인 중 최소 1,866명(희생 978명, 희생추정 888명)이 1950년 10월 초순부터 1950년 12월 말경까지 부역혐의로 서산경찰서·태안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게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갈산리 교통호 등 최소 30여 곳에서 집단 살해되었다.[859]

여기서 “희생추정자” 888명의 거의 대부분은 서산경찰서가 1980년 생산한 『신원기록심사보고』에 전쟁 중 처형된 자로 기록한 주민들이다. 따라

856) Ibid.,

857) 임병철 진술조서 (2007년 10월 11일); 이홍주 진술녹취(2007년 10월 11일); 김장성 진술녹취(2007년 10월 11일). 집단희생 장소는 배방면 참고인 임병철의 논과 양쪽 언덕이었다. 그는 1951년 1월경 자신의 논을 중심으로 양쪽 산과 이어진 교통호 100m에 흙으로 살짝 덮어 놓은 수백 구의 시신들을 목격했다.

858) 법무부장관이 1951년 7월 21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左翼分子 及 同 家族 殺害事件 發生에 關한 件'에는 충남 아산군 배방지서 순경이 1951년 1월 6일 향토방위대장과 공모해 좌익분자와 그 가족 183명을 전원 총살하고 사체를 부근 금광에 유기한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충청투데이 2006년 3월 1일.

859)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12월 2일), 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서 희생자로 확인된 987명은 물론 888명의 희생추정자도 군경에게 집단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전형무소 특별 경비대 윤근용과 계호과 조성구는 수복 후 부역혐의로 수감된 재소자가 많았다고 했고, 계호과 이병직은 이들 모두 사형을 언도 받았고, 군법에 따라 헌병들이 처리했다고 한다.[860]

예산 광시면, 아산 배방면, 서산군, 대전 등의 사례를 통해 수복 직후인 1950년 10월 초부터 충청남도 전역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최소 20,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충청남도의 부역혐의자 대부분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치안국장 김태선과 심사위원회

그렇다면 부역혐의자들은 어떻게 검거·분류·처형되었는가? 우선 검거는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으로 구성된 치안대와 경찰이 담당했다. 치안대의 정식 명칭은 자위대(自衛隊)다. 이 단체는 1950년 7월 22일에 공포된 "대통령령(긴급명령7호)비상시향토방위령"과 8월 4일 공포된 "대통령령(긴급명령9호)비상시향토방위령"에 의해 도, 시·군, 동·면·리 단위로 조직되었다. 이에 의하면, 자위대원은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으로 조직하고, 자위대 대장과 부대장도 이들 중에 천거되어 도지사, 군수, 면장 등이 임명했다. 치안대, 즉 자위대는 관할지역 경찰국장, 경찰서장, 지서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체포"할 수 있다.[861] 면단위의 치안대는 리 단위의 치안대와 협조하여 각 리의 부역혐의자를 색출, 구금, 조사하였다. 대개 이들을 면 단위에 부역혐의자들을 구금시키고 부역혐의자들을 심문했다. 심문은 지서 경찰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안대가 담당했다. 조사 내용은 부역자 면 유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그 곳에는 지서장이 참석하였다. 치안대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는 부역혐의자들을 갑·을·병, 혹은 A·B·C로 분류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면 단위에서는 지서장이,

860) 이병식 진술녹취 (2009년 2월 13일).
861)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C51-52, C56-5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시군 단위에서는 경찰서장이 결정을 했다. 그런데 A·B·C 분류는 전국에 내려진 공통지침이었다. 선우종원은 "민경상담소(民警相談所)를 차려 놓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부역자를 잡아들였다고 했다. 체포된 부역자들은 A·B·C분류하여 처리했다고 한다.[862] 지서장은 서장에게 분류된 부역혐의자를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분류된 조사기록을 경찰서에 보고했다. 때로 선 처형, 후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서산경찰서 사찰계 형사 정익철은 지서 단위의 부역혐의자 살해를 인정하면서 일반구민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했음을 시인했다. "지서에서도 수복해가지고 이내 지서에서 많이 처단했고. 아! 본서(서산경찰서) 들어오면 유치할 때나 있어? 그러니까 지서에서 유치해서 골라서 처단했지. 지서장이 결정했는데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면 협의체서 협의를 했지."라고 했다. 또한 수복 후 지곡지서장 이재병은 부역혐의자를 가·나·다로 분류했고 '가'는 처형되었는데 치안대와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했다.[863] 이것도 전국의 공통사항 중에 하나였다. 부산에서 10월 10일 귀경하여 군 중앙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이었던 이용석(李龍錫) 중령은 하루에 300건을 처리했는데 "무슨 위원장이나 동맹의 장(長)자리에 있던 부역자들은 무조건 사형을 구형"했다고 했다. 이어 "판결건의 5/1 정도가 사형"되었다고 하면서 처형 장소는 신촌 뒷산이라고 했다.[864] 특히 당시 육군본부 법무감 양정수(陽正秀)는 김창룡이 "왜 어떤 부역자를 사형성고하지 않는냐"라는 압력을 넣어 수차례 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865] 중앙이나 지방이나 부역자 중 가, 혹은 A급은 처형으로 분류했고, 이를 담당한 군·검·경은 대단히 강경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한 협의체는 무엇인가? 치안대가 취조한 내용을 근거로 서산군 이북면지서장 표공민 및 치안대장 김형갑과 감찰부장 이재열을 비

862)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권3, 46.

863) 참고인 정익철, (2008년 4월 10일); 이재병 진술녹취(2008년 5월 29),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28-29. 정익철은 1947년 월남 후 1948년 서산 서북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 중 그해 12월 16일에 경찰에 입문했다. 개전 전후 서산경찰서 사찰계 내근형사로 근무했다. 이재병도 지곡지서가 서산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부역혐의자를 처형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864)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권3, 49-50.

865) ibid., 4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롯한 치안대 간부들은 부역혐의자를 ‘처형’과 ‘훈방’으로 분류했다. 당시 이북면치안대원 이기권은 부역혐의자 분류작업에 참여했다.

> 지서에서 부역자를 3등급으로 분류했어요. A는 처형되고, B는 보류했다가 나중에 불러서 처형할 사람은 처형하고, C는 그냥 놔주고요. 취조는 치안대 감찰부장이 다 했죠. 이재열씨가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낭독했죠. 여기는 이장들은 관여 않고, 리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관여했지요. 우리 부락은 내가 했어요. 치안대장이 총 책임자예요. 치안대장하고 참석자들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치안대장이 말하면 지서장이 처형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랬어요.[866]

이기권은 이북지서 지서장, 치안대 간부, 그리고 지역유지들로 구성된 협의 기구가 부역혐의자를 분류했고 최종 결정은 지서장이 했다고 진술했다.[867] 서산군 근흥면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 10월 수복 직후 근흥지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는 각 마을의 민간인들을 연행해 면사무소 창고에 구금했다. 근흥지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 감찰부 송두섭, 송규환 등이 구금된 민간인들을 취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면 협의회에서 이들을 ‘처형’과 ‘훈방’으로 분류했다. 당시 치안대 감찰부장 및 치안대장이었던 최갑성은 자신과 면장·지서장·각 리 이장 등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형될 자와 훈방될 자를 분류했고, 지서장이 최종결정을 했다고 했다.[868]

서산군의 사례를 통해 “자치적으로 각 동회와 애국반에서 조직”한 “심사위원회”가 존재했으며, “각 동회 국민반 단위로 그 반 내에서 유지들”로 조직되었으며, 이들이 “부역자 악질분자를 적발하여 예심한 결과를 수사당국에 보고”하라는 김태선 치안국장의 지시가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69] 즉 대한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로 구성된 치안

866) 참고인 이기권 (2008년 4월 18); 이기권은 지서장이 처형될 사람을 줄이려고 했지만 치안대장 김형갑은 부역자를 적극적으로 처형할 것을 주장했다고 했다.
867) 이기권 진술녹취 (2008년 4월 18);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56.
868) 참고인 최갑성 진술녹취(2008년 4월 8):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37-38에서 재인용.
869) 「조선일보」 (1950년 10월 23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대와 유지들로 조직된 심사위원들이 부역혐의자들을 예심하여 분류하였고, 그것을 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개인적 감정에 의해 부역혐의자를 색출·분류하였고, 그 결과 대규모 집단 학살로 이어졌다. 개전 초기 국민보도연맹원학살 →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 → 수복 후 부역혐의자 학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치안국장과 경찰은 부역혐의자 검거, 분류, 처형에 일반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 보복학살을 합법화 시키는 통로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경찰서 『경찰 연혁』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4. 6·25 사변 중 사항
> 당 관내(소원면-인용자)에서는 6·25 당시 좌익분자들이 악질적으로 부역하여 순민한 농민들이 그들에게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가족이 61명이며 좌익피살자 192명으로 많은 피살가족이 있으며…. ○씨와 ○씨 간에 사상적이라기 보다도 민족적인 편파 감정으로서 상호가 격분적으로 피살되였든 것임.[870]

서산경찰서는 소원면에서 좌익세력에게 희생된 사람이 61명, 부역혐의 등으로 피살된 사람이 192명이라고 했다.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는 보도연맹원 살해와 적대세력에 의한 살해사건으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과 보복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수복 후 소원지서가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과 우익단체가 중심이 된 치안대를 부역자 처리과정에 개입시켰기 때문이었다.[871]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치안대가 부역혐의자를 처형했고, 지서장은 이를

---

870) 서산경찰서, 『경찰 연혁』(1986);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43-44. 1961년 당시 각 지서가 면내의 상황을 기록하여 서산경찰서로 보고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871)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44.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석희와 정낙관의 진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국씨와 정씨 간의 갈등이 희생을 확대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직후 7월 중순경 태안 경찰서 소속 경찰이 모항리 보도연맹원 정성영, 정진영, 정낙설, 문창윤, 문양수, 문화진, 국서환, 김윤환, 김이관 등을 살해 했다고 했다. 인민군점령기에 보도연맹원 희생자 유가족은 보도연맹원 살해에 개입되었다고 의심되는 우익진영 민간인에게 보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교환, 국생식 등 다수의 모항리 주민이 살해되었다. 수복 직후 또다시 재보복이 이었다. 신덕리의 김동묵, 조한소, 박주용, 정태동은 소원면 신덕리 마찬가지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한편 수복 직후 소원지서의 지서장 김남제는 '처형'과 '훈방'결정 과정에서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과 치안대원인 이민재 등과 협력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승인했다.

> 소원면 참고인 이수철 · 이병희 · 윤태종 · 문종태 · 정석희 · 정낙관 · 김동묵 · 박주용 · 정태동 · 정형용 · 정세진은 치안대원 이민재 · 조세록 · 박승교 등 부역혐의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소원면 소방대원 이수철은 부역혐의자 살해는 소원면치안대의 이민재가 주도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신덕리 해안으로 부역혐의자를 이송할 목적으로 묶었던 밧줄을 2~3명 단위로 끊고 주민들을 돌아서게 한 후 치안대원 이민재, 조세록, 박승교가 총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시목리 참고인 윤태종은 이민재가 시목리 대로에서 김지영을 총살하는 것을 목격했고, 의항리 참고인 박상원은 이민재가 의항리 마을 앞에서 김중곤과 박덕기를 총살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의항리 참고인 지재홍은 이민재가 의항리 마을 앞에서 지운식을 총살하는 것을 목격했다. 한편 수복 직후 소원지서의 지서장 김남제는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역혐의자를 처리했다. '처형'과 '훈방'결정 과정에서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이자 치안대원인 이민재 등과 협력하여 부역혐의자를 체포 · 취조 · 분류 · 살해한 것이다.[872]

치안대라는 민간인 단체가 경찰의 협력자가 되어 부역혐의자를 분류, 처형에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안대와 면 유지, 즉 일반국민들을 참여시킨 것은 치안국이었고, 그것의 결과는 치안국의 가장 하부조직인 지서단위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결과는 치안국의 지시대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 심사위원회는 부역혐의자를 예심하여 그 결과를 지서장에게 보고했다. 또한 심사위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한 치안대는 부역혐의자를 검거, 분류, 처형에 관여했다. 결국 이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은 이것을 계획한 군검경합동수사본부와 이 계획을 지시한 치안국장 김태선이었다.

부역혐의자 처리에 있어서 CIC가 총 지휘를 맡았으나 치안국은 별도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강화군 경찰서 사찰계 형사이었던 김찬하는 수복 직후인 1950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인천 시내 국일관에 설치된 인천 CIC 분견대로 파견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강화 경찰서가 작성한 약

872) 진실화해위원회, 「서산 · 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4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2,600명의 부역자 개인별 조서를 토대로 부역자들을 A·B·C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873] 당시 경기도 경찰국 사찰과 형사였던 김근배도 매일 국일관에 설치된 인천 CIC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관내 부역자 처리는 인천 CIC의 지휘를 받았다고 했다.[874] 즉 치안국은 불균등한 입장에서 CIC와 업무협조를 했다.

(3) 부역자 분류 기준과 특성 - 좌익협조자의 모호성

부역혐의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들과 마찬가지로 갑·을·병, 혹은 A·B·C로 분류되었다. 1980년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에서 생산한 『신원기록일제정비계획』의 '심사기준표'는 이를 잘 설명해 준다.[875] 이 표는 부역자를 갑·을·병종으로 나누었고, 이들을 1-7, 3-8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13> 심사기준표

갑 종		을 종		병 종	
1-1	좌익 정당.단체 등 부서에서 도단위 간부직에 있었던 자	2-1	좌익 정당.단체 등 군단위 간부직에 있었던 자	3-1	좌익 정당.단체 등 군 단위 이상 간부가 아닌 자와 면단위 간부 및 리.동 세포위원장
1-2	인민재판장 및 동위원 내무서원, 분주소원	2-2	인민재판소 판사. 재판서기	3-2	치안대. 자위대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여 좌익인사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자.
1-3	시.도 단위 이상 정치보위부원. 감찰부원	2-3	검찰소 검사. 동 서기. 분주소원에 적극 협력한 자	3-3	빨치산, 각종 반란 폭동에 가담 아군과 항전타가 자수한 자
1-4	간첩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었던 자	2-4	면단위 이상 정치보위부원, 감찰부원	3-4	기타 정보사범
1-5	악질 부역 후 월북한 자와 휴전 후 납북, 및 군 복무중 월북자	2-5	좌익인 수형자	3-5	반공포로
1-6	북송자중 한국에 직계 혈족이 거소자	2-6	빨치산, 각종 반란 폭동에 가담 아군과 항전타가 생포된 자	3-6	월북 행불자 명단 등재자중 생사불변자와 전란 중 실종된 자
1-7	악질 부역 등에 가담 사살	2-7	좌익인 수형자	3-7	북송자 중 남한에 5촌 이외

873) 김찬하 구술녹취 (2009년 2월 27일).
874) 김근배 구술녹취 (2009년 2월 10일).
875)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신원기록 일제정비계획』 (1980):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21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또는 처형된 자				친족이 거주하는 자
1-8	기타 살인 등 악질 부역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갑종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자	2-8	납북 귀환자	3-8	처형되었으나 부역 사실이 없거나 부역사실 유.무가 불확실 한 자
		2-9	강제 송환자 중 조총련 비호하에 있었던 자	3-9	기타 갑.을종 외의 부역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병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 * 조총련에서 활동한 자
			이하 생략		

위의 표에 의하면, 1-7과 3-8은 각각 “악질 부역들에 가담 사살 또는 처형된 자”와 “처형되었으나 부역 사실이 없거나 부역사실 유·무가 불확실 한 자”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경찰서는 관내의 부역혐의자를 포함한 각종 요시찰인과 동 가족 및 친척에 대한 신원기록들을 심사하여 「신원기록심사보고」를 작성하였다. 1980년 9월 서산경찰서가 생산한 「신원기록심사보고」에는 장순태가 “1-7”로 분류되어 있었다.[876] 6·25전쟁 당시 서산군 근흥면 치안대장이었던 최갑성은 장순태가 1950년 10월 초 해군에 의해 근흥면 안흥리에 있는 바닷가(현재 수협자리)에서 처형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877] 이를 통해 전쟁 당시 부역혐의자를 A·B·C, 혹은 갑·을·병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산군 이북면 치안대원이었던 이기권에 따르면 A는 처형, B는 재분류, C는 훈방이었다.[878] 서산경찰서 지곡 지서장 이재병과 태안경찰서 정동수도 3등급으로 부역자를 분류하였고, 이중 A급은 처형되었다고 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울진 경찰서 의용경찰 전양중 등은 사찰계 형사들이 구금된 부역혐의자들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하였다고 했다.[879] 양평경찰서 사찰계 형사 오교성(吳敎聖)은 1950년 10월 6일 또는 7일경 양평에 도착했을 당시 금융조합창고에 부역혐의자들 200여 명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어 A급은 총살, B급은 송

876) 서산경찰서, 「신원기록심사보고」 (1980)
877) 최갑성 진술녹취 (2008년 4월 8일).
878) 이기권 진술녹취록 (2008년4.18일);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56에서 재인용.
879) 참고인 전양중 진술조서 (2008년 1월 22일); 참고인 전창수 진술조서 (2007년 9월 18일); 참고인 임진승 진술조서 (2007년 9월 18일); 신청인 이능식 진술조서 (2007년 12월 7일): 진실화해위원회, 「울진 부역혐의희생 사건」, 33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치, C급은 훈방 처리되었다고 했다.[880]

그렇다면 치안국이 생산한 『신원기록일제정비계획』에 나타난 "심사기준 표"처럼 부역자들이 대부분 좌익정당에 가담했는지, 이들이 실질적으로 부역을 했는지, 그에 따라 처리가 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의 희생자 소속 단체별 분포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14> 울진군 희생자 소속 잔체별 분포[881]

소속단체 / 근거	내무서	농맹	당	민청	여맹	인민위원회	자위대	기타	미상	합계
『부역자 명부』(정보계)	15	15	10	26	9	37	15	3	1	130
『부역자 명부』(보안과)	4	1	1	10	1	9	4	1	0	26
신원기록편람			5							5
계	19	16	16	36	10	46	19	4	1	161

울진경찰서가 생산한 『부역자 명부』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표에 의하면 희생자 중 다수가 인민군 점령기 내무서, 민청, 인민위원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울진부역혐의 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참고인 남종원은 '정작 죄가 많은 사람들은 피신하고 있다가 자수기간에 자수하여 살고, 죄가 별로 없어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총살되었다. 억울한 사람들이 총살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 참고인 전창수는 '부역혐의로 집단 살해된 사람들 중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고 억울하게 죽었지요' 라고 진술했으며, 참고인 홍창복은 '대한청년단 등의 우익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과장되게 죄를 부풀려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라고 진술하였

880) 오교성 진술 (2008년 11월 28일): 진실화해위원회 『양평 부역혐의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2월 16일) 7에서 재인용.
881) 진실화해위원회, 「울진 부역혐의희생 사건」, 6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882]

부역자 중 가벼운 부역을 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많이 희생되었다고 했다. 좌익관련자로 인민군 점령기에 각종 단체에 가입해서 적대세력에 협력했다고 기록된 기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최병필과 그의 처가 구술한 광시면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인민군 점령기에 각 단체에 가입한 광시면 주민 중에 다수는 자기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지도 모른 채 구장이 도장을 달래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었다. 또한 서산군에서는 보복적 학살이 부역자를 검거하고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는 경기도 양평에서도 확인된다. 『양평교회100년사』는 인민군 점령기 양평읍 인근 강변 떠드렁산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수복 후 부역혐의자에 대한 학살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공산군이 쫓겨 간 후 정말 또 다시 비참한 보복 학살이 시작되었다. 이는 양평에 공산당이 머무는 동안 부역하거나 협조한 자들을 색출하여 여지없이 처단하는 것이었다. 분노에 가득 찬 피해 가족들은 그들을 색출해 내느라 혈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산군이 들어오고 쫓겨나가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하는 사람도 생겨났는데 동네에 낯선 젊은이들이 보이면 어이없이 공산군 누명을 씌워 잡아가는 등 곤혹을 치르는 일도 많이 벌어졌다.[883]

인민군점령기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우익청년단과 함께 수복 후 보복학살에 관계했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가평은 이러한 사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가평경찰서 경리계 소속 김종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역혐의자들을 검거하였고, A·B·C 분류작업이 있었으나 부역혐의자 가족이라면 전부 빨갱이로 몰아 연행하여 취

882) 참고인 남종원 진술조서 (2007년 9월 11일); 참고인 박석인 진술조서 (2008년 1월 23일); 참고인 전창수 진술조서 (2007년 9월 18일); 참고인 이동식 1차 진술조서 (2007년 9월 18일); 이동식 2차 진술조서 (2008년 3월 25일); 홍창복 2차 진술조서 (2008년 3월 25일): 진실화해위원회, 「울진 부역혐의희생 사건」, 62-63에서 재인용.

883) 양평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양평교회 100년사』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53-154. 이 글은 전쟁 당시 양평교회 목회자였던 강신정 목사와 이언숙 사모의 구술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조하고 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살 "했다고 했다. 지서단위로 처형을 집행했으며 수백 명의 부역혐의자들이 처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884]

김포군과 강화군의 부역혐의자 처형과정은 이러한 사례의 전형을 보여준다. 김포군 하성면의 경우 마곡리 거주자 강범수와 강봉수의 부역으로 인해 그 직계 가족 35명이 처형되었다. 이중에는 15세 이하 어린이가 16명이었고 1세 강대식 등 10세 이하의 어린이도 11명이 되었다.[885] 진실화해위원회는 강화군 교동면에서 다음과 같이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북한점령 시 남편 또는 아들이 부역하다 월북했다는 혐의로 학살된 그들의 가족 및 친인척들로 183명 중 79%인 118명이 아동·노인·여성이었다. … 15세 이하의 아동이 전체의 39%로 61명이었으며, 51세 이상의 노인도 전체의 13%로 20명이다. 또한 여성이 전체의 50%로 91명이다.

김포 하성면과 강화 교동면 희생사건에서 어린이들의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 살해가 특수한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동면 고구리 독고개 낭아래에서 처형된 10세 최고유는 아버지 학갑에 권총이 있다고 자랑삼아 친구들에게 말했다. 치안대와 해군특별공격대는 1951년 1월경 그를 체포해 윤자민의 집에서 심문을 했다. 윤자민은 최고유의 친구였다. 윤자민의 아버지는 고구리 치안대장이었고, 그의 집은 교동해군특공대 고구리파견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윤자민에 의하면, 최고유는 체포된 당일 특공대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랑방에서 심문을 받은 후 처형되었다고 한다.[886] 최고유는 검거, 심사, 분류, 처형이라는 부역자 처리과정을 거쳤다. 우연히 처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수복 직후 대규모 부역혐의자 처형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부역혐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적대세력에게 협력했는지의 여부

884) 김종문(金鍾文)진술조서 (2009년 10월14.): 진실화해위원회, 「가평·포천 부역혐의 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1월 12), 10에서 재인용.
885)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포 부역혐의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10월 8일), 39-40.
886) 윤자민 구술녹취 (2007년 9월 1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였다. 분류의 기준이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역자 분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개전 직후 군경에 의한 국민보도연맹원 처형 → 적대세력에 의한 우익인사 처형 → 군경우익단체에 의한 부역혐의자 처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복행위를 치안국이 활용했다는 점이다. 치안국장 김태선은 우익단체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가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합법화하였고, 이로 인해 대규모 민간인학살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치안국의 실질적 지휘자였던 내무부 장관 조병옥과 국방부장관 겸 국무총리 신성모는 9월말과 10월 각각 부역자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부역혐의자들에 대한 학살이 대규모로 발생했고, 심지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처형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기독교인 오제도는 보도연맹원 조직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부역혐의자를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를 소개한 내무부 장관 조병옥과 감리교계통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치안국장 김태선은 부역혐의자 처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서 이를 지휘하였다.

4. 육군정보국 방첩과와 군·검·경합동수사대

1) 육군 정보국 방첩과

1950년 개전 초기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 처형과 관련된 기관은 내무부 치안국과 육군정보국 그리고 헌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무부 치안국과 육군정보국은 민간인희생 사건의 지휘명령체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의 역사와 주요 업무 그리고 기관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육군정보국 방첩과는 민간인희생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방첩과의 설립과정, 목적, 해방 직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철수를 대비하여 1948년 7월 이승만은 미 제 24군단 G-2의 와딩턴(Thomas Wathington) 대령과 한국 경무부 고문 에릭슨(H. E.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Erickson) 대령과 몇 차례 회담 후 971 CIC를 모방하여 남한의 CIC를 조직했다. 이것을 가리켜 대한관찰부라고 했다[887] 이 기관은 1949년 1월에 사정국으로 이름을 바꿨다.[888] 장석윤은 자신이 초대 사정국장이었다고 하면서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이 박사는 나를 불러 '이제 정부가 세워졌으니 같이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고 해서, 24군단 G2"를 사퇴하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의 초대 사정국장에 취임했다." 고 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FBI와 같은 기관을 우리나라에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사정국을 조직했다고 했다. 즉 "대통령 비서실서부터 각료 각 부처 고하급공무원의 신원조사", "정보수집, 비위사실조사" 등이 주요 업무이었지만, 국회 및 이승만 대통령 반대자들도 조사했다고 한다.[889]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관찰부를 정부 기관으로 승인 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수원청년단사건'[890]과 장석윤의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대한관찰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장석윤은 1949년 5월 19일 배임죄로 서울지검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유는 1948년 10월 19일 13,190,700원을 착복하고 기밀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891] 국회의 거부와 장석윤의 배임혐의로 인해 국회가 사정국 예산을 승인

887) 이 기구는 1948년 7월 중순 1차반 60명을 교육하였고 1기생 졸업 후 8월 하순 경기중학교에서 2차 240명을 교육하여 졸업시켰다. 이들은 9월 초 대한관찰부의 지역 조직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주, 대전, 청주, 마산, 광주 등에 배치되었다. 대한관찰부의 초대 부장은 민정식으로 기록되어있다. 국군보안사령부, 「초기 한국CIC의 역사」, 『管區歷史』(80-12);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사림」제36호 (서울: 수선사학회, 2010)이 참조한 Apenicx 4: The Korea Research Bureau-Early History of Korea CIC(이하 『한국 방첩대의 초기역사』)에서 국군보안사령부, 「초기 한국CIC의 역사」,『管區歷史』(80-12)의 일부가 언급되고 있고, 『제주4·3사건자료집』 8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2003), 156-158에 그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888) 국사편찬위원회, 「건국십년: 1090」 『한국근현대인물자료』에는 장석윤이 1948년 '民國司正局長'으로 기록되어있다. 민국사정국, 즉 대한관찰부는 1948년 7월 경 이승만과 미 24군단 971 CIC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즉 장석윤은 미군사령부 G-2에 있으면서 971 CIC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889)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16-317.

890) 1949년 1월 중순 경찰과 군인까지 동원하여 10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대통령 암살 혐의로 체포·고문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98 여름, 165.

891) 「자유신문」 (1949년 5월 21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정국은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말았다.[892]

이를 예상한 이승만과 미24군단 정보참모부는 조선경비대 내에 CIC의 역할을 담당할 부서를 조직하기로 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원을 교육했다. 이들은 1948년 9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 중구 남산에 위치한 박문사(일본 신사 터)에서 미군 971 CIC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SIS 1기 교육생은 미군정부터 정보처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김안일, 1연대 정보처 장교 김창룡, 그리고 비철현, 백운상 등 33명의 육군과 함명수 등 해군 9명이었다. 이들이 교육을 받던 학교는 남산학교 혹은 남산정보학교로 불렸다.[893] 김안일 대위는 육군정보국 SIS(Special Intelligence Service, 특별정보대)대장이 되었고, 함명수 중위는 해군정보국의 정보감이 되었다.[894] 교육을 마친 학생들을 중심으로 11월 1일에 육군 정보국 3과, 즉 SIS가 조직되었다. 당시 SIS는 '특무과',[895] 혹은 '방첩대'[896]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1948년 5월 27일에 이미 조선경비대 정보처 3과 특별조사과(Special Investigation Section)가 존재했다.[897] 김안일은 1948년 6월부터 경비사령부 정보처에 소속되어 이었다.[898] 따라서 특별조사과가 경비사령부 정보처에 설치된 1948년 5월 27일부터 방첩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

892)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16-317.

893) 김안일에 의하면 남산 박문사 자리에 정보학교가 있었고, 미군들이 교관으로 있었다. 이 학교에서 유도를 가르친 장경순은 이 학교를 남산정보학교라고 했다. 최복수, 박정희, 김종필 등이 이 학교 출신이고, 6·25전쟁 개전 전에 김포비행장 인근으로 학교를 옮겼다. 전사편찬위원회, "작전명령 제97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1권 개정판 (서울: 국방부, 1977) 933. 1950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본부는 제22연대 1개 대대 등을 김포로 주둔시켜 적을 김포 서북지역에서 잔멸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남산학교(김포)"도 계인주 대령이 지휘하는 이 부대에 편입되어 전투를 하였고, 장경순도 이 전투에 참전했었다. 전쟁 전 남산학교는 그의 말처럼 김포비행장 인근에 있었다.

894) 「초기 한국CIC의 역사」,『管區歷史』(80-12);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김득중은 이 논문에서 번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SIS를 '특별정보대'로 번역했다.

895) 1989년 12월 「월간조선」에 실린 "김창룡이 살리자고 했다 - 박정희 수사책임자 김안일," 이라는 글에서 1948년 11월 1일 조직된 SIS 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김안일은 SIS의 명칭을 '특무과'라고 했다.

896) 1949년 10월 15일자 국도신문은 SIS(Special Intelligence Service)를 '방첩대'로 기록하고 있다.

897) 진실화해위원회, 「중요 참고인 김안일·장경순 조사내용 추가보고」(조사5팀-272, 2009년 3월 18일).

898) Ibid.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된다. 최소한 SIS 1기 교육이 시작된 1948년 9월 27일부터 특별조사과의 담당자는 김안일로 추정된다. 이 특별조사과는 1948년 11월 1일에 육군정보국 3과 SIS로, 1949년 10월에 육군정보국 2과 CIC로 각각 개칭되었다.[899]

한편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육군 정보국(국장 백선엽)은 광주로 내려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SIS 1기 교육생 중 육군 소속 장교들을 중심으로 정보국 안에 여순사건 수사 담당 부서를 설치하였다. 당시 정보국 첩보과장이었던 김점곤은 여순사건 당시 방첩교육을 받은 학생들 몇 명이 광주에서 반군 수사(反軍 搜査)를 담당했다고 했다. 당시 정보국 소속이었던 김안일도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여순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했다고 했다.[900] 『對共三十年史』는 김창룡, 김안일, 이세호, 정인택, 양인석, 박평래, 송대후, 이희영 등이 광주에 내려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하였다고 했다.[901] 이들은 모두 SIS 1기 교육생들이었다.

육군정보국 3과 SIS 과장 김안일 소령은 여순사건 직후 초기 숙군을 주도했다. 광주에 내려가 김안일 과장과 함께 여순사건 수사에 참여한 이희영은 “김안일 장군이 3과 과장할 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누구누구 데려오라 하면 데려오고 그런 심부름은 좀 했죠”라고 하면서 초기 여순사건과 숙군 수사를 지휘한 것은 육군정보국 SIS(특별정보대) 과장이었던 김안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숙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휘부였던 육군정보국 SIS는 행정적 처리에 치중했고, 실질적 업무는 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다.[902]

김안일로 대표되는 육군 정보국 3과 SIS는 여순사건 수사와 숙군을 지휘했다. 그 중심에는 김안일 SIS과장과 1연대 정보주임인 김창룡이 있었다. 당시 육군 정보국 국장이었던 백선엽은 숙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안일 당시 방첩과장은 그런 일의 흐름 중 가장 한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

899) 국군보안사령부, 「초기 한국CIC의 역사」, 『管區歷史』(80-12).
900) 김안일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9일); 참고인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진실화해위원회, 「중요 참고인 김안일·장경순 조사내용 추가보고」(조사5팀-272, 2009년 3월 18일).
901)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67.
902) 이희영 구술녹취록 (2012년 10월)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었다. 그 밑에서 보좌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김창룡 대위였다. … 작업은 이 두 사람을 비롯한 조사팀의 노력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었다.[903]

초기 숙군의 책임자가 김안일이라는 것이다.[904] 그런데 백선엽은 1949년 초. 매우 추웠던 어느 날, "조사 작업의 실무 책임자"인 김안일이 찾아와 "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전신) 2기생 동기 중에 박정희 소령"의 "혐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박 소령은 군 내부의 좌익 색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남로당에 가입한 점을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 번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라고 하였다는 것이다.[905] 이를 통해 1949년 초까지 여순사건과 숙군 수사의 책임자가 김안일 과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안일은 조갑제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소령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남로당조직 명단을 털어놓아 수사에 협조한데다가 그의 자세가 의연하여 수사관들을 감복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선엽, 김창룡, 김안일 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고 석방시켰다고 했다.[906]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명단을 가지고 왔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굴하지 않았다고 했다.[907]

1989년 12월 "朴正熙소령의 상선(上線)인 李在福을 어떻게 체포했습니까?"라는 조갑제의 질문에 대해 김안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숙군 수사를 해보니 군내의 남로당 조직과 연결되는 외부 선을 찾기가 매우

903) "[6·25 전쟁 60년] 지리산의 숨은 적들(143) 육사동기 박정희·김안일," 「중앙일보」 (2010년 8월 2일).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 2014년 7월 15일 접속.

904) 조갑제, "남로당과 박정희 소령 연구," 「월간조선」1989년 12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1989), 304. 당시 "군 내부의 남로당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은 유군본주 정보국이었다. 백선엽 대령이 국장이었고, 그 밑에 특무과(SIS)가 있어 이 숙군수사를 전담하였다"고 했다. 당시 SIS 대장은 김안일이었다.

905) "[6·25 전쟁 60년] 지리산의 숨은 적들 (143) 육사 동기 박정희·김안일," 「중앙일보」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 2014년 7월 15일 접속.

906) 조갑제, "남로당과 박정희 소령 연구," 「월간조선」1989년 12월호, 304-306.

907) 김안일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9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힘들었습니다. 이 연결점 수사를 위해 잠복하고 있던 金昌龍 팀이 수상한 사람을 검문했는데, … 金昌龍이 저한테 찾아와 이상한 놈을 잡았는데 이제는 놓아주려고 한다면서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李在福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수상한 친구를 세워놓고 제가 그전에 붙들려 와 있던 군내의 남로당 거물 吳一均중령을 옆방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제가 吳에게 바짝 붙어 서서 「저 친구가 李在福이지?」하고 넘겨짚었더니 吳의 얼굴이 상기되더군요.[908]

여기서 김창룡이 김안일의 지휘 하에 있었고, 김안일이 초기 숙군 수사를 지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창룡 팀이 이재복을 체포한 것이 1948년 11월 28일경이고,[909] 오일균을 체포한 것이 1949년 2월이며,[910] 박정희의 감면 청원을 한 것이 1949년 초봄이었던 것으로 보아 1949년 3월에 끝난 1차 숙군의 수사를 담당한 것은 김안일이었다고 판단된다.

일제 강점기 당시 평양의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인 숭실에서 수학한 독실한 기독교인 김안일 소령은 이재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워 목사 이재복을 설득했다.

> '당신도 목사이고 나도 기독교도이니 우리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하자.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다' 고 달랬다고 한다. '저는 李在福에게 목사가 공산주의 활동을 한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도 깨끗이 죽었습니다. 李在福은 지금 표현대로 한다면 해방신학 비슷한 종교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11]

---

908) 조갑제, "金昌龍이 살리자고 했다: 朴正熙 수사책임자 金安一 당시 특무과장," 「월간조선」1989년 12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1989), 329.

909)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68. 1948년 11월 28일, 서울 신당동 277번지에서 김창룡과 부하, 국방차관 호위병 7명이 이재복을 체포했다. 이어 포항으로부터 연락차 상경한 동생 李在榮(41, 일명 李二道)과 대구 10·1폭동사건에 관련되어 피신중인 민주학련원 여학생 崔淑姬(경북고녀 출신 당 19세)를 같은 장소에서 체포하고, 동일 오전 8시에 당 연락차 온 남로당 연락원 李時鉉(전 제1연대 재적자 당 28세)을 체포하며, 동일 오후 이어서 당비조정책임자 시내 용산구 남영동 소재 有恒商工株式會社 전무 崔命植(당 32)과 당 정보연락원 金鍾潤 외 10여 명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육군정보국은 이를 1달 20일 뒤에 발표하였다.

910)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68.

911) "金昌龍이 살리자고 했다: 朴正熙 수사책임자 金安一 당시 특무과장," 「월간조선」1989년 12월호, 329. 김안일은 이재복을 해방신학자로 해석했다. 이재복 목사는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재복은 평양신학교(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와 도시샤(同志社)[912]에서 신학을 전공한 장로교 목사였다. 그래서 김안일은 기독교인임을 내세워 이재복을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이재복은 당시 이른바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가장 핵심적 숙군 대상 중에 하나였다. 그를 수사한 것이 김안일이었던 것이다.

김안일은 1948년 10월부터 1949년 7월 14일까지 SIS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948년 11월에 체포되어 1949년 1월까지 조사를 받은 이재복 수사, 1949년 2월 경 체포된 오일균 소령 수사, 1949년 봄 박정희 조사와 감면 청원 등의 사건을 볼 때 김안일과 육군정보국 SIS가 지휘명령체계를 유지하며 1949년 3월까지 있었던 1차 숙군 수사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당시 김안일이 '김창룡 팀'이라고 표현한 SIS내 특정한 단체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즉 육군정보국 내에 방첩을 담당하는 공식 라인과 김창룡으로 대표되는 특수한 라인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48년부터 민간인 학살이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1951년 5월까지 정식 방첩 기관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표 15> 육군 정보국 방첩과 명칭과 담당자(1948. 5. 27 - 1951. 5.)

일시	부서명	담당자	비고
1948. 5. 27	조선경비대 정보처 3과 특별조사과 (Special Investigation Section)	김안일	김안일 1948년 6월부터 정보처에서 복무함
1948. 11. 1 - 1949. 7. 14	육군본부 정보국 3과 특별정보대 (Special Intelligence Service)	김안일 과장	김안일 1949년 7월 14일 6사단으로 전속

최문식 목사, 김창준 목사, 현순 목사와 같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로 추정된다. 홍승하 목사의 손자 홍가륵, 권신일 목사의 아들 권충일, 인천 내리 교회 김기범의 손녀사위이자 초기 LA흥사단 서무였던 김태진의 사위 이보운, 인천 내리교회 권사 박남칠 등 평신도 중에도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존재했다.

912)「朝鮮人留學生 名簿: 1988－1945年」.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49. 7. 14 - 1949. 10. 16	육군본부 정보국 3과 특별정보대 (Special Intelligence Service)[913]	김창룡 과장	고희두 고문치사 사건으로 보직 상실[914]
1949. 10. 17 - ?	육군본부 정보국 2과 방첩과 (Count Intelligence Corps)	문용채 과장[915]	1949년 10월 SIS를 CIC로 개칭
1950. 3. 13 - 1950. 10. 21	육군본부 정보국 2과 방첩과 (Count Intelligence Corps)	한웅진 과장[916]	한웅진의 다른 이름은 한충렬
1950. 7. - 1950. 10. 21	육군본부 정보국 2과 방첩과 (Count Intelligence Corps)	한웅진 과장	**대구 경북지역 방첩** 특무부대장
1950. 10. 21 - 1951. 5.	특무부대	한웅진 부대장	
1951. 5 -	특무부대	김창룡 부대장	합동 수사본부 종료 후 특무부대 부대장

이 표를 통해 전쟁 중 가장 많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방첩과장 혹은 특무부대장은 한웅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육사 2기로 1950년 6월 개전 초기와 낙동강 전선이 형성된 7월에 정보국장 장도영

913) 「국도신문」 (1949년 10월 15일). 특별정보대는 방첩대로 알려지기도 했다.

914) 「서울신문」, 「경향신문」, (1949년 10월 2일, 1949년 10월 1일); 「국도신문」 (1949년 10월 15일). 검찰청은 1949년 10월 15일 동대문 민보단장 고희두의 사망원인이 방첩대의 고문치사라고 발표했다. 검찰청의 발표 다음 날인 16일 김창룡은 보직 없이 육군본부에 배속되었다. 1949년 10월 육군정보국 3과 SIS는 2과 CIC로 개칭되었다. 동시에 『對共三十年史』 34쪽에 의하면 "1949년 10월 10일 정보국 2과(방첩대-인용자) 내에 군·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동수사 및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므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참고인 이수봉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8일) 이수봉은 부평주둔 제1 공병단(단장 오규범 중령-인용자) 정보 2과(방첩)는 방첩과장 조남철의 지시가 아닌 김창룡의 수하인 하사관 전용만(이북출신)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한다. 전용만은 김창룡의 지시에 따라 제1공병단 정보 2과장(1949년 10월 이후) 조병철과 대원들을 정보과 영창에 구금하였다. 단장 오규범 중령이 숙군 대상이었고, 그 부대의 방첩과를 의심하여 행한 조치였다.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63, 184. 군사영어학교 출신 오규범은 숙군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의 67에 의하면, 오규범 중령은 1차 숙군(1948. 10 - 1949. 3) 대상이었다. 이상봉은 김창룡의 지시로 전쟁 전 노량진에서 오규범을 체포했다고 했다. 따라서 김창룡이 보직 해임 이후에도 군검경합동수사대를 토대로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방첩 업무와 숙군 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915) 「자유신문」 (1949년 10월 21일).

916) 한웅진은 육사 2기생으로 1950년 3월 13일부터 1950년 10월 23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 과장으로 재직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과 함께 정식 방첩 라인의 최고 지휘 명령자였다. 당시 방첩업무 지휘명령은 대통령 → 계엄사령관 → 육군정보국장 → 육군정보국방첩과장 · 육군특무부대장이다.

또한 방첩 기관은 전국 각 지역 주요도시에 파견대를 조직하였다.[917]

<표 16> 개전 전후 CIC 파견대 현황

구분	충남지구	충북지구	전남지구	전북지구	경북지구	경남 동부지구	경남 서부지구
일자	'50.10. 5	'48.1.15	'48.11.10	'48.11.16	'51.1.6	'49.2.1	'49.3.1
장소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진주

대전과 대구는 1950년 10월과 1951년 1월에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파견대가 각각 설치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對共三十年史』에 의하면, 1949년 1월 2일 정보국 예하에 개성, 인천, 주문진, 부평, 부산, 대전, 대구, 춘천, 양양, 청주, 광주, 여수, 목포, 포항에 파견대를 두었다.[918] 따라서 대전과 대구의 경우 1949년 1월 2일에 설치된 것이다. 다만 대전과 대구 파견대가 1949년 1월 당시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6 · 25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대전과 대구를 비롯한 각 도의 도청소재지와 주요 도시에 파견대가 설치되어있었다.

또한 김창룡 팀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정식 방첩담당 부서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독자적인 지휘라인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했고, 이 두 부류의 집단은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을 체포, 수사, 분류, 처형을 주도하게 된다.

---

917) 국군보안사령부,『군사 · 군단 특수부대 역사』, 705: 국방부,「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한 이의신청(3차)(인권담당관-1468, 2009.06.11)」 에서 재인용

918)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34. 1949년 이전인 1948년 8월부터 대전에는 대한관찰부 대전사무소(2급)가 설치되어 있었고 소장은 이재화였다. 이재화는 이후 육군정보국 CIC 장교로 활동했다. 한편 1950년 10월 이전 충남 CIC 파견대장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1950년 10월 5일 이후 이근양 중령이 충청남도 지구 파견대장으로 부임하여 1951년 1월 4일까지 근무했다. 대전 CIC는 그해 4월 9일 철수 했고, 당시 주소지는 대전시 대흥동 546-1번지였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8월, 김창룡 중령은 부산지구 CIC 파견대장으로 복직하여 9월 20일까지 재직하였다. 한편 김창룡이 부임함과 동시에 부산지구 CIC 파견대는 경남지구 CIC 파견대로 확대 개편되면서 경남지역 방첩업무를 관할했다. 당시 대구 경북지역은 육군정보국 방첩과장 한충렬과 방첩과 간부들이 관할하고 있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지역의 방첩업무는 한충렬로 대표되는 육군정보국 방첩과와 김창룡으로 대표되는 방첩과 경남파견대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10월 21일 방첩과가 육군정보국에서 독립하여 특무부대로 조직되었다. 초대 특무부대 대장은 육군정보국 방첩과장이었던 한충렬이었고, 그는 1951년 5월까지 이 직무를 수행했다. 한편 서울이 수복되자 김창룡을 본부장으로 하는 군·검·경합동수사본부가 1950년 10월 4일 서울 국일관에 설치되었다. 이 합동수사본부가 1951년 5월 해체되자 김창룡은 한충렬의 후임으로 특무부대 대장이 되었다.[919]

육사 2기인 한충렬과 육사 3기인 김창룡의 관계는 경쟁과 갈등관계였다고 한다. 이들의 경쟁관계 때문에 한충렬과 친분이 있는 장경순은 김창룡이 특무부대장으로 부임하자 보직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김창룡과 충돌하였다고 했다.[920] 방첩과장 한충렬과 본부 대원들은 대구 경북지역의 방첩업무를 담당했고, 경남파견대장 김창룡은 부산 경남지역의 방첩업무를 각각 담당했다. 정식 방첩 라인과 특수한 방첩 라인이 서로 독자적 영역을 갖고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2) 김창룡과 군·검·경합동수사대

1951년 오제도가 편집하고 국제보도연맹에서 발행한 『적화삼삭구인집』에 김창룡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축하를 했다.

---

919) 국군보안사령부, 「초기 한국CIC의 역사」, 『管區歷史』(80-12); 「한웅진 자력」, 「김창룡 자력」 참조.
920) 장경순 구술녹취 (2009년 3월 4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金昌龍
단기4283년 11월 28일

滅共救國
To recovery our home land is to break down all communist.[921]

“조국을 구하는 길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滅共救國(멸공구국)은 김창룡의 슬로건이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1948년 10월부터 전쟁 기간인 1951년 5월 이전까지 그가 육군정보국 방첩과장으로 근무한 것은 1949년 7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922] 그는 1949년 10월 17일, 보직해임 된 상황에서 5사단을 거쳐 육군본부로 전속되어 공군에 있었다. 개전 당시인 1950년 6월과 7월 CIC 정식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당시 CIC의 공식 지휘체계는 육군정보국 장도영 → 방첩과장 한충렬로 이어졌다.[9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연맹원, 형무소 재소자 및 좌익관련자 처형을 지휘한 것이 CIC의 김창룡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그가 어떻게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 처리를 지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수립과 여순사건 발생 시기인 1948년 5월부터 전쟁 초기인 1951년 5월 까지 방첩업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7> 방첩업무 당당 기관과 담당자(1948. 5 - 1951. 5)

일시	부서명	담당자	비고
1948. 5. 27	조선경비대 정보처 3과 특별조사과 (Special Investigation Section)	김안일	김안일은 1948년 6월부터 정보국에서 복무함.

921) 오제도 외, 『적화삼삭구인집』, 1951. 김창룡이 『적화삼삭구인집』 출판을 기념하여 준 친필 글.
922) 1951년 5월 김창룡은 특무부대장으로 부임했다.
923) 한충렬의 다른 이름은 한웅진 이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48. 11. 1 - 1949. 7. 14	육군본부 정보국 3과 특별정보대 (Special Intelligence Service)[924]	김안일 과장	김안일 1949년 7월 14일 6사단으로 전속
1949. 7. 14 - 1949. 10. 16	육군본부 정보국 3과 특별정보대 (Special Intelligence Service)	김창룡 과장	고희두 고문치사 사건으로 보직 상실[925]
1949. 10. 17 - ?	육군본부 정보국 2과 방첩과 (Count Intelligence Corps)	문용채 과장[926]	전 서울 헌병대장
1949. 10 - 1950. 3 (3차 숙군)	*군·검·경합동수사대*[927]	김창룡 문용채 오제도	숙군 합동수사대 1950년 6월 25일 4차 숙군까지 유지됨
1950. 3 - 6 (4차 숙군)	*군·검·경합동수사대*	?	
1950. 3. 13 - 1950. 10. 21	육군본부 정보국 2과 방첩과 (Count Intelligence Corps)	한웅진 (한충렬)과장	1949년 10월 SIS를 CIC로 개칭
1950. 7. - 1950. 10. 21	육군본부 정보국 2과 방첩과 (Count Intelligence Corps)	한웅진 과장	**대구 경북지역 방첩** 특무부대장으로 부임
1950. 8. 이후	육군본부 정보국 2과 방첩과 경남지부 파견대	김창룡 파견대장	**개전 직후 부산 경남지역 방첩** *군·검·경합동수사본부*[928]
1950. 10. 4 - 1951. 5. 25	*경인지구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김창룡 본부장	부역자 처리 담당
1950. 10. 21 - 1951. 5	특무부대	한웅진 부대장	
1951. 5 이후	특무부대	김창룡 부대장	합동 수사본부 종료 후 특무부대 부대장

924) 「국도신문」 (1949년 10월 15일). 특별정보대는 일반적으로 방첩대, 혹으 특무대로 불리어졌다.

925) 「서울신문」, 「경향신문」, (1949년 10월 2일, 1949년 10월 1일); 「국도신문」 (1949년 10월 15일);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34, 67; 참고인 이수봉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8일);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184. 고희두 고문치사 사건, 오규범 중령 숙군 시점, 이수봉의 공병단 정보국 소속 군인과 부평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의 업무협조와 민간인 취조 등을 참조할 때, 김창룡 보직 해임 직후 군검경합동수사대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육군 정보국 방첩과 명칭과 담당자(1948. 5. 27 - 1951. 5.)"의 각주 참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방첩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육군 정보국 특별정보대(방첩대), 육군정보국 방첩과, 특무부대로 이어지는 정식 방첩기관이 존재했다는 점과 군·검·경합동수사대, 혹은 수사본부라는 특별한 방첩기관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정식 라인에는 김안일, 김창룡, 문용채, 한웅진, 김창룡이 과장 혹은 부대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는 육군정보국 방첩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물론 그 이전과 이후에도 김창룡이 장악하고 있었다. 광주에 SIS(특별정보대)가 여순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설치한 1948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김창룡이 방첩 업무의 책임자로 있었던 것은 위의 표에도 나타나듯이 SIS 과장으로 있던 3개월과 방첩과 경남 파견대장으로 있던 2개월로 총 5개월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CIC 근무자들은 물론 일반군인들과 사찰계 형사들도 김창룡이 방첩업무를 거의 전담했다고

926) 「자유신문」 (1949년 10월 21일).

927)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34. “1949년 10월 10일 정보국 2과(방첩대) 내에 군·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동수사 및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므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1949년 10월 10일에서 1950년 2월 15일 까지 진행된 3차 숙군을 주도한 것은 바로 이 군·검·경합동수사대였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자료조회결과회신」(보존활용과-8143, 2007년 10월17), 「김창룡 장교자력표」. 김창룡은 5사단 배속(1949.10.17, 육본 특226호) 이후 육군본부에 전속되었으며(1949.10.27, 육본특 231갑호) 동일자로 공군본부에 파견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69-70. 그러나 『對共三十年史』에는 3차 숙군(1949. 10. 10 - 1950. 2. 15)을 주도한 인물이 “정보국 CIC의 김창룡 중령, 문용채 중령과 오제도 검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1950년 2월 15일까지 검거된 인원은 “군인 212명을 비롯하여 경찰관, 공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 320명 등 총 520명”이었다.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70-71. 군·검·경합동수사대는 1949년 5월 12일 성시백과 관련자를 검거하기 위해 편성되기도 했다. 이 합동수사대는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4차 숙군을 단행하여 “군인 50명과 민간인 136명 총 186명을 검거 처리하였다”; 이희영 구술녹취록(2012년 10월) 이와 관련하여 1948년 10월 SIS1기 교육을 받고 김창룡, 김안일, 이세호, 정인택, 양인석, 박평래, 송대후 등과 함께 광주에 파견되어 여순사건을 수사했던 이희영(『對共三十年史』 67쪽 참조)은 김창룡의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 방첩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928)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권3 (서울: 을유문화사, 1973), 46. 당시 치안국 소속 경감 양한모(梁漢模)는 부산군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활동을 했다. 그는 “서울이 수복되기 전에도 부산 광복동 삼일사에서 군에선 김창룡 준장, 검찰에서는 오제도 검사, 그리고 경찰에서는 내가 합동으로 정보, 수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252. 다소 불확실하지만 전사편찬위원회는 “1950년 7월 초 정부는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긴급명령 제1호를 공포하여 비상사태 아래 취한 임시조치로서 군·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결과 군에서는 김창룡 육군 준장을, 검찰에서는 오제도 부장검사를, 그리고 경찰에서는 정보수사과장 선우종원 경무관을 각각 선출함으로써 대공수사활동의 일원화”하였다고 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생각하는 이유는 김창룡이 합동수사본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첩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가 정식 방첩 조직에서 벗어나 있었을 때도 방첩업무가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의 독대와 군·검·경합동수사대 혹은 수사본부라는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은 김창룡과 정기적으로 독대를 했다. 독대는 김창룡이 방첩에 관한 업무를 직접 보고할 수 있고, 동시에 대통령이 김창룡에게 관련 사안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방첩업무의 한 형태였다. 또한 김창룡은 3차 숙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군인은 물론 다수의 민간인들을 좌익관련자로 체포, 수사, 기소, 처형 할 수 있는 군·검·경합동수사대 혹은 수사본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군은 물론 정당 및 사회단체에 대한 수사,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첩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부평 주둔 제1공병단(단장 오규범 중령) 정보 2과(방첩과)의 숙군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육군본부 제1공병단 정보 2과는 방첩과장 조남철 대위보다 1연대 정보주임인 김창룡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공병단 정보 2과 하사관 전용만(이북출신)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했다. 김창룡에 의해 제1공병단 단장 오규범 중령이 숙군대상으로 규정되자 전용만이 조남철 방첩과장을 비롯한 단원들을 1일 동안 공병단 정보국 유치장에 구금하였다. 이어 오규범은 체포되어 숙군되었고, 조남철 대위는 행방이 묘연해 졌다.[929] 이수봉의 진술에서 확인된 것처럼 김창룡은 정식 지휘체계를 넘나들었고,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체계를 갖고 있었다.

SIS 1기생인 이희영의 구술을 통해 김창룡이 숙군과정에서 독자적 조직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930] 이희영은 김안일 SIS대장과 함께 초기 숙군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김안일 과장이 초기 여순사건 수사와 숙군을 지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김안일 과장이 계획, 행정계획만 해, 그, 활동부대는 김창룡이고 그래요. … 정보국이라는 건 행정기관이지 행동부대

929) 장경순 구술녹취록 (2009년 3월 4일).

930) 이희영 구술녹취록 (2012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67. 1925년 4월 27일 생인 이희영은 평양 장대현 교회 교인으로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다. 해방 후 육사5기, SIS 1기, 여순사건 당시 김창룡, 김안일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여순사건 수사와 이후 김안일 과장과 함께 숙군 수사를 담당했다. 1961년 5·16 당시 서울방첩대장이었지만 장도영과의 친분으로 쿠데타 후 대령으로 예편되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가 아니거든요.” 라고 하면서 “김창룡 장군은, 그때는 1연대 정보주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 김안일 장군은 부하가 몇 사람 없고, 정보주임은, 부하가 많고. 그래서 무슨 감시를 한다, 잡아온다, 하는 거는 전부 그쪽에서 다 담당한 거죠. 그러다가 1연대 하지 말고 CIC 본부 맨들어가지고….” 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국 산하에 1과, 2과, 3과가. 3과가 방첩, 2과가 첩보, 1과가 행정, 이렇게. 3과 방첩과장이 김안일 과장이고, 그 밑에 1연대 있고, 그 밑에 CIC 본부, 이렇게 있는데. 본부장이 김안일 장군의 하부조직이에요.” 라고 했다. 정리하면 육군정보국 안에 1, 2. 3과가 있는데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3과장이 김안일 소령이었고, 그 밑으로 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이 특별한 단체를 조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931] 처음에는 3과가 숙군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을 따르는 인원이 많아져 이들이 숙군 대상자들을 검거 취조하고 육군정보국 3과는 행정적인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특별한 단체는 이후에 CIC본부가 되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안일을 인터뷰하여 정리한 조갑제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그(김창룡－인용자)는 1연대 정보주임이었는데 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거쳐서 하였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는 저를 거쳐서 하였습니다. 박정희등 육군사관학교 내 세포에 대한 수사를 김창룡이 한 것은 1연대가 그 학교와 가까운 태릉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932]

김안일은 “김창룡 팀”이 존재했다고 했다. 그는 김창룡이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점, 반면 행정적인 처리는 자신을 거쳐야 했다는 점, 박정희 등 육군 사관학교 세포에 대한 수사가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안일과 이희영 모두 1연대 정보주임 김창룡 팀이 숙군 수사를 담당하는 행동부대였고, 육군정보국 3과 SIS는 행정을 담당했다고 했다. 김창룡 팀은 숙군 대상자 규정 및 색출, 검거, 심문 등에 있어서 SIS 과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처리하는 행

931) 이희영 구술녹취록 (2012년 10월).
932) 조갑제, “金昌龍이 살리자고 했다: 朴正熙 수사책임자 金安一 당시 특무과장,” 「월간조선」1989년 12월호, 33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정적인 절차는 과장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는 것이다.

김안일에 의하면 김창룡 팀, 이희영에 의하면 김창룡의 행동대원이 존재했고 이들이 수사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희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문 그런데 우리가 숙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김창룡 1연대, 뭐, 그때는 어떻게 되죠? 계급이, 뭐, 대원가, 소령인가 이랬는데. 그 분이 다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지휘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조직상으로는. 그런데 이, 김창룡 장군이 하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독립하고 나온 거지. 특무부대가. 예.
질문 그런데 그건 자기가 독립한다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 물론이죠, 다. 이승만 박사가 다.
질문 인정을 해주신 거죠?
답변 아, 그럼요!
질문 그러면 숙군 자체도 사실은, 어, 이승만 박사한테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답변 예, 예.

초기 여순사건과 숙군 수사는 김안일의 지휘 하에 있었지만 곧 김창룡이 실질적인 지휘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감창룡의 활동을 보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방첩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정식 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김창룡과 이승만 대통령 간의 독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독대를 통한 김창룡의 직접보고와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김창룡이 육군 정보국 SIS 과장[933]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보직 없이 육군본부에 전속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희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문 이 분이 인제, CIC 과장한테도 보고를 하지만, 정보국에 보고를 하지만, 이 분이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도 있겠군요.
답변 뭐, 어느 기엔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 이제. 전쟁 전에 머 하지만은 대

933) 육군정보국 3과 SIS(특별정보대)는 1949년 10월 유군정보국 2과 CIC로 개칭된다. 육군 정보국 2과, 즉 방첩과라고 하지만 CIC를 번역하면 방첩대이기 때문에 구술자들은 방첩과, 방첩대, 2과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통령 만나러 가자, 해서 또 우리 다 따라가고 다 그랬어요. 전쟁 전에.
질문 김창룡 장군이, 그때는 중령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이, 대통령 만나러 가자, 우리 CIC들, 그러면 몇 분이?
답변 장교들 다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다 그랬어요. 사변 전에.
질문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에 대해서는 최고?
답변 제일 믿는 것이 김창룡이야.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 반대 세력,
질문 아, 전쟁 전에?
답변 전쟁 전에. 반대세력도 김창룡 장군이 또, 다 견제를 해줬고.[934]

김창룡이 낮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방첩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방첩업무에 관한한 김창룡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독대를 허락해 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동아일보사가 1975년 발행한 『비화제1공화국』을 인용하면서 "이승만은 1949년 10월 신성모와 함께 경무대를 찾은 김창룡에게 다음부터 그가 경무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 하면서부터 독대가 이어졌다고 했다.[935] 그런데 1949년 10월은 같은 해 9월 27일에 발생한 고희두 고문치사 사건으로 김창룡이 보직해임 상황에 처해있었던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거의 공개적으로 김창룡과 독대를 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수세에 몰린 김창룡을 대통령이 적극 지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방첩업무에 관한한 김창룡을 신임한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CIC에서 보직 해임된 김창룡은 어떻게 방첩업무를 이어 나갔을까? 그는 자신의 후임 방첩과장이 된 문용채 중

934) 이희영 구술녹취록 (2012년 10월).
935) 동아일보사, 『비화제1공화국』제4부 (서울: 홍자출판사, 1975년), 187-188;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197. 한편 연세대학교 이승만 대통령 자료실, 「이승만 대통령 기록 file 8」에서 김창룡이 1951년 1월 28일부터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그해 5월까지 경무대를 찾은 공식 약속일지를 확인한 진실화해위원회는 1951년 1월 이후에도 독대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중요 참고인 김안일 · 장경순 조사내용 추가보고」(조사5팀-272, 2009년 3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 좌익활동을 알고자 하면 김창룡을 불러서 물어 보았고, 김창룡은 "지금 빨갱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승만은 "임자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한다. 독대는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지시가 이루진 방첩업무의 한 형태이지만 비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령과 검사 오제도와 함께 1949년 10월 군·검·경합동수사대를 조직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김창룡의 독대는 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IS 1기생인 강응섭은 1949년 10월 이전부터 독대가 있었다고 했다.

> 답변 하긴 벌써 김안일, 뭐이가, 백선엽 장군이 (대통령에게-인용자) 벌써 가설랑 보고하면 다 알고 있어, 헤헤헤.
> 질문 예?
> 답변 다 알고 있다 그래, 자기도.
> 질문 아, 이승만 대통령이 다 알고 있다?
> 답변 그렇지.
> 질문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 답변 그렇지. 나는 알고 있다, 그거야. 김창룡이가 보고했으니까. 나도 알고 있다, 그 말이야.
> 질문 김창룡은 그때, 1연대 정보과장이었잖아요.
> 답변 그때는 정보과장(1연대 -인용자)을 하지 않고 육군본부로 올라왔디.[936]

김창룡은 육군정보국장 백선엽과, SIS 과장 김안일에게도 보고를 했지만, 대통령에게 직접보고를 하였다. 해서 백선엽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김안일이 SIS 과장으로 복무한 것은 1949년 7월까지 이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김창룡이 과장으로 있었다. 그러므로 진실화해위원회의 독대에 대한 시기 특정은 그 이전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1공병단 정보3과 하사관 이수봉, SIS 1기생 이희영과 강응섭, 정보국장 백선엽, SIS 과장 김안일의 구술을 통해 SIS 정식 라인이 존재 했지만 김창룡은 이 지휘라인을 초월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응섭과 이희영은 대통령이 김창룡의 방첩활동을 독자적 영역으로 보장했고, 이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한 직접보고와 직접지시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그러던 중 김창룡은 1949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SIS 과장

936) 강응섭 구술녹취록 (2012년 10월 17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으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1949년 9월 29일 동대문 민보단 단장 고희두 고문 치사 사건[937]으로 SIS 과장에서 보직해임 되어 10월 17일 5사단으로 전속되었다가 육군본부로 전속되어 공군에 파견되어 있었다.[938] 그가 보직 해임되자 육군정보국 3과 SIS는 육군정보국 2과 CIC (방첩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보직 해임과 동시에 김창룡은 자신의 후임인 방첩과 과장 문용채 중령, 오제도 검사와 함께 군·검·경합동수사대를 조직하였다. 『對共三十年史』는 "1949년 10월 10일 정보국 2과(방첩대) 내에 군·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동수사 및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므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939]라고 하였다. 그리고 1949년 10월 10일에서 1950년 2월 15일까지 진행된 3차 숙군을 주도한 것은 바로 이 군·검·경합동수사대였다. 그런데 『對共三十年史』에는 3차 숙군을 주도한 인물이 "정보국 CIC의 김창룡 중령, 문용채 중령과 오제도 검사"라고 기록하고 있다.[940] 3차 숙군 기간동안에 검거된 인원은 "군인 212명을 비롯하여 경찰관, 공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 320명 등 총 520명"이었다.[941]

군·검·경합동수사대는 1949년 5월 12일 성시백과 관련자를 검거하기 위해 편성되기도 했다. 이 합동수사대는 1949년 2월경부터 내사를 하던 중 1949년 5월 5일 성시백의 비밀 비서 겸 부책임자인 김명용을 창신동 자택에서 체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조직되었고, 1950년 1월 5일 성시백을 검거했다.[942] 합동수사대는 이를 토대로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4차 숙군을 단행하여 "군인 50명과 민간인 136명, 총 186명을 검거 처리하였다"[943] 이 합동수사대는 1950년 4월 5일 김수임을 체포하기도 했다.[944] 즉 성시백 관련자를 내사했던 군·검·경합동수사대는 1949년 2월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1차 숙군 당시 군경합동수사대가 오규범을 검거·수사했다는 이

937) 「서울신문」, 「경향신문」 (1949년 10월 2일, 10월 1일).
938)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자료조회결과회신」(보존활용과-8143, 2007년 10월17), 「김창룡 장교자력표」.
939)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34.
940) Ibid., 69-70.
941) Ibid., 69-70.
942) 「산업신문」 (1950년 5월 26, 27일).
943)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70-71.
944) Ibid., 57; 「연합신문」 (1950년 6월 14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수봉에 따르면 이 수사대는 초기 숙군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3, 4기 숙군에는 1, 2기 숙군에 비해 매우 많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2차 숙군 기간인 1949년 5월부터 9월까지 검거·처리된 민간인은 30이었고, 군인은 215명이었다.[945] 그러나 3기에는 군인 212명인데 비해 민간인 320명, 4기에는 군인 50명인데 비해 민간인 136명으로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많았다. 김창룡이 장악하고 있는 합동수대는 이때부터 민간인과 좌익관련자에 대한 검거와 처리를 담당하했던 것이다. 최소 1949년 10월 이전부터 숙군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검거,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다. 즉 민간인을 체포·수사할 수 있는 검찰, 경찰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합동수사대를 조직한 것이다. 따라서 김창룡은 합동수사대을 통해 군인 뿐 만이 아니라 국내의 정당, 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시민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창룡이 SIS 과장(1949. 7. 14. - 10. 16.)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물론 그 이전과 보직 없이 육군본부에 배속되었을 때도 군·검·경합동수사대는 김창룡의 방첩활동의 근거지였다. 그는 개전 직후인 1950년 8월 초 CIC 경남 파견대장으로 복귀하였을 때도 합동수사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946] 반면에 대구 경북지역은 육군정보국 방첩과장 한충렬과 방첩과 간부들이 관할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영토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만 남아 있었고, 이 두 지역의 방첩업무를 한충렬로 대표되는 육군정보국 방첩과와 김창룡으로 대표되는 방첩과 경남파견대가 관할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0년 10월 21일 방첩과가 육군정보국에서 독립하여 특무부대로 조직되었다. 초대 특무부대 대장은 육군정보국 방첩과장이었던 한충렬이었고, 그는 1951년 5월까지 특무부대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한편 서울이 수복되자 김창룡을 본부장으로 하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50년 10월 4일 서울 국일관에 설치되었다. 이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는 1951년 5월 김창룡은 특무부대 대장으로 부임하였다.[947]

---

945) Ibid., 69.
946)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권3 (서울: 을유문화사, 1973), 46.
947) 국군보안사령부, 「초기 한국CIC의 역사」, 『管區歷史』(80-12); 「한웅진 자력」, 「김창룡 자력」 참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김창룡과 한충렬의 관계는 경쟁과 갈등관계였다. 육사 2기인 한충렬과 육사 3기인 김창룡 간의 갈등으로 한충렬과 친분이 있는 장경순은 김창룡이 특무부대장으로 부임하자 보직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김창룡과 충돌하였다고 했다.[948]

5. 개전초기 민간인희생 사건과 CIC의 활동

1) 정보국의 수원회의

1950년 개전 직후 육군 정보국은 시흥에서 정보상황실을 설치했다가, 수원으로 후퇴하였고, 다시 대전에서 대구로 후퇴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육군정보국 국장 장도영은 6월 28일경 수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 그러니까 6월 28일날, 다 수원으로 몰려 내려왔지. 장도영이가 있을 땐데, 그 때 육군지시가 뭐라고 했냐하면, '정보국 1과, 2과, 3과장은 다 집합' 하더니, 상공부 자리 그게 옛날 육군병원 자리거든. 그리로 집합시켰다고. 집합을 시켜놓고 나서, 정보국 3과, 5과 요원은 김창룡 중령이 지휘해서 '내려가면서 잔비(殘匪)소탕을 하고, 숨어있는 보도연맹원이나 후방을 교란시키는 적색분자를 색출하라.' 이런 특명이 떨어졌지.[949]

오상근은 지시사항, 날짜, 장소, 처리대상, 지휘명령체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의 진술을 통해, 군이 개전 초기인 1950년 6월 말부터 일사불란하게 보도연맹원과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지침과 지휘명령체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보국장 장도영이 정보국 1과, 2과, 3과장을 집합시켜 놓고 윗선에서 내려온 업무지시를 행정과, 방첩과, 첩보과에 하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지시가 정상적인 지휘명령계통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그의 진술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보도연

948) 장경순 구술녹취 (2009년 3월 4일).
949)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Ⅰ, 229, 26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처리하는 주무 부서인 2과 방첩과 과장(한웅진)이 참석하였다. 이는 장도영이 방첩과에도 업무지시를 하달했다는 것을 뜻한다.

장도영 정보국장은 방첩과는 물론 첩보과와 행정과를 장악하고 이를 지휘 통솔하고 있었고, 통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보직 없이 육군에 소속되어 있는 김창룡에게도 업무 지시를 하달한 장본인이었다. 이도영 박사는 2001년 장도영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 당시 '집단학살 사건'을 들고 나오자 그는 시종일관 "모른다"고 했다고 했다. " '김창룡이가 다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우리 민족에게 없었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얼버무렸다."고 했다. 또한 당시 육군정보국 전투정보과 중위이었던 김종필은 2000년 1월 24일 이도영과의 면담에서 "육군본부 정보국에 있었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학살 사건)은 모두 김창룡이가 했다"고 했다. 이도영은 이후 "죽은 김창룡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다인가?"라고 했다.[950]

1949년 10월 이후 보직 없이 활동하던 상황에서, 김창룡이라는 한 개인이 순식간에 방첩과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군다나 방첩과장은 김창룡 보다 1기 선배인 육사2기 한웅진으로 김창룡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의 글에서 최소한 대구·경북지역의 방첩활동을 지휘한 것은 육군정보국 방첩과이었고, 방첩과가 이 지역 민간인학살의 지휘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도영과 김종필이 김창룡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이도영 박사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특히 정보국장 장도영이 수원에서 잔비와 보도연맹원 등 적색분자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고 이중 일부의 임무를 김창룡에게 맡겼기 때문에 김창룡은 전쟁 중 공식적으로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다. 따라서 민간인학살에 대한 책임을 김창룡 개인의 방첩업무의 뛰어남, 혹은 사악함으로 보는 견해는 책임 떠넘기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김창룡의 개인적 능력과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분명 적색분자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또한 이를 최고위층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8월 28일 경남지구계엄사령관으로

950) 「월간말」 2001년 9월호 (2001), 182-18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부임한 김종원 대령(헌병사령부 부사령관)은 29일 경남지구 CIC로 “조사기관을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951] 이 조사기관에는 검경은 물론 법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경남지구 CIC 파견대가 군·검·경합동수사대를 지휘한다는 의미이다. 즉 경찰의 영역인 민간인 검거 및 조사, 검찰의 영역인 민간인 수사와 기소, 법원의 영역인 민간인 재판을 지휘·통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경남지구 CIC 파견대장 김창룡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창룡 경남지구 CIC 파견대장은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을 검거, 수사, 분류, 처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따라서 개전 직후 육군정보국과 그 예하부대인 방첩과 그리고 김창룡이 대장으로 주둔하고 있던 육군정보국 방첩과 경남지구 CIC를 각각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구를 책임지고 있었던 방첩과와 부산·경남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경남지구 CIC의 활동과 그들의 정책지침과 지시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지침과 지시에 나타난 논리와 이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이념이 기독교일부 세력과 어떻게 연동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자 한다.

민간인학살의 지휘명령체계, 그들의 정책지침, 그리고 그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개전 직후 가장 빨리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중 CIC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주, 공주, 대전 등 충청도 지역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와 형무소 재소자희생 사건을 파악하려 한다.

2) 청주지역 형무소 재소자와 좌익관련자 처형 사건

감리교 초기 목사이면서 하와이 전도사였던 홍승하 목사의 장손인 홍가륵(洪加勒)[952]은 1948년경 부친 홍형준 목사가 재직하던 진천감리교회에서

951) 「민주신보」 (1950년 8월 30일).

952) 미군정청보건후생부, “수의사등록증” 243호(1946년 10월 19일). 홍가륵(洪加勒)은 의열단(김원봉)에서 활동하였지만, 대대로 내려온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해방 직후 진천 군청 수의사로 취직한다. 그의 아버지 홍형준과 할아버지 홍승하가 목사였지만 일제는 물론 친일파에 대해 비판적이었기에 해방 직후까지 끼니를 잇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수의사 등록증에 기록된 주소지는 진천군 진천면 읍내리 87번지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경찰에게 체포되어 1949년 4월 1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요, 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언도받고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50년 개전 직후 청원군 낭성면서 청주형무소 재소자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당시 청주경찰서 사찰계 형사 김동수는 낭성면에서 청주 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처형되었다고 했다.[953] 진실화해위원회는 “홍가륵은 일제강점기에 배재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김구를 보좌하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2기로 졸업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김구 관련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관련 사람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진천 감리교회에서 체포되었다고 했다.[954]

진실화해위원회는 “청주형무소에서는 1950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1,200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충북지구 CIC, 제16연대 헌병대, 청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절

진천감리교회 주소지(진천감리교회 연혁)와 일치하였다. 1949년 수형자 명부에도 그의 주소지는 진천군 진천면 읍내리로 되어 있다. 그는 여운형 계열로 근로인민당 출신이며, 진천의 대표적인 중간파 인사였다. 동생의 처는 홍가륵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검정색 표지의 신약성서를 상의 속옷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읽었다고 한다.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도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한다.

953) 김동수 면담보고 (2009년 5월 26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3에서 재인용.

954) 홍우영 구술녹취 (2009년 6월 2일); 이길수 구술녹취 (2010년 6월 2일); 청주지방검찰청, 『수형인명부』 (1949):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2-243에서 재인용; 「조선중앙일보」 (1935년 2월 16일). 조선중앙일보는 홍가륵이 의열단(단장 김원봉) 단원으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1935년 2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홍가륵신문조서,” 「경찰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31권: 의열단투쟁사 4』 (1934년 11월 14일), “홍가륵신문조서(3),” 「경찰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31권: 의열단투쟁사 4』 (1934년 11월 19일). “홍가륵신문조서”와 “홍가륵신문조서(3)”에 따르면, 그는 조부 홍승하 목사와 부친 홍형준 목사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일제 말기에 홍가륵의 동생 홍성달과 결혼한 이길수는 홍가륵이 전쟁 전부터 교회 사택에 거주하면서 진천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진천군사편찬위원회, 『진천군지』 (상산인쇄사, 1974년), 238-240. 홍가륵은 여운형 계열이었고, 남로당계는 충북감찰위원장을 지낸 박용출이었다. 홍가륵의 이름은 홍가근, 혹은 홍가록 등으로 오기되기도 했다; 박만순 외, 『기억여행 탑현리에서 노동리까지』 (예당출판사, 2006년) 25. 해방 후 홍가륵은 진천군청 소속 수의사로 활동했지만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인해 사직했다. 당시 진천군의 우익단체로는 ‘독립촉성국민회(진천)군지부’(김봉식, 박한영, 노달선)와 ‘민족청년단 본 진천군단’이 있었는데 이후 대동청년단으로 통합되었다. 좌익계열의 단체로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계열과 조선공산당 계열의 단체가 존재했었다. 1945년 11월 20일 제1차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에 회원으로 참석한 바 있는 홍가륵은 1946년 9월 27일 진천군 이월면의 이월초등학교에서는 신탁통치 근로자 지지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회는 국민회를 비롯한 우익단체와의 폭력사태로 번졌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차 없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 남일면 화당교, 남일면 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다.”고 했다.[955]

개전 당시 청주 경찰서 사찰계 형사 유제경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28일경 내무부 치안국에서 충북경찰국에서 보도연맹원을 소집하라는 명령이 청주경찰서로 내려왔고, 청주경찰서에서는 각 지서로 지시를 내려 보도연맹원을 소집”했으며 “총살집행은 청주경찰서의 기동대가 중심으로 했고 지서 경찰이 동원”되었다고 했다.[956] 충청북도 경찰국 경무과 소속 윤태훈은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충북경찰국 사찰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과 지시 방법은 ‘전문’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957] 괴산 경찰서 통신계 소속 경찰 연각희는 “치안국과 각 시도경찰국이 무선으로 명령과 보고를 주고받고, 시도경찰국은 경찰서와 무선으로 주고받았”다고 했다.[958] 청주경찰서 사찰계 형사였던 김동수도 개전 직후 “내무부 치안국에서 충북경찰국에 보도연맹원 소집 및 사살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였다.[959] 이상의 진술을 통해 개전 직후 내무부 치안국은 경찰의 관할 하에 있었던 보도연맹원 처형 지시를 전문을 통해 도 경찰국에 하달했고, 도 경찰국은 관할 경찰서에 이를 지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제경은 개전 직후 청주경찰서에 헌병이 있었지만, “CIC 요원 2~3명이 청주경찰서에 파견”되었고, CIC 지휘 하에 청주경찰서 경찰들이 보도연맹원과 청주형무소 재소자들을 미원과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등지에서 총살했다고 했다. 청주 CIC 사무실은 청주 시내 청주약국 건너편에 있었고, 개전 후에는 CIC 대원들이 충북경찰국과 청주경찰서에 상주했다고 했다.[960] 윤태훈은 CIC 청주지부가 한국전쟁 전부터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CIC 청주

955)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
956) 유제경 진술녹취 (2009년 5월 26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2-243에서 재인용.
957) 충북 경찰국경무과 윤태훈 진술녹취 (2009년 5월 27일): 진실화해위원회,「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3-244에서 재인용.
958) 괴산 경찰서 통신계 연각희 진술청취(2009년 5월 28일): 진실화해위원회,「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4에서 재인용.
959) 청주경찰서 사찰계 김동수 면담보고 (2009년 5월 26일): 진실화해위원회,「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3에서 재인용.
960) 청주경찰서 사찰계 김동수 면담보고 (2009년 5월 26일): 진실화해위원회,「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3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지부장은 보은군 회남면 출신의 양인석(당시 소령 혹은 중령)[961]이었고, CIC 청주지부에는 군인과 문관들이 몇 십 명" 있었다고 했다. 개전 직후 CIC가 처형될 자의 명단을 추려냈다고 했다.[962] 청주형무소 계호과 윤덕수·서무과 송무웅·경리계 김성회·계호과 유동권 등은 CIC가 보도연맹원과 형무소재소자 처형을 지휘했다고 했다.[963] 충청북도지구 CIC파견대는 청주 형무소 재소자와 충청북도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를 조사, 준류, 처형을 지휘했다. 당시 충북지구 CIC 파견대장은 양인석인데 그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비상근무를 시작한 1950년 6월 28일 포고령 2호 위반으로 복역했다가, 전날 만기출소한 사람들이 사찰계 형사에 의해 다시 수감되었고, 6월 29일 밤 10시경 충청남북도 위수사령관인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이 제2사단 정보참모 빈철현 중령과 헌병을 대동하고 청주형무소를 방문하였다. 이후 충북지구 CIC와 제16연대헌병대가 청주형무소를 왕래하였고, 충북지구 CIC가 청주형무소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즉, 군이 좌익 및 보도연맹원의 예비검속과 형무소 재소자와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의 총살을 명령한 것이

961)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73.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개전 전후 충청북도지구 파견대 방첩대장이 양인석 소령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군보안사령부의 『軍司·軍團 특무부대 역사』에는 충북지구CIC 대장 이동상황으로 양인석 대위(1949.8.1~1950.3.26), 유민일 대위(1950.3.27~1950.6.27), 장준식 대위(1950.6.27~1951.115)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의 자력표를 확인해 본 결과, 양인석 소령은 제2사단 파견(1950.5.15~1950.7.30), 유민일 대위는 제2사단 파견(1950.5.15~1950.7.2), 그리고 장준식 대위는 제17연대 파견(1950.5.15~1950.6.15), 육군본부 원대복귀(1950.6.15~1950.10.15)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충북경찰국 경찰 윤태훈은 같은 보은군 출신인 양인석 소령이 충북지구CIC 대장으로 증언하였다. 이에 한국전쟁 발발 당시 충북지구CIC 대장은 양인석 소령으로 판단된다. 국군보안사령부, 『軍司·軍團 특무부대 역사』, 705;「양인석 자력표」; 「유민일 자력표」; 「장준식 자력표」,「자력표 등 송부(진실화해위원회, 문상흔 등 23명)」(병적관리과-314, 2009.1.12.), 「자력표 추가 송부(진실화해위원회, 김충양 등 10명)」(병적관리과-617, 2009.1.20.), 「한국전쟁 중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지휘관 등 인사자력표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병적관리과-2456, 2009.3.13.), 「기록물 조회 결과 회신(진실위(27)-양인석)」(보존활용과-5536, 2009.6.17.); 참고인 윤태훈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27일)

962) 참고인 윤태훈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27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3-244에서 재인용.

963) 윤덕수 진술녹취 (2009년 2월 25일); 송무웅 진술녹취 (2009년 3월 12일); 김성회 면담보고 (2009년 5월 26일); 유동권 면담보고 (2009년 5월 28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36-239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964]

964) Ibid., 74-75.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주장에 의해 위 사실을 확인했다. 위수사령관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390-39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권 (1984), 263쪽 참조. 육군본부는 군의 군기유지를 위해 1949년 8월 20일에 각 지구에 위수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위수사령부는 주둔 지역 안에서의 모든 부대를 통합지휘하고 장병들의 군기확립, 대인 안전보호의 책임을 지고, 유사시에는 일반 행정의 지휘권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충청남북도에도 1949년 8월 20일 제2사단지구 위수사령부(사령관 제2사단장)가 설치되었다. 이후 1950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96호로 위수령이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위수사령부가 제도화되었다.

이형근 준장에 대해서는 홍두표, 『나의 여운』 (새틀, 2006), 112-113쪽, 참고인 홍두표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14일);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개정판 (1977), 587~590쪽;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3권, (2006). 261-262쪽; 이형근, 『군번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993, 50~64쪽 참조하였음. 당시 청주형무소 형무관 홍두표는 그의 회고록 『나의 여운』에서 1950년 6월 29일 정문에서 근무 중 차량번호판에 별 하나 단 검정 색 세단 차에 충북지구 계엄사령관이 중령과 헌병을 대동하고 방문하였다고 했고, 참고인 조사에서 홍두표는 충북지구 계엄사령관이 사단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충북지구 계엄사령관은 없었고, 충청지구 위수사령관은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이었다. 이형근 준장과 제2사단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의정부 전선에 투입되었으나, 이형근 준장은 6월 26일 채병덕 참모총장에 의해 면직되어 전선에서의 제2사단에 대한 지휘를 제7사단장에게 넘기게 되었고, 7월 8일 전남편성관구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다. 한편, 이형근 준장은 자신의 회고록 『군번1번의 외길 인생』에서 전남편성관구사령부 참모장이 되기 전 이천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을 명령 받았다가 충주, 청주를 지나 대전으로 철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에 당시 청주형무소를 방문한 준장은 이형근으로 판단된다.

빈철현에 대해서는 국군 보안사령부, 『管區歷史』(80-12);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Ⅰ, 264; 홍두표, 『나의 여운』, (새틀, 2006), 112~113쪽을 참조하였음. 빈철현 중령은 CIC의 전신인 SIS 학교 1기 출신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제2사단 정보참모로 전속되었다. 이에 당시 청주형무소를 방문한 중령은 제2사단 정보참모 빈철현 중령으로 판단된다.

이형근 준장이 빈철현과 청주형무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홍두표, 『나의 여운』, 112~113쪽과 참고인 홍두표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14일)을 참조하였음. 6월 30일부터 군에 의해 재소자들이 끌려 나가 총살을 당했다. 이에 충청남북도 위수사령관인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이 제2사단 정보참모 빈철현 중령은 청주형무소를 방문하여 재소자의 총살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충북지구 CIC가 청부형무소를 오가며 실질적인 지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인 윤덕수 진술녹취록 (2009년 2월 25일), 참고인 송무웅 진술녹취록 (2009년 3월 12일), 참고인 김성회 면담보고서 (2009년 5월 26일)을 참조하였음. 청주에서는 경찰과 군, 각 단위별로 좌익과 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과 처리에 대한 명령이 내려왔지만, 충북지구CIC가 충북도경찰국과 청주경찰서에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경찰에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즉, 한국전쟁 전부터 충북지구CIC가 주축이 되어 군경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합동수사를 했던 실질적인 군경합동수사본부가 좌익 및 보도연맹원 등의 예비검속을 하였다. 참고인 유제경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26일); 참고인 김동수 면담보고서 (2009년 5월 26일); 참고인 박석규 진술조서 (2006년 10월26), 박석규는 청원보도연맹사건 신청인으로 형 박원교가 보도연맹원으로 희생되었다. 박석규는 한국전쟁 발발 전 충북지구CIC에서 학원관계 임시정보원으로 1년 정도 일하였다.

참고인 김동수 면담보고서 (2009년 5월 26일)을 참조하여 육군본부 총참모장 채병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청주 및 충북지역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와 형무소 재소자 처형에 관한 짧은 기록은 많은 사실을 응축하고 있다. 특히 2사단 파견 방첩대장 빈철현과 충청북도지구 CIC 파견대를 특정하여 청주형무소 재소자 처형을 지휘했다고 했다. 이는 개전 초기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와 형무소 재소자 처형 지휘권이 개전 직후인 6월 말부터 내무부 치안국에서 군으로, 특히 육군정보국 방첩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2사단 방첩대와 육군정보국 소속 충청북도지구 CIC 파견대가 청주형무소 재소자 처형을 지휘했다는 것은 육군정보국 → 방첩과(CIC) → 충청북도지구 CIC 파견대 · 2사단 CIC로 이어지는 정식 지휘라인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2사단 CIC와 충청북도지구 CIC 파견대의 지휘 하에 경찰과 헌병이 청주 형무소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처형하였던 것이다.

3) 공주 · 대전 지역 형무소 재소자와 좌익관련자처형 사건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7월 9일경 공주형무소에 구금된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400명이 공주 왕촌 살구쟁이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고 했다.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김윤선 외 44명이다. 가해자는 충청남도지구 CIC 파견대 공주 분견대, 공주파견 헌병대, 공주지역 경찰 등으로 확인되었다.[965]

공주 경찰서 신풍 지서 소속이었던 김복동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CIC가 공주에 주둔”해 있었다고 했다. 공주경찰서 사찰계 형사 홍문기는 “CIC가 한국전쟁 전부터 대전에서 공주에 파견되었고, 전쟁 발발 후 대전에서 헌병대가 파견되어 CIC와 헌병의 주도하에 군경합동으로 5열을 검거”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 공주의 좌익과 보도연맹원을 전부 예비검속”했다고 했다. 공주경찰서 사찰계 형사 한석호는 “공주에는 한국전쟁 전부터 CIC가 주둔해 있었”다고 하면서 개전 직후 공주경찰서가 보도연맹원 등 100명 정도

덕이 보도연맹원 총살을 명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65) 진실화해위원회, 「대전 · 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를 예비검속하여 공주형무소에 구금했다고 한다. 이후 "CIC의 지휘 하에 공주형무소의 좌익사범과 공주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총살"했다고 했다.[966] 이상의 진술을 통해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들과 공주형무소 재소자 수백 명은 1950년 7월 9일경 공주 살구쟁이 등지에서 공주 CIC 분견대가 지휘하는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전형무소에서는 1950년 6월 28일경부터 7월 17일 새벽사이 최소 1,800여명 이상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고순현 외 266명이며, 희생 추정자는 강원철 외 18명"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충남지구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 살해되었다."고 했다.[967] 당시 이들의 처형을 집행한 것은 헌병대이었다.

대전형무소 사건은 지휘명령체계가 치안국에서 경찰로, 다시 CIC로 이전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대전형무소 계호과 이병식은 대전형무소가 1950년 7월 1일부로 형무관들의 해산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이 후퇴하였다고 했다. 이 명령은 6월 30일 결정되었고, 특별경비대가 뒤처리를 했다고 했다.[968] 같은 과에 근무한 박용범도 7월 1일부로 해산명령이 떨어졌고, 특별경비대를 제외한 자신과 대부분의 형무관들은 해산했으며, 같은 날 헌병이 형무소 외곽경비를 했다고 했다.[969] 특별경비대 윤근용은 7월 1일 옹진부대(17연대) 군인과 함께 외곽경비를 했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일반사범 중 경범자들을 석방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전형무소에 구금된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들은 언제부터 처형되기 시작한 것인가? 그것은 해산명령이 내려진 시기와 헌병대가 경비를 맡기 시작한 7월 1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대전 형무소 특별경비대[970] 부대

966) 김복동 진술녹취록 (2009년 4월 16일); 신관철 진술녹취(2009년 5월 14일); 한석호 진술녹취록 (2009년 7월 10일); 홍문기 면담보고(2009년 7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2-243.

967)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 이것은 3일 동안 1,800명이 희생되었다는 미군 보고서에 의거한 것이다. 최소 10일 동안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곳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최소 4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968) 대전형무소 계호과 이병식 진술녹취 (2009년 2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34-235에서 재인용.

969) 대전형무소 계호과 박용범 진술녹취(2009년 5월 28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35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장 이준영은 7월 1일 새벽, 대전지검 검사장이 "좌익을 처단하라"는 전문을 당시 대전형무소 당직주임 간수장 이계동에게 하달했다고 했다. 이어 헌병대가 여순사건 관련자 포함한 좌익수, 보도연맹원, 10년형 이상 일반사범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한다.[971] 미25사단 CIC파견대는 1950년 7월 1일 한국경찰은 상부의 명령으로 대전과 그 근방에서 과거의 공산당 가입과 활동 때문에 체포되었던 1,400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했다.[972] 이상의 진술과 자료에 근거해 집단학살이 시작된 시점이 7월 1일라는 것이 확인되었다.[973]

그렇다면 얼마동안 몇 명의 민간인들이 누구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는가? 이에 대해 서대전 지서 소속 경찰 조기병은 자신이 1950년 7월초,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세 번 산내 총살현장에 동원되었다고 했다.[974] 대전형무소 계호과 이병식은 수용인원이 한계에 달하자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지 않고 곧바로 산내면으로 이송되어 처형했다고 했다.[975] 이준영에 의하면, 여순사건 관련자 특별사에 별도로 수감되었고, 좌익수들도 별도로 수감되어 있었다. 보도연맹원을 수용하기 전 대전형무소 수용인원은 2,700~2,800명이었으나, 보도연맹원을 수용하자 수용인원이 3,6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희생자들은 좌익사범은 물론 10년 이상의 일반 재소자 그리고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이다.[976] 이와 관련하여 1950년 9월 23일

970)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는 대전 근교의 신탄진과 가수원지서 습격사건 발생 이후, 1949년 10월 31일 형무소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 대전형무소 계호과 소속 형무관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특별경비대 대장은 조대선, 분대장은 이준영, 김익수로, 1950년 7월 1일 새벽에는 이준영 분대장이 특별경비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법무부, 『한국 교정사』 (1987), 448; 참고인 이준영 진술녹취록 (2009년 1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33에서 재인용.

971) 대전 형무소 특별 경비대 부대장 이준영 진술녹취(2009년 1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33에서 재인용.

972) RG338 Box3578RARMY-AG RPTS49-54 25ID SPTING DOCS 1-11 OCT 50 BK2, 25사단CIC파견대, 1950. 11. 2. [NoGunRi File No. 9123-00—00289].

973)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과 보도연맹 등 좌익관련자들이 청주에 비해 일찍 처형된 것은 정부 입장에서 여순사건 등 중범에 해당되는 좌익관련 기결수와 보도연맹원 중 각 지역에서 이송되어 온 핵심 보도연맹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974) 조기병 진술녹취 (2009년 4월 15일, 2009년 4월 30일).

975) 이병식 진술녹취 (2009년 2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34-235에서 재인용.

976) 이준영 진술녹취(2009년 1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소속 육군무관 에드워드 중령이 미 육군 정보부에 보낸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1950년 7월 첫째 주 3일 동안 1,800여명의 대전의 정치범들(political prisoners)이 처형되었다”고 했다.[977] 이것은 가장 확실한 최소 희생규모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느 기관이 처형을 지휘했는가? 재소자 인도 요구를 한 부대는 헌병사령관 송요찬 지휘 하에 있던 제2사단 헌병대와 제5연대 헌병대이었다.[978] 1950년 7월 2일경 제2사단 헌병대 제4과장 심용현 중위는 당시 대전형무소 이순일 소장 대리에게 “좌익수들, 즉 포고령, 국방경비법 위반 등 주로 여순반란사건, 그리고 간첩죄, 보도연맹원, 그리고 10년 이상 강력범을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979] 즉 헌병대의 지휘 하에 처형이 집행 된 것이다.

한편 대전 지역에서 CIC의 활동은 일부분만 확인되었다. 당시 충남 경찰국 수사과 정찬웅은 전쟁 전 CIC 사무실은 현 중구청 옆에 있었다고 했다. 대전 경찰서 경찰 강윤식도 근무 중 CIC와 업무협조를 하였고, 사무실이 대전시 중동에 있었다고 했다. 대전 경찰서 경비계 경찰 황규옥은 CIC 문관 곽용석과 대전경찰서 사찰과 형사 심의섭이 기억난다고 했다. 서대전 지서 소속 경찰 조기병은 당시 CIC는 현 중구청 건너편 보건지소인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었다고 했다. 특히 CIC, 헌병, 사찰계 형사가 보도연맹원들을 검거했다고 했다. 충남 경찰국 사찰과 내근 형사 서재성은 사찰과 1계는 보도연맹원 명단 등 관리와 교육 담당, 3계(대공분실)는 좌익사범 검거를 담당했다고 했다. 3계가 좌익을 검거, 1계가 조사, 3계가 CIC와 업무 협조를 했다고 하면서 CIC 대원이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었다고 했다. 개전 전부터 CIC 사무실이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었고, 개전 후 사찰과에서 좌익혐의자를 검거하면 CIC가 이들

소자희생사건」, 233에서 재인용.

977)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Report no. R-189-50, Records of the Army Staff G-2 ID File, Box 4622, RG 319, NARA.

978) 참고인 조기병 진술녹취록 (2009년 4월 15일, 2009년 4월 30일); 참고인 서재성 진술녹취록 (2009년 4월 15일, 4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0-241에서 재인용;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대건출판사, 1952), 19.

979) 참고인 이준영 진술녹취록 (2009년 1월 30일):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33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을 취조·고문하여 분류하고, 생사여부를 결정했다고 했다.[980] 즉 CIC는 보도연맹원 분류를 지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CIC가 대전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처형 전반을 지휘하였는지, 즉 재소자와 좌익관련자를 헌병대에 인도하라고 지시한 것이 CIC이었는지에 관한 진술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은 청주에 비해 후방에 위치해 있지만, 청주보다 일찍 처형결정과 집행이 시작되었다. 또한 지휘명령 라인도 복잡했다. 앞에서 이준영의 진술에 의하면, 7월 1일 '전문'으로 대전형무소에 처형 지시를 하달 한 것은 대전지검 검사장이었고, 형무소에 재소자의 인계를 요구하고, 직접 처형을 지휘한 것은 헌병대였다. 한편 충남 경찰국 사찰과 내근 형사 서재성은 1950년 6월말 치안본부로부터 충남도경찰국 사찰과로 직접 좌익과 보도연맹원을 처리하라는 전문(모스 부호)이 내려왔고, 이에 충남도경찰국에서 관내 각 경찰서로 보도연맹원 처리를 명령했다고 했다.[981] 즉 검거는 경찰과 CIC, 수사와 분류결정은 CIC, 형무소 재소자와 분류된 보도연맹원에 대한 인계와 처형은 헌병대가 각각 담당했다.

따라서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와 재소자에 대한 처형 지시가 적어도 군 CIC와 헌병대, 검찰, 치안국이라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하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준영과 이병식 등 형무소 형무관들의 진술과 서재성 사찰과 형사 등 경찰들의 진술을 참조하면, 6월 30일경에 형무소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 처형에 대한 지시가 군·검·경에 동시에 내려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7월 1일 형무관들이 해산되었고, 헌병이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인도 받았던 것이다. 헌병은 처형을 지휘했고, 형무소 간수들은 재소자들과 검거된 좌익관련자들을 결박하여 이송하였으며, 경찰들은 이송과 총살을 담당했다. 대전 CIC 파견대는 검거, 수사, 분류를 담당하는 등 처형과정을

980) 충남 경찰국 수사과 정찬웅 진술녹취(2009년 4월 17일); 대전 경찰서 강윤식 진술녹취 (2009년 4월 29일); 대전 경찰서 경비계 황규옥 진술녹취(2009년 4월 30일); 서대전 지서 소속 경찰 조기병 진술녹취(2009년 4월 15일, 2009년 4월 30일); 충남 경찰국 사찰과 내근 형사 서재성 진술녹취(2009년 4월 15일, 2009년 4월 30):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0-242에서 재인용.

981) 서재성 진술녹취(2009년 4월 15일, 2009년 4월 30): 진실화해위원회,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240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일부를 지휘하였다. 그러나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인계 요청과 이송, 그리고 처형 집행을 지휘한 것은 헌병대였다.

이처럼 지휘명령계통의 복잡성은 대전형무소 재소자과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특성은 내무부 치안국, 검찰, 국군이라는 3개의 정부 기관을 동시에 지휘·통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쉽게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대전형무소 사건에 대한 지휘명령체계의 복잡성은 군·검·경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최고위층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또 이 사건은 지휘명령체계가 검찰과 경찰에서 군으로, 그리고 군의 CIC로 이관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형 사건은 이를 지휘한 기관이 검찰과 경찰에서 군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7월 1일, 아직 CIC가 좌익관련자들 처형에 대한 지휘권을 분명하게 획득하지 못했으나 이 사건 직후 집행된 청주와 공주에서의 청형을 CIC가 주도 한 것으로 보아 대전 사건은 지휘명령체계의 이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는 7월 중순 경부터 군은 CIC, 검찰은 오제도를 비롯한 사상검사, 경은 치안국 사찰과(정보수사과)가 주축을 이루는 군·검·경 합동수사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3개 조직의 지휘권은 CIC가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전 형무소 재소자 및 보도연맹원과 좌익관련자희생 사건의 지휘명령체계의 복잡성은 가해주체의 최고위층의 정체를 추론할 수 있게 해주며, 지휘명령체계가 검경에서 군으로, 다시 군의 CIC로 단일 화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6. 낙동강 전선 형성기 CIC의 활동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1)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육군본부 방첩과의 활동

해방 직후 대구경찰서 등에 소속이었던 김규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그러면 군인이 쏘는 거예요? 경찰이 쏘는 거예요? 처형을.
답 군인이고, 경찰이고, 그 당시에는 사건 책임 진 사람이 하지.
문 이주효씨라고 혹시 아세요? 경북 CIC대장?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답 알아요.
문 잘 아십니까?
답 예. 힘이 세지. 힘을 다 발휘 안 해.
문 CIC가 빨갱이 잡을 때 지시를 많이 했어요?
답 지시 많이 하지.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이니까.
문 잡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보고 다 하지요?
답 그리로 다 넘어가지.
문 그러면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죠? A, B, C 또는 갑, 을, 병 이렇게 분류하라고?
답 그렇지. 요 위에 덕산파출소[982] 알지요? 거기에는 CIC뿐 아니라 경찰들, 헌병들, 군인들이 있었어. 거기에는 누구든지 개인이 들어오면 죽어. 살아남지를 못해요. 거기 사람이 들어오면 손가락 같은 것, 손톱도 다 빼고 그래요. 전쟁할 때.
문 그럼 이주효씨가 활동한 것은 전쟁 중에 하신 거네요?
답 전쟁 날 때 그렇게 하다가 전근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983]

김규현은 경북 CIC 대장 이주효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주효라는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CIC가 경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사례로 덕산 파출소를 들었다. 그곳에는 CIC, 헌병, 경찰들이 함께 요시찰인과 예비검속 된 시민들을 취조 및 고문하여 분류하는 일을 하였다고 했다. 그는 보도연맹원 처리 주체, 방법, 지휘명령체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언급했다. 우선 그는 정보국 방첩과장 한충렬을 알고 있었다. 대구 동인동에 있는 CIC가 보도연맹 처리 지시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기서 다 했다고 봐야지. 그런데 거기에는 걸렸다 카면 그냥 가버리지.” 라고 답했다. 또한 “보도연맹 처형하라는 지시는 CIC에서 내려왔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 “위에서” 라고 답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는 것은 치안본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의외로 “치안본부에서도 하지만 사찰과에서 하지” 라고 했다.[984] 앞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는 내무부 →

982) 한충렬을 이충열로 잘못 질문함.
983) 김규현 구술녹취 (2009년 3월 26일).
984) 김규현 구술녹취 (2009년 3월 26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사찰과·정보수사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를 언급한 것이다. 또한 동인동 CIC로 상징되는 육군본부 방첩과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리를 총 지휘했다고 했다. 즉 7월부터 대구에 주둔하면서 육군정보국 CIC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덕산 파출소를 예를 들어 CIC, 헌병, 경찰이 합동으로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를 색출, 수사 및 분류, 처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950년 7월 20일부터 대구에서 육군정보국 CIC 특무처 차장으로 활동했던 장경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질 장군님 특무처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답 아! 특무처가 아! 그거
질 간첩?
답 그거 잡고 그랬었지. 아! 빨갱이들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때 CIC 무서웠습니다. CIC한테 걸리면 죽어. 찍히면 죽어요. 그때 CIC 본부장(한충렬)이 이놈 죽여 그러면 죽여 버렸다니까! 그 뭐뭐뭐 재판이고 뭐고 어디 있어. 그때에 죽이고 살리고 막 대구로 후퇴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무서울 때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때였습니다. CIC한테 걸리면 죽어요.
질 군부내 좌익색출을 하셨고?
답 아! 그거 했지요. 했는데 대구 가자마자 특무처장이면서도 이거 안 되겠다. 뭐 한가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갖고 10개 특무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나는 분소 책임자로 갔습니다.
질 어디에요? 그게… 3사단 (아닌가요?)
답 아니요. 대구 안에 10개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뭐 군대고 뭐 할 것 없이 뭐 그냥 빨갱이만 잡는 거예요. 그 뭐냐 대구시내에 10개가 생겨버렸다니까! 특무차장이고 뭐고 없고.
질 지역은 어디?
답 아니 그 대구 시내에요. 재주껏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무차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를 맡는 거예요. 그냥. 열 개를 빨갱이 색출하는 분소를 만든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그냥 민간인이고 군대고 없어. 그냥 빨갱이만 잡는 거야.
질 그 잡아서 어디로 보내….
답 어디 보내고 뭣하고 (없어). 그냥. 거기서 “이놈 빨갱이다” 라고 하면 가는 거야.[98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장경순의 계급은 소령으로 남산학교 교관이었으며, CIC 과장인 한충렬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다. CIC 핵심인물 중에 하나로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육군방첩과가 대구 시내에 10개의 CIC 분소를 분립했다고 했다. 분소장은 각 지구 파견대가 아닌 CIC 본부에 있었던 고위직 간부들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대구 시내의 빨갱이, 즉 좌익관련자들을 경쟁적으로 체포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육군 역사일지』('50.6·25~'50.8.10)에 의하면 1950년 7월 25일 각 사단에 배속된 CIC 및 HID 파견대를 해체와 동시에 육군본부 정보국 직할로 편성하였다고 한다.[986] 장경순 소령이 대구에 도착한 직후 육군정보국 CIC는 각 사단에 배속된 CIC를 해체하는 등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바로 이 시기에 한충렬 CIC 과장은 방첩과의 직제를 개편하여 대구 경북지역에 10개의 분소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규현이 CIC와 헌병대 그리고 사찰계 형사들이 덕산파출소에 함께 근무했다고 했다.[987] 또한 전쟁 당시 대구에서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이었던 노승만은 대구에 CIC가 동인동에 있었고, CIC대원들이 지서별로 한 사람씩 있었다고 했다.[988] 따라서 김규현이 언급한 CIC와 헌병대 그리고 사찰계 형사들이 함께 근무했다는 덕산파출소가 장경순이 말한 10개의 분소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경순은 대구로 후퇴해 있는 전라북도 경찰국 사찰과장 나종렬을 문관으로 채용하여 요시찰인들을 체포, 심문, 분류하

985) 장경순 구술녹취록 (2009년 3월 4일).

9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 역사일지』('50.6·25~'50.8.10), 등록번호 HC00117: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11월 17일) 88에서 재인용.

987) 김규현 구술녹취록 (2009년 3월 26일).

988) 대구10월사건 및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출장조사 보고(집단희생조사국-83, 2009년05.19.). 참고인 노승만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91-92에서 재인용. 노승만은 전쟁 당시 대구에서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으로 있었고, "전쟁 나고 대한청년단은 경찰관 보조 역할을 했지요. 좌익활동한 사람들 감시하고 잡아들이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쟁 중에 경찰학교에 입교하여 1950년 11월 5일(제52기)로 수료하였다. 대한청년단 감찰부는 CIC나 사찰계 형사들을 보조했다. 즉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부역혐의자 등을 검거하여 경찰과 CIC에 인계하였다. 때로 체포된 사람들을 취조하고, 이들을 갑, 을, 병으로 분류하기 까지 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서산태안부역혐의희생사건」, 김영일 구술녹취록, 2009 참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였다.[989] 이상의 진술은 CIC가 경찰 및 헌병대와 합동하여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형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경순을 비롯한 대구 주둔 CIC 간부들은 좌익과련자를 어떤 명령체계를 통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질 즉결처형이에요?
답 (고개를 끄덕이며) 빨갱이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그렇게 무서웠다고. 그 때 (CIC)부대장이 3권(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갑, 을 이렇게 해갔고 갑하면 (총 쏘는 시늉을 하면서)
질 갑이면 끝입니까?
답 아이! 그냥 즉결이야.
질 CIC 부대장 즉결?
답 응. 부대장 즉결. 부대장의 밑에 10개의 분소가 있어갖고 빨갱이 색출하는 것을 막 경쟁을 한 거야.
질 그 당시 김창룡 부대장?
답 아니요. 한웅진 부대장.
질 장군님이 (빨갱이들을)잡으셨을 때, 나종열 사찰과장하고 같이 이 사람들을 잡으셨을 때 이분들 전혀 군재에 회부한다던가….
답 아이 그런 거 없어. 보고 상에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하면 부대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부대장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여. 거기서 재판 하지도 못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하고 대구에 포탄이 떨어지는 그 야단 판인데. 그냥 죽여 버리는 거여. 간단히 말하면은….[990]

갑인지 병인지 헷갈려 하였지만 갑으로 분류되면 즉결 처형된다는 것이다. 분류 작업의 최종 책임자는 CIC 대장인 한충렬(한웅진)이었다. 한충렬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지시에 따라 즉결처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는 대구·경북지역의 지휘명령자가 김창룡이었냐

989) 『대한민국인사록』 49.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 나종렬(羅鍾烈)은 1949년 현재 38세로 전주시에 거주하였다. 서울 경신학교 졸업하고 일본유학 중퇴, 해방 후 제6관구 경찰청 근무, 전라북도 도경찰국 사찰과장 취임하였음. 국군보안사령부, 『管區歷史』(80-12) 그의 동생 나종대는 1948년 9월 2일에 설립된 대한관찰부의 전주사무소(2급) 소장이었다. 그의 숙부 나용균은 정읍 4선의원이고, 장인 유직량은 전라북도 독립촉성위원장과 전북대학교에 흡수된 명륜대의 설립자이다; 참고인 전전희 면담보고서(2008년 11월.18일): 진실화해위원회,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23에서 재인용.
990) 장경순 구술녹취 (2009년 3월 4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는 질문에 대해 선을 긋듯이 부정하고 한충렬이라고 했다. 전쟁 당시 CIC 장교 이근양도 전쟁발발 전후 CIC와 관련된 모든 일은 한웅진 중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김창룡은 지휘 선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991]

또한 대구인근 각 군의 CIC 분견대, 혹은 주둔 군 CIC도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의 집단 희생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군위군 소보지서에 근무한 김성운은 “보도연맹원들이 처형될 당시 군위지역에 4~5명의 CIC 대원들이 일신여관에 주둔 하고 있었으며 경찰서 유치장과 인근 창고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CIC가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갑, 을, 병으로 분류했다”라고 했다. 효령지서 소속 홍순팔도 보도연맹원들이 사찰계 형사와 일신여관에 주둔 중이던 CIC에 의해 처형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였다.[992]

대구형무소와 경산 등 인근지역에서 검속된 보도연맹원 및 재소자들이 코발트 광산에서 집단살해되었다. 당시 경북지구 CIC 경산 분견대 등이 이들을 검속하거나 처형당시 주변을 통제하기도 했다.[993] 또한 경주(월성군) 내남면 처형현장에 동원된 바 있는 한신출은 월성군청에 주둔한 CIC대장이 처형을 지휘했다고 했다.[994] 이상의 진술과 문서자료를 통해 1950년 개전 직후 군

991) 이근양 진술녹음 (2009년 4월 28일). 1950년 10월 5일 이후 이근양 중령이 충청남도 지구 파견대장으로 부임하여 1951년 1월 4일까지 근무했다.

992) 참고인 김성운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19.); 참고인 홍순팔 진술녹취록 (2009년 4월 14일): 진실화해위원회, 「군위 · 경주 · 대구지역 보도연맹원 사건」, 21－22에서 재인용.

993) 참고인 문도술 면담보고(2008년 9월 11일); 참고인 박호영 면담보고(2006년 6월 5일); 참고인 길무웅 면담보고서 (2008년 10월 13일); 참고인 박용득 면담보고 (2008년 9월 22일): 진실화해위원회, 「경산코발트광산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1월 17일) 43－44에서 재인용. 경산경찰서 직할파출소에서 근무한 길무웅은 “코발트광산 입구인 평산동에 CIC가 주둔을 하고 있었으며 국군 제22연대 헌병대도 당시 경산에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제22연대 헌병 출신인 박용득은 제22연대 헌병대가 경산코발트광산에서의 사살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국회,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 (1960); 「이주효 장교자력표」; 참고인 김정현 면담보고(2009년 4월 23일): 진실화해위원회, 「경산코발트광산 사건」 (2009년 11월 17일) 45에서 재인용. CIC가 경산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음은 당시 CIC경산지구 파견 대장이었던 이주효의 장교자력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주효의 장교자력표에 따르면 그는 1948년 소위로 임관, 1950년 3월 1일 대위로 진급, 동년 9월 19일까지 육군정보국 경산지구 파견대장으로 근무하였다.

994) 참고인 한신출 진술녹취록 (2009년 4월 14일): 진실화해위원회, 「군위 · 경주 · 대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위 · 경주(월성) · 경산 등지에서 분견대 혹은 주둔군 CIC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형을 지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군위 CIC는 좌익관련자들을 심사하여 갑 · 을 · 병, 즉 처형될 자와 훈방될 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군위, 경주, 경산 CIC의 경우 관할지역 좌익관련자와 대구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인계받아 처형 집행을 지휘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육군 정보국 CIC과장이 대구 경북지역 좌익관련자에 대한 검거, 분류, 처형을 지휘했다고 판단된다. 그 아래 사찰과 혹은 사찰계 형사들을 배치하여 10개 분소를 설치하고 경찰들과 업무를 협조하였다. 체포대상은 빨갱이였다. 빨갱이라는 말이 애매한 만큼 CIC나 사찰과 형사들이 체포할 수 있는 대상들의 폭이 넓었다. 체포대상은 보도연맹원, 요시찰인, 확실하게 우리 편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되었다. 검거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처리방법은 명확했다. 갑 · 을 · 병으로 분류하고 이 중에 갑은 즉결 처형되었다. 처형은 육군 정보국 CIC 과장 전결로 이루어졌다. 적어도 대구 경부지역에서는 육군 정보국 정식 라인에 있는 방첩과가 좌익관련자들을 검거, 수사, 분류, 처형을 지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장경순은 좌익관련자 처리를 김창룡이 지휘하였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정함과 아울러 한충렬이 지휘자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이는 김창룡의 개입이 없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서 6월 28일 수원에서의 장도영 정보국장의 지시가 김창룡에게도 하달되었지만, 방첩과 과장 한충렬에게도 하달되었다는 것이 대구 · 경북지역 좌익관련자 처리과정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첩과의 지휘명령자는 육군정보국 장도영 국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육군정보국 방첩과가 어떤 논리와 정책지침에 따라 좌익관련자들을 검거 및 분류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은 “빨갱이만 잡는 거야”라는 장경순의 구술 속에 담겨 있다. 부정적 타자를 구성하는 논리는 공산주의와 이에 협력했다고 추정되는 주민들에 대한 적대였다. 즉 냉전의 진영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구 · 경북지역민간인 학살에 나타나는 특징은 지휘명령체계에 기독

구지역 보도연맹원 사건」, 38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교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지휘명령체계는 경북지역 사령관 – 육군 정보국(방첩과)·헌병, 내무부 – 치안국 – 사찰과(정보수사과)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7월 27일 이후 경북관구사령관 원용덕, 육군정보국장 장도영, CIC과장 한충렬(한웅진–저자), 내무부 장관 조병옥, 치안국장 장석윤·김태선(7월 17일), 사찰과장 장영복, 정보수사과장 선우종원 중 원용덕, 장도영, 조병옥 등 치안관련 현지 최고 지휘부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대구주둔 경북관구사령관 원용덕은 남감리회 초기교인이자 목사인 원익상의 아들로 독실한 감리교 교인이었다. 그의 군 경력에 의하면, 여순사건 직후인 1949년 11월에서 1950년 3월까지 육군참모학교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50년 6월 10일 현직에서 예편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7일 육군에 재편입하였다. 1950년 7월 17일 전북지구편성관사령부·전주편성관사참모장 겸 경북편성관구사령부로 소속되었다. 이어 7월 27일 경북관구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이 직을 1952년 1월 12일까지 유지했다.[995]

낙동강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대구·경북에서 조병옥은 내무부의 일반 업무는 내무부차관에게, 일반적 치안은 치안국장에게 각각 일임하고 자신은 사찰망을 형성하여 좌익관련자를 검거·처리하는 치안업무에 전념하였다. 그 또한 대대로 독실한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 감리교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특히 그는 1930년대 한국에 사회복음주의를 소개한 인물이었다.

육군정보국장 장도영은 평안북도 초기 목사와 장로의 후손으로 모태신앙인이었고, 전쟁 후 자신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장석윤은 노년에 불교도로 개종했지만, 1923년 미국으로 유학하면서부터 1970년대까지 기독교

995) 자세한 원용덕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47년 12월 1일 제 2여단장, 1949년 1월 15일 제5여단장, 1949년 5월 12일 육군본부, 1949년 5월 30일–8월 1일 호국군 참모장, 1949년 7월 1일 장교정기진급심사위원, 1949년 8월 1일–11월 28일 (?)政참모(?)장, 1949년 9월 1일– 10일 정훈장교참모교장, 1949년 9월 1일 징계위원장, 1949년 9월 10일 정훈장교후보생심사원, 1949년 11월 28일–1950년 3월 1일 육군참모학교교장, 1950년 6월 10일 현직에서 예편, 1950년 7월 7일 육군 재편입과 1950년 7월 17일 전북지구편성관사령부·전주편성관사참모장, 같은 날 경북편성관구사령부, 1950년 7월 27일–1952년 1월 12일 경북관구사령관, 1952년 5월 19일 제2군단사령부, 1952년 5월 25일–1953년 2월 26일 영남지구 계엄사령관, 1953년 3월 22일– 1960년 7월 28일 헌병총사령관, 1960년 7월 28–3월 29일 국방부 본부부, 1960년 8월 31일 입감(배속)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인으로 활동했다. 특히 그의 처는 윤치호의 동생인 윤치왕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이었다. 김태선(1903.5.18, 함남 원산)도 감리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평양숭실중학 졸업하고 교육계에 종사하다 1926년 8월 11일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 시카고 서북대학 영문과 수료하고, 일리노이 웨슬리안대학 범죄학·사회학 BA학위를 받고 보스턴대학 종교사회학 학위를 받았다. 숭실중학, 감리교 학교인 웨슬리안 대학, 그리고 보스톤 대학에서의 종교사회학을 전공한 것으로 보아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용덕, 장도영, 장석윤 등처럼 기독교인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경북관구사령과 원용덕이 대구경북지역 민간인집단 학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과 문서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집단희생 사건의 지휘명령체계에 유독 기독교인들이 집중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경상남도지구 CIC 파견대의 부산경남지역 방첩활동

1950년 8월 2일경 경남 김해 진영읍 한얼중학교 교장 강성갑 목사는 경찰에 검거되어 수산교 인근 낙동강변에서 처형되었다. 당시 강 목사와 함께 기거하고 있었던 이상철은 그가 경찰에게 검거되어 처형되기 전, 진해 주둔 해군 첩보대에 체포되어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누군가가 목사님을 좌익으로 밀고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지만 고문으로 인해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피난민 구호사업을 하던 중 경찰에게 연행되어 총살당했다고 했다.[996] 강 목사

996) 이상철, 『열린 세계를 가진 나그네: 블라디보스크에서 토론토까지』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1910), 101-102; 진영읍지편찬위원회, 『진영읍지』, (진영: 진영읍지편찬위원회, 2004); 「경남매일신문」 (1968년 7월 3일); 조향록, 「농민교육의 개척자 강성갑」, 『스승의 길』,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회, 1984), 268-281. 1912년생인 강성갑 목사는 1946년 8월 15일 진영읍에 한얼중학교를 설립하고 그룬트 비히(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를 따라 농촌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했다. 개전 직후 그는 진영읍에서 피난민 구호사업하고 있었는데, 관리들이 상부에서 보내준 구호금품을 가로채자 진영지서와 읍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그 직후 희생되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의 장남 강홍철은 아버지가 1950년 8월 2일 사망한 것으로 기억했다.[997]

김해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은 1950년 6월 25일, 6월 29일 전국 경찰에 하달된 치안국 통첩에 따라 일차로 예비검속되었다. 이어서 이들은 7월 12일 김해경찰서 통첩에 따른 진영지서의 비상소집 명령과 8월 4일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지서로 출두하거나 연행되었다.[998] 소집된 사람들은 진영금융조합창고와 한얼중학교에 분산 수용되었다.[999]

개전 직후 김해지역에서 보도연맹원 등으로 예비검속된 민간인은 1,220명으로 확인되었다.[1000] 이중 피검기관이 기재된 300명의 보도연맹원 중 214명(71.3%)이 CIC에게 연행되었으며, 33명(11%)은 김해경찰서에게 연행되었다. 김해 CIC는 부산지구 CIC 파견대(8월 후 경남지구 CIC 파견대)에 소속된 분견대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CIC가 1950년 6월 28일부터 2~3일 간격으로 9월 18일까지 보도연맹원 등을 직접 예비검속하였다고 했다.[1001]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도 CIC와 경찰 등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다. 1975년 울산경찰서에서 생산한 「대공인적위해요소명부-6·25당시 처형자 및 동연고자」에는 1950년 8월 5일부터 2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적게는 1명, 많게는 212명씩 총 607명의 민간인이 처형되었으며 이 중 70명이 CIC에 인계되어 처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002]

---

997) 강홍철 면담록 (2014년 3월).

998)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 ;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불순분자 구속의 건」(駕支 제1499호, 1950.7.13.) ; 「불순분자 구속에 관한 건」(棻支 제969호, 1950. 7. 12.), 「불순분자 구속에 관한 건」(鳴支 제1419호, 1950.7.13.), 『부역자명부』, 5 ; 7; 13; 「보도연맹원 수용자명부 송부의 건」(進永支 제호, 1950.8.4.), 『부역자명부』, 3211,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진실화해위원회, 「김해 보도연맹원 사건」, 61에서 재인용.

999) 진실화해위원회,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61.

1000) 이 중 보도연맹원은 전체의 59%인 721명이었고, 비맹원은 전체의 41%인 499명이었다.

1001) 진실화해위원회, 「김해 보도연맹원 사건」 (2009년 1월 9일), 56-57; 『부역자명부』, 515, 559, 561, 889. CIC가 피검기관으로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가 6월 28일이며, 가장 늦은 시기가 9월 18일이다. 피검기관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피검기관	CIC 김해분견대	김해 경찰서	공군 정보처	해군G-2	명지면 SIS	부산 CIC	모름	기타	합계
검속인원	214	33	17	2	1	2	18	13	300

1002) 「대공인적위해요소명부-6·25당시 처형자 및 동연고자」: 진실화해위원회, 「울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김해와 울산의 경우 CIC가 경찰과 함께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검거하여 처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CIC 분견대 이상의 지휘명령 라인과 CIC의 수사 및 분류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즉 CIC의 구체적인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과 마산 형무소 재소자 및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희생 사건에서는 CIC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산지방은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1950년 7월부터 8월경에 경찰과 CIC에 소집되어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고하면서 이들은 대체로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과 해운대 장산골짜기,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당시 경남 동래군 북면 회동리)골짜기 등지에서 처형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구금자들이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수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부산지구 헌병대와 경찰 등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경남지구 CIC에서 주도하였다고 했다.[1003]

개전 전후 부산형무소 계호과 근무자였던 김수정은 부산형무소에 좌익사범들이 많이 구금되어 있었고, "전쟁 직후 대규모로 수감된 보도연맹원들을 A, B, C, D급으로 분류" 되었고 개전 직후 헌병들이 이들을 "형무소 밖으로 끌고 가 사형" 시켰다고 했다. 당시 "경남지구 계엄 민사부장 김종원은 즉결처형권" 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1004] 1948년 채용된 부산형무소 계호과 의무실 박제문도 "좌익 재소자는 별도 수감" 되어 있다가 "9·28 수복 전 헌병들이 사상범들을 끌어내어 광안리 등" 에서 처형했다고 하면서 당시 형무소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들도 처형되었다고 했다.[1005] 부산형무소 계호과 김병립은 헌병대가 "명단을 가져와 재소자들을" 데려갔는데 "기결수들을 트럭에 태워 나가서 총살시켰다" 고 들었다고 했다.[1006] 또한 부산형무소 계호과 김병립은 "7월 말부터 부산, 김해,

---

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Ⅱ』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10월 13일), 10에서 재인용.

1003) 진실화해위원회,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2009년 9월 22일), 37-38;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원사건」 (2009년 11월 17일), 140.

1004) 김수정 진술조서 (2007년 12월 4일):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2009년 2월 2일) 25에서 재인용.

1005) 박제문 진술조서 (2007년 12월 4일):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25에서 재인용.

1006) 김병립 진술조서 (2007년 12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26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양산, 동래, 울산에서 잡혀온 보도연맹원”이 이송되어 “형무소 공장과 부산진역 근처 미곡창고에 수용”되었고, 특히 “부산철도청, 조선방직의 보도연맹원들이 단체로 수감”되었다고 했다. 이후 형무소측은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을 헌병들에게 건네주었다고 한다.[1007]

따라서 개전 직후,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형무소 재소자와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은 김종원이 지휘하는 헌병대에 인계 되어 처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김해·양산·동래 등지에서 이송되어 온 보도연맹원들이 있었고, 이들은 부산지역 보도연맹원들과 함께 A, B, C, D급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기결수와 보도연맹원을 인계 받아 처형한 것은 헌병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연맹원을 처형될 자와 훈방할 자로 분류, 즉 A·B·C·D로 분류한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형무소 계호과 박도종은 헌병과 CIC가 형무소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했다.[1008]또한 적은 수이지만 부산형무소 『재소자인명부』에 보도연맹원 7명이 1950년 8월 2일에서 24일 사이 CIC에게 인계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009]

이로보아 부산지구(경남지구) CIC 파견대가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 구금자들을 처리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CIC의 정확한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산 철도경찰 수사과 근무자였던 김상용은 철도청에 근무하던 윤병관과 김삼만이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는데 전쟁 발발 후 군·검·경합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다고 했다.[1010] 당시 부산군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활동한 치안국 소속 경감 양한모(梁漢模)는 “서울이 수복되기 전에도 부산 광복동 삼일사에서 군에선 김창룡 준장, 검찰에서는 오제도 검사, 그리고 경찰에서는 내가 합동으로 정보, 수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다[1011] 즉 김창룡은 경남지구 CIC 파견대장으로 재직하면서

1007) 김병립 진술조서 (2007년 12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26에서 재인용.
1008) 박도종 진술조서 (2007년 12월 5일):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25-26에서 재인용.
1009) 부산형무소, 『재소자인명부』, 1950: 진실화해위원회,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36에서 재인용.
1010) 참고인 김상용 진술녹취(2009년 5월 27일): 진실화해위원회,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20-21에서 재인용.
1011)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권3 (서울: 을유문화사, 1973), 4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합동수사본부를 조직하여 군은 물론 민간인 전체를 대상으로 좌익관련자들을 검거 처리하였다.

개전 당시 삼일사라는 이름을 가진 부산 CIC 파견대 사무실은 동광동 1가 2번지와 영도 대교로 1가에 있었다. 희생자 안기택의 딸인 안광자(1939년생)는 1950년 8월 당시 내무부 지방건설국 부산 국토사무소 토목기사이던 부친 안기택이 동료 직원 12명과 함께 CIC에 연행되었고, 이중 1명을 제외하고 행방불명되었다고 했다. 그의 친척 안재기(1928년생)도 특무대(방첩대)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했다. 희생자 정길주의 딸 정선아(1950년생)는 정길주가 1950년 8월경 CIC 요원 2명에게 연행되어 중앙동 소재 창고에 구금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박철우에게 들었다고 했다. 정길주와 함께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박우철(피해자의 고향선배)에 의하면, 정길주 등이 8월 10일경 오륙도 앞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했다. 정길주의 처제인 권미자(1940년생)는 당시 여경이었던 권영애(큰언니)로 부터 둘째 형부 정길주가 1950년 음력 6월경 집에서 경찰에게 붙들려 중앙동(동광동) CIC건물로 연행된 후 오륙도에서 총살되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희생자의 처형인 권영애도 중앙동(동광동)에 있는 삼일사(CIC)로 사람들이 연행되었다고 해서 2번 정도 찾아가 보았으나 모른다는 소릴 들었다고 했다. 희생자의 김태주의 처남 김영기는 김태주가 개전 직후 부산 동광동에 있던 삼일사로 알려진 CIC 사무실로 연행되어 면회를 갔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김태주는 이후 김영기의 처와 함께 CIC로 연행되었고, 자신은 그곳에서 풀려나고, 김영기의 처와 그곳에 잡혀 있던 사람들이 부산형무소로 이송되었고 그 뒤 풀려났다고 했다. 희생자 전임수와 함께 연행된 자유민보 기자 김창을은 1950년 6월 하순이나 7월 초순경 경남 경찰국 사찰과에 자유민보 이광우, 부산일보 정진업, 신예균, 김경렬, 전임수, 박증봉 등과 함께 연행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당시 CIC사무실은 부산 광복동 입구 한일은행 맞은 편 이었는데, 희생자는 부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행방불명되었다.[1012)]

안기태 배노미 정길주 김태주 전임수 등은 1950년 7-8월에 삼일사로 알려진 동광동 소재 CIC 사무실과 영도 소재 CIC로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분

1012) 진실화해위원회, 「부산 · 사천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10-1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류되어 오륙도 앞바다 등지에서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즉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분류를 백운상 · 김창룡이 대장으로 있는 부산 · 경남지구 CIC 파견대가 지휘했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 및 CIC 측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 부족으로 전체적인 지휘명령체계 안에서의 CIC의 역할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산형무소의 경우 CIC[1013]가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수사 및 분류는 물론 집단 희생 사건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산형무소 계호과 김영현은 1949년 연와공장에서 100여명 재소자들이이들을 체포해 형무소에 있던 CIC와 HID가 조사했다고 했다.[1014] 즉 개전 전부터 정보국 소속 CIC와 HID가 상주했고 이들이 재소자 수사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마산형무소 계호과 김상석은 전쟁 당시 형무소 내 CIC가 상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보도연맹 등 좌익사범을 관리하였다고 했다고 했다.[1015] 계호과 근무자였던 황재익은 개전 당시 "CIC가 형무소 내 사용하지 않던 창고를 비워 상주" 했다고 하였다. 개전 직후인 7월에 일반 잡범들은 석방하는 대신 진북, 진전, 진동과 마산시내의 보도연맹원들을 수감했다고 했다. 이때 CIC가 보도연맹원을 조사한 후 여러 번 트럭"으로 이송하여 "마산 앞바다에 수장시키고, 진전면에서 총살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1016] 계호과 근무자였던 김영현은 CIC가 전쟁 전부터 수감된 좌익사범을 헌병에게 넘겨 처리하였다고 했다. 또한 형무소에 상주하고 있던 CIC가 개전 이후 형무소에 수감된 마산의 보도연맹원 수백 명을 A, B, C로 분류한 후 먼저 A급을 처형하였고, 이후 B급을 처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처형했다고 한다.[1017]

이상의 진술을 통해 마산형무소 재소자와 마산시내와 진북, 진전, 진동 등지에서 검속되어 형무소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이 헌병에게 인도되어 마산 앞바

1013) 경남지구(부산지구) CIC 파견대에 소속된 마산 CIC 분견대올 추정된다. 분견대는 마산, 진주 등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1014) 김영현 진술녹취록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27에서 재인용.
1015) 김상석 진술 녹취록 (2008년 6월 24일):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27에서 재인용.
1016) 황재익 통화보고서 (2008년 6월 19일):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26에서 재인용.
1017) 김영현 진술녹취록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27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와 진전면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 보도연맹원을 수사하여 A·B·C로 분류하는 것은 CIC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A·B·C급로 분류된 보도연맹원은 결국 모두 처형되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이 분류는 처음에 처형될 자와 훈방될 자를 구별하는 작업이었다.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은 CIC이었던 것이다. 김영현의 진술처럼 CIC는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을 분류하여 이들을 헌병에게 인계하여 집행하게 했다. 검거, 수사, 분류의 지휘는 CIC에게 있었고, 헌병대는 처형 집행을 담당했다. 비록 부산형무소에서 이 사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지만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육군정보국 방첩과의 부산지구 CIC 파견대(8월 이후 경남지구 CIC파견대)와 각 지역 CIC 분견대가 부산형무소와 마산형무소 재소자 그리고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처형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창룡의 지휘 하에 있는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인용한 관구역사에는 1950년 8월부터 9월 20일까지 김창룡이 경남지구 CIC 파견대장으로 나와 있다. 한편 부산지구 CIC 파견대는 김창룡이 파견대장으로 부임할 무렵인 1950년 8월 경남지구 CIC 파견대로 개칭되었다.[1018)]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1956년에 발생한 김창룡 저격사건의 판결문에 기록된 “6·25 후 후퇴 남하시 김창룡은 경남지구 CIC 대장임을 기화로 당시 보도연맹원등을 검거 처단하든 시에”라는 신초식의 진술에 근거하여 김창룡이 육군정보국 방첩과 경남지구 CIC 파견대를 지휘하면서 보도

1018) 國軍保安司令部, 「초기 CIC 역사」, 『管區歷史』(8-12); 진실화해위원회,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2009년 9월 22일) 36; 국방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한 이의신청(3차) (인권담당관-1468, 2009.06.11). 국방부의 확인에 따르면, 사단·연대급에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CIC 파견대 운용하였고(1950.5.15~7.30), 경남·북 지역에 육본정보국 소속 CIC 파견대 운용하였다(1950.7.31.~10.20)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남지구(제3사단) CIC대장은 백운상 소령의 장교자력표에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한 주장이었다. 백운상 소령(육사 3기, 군번 10422)은 3사단 파견(1950.5.15~7.20)후 경남 CIC지구대장(1950.7.31~10.20)을 맡았다. 그러나 「민주신보」 1950년 8월 19일자에 의하면, 김창룡이 부산에서 방첩업무를 지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이 회신은 김창룡이 경남지구 CIC 파견대장으로 부임한 일자, 즉 1950년 7월 31일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처형했다고 판단했다.[1019] 1950년 8월 28일 경남지구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김종원 대령(헌병사령부 부사령관)은 다음 날인 29일 "조사기관을 일원화하여 경남지구 CIC본부에 법원, 검찰, 의약의 강력한 진영을 구성하고 중요임을 띄운 사건 취급은 CIC 본부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고 발표했다.[1020] 검찰과 경찰 등 조사기관을 일원화하여 경남지구 CIC가 이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검거, 수사, 분류, 처리를 CIC 지휘 하에 둔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및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재판의 기능을 하는 법원을 관할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1950년 6월 28일 이후 실재로 시행되던 CIC의 민간인 검거, 수사, 부류, 처형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빌미로 공론화하고 합법화한다는 의미였다. 장경순의 말처럼 CIC가 3권을 모두 장악한 것이다. 또한 이는 경남지구 CIC 파견대가 부산에서부터 군·검·경합동수사대를 가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경찰의 영역인 민간인 검거 및 조사, 검찰의 영역인 민간인 수사와 기소, 법원의 영역인 민간인 재판을 지휘·통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경남지구 CIC 파견대장 김창룡에게 부여한 것이다.

경남지구 CIC 파견대·울산 CIC 분견대·김해 CIC 분견대가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받아 진해, 울산, 부산, 마산 등지에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을 검거, 분류, 헌병대 인계를 지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1950년 6월 28일 육군정보국 장도영 국장이 김창룡에게 잔비처리를 지시하였다는 오상근의 구술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상남도지구 CIC 파견대의 형무소재소자,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에 대한 처형은 육군정보국 장도영의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육군정보국 국장 장도영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상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육군본부방첩과,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경남지구 CIC 파견대가 각각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좌익관련자와 형무소 재소자의 처형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론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방첩부대장(준장 이철희)은 계엄사령관(장도영)간에 오간 문서

1019) 국가기록원, 김창룡 저격사건 관련 「신초식 판결문」(단기 4289년 형상 제356호):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원사건』, 193-194에서 재인용.
1020) 「민주신보」(1950년 8월 30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에서도 확인된다. 방첩부대장은 계엄사령관에게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을 발신[1021]하였고, 방첩대는 예비검속 이후 이들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당시 방첩대는「군·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건의」라는 제목으로 예비검속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거 처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입안하였다. 여기서 방첩대는 "이는 과거 6·25당시 긴박한 사태하에서 공산분자의 처단을 1개 기관이 전담하므로서 현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원성과 혹심의 대상이 되었든 전례에 비추어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견지에서도 지극히 요구되는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022] 1개의 기관이라는 것은 방첩과(한웅진)와 그 예하 부대인 경남지구 CIC 파견대(김창룡)이었다.

특히 CIC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일반시민들과 구별되는 특정인물을 검거하여 이들을 A, B, C로 분류하는 것이다. 검거된 인물은 빨갱이라는 특정인물로 일반 시민들과 구별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처형될 자를 다시 분류하는 것이 CIC의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특정인물을 구별하여 검거하는 것과 검거된 특정인물을 분류하는 논리와 이것에 근거한 정책지침은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7.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 – 지휘·명령 체계 속의 기독교인들

6.25전쟁 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통해 첫째, 집단희생 사건을 담당한

1021)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에 협조 요청하여 회신 받은 공문. 국군기무사령부, 「'경북 사회당' 사건 등 관련자료 통보」(과거사지원 T/F-393, 2008년 4월 17일).「수신, 계엄사령관 "위험인물 예비검속 계획" 분류기호 383.5(117), 기안월일 4294.5.17」. 첨부된 "예비검속계획" 문건에 따르면, 검속 방침은 "각 지구 계엄 사무소장의 지휘 책임 하에 각 지구 육군방첩대가 주관하여 경찰의 협조를 얻어 체포후 계엄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하게 했다. 세부계획에 의하면 우선 "예비검속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후 경찰과 합동 수사하여 체포한다"는 것이다. 다음 "체포된 자는 각 지구 계엄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한다."(각도 경찰국 소재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형무소) 그리고 '수용소의 경비는 수용된 당해 관서에서 담당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감독관(방첩대 및 헌병)을 배치하여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처리는 계엄사령관의 명의 의하여 처리한다.'고 계획하였다.

1022) 발신 육군방첩부대장,「군·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건의」, 수신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공안분과위원장) 기안년월일 4294.5.26. 국군기무사령부, Ibid.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핵심 기관이 육군정보국 · 방첩과와 내무부 · 치안국이라는 것을 확했다. 내무부 · 치안국의 핵심 지휘명령체계는 장석윤, 조병옥, 김태선, 선우종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육군정보국 · 방첩과의 핵심지휘명령체계는 장도영, 한충렬, 김창룡 등이다. 이 외에도 검찰의 오제도 등이 핵심지휘명령체계 안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민간인학살 지휘 · 명령체계 안에는 오제도, 조병옥, 장도영, 장석윤 등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리고 대구10월사건, 여순사건, 제주4 · 3사건 중 발생한 민간인희생사건의 지휘명령자 중 기독교인은 원용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국민보도연맹원 등 개전 후 발생한 민간인학살은 국가권력의 정책과 지시에 의해 발생했다. 이 정책은 치안국과 육군정보국 방첩과의 처형지침에 반영되었다. 이 지침은 국민보도연맹원 비롯한 좌익관련자를 분류하는 근거였다. 이는 공산주의적대를 기조로 하는 냉전의 논리였다. 또한 이 논리는 자신을 긍정적 자아로 자신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근거한 진영논리였다. 따라서 분류의 기준은 냉전의 진영논리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하면서 이를 신념화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기독교가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근거한 종교적 논리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 가지 관점은 민간인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그 종교적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보도연맹원 및 불순분자 처형을 지시한 치안국장 장석윤

장석윤은 1904년생으로 본적은 강원도 횡성이다.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12월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테네시주의 벤더빌트대학과 동 대학원 지질학과를 졸업했다. 일제 말기에 미국 극동부대 한국대표로 중국에 파견되어 김구와 이승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1948년 사정국장, 1950년 치안국장, 1952년 내무부 장관, 제3대 민의원의원(강원도 횡성, 무소속), 제4대 민의원의원(강원도 횡성, 자유당)을 역임하였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1023]

1988년에 쓴 “풍상 끝에 얻은 섭리”에서 그는 7년 전 불교도가 되었지만 이전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미국으로 간 뒤부터 기독교인으로 예배당에 나갔으며 미국대학에서 종교교육을 선택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 후 귀국해서 30여년 동안 “예배당에 나가 기독교인과 접촉하며 신앙심을 두터이 하”였다고 했다.[1024] 그는 해방 후 공식 문서 종교란에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기록하였다.[1025] 1923년 12월 12일 뉴욕에 도착한 그는 향(香) 장사를 하는 안정수(安正洙)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다.[1026] 이후 50여년의 세월을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그는 테네시 내시빌 시에 있는 벤더빌트대학을 다니면서 이 학교의 신학대학 학생 이환신 목사 등 10여 명의 목회자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1027] 그가 학생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 당시 학생회의 모임이나 각종 집회는 각 지역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몬타나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이었다. 1940년대 장석윤은 몬타나 한인교회의 기성위원으로 그 교회의 임원이었다.[1028] 1941년에 그를 비롯한 몬타나 한인 동포들은 경남 성경학교를 위해 천사 백여원의 헌금을 모았다.[1029] 교인들이 1941년 12월 25일 몬타나 뷰트 트리마일회관에서 성탄절 기념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석윤은 사회를 맡기도 했다. 「신한민보」는 "12월 25일 하오 3시 가량인데 … 몬타나 한인교회 축하식을 장석윤씨의 사회로 창가, 성경암송, 축사 등 재미로운 순서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1030] 그는 몬타나 한인교회의 임원으로 성경학교 건립을 위해 헌금을 하고, 성탄 축하식의 사회를 볼 정도로 잘 알

10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의 「건국십년: 1090」, 「대한인물: 제2편」 42, 「국회20년」, 508, 「의원총람」, 126, 157, 「국회20년」, 508.
1024)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40.
1025) 국사편찬위원회, 「건국십년: 1090」
1026)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00.
1027) Ibid., 303.
1028) 「신한신보」 (1940년 11월 28일).
1029) 「신한신보」 (1940년 11월 7일).
1030) 「신한신보」 (1941년 1월 23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려진 기독교인이었다.

장석윤은 1947년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에서 윤선희(尹善姬)와 결혼했다. 그녀의 백부는 남감리교회의 최초 교인 윤치호고, 아버지는 윤치호의 동생인 윤치왕(尹致旺)이었다. 윤치왕은 김규식 박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소개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University of Glasgow)의 의학부를 졸업했다. 일제 강점기 세브란스 의전 교수 및 병원 원장을 역임했다. 해방 후에는 경상남도 마산의 육군 군의학교 교장, 경남 위수사령관 등을 역임했다.[1031] 그는 1933년 이후 새문안교회 집사로 재직하고 있었다.[1032] 장석윤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오래된 기독교 집안의 사위였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대한 글을 기록하거나 발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1970년대까지 스스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 한인 사회에서 친 이승만파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는 삼일절을 기념하여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 대한인자유대회에서 이승만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이승만은 이 대회에 재미한족 연합위원회의 외교위원부 부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2월 28일 이 대회에서 장석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1033] 당일 참석자들은 회의를 걸쳐 결의문을 택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LA와 하와이 호놀룰루의 재미 한족연합회 대표자들, 한미협회와 한국·중국·만주에 산재한 애국지사들의 위임자 및 대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한○○림시정부 승인 건과 련합국 선언서에 한 나라로 활동할 자격 여부 권을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하도록 위임 요구를 제의”한다고 하였다. 이 제안은 장석윤의 동의와 민덕순 여사의 재청 그리고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1034]

이 대회 이후 이승만은 장기영(長基永)을 통해 장석윤에게 제안을 하고 장석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미군 정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1035] 그는 기독교인 김강(Kim Diamond)[1036]과 함께 미국 전략정보국(OSS, The Office

1031) 윤치왕, 「위키백과」
1032) 새문안교회85년편찬위원회, 『새문안교회』 (서울: 새문안교회, 1973), 257-258.
1033) 「신한신보」 (1942년 4월 2일).
1034) 「신한신보」 (1942년 5월7일).
1035)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04.
1036) 1902년 10월 5일 평북 용천 출생. 미국 연합신학을 졸업(1921-192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of Strategic Services)대원으로 활동했다. 즉 이승만의 추천으로 OSS의 전신인 정보조정국(COI, Coordinater of Information)대원으로 선발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습격 후 이승만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장석윤은 COI 제1기생으로 선발되었다. 이때 이 부대는 중경을 경유 한국에 전진할 계획이었다. 1942년 6월에 미국을 출발한 이 부대는 인도의 뉴델리에 도착한 후 전황과 중국내의 사정으로 인해 1942년에서 1943년까지 버마작전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당시 장석윤은 미군에게 체포된 일본군 내의 한인들을 상대로 정보수집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정세, 군사시설, 비행장, 고사포진지, 방공호, 국내유명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1037)]

1944년 4월에는 미14공군기지가 중국 곤명에 설치됨에 따라 그곳에 가서 중경을 오가며 김구 주석과 이승만 사이의 연락임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1944년 7월에 한국으로 직행할 부대편성을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1944~45년 LA연안 산타카타리나 섬에서 아이플러(Eifler) 대령이 지휘한 OSS 한국 침투작전인 냅코 프로젝트(NAPKO Project)에 참여했다.[1038)] 그는 정보활동의 전문가로서 전쟁 전부터 정보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장석윤은 한국주둔 제24군단 사령부 정보참모부(G2)에 있으면서 이승만과 주요정관계는 물론 종교계 등 각 인사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45년 12월에 입국한 그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OSS가 해산 되자 미군정요원으로 편입되어 군정위원으로 귀국”하였다고 했다. 하지의 지시에 따라 잠시 춘천에서 근무했지만 곧 서울로 올라와 24군단 사령부 G2에서 근무하였다. 그의 임무는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정보수집이었다. 그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행되는 25개의 신문을 “30분 동안에 체크하여 중요한 것은 붉은 줄을 치고 신문 제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하지 중장에게 제출”하고 “장군이 다시 체크한 것은 체크한 부분의 신문원문

1037)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10.

1038) 방선주(1995), 「아이프러스 기관과 재미한인의 復國運動」,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제2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해방50주년, 세계 속의 한국학』; 정병준, 「해제」, 『Napko Project of OSS: 재미한인들의 조국정진계획』, 국가보훈처; 정병준(2003), 「朴順東의 항일투쟁과 미 전략첩보국(OSS)의 한반도침투작전」, 『지방사와 지방문화사』 6권 2호;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충돌과 전쟁의 형성』, (2006), 289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을 한 시간 내에 번역하여 그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각처에서 들어 온 진정서와 정당의 성명서의 내용을 발췌하는 일”이었다.[1039] 그는 24군단 G2에서 근무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지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위치에 있었다.

동시에 장석윤은 이승만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 미군정의 검찰종장 이인(李仁)[1040]과 이승만의 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장석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인에 의하면, 이승만이 편지를 통해 자신에게 정기적인 독대를 제안했는데, 이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장석윤이었다고 했다. 이후 이인은 “한 주일에 두 번씩 정부가 수립되어 이 박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만나 서로 건국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했다.[1041] 독대는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년간 계속되었고, 그동안 이 독대를 연결해 준이가 바로 장석윤이라는 것이다.

이인은 장석윤이 미군사령부 G2에 근무하였다고 했다. 미군 정보보고서들도 장석윤이 남한주둔 제24군단사령부 정보참모부(G-2)에서 근무했다고 했다.[1042] 노근리 파일(NoGunRi File)의 한 문서는 몬타나 장(Montana Chang)으로 알려진 장석윤이 前 미국 CIC 요원으로 사정국의 책임자이며 1950년 6월 19일 김태선에 이어 치안국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했다.[1043] 장석윤은 24군단 정보참모부(G2)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승만의 비서역할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하지 옆에 있으면서 매일 신문을 스크랩

1039)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12-313.

1040) 이인(李仁)은 일본 유학 후, 1923년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해방 직후 1945년 9월 한국민주당 당무부장, 10월 12일 미군정청 특별검찰위원회 위원장. 1946년 5월 16일 미군정청 대법원 검사총장에 취임 조선정판사위폐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는 등 좌파 세력 근절. 1947년 이후 단독정부 수립론이 나오자 단정론을 지지. 「자유신문」 (1945년 10월 25일); 「조선일보」 (1946년 5월 19일) 참조.

1041) 최영희 외, 『애산 이인』 (서울: 과학사, 1989), 211, 326. 이 글은 1959년 8월호 「眞相誌」에 실린 것을 재록한 것이다. 이승만과의 정기적인 독대를 연결한 것은 장석윤이었다.

1042)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미대사관 무관, 대한정치공작대사건 등에 대해 미육군부 G-2 참모부장에 보고」, 1950. 4. 14, 『Joint Weeka 14』, 281~283. 이 문서는 장석윤이 Montana Chang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무부 치안국장 후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가 G-2요원 이었다고 했다.

1043) NARA, RG319 E57 Box45 ACOFS G-2 INCOMING+OUTGOING MSGS 1950, USMILAT SEOUL FROM SANA SGD MUCCIO, 1950.6.23. [NoGunRi File No. 9123-00—00726] 몬타나 장이 방첩대에서 근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하여 하지에게 보고하고, 각종 단체의 민원을 하지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하지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군정의 동향을 이승만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인처럼 이승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연락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좌우합작 문제로 이승만이 김성수와 장택상과 협의할 때, 이인에게 연락한 것도 장석윤이었다.[1044]

그런데 그는 단순히 연락만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정치적 사안에도 깊게 개입하였다. 이인에 의하면, 미군정이 김규식과 중간파를 내세워 좌우합작을 시도할 때, 하지와 이승만의 감정의 골이 깊었다고 한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이인에게 대책을 주문한 이도 장석윤이었다고 한다. 장석윤은 이인의 대책대로 이승만으로 하여금 반도호텔에 있는 하지를 만나도록 유도했고, 이만남으로 두 사람의 감정을 풀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날 장석윤은 이승만이 하지의 면담할 때 불쾌한 표정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와 이승만의 면담에 함께 배석했던 것이다.[1045]

정부수립 직후, 장석윤은 이승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 부임했다. 1948년 7월 미 제 24군단 G-2의 와딩턴(Thomas Wathington) 대령과 한국 경무부 고문 에릭슨(H. E. Erickson) 대령과 몇 차례 회담 후 971CIC를 모방하여 남한의 대한관찰부(Korea Reserch Bureau)를 조직했다. 이 기관은 한국수사국, 혹은 민국사정국(民國司正局)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한관찰부는 군인이 아닌 경찰을 포함한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다.[1046] 민정식이 이 조직의 초대 책임자라고 알려졌다.

이 단체는 1949년 1월에 사정국으로 이름을 바꿨다.[1047] 장석윤은 자신이 초대 사정국장이었다고 하면서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이 박사는 나를 불러 ‘이제 정부가 세워졌으니 같이 일을 해야 할 것아니냐’고 하며

1044) 최영희 외, 『애산 이인』, 211-212.
1045) Ibid., 218.
1046) 국군보안사령부, 「초기 한국CIC의 역사」, 『管區歷史』(80-12).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제주4·3사건자료집』 8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2003), 156-158 참조.
1047) 국사편찬위원회, 「건국십년: 1090」 『한국근현대인물자료』에는 장석윤이 1948년 ‘民國司正局長’으로 기록되어있다. 민국사정국, 즉 대한관찰부는 1948년 7월 경 이승만과 미 24군단 971CIC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즉 장석윤은 미군사령부 G-2에 있으면서 971CIC와 관련된 일을 하였으며, 이승만의 사찰조직인 민간인 중심의 CIC의 수사국을 조직단계부터 지휘한 인물이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24군단 G2 근무를 사퇴”하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의 초대 사정국장에 취임했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FBI와 같은 기관을 우리나라에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자료를 얻고자” 했다고 한다. 사정국은 “대통령 비서실서부터 각료 각 부처 고하급공무원의 신원조사”, “정보수집, 비위사실조사” 등이었지만, 국회 및 이승만 대통령 반대자들까지 조사를 했다.[1048] 실제로 '수원청년단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대한관찰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장석윤이 횡령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1049] 서울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지만 1950년 4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1050]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회에서 사정국에 대한 예산을 거부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정국은 해산되었다.

장석윤은 1950년 6월 17일 내무부 치안국장으로 부임하였다. 재판이 종결된 지 2달여 만에 다시 치안국장이 된 것이다. 대단히 큰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였던 그가 2달여 만에 한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치안국장으로 부임한 것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과 강력한 지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장석윤은 1950년 6월 25일 치안국장 명의로「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이라는 제목의 비상통첩을 전국 도 경찰국에 경찰 무선전보로 하달했다. 그 주요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이었다. 치안국은 이 무선전보 추신에서, 인원 수용관계를 고려하여 “각 지서에서는 요시찰인 중 특히 의식계급으로써 사찰대상이 된 자에 한하여 우선 구속하고 성명, 연령, 주소를 명기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치안국은 다시 6월 29일「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내려 보냈다. 이어 7월 11일에는「불순분자 검거의 건」이라는 제목의 치안국장 통첩을 하달하여 전국

1048)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316-317. 사정국이 해산되자 그는 같이 일하던 유능한 인재를 골라 국방부에 추천했고 당시 참모총장인 채병덕과 협의, 정보국과 헌병대에 편입해 6·25때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具泰會(무임소장관), 陳弼植, 任忠植, 李圭星 씨 등이 있다. 또한 이재화도 마찬가지였다.

1049) 「자유신문」 (1949년 5월 21일).

1050) 국사편찬위원회, 『Joint Weeka 14』 1950년 4월 14일, 281-28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1051]

장석윤과 이승만의 관계는 1952년 5월 25일 발생한 부산정치파동에서 잘 나타난다.[1052] 1950년 5·3선거 결과 국회는 무소속의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직 연임에 결정적 위기를 맞이한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무부 장관 장석윤(1952. 2. 5 ~ 5. 24)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4월 과 5월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이용하여 국회를 압박했다.[1053] 장석윤의 지시로 지자제 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은 부산으로 몰려들어 국회의원 성토, 국회의사당 포위, 국회의원소환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했다.[1054] 5월 23일 국무총리 장택상이 장석윤에게 시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해 일단락되었다.[1055] 그러나 그가 개헌 문제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었다. 1952년 6월 2일 장석윤·내무장관 이범석[1056]·경찰정보국·김창룡이 反이승만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개헌을 밀접하게 지원했다.[1057] 결국

1051) 경찰청과거진상규명위원회,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중간조사결과: 종합발표문」, 21~24; 진실화해위원회, 「김해국민보도연맹원희생사건」, 123; 『예천국민보도연맹원 사건」, 90; 『충남서부지역국민보도연매원사건」, 33, 75; 「부산경남지역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165.

1052) 1952년 5월 25일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령관에 원용덕이 임명됐다. 26일에는 정헌주·이석기·양병일·장홍염 등 의원들이 구속되었다. 48명의 국회의원을 태운 전용 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하여 곽상훈·서범석 등 핵심야당 의원들에게 국제공산주의와 결탁했다고 구금했다. (국사편찬위원회, 「5월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무부 조사국분석」, 『미국무부정보조사국(OIR) 한국관련보고서 3 : 한국대사자료집성 55』, 59~68.) 한편 장택상은 개헌을 추진하여, 구속된 의원들을 보석이라는 명목으로 석방하고 경찰을 통해 은둔중인 의원들도 국회에 끌어들여 7월 4일 경찰과 군인에 의해 국회의사당이 포위된 가운데 기립표결을 하였다. 출석 166명, 가 163명, 기권 3명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1053) 「자유신문」 (1952년 2월 17일, 4월 25일). 시, 읍, 면의 의원선거와 5월 10일 도의원 선거에서 자유당과 친 이승만계의 압도적으로 이겼다. 선출된 의원과 우익단체들은 국회해산,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의원 소환 등을 요구했다.

1054)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1998 여름, 166.

1055) 국사편찬위원회, 「5월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무부 조사국의 분석」, 『미 국무부정보조사국(OIR) 한국관련보고서3 : 한국현대사자료집성』55권, 59-68. 이 보고서는 1952년 6월 17일에 작성되었다

1056) 이범석은 장석윤의 후임으로 1952년 5월 24일 내무부장관이 되었다.

1057) 국사편찬위원회, 「이승만의 국회해산 계획에 대한 보고」, 『미국무부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Affairs of Korea) : 한국전쟁자료 총서』65권, 83-84. 6월 2일 작성된 이문서는 미 대사 라니트너가 이승만의 국회해산 계획을 미 국무부에 보고한 보고서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승만은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 및 구금·공포분위기 조성·기립투표를 통해 7월 4일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장석윤은 한국전쟁 전 대한관찰부의 수장으로서, 한국전쟁 중에는 치안국장과 내무부 장관으로서 이승만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개전(開戰) 당일 장석윤의 보고와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 장석윤도 함께 있었다. 이것으로 보도연맹원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쟁 발발 직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장석윤이 깊이 관계되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장석윤은 6월 25일, 29일, 30일, 7월 11일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불순분자에 관한 일련의 지시를 도 경찰국에 하달하였다. 그의 지시로 수십 만으로 추정되는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들이 검거, 구금되어 처형되기 시작했다.

2) 육군정보국 국장 장도영의 적색분자 소탕

육군본부 정보국 CIC 대원이었던 오상근은 6월 28일, 수원에서 장도영이 정보국 1과, 2과, 3과장을 집합시켜 놓고 각 과장과 김창룡 중령에게 잔비(殘匪)소탕과 보도연맹원, 적색분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1058] 장도영의 지시로 육군정보국 방첩과(과장 한웅진)와 부산경남지구 CIC 파견대(대장 김창룡)는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를 색출, 분류, 처형하였다. 그는 정보국이 대구로 이동하여 후방 방첩업무를 강화하였다고 했다.[1059] 대구에서의 '방첩업무 강화'는 낙동강 전선이남, 즉 경북과 경남의 민간인학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상술하였다. 잘 알려졌듯이 그는 초기 한국 기독교 집안 출신이고 자신도 교회 장로였다.

>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기독교적 믿음과 가치관의 훈육을 받았다. 그러므로 군인으로서 수치나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고 살아왔지만 그보다 더

1058)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Ⅰ』, 경기출판사, 2001, 264.
1059) 장도영, 『망향』 (서울: 숲속의 꿈, 2001), 201. 대구에서의 방첩업무 강화는 내무부장관 조병옥의 자서전인 『나의 回顧錄』(民教社, 1959)과 장경근(CIC 간부), 김규현(대구 경찰서) 등의 구술에서 확인된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깊이 잠재한 것은 죄의식이었다. 나는 결코 수치를 면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를 질 수는 없었다. 이것이 나의 판단과 행동에 있어 궁극적 요소다.[1060]

그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적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 믿음과 가치관의 중심에는 죄에 대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타인에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죄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즉 그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기독교적 믿음과 가치관이었고, 이것이 그의 일생을 지배한 논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23년 1월 23일 평안북도 선천군 수정면(水情面) 가물남(加物南)에서 아버지 장인호(張仁浩)[1061]와 어머니 이만준(李萬俊) 사이에서 태어나 덕천교회가 있는 용천군 부라면 덕천과 이웃한 용천군 북중면 진흥동(眞興洞)에서 자라났다. 그는 할아버지 장득황(張得潢), 할머니 김미도(金美道) 숙부 장인찬(張仁讚)[1062], 누이동생 장덕영(張德英), 동생 장도민(張都旼) 등과 함께 살았다. 해방 후 배정념(裵貞捻)과 결혼하였으나 이혼하였고, 1954년 10월 29일 정동교회에서 백기호(白基昊) 박사의 딸 백형숙(白亨淑)과 결혼식했다.[1063] 백기호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백 내과의 원장으로 영락교회 최초 교인 중에 하나였다.[1064]

장도영도 6·25 전쟁 전부터 영락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1065]

1060) 장도영, 『망향』, 264.

1061) 장인호(張仁浩)는 1919년 9월 6일 덕천교회(德川敎會) 장로로 임명되었음. 최석숭 편, 『평북노회사』 (서울: 기독교교문사, 1979), 141.

1062) 정주순(鄭,柱順), 『용천지(龍川誌)』 (용천군지편찬위원회, 1968), 197. 장도영보다 5살이 위 인 장인창은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고, 평안북도청에서 근무했고, 서울 인창(仁昌)산업주식회사를 창립했다.

1063) 장도영, 『망향』, 47-48, 50, 168, 246-247. 이후 장도영은 1954년 10월 29일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강신명 목사의 주례로 백형숙(白亨淑)과 결혼식을 올렸다. 백형숙의 아버지는 백기호(白基昊) 박사로 종로구 서린동의 백 내과의 원장이었다.

1064) 영락교회, 『영락교회 50년사』, (서울: 성원인쇄, 1998) 65. 영락교회 저녁예배는 신의주 제2교회에서 시무했던 이영근(李永根) 집사가 경영하는 장안여관에서 드렸다. 이 예배 참석자는 한경직, 윤하영, 이재명 장로, 백경보 장로, 이영근 집사, 이창은 집사(이영근 집사의 부인), 정재숙 집사(노재헌 장로부인) 등이었다. 이영근에 따르면 백기호가 참여했다고 한다.

1065) 김세희(金世熙)·김성보 면담 2013년 5월 9일. 김세희(85, 출생지 - 평안북도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2010년 3월 신동아가 1962년 미 대사관 기밀문건이라고 소개한 “한국 군부 내 주요 파벌 분석 및 구성원 명단”에 의하면, 장도영이 백선엽에 이어 평안도 파의 “서열 2위의 장성일 뿐 아니라 서울 내 응집력 있는 평안도 출신 민간인 집단-특히 자신이 속해있는 영락교회-과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그의 부친과 모친의 가정은 북한 지역의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했다.[1066] 한편 5.16 쿠데타 직후 한경직 목사는 당시 장도영씨와 외무장관인 김홍일씨의 부탁으로 김활란 최두선과 함께 미국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민간사절단 역할을 한 적이 있다.[1067] 장도영은 영락교회 내에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유래는 매우 오래된 기독교인들의 인맥에 의한 것이었다.

1930년대 신의주 동중 2학년부터 장도영은 한경직 목사를 알고 있었다.[1068] 그는 가끔 한경직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신의주 제2교회에 출석했다. 주일예배 후 한경직 목사가 직접 영어로 가르치는 성경공부에 참석하곤 했다.[1069] 그의 가족은 증조할머니부터 기독교에 입문하였다. 모태신앙인 그는 4-5세 때부터 이 교회 유치원에 다니면서 쓰기, 성경읽기, 노래 부르기 등을 배웠다. 그는 어려서부터 “깊은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 막연하나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이시니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며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당시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의 씨가 내 마음속 깊이” 뿌려졌다고 하였다.

그는 유년시절 조부모(장득황 · 김미도)의 품에서 자랐다. 할머니 김미도의 백부 김건주(金建柱) 목사는 덕촌교회를 설립했고 아버지 김국주(金國柱)는 김건주와 함께 평양신학교(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3회 졸업생이었다.

정주군 관재면 근담동 55번지, 현주소 101 Ridge Rd. Dawsonvill GA30534 미국)는 운흥교회 출신으로 1948년 월남 후 영락교회 출석했으며, 장도영에 대해서는 “용암포 출신으로 신의주 동중을 나왔고, 전쟁 전에 영락교회의 교인”이라고 했다.

1066) “한국 군부 내 주요 파벌 분석 및 구성원 명단,” 『신동아』 통권 606호 (서울: 동아일보사, 2010.3), 547-594.

1067) 「경향신문」 1972년 7월 22일.

1068) 장도영, 『망향』, 378. 그는 1981년 9월 30일 미국으로부터 일시 귀국하여 남한산성에 거하고 있는 한경직 목사를 만나기도 했다.

1069) Ibid., 6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14년에 발행된 『耶蘇敎長老會神學生名籍備考』에 의하면, 1869년 생으로 1901년 세례를 받은 김건주는 1914년 현재 평북 용천부 양하면 양시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그 동생 김국주는 1871년 생으로 1901년 세례를 받았고, 1914년 현재 용천부 남면 덕천동 덕천교회 담임자로 재직하고 있었다.[1070] 김건주는 1912년 목사안수를 받고 1920년 제17·18회 평북노회 회장, 1929년 용천노회 제1대회장을 역임했고, 김국주는 제3대 용천노회 회장을 역임하였다.[1071] 또한 그의 외할아버지는 선천군 가물남(加物南)에 거주하는 이봉혁(李鳳赫)으로 일찍부터 교회장로로 활동했다. 그는 가물남 동네에 교회와 학교를 세웠을 뿐 아니라 미국선교사들이 세운 선천 신성중학교와 보성여자중학교 등에 토지를 기증했다.[1072]

장도영 할아버지는 물론 할머니의 친가, 그리고 어머니의 친가는 용천과 선천에서 매우 유명한 초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그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신의주고등보통학교(신의주 동중) 2학년 말부터 3학년 초까지 말을 더듬었다. 이유는 학교에서 하는 황국신민서사로 인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는 십계명 중 제1계명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이었다.[1073] 따라서 어려서부터 분명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월남한 것은 해방 후 1945년 11월 신의주에서 발생한 신의주학생사건 직후였다. 신의주 동중 교사로 부임하여 숙직실에 기거하고 있을 당시 신의주학생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검속이 강화되자 월남했고, 이어 아버지

1070) 장도영, 『망향』, 50-51. 이 책에는 김미도의 숙부가 김건두(金建枓), 아버지가 김국두(金國枓) 목사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차상진, 『耶蘇敎長老會神學生名籍備考』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1914), 3; 정주순, 『용천지』 (서울: 용천군지편찬위원회, 1968), 98. 김건주는 1899년 부라면 덕천교회를 설립했다.

1071) 최석숭 편, 『평북노회사』 (서울: 기독교교문사, 1979), 315, 68-69, 106, 137. 金建柱 金國柱 등 27명 평양장로회신학교 제3회(1910년) 졸업생, 김건주 1912년 2월 15일 선천읍 남예배당에서 열린 제1회 평북노회에서 조사(助師)로 파송됨, 김건주 1912년 8월 20일 의주읍 서교회에서 열린 제2회 평북노회에서 김건주 목사안수 및 양시교회 파송, 김건주 목사 1920년 제 17·18회 평북노회 회장, 김건주 목사 1929년 10월 7일 용천노회 창립 당시 제1대회장, 용천노회 제3대 회장 김국주 목사.

1072) 동아일보 1929. 8. 20. 이봉혁은 1929년 8월 신성중학교에 2천원을 기부함; 장도영, 『망향』, 51-52.

1073) 장도영, 『망향』, 64, 6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와 가족들도 모두 월남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좌익계열의 '학병동맹'(學兵同盟)에 반대하는 학병 단체인 학병단(學兵團)에 가입했는데 이 단체의 사무실은 영락교회 근처인 영락동에 있었다. 1946년 2월 하순경 군사영어학교 학생으로 입학하였고, 1946년 3월 23일 경비대 참위(參尉, 소위)로 임관하여 대구주둔 경비대 6연대 배속되었다.[1074] 1946년 가을 전북 이리에 본부를 둔 3연대 2중대 중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 탈영을 하는 군인들이 많았는데 그는 주둔지인 군산을 중심으로 체포반을 가동시키었다. 탈영병을 중심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기도 했다.[1075]

1947년 9월 태능 육군사관학교 소속되어 제5기생 생도대 중대장을 하였다. 이때부터 생도들에게 이념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즉 "소련군과 공산당을 몰아내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후보생 교육"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신의주학생의건 시 그들이 무자비하게 어린 학생들을 학살한 행위를 이야기 해주면서 … 반공의 열기를 돋구어 주었다."고 했다. 그 결과 김백일(金白一) 교장에게 호출을 당해 "당신이 사관후보생들에게 너무 정치훈련을 한다고 미 고문관들의 말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육군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지도이념에 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1076] 1948년 5월 부산 주둔 5연대장으로 부임한 그는 5연대를 "민주사회건설의 역군인 이념적 군대로 발전"시키고자 했다.[1077]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일반적인 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한 북한에서의 경험은 이를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그 결과 공산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이념적 군대를 주장하고 이를 소속부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었다. 1948년 8월 한국의 정부수립 당시 그는 "부산의 5연대장으로 있으면서 민주정부수립이 실로 우리민족의 역사적인 위대한 성취"이며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이 민주공화국을 결사보위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굳게 했다"고 했다.[1078]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

1074) 장도영, 『망향』, 162, 166.
1075) Ibid., 170.
1076) Ibid., 173-174
1077) Ibid., 175-176.
1078) Ibid., 651-65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가와 하나님 나라를 일치시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반대되는 공산주의국가는 하나님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즉 한국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건국하는 것이었고, 군대는 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그가 주장하는 정부는 소련 공산주의를 적대하는 정치적 이념(理念)과 종교적 신념(信念)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였던 것이다.

대대로 이어진 기독교집안에서 자라난 장로 장도영은 소련 적대라는 이념적 군대를 주장했고, 방첩과 첩보 그리고 전투정보를 총괄하는 육군정보국장이 되었다. 이따금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첩보와 남한의 방첩에 관한 보고와 지시를 받기도 했다. 그가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기독교 일반의 적대의식을 습득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수원회의에서 적색분자(赤色分子) 색출과 처리를 김창룡과 각 과장들에게 지시한 것과 대구에서의 방첩업무 강화는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휘명령체계라는 큰 조직에서 하나의 부속처럼 다른 조직과 연동(聯動)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념과 신념으로 무장한 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 그러기에 전쟁 전부터 공산주의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군대를 주창했던 것이다. 전쟁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적색분자 색출과 처리를 지시했다. 적색분자에 대한 처리를 지휘·명령한 것은 바로 소련공산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적 신념과 자유민주주체제를 옹호하는 이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내무부 장관 조병옥과 사탄진영 분류·제거

1948년 제주4·3사건을 거치면서 조병옥은 냉전의 진영논리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신념화 하였다. 냉전의 진영논리는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않는 방관자들을 파괴진영, 혹은 사탄의 진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정책지침으로 발전했고, 이것은 제주4·3사건 당시 무장대는 물론 중산간마을 주민들을 모두 파괴진영으로 판단하여 싹 쓸어버리라는 지시로 이어졌다. 전쟁 당시 그의 치안정책은 신념화된 냉전의 진영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리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자 처리와 수복 지역에서의 부역혐의자 처리에서 발견된다.

6·25전쟁 당시 경상북도 경찰국장에 재직했던 조준영은 1960년 경상북도 도지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6·25 사변 당시 가창골서 자행된 학살은 당시 경찰국장인 한경록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예비검속을 실시한 요시찰인을 군당국서 인계받아 처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1079] 대구지역 보고연맹원 등 좌익관련자에 대한 처형 지시를 내린 곳이 치안국이라기 보다 내무부였다는 것이다. 이는 조병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내무 일반 행정은 홍헌표(洪憲杓) 차관에게 정상적 치안유지는 치안국장에게 통솔감독의 원칙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일임"했다고 했다.[1080] 그는 정부가 부산으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남아서 치안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내무장관 재직 10주 동안 나는 한 번도 군복과 전투화를 벗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 밀그램의 말처럼 극단적 자립성을 발휘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자발성은 신념에서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신념은 1930년대 사회복음주의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선에 이루고자하는 신념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제거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이었다. 대구 10월사건과 제주4·3사건 당시 이 악은 공산주의와 이에 협력하여 건국을 방해하는 적으로 규정했다. 그의 경직된 이원론은 자신의 진영을 선으로 자신과 다른 타자를 사탄의 진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6.25전쟁 당시 그를 지배한 논리는 바로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이었다. 사탄의 진영을 제거함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수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입장에 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신념에 근거해 그는 보도연맹원 및 좌익관련자들을 처리하는 것이었다.[1081]

조병옥의 이러한 행위는 부역자 처리과정에도 나타난다. 1950년 9월 25일경 경상남도 도청회의실에서 조병옥 내무부장관은 경상남도 시장·군수·경찰서장 연석회의 중 부역자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79) 「대구매일신문」 (1960년 5월 23일).
1080) Ibid., 306.
1081) Ibid., 300-30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부역자 처단에 있어서는 '大韓魂'을 발휘하여 관에서 엄격 심사한 후에 처단할 것이니 …. 반역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도 자기 형편에 취하여 부득이한 사람도 있을 것임으로 그러한 점도 고려하여 엄중 내사 중에 있다." 1082)

조병옥은 치안관계자 중 가장 먼저 부역자 처리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의 신념이 그를 움직인 것이다. 또한 조병옥은 부역자에 대해 "엄격 심사한 후에 처단"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병옥은 미군정과 전쟁 당시 치안 총책임자였다. 해방 직후 경무부장, 전쟁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대구10월사건 제주4·3사건 등 해방 직후 발생한 사건 진압했고, 전쟁 당시 내무부장관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사찰망을 진두지휘했다. 이 시기 그의 지시는 소련공산주의 적대를 근간으로 하는 냉전의 진영논리에 기초해있었다. 또한 미국무부의 대한반도 정책인 NSC8이 소련적대에 근거해 그들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극 동조했다. 그리고 1948년 5·10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봉쇄정책의 일환이라는 것과 이것이 미국과 남한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NSC8이 예측한 외부 공산주의의 사주에 의한 내부 파괴진영의 반란은 저지되고, 그 진영에 속한 공산주의자와 추종자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무장대와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집단 희생되었다. 집단희생 과정에서 유아, 부녀자, 노인 그리고 무장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자 조병옥은 감염, 사탄의 진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집단 살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바로 이지점에서 기독교 일부 세력이 갖고 있었던 경직된 이원론, 즉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진영을 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타자를 사탄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이 작동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적 논리(냉전의 진영논리), 기독교적 신념화(소련공산주의 적대와 사탄의 진영 일치), 배제와 제거(사탄진영 제거)로 이어진 조병옥의 행보는 오래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 미국무부의 소련정

1082) 「부산일보」 (1950년 9월 25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책과 대한반도 정책, 이승만 등 한국의 유력정치인의 정책, 공산주의 적대를 중심으로 한 냉전의 진영논리를 신념화한 기독교일부 세력과 동조하고 이에 연동한 결과이었다고 판단된다.

8. 지역별 학살 사건과 기독교인들의 활동

냉전의 진영논리에 대한 일부기독교인들의 동조와 연동은 지휘·명령체계 안의 기독교인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남한의 각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다.

전쟁 직전 황해도 청단에 거주하였던 최 목사는 당시 38선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박 전도사가 좌익을 총살하곤 했다고 했다. 그는 코트 안에 개머리판을 짧게 자른 소총을 품고, 좌익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을 38선 이남으로 유도한 후 총살하곤 했다고 한다. 박 전도사는 총살 당시 "개인적인 감정으로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민족의 적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1083] 이처럼 각 지역의 활동 사례를 들고 이들에게 나타난 종교적 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1) 경주의 사례

1946년 경주군 구정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된 내동면 국민회가 조직되었다. 『구정교회 60년사』는 "해방직후부터 이 지역 우익진영은 본 교회 청년회와 교역자들에 의해 구성되었고, 이들에 의해 이 지역의 치안"이 유지되었다고 했다. 또한 "본 교회 청년들이 이 지역의 대규모 좌익진영의 세력들을 직접 진압하여 좌익세력의 근거를 분쇄"시켰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이 좌익세력들과의 대립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났다고 하였다.[1084] 좌익과의 갈등은 이내 민간인 살해로 이어졌다. 이 교회 교인 이었던 최씨는 대구10월사건 당시 내동면 좌익진영의 대표자였던 "최병호는 대

1083) 최명환 구술 녹취록 (2010년 12월 30). 그는 1950년 12월 말경 강화군 볼음도로 후퇴해 있었다. 4863부대의 장교였다고 했다.
1084) 구정교회, 『구정교회 60년사』 (경북 경주: 구정교회, 1984), 102-10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구에서 출감 후에 내동지서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에게 작은 호의를 베푼 후 영지에 가서 사형을 처했습니다.”라고 하였다.[1085] 그의 말을 통해 그와 교인들이 이 사건과 직접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최병호가 10월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감 직후인 1948년 4월 14일 내동지서로 호출된 후 불국사 인근에서 주민들과 함께 집단 총살되었다고 하였다.[1086]

이른바 좌익진영의 “두목”이라는 불분명한 직함을 갖고 있는 최병호(崔炳鎬, 1916. 8. 17 – 1948. 4. 14)는 당시 내동면 구정동에 거주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가 “경주의 부호로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해방 직후부터는 여운형 쪽에 자금을 대는 등의 활동”하였다고 했다. 이후 10월사건으로 구속된 그는 출감 직후인 1948년 4월 14일 호출로 내동지서로 갔다가 불국사 인근에서 여러 명과 함께 사살되었다. 경주경찰서가 1980년에 생산한『신원기록편람』(1980)에 의하면, 최병호가 10월사건에 관련되어 처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087]

당시 이 교회 교인인 최성근은 대구10월사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고 하였다.[1088] 최영내도 “기독청년 47명이 2,000여명의 좌익무리들을 물리쳤다.”고 하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구정마을을 지켜 주셨고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구정교회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였다.[1089] 구정교회 교인들은 이승만의 정치조직인 국민회의 논리, 즉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하였고, 국민회의 활동과 연동하였다. 이들은 공산주의는 물론 최병호와 같은 중간파를 좌익진영으로 분류하고, 이를 부정될 타자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분류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윤리적 정당성을 정의로우신 하나님에서 찾았다.

1085) Ibid, 115. 최병호는 10·1 사건 당시 내동면 우익진영과 협상을 시도했다.
1086) 진실화해위원회, 「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38.
1087) 진실화해위원회「대구 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39, 67-68, 90 ; 참고인 최영자(1936, 최병호의 딸) 통화보고, 2008년 11월.4./2008년 11월.11.; 경주경찰서,『신원기록편람』(1980)에 “10월사건 관련 처형”된 자로 기록됨.
1088) 구정교회,『구정교회 60년사』, 115.
1089) Ibid., 136－13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경주 안강면도 마찬가지였다. 1949년 6월 경주 안강면 육통리 능골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경찰에게 집단 총살되었다. 당시 육통리 이송직전 지서에서 훈방된 육통리 주민 손병윤은 육통1리 흥덕왕능 인근에서 수십 명이 집단 살해되었다고 하였다. 양월리에 거주하였던 이인석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1090] 당시 총살현장에서 생존한 양월리 주민 이조우는 진짜 빨갱이는 잡히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막이 죽었다고 했다. 그 예로 희생자 중 절반 이상이 안강중학교 학생들이었다고 하였다. 취조를 받고 처형될 자들로 분류된 학생들과 주민들은 달이 환하게 뜰 무렵 복스차보다 큰 트럭에 실려 육통리로 이송되었다. 함께 간 경찰 5-6명이 이들을 일렬로 세우고 일제히 총을 쏘았고, 이조우는 옆에 사람들과 함께 쓰러졌다고 한다. 그는 처형장소로 이송되기 전에 안강지서에서 취조를 받았다. 취조 내용은 간단했다. 야산대와 소통했는지 여부였다. 이는 분류의 기준이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냉전의 논리가 아니었다. 이조우는 "무조건 때리는 거지 뭐. 엎어 놓고도 때리고 앉혀 놓고도 때리고 막. 무조건 때리지. 맞기는 많이 맞았어"라고 했다.[1091] 고문과 가혹행위가 존재했고, 이를 통해 공산주이 협력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당시 이들을 체포한 사람들은 경찰, 특경대로 알려진 의용경찰, 서북청년회, 국민회 청년단이었다. 안강국민회청년단장이자 안강교회 심능양 장로의 아들인 기독교인 심의진은 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을 주민들 중 야산대와 소통하거나 좌익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색출하였다. 손병윤은 "심능양의 아들 심의진이 대한청년단 단장"을 했고, "국민회 회장"을 했으며, "서북청년단원들하고 빨갱이 잡으러 다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빨갱이를 "체포하러 다니는 것은 경찰, 특경, 서북청년단하고 국민회 단체하고 서로 섞여 다녔지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국민회, 서북청년단)은 평복입고 경찰은 경찰복입고. 경찰은 이 지방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고 국민회는 아니까 안내를 했죠."라고 하였다.[1092]

1090) 참고인 손병윤 진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참고인 이인석 면담보고서 (2008년 12월15일).
1091) 참고인 이조우 진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1092) 손병윤 구술녹취 (2008년 12월 17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2) 김제의 사례

전쟁 이전에 발생한 좌우대립과 민간인 희생 사건은 개전 이후 대규모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곳이 김제 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7월 28일에는 통사동 숏턴재 입구 야산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원이며 금산교회 집사인 김윤철(金允喆)[당시 26세]이 과거 마을 좌익 인사를 가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몽둥이로 타살” 되었다고 했고, 당시 김갑동(金甲童) 등 12명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50년 7월 19일 부안군 변산에서 김윤철과 같은 동네 거주자 곽삼주(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225번지)가 인근 주민 100여명과 함께 경찰에게 집단 살해되었다. 특히 곽인수는 남동생 곽삼주가 처형되기 전 동네 우익단체 청년들에게 연행되었다고 했다. 김제경찰서에 구금된 직후 부안 변산에서 동생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김대영은 아버지 “김진열이 김제경찰서에 구금된 후 조모가 매일 면회를 다녔으며 1950년 7월 18일경 김진열을 포함하여 눈을 가린 사람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고 하였다. 또한 그의 조모가 부안군 변산에서 김진열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이순태는 아버지 이석환이 1950년 6월 26일 백산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김제경찰서에 구금된 후, 7월 19일 부안군 변산계곡에서 처형되었고, 이후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금산을 비롯해 김제 각지역 주민 100여명이 7월 19일경 집단살해된 것이다.[1093]

남한의 대표적인 우익단체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원인 동시에 금산교회집사 김윤철이 좌익인사를 가해한 이유로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 그런데 바로 9일 전에 같은 동네 곽삼주 등 김제보도연맹원 100여 명이 우익청년단체 청년들에 연행되어 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경찰에게 희생되었다. 곽삼주와 김윤철의 희생 간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역 내의

1093) 신청인 김대영 진술조서 (2008년 7월 10일), 신청인 이순태 진술조서 (2008년 7월 9일), 참고인 곽인수 통화보고서 (2008년 8월 6일): 진실화해위원회, 「전북지역 보도연맹사건」 (2009년 1월 5일) 88, 98, 131-132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좌익과 우익 간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들이 존재했고, 이것이 희생이유였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3) 거제의 사례

전쟁 당시 거제지역 유지인 진정률(陳正律, 1890 – 1958)은 진성봉의 장남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1909년부터 기독교에 입교하여 신앙을 쌓았고 옥포교회와 이 교회에서 1947년에 분립한 아주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했다. 진정률은 1930~1945년까지 진양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거제지역에서나 경남 전지역 통틀어 어업자본가로 이름이 알려졌고, 1947년 국민회 거제군 장승포읍 지부장과 한국신학대학 재단이사장을 지낸바 있다.[1094]

해방 직후 거제지역은 진정률 장로와 진도선 장로와 같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국민회와 같은 우익단체와 인민위원회가 서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관계는 1948년 이른바 남로당의 2·7구국투쟁에 이은 좌익계열에 대한 검거선풍, 보도연맹원 결성, 6·25전쟁 직후 보도연맹원 처형으로 이어졌다. 1945년 말 미군보고서에 의하면 거제지역 기독교인들이 인민위원회에 위협을 받았다. 즉 “인민위원회의 치안대 사령관인 김기호(Kim Ki Ho)가 말하길 ‘(거제도에서-인용자) 교회를 다니려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타를 당할 것이다’ ” 라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조사에 의하면 인민위원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위협했다” 라고 했다.[1095] 이 지역 연구자 전갑생은 거제 장승포 지역에서 진도선, 진정률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이 민족주의노선을 표방했다고 했다[1096]. 즉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의 중심을 이루면서 인민위원회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094) 오마이뉴스 (2003년 7월 30일); https://www.hs.ac.kr/kor/campus/history.php (2014. 1. 1. 검색) 한신대학교 연혁은 “1947년 7월 거제도 진정률 장로 일가의 재산 헌납, 정규대학 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다.

1095) HQ, 10TH INF. DIV. G-2Periodic Report, No.91.45.12.10; HQ, 10TH INF. DIV. G-2Periodic Report, INC# NO.95.45.12.14, 전갑생, 『옥포교회 100년사』 (거제: 늘함께, 1997) 272.

1096) 전갑생, 『옥포교회 10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옥포교회, 1997), 27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런데 기독교민족주의를 표방한 진정률과 진도선은 옥포교회 장로들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옥포교회 100년사』에 의하면, "거제지역의 국민회 간부는 진정률, 조홍갑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홍기(한국민주당 발기인)는 거제지역의 국민회 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한다"라고 했다.[1097] 또한 진도선 장로는 기독교청년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기독교청년운동을 이끌었다.[1098]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정부가 수립되자 대규모 검거선풍이 일어났다. 한편 1948년 2·7구국투쟁 이후 생기기 시작한 야산대는 거제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전갑생은 우익계 인사들이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어렵자 진정률 장로 등 우익인사들이 군에 토벌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우익활동가이자 옥포교회 장로였던 진도선은 토벌군 요청에 대해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요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군의 거제도 파견은 군에서 결정했을 것이다.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대표적인 우익이었던 진정률, 진도선 등이 군부대 요청했으면 가능했을 법하다"는 참고인 윤재희의 진술을 바탕으로 군의 입도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1099]

당시 이 사건으로 살해된 희생자의 수는 "80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 및 희생 추정자는 38명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진실규명대상자 총 27명 중 25명(미확인 2명), 미신청인 13명 등 총 38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해 주체는 16연대와 거제경찰서 및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이었다.[1100]

한편 여문본 등 하청면 실전리 주민들이 1950년 7월 중순경 하청지서를 거쳐 거제경찰서에 구금된 후 처형되었다. 여문본 등 처형된 이들은 국민보

1097) Ibid., 276.

1098) Ibid., 281.

1099) 「거제이야기 백선」의 저자 전갑생의 경우 거제의 대표적인 우익인사였던 진정률 등이 "지역에서 야산대의 준동이 심해 치안이 불안하므로" 군부대가 주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16연대에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진도선 면담보고 (2008년 8월 4), 참고인 윤재희 면담보고(2008년 3월 11): 진실화해위원회, 「거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11월), 15-16에서 재인용.

1100) Ibid., 33-35. 각 읍·면별로 신청인 및 참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장승포 마전동 공동묘지 : 40명, 둔덕면 : 15-17명, 능포 : 7-22명, 장승포읍 : 6명, 하청면 : 3-4명, 지세포리 : 1명.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도연맹원이었다. 여문본의 조카 여영오는 거제군 하청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 신용우, 하청면 대한청년단장 김병현, 신종율 등이 지서 순경들과 의논해서 국민보도연맹원 명단을 만들고 관리하였다고 했다.[1101] 하청면의 사례는 거제에서 국민회가 국민보도연맹원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사등교회 100년사』는 "거제지역의 보도연맹원 학살을 보면, 국민회·민보단·한청(대한청년단-인용자)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였다.[1102] 거제지역 국민회의 산파 역할은 한 것은 진종률 등 기독교 인사들이었다.

4) 옹진의 사례

1950년 수복 직후 경기도 옹진군 북도면(장봉리, 시도리, 신도리)에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치안대가 조직되어 있었다. 천용택은 전쟁 개전 직전 "청년단 북도면 단장 겸 예비군 육군 소위"로 있으면서 북도면 방위를 책임지고 있었다.[1103] 그는 청년단 중에 30명을 선발하여 섬의 방위를 하고, 치안대 간부들과 방위대 감찰대원은 불순분자들을 색출하였다.[1104] 이들은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자들을 체포·구금·심사·분류하여 조서와 함께 경찰에게 인계했다. 북도면 부역자들을 "창고에 가두고서 일일이 조서를 작성하게 했다. 조서 작성한 김종수(퇴직 초등학교 교장)가 불철주야 수고"했다고 한다.[1105] 이처럼 치안대가 주민들을 조사하여 예심한 결과를 결찰에게 제출한 것은 1950년 7월에 발표된 자위대조직에 대한 대통령령과 동년 10월 김태선 치안국장이 지시한 심사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따른 것이었다.

1950년 수복 직후 신도국민학교에 조직된 치안대 조직과 2001년 현재

1101) 신청인 여영오 진술조서 (2008년 3월 4): 진실화해위원회,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 44에서 재인용.
1102) 전갑생, 『사등교회 100년사』 (도서출판 선인, 2010), 286. 전갑생은 자신의 논문인 "경남지역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 『전쟁과 인권: 2001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참조하여 이같은 주장을 하였다.
1103)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25』 (기독교복음운동중앙회, 2001), 9. 이 청년단의 정식 명칭은 대한청년단이다. 대한청년단은 전쟁 직전의 호국군, 개전 직후 국민방위군의 모체가 된다.
1104) Ibid., 26.
1105) Ibid., 26-2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들의 직분은 다음과 같다.

북도면치안대
대　　장　　천용택(기독교복음운동중앙회 총재)
부 대 장　　천윤근(감리교 장로 사망)
총무과장 겸 방위대장　김준식(전 민정당 지구당 총무부장)
선도과장　　전성실(감리교 장로)
선도차장　　전양옥(감리교 권사)
정보과장　　김완식(감리교 권사)
정보차장　　나병희(감리교 목사)
감찰과장　　이수환(사망)
감찰차장　　천인근(감리교 장로)
감찰대원　　김화성, 김종옥, 김명근, 김창학, 천세근, 천대규, 유윤기[1106]

위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병희 목사는 당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에 위치한 서도중앙교회 담임자로 재직하고 있었다. 특히 나병희는 인민군 점령기 초기에 김완식과 초등학교 천정에 며칠 동안 숨어 있으면서 “북도면 부역자들의 명단과 놈들의 동태를 살펴 일일이 쪽지에 적어다 주었다”고 한다.[1107] 이들이 준군사조직인 치안대를 구성하여 부역자처리 등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냉전의 논리와 연동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천용택의 주장에서 확인된다. 그는 “이 세계의 인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확신 있는 공산주의자요 또 하나는 확신 있는 크리스챤이다. 자유세계와 공산주의와의 대결은 무력의 대결 이전에 이데올로기 대결”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를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한편으로 하는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고, 이들이 상호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자유주의 이념과 기독교의 신념을 일치시키는 한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가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경직된 이원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로 나타

1106) Ibid., 25.
1107) Ibid., 1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나고 있었다. 북도면 치안대가 부역혐의자들을 색출·심문·분류한 것도 바로 이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다.

인천상륙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도 냉전의 진영논리와 연동하면서 공산주의자와 이에 동조했다고 추정되는 주민들을 색출, 심문, 분류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영흥도에서는 정보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를 지휘한 것은 KLO 크라크(Eugene F. Clarke) 대위이었다. 함명수를 비롯한 해군정보국도 이 정보전에 참여하였다. 정보국은 상륙작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영흥도와 덕적도를 포함하여 섬지역의 치안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해군정보국은 덕적도, 영흥도 등 정보기지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좌익관련자들에 대한 검거·분류·처형을 지휘했다. 그런데 처형을 주도한 해군정보국과 해군에는 기독교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이들은 검거된 주민들을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을 외우는 방식을 통해 훈방될 자와 처형될 자로 구별하기도 했다. 기독교적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분류의 기준이 된 것이다.

한편 해군은 1950년 8월 18일 701, 702, 703 함과 301, 307, 309 정을 동원하여 덕적도를 포위했다. 이어 장근섭 중위가 지휘하는 육전대가 덕적도를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 28명이 사살되었으나 아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08] 이어 1950년 8월 20일 701함을 중심으로 영흥도

1108) 정작참모부군사연구실, 『한국전쟁 해군사료 작전경과보고서』제1권 (해군본부: 2001), 143-155;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2 (서울: 을유문화사, 1973), 383. 이 책은 덕적도에는 1개 소대와 좌익분자로 조직된 자위대가 있었다고 했다. 덕적도 점령을 지휘한 이희정은 인민군은 없었고, 내무서원만 있었다고 했다; 김종환 구술녹취 (2009년 4월 9); 배동의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9일); 변흥렬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서재송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안풍화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이삼근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인명배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9일); 현인애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사살 28명의 적은 대부분 덕적도 주민들이었다. 폭격을 피해 덕적도 밭지름이라는 해안에 숨어 있던 산모 한상렬과 진말 해안에 피해 있던 정신지체 장애인 홍로마는 해군이 쏜 총에 사망했다. 덕적도 주민 김종환, 배동의, 변흥렬, 서재송, 안풍화 이삼근 인명배, 인윤배, 현인애 등은 덕적도 사망자들은 해군의 보고와 달리 부역자들이 아니라 비무장 민간인이라고 했다. 김광우, 『김광우 목사 자서 빛으로 와서』 (도서출판 탁사, 2002) 117-120. 김광우 목사는 해방 직후 자월도에 거주할 때 이 지역 자치위원장이 되어 주민들에게 배급표대로 배급을 했다. 그러나 이 쌀에 눈독을 들이던 인천 소속 경찰이 이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인명배등 덕적도 구술자들은 배급을 받은 주민들을 국민보도연맹원에 가입되었다고 했다. 1950년 8월 18일 직후 해군은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을 색출·처형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점령 작전이 전개되었다.[1109] 영흥도를 점령한 해군은 내리에 소재한 영흥국민학교를 영흥도 해군본부, 내리 임윤배의 집을 해군첩보대, 내리 면 창고를 부역혐의자 구금 장소, 진두를 해군의용대 파견대 사무실로 삼았다.

천용택, 나병희, 나종석, 김완식 4명의 북도면 대한청년단원들은 인민군 점령 직후 배를 이용하여 영흥도로 피난하던 중 인민군으로 위장한 국군에 체포되어 "해군 헌병대 소속 의용대가 있는 진두 파견대"에 구금되었다. 심문을 하는 군인들은 "어제도 공산당 첩자 9명이 이 섬에서 붙잡혀 부산으로 보냈"다고 했다. "부산으로 보낸다는 것은 … 뎀마에 실고 나가 발목에 돌을 달아 물에 던져 버리면 흘러흘러 자연히 부산까지 떠내려 간다하여 빨갱이를 그런 식으로 사형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조사를 하던 군인들은 천용택 등을 첩자로 간주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대장은 천용택과 3명의 청년단원들에게 기독교인들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시편 23장을 외워보라고 하였고, 천용택 등은 이를 모두 외우고 생존할 수 있었다.[1110] 천용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파견-인용자) 대장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자기는 인천 모 장로교회 집사라고 인사하며 악수를 하게 되었다. 사형선고를 받아 죽음 직전에 놓여 있던 우리들에게 김 집사를 보내 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파견대장의 안내를 받아 우리 일행은 부대 본부가 있는 영흥국민학교로 가서 정보처장에게 우리를 애국기독청년들이라 소개해 주었다. 처장도 인천 모 장로교회 집사라고 반갑게 맞아 줌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동기를 자세히 이야기 하고는 무기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요청하였더니 함장도 인천제일교회 신자라며 진정서를 써주면서 전해주고 간청을 해보겠다기에 즉석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정보 처장에게 전하고 우리는 선박이 있는 부두로 돌아왔다.[1111]

천용택은 "백구함 함정이 … 덕적 앞바다에 있는 모 함정으로 보급을 받으러 간 사이"인 "1950년 9월 17일 새벽, 이승엽 서울시인민위원장이 자기의 가족들을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 많은 인민군을 화성을 거쳐 영흥도로

1109) 정작참모부군사연구실, 『한국전쟁 해군사료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57.
1110)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25』, 19-19.
1111) Ibid., 2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보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섬에 좌익분자들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 청년단 간부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한다. 몇 시간 후 백구호[1112] 정이 돌아와 의용군과 합동 작전으로 인민군들을 몰아냈고 “지방에서 날뛰던 빨갱이 들은 다시 붙들려 희생당하게 되니 이곳 섬에서는 좌우익 청년들이 잠시 동안의 희생자를 많이 낸 고장이다”라고 했다.[1113]

한편 전성실, 천인근, 전양옥은 천용택 등을 찾기 위해 덕적도로 가는 도중 해군 함대를 만나 심문을 받고 덕적도 창고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4일째 되던 날 함장이 직접 상륙하여 최후 심문을 하게 되었는데 신자라는 말을 듣고는 진짜인지 알아보자며 차례차례 주기도문을 외우라 하고 다음은 사도신경을 외우라 하여 모두 외우니 그때서야 앞으로 다가서며 악수를 청하고 자신은 인천제일장로교회 장로의 아들이며 자기도 그 교회에 나가고 있다면서 석방시켜주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1114]

백구호는 덕적도와 영흥도 등지를 오가며 이른바 오열 및 각 섬의 불순분자들을 체포·심문·분류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흥도 진두 해군 헌병의용 파견대장, 영흥초등학교 주둔 정보처장, 백구호 정장으로 추정되는 장교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이들 모두 성경,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통해 좌익관련자들을 구별하였고, 분류된 이들 중 일부를 수장시켰다. 또한 영흥도에서 군경에게 처형된 사건을 숨기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 덕적도와 영흥도 등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옹진군 영흥면 외리 744번지에 거주하는 김옥기와 내 4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충구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버더니라는 곳에서 해군에게 15명 정도의 주민들이 집단 처형되었다고 했다. 특히 김충구는 버더니 처형 현장이 자신의 집에서 40여 미터 거리에 있기에 이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1115]

또한 당시 영흥면 외리 업벌 마을에 살던 김흥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1116] 인천상륙작전 직전 영흥면 내리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해군 본부와

1112) 백구호는 함이 아닌 정으로 해군이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되던 배였다.
1113)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25』, 21-22.
1114) Ibid., 23.
1115) 김충구 구술녹취 (2009년 4월 10일); 김옥기 구술녹취 (2009년 4월 10일).
1116) 김흥석은 구술 당시 외리 802번지에 거주했다. 업벌은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대한청년단 본부가 위치해 있었다. 1950년 8월 25일 내리에 있는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영흥면 주민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이북에서 내려온 똑똑한 한 사람이 인민군 복장을 하고 99식 소총을 거꾸로 메고 인민군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런데 이들은 인민군이 아니라 해군이었다. 북한의 노래를 하는 사람을 체포해서 그중 22명을 고개 넘어 길을 따라 내려가 용마바위 인근 십리포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총살했다. 당시 김흥석은 초등학교에서 처형될 사람 분류, 총살현장 이동, 총살 등 당일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당일 경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사장에 대한청년단과 노인들이 구덩이를 팠고, 자신은 이들을 이송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이다.[1117] 당시 국민학생으로 내리에 거주했던 박병순은 이곳에서 집단 처형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1970년대 제방공사 당시 땅을 파다가 수십 구의 유해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다.[1118] 2009년 구술 당시 83세이었던 윤종하는 빨갱이들을 영흥면 내리 작은 진여라는 바닷가로 이송을 했고, 해군이 총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박병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1119]

그런데 천용택에 의하면, 영흥국민학교에 주둔한 해군정보처장도 인천 모 장로교회 집사였다고 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다.[1120] 즉 “영흥도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난 데 없이 딱콩총(99식 소총) 소리가 들려옴으로 … 따발총을 들고 있는 세 사람이 배를 대라고 총을 쏘고 있는지라 할 수 없이 배를 모래사장에 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말투가 순 이북말씨고 복장도 인민군 복장 전투모에 흰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니 이들은 분명 인민군이로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끌려간 곳은 “해군 헌병대 소속 의용대가 있는 진두 파견대”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파견대장은 인천 모 장로교회 집사였다는 것이다.[1121]

따라서 기독교인을 대장과 정보 책임자로 두고 있는 “해군 헌병대 소속 의용대진두 파견대”와 “해군정보처”가 인민군으로 위장하여 주민들을 대

약 1Km 거리에 새롭게 마을이 조성되었다.

1117) 김흥석 구술녹취 (2006년 7월 1일).

1118) 박병순 구술녹취 (2006년 7월 1일).

1119) 윤종하 구술녹취 (2009년 4월 8일); 박병순 구술녹취 (2006년 7월 1일).

1120)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 · 25』, 20. 초등학교 인근 왈수네 집으로 알려진 면사무소 건물은 해군중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1121) Ibid., 17-18, 2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상으로 분류작업을 하여 이들 중 22명을 내리에 위치한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집단 살해한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분류 방식은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인민군 노래 등이었다.

이 외에도 박만순의 아버지 박재순 등은 선재에서 처형되었다. 이승엽의 작은 아버지 이종선도 처형되었다. 1950년 여름 뽀루새가 익을 무렵 해군이 상륙하니까 코언챙이로 알려진 이승엽의 친척 이승태가 99식 소총으로 해군 한 명이 사살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군이 이승태를 처형하였고, 3일 후 대낮에 이승태의 가족들을 집에 가두고 수수깡과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1122] 또한 김홍석은 "업벌에 사는 처녀 둘을 묶어서 끌고 나갔는데 며칠 후에 뻘겋게 임금왕자를 발바닥에 썼더래요. 해군 함대에서 돌멩이 달아서 물에다 집어 쳐 넣었데요. 여자 둘을. 그게 공교롭게 업벌 해수욕장 그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들어 온 거 동네사람들이 끌어다가 묻은 사실이 있어요." 라고 했다.[1123] 이와 관련하여 천용택은 심문을 받을 때 조사를 하는 군인들은 "어제도 공산당 첩자 9명이 이 섬에서 붙잡혀 부산으로 보냈"다고 했다. "부산으로 보낸다는 것은 … 뎀마에 실고 나가 발목에 돌을 달아 물에 던져 보리면 흘러 흘러 자연히 부산까지 떠내려 간다하여 빨갱이를 그런 식으로 사형집행을 했다" 라고 했다.[1124]

한편 초등학교에서 분류된 주민들은 다시 재분류되었다. 당시 이를 분류

1122)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2, 384. 702 함장 이희정은 승선한 부역자들의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으로 언챙이를 총살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을 거제도로 이송했다고 했다. 임윤태 구술녹취 (2009년 4월 7일). 이에 대해 당시 영흥면 해군의용대 소속이었던 임윤태는 거제도로 보낸다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다.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25』, 18. 당시 임윤태가 소속되어 있었던 해군의용대는 천용택과 그 일행들을 체포해 조사하였다. 의용대는 천용택의 일행을 "기독교인들을 가장한 첩자"로 판단했고, "공산당 첩자 9명"을 "부산으로" 보낸 것처럼 부산으로 보내자고 했다는 것이다. 천용택은 이에 대해 "부산으로 보낸다는 것은 살려서 함대에 태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뎀마에 실고 나가 발목에 돌을 달아 물에 던져 버리면 흘러 흘러 자연 부산까지 떠내려 간다 하여 빨갱이들을 그런 식으로 사형집행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수복 구술녹취 (2009년 4월 7일). 또한 당시 학도호국단 소속이었던 임수복은 부역자들을 "게제도수용소로 이송했다"는 말이 있다고 하자 영흥도 일대에서 모두 죽였다고 했다. 따라서 거제도 이송은 처형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앙일보사가 편찬한 『민족의 증언』2 (서울: 을유문화사, 1973) 399쪽에는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영흥도 첩보전에 대한 증언자로 박윤태(朴允泰)가 나오는데, 이는 앞에 구술자인 임윤태(林允泰)의 오기이다.

1123) 김홍석 구술녹취 (2006년 7월 1일).

1124)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25』, 1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 기관은 내리 원동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뒤뜰에 대나무가 있는 집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다. 영흥면 “지방사람 한 사람이 입회해서 이렇게, 원동네 집이라고 하는데 십리포가기 직전에 대나무 밭이 있는 집. 대문하고 중문하고 사이에 이렇게 테이블을 갖다 놓고 의자 놓고 거기서 심사를 해요.” 라고 했다.[1125] 이에 대해 당시 경비를 보았던 소년단원 임수복과 임근배는 대나무가 있는 집이 임윤배의 집으로 당시 해군첩보부 사무실이었다고 했다.[1126] 강흥석은 심문을 한 사람은 파견대장 등 첩보대 소속군인들이었고 처형은 주계장으로 알려진 최병규 등이 지휘했다고 한다. 그런데 1950년 9월 중순 일시적으로 인민군이 영흥도에 진입했을 때, 파견대장은 권총으로 자살을 했고 최병규는 뗌마를 타고 가자가 사살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민위원장이었던 박준영도 이 무렵 처형되었고, 오재미와 김정섭은 현재 외2리 마을 앞 무선내 고랑에서 처형되었으며. 이승엽의 형 이승화의 처와 장경교의 형도 이 무렵 처형되었다.[1127]

1.4후퇴 당시 이승엽 삼촌 이종선의 처 두 명과 아들 이변택, 그리고 딸도 처형되었다. 영흥지서주임 김경천[1128]의 지휘 하에 이승엽의 가족 4명과 친척, 그리고 영흥면 보도연맹 가입자 수십 명이 지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1·4후퇴 당시 대부 흥성골(흥성리)로 알려진 남 5리와 영흥도 내 4리 버더니라는 야산에서 처형되었다. 전쟁 중 업벌 마을 희생자만 20여 명이었고, 당시 업벌은 54가구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처형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시 업벌에 거주하였던 박경의와 이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1129] 박경의는 박만순이 자기의 가장 큰 동생이라고 했지만 당황해서인지 희생된 아버지와 자기의 여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아버지는 당시 60세 정도의 노인으로 대부도 ‘선재 뱃말’에서 여동생과 함께 처형되었다고 했다. 함께 구술하던 이간원은

1125) 김흥석 구술녹취 (2006년 7월 1일).
1126) 임수복 구술녹취 (2006년 7월 1일, 2009년 4월 7일); 임근배 구술녹취 (2009년 4월 7일).
1127) 김흥석 구술녹취 (2006년 7월 1일).
1128) 구술자 김흥석에 의하면 영흥면 지서 주임으로 오기 전에 강화 방죽말 인근 지서, 혹은 온수리 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1129) 박경의·이간원 구술녹취 (2009년 4월 10일). 구술 당시 박경의는 88세이었고, 이간원은 82세여서 업벌 희생자들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박경의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부역혐의 없이 애매하게 처형되었다고 했다. 박경의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종선과 그 가족들도 대부분 해군에게 처형되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네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얌전한 분이었는데…. 이종선 네는 자식도 나가서 활동한 것은 없어.” 라고 하면서 이승엽의 숙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처형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승엽의 조카인 이병희 형제들의 좌익 활동으로 인해 아버지 이승화와 가족 들이 대신 살해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부역활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코언챙이로 알려진 이승태가 영흥도로 상륙하는 해군 1명을 99식 소총으로 쐈고 이로 인해 그의 아내 · 처 · 아들과 딸 · 며느리까지 모두 집단 살해 되었다. 이승태는 연행되었고, 가족들은 집에 구금된 채 불에 타 죽었고, 이중 두 명의 여자는 해군이 발에 돌을 달아 바다에 수장 시켰으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승엽의 숙부라는 이유만으로 이종선과 그 가족들이 처형되었으나 부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박만순의 아버지와 누이동생도 마찬가지로 처형되엇다. 그러나 부역을 한 이병희의 형제 때문에 이승화 등 가족이 희생되었다. 따라서 부역혐의자 가족들에 대한 대살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영흥면 사무소 직원이었던 임근배(林謹培)는 자신의 집인 옹진군 영흥면 내리 657에서 손가락으로 당시 영흥면사무소, 해군첩보대 사무실이었던 임윤배의 집, 그리고 부역자를 구금했던 면 창고를 알려주었다. 이 건물들은 처형장소인 십리포에서 반경 400여 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었고 한 눈에 다 보였다. 그는 면 창고에 “강화에서도 데려오고, 어디서도 데려오고…. 하여간 사상이 불건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거기다” 구금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인천상륙 작전이 시작된 9월 15일 경 해군들이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이들을 처형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 전에는 해군첩보대가 부역혐의자들을 심사하여 분류하였다고 한다. 당시 임병선, 초등학교 교장 박세봉과 그의 처가 첩보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부역하던 여자가 생존하기 위해 손가락질을 해서 체포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일부는 훈방되고 임병선은 감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몽둥이로 타살 당했다고 한다. 일부는 첩보대 사무실 뒤에 있는 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넘어 육골에서 첩보대에게 처형되었다고 한다.[1130] 또한 처형 집행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사람은 주계장 최병규로 칼빈 소총으로 분류된 부역혐의자들을 많이 총살했다고 한다.[1131]

영흥면 부역혐의자 검거, 분류, 처형을 지휘한 것은 해군 정보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영흥면 사무소 직원이었던 임근배(林謹培)는 당시 해군 첩보대장으로 중령 함명수 중령이 있었고, 임병래 소위가 있었다고 하면서 임병래는 1950년 9월 2차로 상륙했을 당시 내리 십리포에 정박한 작은 배에서 죽었다고 했다. 또한 백구호가 오갔다고 했다.[1132] 임수복도 백구호가 영흥도를 오갔다고 했다.[1133] 당시 해군의용대 출신의 임윤태(林允泰)는 임병래 소위가 해군첩보대 장교였고, 9월 14일 인민군이 영흥도로 진입했을 때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일부 해군의용대는 인천상륙 첩보전을 전개하는 크라크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1134]

그런데 1950년 9월 당시 해군정보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문기섭은 해군 정보국 정보국장이었던 함명수 소령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정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덕적도와 영흥도에 파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함명수[1135]가 "미극동군사령부주한연락사무소, KLO와 한국해군의 'Combined Intelligence' 해군 담당자" 였다고 했다.[1136] 따라서 영흥도 주둔 첩보대는 해군정보대 직속 파견대라고 할 수 있고 함명수 정보감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족의 증언』은 당시 해군정보국장이었던 함명수(咸明洙) 소령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다.

1130) 임근배는 그 여자가 임윤배의 처라고 했다.
1131) 임근배 구술녹취 (2009년 4월 7일).
1132) Ibid.,
1133) 임수복 구술녹취, (2006년 7월 1일, 2009년 4월 7일).
1134) 임윤태 구술녹취 (2009년 4월 7일).
1135) 함명수는 1948년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제 1기 SIS를 김순기와 함께 수료했다. 김순기는 사건발생 당시 영흥도와 해안에 주둔하고 있었다.
1136) 문기섭 구술녹취 (2010년 2월 25일, 2010월 28, 11월 4일). 문기섭은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 감리교 장로이다. 그는 특히 손원일 제독과 친분이 있었고, 1950년 12월 경 함명수에 이어 KLO와의 'Combined Intelligence'의 책임자로 부임한다. 그의 군 관계 기록과 시기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해안 동키부대와 울팩부대를 조직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담당자이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나는 8월 13일에 손 제독으로부터 극비 지시를 받고 해군 특수첩보대를 구성했어요. 해군 작전국에 근무하는 김순기(金舜基) 중위, 장정택(張正澤)·임병래(林炳來) 소위를 불러서 취지를 설명하고 각자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병조장 이상의 고급하사관 3, 5명씩을 뽑아서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어요. … 17명의 해군 첩보대가 편성됐습니다. (8월-인용자) 17일 밤에 (부산-인용자) 자갈치 시장에 모여 부두에 숨겨뒀던 백구호(白鷗號)를 타고 영흥도로 떠났지요. … 이희정(李熙晶) 사령관에게 해군보조선이 영흥도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취했구요. 이 사령관이 영흥도를 탈환한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1137]

당시 이 배에는 인천상륙작전 대비 정보전을 담당할 계인주 대령, 연정 소령, 그리고 최규봉 등이 함께 타고 있었다.[1138] 이를 통해 백구호(흰 갈매기 호)를 이용하여 함명수 정보국장은 영흥면 내리 주둔 해군첩보대를 지휘했고, 이것은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현장 지휘는 KLO 크라크(Eugene F. Clarke) 대위였다. 당시 703 함장이었던 이성호(李成浩) 중령에 의하면, 크라크 등 첩보대원을 덕적도에서 태워 영흥도로 이송했다고 했다.[1139] 크라크 대위는 9월 1일 덕적도에 도착해서 한국해군 703함을 타고 영흥도로 들어왔다. 당시 함께 들어 군인은 연정 소령, 계인주 대령, 최규봉, 클라크혼(F. Clarkhorn) 육군 소령과 존 포스터(John Foster) 육준 중위 등으로 추정된다.[1140] 영흥도는 인천상륙작전 첩보 사령기지로 사용되었고, 이곳의 지휘자는 크라크 대위였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첩보전을 지휘한 것은 Combined Intelligence의 책임자인 클라크 대위였다. 예하에 계인주·연정·최규봉 등 KLO 소속 한국 군인들이 있었고, 한편으로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의 특별 지시로 이 작전에 참여한 함명수 등 해군정보국을 두었다. 해군정보국을 지휘한 것은 정보국장 함명수 소령이었고, 김순기 중위와 19월 14일 전투 중 자살한 임병래 소위였다. 이들은 대한청년단 등 현지 청년들을 채용하여 해군의용대를 조직하고 이들을 지휘하였다. 해군의용대는 마을의 유지들과 함께

1137)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2 (서울: 을유문화사, 1973), 394-395.
1138) 이창건, 『KLO와 한국전 비사』 (서울: 지성사, 2005), 56.
1139)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2, 390.
1140) 이창건, 『KLO와 한국전 비사』, 6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부역혐의자들을 색출했고, 이를 첩보대에 넘겼다. 임병래 등 첩보대는 내리에 소재한 마을 창고에 구금된 부역혐의자와 해상에서 검거된 피난민들을 심문·분류하였고, 해군은 분류된 자들을 십리포, 육골, 버더니, 선재 등지에서 집단 학살했다. 당시 해군첩보대와 이들의 지휘를 받는 해군의용대에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부역혐의자와 피난민을 분류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게 하는 등 기독교적 신념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민간인학살 지휘·명령체계에 포진한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안강, 경주, 거제도, 김제, 인천, 수원, 여수순천, 제주, 옹진 등 일부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하면서 야산대·반군협력자, 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등 좌익관련자들을 색출하고 분류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해야한다는 자체 논리를 만들었고 이는 민간인학살 지휘명령체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논리와 일치했다. 비록 일부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이를 통해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한 세력을 부정적 타자로 분류하고 이를 제거해야한다는 입장이 남한의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인학살에 가담한 종교적 논리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것을 냉전의 진영논리를 기독교적인 틀에서 신념화했다고 보았다. 냉전진영논리에 대한 신념화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와 그에 동조·협력하였다고 추정되는 민간인들을 주민들과 구별하여 분류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다. 이 정당화 작업은 기독교계에서는 사상전의 형태로 나타났고, 기독교인 활동가들에게는 국민보도연맹원 결성 등 분류작업으로 나타났다. 이럴 때 공산주의진영과 자유민주주의진영을 구별하고 공산주의진영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는 냉전의 진영논리의 핵심은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이 이원론은 공산주의진영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붉은 마귀처럼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원론과 이를 반드시 배제·제거해야한다는 배타적 형태로 나타났다. 즉 공산주의진영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속한 자유민주주의를 선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에 근거하여 공산주의 및 이에 동조했다고 추정되는 민간인들을 색출, 분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민간인학살에 가담한 종교적 논리의 핵심은 자신을 선으로 자신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부정적 타자, 곧 악으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9. 민간인희생 사건에 가담한 종교적 논리

남북분단과 전쟁 시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일정한 논리와 신념을 가지고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따라서 민간인희생 사건에 가담한 종교적 논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이 종교적 논리는 공산주의 적대를 근거로 하는 냉전의 진영논리와 동조·연동하였다. 냉전의 진영논리와 기독교의 종교적 논리가 서로 왕래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것을 경직된 이원론, 혹은 극단적 이원론이라고 보았다. 이 이원론은 자신을 선으로 자신과 다른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특징과 부정적 타자를 구성·배제·제거하려는 배타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학살에 가담한 종교적 논리의 형성과정과 정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는 해방 이후 기독교인들의 사상전과 사상전의 결과물인 국민보도연맹원 분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본다.

1) 기독교인의 사상전과 국민보도연맹원

교회, 기독교 단체, 국민회 등 우익단체와 정부기관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 동조·연동하면서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사상전을 전개했다. 이들의 사상전은 국가권력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사상전은 설교, 강연, 글 등 이론적인 범주에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개인과 집단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의 사상전을 이론적인 범주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부정적 타자로 규정된 이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제거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기독교인들은 공잔주의와 이에 동조했다고 추정된 사람들에 대한 사상전을 전개했다. 이 사상전은 이들을 부정적 타자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있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이 정부기관과 국민회 등 우익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국민보도연맹원을 분류하는 일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사상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니 이 싸움이 아직은 사상적 싸움이므로 이 정도가 변하여 군사적 싸움이 될 때 까지는 사상으로 사상을 대항하는 싸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1141] 기독교인 대통령 이승만은 공산주의와의 사상전을 선포했다.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이하 YMCA)는 1948년 10월에 발행된 「기독교청년」에 실린 "전국청년신앙동지들께 檄(격)함: 우리들의 투쟁대상"이라는 글에서 국제 공산주의가 "苛烈(가열)한 사상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이 단체는 "무신론자"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 "진리투쟁의 복음적 항쟁", 즉 "3십만 남녀기독교청년의 십자군 동지들"이 유물사상을 격파할 "복음의 聖戰(성전)"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1142] 형무소 형목이었던 장성옥(張聖玉) 목사[1143]는 1949년 "공산주의와 민족의 위기"에서 "세계의 거대한 2대 조류"가 존재하고 이것이 한국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둘 중에 하나를 독립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1144] YMCA 연합회 간사였다가 총무가 된 김치묵(金致默) 목사는 기독교청년들이 "한데 뭉치여 천국건설"을 위해 "유물적인 외적(外敵)에 대항하여 싸울 때"라고 하였다.[1145] 천주교의 강아오스딩은 1948년 종현인쇄사가 발행한 『천주교와 공산주의』라는 책에서 "사상전을 좀 더 깊이 고찰" 보면 그 상대방이 우익 대 좌익, 민주주의 대 독제주의, 종국에는 "유신론 대 유물론의 싸홈"이라고 했다. 이 싸움은 "진정의 구세주는 예수냐? 막스냐? 카톨릭의 白이냐? 맑시즘의 赤(적)이냐? 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물론 사상에 대항하고 격파하는 사상적 십자군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1146]

1141)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11-12.
1142) 主幹, "전국청년신앙동지들께 檄함: 우리들의 鬪爭對象," 「기독교청년」창간호, 6-7.
1143) 장성옥 목사는 해방 후 광주형무소 형무목사였다.
1144) 장성옥, "공산주의와 민족의 위기," 『사회문제와 기독교』(서울: 십자가사, 1949), 52-53.
1145) 김치묵, "YMCA 운동의 전망," 「기독교청년」창간호, 29-30.
1146) 강아오스딩, "自序," 『천주교와 공산주의』, 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해방 직후부터 대통령, 기독교청년, 목사, 천주교인 등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사상전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장성옥 목사가 말한 것처럼 이 사상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간의 상호 적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사상전을 유물론자와 유신론자간의 싸움으로 단순화시킨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종국에는 진리와 거짓 간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르크시즘, 즉 사탄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싸움을 하나님의 백성의 진리투쟁, 복음적 항쟁, 사상적 십자군 운동으로 정의하였다.

기독교인들의 복음적 항쟁은 해방 이후 기독교인들의 건국운동, 즉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집중된다. 예를 들어 황은균 목사는 「부흥」이라는 잡지의 "삼팔선과 기독교청년"에서 "우리 기독청년은 거저 보고만 있다든지 우리의 건국을 공산주의 유물론자에게나 어느 정당에게 마끼고 말것인가?"라고 하면서 "신앙과 자유를 위하여 의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1147] 즉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정부수립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지지는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집단을 분류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책과 그 지침에 동조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제·제거해야한다는 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단순히 논리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났다. 국민보도연맹원 분류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강원도 평창읍교회 장인덕 목사는 전쟁 전 반공강연과 청년운동을 전개하였고, 평창 국민보도연맹원 고문으로 위촉되었다.[1148] 서울 마포구 윤판석 장로도 오제도 검사로부터 직접 보도연맹원 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오제도는 윤 장로의 자서전 『간증백세』에 "젊은 사도"라는 짧은 글을 기고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147) 황은균, "삼팔선과 기독교청년," 「부흥」(1948년 1월호), 11.
1148) 장병욱, 『6·25공산남침과 교회』 (서울: 한국교육공사, 1983), 232-23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내가 부장검사로 있을 때, 윤 장로님이 마포지구 기독교연합회회장으로 계실 때, 국민보도연맹 마포지구 지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현재도 학교법인 동고학원, 장로님은 이사로 나는 감사로 우정 수십 년의 친분을 가지고 있다.[1149]

윤판석 장로는 오제도의 추천으로 국민보도연맹원 마포지구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보도연맹원 조직과 운영에 일정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판석 장로의 정치적 성향은 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전국순회강연에 대한 견해에서 발견된다. 그는 1945년 12월 중순, "우리 기독청년동맹[1150]은 … 공산당 … 타도를 위한 집약적인 선무, 그리고 기독청년들의 지방조직과 전국적인 행동통일을 위한 체계화 등으로 … 남한 일대를 순회의 길에 올랐다."고 하였다. 그의 정치적 신념은 공산당 타도였다.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선무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청년회의 지방조직과 전국조직을 체계화하였다. 1945년 11월 마지막 주일 공덕 장로교회에서 열린 마포기독교청년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윤판석 장로는 "무신론자 앞에, 유물주의 사상 앞에 기독청년들은 남의 일 인양 쳐다만 보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밀어닥치는 유물사상과 여우같이 넘나드는 붉은 마수"를 꺾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십자가 깃발 아래로 민족전선을 가다듬고 … 우리 마포기독교청년연합회를 중심한 하나의 운동에는 금이나 틈이"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1151] 그는 공산주의를 유물론자 및 무신론자로 규정하고 이를 "붉은 마수"를 뻗치는 적으로 규정했다. 즉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와 이에 동조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십자가에서 찾았다. 이어 기청전국연합회 및 마포기도교청년연합회의 목적을 공산주의 제거로 보았다.

기청전국연합회는 1946년 10월 좌우합작을 지지한 거의 유일한 기독교

1149) 오제도, "젊은 사도," 『간증백세』 (서울: 신망애출판사, 1970), 62-63. 1940년 전후 오제도가 신의주 동부성결교회에 출석할 때, 윤판석 집사가 이 교회의 어린이 부흥회를 인도자로 오면서 만남을 가졌다.

1150)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전신.

1151) 윤판석, 『간증백세』, 140-14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단체로 알려졌다.[1152] 그러나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좌익과 실질적인 협상을 모색한 중간파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설립 초기 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중간파의 김규식 장로이었지만, 윤판석과 일부 회원들은 철저히 이승만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었다.[1153] 따라서 이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엄요섭 목사는 기청전국연합회의 활동을 "그리스도화의 조국을 건설해 보자는 애국운동이었다."고 하였다.[1154]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었다. 건국의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김성섭은 "기독교청년들은 국가 장례를 위하여 좌익분자들과 정면대결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1155] 맹기영은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건국의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주장하였다.[1156] 한국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국가, 혹은 자본주의 국가로 건국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의 건국론은 공산주의를 적대하고 자본주의체제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다는 것이었다. 윤판석 장로는 강력한 공산주의 적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오제도 검사는 윤판석 장로에게 국민보도연맹원 마포지구 지도위원을 권했고, 윤 장로는 이를 수용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사상전이 국민보도연매원 분류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오제도 집사의 국민보도연맹원 분류와 정등운 목사가 가담한 국민보도연맹원 수원지부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독교인들의 사상전이 국민보도연맹원 분류로 이어졌다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기독교인으로 국민보도연맹원 조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수원종로감리교회 정등운 목사였다. 「자유신문」에 의하면, 1949년 11월 국민보도연맹 수원지부 결성준비위원

1152) 「자유신문」 (1946년 10월 11일).
1153) 윤판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250-252. 미소공동위원회 개회 전날(1946년 1월 15일) 김규식 박사 집에서 회의가 예정되어있었다. 그런데 유판석을 비롯한 기청 임원 일부가 먼저 이승만과 만남을 가졌다. 이후 김규식을 만나 미소공위에 참석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투표결과 "불참 8명, 참석 6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미소공동위원회 불참을 가결한 바 있다.
1154) 엄요섭, "기독청년운동에서 잊을 수 없는 일들," 188.
1155) 김성섭 "실감나던 일," 171-172.
1156) 맹기영, "지방 계몽 갔을 때," 18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회가 조직되었는데 당시 수원 보도연맹원은 5백 명이라고 하였다.[1157] 11월 10일 수원 신풍초등학교 강당에서 전향자 6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도연맹원 수원지부 선포대회가 열렸다.

> 과거의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약진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남노당 자수자들의 수는 경향 각지를 막논하고 증가하여가는 바 보도연맹 수원지부에서는 지난 10일 하오 두시부터 수원 신풍초등학교 강당에서 중앙으로부터 간부 다수 참집한 가운데 자수자 6백여 명이 모여 선포대회를 개최하였다하는바 회순은 진두백 씨의 사회로 먼저 국민의례가 있은 다음 정등운(鄭登雲)[1158] 씨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김영래 씨의 취지 급 강령랑독을 한 다음 본부 간사장 대리로 정(鄭) 사무국장의 정렬에 넘치는 훈시 랑독이 있음 다음 고(高) 인천지검장을 비롯하여 각 간부들의 격려사와 환영사가 잇은 다음 하오 5시경 성대하고도 장엄리에 끝낫다고 한다.[1159]

수원 보도연맹원 결성 당시 경과를 보고한 사람은 수원종로감리교회의 담임자이자 감리교 복흥파의 수원지방 감리사인 정등운 목사였다. 수원 국민보도연맹원은 좌익과의 싸움과정에서 결성되었다. 장병욱 목사는 해방 직후 정등운 목사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수원시 종로교회의 정등운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1946년 수원에서 국민당(國民黨)을 조직하고 회장에 임하여 당시 격렬했던 좌익과 싸운 인물이다. 묘하게도 같은 교회 안에는 이하영(李夏英)목사[1160]가 인민위원

1157)「자유신문」(1949년 11월 10일).

1158) 1901년 10월 26일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에서 정춘식씨 장남으로 출생. 학력: 1914년 사립 동화학교 졸업, 1919년 서울 경신학교 졸업, 1921-1923년 피어선 성경학교 졸업, 1924년 감리교 협성 신학교 수료, 1925-1928년 일본 고베 관서학원 신학부 졸업. 경력: 1923-1924년 덕적 합일학교 교원, 1928-1930년 일본 시모노세끼/모지 등에서 개척 전도, 1931-1934년 인천지방 대부교회, 화도교회, 홍천지방 양덕원교회에서 담임목회, 1937년 목사안수, 1934-1942년 강화읍교회 담임, 1943-1954년 수원종로교회 담임, 1954-1956년 서울신문사 사장, 1959년 인천 율목교회 담임, 1963.4-1972.3월 서울 남지방 만리현 교회 담임, 1969년 3월30일-1971년 4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부연회 연회장, 1972-1981년 미국 워싱턴 한인연합감리교회 시무. 자유당 화성군당 위원장.

1159) 「자유신문」 (1949년 11월 22일).

1160) 「자유신문」 (1946년 3월 3일). 그는 수원 민주주의민족전선 상임위원이었고, 1927년 강릉교회에서 임시 휴직 후 1931년 자원 은퇴 하였다. 수원 초대교인이자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장(人民委員長) 직을 맡아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사실은 해방 직후 교회까지도 이데올로기의 대결장이었다는 의미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예인 것이다. 여기서 정 목사는 국민촉성회를 만들어 맞섰다. 그리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반공강연도 하였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자유 없고 반종교적이며 이름뿐인 그들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주었다. 그러나 고초도 많이 겪었다. 수원 봉담면 같은 곳에서는 지부를 결성할 때 좌익들이 곡괭이와 몽둥이를 들고 뛰어 들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1161]

이 글은 정등운 목사의 구술을 토대로 장병욱 목사가 작성한 것이다. 정등운 목사는 독립 촉성회를 조직하는 한편 이 조직을 기반으로 각 지역을 다니며 반공 강연을 하였다. 그런데 독립 촉성회의 정확한 명칭은 1946년 2월에 조직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다. 수원지방의 경우 정등운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1946년에 국민회를 조직하여 우익단체의 기반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반공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등운 목사가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근거는 공산주의가 반종교적이며 자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공산주의를 무신론자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조차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적대시 했다는 점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천황의 항복으로 해방이 되었다. 민중은 갈 바를 모르고 사회상은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웬 놈의 빨갱이가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 교회 원로목사의 가족까지, 교회 학교 교장과 직원까지 전부 좌경하였으니 말이다. … 나는 1946년 수원지방 감리사가 되고, 교회와 지방을 위해 활동하다가, 나라 없이 백성이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으로 목숨을 놓고 일어서서 한 단체를 만드는데, 이름을 수원 독립촉성국민회라 하고 발기총회를 열고 … 회장직을 맡아 4-5년을 일했다.[1162]

1919년 진남포에서 3·1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자였다.

1161) 장병욱, 『6·25공산남침과 교회』, 125. 이 인용문은 1980년 3월 8일 정등운 목사가 직접 진술한 내용을 장병욱 목사 요약한 것이다.

1162) 정등운 목사 자필이력서. 화성군사편찬위원회, 『華城郡史』 (경기도: 화성군, 1990), 753-75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정등운은 1946년도에 조직된 국민회 수원지부장으로 4-5년 동안 재직했다.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도 그는 국민회 수원지부장이었다. 그는 국민회를 각 면에 조직하는 과정에서 수원지역 교회들을 이용했다. 또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국민회에 가입하여 공산당을 막는 일에 앞장서게 했다. 예를 들어 당시 성호면(현재 오산시-인용자) 국민회 회장은 오산교회 목사 김교철(金敎哲, 1881-1956)이었고, 총무는 이은경(李殷敬, 1901-?) 장로이었다.[1163]

정등운 목사는 복흥파 수원지방 감리사와 국민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산주의 적대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그는 위에서 "웬 놈의 빨갱이가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 교회 원로목사의 가족까지, 교회 학교 교장과 직원까지 전부 좌경"이라고 했다. 정등운이 빨갱이로 규정한 사람들의 정체가 실제로 공산주의자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좌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당시 수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이하영 목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빨갱이로 규정하여 배제하였다. 이것은 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는 국민회 수원지부 회장으로서 국민회의 정치적 판단의 논리, 즉 우리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와 공산주의 및 자기편이 아닌 사람을 빨갱이로 규정하는 냉전의 논리에 충실한 것이다.

정등운 목사는 교회를 이용하여 반공강연을 하는가 하면 이승만의 정치단체인 국민회 수원지부를 각 면마다 조직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원 보도연맹원 조직과정을 주도하고, 1949년 11월 10일에는 직접 수원 국민보도연맹원 지부 선포대회에서 경과보고를 하였다. 정등운은 수원지역 국민회와 보도연맹원 조직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 그는 좌익적 경향, 즉 '좌경' 민간인들을 빨갱이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그가 보도연맹원을 일반 시민과 구별하여 분류할 때 기독교적 신념, 즉 공산주의는 반종교적이라는 신념이 작동했고, 수원지방회라는 교회 조직을 이용했다. 따라서 이것은 기독교인 한 개인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의 생각과 행동은 기독교일부 세력의 종교적 논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신념과 그 신념에 근거한 활동이 수원 국민보도연맹원으

1163) 화성군사편찬위원회, 『華城郡史』, 754-755. 반월면 천곡교회 전재풍 목사는 이 일로 투옥되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로 귀결되었고, 개전 직후 수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은 집단 살해되었다. 평시 빨갱이 적대라는 냉전의 진영논리는 자신과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이들을 반대편으로 규정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들을 보도연맹원이라는 특정 단체로 분류하였다. 타자 규정과 이에 근거한 분류는 주변의 상황이 경직되면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이어지는 회랑(回廊) 역할을 한 것이다. 바로 정등운 목사를 비롯한 수원지역의 일부 교회는 냉전의 진영 논리와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일치시키면서 보도연맹원을 일반시민과 구별하여 분류하는 일을 주도했던 것이다.

2)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기독교인들과 국민보도연맹원

앞의 사례를 통해 국민회, 기독교, 국민보도연맹원 분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회 결성 발기인이자 전라북도지부장 배은희 목사를 통해 기독교와 국민회가 어떤 것을 매개로 상호 연동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배은희는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의 발기인인 동시에 핵심 임원이었다.[1164] 그는 대구성경학교를 거쳐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했다. 경상북도 경주교회, 전주서문외교회 등 17년 동안 목회를 했다. 해방 후 “이승만 박사의 정치노선을 따라 적색분자소탕에 진력함으로써 정계에 명성”을 떨쳤다. 그는 국민회 전라북도지부 지부장, 국민회 최고위원, 대한국민당발기준비위원장, 2대 국회의원(지역구 경상북도 달성, 소속정당 대한국민당) 등을 역임했다.[1165]

1946년 9월 7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국민회 제2회 전국대표자대회가 개최되었다.[1166] 배은희는 이 대회에서 신익희와 함께 임시집행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국민회 총재 이승만 박사는 이날 각 도지부장과 협의를 한 후,

---

1164) 그는 1887년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 북회동 215번지에서 태어나 슬하에 裵寶石, 裵雲石, 裵福石을 두었다. 배보석은 기청전국연합회 전라북도 지부장이었다.

1165) 강진화, 『대한민국 인사록』 (서울: 내외홍보사, 1949), 67; 국회20년, 482;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歷代國會議員總覽』 (서울 :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77), 38, 89; 전주서문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893-1993』 (서울: 쿰란출판사, 1999), 448, 460.

1166)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6년 9월 8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8일 국민회의 새로운 임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도 조선문제에 대하여서는 소련과 합작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로 인해 좌우합작이 실패했음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167] 이승만과 국민회는 공산주의와 이에 합작을 주장하는 중간파를 정치적으로 배제했다.

1948년 10월 6일 소공동 동회에서 배은희 목사와 신익희를 중심으로 대한국민당 발기준비위원회[1168]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9일 서울시 공관에서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국민당 발기총회를 열고 임시의장으로 배은희 목사를 선출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시(國是)로 정한 “일민주의”를 당시(黨是)로 결정했다.[1169] 1948년 11월 13일 서울시공관에서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민주의’를 당시로 하는 결당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신익희의 당의 성격과 정신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배은희 목사와 신익희 두 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1170]

한편 국민회 각 도위원장 회의가 1949년 11월 21일 국민회 회의실에서 김효석(金孝錫) 내무장관 참석한 가운데 배은희 목사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회의 이후 배은희 목사를 포함한 각 도 대표 10명은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고 회의에서 결정된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임석한 김효석 내무장관은 국민운동에 대하여 “국민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치안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1171] 국내 치안의 총 책임자인 내무부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국민회 각 도 대표 회의가 열렸고, 지방조직의 확대강화를 결정했으며, 중견간부를 육성하여 마을의 치안을 확보하고 산업을 증산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접견을 통해 국민회는 이를 보장받았다. 국민회는 정치단체이었으나 부락

1167)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6년 9월 8일).
1168) 「경향신문」 (1948년 10월 8일).
1169) 「자유신문」 1948년 10월 10일).
1170) 「대동신문」 (1948년 11월 16일).
1171) 「서울신문」 (1949년 11월 23일). 이 회의에서는 14일 개최된 전국애국단체총연합회 회의에서 결의된 “국회의원 임기연장반대 등 7개 항목과 지방자치법 조속 실시 등 6개 사항”에 관한 것이 협의 되었다. 결의 사항 중 “조직편성촉진의 건에 대하여는 국민반 조직을 금월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12월 15일까지 반원 명부를 중앙본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지역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각 부락 단위로 중견청년으로 하여금 20명씩으로 1隊를 조직하여 부락치안·산업증산 계몽운동 등의 사업도 추진시킬 것을 시달하였다”고 한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중앙조직차원에서 결의한 것이다. 더욱이 이 결의는 국민보도연맹원이 전국 각 지역에서 조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대통령이 인정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이 당시로 정한 일민주의는 어떤 것인가? 「주간서울」에 실린 "나를 왜 일민주의자라 하나"에서 배은희는 일민주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기독교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천하인간을 한 혈맥(血脈)으로 즉 동등으로 지으셨다는 성서를 보시고 대관(大覺)" 한 이승만이 "세계가 일민이며 민족마다가 일민"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차별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일민주의를 국시로 제창"했다는 것이다. 1948년 5·10선거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정당의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 "일민주의를 당시(黨是)로 하고 결성된 대한국민당"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일민주의야말로 … 생명이며, 진리인 동시에 세계평화의 복음"이라고 했다.[1172] 그는 일민주의가 기독교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의 정책지침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민주의가 무엇인지 1949년 이승만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일민주의개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민주의는 한마디로 공산주의 적대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 이념의 산물이다. 이승만은 『일민주의개술』에서 소련 공산당의 "거짓 선전에 빠져서 남의 부속국이나 노예가 되거나 또는 공산당과 싸워 이겨 민주국가들이 자유 복리를 누리게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야만 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1173] 특히 일민주의는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일민주의 입장에 서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즉 "하나를 만드는 데에 장애"가 되면, 이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1172) 「주간서울」 (1949년 12월 5일). 그는 "내가 이 박사님을 承顔하게 된 때는 1946년 4월 국민회 전국대회에서 대한독립촉성협의회를 국민회라 개칭하게 되자 협의회 固守派와 문제가 되어서 각 도 대표자와 같이 敦岩莊을 방문하고 협의회냐 국민회냐를 판결을 받으러 갔던 때이다."라고 했다. 이어 "민족대표자대회 당시의 내가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1, 2차씩 회무타협하기로 3개월간을 계속"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은 거짓이 없는 민족주의자요, 애국자이며 기독교신자이며, 자비의 인격이시며, 투쟁의 인격이시며, 고집의 인격이시며, 智謀(지모)의 인격이시며, 선견적 정치가"라고 하면서 "그를 존경하며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다.

1173)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1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이다.[1174] 이런 입장은 해방 직후 공산주의-중간파-김구 배제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를 만드는 데에 장애가 되는 존재들이란 누구인가? 일민주의를 체계화한 안호상 문교부 장관은 "만일 제 자신이 민족의 분열을 일삼음도 죄악이려니와 제 민족을 분열시키는 남들을 그대로 버려둠도 죄악이다."이라고 하면서 "자유과 평등을 방해하며 파괴함은 물론 죄악이려니와, 자유의 방해자와 평화의 파괴자를 도리어 방해하지 아니하며 파괴하지 아니함도 또한 죄악이다."라고 했다.[1175] 일민주의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협상을 주장한 중간파는 물론 공산주의와 중간파를 적대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민주의자들은 "모든 주의들과 주장들을 모조리 다 버리고, 오직 이 일민주의의 깃발 밑으로 모여야 된다."고 주장한다.[1176] 따라서 일민주의에서 벗어난 존재는 우리편이 아닌 반대편이라는 것이다. 이는 극단적 이원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진영논리가 일민주의의 본질이었다. 이것이 이승만이 이끄는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의의 정책지침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대한국민당의 산파역할을 한 국민회의 주요 요인 중 기독교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개전 직전인 1949년과 1950년 전국 시·도·군 단위의 기독교출신 국민회지부장은 아래와 같다.

> 강익형 국민회 김천 지부장, 구연직 국민회 충북 지부장, 김병서 연백군 룡도면 국민회 회장, 김병수 국민회익산지부장, 김복문 국민회 청도지부장, 김봉학 국민회연안온천지부 부회장, 김상돈 재미한국인국민회 교육부장, 김선 국민회 명동지부부녀부장, 김양수 국민회순천지부장 1950년 現在 국민회중앙본부총무, 김준희 국민회진안군지부장, 김호열 국민회 진안군지부부회장, 나판수 국민회전라남도지부감찰부장, 남송학 국민회용산구지부장·중앙상무위원·서울시지부 재정부장 대한청년단 용산구단 단장, 박근영 국민회온정지부고문, 박영구 국민회신태인지부부위원장, 배은희 국민회전북지부 위원장, 백태성 국민회안동지부후생부장, 송봉해 국민회해남군지부장·시국수습대책

1174) Ibid., 7.
1175) 安浩相, 『일민주의의 본바탕』 (서울: 일민주의연구원, 1950), 25, 34.
1176) Ibid., 2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위원장, 송진백 국민회대전시지부감찰위원장, 신창균 국민회상무위원·국민회강원도사무국장·한청경기도지부부단장, 신현돈 무주군국민회 지부장·대동청년단단장, 신현모申炫模 국민회황해도대의원, 심문 국민회중앙총본부조직부장, 엄병학 국민회임실군부지부장, 오석주 대국민회고흥군지부지부장, 오하영 국민회부위원장, 원무경 국민회의정부지부장, 원창규 국민회광주지부문교부장, 윤석구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윤선욱 국민회신태인지부고문, 윤형중 국민회논산군지부장, 이남규 국민회, 이만녕 한청예천군위원장·국민회예천군위원장, 이요한 국민회전라북도위원장, 이윤영 국민회부위원장, 이일래 국민회마산지부간부, 이종순 국민회춘성지부장, 임영호 국민회순천지부감찰위원장·대동청년단순천단부부단장, 정등운 국민회수원지부장·수원국민보도연맹원임원, 정순모 국민회전라남도지부위원장, 조중서 국민회조직부차장, 조필현 국민회간사·국민회 총무차장·서울시 부회장, 최지한 국민회영동지부장, 허장국민회강릉지부부위원장, 황두연 국민회순천지부지부장.1177)

위에 인용된 사람들은 국민회 소속 기독교인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것은 통해 국민회 중앙본부는 물론 기독교출신 시·도·군 지부장이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이런 국민회가 국민보도연맹원 등 좌익관련 희생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의 기독교인이면서 국민회 임원이 있는 곳에서 국민회가 국민보도연맹원 결성을 주도하거나 좌익관련자희생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각 지역 국민회가 보도연맹원 결성과 좌익관련자희생 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회 소속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177) 국사편찬위원회, 2013년 1월 15일 '국민회 기독교'로 검색. . 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setId=180583&totalCount=52&kristalProtocol=&itemId=im.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표 18> 전쟁 전후 기독교출신 국민회 회원의 활동[1178]

시기	사건	지역	국민회 활동 내용		
			명칭	활동	비고
해방기	토벌	경주 내동	내동면 국민회	·'48년 4월 6연대가 주민 손장호 등 집단 살해한지 4개월 후 경찰과 함께 온 국민회원이 집을 태우고 양곡 갈취.	3일 후 경찰6명이 유족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
	10·1 사건 토벌	경주 내동	내동면 국민회	·10·1사건 당시 구정교회 주축으로 이루어진 내동면 국민회가 좌익과 전투. ·'48년 최병호의 살해와 관련됨.	국민회 다수가 구정교회 목사, 장로 및 교인
	10·1 사건 토벌	경주 안강	안강 국민회 청년단	·안강 국민회청년단장 심의진 - 안강 국민회 회장 심능양 장로 아들 ·심능양 장로 안강교회, 육통리교회 개척 ·심의진 총 소지하고 안강지역 10월사건 가담자 체포. 외지에서 지원 나온 경찰, 서청, 특경대와 함께 토벌.	안강제일교회 심응섭 목사와 김진수 장로는 1946년 10월사건 당시 좌익과 협상한 지서주임 미군정에 고발.
	토벌	거제	국민회 거제지부	·국민회 거제지부장 하전원 ·야산대 가족에 대한 정보는 경찰에게, 빨치산 등 좌익활동에 대한 정보는 사찰계에게 제공.	청년들의 약점을 잡아 한청단원으로 가입시킴
	토벌	거제	국민회 거제지부	·국민회 거제 지부장 이종정 토벌군 요청	이런 이유로 '50년 5월 경찰에 의해 희생됨
	반탁 집회	고흥	국민회 고흥지부	·반탁집회 주도.	
	여순 사건	순천	목사 전도사	·목사와 전도사가 순천 북초등학교 모인 주민 중 우익분류. ·분류된 우익이 반군가담자 색출	분류된 주민3-4백명 봉화산 골짜기에서 처형됨.
			국민회	·주민 중 좌익 및 반군 가담자 색출	
	여순 사건	상사	상사면 국민회	·국민회장 백학성, 이후 한청단장 ·청년단원 마을 마다 2명 배치, 사찰과형사와 지서에 반군협조자 정보 제공 ·국민회장에게 선처 부탁	체포, 취조(고문), 분류, 행불. 처형(우산포 보정산 등) 서청 주민 척살

1178)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주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괴산·청원(북일, 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남양주 진접.진건면 부역혐의희생 사건」,; 「보성·고흥 지역 여순 사건」; 「서부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희생 사건」; 「순천지역 여순 사건」 ; 「아산 부역혐의희생사건」; 「안동 부역혐의희생 사건」; 「여수지역 여순사건」; 「여주 부역혐의희생 사건」;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 「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완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전남 동북부 국민보도연맹 사건- 광주·광산·여수·순천·광양·고흥·곡성·구례·나주·보성·장성·화순 - 」;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해남군 민간인희생 사건」;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영동.옥천.보은.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 「포항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참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0.1, 토벌	영천	국민회 영천 지부	·국민회 청년단 정기환, 국민회장 정도영 ·청년단 경찰과 함께 10.1사건 관련자 체포. 지서 경비섬. ·1949년 국민회 청년단 토벌 참여.	청년단 10.1 사건 후 대거 경찰 입문
	토벌	완도	약산면 국민회	·약산면 국민회 서기 박병환 전쟁 중 한청 약산면 단장. 곤고지산 토벌 참여	
전쟁기	보도연맹	하동 옥종	옥종면 국민회	·하동군 옥종면 국민회지부장 ·보도연맹원 조직 주도. ·이승만 정권의 단체이기 때문에 가입하면 좋을 것이라 설득함. ·1946년 5월 하동군 국민회집회에 이승만과 주민 3만 명이 모임.	보도연맹원 1950년 5-7월(음) 진양군 명성면 용산고개 등지에서 처형됨.
		고성	국민회고성지부	·탁임조 고성국민회 회장 고성보도연맹 결성 참여하고, 지도위원이 됨.	
		경상남도	국민회고성지부	·탁임조 고성국민회장 경남보도연맹 선포대회 **임시발기인**으로 참여.	
		고령	국민회고령지부	국민회 고령지부 자수격려대회 및 보도연맹조직.	
		성주군	국민회성주지부	성주 국민회 지부장이 성주보도연맹원 지도위원역임.	
		충북	충북	충북 보도연맹 감찰부장 차근호	
		광산군 삼도면	삼도면국민회	국민회장 권유로 보도연맹가입. 전쟁 후 국민회 사무실로 연행된 주민 암탁골에서 처형됨.	
		구례	국민회구례지부	국민훈련원 설치, 좌익혐의자(보도연맹원) 800명 대상으로 교육함. 10기 300명 교육마침. 보도연맹원에 교육은 구례군국민회 지부가 담당, 주로 국민회장들이 교육함. 구례지부장의 설득과 서장 안종삼의 결심으로 다수 보도연맹원 생존	경찰서장과 담당검사가 교육이수자에 한해 1950년 8월 15일 보련제외 약속함.
		득량면	득량면 국민회	국민회장의 권유로 가입된 보도연맹원 중 약 80명이 덕고개, 150명이 그럭재에서 희생	보도연맹원은 여순사건 당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청원	국민회충북지부	지부장 차근호 등이 보도연맹충북지부 결성. 차근호 충북지부 감찰부장(?)	
		진천	국민회진천지부	·보도연맹 결성 주도. 국민회 회원이 내민 장부에 이름을 작성하면 보도연맹원이 됨. ·국민회 간부 1달에 1회 국민회 사무실앞에서 보도연맹원에게 “빨갱이 몰아내자”는 취지로 교육함. ·국민회에서 진천군 보도연맹원에게 신분증과 수첩 지급 ·마을책임자 매일 사무실로 가서 수첩에 출석도장 받음	진천군 보도연맹지부장 이인옥, 1개리에 30여 명으로 16개리였음. 최소 3-4백명. 회원들은 마을별 제식훈련. 보도연맹원 봉호산 등에서 집단 살해됨.
		포항	국민회포	·지부장 이일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항지부	·오학생, 성영도 등 7-8명의 국민회 등 우익단체의해 총살	
		정부 내무, 법제 위원회	심사위원회	전쟁 중 보도연맹원으로 적대세력에게 협조하지 않은 자는 시군읍면별로 조직한 심사위원회에 심사 후 합격된 자 도민증 지급 및 차별 대우 철폐	심사위원회 : 시장, 군수, 읍면장, 사찰주임, 지서주임, 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부인회 책임자
	부역	남양주	진접면 국민회	국민회원 이진수 민족청년단 이준범을 좌익으로 분류	이진수 국회의원 이준범 생존
		아산	국민회아산지부	국민회 등의 단체가 부역혐의자 체포 및 분류.	한청, 국민회 등 치안대로 조직
		안동	국민회 안동지부	국민회장 이인영 인민군 점령기 안동에서 생존	
		여주		치안대장 이철상 목사 부역자 피해를 막고자 함.	
		울진	국민회	한청과 함께 마을별로 조직됨.	
		해남	국민회 해남지부	국민회회장 김만제 등이 참석하여 시국수습대책위원회 조직, 시국수습대책위원회 부역자처벌기준 마련 후 서장지시로 각 지서에 통보.	현산면 월송리 딱골재 김영진 과장 주도로 집단 학살.

위의 표를 통해 전쟁 전 국민회가 군경과 협조하여 좌익관련자 색출을 주도했다는 것, 국민회가 국민보도연맹원을 시민들과 구별하여 분류하는데 일역을 담당했다는 것, 부역혐의자 처형 당시 국민회가 이들을 분류 심사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중 일부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된다. 특히 정부 내무위원회·법제위원회가 심사위원회를 조직할 때 사찰계 형사는 물론 국민회 임원을 심사위원으로 두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존재했지만, 국민회와 국민보도연맹원 결성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군경토벌 및 부역혐의자 분류에도 국민회가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의 표에 나타난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거제 하청면의 경우 “하청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 신용우, 하청면 대한청년단장 김병현, 신종율 등이 지서 순경들과 의논해서 국민보도연맹원 명단을 만들고 관리하였다.”[1179] 또한 진천 국민회는 국민보도연맹원 결성을 주도하였다. 진천면 삼덕리 분회장이었던 박시덕은 진천국 국민회가 보도연맹원 분류, 교육, 관리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천 경찰서 근처에 보도연맹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 근무

1179) 신청인 여영오 진술조서 (2008년 3월 4): 진실화해위원회,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 44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와 보조자들은 “빨갱이가 어디 나타났다”고 하면 찾으러 다녔다. 진천군 보도연맹원들은 약 30-40명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사무실로 소집되었는데 사무실이 작아 진천 국민회 앞마당에 모였다. 그때마다 “국민회 간부에게 ‘빨갱이를 몰아내자’는 취지의 강연”을 들었다. 국민회는 진천군 보도연맹원들에게 신분증과 수첩을 지급했고, 마을 책임자는 수첩을 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매일 출석 도장을 받았다.[1180] 이처럼 진천국민회는 보도연맹원 결성,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는 하동군에서도 발견된다.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동곡부락 보도연맹원이었던 정계화는 옥종면 국민회 지부장이 보도연맹원을 조직했다고 했다. 이들은 해방 후에 좌익운동을 하다가 자수하라는 권유가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단체이기에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입”하였다고 한다.[1181] 고성에서도 국민회가 국민보도연맹원 결성에 관여했다. 1949년 12월 14일 대동극장에서 사찰주임의 사회 하에 보련고성지부결성선포대회가 열렸다. 지도위원으로 천재환·이상신 고성국민회장과 김기활 고성 경찰서장 및 노기용 고성 군수 등이 지도위원으로 임명되었다.[1182]

경상남도 보도연맹시국발기대회가 1949년 11월 11일 개최되었다. 임시발기인으로 경남국민회 위원장 탁임조를 비롯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정국, 부산지방법원장 김동환, 경찰국장 최철용, 사찰과장 신영주, 23연대장 장석윤, 방공총재 박순야, 대한청년 도단장 강인달, 대한부인회 위원장 김노전, 민주국민당 위원장 박승주 등이었다.[1183] 경남지부 국민회 위원장이 보도연맹원 임시발기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회 거제 하청면 지부, 진천지부, 고성지부, 하동군 옥종면지부가 보도

1180) 박시덕 진술녹취록 (2009년 5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영동·옥천·보은·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 147-148에서 재인용. 진천군연맹은 군회장(이인옥), 면·리 분회장이 있었다고 했다. 개전 직후 경찰들이 현 동백아파트 옆 개울에서 보도연맹원을 사살하는 것을 목격했다. 수복 후 부역자도 봉화산에서 사살되었다고 했다.

1181) 정계화 면담조사 (2009년 7월 14일): 진실화해위원회,「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2009) 33-34에서 재인용.

1182) 「남조선민보」 (1949년 12월 21일); 참고인 김봉례 진술조서 (2009년 6월 24.).

1183) 「남선경제신문」 (1949년 11월 6일); 「부산일보」 (1949년 11월 4일); 「자유민보」 (1949년 11월 9일); 「자유민보」 (1949년 12월 23일); 「민주중보」 (1949년 11월 12일); 「자유민보」 (1949년 11월 20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연맹원 결성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것은 수원지부 국민회 회장이었던 정등운 목사가 왜 수원지부 보도연맹원 창립식 때 경과보고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국민회에 적을 두면서 이 조직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원 분류하는데 관여하였다. 수원 국민보도연맹원과 정등운 목사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와 우리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 즉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한 기독교일부 세력이 보도연맹원 분류에 일역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국민보도연맹원 분류에 나타난 종교적 논리

국민보도연맹원 분류를 주도한 것은 오제도 집사였다. 그는 우선 “소련 공산주의의 비인도적 죄악상과 북한 괴뢰집단의 야만적 폭정사와 남로당 및 그 率下組織(솔하조직)의 비밀과 죄악상을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적발폭로”[1184]해야 한다고 하였다.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 남로당, 그리고 가장 애매한 대상이지만 또한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솔하조직’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죄악을 적발할 것을 주장했다. 바로 이 4개 단체의 ‘죄악’은 국민보도연맹원을 조직하는 윤리적 정당화 작업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그는 국민보도연맹원은 “과거에 … 범한 죄악에 대해 구구한 변명적 태도를 단연 버리고 告白·懺悔(고백·참회)”해야 한다고 하였다.[1185] 이어 보도연맹에 대해 정의하기를 “(자진전향은-인용자) 그 非(罪의 오기-인용자)를 … 悔改한 것이며 공작전향은 이러한 자각이 불충분해서 아직도 사상적 미로에서 방황하는 동포에게 반성과 회개케 하는 지도교화에 따라서 전향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온정정책”이라고 하였다. 공작전향, 즉 보도연맹원의 전향은 “피눈물 섞인 속죄와 참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186] 보도연맹원 결성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죄의 회개, 고백, 참회와 같은 기독교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보도연맹원을 조직하였다면 그 배경을 주

1184) 오제도, 『思想檢事의 手記』, 146.
1185) Ibid., 146.
1186) Ibid., 14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개인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그는 중국 안동 대정국민학교에 다녔고, 이때부터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되었다. “이로부터 나는 청장년기를 통해서 독실한 믿음 속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신앙은 뒷날의 나를 형성하는 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고 하였다.[1187] 그는 삼무학교(三務學校)에 다니면서 목사가 될 것인지 기자가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용정역 마부가 되었다. 이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하였다.[1188] 이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전문학부 법과에 입학했다. 당시 “매일 반성과 새벽 다락방기도”를 했다고 하였다.[1189] 이 시기에 그는 공산주의의 이론들을 접한다. 아울러 성결교 계통의 죠시가에(祖司木谷)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의 한국인 배(裵) 목사와 유물론과 공산주의에 대해 토론을 하곤 하였다. 당시 오제도는 “유물사관과 신의 세계의 카오스”를 심각하게 겪었고, 이것은 뒷날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기억”이 되었다고 하였다.[1190]

귀국한 그는 1940년에 신의주 지방법원 판임관 견습 서기가 되었다. 당시 신의주 제일장로교회와 동부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철저한 청년신도로서 왜 벌을 주고 죄를 따지는 법원 생활을 계속했는가"라는 자문(自問)에 자답(自答)하길 인권옹호를 위해서라고 하였다. 서기가 하는 조서작성에는 판검사가 가급적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한 사람, 억눌린 사람의 통역”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것도 통역 겸 서기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긍지였다"고 하였다.[1191] 그러나 그는 곧 정실진환에 시달린다. 신경쇠약에 걸려 서울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3개월 간 입원 치료를 한 그의 병은 1년이 지난 뒤에야 치료되었다. 그는 “내 신경쇠약의 근본 원인은 내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1192] 즉 “생명을 바쳐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일개 식민지 법원의 봉급자 생활”을 하는 것이 심각한 병이 되어 돌아 온 것이다.[1193] 그 스스로도 자국의 국민을 탄압하는 일제의 진영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1187) 오제도, “오제도 회고록,” 「북한」(7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1974.7.1), 164.
1188) Ibid., 168-169.
1189) Ibid., 171-173.
1190) Ibid., 174.
1191) 오제도, “오제도 회고록,” 「북한」8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1974.8.), 150-153.
1192) Ibid., 152.
1193) Ibid., 15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발성 근육염에 걸려 빈사상태가 되어 민생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이 병과 관련하여 그는 “구약성서 욥기에 보면 선인 욥으로서도 수많은 시련을 받고 환난을 겪었으나 그는 결국 그 환난과 시련을 헤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사적이 있다. … 인생이란 이런 것이냐? 선으로써 자기를 희생해 온 자에게는 결국 그 선과 의를 위해 목숨까지 거두라는 말인가”[1194]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수풍으로 출장을 갔을 때 검사의 권유로 현지 경찰서장과의 면담과 회식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자신은 이런 면에서도 “불의에는 한 치의 양보를 몰랐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1195] 해방 직후 미군정의 법무부 국장으로부터 판검사 권유를 물리친 것을 놓고도 의롭고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평하였다. 즉 “만약 내가 시험도 치르지 않고 판검사로 나간다면 그것이 큰 핸디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정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이를 타파할 수 없다는 신념과 용기”로 해결했다고 했다.[1196] 이런 판단으로 정정당당하게 1946년 제1회 판검사 특임고시에 응했고 합격하여 검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가 된 후 국대안 반대 사건, 포천경찰서 고문치사사건, 교육자협의회 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실과 공정을 기하였다고 했다.[1197]

오제도의 일생을 지배한 사고는 선 · 진실 · 정의 · 양심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정의의 편에서 서서 행동하였다는 것이다. 선하고 의로우며 양심적인 그는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하며 비양심적인 타자들과 투쟁을 하며 살아온 것이다. 해방 직후 그에게 악하고 거짓되며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는 공산주의자와 자신이 판단하기에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서지 않고 건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투쟁 방법은 불의한 자들을 보도연맹원으로 묶어 사상전을 전개하고, 이들을 회개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194) Ibid., 152.
1195) Ibid., 154.
1196) Ibid., 158.
1197) Ibid., 163-164. 교육자협의회 사건은 1947년 8월 교육자협의회 중앙위원장인 한성중학교 교장 박준영과 교협의 서울시책 류상선 등 3백여 명의 남녀교원을 체포하여 24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런데 그는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사회에 결정적인 해악이 되는 독과균 그리고 질병으로 비유하였다. “그들(공산주의자-인용자)은 허위의 선전과 전제적인 독특한 조직 밑에서 강렬한 독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일반 민중에 침투해왔던 것”이라고 했다.[1198] 또한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을 구별하고 자신이 속한 자유민주진영을 정의와 진실로, 공산진영을 독균으로 각각 규정한다. “우리들의 민주진영의 행동노선에 자랑은 그 정의와 진실성에 있다. 따라서 이 정의와 진실성에 입각한 각 부분의 발전향상을 도모하여 감히 공산독균이 침범을 할 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치, 다시 말하면 행정, 사법 및 각 부문의 부과된 직책을 명경지수(明鏡止水), 멸아위민(滅我爲民)의 정신으로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1199] 공산주의자는 독균이 되고 그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시민은 독균에 걸린 신체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하고, 그 대책으로 봉쇄정책을 입안한 케넌의 주장과 일치한다.

1947년 7월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소련행동의 원천”에서 케넌은 “세계 공산주의는 질병에 걸린 조직을 먹고 자라는 악성 기생충과 같다.”고 하였다.[1200] 그는 ‘봉쇄’(containment)정책을 통해 이 기생충을 박멸하고 질병에 걸린 조직을 도려내고자 했다. 또한 고대의 이집트인들도 아시아인들을 역병과 나병으로 보았다. 투탕카멘(BC 1333~1323)의 석비 쓰인 “중한 질병”의 원인이 아시아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즉 이집트인들은 이 역병을 ”아시아의 질병”이라 했다.[1201] 기원전 3세기 프톨레마이오 2세 치하에서 이집트의 역사를 썼던 사제 마네톤(Manetho)은 근동의 역병 및 문둥병자와 그 지도자 모세를 융합하였다.[1202] 반면 아스만은 영국의 히브리학자 존 스펜서(John Spencer, 1630-1693)가 이집트 종교를 “이집트 미신의 오물”, “우상 광적 역병”, “이집트의 불경한 전염병”, “이집트 역병”로 불리는 것들을 찾아내었다. 아스만은 스펜서가 종교병리학을 언급하

1198) 오제도, 『붉은 군상』, 129-130.
1199) Ibid., 130.
1200) Kennan, “Moscow Embassy Telegram #511(February 22, 1946),” 17.
1201) 얀 아스만, 변학수 역,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56-57.
1202) 요세프스의 텍스트는 성서 외적인 출애굽 역사에 대한 자료로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즉 ‘두 나라 이야기’를 이집트 관점에서 기술한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면서 우상숭배는 끊임없이 역병(pest)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1203]

기생충, 나병, 역병, 전염병 등으로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 하는 것은 멸균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즉 반드시 제거해야할 위험한 것들이라는 윤리적 정당성을 창출한다. 오제도의 공산독균도 멸균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그가 말하는 멸균은 독균 자체와 그것에 의해 감염된 부위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오제도로부터 들을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병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적극적인 청소작업을 한다는 것, 설령 병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치적 식견과 훈련인 예방주사로서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 감염되였을 때는 최선의 방도로서 治療하도록 하는 것이나 만약 치료할 수 없고, 그 나병자 때문에 더 많은 나병자가 있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大國的 立場에서 희생(嚴罰)시켜야 한다.[1204]

보도연맹원에 대한 이러한 오제도의 입장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진영을 진리 · 선 · 의로 규정하고, 자신의 진영 논리에 동조하자 않는 타자로 규정하고 이를 거짓 · 불의 · 악으로 규정했다. 그의 사고의 출발점은 이처럼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때로 그의 이원론은 부정적 타자를 독균, 나병, 적마(赤魔)로 비인간화하였다.[1205] 기독교인 오제도를 지배하는 종교적 논리는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경직된 이원론은 타자를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배제와 제거를 정당화 했다. 이것이 바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거대한 부정적 타자를 구성하는 논리였다. 국민보도연맹원의 사회적 논리가 경직된 이원론을 근거로 한 냉전의 진영논리였다면, 종교적 논리는 기독교의 극단적 이원론을 근거로 한 배타적 신념이었다. 이것이 오제도의 보도연맹원 결성 지침에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경직된 이원론을 근거로 한 냉전의 진영논리는 민간인학살의 과정에서 처형될 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또한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

1203) 얀 아스만, 변학수 역,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141-143.
1204) 오제도, 『붉은 군상』, 135.
1205) 오제도, "서문," 『적화삼삭구인집』 (국제보도연맹, 195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조한 기독교의 배타적 신념은 해방 후 기독교인들의 사상전과 학살에 가담한 종교적 논리의 핵심이었다.

4) 종교적 정당화

기독교일부 세력이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하면서 국민보도연맹원 분류와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할 수 있는 기독교의 종교적 논리는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논문은 그것을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과 악으로 규정된 부정적 타자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배타적 신념이라고 보고 있다.

이덕주는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에서 초기 한국 기독교 신앙이 통합지향적 신앙, 분리지향적 신앙, 변혁적 신앙의 양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중 분리지향적 신앙은 기독교우월주의 입장에서 토착종교와 문화를 우상으로 폄하하며 서구기독교 전통을 모방하려는 자세라고 했다. 자신의 입장을 선으로 타종교, 타문화, 타 집단의 윤리를 마귀 등으로 규정하는 배타적 속성을 보인다는 것이다.[1206]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신앙양태 중에 배타적 속성을 지닌 극단적 이원론이 존재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원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양태를 분석하였다. 한국교회가 타 종교에 비해 배타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주장과 함께 “나의 종교 진리만을 인정하고 타종교(혹은 타 교파)의 진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종교적 배타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종교적 배타성은 모든 옳은 것은 우리와 동의어로, 모든 그른 것을 그들과 동의어로 하는 극단적 이원론의 형태를 띤다고 보았다.[1207] 이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원론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핵심적 종교논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해방전후 기독교의 극단적 이원론이 냉전의 진영논리의 경직된 이원론과 결합하였다고 보았다. 이것은

1206)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30-31, 267-372.
1207)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100-10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20-193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덕주는 “통일이후 한반도 신학 모색: 손정도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에서 한국교회사에서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20-1930년대였다고 하면서 이 시기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의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했다. 이 도전에 대해 한국교회는 세 가지 형태로 대응했다. 첫 번째 이동휘처럼 기독교에서 사회주의로 전향하는 것, 두 번째 정 반대로 사회주의를 배척하는 것, 세 번째 기독교와 사회주의 간의 대화·협력·공존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중 두 번째 배타적 입장은 다수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배타적 입장은 1925년 창설된 조선공산당을 주축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반(反)선교사, 반기독교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덕주는 “1926년 서울 기독교청년회에서 개최된 조선주일학교대회를 기하여 사회주의 계열이 맞은편에서 종교 반대강연회를 열고 성탄절을 ‘반(反) 기독 데이’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종교 비판 집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져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1208] 그 결과 “한국 기독교계의 반공의식이 심화되었고 이후 오랜 세월 한국 기독교는 사회주의와 공존은커녕, 대화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은 양측 모두 서로에게 ‘배타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1209]

한국교회의 배타성은 공산주의와의 갈등에서 크게 증폭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는 공산주의에 대해 일찍부터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다. 1931년 9월부터 1933년 11월 13일까지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평양신학교-인용자)가 등사본 형태로 발행한 교과서를 묶어놓은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교과서 묶음』은 유물론을 비롯한 소련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한 이 신학교의 입장은 1930년대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교과서 묶음』 중 「신학난제」 항에 있는 “유물론과 자연론”은 유물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210]

1208) “主日學校大會, 漢靑의 反基督敎運動”, 「開闢」 63호, 1925, 40쪽; 이덕주, “통일이후 한반도 신학 모색: 손정도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4-5. (미간행 논문).
1209) 이덕주, Ibid., 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唯物論(Materialism)은 有神信仰의 强敵으로 古代부터 存在하엿다. 그러나 近代에 至하야 新興하는 自然科學의 後援을 受함으로 威勢大振하야 神學界의 最大한 難題가 되엿다. 唯物論은 宇宙間의 實在를 物質뿐으로 解釋하고 物質의 背後에는 心이나 神의 存在를 ○○ 否認하야바린다. 特히 物質의 永遠함을 主張하야 創造主나 時間의 始作이 업슴을 斷言한다.[1211]

공산주의 유물론을 기독교 유신론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기독교의 창조주를 부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련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적대적 입장을 지녔다.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교과서 묶음』의 「사회주의이론」항에 있는 "소련공산주의에對한반대론"에서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론을 실제라고 언급하면서 그 실례로 소련공산국이라고 하였다.

>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制度는 國民를 爲하야 세운 것이 아니오 勞動者 一階級만 爲하야 된 것이다. 이 外의 사람은 그 社會中에 아모 權利도 없고 그 政府가 이 사람들의게는 그리 關心치 안는다. 全國民一億千萬中 過激派는 不過 百萬名밧ㄱ에업는데 이사람들이 全支配權을 가젓다. 故로 이는 民主政治도 아니오 一種의 多頭政治이다. 肉體로 勞動하는 者라야 그 會員될 入會資格이 잇고 精神勞動者는 거의 入會不能이다. 全官○가 다ㅡ이 會員中에서 되고 그 무서운 秘密警察刑事團도 이 過激派人이다."[1212]

성결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1938년 10월호 「활천」의 주간(主幹)은 "적룡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붉은 용을 묵시록에 나타나는 사단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이를 러시아 공산주의와 일치시켰다. 즉 "붉은 용의 한 일과 적색 로서아의 하는 일을 비교하야 보아 이 적룡이 적색 로서아를 이용하야 자기의 뜻을 이루고저 하는 줄 가히 알 것"이라고 했다. 소련 공산주의를 묵시록에 나타난 적룡의 현실체로 보았다.[1213] 한국의

1210)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교과서 묶음』은 평양식한교 교재를 묶은 책자.

1211) "唯物論과 自然論," 「神學難題」,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교과서 묶음』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1931-1933), 1.

1212)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蘇聯共産主義에對한反對論," 「社會主義理論」,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교과서 묶음』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1931-1933), 33-34.

1213) 주간, "적룡은 무엇인가," 「활천」1938년 10월호 (경성: 동양선교회성결교회 출판부, 1938년 9월), 1-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개신교는 일찍부터 공산주의 적대와 이를 비인간화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공산주의를 무신론·유물론으로, 기독교를 유신론으로 각각 규정하고 양자의 적대성을 강조한 기독교의 경직된 이원론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해방 직후 서울 YMCA 소속 김형도 목사는 "금일 세계문명에는 2대 조류가 있어 우리는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중간적 존재는 용서되지 않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유물주의를 취하느냐 가장 높은 인격주의를 취하느냐"라고 했다.[1214] 유물론과 유신론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함으로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경직 목사도 1946년 설교에서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민주주의냐 독재주의냐, 기독교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1215] 천주교의 강아오스딩도 "사상전을 좀 더 깊이 고찰" 보면 "유신론 대 유물론의 싸홈"이라고 했다.[1216] 김치묵(金致默) 목사는 기독교청년들이 "한데 뭉치여 천국건설"을 위해 "유물적인 외적(外敵)에 대항하여 싸울 때"라고 하였다.[1217]

이 논리는 해방 후 기독교계와 사회에 널리 유행했던 경직된 이원론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경직된 이원론은 자신을 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하는 윤리적 정당화 작업을 거친다. 공산주의의 비도덕성과 자유민주주의 및 기독교의 윤리성을 부각시킨다. 한경직은 1947년 12월 설교에서 "유물론적 공산주의"를 "반도덕적 사상"이라고 주장했다.[1218] 공산주의는 "반도덕야만주의 사상"인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를 인격적이며 성서적이라고 했다. 즉 "이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한다고 하면서 "이 사상의 근본은 신구약성경"이라고 했다.[1219]

경직된 이원론은 윤리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공산주의를 비롯한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사탄, 악마, 적룡, 붉은 마귀 등으로 비인간화 시킨다. 그 결과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 곧 진리의 종교"[1220]인 반면에 "공산주의야

1214) 김형도,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청년」 창간호, 24.
1215)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1946년)," 『건국과 기독교』 (서울보린원, 1949), 148.
1216) 강아오스딩, "自序," 『천주교와 공산주의』, 1.
1217) 김치묵, "YMCA 운동의 전망," 「기독교청년」 창간호, 29-30.
1218)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1947년 12월)," 『건국과 기독교』 (서울보린원, 1949), 195-196.
1219) Ibid., 194-19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말로 일대 괴물”이고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1221]이 된다. 유재헌 목사는 이를 “최후로 발악하는 적룡(赤龍) 사탄”이라고 하였다.[1222] 김춘배 목사는 마귀의 진영이라는 의미의 “敵魔陳”(적마진),[1223], 경무부장 조병옥은 ‘사탄의 陣營’[1224], 김인서는 “赤龍(적룡)”[1225], 오제도 집사는 공산독균[1226]이라고 했다.

이러한 비인간화는 이들에 대한 배제·제거하기 위한 정당화 작업이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군이 되어 적극적으로 공산주의와 싸울 것을 주장했다. 강아오스딩은 이 싸움은 “진정의 구세주는 예수냐? 막스냐? 카톨릭의 白이냐? 맑시즘의 赤(적)이냐? 의 전쟁”이며 따라서 “유물론 사상에 대항하고 격파하는 사상적 십자군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1227] 한경직은 “오늘 기독교인은 …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노동운동도 좋고 정치운동”을 전개하고 “참 신앙을 가지고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붉은 용을 멸해야 한다고 했다.[1228] 유재헌은 “이 사탄의 세력을 이 땅에서 축출하는 사명을 가진 자는 담대하게 말하노니 다만 우리 기독교 신자뿐이로다.”고 하였다.[1229] 이들은 사상전을 통해 부정적 타자를 규정하고 이를 배제·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입장은 전쟁 상황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김양선 목사는 이 전쟁을 “민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면서도 “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보았다.[1230] 이태영과 백낙준은 이 전쟁에서 한국인들은 “인류의 말살과 인류역사의 파괴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을 섬멸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나섰다고 하였다.[1231]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였

1220)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1947년 12월),” 196.
1221) 한경직, “기독교와 공산주의,” 212.
1222) 유재헌,“구국기도단선언문,” 『부흥회, 전도회, 주일학교 용 복음성가』(구국기도단, 1948), 67.
1223) 김춘배 편, “서문,” 『해방의 종교』(서울: 조선기독교서회, 1948) 1.
1224) 조병옥, “총선거와 좌익의 몰락,” 7.
1225) 김인서, “서론,” 「신앙생활」10권 7·8호 (부산: 신앙생활사, 1951), 1.
1226) 오제도, 『붉은 군상』, 130.
1227) 강아오스딩, “自序,” 『천주교와 공산주의』, 1.
1228)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1946년 설교),” 148-149.
1229) 유재헌, “구국기도단선언문,” 『부흥회, 전도회, 주일학교 용 복음성가』, 67.
1230)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 1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131: 김흥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 72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 한국전쟁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 즉 “양을 가장한 일희(이리-인용자)의 아편에 중독된 동족 아닌 동족이 가능한 온갖 악마적 방법을 다하여 빚어낸 참극”이었다. “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전쟁”이요 “무신론 폭군에 대한 신앙자유 수호의 십자군전쟁”이었다고 하였다.[1232] 김흥수는 “한국전쟁은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고 했다.[1233] 따라서 전쟁을 지배한 논리는 이원론이라는 것이다. 즉 “이원론에 의해서 적의 타자성이 철저히 강조되며 적의 희생이 허용되고 합법화”되는 동시에 “이원론은 적을 비인간화”시켰다고 했다. 이 비인간화는 아군 병사의 살인을 정당화 시키는 논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1234]

이처럼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할 수 있는 기독교의 종교적 논리는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은 악으로 규정된 부정적 타자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배타적 신념으로 발현되었다. 민간인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주장 속에서 이러한 논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직된 이원론은 타자를 비인간화 하여 이들에 대한 배제와 제거를 정당화 했다. 그러므로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할 수 있는 기독교의 종교적 논리는 자신을 선으로 자신과 다른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과 이를 토대로 한 배타성이라고 생각한다.

1231) 이태영,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의,” 「사상계」 (1953년 5월), 12; 백낙준, “한국전쟁과 세계평화,” 「사상계」 (1953년 6월), 6-7. 김흥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 23에서 재인용.

1232) 김흥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 71.

1233) Ibid., 19.

1234) Ibid., 71-7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Ⅶ. 6·25전쟁 시기 기독교인희생 사건

1. 김화·철원지역

1) 철원지역 기독교희생 사건

박경룡 목사는 일제말기 장흥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 인근 순담에 수도원을 설립했다.[1235] 1945년 10월에 장흥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기도실을 짓고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대한수도원의 시작이다. 이후 유재헌 목사와 전진(田眞)이 합류하였다. 1946년 3월 전진은 원산중앙교회 부흥집회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 이 집회는 대한수도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재헌 목사의 인도한 집회였다. 집회 후 전진은 헌금을 수도원까지 운반했고, 수도원의 가족이 되었다. 이처럼 장흥교회 교인, 박경룡 목사, 유재헌 목사, 전진, 그리고 후원자 이성해 장로가 대한수도원의 주축을 이루었다. 장흥교회 청년이었던 여상주 권사는 대한수도원과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이성해 장로와 박경룡 목사님이 장흥교회에 계셨고, 수도원을 이룩하시는 과정에서 전진 원장님이 (장흥리-인용자) 운학이네 집 자리에서 네 살 박이였던 최조영 목사(전진의 아들- 인용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초가 4칸 양통 건물에서 기다란 상을 놓고 성경공부 가르치던 전진 원장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한 유재헌 목사에게 복음성가를 배우던 일도 새롭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성가를 배우고 한 주간 기도하고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에 갔습니다. 장흥교회는 박경룡, 김영배 목사 등이 담임하셨고, 전진 원장은 수도원의 책임자였습니다.[1236]

장흥교회 교인들은 수도원에서 전진 원장으로부터 성경공부를 배우고, 유

1235) 장흥교회는 1920년 철원제일교회의 한성옥 목사가 동송읍 장흥리 고봉기 성도의 집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신석구 목사가 4대 담임자(1926-1928), 박경룡 목사는 12대 담임자(1940-1945), 서기훈 목사는 6대(1931-1933)와 13대(1946-1951) 담임자였다.

1236) 장흥교회 역사이야기 편찬위원회, 『가시밭의 백합화』 (강원도: 장흥교회, 2003), 134-13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재헌 목사로부터 복음성가를 배웠다. 평일에 수도원에서 기도회를 갖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일을 반복했다. 또한 최초의 수도원 건물도 이근영 장로, 정성일 장로, 신한청년단 회장 박성배 장로, 김해중, 이수연, 박응남, 허경만 등 장흥교회 교인들이 직접 건축했다.[1237] 따라서 대한수도원과 장흥교회의 신앙운동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에서 조선혜는 대한수도원의 신앙운동의 성격을 유재헌 목사에게서 찾는다.

> 우리 조선은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였으며 도덕적으로 파괴를 당하며 종교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상에 있다. 이것을 단도즉입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전부 제때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로 발악하는 적룡(赤龍) 사탄이에 단말마적 활동임을 우리는 간과한다. 간교한 사탄이는 우리 민족에게 유물사상 무신론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개인양심을 마비시키고 가정의 평화를 교란하며 사회질서를 유린하고 국가의 민족성을 파괴하여 폭동과 살육을 감행하야 영원한 멸망의 굴혈로 삼천리 민족을 끌고 들어가는 위급 실로 촉망저추에 즉면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가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오 교육은 교육가의 힘으로 해결을 지을 수 있으나 사탄이를 퇴치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들은 너무도 무력한 것이다. 사탄이에 세력을 이 땅에서 축출하는 사명을 가진 자는 담대하게 말하노니 다만 우리 기독교 신자뿐이로다.” [1238]

유재헌 목사는 공산주의를 유신론의 반대 개념인 유물론과 무신론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룡과 사탄으로 규정했다. 이어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평화를 교란하며, 민족을 멸망의 굴혈로 끌고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공산주의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기독교 신자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혜는 “유재헌 목사의 시국관, 신앙관은 대한수도원의 구국신앙의 토대가 되었으며 나아가 철원지역에서 신한청년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반공운동, 자유민주주의 지지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고 했다.[1239] 즉 철원제일교회 김윤옥 목사의 주장으로 조직된

1237) Ibid., 137.
1238) 유재헌, “구국기도단선언문,” 『부흥회, 전도회, 주일학교용 복음성가』, 67;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322.
1239)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32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신한청년회를 장흥교회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흐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철원 신한청년회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철원 지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1946년 2월 8일, 김구의 반탁총동원위원회와 이승만의 독립촉중앙협의회가 결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하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이시영은 1946년 4월 10일 열린 국민회 전국도부군지부장회의에서 회장, 6월 13일 국민회 제1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다.[1240] 이시영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윤옥 목사에게 북한 지역에서 반공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김윤옥은 철원제일감리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여 "많은 신도들에게 남한의 민주정부를 찬양하는 설교와 반공사상을 주입" 하는 등 이남지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장흥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신한청년회를 조직하여 반공운동을 전개했다.[1241] 김윤옥은 대한수도원 전진에게 이남지지운동 단체 결성 사실을 알렸고, 전진은 이를 임이준에게, 임이준은 장흥리에 거주하고 있는 고재영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반공사상이 투철하고 민주주의를 찬동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수도원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다. "1946년 3월 중순경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행동지침, 각 책임부서의 조직을 완료하고 그날 총책으로 추대된 김윤옥 목사로부터 각자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신한청년회가 탄생하게 되었다.[1242] 1946년 5월 12일 철원지방 사경회가 열렸는데 이때 김윤옥은 신한청년회 예비모임을 열었다. 당시 "해방 직후에 일본 군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사유로 확보하게 된 무기(장총, 칼)를 활용하여 내무서원을 습격하는 등 직접적인 반공투쟁을 결의" 했다.[1243] 따라서 신한청년회의 조직적 기반은 국민회의 이시영, 김윤옥, 대한수도원, 장흥교회 및 철원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다.

1240) 「조선일보」 (1946년 2월 8일, 4월 12일, 6월 15일). 시기적으로 볼 때 철원군지에서 '대한독립촉성회' 라고 한 이 단체는 대한독촉중협의 철원 지부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시영은 김구의 반탁투쟁위 쪽의 인물로 추정됨으로 1946년 2월에 조직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판단된다.

1241) 鐵原郡誌 增補編纂委員會, 『철원군지』下 (강원도: 철원군지 증보편찬위원회, 1992년) 2045.

1242) Ibid., 2045.; 기독교대한수도원사 출판위원회, 『눈물이 江이 되고 피땀이 沃土되어』 (철원:기독교대한수도원, 1994), 98-106 참조.

1243) Ibid., 12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신한청년회의 정치적 신념은 1946년에 철원교회에서 열린 8·15 기념 합동예배에서 잘 나타난다. 이 집회에서 김윤옥 목사는 "한국은 민주주의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다. 국민회의 모토인 자유민주주의국가 건국과 이에 기초한 통일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신념화 했다. 이것이 바로 신한청년회의 정치신학이었다.

전진은 1946년 8월 말 철원교회에서 열린 지방 사경회 마지막 날 "보안서 요원들에 의해 박경룡 목사와 김윤옥 목사를 비롯해 박성배, 이성해, 정국환 장로와 정성일, 권오창 등 장흥교회 청년 30여명 도합 40여명"이 연행되었다고 했다. 조직이 발각된 이유로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조직원의 배신이다. 다른 하나는 "김윤옥 목사가 … 이시영 부통령(당시 국민회 위원장-인용자)에게 보낸 밀사가 도중에 검문을 당해서 조직관리와 행동 계획에 대한 보고서와 밀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박상춘의 새마을 집에 숨겨놓았던 서류와 등사기가 압수되고, 간부들이 금학산 깊은 계곡에 감추어 두었던 '김일성을 타도하자' '형제여 통일을 이루자!' 등의 삐라 수천 장"이 발견되면서 신한청년회 회원들이 체포되었다.[1244]

강원도 보안부 감찰과는 신한청년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내 종교단체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7월 16일에 열린 제1회 각 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에서 강원도 감찰과장은 "평강 반탁사건 24명 검거, 철원 역전사건, 연천역전사건, 이천 자유동맹사건, 김화사건, 토지개혁반동삐라 사건(철원)" 등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김화와 철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또한 강원도 보안부 감찰과장은 주요사업으로 9가지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 중 네 번째 사업을 "요시찰인 체계화, 종교단체 체계화, 악질분자 체계화"였다.[1245] 이 회의 직후 신한청년회의 주장이 담긴 삐라가 발견되었고, 이들은 즉각 체포되었다. 당시 검거된 30여 명 중에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회원, 혹은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1244) Ibid., 126-127.
1245)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9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270.

<표 19> 신한청년회 임원 및 실형을 받은 회원[1246]

부서	성명	직위	주소	형량	비고
총책	김윤옥	목사	철원군 철원읍철원제일감리교회	8년	옥사
조직회장	박성배	장로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장방산	8년	옥사
부회장	정국환	장로	철원군 동송읍 장흥3리	3년	피랍
선전부장	박상춘	장로	철원군 동송읍 사문안	4년	
조직부장	이승우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1리	4년	
외교부장	김정필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1리	3년	사형
서기	김종철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1리	2년	
총무	박정배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1리	1년	사형
간사	김금순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1리	1년	피랍
간사	고재영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1리	2년	
결사대장	고재영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1리		
재무부장	김윤성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1리	1년	
회장	안덕만	농민	철원군 동송읍 오덕3리	10개월	
	이현우	농민	철원군 동송읍 장흥3리	10개월	
	김봉조	농민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10개월	

위 표에 나타나듯이 실형을 받은 김윤옥, 박성배, 정국화, 박상춘, 박정배 등은 장흥교회와 철원제일교회 교인들이었다. 이중 네 명이 옥사하거 나 사형을 당했다. 신한청년회는 장흥교회 등 철원지역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로 남한의 가장 유력한 정치단체인 국민회의 정치노선을 공유하면서 공산주의 적대와 자유민주주의 지지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 이념을 기독교적인 틀에서 신념화하였다. 신한청년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장흥교회 교인들은 대한 수도원의 신앙적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 신앙운동의 정치적 성향은 유재헌의 시국관에 나타나듯이 공산주의 적대를 표방한 것이었다. 즉 장흥교회 교인들에게는 기독교적 신념과 냉전의 이념이 서로 연동하고 있었고, 이것은 국민회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철원제일교회와 장흥교회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1246) 鐵原郡誌 增補編纂委員會, 『철원군지』 下, 2046-2047 참조.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볼 수 있다. 두 교회가 이남지지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파악한 북한당국은 신한청년회를 주시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했고, 그 결과 감리교 집회인 철원지방 사경회에서 신한청년회원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1946년 8월,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박경룡 목사는 월남했다. 이어 만주 목단강에서 돌아온 김영배 목사가 임시로 장흥교회에 부임하였다. 1947년 6월, 서기훈 목사가 13대 담임 목사로 장흥교회에 부임했다. 당시 마을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총 105 가구 중 공산당원의 집은 17 가구였다. 이념적으로 대립하여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기훈 목사는 이념을 초월하여 마을의 모든 주민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장흥리의 좌익의 핵심인 이영일의 아버지 이보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보연의 집이 장흥교회 앞에 있었기에 둘은 수시로 바둑을 두면서 형제처럼 지냈다. 박경룡 목사가 시무할 때, 북한 당국이 장흥교회 예배당을 압수해 공회당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서기훈 목사가 부임하여 정치보위부에 피랍된 1950년 12월 말까지 교회 문이 닫히거나 새벽종을 울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1247] 해방 직후 철원이 이북지역에 속해 있을 때도, 또한 전쟁 당시 인민군이 점령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개전 이후 약 6개월간 장흥리 마을은 인민군, 국군, 인민군, 국군, 중공군이 진주하는 혼란을 겪었다.[1248] 인민군이 북으로 후퇴하고 국군이 주둔하기 직전인 10월 초, 장흥리교회 청년들은 인민군 보급소에서 탈취한 총으로 무장을 했다. 평시 총을 메고 다니다 예배시간이 되면 목사사택 부엌 뒤에 있는 광에 총을 넣어두고 예배드린 후 다시 꺼내 가곤 했다. 10월 10일에 국군이 철원읍에 주둔했다.[1249] 인민군 후퇴와 국군의 주둔 사이의 공백기가

1247) 장흥교회 역사이야기 편찬위원회, 『가시밭의 백합화』, 141; 이금성 구술녹취(2014년 10월 14일),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327.

1248) 10월 5일,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하였다는 삐라가 살포되었다. 장흥리 청년들은 이 불호청을 뜯어서 만든 대형 태극기, 소형 태극기 300개, “터졌다 38선 만나보자 부모형제’, “이승만 대통령각하 만세” 등이 적힌 구호 300개, 대한청년단 완장 60개를 제작했다. 10월 8일, 마을 공산당원들이 피난을 갔다. 10일, 국군이 철원에 주둔했다. 11월 8일, 백골부대 퇴각함으로 대한청년단 소속 장흥리 교인들과 서 목사 피난했다. 그러나 서 목사 마을에 교인들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로 돌아왔다. 11월 16일, 국군의 진격으로 철원 일시 수복되었다가 23일 인민군 주둔했다.

1249)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32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있었다. 당시 장흥리교회 청년들이 주축이 된 대한청년단이 치안을 담당했고, 군경 주둔 후에는 이들과 협력하면서 치안을 유지했다.

국군이 수복한 지역에서는 치안확보를 위해 전시대책위원회와 치안대 등이 조직되었다. 철원에 주둔한 국군은 인민군 점령 당시 철원의 반공운동을 주도한 김영배[1250]에게 적색분자 소탕을 주문하였다. 김영배는 한국군으로부터 받은 장총 11정과 권총 1정을 인수하고 반공인사들과 합의하여 전시대책위원회, 의용경찰대, 대한청년단을 조직하였다.[1251] 철원의 전시대책위원장은 유득신 목사였고, 그 아래에 치안대와 의경이 조직되었다.[1252] 치안대는 읍·면·리 단위로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장흥리에도 대한청년단이 조직되었다. 박상춘 장로 등 주로 신한청년회 출신과 유득신 목사 등 기독교인들로 구성원이었다. 당시 장흥교회 담임목사이자 철원지방 감리사였던 서기훈 목사가 이 청년단의 고문으로 있었다.

고문	서기훈
대책위원장	박상춘
부위원장	정국환
의용경찰대장	고재영
조사계장	김종철
철원군 위원장	유득신
대원	구승현, 김기만, 김금순, 김대길, 김대식, 김봉조, 김영택, 김운선, 김윤성, 김선필, 김춘성, 김해중, 박일용, 송광식, 유풍영, 이수봉, 이종근, 이현우, 허경만, 허경태, 현용대, 홍병연 등[1253]

대한청년단 정보과장: 장흥리 이주승　　고문: 서기훈·이상필·김석봉·한성

1250) 만주 목단강에서 와서 장흥교회에 잠시 부임했던 김영배와 철원군 전시대책위원장을 잠시 지낸 김영배가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251) 철원군지 증보편찬위원회, 『철원군지』下, 599.
1252) 유득신 목사는 중공군이 철원에 주둔함에 따라 연천의 어느 장로의 집에 은거 하고 있던 중,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1253)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33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오[1254]

국군이 진주한 철원지역에서 대한청년단의 힘은 막강했다. 장흥리의 단원들은 부역혐의자의 가족 100여명을 마을 공회당에 구금한 후 이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했다. 청년단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강경파들은 부역혐의자 가족을 처형하기로 했다. 1차로 김이봉 · 장태순 · 김용호 등 7명을 처형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3명이 처형되었을 때, 소식을 들은 서기훈 목사는 청년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장흥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 결국 청년들은 서기훈에게 사과를 하고 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부역혐의자 처리에 관한한 서기훈과 상의하기로 한 것이다. 서기훈은 공회당에 구금되었던 부역혐의자 가족들을 모두 귀가시켰다.[1255]

11월 8일 안개 낀 이른 새벽 장흥교회 정년들이 주축이 된 대한청년단원들과 인민군 정규군 간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서 장흥리 대한청년단의 희생은 없었고, 인민군 17명만 사망했다. 서기훈은 당일 저녁 인민군 일개 중대가 장흥리 마을을 포위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아마도 이영일의 아버지 이보연이 알려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훈과 청년들은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피난 도중 서기훈은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돌아왔다. 동네에 교인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1256] 서기훈은 우익은 물론 좌익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 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원이 북한 당국에게 다시 점령되었을 때도 장흥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50년 12월 말일에 정치보위부에게 검속된 후 행방불명되었다. 행방불명이 되기 전인 26일 1차로 동송읍 내무서에 구금되었다가 28일 풀려났다. 다시 구금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몸을 피하지 않았다. 조선혜는 서기훈의 희생 이유를 “장흥리 마을에서는 인민군들과 대한청

1254) 장흥교회 역사이야기 편찬위원회, 『가시밭의 백합화』, 35.

1255) 이금성 구술녹취 (2014년 10월 14일);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331; 장흥교회 역사이야기 편찬위원회, 『가시밭의 백합화』, 76. 여상주 권사는 당시 희생된 사람이 1명이라고 했다.

1256) 이금성 구술녹취 (2014년 10월 14일,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330-332. 이금성 장로가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교회에서 남쪽 방향으로 1Km 거리의 밭에 매장하였는데, 당시 그가 매장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년대원들 간에 교전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인민군 희생자의 숫자도 적지 않았다.”고 하면서 “대한청년단의 고문”으로 있던 “서기훈 목사를 공산당 지도부에서는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했다.[1257] 철원군 정치보위부는 제국주의적대라는 냉전의 진영논리로 판단했다. 그 결과 서기훈을 북한당국의 반대편인 대한청년단 고문으로 판단하였다. 서기훈은 피랍되었고, 가족들은 그가 희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2) 금성·김화지역 기독교인희생 사건

김화군 금성면 금성교회 한사연 전도사는 상해 임시정부 자금모금 사건과 독립대한청년단 조직 사건으로 1921년 6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919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이 금성교회 교인이었다. 서상렬은 같은 교회 권사였으며, 한만수는 경파리 속장, 노석윤은 원남면 구룡리 속장, 박성태·고태현·한희수·한성옥은 금성교회 교인이었다. 또한 이상규·원군심·한문옥 등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 중에 한문옥은 한사연 전도사의 큰 아들로 금성교회 교인이었다.[1258] 한사연과 금성교회 교인들은 민족문제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해방 후 건국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기독교적 신념이었다. 이 신념은 상해 재판 당시 서상렬 권사가 “예수교를 믿으면 단체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가 있다”라고 한 진술 속에서 확인된다.[1259] 이것은 그의 생각이라기보다 담임 전도사였던 한사연과 교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 1920년 이후 금성과 김화에는 한사연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이 존재했고, 이들의 영향력은 해방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해방 후, 한사연 목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기독교 국가를 건국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해 북한당국과 공산

1257)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334.
1258) 국사편찬위원회, “한사연,” 『왜정시대인물사료집』6권; 국가기록원, “한희수 판결문,”(대정10년형공제209호) (경성: 경성지방법원, 1921).
1259) 국사편찬위원회, “증인 李泰元 신문조서,” 「獨立大韓青年團事件」,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5(排日檄文配布·萬歲示威·讀書會事件 訊問·公判調書)』 (192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주의에 대항하였다. 그의 신념은 북한당국의 정책과 충돌했다. 그것은 김화군의 유명한 공산주의자인 장보라(張保羅)와의 갈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1260] 일제 강점기 이 둘은 서로 협력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입장이 달라졌다. 한사연의 장남 한문옥은 금성지역 자치위원장이었고, 장보라는 이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등 좌직진영의 핵심 인물이었다. 한문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남의 입장에 서 있었고, 장보라는 공산정권을 세우려는 이북의 입장에 서 있었다.

"한 목사는 공산주의를 모두먹기 패라고 불렀다. 그는 설교 때마다 모두먹기 패를 질타했다."고 한다.[1261] 일제 말기 한사연의 주례로 금성교회에서 결혼한 화가 박수근과 김복순은 김화군 조선민주당 당원이자 금성교회 교인이었다. 김복순은 한사연 "목사님이 주동이 되어 교인들로 뭉친 우리들은 항상 감시의 눈을 피해 남쪽 방송을 몰래 듣고 있었다. 사상적으로도 대한민국에 동화되어 있었다. 그러니 자연히 교인들은 정치보위부의 요시찰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하였다.[1262] 교인들은 김화 정치보위부와 내무서로부터 사찰을 당했다. 예를 들어 정치보위부 요원들이 박수근의 집을 지속적으로 사찰했고, 내무서가 자주 그를 연행하여 밤샘조사를 하곤 하였다.[1263]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금성보통소학교는 학생 중 "금성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을 방과 후에 따로 불러 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느 날 밤 …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지방 유지들이 무더기로 내무서에 연행"되었다. 연행된 사람들은 한사연의 장남 한문옥 등 주로 금성교회 교인

1260) 「동아일보」 (1932년 4월 8일, 1934년 10월 7일, 1932년 4월 8일). 학생독서회와 후계공산당 조직 준비 혐의로 100여명이 동대문경찰서에 검거되었다. 이중 장보라(당시 26세) 등 78명이 경성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또한 1934년, 조선공산당재건을 위하여 활동하다 체포된 해 10월에 그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 "思想轉向者의 防共講演會에 관한 건(江高 제3197호)," 『사상에 관한 정보』 11 (강원도: 강원도경찰부, 1938년 12월 5일). 석방 된 이후 그는 전향을 했다. 1938년 11월 20일 전후로 일제 당국은 사상 전향자들을 동원하여 철원, 김화, 금성, 평강에서 방공강연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김화군 금성면 연식장에서도 강연회가 열렸다. 강사는 김화군의 장보라와 강화의 권충일 등이었다.

1261)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서울: 도서출판 estward, 2007), 296-297.

1262) 김복순, "아내의 일기6," 「선 미술」 제7호 (서울: 선미술사, 1890년 9월 10일), 23;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298.

1263) 김복순, "아내의 일기6," 「선 미술」 제7호, 2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들이었다. 한사연과 주민들은 내무서에 집단 항의하였고, 연행된 가족들은 당일 밤 장보라의 집을 쑥밭으로 만들었다. 다음날 새벽 금강산 행 전철에 탄 2개 소대의 무장군인들과 장보라는 기오면 창도역으로 들어와 금성교회 교인들을 연행하였다[1264]. 이후 한문옥과 한사연을 중심으로 한 금성면 교인들은 장보라를 마을에서 추방했다. 장보라는 철원읍 철원제2초등학교 사택으로 피난했고, 한동안 그곳에 은신하며 살아야 했다.[1265]

한편 한사연은 금성지역 조선민주당의 대표로 활동했다. 1949년 3월 30일엔 도·직할시, 11월 24-25일엔 시·군, 12월 3일엔 면 단위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금성교회 교인이었던 김복순은 "한사연 목사님은 당시 민주당의 지역구 당수로 계셨는데 우리 내외도 그 당에 몸을 담고 있었다. 민주당 추천으로 그이는 군 대의원 후보로, 나는 면 대의원후보로 입후보하여 똑같이 당선" 되었다고 하였다.[1266] 박수근은 군 대의원으로, 김복순은 면 대의원이 된 것이다. 또한 북한은 1948년 8월 25일에 남과 북의 인민대표자를 뽑는 최고인민위원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한사연은 최고인민위원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1267]

한편 어느 선거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화읍 김화교회 담임자 조춘일 목사는 북한의 선거 시 참관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 목사의 딸인 조성임과 조성은은 김화읍교회에 부임한 이후 그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서 김화군 조선민주당 부위원장을 맡으라고 했으나 조춘일 목사는 이를 거절 하였다는 것이다.[1268] 같은 지역의 감리교 동역자이고, 김화군 민주당 위원장이었던 한사연 목사가

1264)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300-301.

1265) 이종여 구술녹취 (2013년 10월 14일); 최태육, "신념의 사람 한사연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270. 당시 구술자는 장보라의 이름이 특이했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여러 번 해서 그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었다.

1266) 김복순, "아내의 일기6," 「선 미술」 제7호, 23;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297-298에서 재인용;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221-223.

1267)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297.

1268) 조성임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조성은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조춘일 목사는 연천 동면 적읍리 출신으로 1946년 5월 서부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김화읍으로 파송되었지만 바로 부임하지 못하고 연천교회와 회양교회를 거쳐 1948년에 김화읍교회로 부임했다. 따라서 그가 참관한 선거는 1948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혹은 1949년에 연이어 있었던 군·면 대의원 선거로 추정된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그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조성은은 예배당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저희 집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장로교 장로님, 우리교회 권사님 등 주로 기독교인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하였다. 당시 목사의 사택이 김화교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 딸린 사무실은 단순히 김화교회 업무만을 보는 사무실이 아니었다.[1269]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사연은 김화군의 민주당 최고 책임자였다. 조춘일은 김화군에서 같은 감리교 목사로서 활동을 했으며, 김화군 조선민주당 부위원장직을 권유 받은 상태였다. 가족들은 조춘일 목사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지만 한사연과 조춘일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딸들을 포함한 조춘일의 가족들은 요시찰 대상이었다. 둘째딸인 조성임은 정치보위부소속 사람들이 가끔 예배에 참석해 아버지를 감시하였다고 했다. 또한 중학생이었던 자신도 어느 날 김화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부터 “부친은 사상이 문제니 조심하시라고 전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또한 조춘일의 셋째 딸인 조성은도 “국민학교에서 이것 저거 잘 해서 상을 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네 아버지 때문에 상을 못 준다.’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라고 했다. 이로 보아 김화의 치안 당국이 조춘일을 요시찰인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7월 16일에 열린 ‘제1회 각 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에서 강원도 감찰과장은 “평강(군) 반탁사건 24명 검거, 철원 역전사건, 연천역전사건, 이천 자유동맹사건, 김화사건, 토지개혁반동삐라 사건(철원)” 등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김화와 철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또한 강원도 보안부 감찰과장은 주요사업으로 9가지 사업을 제시했는데 이 중 네 번째 사업을 “요시찰인 체계화, 종교단체 체계화, 악질분자 체계화”였다.[1270] 요시찰인과 종교단체 그리고 악질분자들에 대한 정

1269) 「감리회보」 (1952년 1월 1일); 『기독교대한감리회요람』 (기독교대한감리회, 1960), 208; 「기독교세계」 (1970년 7월 10일), 8; 김춘배, 『한국기독교수난사화』, 309-310; 윤춘병,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교육국, 1988), 152-153; 현신애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조성임 전화구술 (200년 8월 3일); 조성은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1270) 국사편찬위원회,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 - (극비)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감찰부,” 27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보를 체계화하여 이를 집중 사찰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사건들과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강원도 보안부 감찰과가 철원과 김화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주목하고 있었고, 요시찰대상자와 이른바 악질분자와 함께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 강원도 치안 당국인 보안부 감찰과가 기독교 일부 세력을 일반시민들과 구별하여 요시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대상에 한사연과 금성교회 교인들, 그리고 조춘일과 김화교회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시찰 대상이었던 한사연, 조춘일, 각 교회 교인들은 북한당국에 예비 검속되거나 전쟁 중 체포되어 집단 살해되었다.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된 한사연과 가족들은 전쟁발발 전후 예비 검속되어 살해되었다. 김화읍교회 조춘일과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 6월 24일 개전(開戰) 전날 한사연은 불특정인에게 연행되어 정치보위부에 구금되었다.[1271] 그런데 이날 그만 검속된 것이 아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북부지역인 통천군 협곡구역 담임자 이풍운 목사도 6월 24일 불 특정인에게 예비검속되었다가 전쟁이 끝나자 다시 돌아왔다.[1272] 강서군 강서면 신대리 교회 김홍식 목사도 개전(開戰) 직전인 1950년 6월 24일 예비검속 되었다. 그의 아내 박승일 사모도 김홍식 목사가 예비 검속된 3일후에 검속되었다. 1950년 9월 30일경 김홍식 목사, 박승일 사모, 그리고 아들 김명섭이 함께 처형되었다.[1273]

강서, 통천, 김화라는 다소 먼 지역에 각각 거주하는 세 명의 목회자가 같은 날 검속되어 특정한 곳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목회자라는 것과 연행된 날짜가 6월 24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와 평안남도 치안 당국(정치보위부, 내무서)은 전쟁 직전 이 지역의 목회자를 예비검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 명은 돌아오고, 두 명은 처형된 것으로 보아 구금 당시 예비검속된 주민에 대한 분류 작업이 있었음을

1271)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서울: 도서출판 estward, 2007), 301.
1272) 이영빈·김순환, 『통일과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고난과함께, 1994), 105-107.
1273) 「기독교세계」 (1970년 9월 10일) 9; 윤춘병, 『한국감리교회수난백년사』, 140-14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알 수 있다. 그런데 6월 24일 예비검속이 모든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같은 지역 김화읍 교회 조춘일 목사와 이웃 지역 철원군 장흥리 교회 서기훈 목사는 전쟁 직전에 체포되지 않았다. 조춘일 목사는 9월까지, 서기훈 목사는 12월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한사연 목사 등 기독교인들을 검속한 것은 김화정치보위부로 추정된다. 그의 손자 한영순은 1950년 7월 말경 김화인민병원에 신체검사를 받고 나오면서 김화정치보위부 건물에서 트럭에 실려 떠나는 한사연을 목격했다. 한사연은 손자에게 “영순아, 네가 이제 증인이다. 알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이다.[1274] 한편 김화읍 교회 조춘일 목사는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추석(9월 26일) 직전 정치보위부로 연행되었다. 전쟁 당시 철원과 김화 인근에 대한 폭격이 매우 격심했기 때문에 조춘일의 가족은 방공호로 피난해 있었다. 추석 직전 벌초를 끝내고 돌아온 그는 며칠 뒤 교회를 돌아봐야겠다며 마을로 내려갔다. 당일 집으로 내려간 그의 큰 딸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정치보위부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1275]

정치보위부로 연행된 한사연 목사와 그 가족, 그리고 조춘일 목사와 김화읍교회 교인들은 1950년 10월경 원산과 김화에서 각각 처형되었다. 한영순과 함께 김화면사무소에 근무[1276]한 적이 있는 신시욱(申時旭)은 원산 앞바다에 사람들이 수장 당할 때 현장에서 생존했는데, 그 자리에 한사연이 있었다고 한다.[1277] 1950년 10월 경, 금성면에 국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릴 무렵 한사연의 장남 한문옥은 적대세력에 의해 김화읍 생창리 굴속에 구금되어 있다가 비행기 폭격으로 사망했다.[1278] 김화군 기오면 창도리에 병원을 차리고 의사생활을 하던 셋째 아들 한상옥은 적대세력에게 검속되어 피랍된 후 행방불명되었고, 김화읍에서 인민군과 의용군 징용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넷째 아들 한병옥은 인민재판을 받고 쑥고개 칠성정에서 적대세력에게 총살되었다. 조카 한영순은 숙부 병옥의 시신을 찾아 임시로 매장하였다.[1279]

1274)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301.
1275) 조성임(차녀)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조성은(3녀)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조성은(3녀) 전화구술 (2013년 11월 22일)
1276) 이종여 구술녹취 (2013년 10월 14일). 신시욱은 남편 한영순과 함께 김화면(읍)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1277)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304.
1278) Ibid.,, 302; 이종여 구술녹취 (2013년 10월 14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한사연과 그의 아들 3명이 이렇게 살해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1950년 추석(1950년 9월 26일) 직전 김화정치보위부로 연행된 조춘일은 10여일 후 김화군 근북면 금곡리[1280]에 있는 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조춘일의 사모와 주민들은 그곳에서 다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은 그의 시신과 교회 사무실을 자주 방문한 장로교의 장로님 등 40여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당시 시신은 전선줄로 묶여있었다.[1281] 또한 대한수도원 전진 원장에 의하면, 인민군 "패잔병 20여 명이 패주하면서 국군복장으로 위장하여 김화감리교회교인들을 많이 해쳤다."라고 하였다.[1282] 전진 원장은 허정완 전도사의 남동생이 김화의 공산주의자로 교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학살이 진행될 때 허 전도사가 산으로 도피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대한수도원에 도피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전진 원장은 교회의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임시대책위원장에게 허 전도사의 사정을 설명하며 통행증을 부탁했다. 그러나 목사였던 그 위원장은 허 전도사를 체포하기 위해 군·경을 수행하고 대한수도원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녀는 총소리를 듣고 피신을 하였고, 6개월 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1283] 이런 이유로 전진은 김화읍교회 교인희생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화군에서는 한사연 목사와 그 가족, 조춘일 목사와 김화교회 교인들, 장로교회 장로 등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집단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 철원교회와 장흥리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신한청년단 사건, 금성교회와 김화읍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민주당 사건으로 인해 김화·철원지역 북한당국과 철원·김화지역의 교회는 상호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일부 기독교 세력을 주민들과 구별하여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했다. 요시찰대상으로 분류된 이들 중 한사연 목사와 그 가족들은

1279)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302; 이종여 구술녹취, 2013·10.14. 이종여는 한사연의 장남 한문옥이 적대세력에 갇혀 있던 중 비행기 폭격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장흥리교회 장로 이금성도 2014년 10월 14일 구술채록 당시 철원의 비행기 폭격이 매우 심했고, 가족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였다.

1280) 木崎純一, "掌中 朝鮮全圖"(경성: 伊林書店, 소화16). 1914년 이후 근북면 금곡리는 김화군에 속해 있었으나 전쟁 후 철원군으로 편입되었다.

1281) 현신애 권사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조성임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조성은 전화구술 (2005년 8월 3일); 조성은 전화구술 (2013년 11월 22일).

1282) 기독교대한수도원 출판위원회,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138-139.

1283) Ibid., 13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개전(開戰) 직전인 6월 24일 예비검속 되어 정치보위부에 구금되었고, 그 가족은 감시 상태에 있다가 인민군이 후퇴하기 직전 처형되었다. 또한 조춘일 목사와 그 교회 교인들은 인민군 후퇴 당시인 10월경 정치보위부에 구금되었다가 처형되었다. 서기훈 목사의 경우 12월 말에 처형되었다. 부역혐의자 가족들이 대한청년단에게 처형될 위기에 놓여있을 때 이를 막은 이가 서기훈 목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그를 검속하였다. 서기훈 목사를 검속한 것은 철원군 치안당국이 제국주의적대라는 냉전의 진영논리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치보위부가 서 목사를 사람을 살린 인간으로 보지 않고, 북한당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대한청년단 고문으로 본 것이다. 진영 밖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반대편으로 규정하는 진영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진영을 가르는 기준은 제국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에 근거해 있었다. 철원군 정치보위부와 내무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철원군 내의 기독교 일부 세력을 구별·분류하였던 것이다.

2. 강화지역

1) 감리교인 희생 사건

먼저 개전 이후 남한에서 발생한 감리교인 희생 사건을 중심으로 기독교인희생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죽흘리의 김규홍 장로는 현재의 논현동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당시 이곳 동장이었던 그는 1950년 8월 19일에 내무서원에게 연행되어 인천 소재 형무소에 구금되었는데 인천상륙작전 직후 총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시신은 정운상 목사에 의해 수습되었다.[1284] 김규홍과 같은 군자면의 거모리 교회 전도사 김

1284) 「기독교타임즈」 제156호 (2000년 6월 24일), 7;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 『인천개항100년사』 (인천: 경기출판사, 1983), 328-329. 정운상 목사가 그의 시신을 수습한 곳은 인천 소재 제9호 감옥이었다. 김규홍은 1917년 감리교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군자교회를 담임했고, 1946년 5월 논현동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곳 동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군자교회 김명성 목사는 월남 교역자로 서울을 오가며 서북청년단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자교회요람에 그는 1949년에서 1950년까지 시무했다. 1950년 4월 발행된 「제2회동부중부연합연회록」에는 정회원 목사로 기록되어 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성식은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 유족들은 그가 희생되었다고 판단했다.[1285] 서울 서대문구 창천감리교회 김익보 장로는 1950년 9월 28일 수복 당시 대문에 태극기를 계양했다가 후퇴하는 인민군에 의해 총살되었다.[1286]

충청남도 예산읍 두리2구 삽교교회 담임자 도복일 목사는 주민들과 함께 검속되어 9월 20일 경 적대세력에게 총살되었다.[1287]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면 좌부리 박선이는 온양감리교회 교인이었다. 그는 어머니 김특이, 남동생 박수용, 박수복과 함께 인민재판을 받고 뒷동산에서 처형되었다. 이들의 시신은 동생 박명선 속장에 의해 수습되었다.[1288] 충청남도 강경읍 서창리에 거주하던 강경중앙감리교회 평신도 안순득은 1950년 7월 17일 집에서 검속되어 채운산 자락에서 주민들과 함께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1289] 해방 직후 월남하여 충청남도 보령군 웅천면 주산공립 초급중학교교장이었던 전희균 목사는 인민군 점령기 검속되어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50년 9월 27일 경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1290] 천안지방 봉암교회의 목회자(협동회원) 정기남은 인민군점령 시기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1291]

황덕주 목사는 1947년 월남하여 대전시 제사공장 교무과장, 1948년 대전지방 효동교회(현재 남부교회) 설립, 1949년 5월 대전형무소 교무과장, 1950년 5월 공주형무소 교무과장을 역임했다. 개전 이후 고향인 원주 문막으로 피난했다. 9월 적대세력에게 검속되어 타살되었다.[1292] 해방 직후 미군정청은 남한의 각 형무소 교무과장 및 교화과 담당에 목사로 임명했다. 광주형무소 장성옥 목사, 서대문형무소 김동철 목사, 마포형무소 주채원 목사와 김영제 목사 등이 각형무소에서 교화사업을 담당했다. 마포형무소 교무과장이었던 김영제 목사는 형무소의 목적이 “범죄자의 심정을 감화식혀 개관천

1285) 「감리회보」 1952년 1월 1일; 윤춘병,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교육국, 1988), 186-187.
1286) Ibid., 161.
1287) 「감리회보」 1952년 1월 1일; 윤춘병,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187-188.
1288) Ibid., 332-333.
1289) 「기독교대한 감리회 원로 목사회보」 제3호 (1987년 6월 25일), 36.
1290) 기독교대한수도원 출판위원회,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56-71, 105, 158-159
1291) 「감리회보」 1952년 1월 1일.
1292) 「감리회보」 1952년 1월 1일; 윤춘병,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191-19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선(改過遷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과거를 반성하고 장래에 대한 새 결심으로 새로운 생활의 新出發”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1293] 그런데 그의 이러한 열정은 전쟁 직후 깊은 탄식으로 돌아 왔다. 그는 개전 직전 세계기독교교육대회(World Covention on Chritian Education)에 참석하기 위해 토론토로 떠났다. 당시 동행한 김광우 목사에 의하면, “김 목사는 시무하면서 감옥에 들어 온 공산당들을 몹시 거칠게 다루었기 때문에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와 옥문을 열어 놓았을 때 그 도당들이 감옥에서 나와 자기 가족들을 해했을 거라고 이야기 하였다. … 김영제 목사는 지나친 걱정으로 신경쇠약이 되어 불면증, 우울증으로 정신 시상의 상태에 빠져 그 대회를 마치고 뉴욕으로 내려와 결국엔 부르클린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다.[1294] 김영제 목사의 사례를 통해 당시 교화사업을 담당한 목회자와 교무과장들이 사상범의 교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건을 통해 우익단체의 활동, 혹은 정부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당진 송악면 호병기 전도사의 희생 사건과 예산 장석팔 형제 희생 사건은 이에 적합한 사례이다.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에 위치한 응봉감리교회 권사 장석오는 1951년 1·4후퇴 당시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이송도중 총살되었다. 그의 형 장석팔은 적대세력에게 체포되어 1950년 9월 노화1구 두내받이라는 개울에서 타살되었다.[1295] 그는 응봉교회 장로로 정미소를 경영했으며 해방 직후부터 희생 될 때까지 국민회 예산지부 응봉면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편 그의 동생 장석오는 해방 후 응봉면 소방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1296] 응봉면이

1293) 2, 4. 개전 직전 마포형무소는 서무과, 계호과, 작업과, 교무과, 의무과, 구치과로 조직되어 있었다. 당시 교무과의 업무는 “재소자의 교화 및 교육, 행장심사(行狀審査), 석방자 보호”이었다고 한다.

1294) 김광우, 『김광우 목사 자서 빛으로 와서』(서울: 도서출판 탁사, 2002), 181-184.

1295) “고 장석팔 장로님 순교 63주년 기념 다큐 영상,” 2014년 10월 1일 접속 http://cafe.daum.net/sks1962. 이종만, 전태동, 윤준영, 최성묵 장수훈 등이 장석팔 장로와 장석옥 권사의 희생 사건을 구술한 것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1296) 윤춘병, 『한국감리교수난 백년사』, 195; 윤준영 장로 통화구술 (2005년 9월). 윤준영 장로는 본 연구자와의 통화에서 장석오 권사가 수복 직후 치안대장으로 마을의 치안을 담당했다고 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속해 있는 예산군은 물론 서산·당진·아산 등 충청남도 거의 전 지역에서 소방대장 및 대원들이 1950년 수복 직후 치안대에 속해 있으면서 부역혐의자 색출, 검거, 분류, 처형에 가담한 사례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민군 재진입 당시 장석오 권사의 처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는 호병기 전도사가 당진 송악면 기지시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1948년 서울 감리교신학교에 입학 공부하던 중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고 했다. 1950년 6·25전쟁 개전 직후 중흥리에 숨어 있던 그는 8월 17일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다른 군·경 가족들과 함께 시곡리 뒷산에서 살해되었다.[1297] 호병기 희생의 특징은 그가 군경가족들과 함께 집단 살해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그가 군경가족들과 함께 집단 살해된 경위·가해주체·희생자 신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전쟁 중 송악면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기보다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한 단면만을 소개했다.

그런데 당진지역에서 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 등은 7월 초 당진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당진군 송악면에 있는 한진포구의 목캥이에서 살해되었다. 참고인 정성운은 당시 현장에서 직접 총을 쏜 경찰관의 말을 빌려 현장에서 약 160명(혹은 360명)정도가 사살 당했다고 한다. 동 참고인에 따르면 합덕지서 순경 박병력과 김종국 등이 현장에서 칼빈총으로 보도연맹원등을 사살했으며, 현장에서 생존한 최기성은 인민군점령시절에 보안대장을 하다가 수복 후 바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1298] 호병기가 군·경의 가족과 함께 살해되기 한 달 전인 7월 초, 같은 지역에서 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집단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쟁 당시 적대세력이 기독교인들을 특정하여 살해했다는 기독교의 일반적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호병기가 군경과 우익인사들과 함께 살해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특정되어 희생되었다기보다 군, 경과 같은 우익인사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297) 윤춘병,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교육국, 1988, 190-191쪽. 기독교인 희생사건기록은 가능한 한 전문을 실었다.

1298) 참고인 정성운 면담보고서 (2008년 11월 11일): 진실화해위원회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1월), 44-45에서 재인용.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2) 강화군 기독교인희생 사건

군경과 우익단체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개별적으로 희생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살해되거나, 희생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강화군 기독교인 희생 사건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들은 1950년 10월 초 집중적으로 희생되었다. 당시 희생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기독교인들은 아래와 같다.

<표 20> 강화군 기독교인 희생자[1299]

소속교회	성명	연령	자격	구분	주소
대문	**김영백**	22	학습인	희생	선원면 대산리
문산	**박승건**	33	학습인	희생	화도면 문산리
고창	**박영학**	31	속장	희생	화도면 고창리
사기리	**한익수**	22	신학생	희생	화도면 사기리
온수	**장명순**	52	장로	희생	길상면 온수리
길촌	**한상윤**	35	원입인	희생	길상면 길촌리
온수리	**정광진**	35	원입인	희생	길상면 온수리
월오지	황도문	53	장로	피랍[1300]	길상면 선두리
내리	**이은애**	1	어린이	희생	화도면 내리
조산	**송인근**	42	입교인	희생	양도면 조산리
강화읍	**김덕원**	40	입교인	희생	강화면 신문리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22일, 강화지역 내무서원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황해도 연백과 경기도 개풍 등지로 후퇴했다. 치안의 공백이 생기자 우익진영의 청년들이 부역혐의자들과 그 가족들 중 일부를 구금하기 시작했다. 9월 28일 후퇴했던 적대세력의 일부가 강화로 다시 진입했다. 이후 각 면별로 우익인사들을 색출하여 약 300여 명을 당시 강화읍 소재 산업조합

1299) 『한빛』 (강화군: 강화지방회, 1952), 4, 15.
1300) 황도문은 피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송악산 인근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추성은 피랍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적대세력과 전투 중 희생되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창고에 구금했다. 한편 10월 2일 경 부역혐의자는 물론 그 가족들 약 1,000명이 양사면 인화리와 철산리 등지에서 도강하여 개풍과 연백으로 피난하였다. 피난과정에서 산업조합에 구금된 인원 중 약 100명의 우익인사들을 연행하여 이들 중 일부를 양사면 인화리 인애성과 개성 송악산 아래 등지에서 집단 학살했다. 당시 희생자는 약 73명에 달했다. 이들 중 송인근·박승건(백승건)·김영백 등은 인애성에서 희생되었고, 황도문 장로와 장명순 등은 개성 송악산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군점령 시기인 1950년 7월부터 강화군에서는 우익 지하 무장단체가 결성되었다. 대한정의단(1950. 7. 10.), 민주청년반공돌격대(1950. 7. 16.), 일민주의청년동지회(1950. 7. 4.), 대한지하 결사대(1950. 7. 5.), 실지회복대 등이 조직되어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 단체들의 구성원들은 주로 대한청년단, 호국군, 경찰 등이었다.[1301] 9월 17일, 일민주의청년동지회는 양사면 철산리에 있는 야포4문 중 3문을 파괴했다.[1302] 9월 18일, 민주청년반공돌격대는 내무서에 잠입하여 실탄 80발과 장총 30정을 탈취했다. 대한정의단은 트럭 5대와 105 거리포 4문을 노획하고, 10명의 적을 생포해 강화도 인근 바다에 정박한 해군 313함에 인계했다. 또한 내무서를 습격해 엽총 4정 등 실탄과 수류탄을 탈취해 무장하기도 했다. 7월 12일, 최덕희 등 소년단원은 인민군 2명에게 독약을 탄 막걸리를 먹여 즉사시킨 후 기관총 1정과 딱콩총 2정을 탈취했다.[1303]

또한 이 단체들의 중요활동 중에 하나가 정치보위부 등 북한 당국의 활동과 이에 부역한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즉 “적색분자의 악행과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1950년 7월 4일 결성된 일민주의청년동지회는 회장의 곽노응을 추대하고 구민서로 하여금 정치보위부에 침투시켜 비밀을 탐지케 하는 한편 소년단 4명을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사용 중인 홍종문의 집에 잠입시켜 정보를 파악했다.[1304] 곽노웅과 송건태는 이승만대통령의

1301) 강화사편찬위원회, 『강화사』 (강화군: 강화문화원, 1976), 345-349, 658. 김추성은 해방 직후 초대 강화군경찰서 서장(1945. 9. 17 - 1946. 7. 31.)이었고, 민주청년반공돌격대의 산파역할을 한 서중섭은 헌병 중사 출신으로 강화군대한청년단장, 조성실과 경종오 등은 호국군 장교였다.

1302) 강화청소년 유격대 기념사업회, 『반공투쟁』, 65. 이 책은 미간행 책자임.

1303) 강화청소년 유격대 기념사업회, 『호국충혼』, 39. 이 책은 미간행 책자임.

1304) 강화사편찬위원회, 『강화사』 (강화군: 강화문화원, 1976), 348-349. 이 단체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일민주의 이념을 주창하면서 당시 우익인사를 납치하는 등 괴롭힌 자, 저녁에 독서회 등 조직 활동을 했던 자 등을 조사하여 명부를 작성하였다고 한다.[1305] 이러한 활동은 수복 후 부역자 색출로 이어졌다.

1950년 9월 22일에서 10월 2일까지 내무서, 인민위원회 등과 강화군민 약 1,000명이 인화리와 철산리를 통해 개풍과 연백일대로 후퇴했다.[1306] 강화의용소방대, 대한정의단, 일민주의청년동지회, 민주청년반공돌격대가 주축이 되어 조직된 치안대가 약 천 여명의 부역자를 색출하여 10월 10일 복귀한 경찰에게 인계했다.[1307] 이런 상황에서 9월 28일 재 진입한 적대세력은 강화군 읍면별로 우익인사들을 검속하여 이들 중 일부를 북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이송 중 일부를 강화 양사면 인화리 인애성과 개성 송악산 인근에서 처형했다. 이들의 피랍과 희생은 인민군점령 시기 행해졌던 우익무장대의 활동에 대한 보복과 1차 후퇴 이후에 벌어진 부역혐의자 가족들에 대한 색출작업과 관계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익인사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인 강화의 교인들이 피랍되거나 희생된 것이다.

시흥군 군자면, 예산군 응봉면, 당진군 송악면 등지의 기독교인들은 우익활동으로 인해 희생된 개별적 사건이다. 강화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약 70명의 희생 자 중에 기독교인 희생자가 11명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청년반공돌격대장 김추성을 희생자로 추가 할 경우 12명이 된다. 또한 피랍된 기독교인들은 13명이다. 강화군에서 희생되거나 피랍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명 중에 25명이 기독교인들인 것이다. 강화군 기독교인 희생 사건을 우익활동에 따른 개별적 희생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 높은 수치이다.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과 전라남도 영암군 염산면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희생 사건은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의 목적은 1. 동지규합, 2. 무기입수, 3. 괴뢰군의 동태조사, 4. 괴뢰군의 후퇴를 기다리며 적구의 일망타진, 5. 적색분자의 악행과 동태조사 등이었다.

1305) 참고인 송건태 진술조서, (2007년 7월 14일): 진실화해위원회,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8월) 25에서 재인용.

1306) 강화사편찬위원회, 『강화사』 (강화군: 강화문화원, 1976), 349쪽. 강화사는 1,000명이 양사면 철산리에 집결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화리 등지에도 대규모 인원이 집결해 있었다. 따라서 2,000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1307)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4 (서울: 을유문화사, 1973), 38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3. 병천 · 염산지역

1) 병천교회

1950년 9월 병천교회 교인 66명이 적대세력에게 집단 살해되었다. 『한국기독교수난사화』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충청남도 논산군 병천면에서 면 내의 "자유진영의 지도적 인물로 지목되는 120명 인사들을 검거하여 미곡 창고에 가두고 학대"했다고 하면서 이중에 병천교회 교인 66명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다고 했다.[1308] 김광동은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이 "반공인사를 포함한 경찰가족, 지주, 기독교인 120여 명을 검거"하였고, 그 중에 "병천교회 교인들과 그 가족들이 포함"되었다고 했다. 인민군과 내무서원이 후퇴하기 직전인 1950년 "9월 27, 8일 이틀 동안 그 지역의 공무원 및 우익인사뿐만 아니라, 병천교회 신도 19세대 66명(남 27명, 여 39명)을 한꺼번에 흙구덩이를 파고 쇠고랑을 채워 죽창과 몽둥이로 죽인 후 매장하였다." 당시 희생된 사람은 "김주옥 집사의 어머니와 부인, 자녀 등을 비롯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집만도 5가구가 있었다. 병천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 직원 1명, 세례인 14명, 교인 12명, 구도자 8명, 학생 및 아동 31명, 갓난아이 5명 등 총 66명"이 희생되었다. 이송 과정에서 탈출한 노미종 권사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발굴한 결과 이상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1309]

위의 사건을 전후해 논산 성동면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 개전 직후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살해되었고,[1310]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에게 기독교인을 비롯한 우익인사들이 집단 살해되었으며 다시 수복 후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해 약 700명의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이 집단 살해되었다.[1311]

1308) 김춘배, "병천교회의 참화," 『한국기독교수난사화』 (성문학사, 1969), 174-175.

1309) 서상택, 『한국개신교가 받은 박해에 관한연구』 (장로회신학대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1-62, 김광동, 「한반도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 『6 · 25전쟁의 재인식』, 179-180에서 재인용.

1310) 쿠키뉴스 (2010년 6월 24일).

1311) 최병필 구술녹취 (2007년 10월 31일). 헌병사령부 특수수사처에 근무했던 최병필은 1955년 헌병사령부가 군인관련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각 도별로 담당관을 두고 전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조사 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기독교인을 비롯한 우익인사에 대한 집단 학살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했다. 아쉬운 것은 병천교회 교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가해자와 희생자의 신원, 특히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학살의 전후 과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포함된 기독교인들이 희생자 중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으로 보아 적대세력이 기독교인들을 특정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염산면지역교회

영광군 염산면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봉남교회) 교인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적대세력에게 집단 살해되었다. 다수의 기록들은 1950년 9월 29일을 전후로 야월교회 교인 65명과 염산교회 교인 73명 등 염산면 기독교인들이 적대세력(정치공작대)에게 집단 살해되었다고 했다. 김춘배의 “봉남교회 73인의 죽음”과 김성준의 “봉남교회 73성도의 참화”, 김수진, 『6·25전란의 순교자들』, 김광동의 “한반도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 윤정란의 “6·25전쟁기 염산면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전남사학)의 「한국전쟁전후 인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전남영광군)」가 염산면 기독교인들의 희생사건을 담고 있다.

김춘배는 “봉남교회 73인의 죽음”에서 염산면 봉남교회(현재 염산교회)가 허상(許詳) 장로와 그의 아들 숙일(淑一)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면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민간인을 학살 할 때 봉남리 교회도 참혹하고도 잔인한 화를 입었다.”고 했다. 당시 “교회 목사 김방호의 가족 8인과 장로 노병재의 가족 13인, 허 장로의 내외” 등이 희생되었다.[1312] 김광동은 “한

목은 “헌병부 범죄수사처 군인관련 민간인 처형 건”이라고 했다; 김복순 구술녹취(2007년 11월 1일) 김복순은 “성동면 주민중 인민군 점령 시 희생당한 가족이 ‘저 가족이 빨갱이 가족이다’라고 지목을 했고 이후 청년 단체가 오빠와 아버지를 연행”했다고 한다. 그들은 “‘네 가족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왜 희생을 안 당했냐?’라고 하며 잡아갔다”고 한다. “창고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잡혀있었고, 아버지는 매를 많이 맞았지만 풀려났고 오빠는 계속 잡혀 있다가 행방불명” 되었다고 했다.

1312) 김춘배, “병천교회의 참화,” 184-185. 염산교회는 야월교회가 설립된 지 거의 40여년 지난 후인 1947년 4월 군남면 옥슬리 교회의 교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해방 후 염산면의 면사무소 소재지가 된 설도로 교회를 옮기면서, 1939년에 설립된 옥슬리교회가 폐쇄되고 염산교회로 개칭되었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반도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 에서 “학살은 1950년 10월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기삼도가 희생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교회 주위를 맴돌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뜰에서 독 묻은 죽창과 몽둥이세례를 받아 숨졌다.” 고 했고, “심지어 인민군은 야월교회 교인들을 교회당에 몰아넣은 후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고 했다.[1313] 그러나 윤정란은 "야월교회 교인들을 교회당에 감금해 놓고 불을 질러 학살한 사실도 없었다. 야밤에 이들을 몰래 끌어내어 죽였던 것이다"라고 했다.[1314]

윤정란은 "'살인 9인위원회'가 학살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생산유격대에게 학살을 담당하게 했다"고 했다.[1315] 시기는 1950년 9월 전후며, 장소는 설도 앞바다, 두우리(공동묘지) 등이고, 학살 방법은 수장 · 참살 · 생매장 등이었다.[1316] 전남사학의 주장은 가해자의 정체, 희생 시기, 장소에 있어서 윤정란의 주장과 일치했다. 그러나 윤정란의 논문과 달리 전쟁 중 영광군과 염산면에서 발생한민간인학살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사했다. 아래의 사건유형별 피해자 현황을 보면 인민군 · 지방좌익 ·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물론 보도연맹원 군경토벌 등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을 모두 조사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1> 사건유형별 피해자 현황 단위 명

지역별	사건유형별피해자현황(명)												
	보도연맹	부역혐의	군경토벌	형무소	미군사건	여순사건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	개별사건	기타사건	미상	합계
영광읍	29	41	103	0	0	2	0	322	0	6	0	22	525
법성면	43	30	48	0	0	0	0	127	4	2	1	0	255
군서면	0	17	79	1	1	1	0	283	0	1	11	9	403
염산면	0	61	27	0	0	4	0	642	2	4	3	0	743
이하 7개 면 생략													
합계	104	161	990	3	5	7	2	2,978	40	36	21	55	4,402

1313) 김광동, 「한반도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 182.
1314) 윤정란, “6 · 25전쟁기 염산면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0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146.
1315) Ibid., 143.
1316) Ibid., 14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위의 표를 통해 희생이 확인된 4,402명 중 68.6%에 해당되는 3,020명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되었고, 28.9%에 해당되는 1,273이 군경에게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광군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많은 이유는 인민군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영광군에 집결했고, 이에 따라 군경의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한에서 유일하게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보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많은 지역이 되었다.

전남사학은 문헌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희생자의 신원과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예를 들어 염산면의 경우 희생자 유가족 11명, 목격자 39명, 전언자 64명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과 가해주체를 명시하였다.[1317] 염산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봉남리 주민들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까지 적대세력, 혹은 군경에 의해 봉남리 설도 수문 앞, 봉덕산 골짜기, 봉양 마을인근 산골짜기 등지에서 희생되었다. 신원이 확인된 주민은 156명이고 최소 200명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사학은 사건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염산면소재지인 봉남리는 5개의 행정마을과 8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곳이다. … 봉남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좌익세력의 유격대인 '생산유격대'의 의한 희생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염산교회 교인 '77인의 순교사'가 그것이다. … 인공점령 시 초기인 8월부터 바로 학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9월 28일 서울 수복과 9월 29일의 영광군 UN군 환영대회 이후 아직 군경에 의해 수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염산면 '생산유격대'에 의해 지역 우익세력에 대한 학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염산교회 교인들의 경우 특히 10월 8일 노병제부터 시작하여 77인에 이르는 교인 모두를 구타 후 목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 밀물 시 바다가 되는 설도 수문 앞 뻘밭에 버려둠으로써 수장케 하는 방법을 통해 모두 학살하였다. 이때 교인으로 수장 당한 이들 중 상당수가 봉남리 주재소에 의해 강제 동원된 의용경찰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1948년 전후 지역좌익세력과 갈등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다. 그 외에도 봉양마을의 부호였던 오영감 일가족 10여명, 경찰가족이라는 이유로 김희봉의 일가족이 봉덕산 골짜기에서 척살되었으며 한시와 봉전의 경찰가족, 군인 가족, 의용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3-40여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학살 되었다.

1317) 전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전쟁전후 인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 (전남영광군)』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2009), 64, 47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반면 양일마을과 합산마을의 경우 '생산유격대'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군경의 진주 후에 총살당하는 이가 30여명에 이른다. … 김대열씨 일가족은 경찰의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증언은 하나 실제로 죽은 장소를 모른 다는 점과 어린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아 공권력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개인감정에 따른 지역우익 행동대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촌마을 역시 좌익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이들이 많으나 면소재지라는 특성 때문에 … 구체적인 희생자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약 수십 명이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는 공통된 증언을 토대로 하여 그 규모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1318].

전남사학은 염산교회 교인들이 희생된 직접적인 동기를 적대세력이 주둔한 상황에서 9월 29일 열린 영광군 UN군 환영대회로 보았다. 이 대회에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여하였다.[1319] 한편 1950년 11월 23일 내무상 방학세가 각 도 내무부장과 정치보위부장에게 "명령-반동분자 취급 처리에 대하여"라는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그는 이 지시를 내린 11월 이전에 재판절차 없이 '일꾼', 즉 내무서원·정치보위부·자위대 등의 임의처형이 있었음을 전제하면서 "적의 침입으로 위급한 경우와 또한 적 앞에서 그들을 환영하여 반동을 감행할 시에는 체포하야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1320] 그런데 11월 이전에 이미 임의처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지시가 11월 이전도 존재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전남사학이 염산교회교인들의 직접적 희생 동기로 UN군 환영대회를 지적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또한 전남사학은 전쟁 이전의 갈등을 희생의 배경으로 판단했다. 비록 강

1318) Ibid., 223. 봉남리 조사에 사용된 문서 자료는 설도 80년사, 염산교회 순교사 '순교 77인의 기록', 염산교회 교적지 사본, 윤정란 '6·25전쟁기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이다. 또한 임덕권(84), 정연식(75), 김하성(70), 노병오,(88) 강해원(72), 김근옥(87), 최종백(80) 등의 구술 자료가 활용되었다.

1319) 전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전쟁전후 인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 229. 전남대는 "야월교회 역시 교인 10여명이 환영대회를 참석하였고, 이로 인해 참석자 뿐 아니라 교인들이 학살되었다"고 했다.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사이 봉남리 설도, 두우리 쪽 가는 길목인 큰북재의 공동묘지, 현재는 염전이 된 모래톱으로 끌려 가 척살, 수장, 생매장 등의 방법으로 학살당하였다."고 했다.

1320) 국사편찬위원회, "명령-반동분자 취급 처리에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16, 215-21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제성이 있었지만 해방 직후부터 염산교회 교인들 중 여러 명이 봉남리 지서의 의용경찰로 근무하였고, 이들이 지역 좌익세력과 갈등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무서나 인민군 등 북한당국이 기독교 전체를 특정하여 처형될 자로 구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서, 인민군 등 북한당국과 자위대와 같은 동조세력은 우익세력을 주민들과 구별하여 특정집단으로 분류했던 것이고 이 안에 염산교회 교인들을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기독교인들을 특정하여 처형을 지시했다는 근거 자료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최소한 이들에게 기독교인 적대라는 통상적 신념이 존재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군 점령지역에서의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인희생 사건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북한당국이 반동집단으로 규정한 국민회, 대한청년단, 의용경찰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치안을 혼란하게 하거나 인명살상에 협조한 기독교인들을 처형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금성감리교회의 한사연 목사와 그 가족, 장석오·장석팔 형제, 의용경찰대 소속 염산교회 교인들과 UN군 환영집회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일부 세력을 친미주의자로 규정하여 적으로 분류하는 북한당국의 통상적 신념에서 기인한 학살의 사례이다. 철원 장흥리교회 서기훈 목사, 김화읍교회 조춘일 목사와 교인들, 염산교회와 병천교회의 일반 신도들의 희생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장흥리교회 서기훈 목사와 김화교회 조춘일 목사와 교인들 그리고 병천교회와 염산교회의 일반 신도들에 대한 집단살해는 북한당국과 동조세력의 통상적 신념이 작동한 결과이다. 즉 미 제국주의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를 근거로 기독교인들을 친미제국주의의 동조세력으로 파악하고 적대했던 북한당국과 동조세력의 신념이 이들을 학살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4.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배제·제거 정책

1)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배제정책

1946년 4월 7일 안악인민재판소장과 검찰소장이 황해도 사법부장에게 올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린 “지방사정 청취사항 보고의 건”에 의하면, “관내의 종교단체는 기독교(장로교가 주)·천도교·천주교·유림이 있는데 그중 장로교 … 일부 신자 간에는 38선 이남을 맹신하며 반동적 언사를 롱(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상의 각 기관에 대하여 … 보안서와 요밀(要密)한 연결 하에 엄중한 비판과 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다.[1321] 안악군 내 장로교인 중 일부가 이남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검찰과 보안서가 이들을 요시찰인들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안악군 치안당국의 이러한 경향은 재령군에서도 확인된다. 거의 같은 시기인 1946년 4월 10일에 기록된 “사법기관 책임자 회의 보고서” 안에 담긴 재령인민재판소의 “관내사회단체 동향”에 따르면, “기독교는 … 물론 반동 방면(方面)이다”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계통의 명신중학교 학생들이 “반동적 색채가 현저함이 발견된다.”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하여선 감시하여 위법행위를 적발하야 무자비하게 처단할 방침”이라고 하였다.[1322] 이미 1946년 4월경 황해도 안악군과 재령군은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남지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서 등 치안기관은 이들을 요시찰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사찰을 하고 있었다.

1946년 7월 1-3일 보안국장회의실에서 북한 각 도의 보안부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보안국장·부국장·보안국 내부 각부 부장[1323]과 평안남도을 비롯한 38선 이북 각 도의 보안부장이 참석했다. 도 보안부장은 평안남도 이권식, 평안북도 장지민, 황해도 차용제, 강원도 허봉학, 함경남도 이필주, 함경북도 이주봉이었다.[1324] 보안국 내부의 각 부장의 사업보고에서 사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부 감찰과는 “북조선의 중심지인 평양일대의 질서유지를 목표로 사찰대를 조직”하였다고 했다.[1325] 보안국 감찰과는

1321) 국사편찬위원회, “지방사정청취사항 보고의 건,” 『북한관계사료집』 9, 162-163.

1322) 국사편찬위원회, “사법기관책임자보고서-재령인민재판소,” 『북한관계사료집』 9, 181-182. 기독교와 타 종교에 대한 보안서의 입장이 달랐다. 예를 들어 “재령 유림은 … 강력한 농민지도기관으로 건설지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재령군은 유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1323) “국내(局內) 각 부장의 사업보고”에 의하면, 보안국은 총무부(인사과, 경리과, 서무과), 보안부, 경비부로 구성되었다. 특히 경비부는 경비과, 철도과, 수상과, 감찰과, 정보과, 교화과를 두었다. 감찰과의 업무는 치안유지를 위한 사찰이었다.

1324) 국사편찬위원회, “제2회 각도보안부장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9, 225.

1325) Ibid., 234-23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1946년 7월 이전에 평양 일대에 사찰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각 도 보안부장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평안북도 보안부장은 “반동분자의 활동정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5. 반동지주와 종교단체 내 반동분자와의 연결활동”을 확인했다고 했다.[1326] 또한 평안남도 보안부장은 “정당, 사회단체, 각 학교, 종교단체 등록조사(별지보고)”를 하였다고 했다.[1327]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보안부장의 보고를 통해 두 지역의 보안부가 종교단체 내의 반동분자를 파악하고 이를 특정하여 사찰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 내 반동분자에는 기독교일부 세력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회 각도 보안부 감찰부장회의가 끝난 직후인 1946년 7월 16일 평양 보안국 감찰부 기획실에서 제1회 각 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감찰부가 주관하였다. 이 회의에서 보안국장은 “남조선의 미군정의 폭정과 그 제국주의정책의 노골화와 … 반동정책의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악화한데 대하야 경각성을 높이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은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하였다. 이어 부국장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 몇 가지 국내정세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중 3번째 항은 “금후는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음모를 계획할 것인즉 낙후분자, 지주, 자본가, 친일파, 종교(예수)교도들을 주의할 것”이었다.[1328] 보안국 부국장은 “예수교”를 특정했다. 즉 1946년 7월 1-3일에 열린 각 도의 보안부장회의에서 언급된 “종교단체 내 반동분자”가 기독교 일부 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안국 감찰부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은 미국 적대라는 냉전의 논리를 주요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또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최고 치안기관인 보안국 감찰부가 1946년 7월

1326) Ibid., 243. 이외 반동 단체의 활동정황은 다음과 같다고 했다.
1. 대한민주당(한국민주당)의 북조선총국 조직과 선전.
2. 미군의 정찰대인 백의사의 홍군정보 정찰과 민주건설사업 파괴음모.
3. 동북지(東北支)에서 파견된 광복군의 활동.
4. 서울 중심으로 조직된 반탁학생연맹의 학생운동.

1327) Ibid., 1990) 249.

1328) 국사편찬위원회,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 『북한관계사료집』 9, 266-26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예수교를 사실상 요시찰대상으로 분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 회의에서 평안북도 보안부 감찰과는 “신의주와 용암포학생사건”을 관내에서 일어난 중대사건으로 보고하면서 “종교 등을 파전(派戰)을 일으켜 적을 약하게 하는 방침을 못 세운 것”을 스스로 비판했다.[1329] 신의주와 용암포학생 사건이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보안부 감찰과는 “평강(군) 반탁사건 24명 검거, 철원 역전사건, 연천역전사건, 이천 자유동맹사건, 김화사건, 토지개혁반동삐라사건(철원), 음모단사건, 간부암살사건” 등을 강원도 내 중요 사건으로 보고하면서, 9가지 중점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중에 네 번째 사업은 “요시찰인 체계화, 종교단체 체계화, 악질분자 체계화”였다.[1330] 요시찰인과 종교단체 그리고 악질분자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를 집중 사찰하겠다는 것이다. 평안북도와 강원도 보안부 감찰과는 모두 종교단체 처리를 자신들의 주요 사업이라고 했다.

1946년 1월부터 신탁통치로 인해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한 평안남도 보안부 감찰과는 현준혁 암살 사건, “3상회의반탁운동 조만식일파의 책동”, “예수교파의 책동, 비협조적 평양의 특징”, 광성·숭인 등 기독교 학교와 제일중학교에 대한 동향 파악, 광성중학을 중심으로 조직된 삼민단과 서북학생연맹 50명 검거 등을 주요 사건으로 보고했다. 특히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반동세력이 험악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3월 13일 根據를 들고 대한정치공작대원증 발부가 잇은후 학생에 주력을 두고 극력 경계하고 잇음.”이라고 했다.[1331]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은 3월 13일에 발생한 강양욱 암살미수 사건이 신익희의 정치공작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감찰과가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파업학교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전후로 발생한 평양시내 학생들의 연대파업도 정칙공작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강양욱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 목사 1명과 강양욱의 장남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또 다른 목사와 딸은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놀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 감찰부와 평안남도 보안부 감찰과는 평양의 개신교와 학생 그리고 정치공

1329) Ibid., 269.
1330) Ibid., 270.
1331) Ibid., 27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작대가 연결되어 반탁집회와 파업 그리고 김일성, 김책, 최용건, 강양욱 암살을 시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평안남도 보안부 감찰과는 “학생들의 동향은 최근은 좀 나아가나 아직도 잇다는 것을 알어야 하며 종교(예수층)이 불량” 하다[1332]고 하면서 보안국 차원에서 “기독교신자의 처리방법” 을 지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보안국장은 “종교단체에 대하야 강압적 태도를 버려야 하며 종교에 이서서는 반동적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철저히 취급할 수 이스나 종교신앙의 자유인 원칙에 입각하야야 할 것” 이라고 했다.[1333] 그러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국이 기독교를 특정하여 사찰할 뿐 아니라, 기독교를 강제할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이상의 사실에 따라 1946년 7월 이전에 황해도 각 지역의 치안 기관은 기독교일부 세력이 공공연하게 이남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를 요시찰대상으로 분류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치안 기관의 최고위층인 보안국과 각 도 보안부 감찰과는 종교, 특히 일부 기독교인들을 반동으로 규정하고 주민들과 구별하여 사찰하거나 이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 치안당국의 이러한 정책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일부 세력이 미국과 38선 이남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북한 당국의 냉전의 논리와 이에 근거한 정책이 미국과 이남의 정치세력에 동조·협력하는 기독교일부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기독교일부 세력을 구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북한당국의 냉전 논리와 그에 근거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립에 대한 감상문” 에서 신석구 목사가 “기독교가 북조선에 있어서 건국에 비협력자니 선거에 반대자니 친미파니 하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1334]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기독교를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고 정권 수립에도

1332) Ibid., 271.
1333) Ibid., 271, 273.
1334) 이덕주, 『신석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십자가를 지다』, 29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협력하지 않는 '친미파'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미제국주의에 동조하고 연동하는 협력자는 인민위원회의 반대편이라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냉전의 진영 논리를 통해 기독교일부 세력을 주민들과 구별하여 분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제거 지침

냉전의 논리에 따라 북한당국은 전쟁 전 기독교일부 세력을 요시찰 대상으로 구별하였고, 이들 중 일부를 처형하기도 했다. 1950년 개전(開戰) 이후 38선 이남에서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인희생 사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이 전쟁 전 38이북에서 북한당국이 기독교일부 세력을 요구별·배제했던 것과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개전(開戰)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에서 "적의 간첩, 파괴 암해분자들이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며 비밀을 탐지하려고 악랄하게 준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 각성을 가지고 간첩, 파괴 암해분자, 불순 이색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을 모조리 적발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1335] 김일성의 이러한 지시는 담당부서인 내무부 산하 내무부장과 정치보위부장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첩 등을 적발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른 관계 당국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은 문서와 진술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보공작과 반동들의 체포공작"이라는 제목의 시흥군 내무서 서류 등은 김일성의 지시가 어떤 형태로 이행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개전 직후인 1950년 7월 16일 경기도 시흥군 내무서 강룡수가 관내 각 면 분주소장에게 "사업조직 강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지시를 문서형태로 하달했다. 그 내용은 "정보공작과 반동들의 체포공작"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우선 반동분자들이 자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반동정당과 사회단체 및 반동 경찰들을 체포하라는 것이다. 체포대상은 "반동 정부기관 복무

1335) 김일성,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 침범자를 소탕하자" 『김일성저작집』 6권 (조선노동당 출판사, 1980), 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 반동 정당 사회단체, 국군 및 반동 경찰의 밀정, 미군 정보기관의 밀정, 이북 탐정원" 등으로 이들을 우선 처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 악질 정부기관 복무자, 국방군 장교 및 정보원 밀정, 미국 군사 밀정, 보도연맹 책임간부, 대한청년단 간부, 국방부인회 간부, 리승만·신성모·리범석·김성수 계열의 정당, 사회단체 책임간부들을 숙청할 것이며 체포 즉시 본서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1336] 반동으로 특정되어 분류된 단체 중 기독교는 없었다.

같은 날 1950년 7월 16일 고양군 내무서장 오극섭은 고양군내 각 면 분주소장에게 "감찰업무 기본조사 및 적발공작" 방법을 문서형태로 하달했다. 이를 지시하면서 오극섭은 "전직 전과 불량배, 악질 종교 등 지주·학생·대상인들의 집채적 지역 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대장을 작성하고 통계 숫자을 장악하여야 한다."고 했다.[1337] 악질종교를 감찰과 적발공작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이다. 1946년 7월 16일 제1회 각 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 등에서 악질종교에는 개신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치안 당국 중에 하나인 내무서는 개전 직후부터 일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악질 종교인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950년 11월 23일 내무상 방학세가 각 도 내무부장과 정치보위부장에게 "명령-반동분자 취급 처리에 대하여"라는 지시를 하달한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반동 분자을 취급 처리함에 있으서 일부 지방 일꾼 들은 법적 근거도 규명하지 안코 정치적으로 고려 없이 란폭한 방법으로 처단하는 사실들이 적지 않음으로 앞으로 이를 단속하기 위하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 1. 금후 각 도 내무부장 정치보위부장 및 각 시·군 내무서장 정치보위부장은 반동분자을 취급·처리함에 잇어서 반듯이 해당 금찰소와 재판소의 법적 수속에 의하야 처리할 것.
> 2. 다만 적의 침입으로 위급한 경우와 또한 적 앞에서 그들을 환영하여 반동

1336) 국사편찬위원회, "사업조직 강화에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 1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215-216.
1337) 국사편찬위원회, "감찰업무 기본조사 및 적발공작의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 25, 452-45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을 감행할 시에는 체포하야 처리할 것.[1338]

반동분자를 처리하되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즉결처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즉결처형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반동분자 처리에 대한 위 지시가 효력을 발휘한 것은 1950년 11월 23일 이후다. 그러나 이 명령서는 11월 23일 이전에 "일부 지방 일꾼 들은 법적 근거도 규명하지 안코 정치적으로 고려 없이 란폭한 방법으로 처단하는 사실"들이 적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한당국 최고 치안책임자가 1950년 11월 이전에, 즉 남한에서도 재판이 생략된 즉결처형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에 근거하여 장연군 목감면 분주소장 정국진은 1951년 3월 20일 '반동처단통계표'를 작성하였는데 처단된 주민은 총 29명이었고, 이중 종교인이 11명으로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처단표 항목은 "노동당, 민주당, 청우당, 무소속, 종교"이었으며, 비종교인 18명과 종교인 11명이 처단된 것으로 나와 있다.[1339]

이 명령서를 통해 확인된 또 하나의 사실은 내무상 방학세 → 각 도 내무부장과 도 정치보위부장 → 내무서·정치보위부장 → 분주소가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지휘명령체계였다는 점이다. 즉 이 지휘명령체계 안에 있는 각 기관은 냉전의 논리에 근거해 기독교일부 세력을 반대편으로 규정하여 분류하고 처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진영을 넘어선 기독교인들

1) 진영을 넘어선 기독교인

한나 아렌트는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난 아이히만의 정체를 통해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원인을 분석했다. 관청용어를 제외하고는 말하는 데 무능력 하

1338) 국사편찬위원회, "명령-반동분자 취급 처리에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16, 215-216.
1339) Ibid., 22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다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그 원인이 그가 생각하는 데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즉 튼튼한 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것이다.[1340] 이 튼튼한 벽은 일종의 진영으로 나치의 제3제국을 의미한다. 나치의 진영 논리와 정책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기에 자신과 다른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진영적 사고가 홀로코스트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제노사이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진영을 넘어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제인 구달도 아렌트와 마찬가지로 외집단(外集團)에 대한 내집단(內集團)의 비인간화와 예외적 폭력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한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가 자신이 견뎌야 할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손을 박해자의 손에 내 맡겼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지점에서 인간 사회의 가능성을 보았다.[1341] 진영을 넘어서는 예수를 통해 인류의 희망을 보고자 했다. 이를 한나 아렌트의 방식대로 말하면 튼튼한 벽을 허물고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다.

전쟁 중에, 혹은 집단학살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진영을 넘어 생각하고 행동한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찾기란 극히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의 사례가 존재한다. 신옥남의 오빠 신동수는 개전 직후인 1950년 7월 초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신동수는 1949년 겨울 김동옥 목사가 주최하는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겨울 내내 성경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귀가 도중 장호원 지서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유인즉 수개월 동안 집에 없었다는 것이다. 구타와 고문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때 지서 경찰이 내미는 서류에 지장을 찍으면 보내준다고 해서 교회 장로님이 신동수의 손가락을 들어 지장을 찍었다. 그것은 보도연맹원 가입서였다. 개전 직후 7월 초 그는 30명의 보도연맹원과 함께 처형되었고, 가족은 김동수의 시신을 수습했다. 문제는 당시 이를 신고한 사람이 이웃집 면사무소 직원이었다고 한다. 신동수의 가족 입장에서는 이 면직원이 아들을 죽인 원수였다. 그런데 신동수의 어머니는 그 집 딸을 평생 친

1340) Ibid., 106-107.
1341)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 184, 19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딸처럼 사랑했다. 이것은 원수지간의 관계를 극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 번은 후퇴하던 인민군 30여 명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들에게 밥을 지어 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밥을 먹고 떠나지 않은 인민군 1명을 숨겨 주었다. 인민군이 떠나자마자 마을의 치안대가 집을 둘러쌌고, 신옥남의 가족과 인민군 패잔병이 마당으로 끌려나왔다. 총과 죽창으로 무장한 치안대가 인민군을 살해하려 하자 신옥남의 어머니는 결사적으로 이를 막았다. 그녀의 가족은 경상북도에서 이사를 와서 연고자도 없었기에 가족을 보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 당시 인민군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역자로 몰려 즉결 처형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끝까지 인민군을 보호했고, 치안대도 돌아갔다. 하룻밤 밥을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 놓은 것이다. 그는 이 사랑으로 장호원과 설성면 일대에서 전도인 생활을 하였다.[1342]

여주 여흥교회 임두현 장로는 온화한 인덕으로 좌우로 나누어진 마을의 갈등을 끝까지 봉합하여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지 않게 하였다. 마을에 경찰도 있었고, 내무서 자위대원도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를 상해하거나 죽이지 않았다. 임두현의 자애로운 마음과 행실이 양측의 날선 대립을 무디게 했다.[1343]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진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념화된 진영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따라 사고하고 행동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을 살리고 갈등을 봉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행동은 순교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2) 서기훈과 강성갑

서기훈은 철원군 장흥리에 위치한 장흥감리교회 6대(1931-1933)와 13

1342) 신옥남 구술녹취록 (2010년 11월 20일); 신옥남·신보옥 구술녹취록 (2010년 11월 20일); 최명환 구술녹취록 (2010년 12월 30일).
1343) 김성환 구술녹취록 (2010년 11월 20일). 구술 당시 89세로 임두현 장로와 마찬가지로 여흥교회 출신의 목사임.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대(1946-1951) 담임 목사였다. 그는 대한청년단 고문으로 있었지만, 그의 사고와 행동은 남한이나 북한의 진영에 속해있지 않았다. 즉 진영적 사고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은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수복 후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대한청년단원들이 마을 공회당에 100여명의 부역혐의자와 그 그 가족들을 구금하였다. 이들은 1차로 7명을 처형하기로 했고, 이중 3명을 살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서기훈 목사는 청년들을 강하게 질책했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장흥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 결국 청년들은 서 목사에게 사과를 하고 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즉 부역혐의자 처리에 관한한 서 목사와 상의하기로 했다. 공회당에 구금되었던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1344]

서기훈 목사의 이러한 행동은 평상시에도 발견되었다. 그는 해방 직후 철원이 북한지역으로 있을 때는 물론 1950년 12월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장흥리의 우익청년들은 물론 좌익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좌우대립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마을의 가장 강력한 좌익 인사인 이영일의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관계를 풀어 나갔다. 그는 십자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양측을 연결하고 화해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희생은 자신의 몫이었다. 1950년 12월 내무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그는 피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당시 문안인사차 찾아온 권오창 속장에게 서 목사는 시 한편을 건넸다.

死於當死 非當死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生而求生 不是生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1345]

1950년 12월 31일 다시 정치보위부로 연행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신이 희생될 것을 알고도 피하지 않았다. 좌익에 의해 우익이 희생될 때 이

1344) 이금성 구술녹취 (2014년 10월 14일);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331; 장흥교회 역사이야기 편찬위원회, 『가시밭의 백합화』, 76. 여상주 권사는 당시 희생된 사람이 1명이라고 했다.
1345) 조선혜, "십자가의 사람 서기훈 목사," 『동부연회순교자열전』, 33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를 저지했고, 우익에 의해 좌익이 살해될 때 역시 이를 저지했다. 그는 희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희생만이 진영을 넘어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선한 것"이라는 개방적 인식과 포용적 시각[1346]을 가지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회주의자 이영일의 아버지 이보연과 계속 대화를 했고, 이를 통해 마을의 평화를 유지했다. 또한 우익청년들이 부역자의 가족을 집단 살해하려고 할 때 온 힘을 다해 이들을 살리려 했던 것이다.

김해 진영읍 한얼중학교 교장 강성갑 목사는 1950년 8월 2일경 경찰에 검거되어 수산교 인근 낙동강변에서 처형되었다. 당시 강 목사와 함께 기거하고 있었던 이상철은 그가 경찰에게 검거되어 처형되기 전, 진해 주둔 해군 첩보대에 체포되어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누군가가 목사님을 좌익으로 밀고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지만 고문으로 인해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피난민 구호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경찰에게 연행되어 총살당했다.[1347] 강 목사의 장남 강홍철은 아버지가 1950년 8월 2일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했다.[1348]

그는 해군 첩보대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고, 이 일로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고문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학교로 몰려드는 피난민을 외면하지 못했다. 또한 어린 중학생을 전쟁터로 보내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당국의 조치를 모른척하지 못했다. 여성을 강간한 지역의 경찰의 파렴치한 행동을 모른 척 하지 못했다. 구호품을 빼 돌이는 관료를 질책했고, 학생들을 보호했으며, 경찰을 질책했다. 전쟁의 상황에서 진영의 폭력적 행동에 맞서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상철 목사를 피신시켰지만

1346) 이덕주,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34.
1347) 이상철, 『열린 세계를 가진 나그네: 블라디보스크에서 토론토까지』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1910), 101-102; 진영읍지편찬위원회,『진영읍지』, (진영: 진영읍지편찬위원회, 2004); 「경남매일신문」 (1968년 7월 3일); 조향록, "농민교육의 개척자 강성갑," 『스승의 길』,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회, 1984), 268-281.
1348) 강홍철 면담록 (2014년 3월).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신은 피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처형되었다. 그는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영의 폭력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려 했던 기독교인이었다.

3) 손양원

손양원 목사는 용서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살해하는데 관여한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다. 또한 자신도 적대세력에게 희생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손동인과 손동신을 살해한 가해자를 용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1349]

> 내 아들 죽인 죄를 회개 않고 죽는 사람들을 내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라고 구원해 내야 할 터인데 동족이 아닙니까? 골육살상은 민족의 비참이요 국가의 대참사입니다. 보복적 행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 민족 이 동포가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그 누가 남겠습니까?[1350]

우선 그의 용서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에서 기인한다. 또한 좌우 갈등으로 인한 상호 보복의 고리를 끊음으로 민족의 화해의 길을 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불의의 불충하나 우리 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이번에는 주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제물이 되어볼까 소원합니다.라고 했다.[1351] 후퇴 직전 적대세력은 손양원 목사를 비롯해 우익인사들을 체포하여 집단 처형하였다. 손양원 목사는 이를 미리 알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졌다. 아들의 죽음이 화해의 제물이

1349) 당시 순천사범학교 학생이면서 순천 반탁학생연맹 감찰부장이었던 황용운은 송동인이 기독교청년회와 반탁학생연맹 소속이었다고 했다. 이 단체의 소속된 배도영과 김범식도 당시에 희생되었다. 황용운 면담보고서, 2008년 7월 10일. 황용운은 순천 북초등학교 등에 주민들을 소개한 다음 토벌군이 목사, 장로, 국민회원을 분류하고 이들로 하여금 분류작업에 참여하게 했다고 했다. 이곳에서 분류된 반군협력 추정자 약 300여 명이 현재 순천시 금강 메트로빌 인근에서 처형되었다고 했다.

1350) 안용준, 『사랑의 원자탄』 7판 (서울: 신망애출판사, 1972), 170.

1351) Ibid., 404.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되었듯이 자신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것이다.

손양원, 서기훈, 강성갑, 임두현, 신동수 가족의 공통점은 용서와 화해이다. 이들의 용서와 화해의 삶은 상호 적대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제·제거하려 할 때,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진영의 논리와 신념에 동조·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 즉 십자가의 논리와 신념을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신앙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타자를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를 포용하려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Ⅷ. 결론

이 논문의 목표는 해방정국과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한국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기독교인희생 사건,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실증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표는 이 사건들에 나타난 정책지침과 내적논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교회의 신학적 반성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Ⅱ. 해방정국의 진영형성과 기독교"에서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논리를 파악했다. 이것을 냉전의 진영논리라고 보았다. 미국의 기독교, CCIA, WCC 소속 일부 교단들이 냉전의 진영논리를 따라 동조·연동했음을 확인했다. 기독교에 의해 신념화된 냉전의 진영논리는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과 이를 배제·제거하여야 한다는 배타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미군정·이승만정부와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부정적 타자로 분류된 특정집단과 개인을 비인간화하기도 했다. 이는 적룡, 공산독균, 사탄의 진영 등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Ⅲ – Ⅵ에서는 대구10월사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6·25전쟁 기에 발생한 민간인집단희생과 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당시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 사건의 경과를 기술한 후 학살 사건에 나타난 정책지침과 논리를 파악했다. 특히 처형될 자에 대한 분류, 즉 타자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논리와 지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했다. 이 논문은 이것을 냉전의 진영논리로 보았다. 그런데 이 진영논리는 자신을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과 부정적 타자를 배제·제거해야 한다는 배타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그들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하면서 이를 신념화 하였다는 것을 파악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했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냉전의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하게 한 내적논리인 종교적 논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이것을 기독교의 배타적 신앙에서 찾았다. 배타적 신앙은 자신을 진리와 선으로 자신과 다른 개인과 집단을 거짓과 악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이원론이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민간인학살에 가담한 논리이고 이는 그들의 활동과 주장을 통해 확인되었다.

자신을 선과 진리를 소유한 자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우월주의와 이에 근거한 배타성은 현재 한국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한 번쯤 이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래의 한국기독교를 생각할 때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소유보다 십자가, 배타성 보다 포용성, 생존보다 희생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냉전의 진영논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이를 초월하여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행동한 기독교인들의 삶과 신앙 속에 담겨 있었다. 따라서 진영을 넘어 상생을 모색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Ⅶ. 6·25전쟁 기 기독교인희생 사건”에서는 북한당국이 기독교인과 갈등하면서 기독교를 점차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고 배제·제거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이러한 배제·제거 정책은 6·25전쟁 개전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살해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북한도 냉전의 진영논리에 따라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치안문서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철원군 정치보위부가 서기훈 목사를 제거한 것은 전형적인 진영논리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대한청년단 고문으로 적 진영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철원군 정치보위부도 그가 진영을 초월하여 양측의 사람들을 모두 살리고자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보위부는 그를 제거했다. 이는 진영론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손양원, 서기훈, 강성갑 등은 진영을 넘어 양측 모두를 포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은 특정 진영의 논리에 따라 동조·연동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 특히 십자가의 신앙을 따라 행동했다는 점이다. 민간인학살을 조사연구하면서 특정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진영논리에 동조·연동한 기독교인들은 많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진영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리에 동조·연동하지 하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강성갑, 서기훈, 손양원과 같은 목사들은 진영을 넘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행동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다. 우선 모두 순교하였다는 것이다. 이 순교는 구체적으로 자신과 입장이 다른 타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소 엉뚱할 모르겠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피하지 않았다.

강성갑은 처형되기 일주일 전에 해군첩보대에 연행되어 심한 고문을 받아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학교를 떠나지 않고 피난민들을 돌보았다. 서기훈 목사도 북한의 내무서에 연행되었지만, 교인들을 두고 도피하지 않았다. 손양원 목사도 자신을 체포하려는 적대세력의 소식을 들었지만 교인들을 떠나지 않았다. 육신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 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을 등지지 않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진영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진영의 논리와 가치를 신념화하지 않고 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강성갑 목사는 군경의 위협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피난민을 끝까지 보호했다. 학생들이 강제 징집되어 총알받이로 끌려갈 때 목숨 걸고 이들을 지켰다. 그의 순교는 약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설령 이로 인해 빨갱이로 몰려 고문을 당했을지라도 이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갈데 없는 피난민과 전쟁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학생들이 자신의 품으로 찾아왔을 때 그는 빨갱이라는 덧씌움과 고문을 감내했고, 목숨까지 내주면서 이들을 지켜냈다. 그의 순교는 약자의 보호가 진영 논리와 그 어떤 강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기훈 목사는 우익청년들이 부역혐의자 가족들을 처형할 때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했고, 북한 당국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을 도피시켰다. 이념으로 갈라진 마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었다. 그의 희생은 서로 죽고 죽이는 좌·우와 남·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순교로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았다.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다. 그의 용서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목회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로서의 사명감에서 기인한다. 또한 좌우 갈등으로 인한 상호 보복의 고리를 끊음으로 민족의 화해의 길을 열고자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수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용서는 모든 진영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그의 순교는 원수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지, 적대적 관계를 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 원수에 대한 용서, 이것이 학살의 현장에서 진영을 넘어 행동한 순교자들의 기독교적 가치이다. 순교자들의 기독교적 가치는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할 미래를 말해준다. 강성갑의 순교에서 확인된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은 기독교가 세민대중(細民大衆)의 옆에 서서 이들을 보호하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서기훈의 순교는 상생할 할 수 없는 남과 북, 좌와 우가 그리스도적 가치를 통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교회의 통일 선교가 적대가 아니라 포용에서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손양원의 용서의 순교는 그가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보복의 고리를 끊으라고 한다. 그의 순교는 한국교회가 자신의 신념을 확산시키는데 열중하기보다 용서와 화해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준다.

강성갑의 순교 신학은 기독교의 신학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전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서기훈의 순교는 좌·우로, 혹은 남·북으로 대치하는 양측이 상생의 길을 열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가능성은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상생을 전제로 진영논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방향에서 북한선교, 혹은 통일신학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손양원의 용서의 신학은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기독교가 갈등의 현장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사회의 치유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게 한다.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과 진영의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자신의 생존과 기득권을 보장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세계에 서로 다른 집단과 개인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진영논리에 충실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야기된다. 즉 오늘날처럼 각 정당과, 국가권력, 남과 북, 사회단체, 대기업, 종교단체들이 자신의 논리를 강화시켜나갈 때, 그 결과 사회가 점차 경직되어갈 때, 이를 중재하고 갈등을 싸매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종교가 특정 진영에 속하기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포용적 가치를 근거로 화해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새로운 종교논리가 아닌가 싶다.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참고문헌

1. 자료

1) 국내자료

신문 · 잡지

「감리회보」「경향신문」「국도신문」「기독공보」「기독신보」「남선경제신문」 「남조선민보」「남조선민보」「노동신문」「대구시보」「독립신보」「동광신문」「동아일보」「매일신보」「민주신보」「민주중보」「부산일보」「서울신문」「신조선보」「연합신문」「영남일보」「오마이뉴스」「자유신문」「제주신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중앙신문」「중앙일보」「청년해방일보」「쿠키뉴스」「한성일보」「해방일보」「현대일보」
「기독교세계」「월간말」「주간서울」「활천」「신앙생활」「새사람」「기독교계」「기독교청년」「복음시대」「부흥」「신학정론」

“流血의 濟州島,” 「新天地」1948년 7월호.
「태평양주보」 제639호. 하와이, 1946년 11월 2일.
김복순. “아내의 일기6.”「선 미술」제7호. 서울: 선미술사, 1890.
김인서, 「신앙생활」10권 7 · 8호. 부산: 신앙생활사, 1951: 1-10.
대한민국정부공보처. 「관보」제10호. 1948년 10월 25일.
———. 「관보」호외 1949년 11월 24일
———. 「관보 제68호. 1949년 4월 2일.
박영창 편.「기독교청년」창간호. 서울: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1948.10.17.
북한연구소. 「북한」1989년 4월호. 서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89.
徐載權. “平亂濟州島紀行.” 「新天地」1949년 9월호.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1998 여름. 서울: 역사비평사, 1998.
유긍우 편, 「밀알」창간호. 서울: 도원동교회 면려청년회, 1947.
이경남. “軍事英語學校.”「世代」111호. 서울: 세대사 1972.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연감 · 사전

김승식 편. 『조선연감』 1947년. 서울: 조선통신사, 1946.
———. 『조선연감』 1948. 서울: 조선통신사, 1947.
정인과 편. 「야소교장로회연감」. 경성: 조선야소교장호회총회사무소, 1940.
한영제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12권.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4.

자료집 · 회의록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록」 제63회. (1949년 7월 1일).
「국회속기록」 제1회 제124호. (1948년 12월 8일).
「인천지방회의록」. 1935-1941.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회 동부연회회의록』. 1956.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회 중부연회회의록』. 1956.
『기독교대한감리회요람』. 기독교대한감리회,1960.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서울: 문영사, 1951.

국사편찬위원회. "[新幹會]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京鍾警高秘 제9932호).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7책>. 1930. 6. 30.
———. "第4回 朝鮮男女基督敎靑年會 聯合夏令會의 건."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6冊. 京鍾警高秘 제8814호, 1930년 6월 11일.
———. "감찰업무 기본조사 및 적발공작의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 2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 "명령-반동분자 취급 처리에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 16.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사업조직 강화에 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 11.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증인 이태원 신문조서.” 「독립대한청년단사건」.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배일격문배포·만세시위·독서회사건 신문 · 공판조서)』. 1921.

———. “한사연.” 『왜정시대인물사료집』6권.

———. “홍가륵신문조서.” 「경찰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31권: 의열단투쟁사 4』

———. 「5월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무부 조사국분석」. 『미국무부정보조사국(OIR) 한국관련보고서 3 : 한국대사자료집성』55, 59~68쪽.)

———. 「秘密結社 産業別勞動組合事件 起訴中止者 檢擧에 관한 건 」仁警高秘 제2771호. 『사상에 관한 정보철』2.

———. 『북한관계사료집』9.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김봉현·김민주,『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문우사, 1963), 84－85.

김익렬, “4.3의 진실.” 제민일보 4·3취재반,『4·3은 말한다』②. 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4: 273－357.

백병흠 편. 『해방뉴스』. 서울: 해방통신사출판부, 1945.

수원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Ⅰ. 경기도: 경기출판사, 2001.

이영재. 「이영재(李英宰)의 삶과 수원 교육」.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Ⅳ 경기도: 경인M&B, 2010.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서북청년단의 실체를 규명한다: 4.3진상규명을 위한 4.3도민토론회 자료집」. 제주: 반석원색인쇄사, 2010.

하리영 편,『조선남감리교회 30년기념보』. 경성: 조선남감리교회전도국, 1930.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빨치산자료집』6. 춘천: 한림대 아세아문화연구소, 1996.

군·검·법무자료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연희전문학교 동지회 흥업구락부 관계보고.” 「地檢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秘 제1253호」. 1938년 8월 9일.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1931. 9. 4. 형공(刑公) 선고 제19호 판결(피고인 尹炅鉉) 등 14명」.

국가기록원. “한희수 판결문.” 대정10년형공제209호. 경성: 경성지방법원, 1921.

———. 「신초식 판결문」. 단기 4289년 형상 제356호.

대법원. 「최문식 대법원 판결문, 西紀 一九四七年 刑上第 一五〇號」. 서울: 대법원, 1948년 2월 6일.

법무부장관.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건(1951. 8. 20). 「형사사건부 제3-1권 권행번호1862(1951)」

「陸本 作命 甲發」제81호. 1949년 5월 5일.

「해군영흥도전적비」. 인천 영흥면 내리: 해군제2함대사령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육군 역사일지』(’50.6·25~’50.8.10). 등록번호 HC00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김익렬 HA00299.” 「증언록」.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66년 11월 28일.

김백일. “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명령 제13호.” 여수: 1948년 12월 15일.

미제8240부대표기지사령부, 「D-10연대(안악부대)간부명단 및 부대원명부, 타이거여단 외」

원용덕. “보병5여단사령부고등군법회의명령제17호.” 광주: 1949년 1월 4일.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자료조회결과회신」(보존활용과-8143, 2007년 10월 17).「김창룡 장교자력표」.

육군본부 법무감실. 「사형집행자명단 1950년 8-12월」. 육군본부 법무감실.

육군본부전사감실. 『공비토벌사』. 서울: 육군본부, 1954.

육본 정보참모부. 『공비연혁』1. 1971.

전사편찬위원회. “작전명령(別) 제1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1권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개정판. 서울: 국방부, 1977.

———. “작전명령 제53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2권 개정판. 서울: 국방부, 1979

———. “작전명령 제87호.” 「陸本作命」. 『한국전쟁사』1권 개정판 . 서울: 국방부, 1977.

「예비검속자명부 제출의 건」(摹署査 제3107호, 모슬포경찰서장, 제주도경찰국장 좌하, 1950.9.4.).

내무부 치안본부 정보과. 「신원기록일제정비계획」. 1980.

서산경찰서 정보과. 「신원기록심사보고」. 1980.

서산경찰서, 『경찰 연혁』1951-1952. 1986.

인천경찰서 대공과. 「월북부역급납치자 자녀학생명부 1955-1955」. 인천경찰서, 1955.

인천항운노동조합. 「신원조사자 연명부」. 1981년 6월.

보고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중간조사결과(종합발표문)」.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대한민국국회.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 1960.

전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전쟁전후 인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 (전남영광군)」.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 서울: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200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강화(교동도)지역민간인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거제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경기 · 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안성·횡성·안양·수원·인천·평택·원주」.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경남 고성 · 남해 · 하동 국민보도연맹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경남 고성 · 남해 · 하동 국민보도연맹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경남 고성 · 남해 · 하동 국민보도연맹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경북 고령 · 성주 · 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경산코발트광산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괴산 · 청원(북일, 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구례지역 여순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국민보도연맹 사건 김창룡 관련 조사보고」.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집단희생국, 2008.

———. 「국민보도연맹」.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군위 · 경주 · 대구지역 보도연맹원 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김포 부역혐의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김해 국민보도연맹원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남양주 진접·진건면 부역혐의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대구 · 고령 · 성주 · 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대구10월 관련 민간인희생사건 – 대구, 칠곡, 영천, 경주지역」.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3월 30일 제128차.

———. 「대전 · 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보성 · 고흥지역 여순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부산 · 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부산경남지역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서부 경남(거창·함양·하동·산청) 민간인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서산 · 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순천지역 여순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아산 부역혐의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안동 부역혐의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여수지역 여순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여주부역혐의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위원회, 2008.

———. 「영천 민간인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완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전남 동북부 국민보도연맹 사건 – 광주 · 광산 · 여수 · 순천 · 광양 · 고흥 · 곡성 · 구례 · 나주 · 보성 · 장성 · 화순 – 」.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전남 서남부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군)」.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종합보고서Ⅱ :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 「중요 참고인 김안일 · 장경순 조사내용 추가보고」조사5팀-272. 2009년 3월 18일.

———.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영동·옥천·보은·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통영 · 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포항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 「해남군 민간인희생 사건」.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구술 · 기타자료

강응섭 구술녹취록 (2012년 10월 17일).
강흥철 면담록 (2014년 3월).
고수국 구술녹취록 (2008년 5월 22일).
권종순 구술녹취록 (2009년 10월 28일).
권종환 구술녹취록 (2009년 1월 9일).
김규현 구술녹취록 (2009년 3월 26일).
김근배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10일, 2월 19일).
김성보 통화구술 (2014년 7월 12일).
김안일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9일).
김양수 구술녹취록 (2007년 11월 24일).
김양식 구술녹취록 (2010년 4월 12일).
김영일 구술녹취록 (2008년 2월 2일, 28일, 29일).
김장성 진술녹취록 (2007년 10월 11일).
김점곤 구술녹취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년 4월 7일).
김점곤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23일).
김종환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9일).
김찬하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27일).
김흥석 구술녹취록 (2006년 7월 1일).
명장근 구술녹취록 (2010년 4월 10일).
문기섭 구술녹취록 (2010년 2월 25일, 2010월 28, 11월 4일).
박경의 · 이간원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10일).
박두순 구술녹취록 (2008년 8월 9일).
박명학 구술녹취록 (2008년 2월 14일, 5월 20일).
박병순 구술녹취록 (2006년 7월 1일).
박태현 구술녹취록 (2007년 2월, 2008년 6월 6일).
방성일 구술녹취록 (2010년 3월 13일).
배동의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9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변흥렬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서국신 면담보고서 (2007년 11월 2일).
서국신 진술조서 (2007년 10월 29일).
서재성 진술녹취록 (2009년 4월 15일, 2009년 4월 30).
선휘성 채록, 박오선 구술. 『지역민이 체험한 여순사건」녹취록1. 국사편찬위원회, 2006.
손병윤 구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손병환 진술조서록 (2008년 12월 11일).
신옥남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안풍화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윤자민 구술녹취록 (2007년 9월 1일).
윤종하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이근양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28일).
이금성 구술녹취록 (2014년 10월 14일).
이기권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18).
이길례 통화보고 (2009년 7월 8일).
이길수 구술녹취록 (2010년 6월 2일).
이병식 진술녹취록 (2009년 2월 13일).
이삼근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이수봉 구술녹취록 (2009년 5월 8일).
이인석 면담보고서 (2008년 12월 15일).
이재병 진술녹취록 (2008년 5월 29).
이조우 진술녹취록 (2008년 12월 17일).
이종여 구술녹취록 (2013년 10월 14일).
이준영 진술녹취록 (2009년 1월 30일).
이흥주 진술녹취록 (2007년 10월 11일).
이희영 구술녹취록 (2012년 10월 17일).
인명배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9일).
임근배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7일).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임병철 진술조서 (2007년 10월 11일).
임수복 구술녹취록 (2006년 7월 1일, 2009년 4월 7일).
임윤태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7일).
임인자 구술녹취록 (2006년 3월).
장경순 구술녹취록 (2009년 3월 4일).
전민순 구술녹취록 (2007년 7월 20일).
전인제 구술녹취록 (2007년 8월 18일).
정익철 구술녹취록 (2008년 2월 12일, 4월 9일).
조성은 통화구술록 (2013년 11월 22일).
조성임 통화구술록 (2005년 8월 3일).
조순환 진술조서 (2009년 10월 19일).
최갑성 진술녹취록 (2008년 4월 8일).
최병필·최병필 처 구술녹취록 (2007년 10월 31일).
한의석 면담보고서 (2008년 12월15일).
현신애 통화구술 (2005년 8월 3일).
현인애 구술녹취록 (2009년 4월 8일).
홍우영 구술녹취록 (2009년 6월 2일).
홍종식 구술녹취록 (2008년 2월 6일).
황교관 구술녹취록 (2007년 7월 31일).
황극로 구술녹취록 (2007년 7월 31일).
황두완 구술녹취록 (2007년 2월).
황시익 구술녹취록 (2007년 7월 31일).
황안익 구술녹취록 (2007년 7월 31일).
황용운 면담조서 (2008년 7월 10일).
황창범 구술녹취록 (2009년 2월 11일).
구술녹취록 350건.

"인천청년동맹 신화수리반 회관 낙성기념 촬영." (1929년 3월 17일).
"전인천야구대회 우승기념사진, “ 1927.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고 장석팔 장로님 순교 63주년 기념 다큐 영상.” http://cafe.daum.net/sks1962. 2014년 10월 1일 접속.

「경애하는 이 대통령각하」. 1950년 3월. 팜프렛

「후셰도」. 1930년대.

군 경력자료 150건.

동지사대.「조선인유학생 명부: 1988-1945년」

木崎純一. “掌中 朝鮮全圖.” 경성: 伊林書店, 1941.

미군정청보건후생부, “수의사등록증” 243호. 1946년 10월 19일.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교과서 묶음』.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1931-1933.

한국기독교연합회. 「國旗拜禮問題에 對하야 그리스도敎의 立場을 闡明함」. 1949.

2) 해외자료

“Report of Angang Area Disturbances” 1946. 11. 14.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1945.9-1948.6)』1권으로 영인. 강원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604-609.

“로마넨꼬가 메레츠꼬브 동지와 쉬띄꼬브 동지에게 보낸 남조선 정세에 대한 정보자료, (나) 미 군정청의 행동.”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Ⅳ.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1, 문서철 10, 2. (『해외사료총서』6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李承晩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반대 발언과 관련해 애치슨 美국무장관이 존슨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 1949년 05월 10일. *FRUS* 1949, 1016. (『자료대한민국사』제12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트루만 美대통령에게 제출한 NSC 8/2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보고서(1949년 3월 22일).” *FRUS* 1949. (『자료대한민국사』제11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미국 국무부 동북아시아부 부장 비숍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극동국 국장 버터워쓰에게 보내는 비망록(1948년 12월 17일).” *FRUS* 1948, 1337~1340. (『자료대한민국사』 제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미국 국무부 점령지역 차관보 살쯔만의 대한경제원조 정책안에 대한 비망록,” 1948년 9월 7일, *FRUS* 1948, 1292~1298,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애치슨 美국무장관이 무쵸 주한미대사에게 보낸 전문(1949년 5월 9일).” *FRUS* 1949, 1014~1016. (『자료대한민국사』 제12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트루만 미국 대통령, 대한경제원조 지속을 위한 행정조정을 지시: 트루만 미국대통령이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1948년 8월 25일).” *FRUS* 1948, 1288~1289.

740.00119 Control(Korea)/10-145: Letter, Ha Young Youn & Kyung Chik Han to the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September 26, 1945).” 「주한미군정치고문문서(1945.8-1946.2)」 (『대한민국사 자료집』 18권으로 영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740.00119 Control(Korea)/10-145: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H. Merrell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Otober 1, 1945) NO.7 Subject : Soviet Political Activity in Northern Korea. 「주한미군정치고문집(1945.8-1946.2)」 (『대한민국사 자료집』 18권으로 영인.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HQ USAFIK. Counter Intelligence Corps, *Monthly Information Report*(1945.9~1949.1)(『미군정기 정보자료집: CIC(방첩대)보고서』 제3권으로 영인. 강원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 *G-2 Periodic Report*(1948.12.13.~1949.6.17.) (『주한미군정보일지』 제6권으로 영인. 강원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G-2 Periodic Report*(1948.12.13.~1949.6.17.) (『주한미군정보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일지』 제7권으로 영인. 강원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G-2 Weekly Summary*(1948.1.31.~1948.11.26.) (『주한미군정보일지』 제5권으로 영인. 강원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Kennan, George. Moscow Embassy Telegram #511. (February 22, 1946)

NARA. RG319 E57 Box45 ACOFS G-2 INCOMING+OUTGOING MSGS 1950, USMILAT SEOUL FROM SANA SGD MUCCIO, 1950.6.23. [NoGunRi File No. 9123-00—00726]

———. 324 Entry 5AF, Box3579, INTEL 5TH AF [NoGunRi File No. 342.212] .

———. RG338 Box3578RARMY-AG RPTS49-54 25ID SPTING DOCS 1-11 OCT 50 BK2, 25사단CIC파견대, 1950. 11. 2. [NoGunRi File No. 9123-00—00289] .

———. RG338 BOX729, HQS.EIGHTH ARMY, 1950. 7. 26. [NoGunRi File No. 8511-00-000250] .

NSC48 : U.S. Policy toward Asia. (June 10, 1949)

NSC5 : The Position of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Greece,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Council(Souers), January 6, 1948. *Frus* 1948, Vol. Ⅳ.

NSC68 : U.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NSC8 : A Report to be Presiden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April 2, 1948)

NSC8/2 : The Position of the U.S. with Respect to Korea. (March 22, 1949)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President Truman NSC 5/2. February 12, 1948. *FRUS* 1948, Vol. Ⅳ, 51.

Report, "American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by Clark Clifford"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Clifford-Elsey Report"], September 24, 1946. Conway Files, Truman Papers.

Stalin, J.. Stalin Speeches (February 9, 1946).

The Atlantic Chapter. 1941. (『자료대한민국사』 제8권. 과천국사편찬위원회),

Truman, Harry. President Harry S. Truman's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Congress, March 12, 1947.

United States Policy on Atomic Warfare (NSC 30). *FRUS* . 1948, vol. I, Part 2, 624-628.

2. 단행본

"농촌개혁의 개척자 강성갑." 『스승의 길』.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1984.

『신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09.

『신약전서』국한문.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강아오스딩. 『가톨릭과 공산주의』. 서울: 종현가톨릭청년회, 1948.

강원룡. 『빈들에서』 1. 도서출판 열린문화, 1993.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강진읍교회 편집위원회. 『강진읍교회70년사(1913-1983)』. 광주: 광주복음문화사, 1983.

강화군사편찬위원회, 『강화사』. 강화군사편찬위원회, 1976.

개복교회역사편찬위원회. 『개복교회 110년사(1894-2004)』. 서울: 쿰란출판사, 2004.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경상북도사』 중권. 경북: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1983.

고정훈 외.『명인옥중기』. 서울: 희망출판사, 1966.

공국진. 『한 노병의 애환』. 서울: 원민 publishing house, 200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공보처선전대책중앙위원회. 『自由大韓: 六二五事變一週年記錄』. 서울: 국민회중앙총본부, 단기4284.

구본선 외. 『교동선교10년사』. 1999.

구정교회. 『구정교회 60년사』. 경주: 구정교회, 1984.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1978.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애국자』창간호. 1949년 10월 1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1945~1950.6)』제1권.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금산제일교회역사편찬위원회. 『금산제일교회 100년사』.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교회 기획위원회. 『중앙교회 107년사』. 서울: 기독대한감리교회 중앙교회, 1998.

기독교대한수도원출판위원회.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철원: 기독교대한수도원, 1994.

김광동. “한반도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 『6·25전쟁의 재인식』. 도서출판 기파랑, 2010.

김광우. 『김광우 목사 자서 빛으로 와서』. 서울: 도서출판 탁사, 2002

김기진.『한국전쟁과 집단학살』. 서울: 푸른역사, 2005.

김남식. 『사형수의 전도자 차남진 박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김동옥. 『설봉 기슭에서』. 이천: 정암 김동옥 목사 회고록 간행위원회, 1984.

김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규장문화사, 1982.

김수진. 『광주제일교회100년사』. 서울: 쿰란출판사, 2006.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 1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김영일. 『격동기 인천』. 인천: 동아사, 1986.

김영제(金永濟). 『철창(鐵窓)』. 서울: 기독교신문사, 1947.

김영해. 『위대한 스승 강성갑』. 김해: 김해수정인쇄사, 2000.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김요나. 『김제노회반세기』. 김제: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제노회역사편찬위원회, 2002.

김요나. 『복음의 못자리 – 청평교회 50년사』. 청평교회 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김윤근. 『해방대와 5·16』. 서울: 범조, 1987.

김인서.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서울: 독학협회출판부, 1971.

김일성.『김일성 저작선집』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김재준. “역자 서.” 『現代人의 危機』. 서울: 조선기독교서회, 1946.

김재준. 『기독교의 건국이념』. 서울: 선린형제단출판부, 1945.

김점곤.『한국전쟁과 남로당전략』. 서울: 박영사, 1983.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01.

김춘배 편. “서문.” 『해방의 종교』. 서울: 조선기독교서회, 1948.

김춘배. 『한국기독교수난사화』. 서울: 성문학사, 1969.

김형도. 『복의 근원』. 서울: 한국기독교문학연구소출판부, 1979.

김흥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 『해방후 북한교회사: 연구 증언 자료』. 서울: 다산글방, 1992.

김흥수 편. 『해방 후 북한 교회사: 연구·증언·자료』. 서울: 다산글방, 1992.

大檢察廳 公安部,『左翼事件實錄』第1卷 (1965), 372.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노회. 『전남노회 75년사』. 광주: 글벗출판사, 1993.

대한예수교장로회 익산서두교회. 『서두교회의 역사(1898-1998)』. 익산: 성심출판사, 1998년.

도마수. 『가톨릭사상의 기초』. 서울: 가톨릭연구회, 1949.

도진순. “한국전쟁의 기본개념으로서 제한전의 성립과 분화.” 『역사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목포남부교회 역사편찬위원회. 『목포남부교회역사』. 목포: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포남부교회, 199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미주라셩과 하와이재미한국련합위원회집행부. 『해방죠션』. 미국: 미주라셩과 하와이재미한국련합위원회 집행부 1948.

민영완. 『민영완 회고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서울: 하나의학사, 1989.

박만순 외. 『기억여행 탑현리에서 노동리까지』. 예당출판사, 2006.

박용묵. 『신애보』. 신애사, 1973.

———. 『질그릇에 보화』. 신애사, 1978.

박위근. 『염천교회 5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염천교회, 1998.

박일원. 『남로당의 내막』 전편상권. 1947.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10.

박효생. 『김해교회 백년사』. 김해: 김해교회, 1998.

배민수(박노원 역). 『배민수 자서전(누가 그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배태준, 『내가 살아온 한국교회』. 도서출판 생동, 1993.

백선엽.『實錄 智異山』. 서울: 고려원, 1992.

법무부. 『한국 교정사』. 1987.

북한연구소 편.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남도편. 서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90.

———.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북도. 서울: 사단법인북한연구소, 1990.

사사키 하루다카. 『한국전비사 – 건군과 시련』상권. 병학사, 1977.

사엄태 편. 『믁시록히셕』. 경성: 三天使之奇別社, 1914

산돌 손양원기념사업회. 『산돌 손양원의 목회와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새문안교회85년편찬위원회. 『새문안 85년사』, 서울: 새문안교회, 197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하. 서울: 역사비평사, 1999.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서울: 금문사, 1973.

————.『사상검사』. 서울: 계명사, 1992.

성중경. 『만수교회 100년사』. 서울: 밀알기회신앙과지성사, 1996.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성청전국연합회. 『성청사』 . 서울: 성청장학회, 1959.
송길섭. 『상동교회일백년사』. 서울: 상동교회, 1988.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서울: 창비, 2009.
신영걸. 『야월도의 순교자들』. 서울: 보이스사, 1982.
안동교호 80년사 편찬위원회.『안동교회 80년사』. 안동: 안동교회, 1989.
安浩相. 『일민주의의 본바탕』. 서울: 일민주의연구원, 1950.
양백마. 『은총에 포로 된 나의 투쟁』. 1964.
양우정. 『싸우는 민족의 이론』. 민족문화출판위원회, 1947.
양평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양평교회 100년사』.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영락교회. 『영락교회50년사』1945-1955. 서울: 성원인쇄사, 1998.
영락교회35년사편찬위원회 편. 『영락교회 35년사』. 서울: 영락교회홍보출판부, 1983.
영락교회홍보출판부. 『영락교회 -창립10주년-』. 서울: 영락교회, 1955.
오제도. 『붉은 군상』 제1집. 부산: 남광문화사. 1951.
———. 『思想檢事의 手記』. 서울: 昌信文化史, 1957.
———. 『적화삼삭구인집』. 부산: 국제보도연맹, 1951.
———. 『추격자의 증언』. 서울: 희망출판사, 1969.
———. 『국가보안법실무제요』. 서울: 서울지방검찰청, 1949.
오하영 편, 『국민』. 서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선전부, 1946.
용천노회 편. 『용천노회80년사』. 서울: 청양문화사, 2010.
우상열, 『나의 회고록』 . 그린파스츄어, 1992.
유의영. 『도림교회7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유재헌. “구국기도단선언문.” 『부흥회, 전도회, 주일학교 용 복음성가』. 구국기도단, 1948.
유호준. 『역사와 교회: 유호준 목사 회고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윤경로. 『새문안교회 100년사』. 서울: 밀알기획신앙과지성사, 1995.
윤춘병. 『여주중앙교회 100년사』. 여주: 교회선교 100주년기념사업회, 200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교육국, 1988.
윤판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천성을 듣는 사람』. 서울: 보이스사, 1977.
윤판석.『간증백세』. 서울: 신망애출판사, 1970.
응암교회 『應岩敎會 六十年史』.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응암교회, 1991.
이기봉. 『빨치산의 진실』. 다나, 1992.
이덕주. 『강화기독교 100년사』. 서울: 밀알기획, 1994.
———. 『기독교사회주의 산책』. 서울: 홍성사, 2011.
———. 『신석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십자가를 지다』.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2.
———. 『종교교회사』. 서울: 도서출판종교교회, 2005.
———.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한국적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이영빈 · 김순환. 『통일과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 고난과함께, 1994.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도서출판 감신, 1998.
이응준.『回顧 90年』. 산운기념사업회, 1982.
이찬영. 『안주 노회사』. 서울: 안주노회사편찬위원회, 2003.
———. 『황해도 교회사』. 서울: 황해도교회사발간위원회, 1995.
이창건. 『KLO와 한국전 비사』. 서울: 지성사. 2005.
이천중앙교회90년사 출판위원회. 『이천중앙교회 90년사(1902-1992)』. 이천: 이천중앙교회, 1992.
이헌영. 『이헌영 목사 기념 문집』. 서울: 일정사, 1994.
이호열. 『함해노회 8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1992.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인천: 인천직할시, 1993.
인천직할시시사편찬위원회. 『인천개항 100년사』. 인천: 경기출판사, 1983.
임영철. 『바롬 고황경 그의 생애와 교육』. 서울: 도서출판 삼형, 1988.
임옥인 편. 『서울 YMCA 50년사』. 서울: 동영인쇄주식회사, 1976.
임일. 『나의 국가관』. 서울: 교문사, 1981.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자양교회. 『자양교회 70년사』.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6.
장도영. 『망향』. 서울: 숲속의 꿈, 2001.
장동주 외, 『楊林敎會 90年史』. 광주: 글벗출판사, 1994.
장병욱. 『6·25공산남침과 교회』. 서울: 한국교육공사, 1983.
장석윤. 「風霜 끝에 얻은 攝理」. 『격랑반세기』1. 강원도 춘천: 강원일보사, 1988.
장성옥. “공산주의와 민족의 위기.” 『사회문제와 기독교』. 서울: 십자가사, 1949.
장원봉. 「용암포조선민주당 수난사건」. 『호박꽃 나라사랑』. 서울: 기독교문사, 1988.
장흥교회 역사이야기 편찬위원회, 『가시밭의 백합화』. 강원도: 장흥교회, 2003.
전갑생. 『사등교회 100년사』. 도서출판 선인. 2010.
전갑생. 『옥포교회 100년사』. 거제: 늘함께, 199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서울: 국방부, 1971.
전주서문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100년사(1893-1993』. 서울: 쿰란출판사, 1999.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서울: 정음사, 1978.
정규오. 『나의 나된 것은: 정규오 목사 회고록』. 광주: 한국복음문서협회, 1984.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05.
정영진. 『폭풍의 10월』. 서울: 한길사, 1990.
정작참모부군사연구실. 『한국전쟁 해군사료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해군본부, 2001.
정해구. 『10월 인민항쟁연구』. 서울; 열음사, 1988.
제8086부대 육군부대(극동사령부) 군역사파견대. 『한국전쟁에서의 북한인유엔군유격대』. 1953.
조병옥. 『나의 회고록』. 서울: 민교사, 1959.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 『민족 운명의 기로』. 서울: 경무부경찰공보실, 1948.
조선기독청년회전국연합회. “성명서.” 『애국 삐-라 전집』 제1집. 서울: 조국문화사, 1946.
조선혜 외. 『동부연회 순교자 열전』.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조세장 편. 『원대한 건국』. 서울: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발행, 1947.
조향록. 『팔십자술』. 서울: 도서출판 신지성사, 2000.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2. 서울: 을유문화사, 1973.
진영읍지편찬위원회.『진영읍지』. 진영읍지편찬위원회. 2004.
진천군사편찬위원회. 『진천군지』. 상산인쇄사, 1974.
천용택. 『잊을 수 없는 6·25』. 기독교복음운동중앙회, 2001.
철원군지증보편찬위원회. 『철원군지』下. 강원도: 철원군지증보편찬위원회, 1992.
최영희 외. 『애산 이인』. 서울: 과학사, 1989.
평북노회사 편찬위원회. 『평북노회사』. 서울: 가나기획, 1996.
하양교회 80년사 편찬위원회,『하양교회 80년사』. 경산: 대한예수교장로회 하양교회, 1991.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 서울: 보린원, 1949.
한경직. 『나의 감사』. 서울: 두란노서원, 2012.
함광복.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서울: 도서출판 estward, 2007.
함석헌. 『뜻으로본 한국역사(함석헌 전집1)』. 서울: 한길사, 1983,
해제중앙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해제중앙교회 65년사』. 서울: 은혜기획, 1997.
홍기표 편. 『내리95년사』. 인천: 기독교대한감리회인천내리교회, 1980
홍만춘. 『진남포반백년사』 진남포반백년사편찬위원회, 1987.
홍이표 외, 『대전제일교회 100년사』. 서울: 밀알기회, 2008.
홍종숙. 『默示錄釋義』. 경성: 야소교서회. 1913.
화성군사편찬위원회.『화성군사』. 화성: 화성군, 1990.
Arendt, Hannah(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보고』. 서울: 한길사, 2006.

Arendt, Hannah(이진우 ·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6.

Aronson, Alliot(이훈구 외 역). 『사회심리학』 . 서울: 탐구당, 2010.

Assmann, Jan(변학수 역).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서울: 그린비 2009.

Caroll, James(전일휘 · 추미란 역).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서울: 동녘, 2009.

Docker, John(신예경 역).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 서울: ㈜알마, 2012.

Gaddis, John Lewis(강철 · 강규형 역).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서울: 에코리브스, 2010.

Gaddis, John Lewis(박건영 역).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서울: 사회평론, 2003.

Goodall, Jan(박순영 역). 『희망의 이유』. 서울: 궁리, 2013.

Henderson, Gregory(박행웅 · 이종삼 역).『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 2000.

Hirsch, Hirbirt(강성현 역).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서울: 책세상, 2009.

Inboden, William.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The Soul of Containment.*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Kennan, George F.(유강은 역).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2013.

Marks, Stephan(신종훈 역).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 서울: 책세상, 2009.

Milgram, Stanley(정태연 역). 『권위에 대한 복종』. 서울: 에코리브르 출판사이야기, 2009.

Nichols, Col. Donald. *How Many Times Can I Die?.* Brooksville, Fla.: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Brownsville printing, 1981.

Stoobver, Benrd(최승완 역).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서울: ㈜역사바평사, 2008.

Winnington, Alan. *I saw the Truth in Korea.* England: People's Press Printing Society, 1950.

3. 논문

권귀숙. “대량학살의 사회심리: 제주4.3사건의 학살과정.” 「한국사학」제36집 5호. 2002.

김동춘. “냉전, 방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경제와 사회」2001. 봄호. 2001.

김득중. “한국전쟁 전후 육군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 「사림」제36호. 서울: 수선사학회, 2010.

김진웅. “얄타회담과 미소관계.” 「역사교육논집」11호. 서울: 역사교육학회, 1987.

김흥수,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학생 청년운동,”「신학과 현장」제23집. 대전: 목원대학교신학연구소, 2013.

———. “한국전쟁과 세계교회협의회, 1950-1953.” 「한국국기독교와 역사」제14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안종철, “미군정참여 미국선교사·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한국기독교와 역사」제30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윤정란. “6·25전쟁기 염산면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제20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이승준. "한경직 목사와 한국전쟁." 「한국기독교와 역사」제15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탁지일. “북미교회의 한국전쟁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제38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학위논문

김득중.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서상택. “한국개신교가 받은 박해에 관한연구.” 장로회신학대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허준호. “냉전체제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 박사논문, 2010.

4. 신문 · 잡지

강원룡. “강원룡 목사의 체험 한국 현대사 ①.” 「신동아」. 2003년 12월호.
———. “머리말.” 『기독교의 건국이념』. 서울: 선린형제단출판부, 1945.
김연학인. "영적 결전장." 「활천」 중간 제9호. 세광사, 1949.
김유연. "건국의 이념," 「활천」 20권 2호. 서울: 활천社, 1946: 7-10.
———. “임시정부 영수들의 주신말씀.” 「활천」 20권 1호. 서울: 활천사, 1946: 2-5.
김인서. "7인의 순교자와 김응락 장로." 『한국교회순교사와 그 설교집』. 서울: 신앙생활, 1962.
———. 「신앙생활」 10권 10호. 부산: 신앙생활사, 1951: 1, 10.
김재준. "건국과 도덕." 「새사람」 속간 8호. 서울: 새사람사, 1946: 6-8.
———. “西雲과 南雲-바깥소식: 미국 감리교와 공산주의.” 「십자군」 2 (1950).
김종대. "八 · 一五 解放과 서울의 敎界." 「기독교계」 創刊號. 서울: 基督敎界社 , 1957: 136-137.
김진석. “해방정국 당시 사상검사가 진단한 내부의 적: 인터뷰 오제도 변호사.” 「월간 동화」 ’94/7. 서울: ㈜뿌리출판사, 1994:70-79.
김치묵. “YMCA 운동의 전망.” 「기독교청년」 창간호. 서울: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1948.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김형도. "전쟁과 기독교." 「십자기」. 서울: 국방부 군목실, 1952년 7월: 14-22.

———.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청년」 창간호. 서울: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1948: 24-25.

김희운. "現代史上의 基督敎批判." 「福音時代」 제1권 제2호. 서울: 조선기독교 애린선교단 출판부, 1948: 32-36.

독보. “平壤敎會의 三一 再 血鬪史.” 「부흥」 1948년 8호. 서울: 부흥사, 1948.

박현명. "교회와 국가."「활천」 21권 1호. 서울: 활천社, 1949년 3월.

박형룡(주간). "모든 교훈의 풍조." 「신학정론」 제1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50: 권두사.

변홍규. "우리의 해방과 자유."「활천」. 서울: 활천社, 1947년 10월.

오제도. “내가겪은 공산치하 3개월.” 「자유」 6월호. 서울: 자유문화사, 1964: 29-31.

———. “북한의 종교탄압과 불법재판.” 「자유」 6월호. 서울: 자유문화사, 1965: 36-37.

———. “서문.” 『적화삼삭구인집』. 부산: 국제보도연맹, 1951: 1-5.

———. “오제도회고록 上.” 「북한」 7호. 서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74: 160-177.

———. “오제도회고록 中.” 「북한」 8호. 서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1974: 150-167.

———. “한경직박사론.” 「개벽」 7월호. 서울: 개벽사, 1956: 110-111.

임일. “공산당은 왜 민족주의를 앞세우는가.” 「자유」 33호. 서울: 자유문화사, 1963: 18-21.

전영택. “속간사: 새사람을 다시 내는 말슴.” 「새사람」 속간 8호. 서울: 새사람사 1946: 2.

전인선. "基督敎와 社會問題." 「福音時代」 제1권 제2호. 조선기독교 애린선교단 출판부, 1948년 7월: 37-44.

———. “기독교와 사회문제.” 「福音時代」 1권 2호. 서울: 조선선교애린선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교단출판부, 1948.

정달빈. "십자기." 「십자기」 창간호. 서울: 국방부 군목실, 1952: 2-4.

조갑제. “金昌龍이 살리자고 했다: 朴正熙 수사책임자 金安一 당시 특무과장,” 「월간조선」1989년 12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1989. 326-333.

———. “남로당과 박정희 소령 연구,” 「월간조선」1989년 12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1989. 302-325.

조신일. "사명에 충실하소서." 「십자기」. 서울: 국방부 군종실, 1952년 7월.

主幹. “전국청년신앙동지들께 檄함 - 우리들의 투쟁대상.” 「기독교청년」 창간호. 서울: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1948: 6-7.

최석주. “幻象을 보는 者.” 「돌다리」1호. 서울: 돌다리사, 1949: 6-7.

“(6·25 전쟁 60년)지리산의 숨은 적들(143) 육사동기 박정희·김안일.” 「중앙일보」. 2010년 8월 2일.

한경직. “교회진흥의 비결.” 「신학정론」 창간호. 1949: 55-57.

황은균, “삼팔선과 기독교청년.” 「부흥」1948년 1월호. 서울: 부흥사, 1948: 9-12.

———. "八·一五 解放과 평양教界." 「기독교계」創刊號. 서울: 基督教界社, 1957: 138-140.

———. “삼팔선과 기독교청년.” 「부흥」8호. 서울: 부흥사, 1948: 21-25.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ian Victimization and Korean Christianity in the Age of the National Division and Korean War(1945-1953)

Choi Tae Yook
Department of the Theology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how Korean Christianity come to be involved in massacr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Korean War. First of all, I have focused on searching some massacres and describing what those were like. I'v also put explanations about what the ideology of some groups of people who committed massacre was.

As a result of my research, I come to identify this ideology of some groups of people with the logic of camp resulting from the era of Cold War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the mutual hostility. the logic of camp based upon the rigid dualism to allow a group of people to believe that they never fail to keep themselves in the right path, which can be extremely narcissistic to themselves; on the contrary they are often very aggressive to both individuals and group whose perspectives are different from theirs. They even unhesitatingly stigmatize people in different perspectives negative others.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Some Korean Christians crystallized their own belief system as working with the logic of the camp. It was the cultural dualism of Christianity that could facilitate to form the logic of camp in the era of Cold War. People in a specific camp would believe that the camp itself whatever it would be like should be both righteousness and truth; on the other hand, other camps should be false and even evil. This extremely polarized understanding about truth come from the dualism of Christianity.

In chapter II, "The formation of Camp and Christianity after Korean Independence", I study the way of Camp formation in polarized global communities such as communist countries and capitalist countries were against each other. The first part of this chapter is also dedicated to show how camp logics had proliferated during the ear of Cold War. A group of Christians in North America, and some churches which were members of both CCIA and WCC had actively worked with camp logic. As I said above, camp logic characterized with both exclusivism and rigid dualism forcing individuals to view themselves as goodness; on the contrary to it, to view others as evil. People adopting this logic as their faith believed that stigmatized others as evil should be gotten rid of. As Koreans had gone through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and the first Korean government which administered by President Syngman Rhee, some Korean Christians adopted such camp logics in their faith system as exclusivism and rigid dualism. As result of employing these logics, they consider stigmatized others as red dragon, communist poison, the camp of Satan resulting in dehumanization.

In chapter III~VI, I examine how Korean Christians took part in killing innocent people at the time periods between the division of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Korean Peninsula and Korean War. First of all, the research focus is on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about massacres that took place at this specific time periods. Through the research, I come to be convinced that genocides happened at this time had strategically been planned by Korean government. While analyzing relational feature of genocides and institutional authorities such as Korean government that committed those crimes, I find that in planning and committing those crimes the institutional authority had actively employed its own strategic instruction and logic which can be identified with camp logic based upon anticommunism.

Korean Christians involved in massacr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were agencies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such as army, police, and prosecution. Those power agencies not only played important role in forming National Guidance Alliance(NGA) but also in giving order to kill unarmed people. The second group of Christians involved in massacres were those who were present themselves at the scene of crimes. While committing murders, they ferreted out people who they believed deserved to be executed. I investigate what logics and instructions in which they employed in judging and finding people to be killed. According to my research, those logics and instructions were led by the faith that had been intensified by the camp logics of Cold War. The camp logics of Cold War can be replaced by Christians terms such as Christian exclusive faith against communism. Christian exclusive faith would be intensified by the rigid dualism to allow them to believe that they never failed to keep themselves in the right path; on the contrary, they would define both individuals and group of people as evil, whose perspectives were different from theirs. Christians who kept themselves in exclusive faith also believed that people in different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perspective about world should be removed. Exclusive faith based upon camp logics was the cause that facilitated Christians to believe they were allowed to join into committing massacres.

In Chapter VII, “the incidents of Christians murders during the Korean War”, I examine the conflicts between North Korean government and Christians. I also describe the process of way to eliminate Christians from North Korean society which was regulated by Communist government. I believe this strategy of elimination was led to become the causes of committing murder of Christians after outbreaking Korean War in North Korea. Just as South Korean Christians were hostile to communists as North Korean government was hostile to Christians. It can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documents of North Korean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at I have examined. Based upon my research,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Christians leaders such as Ryang Won Son, Kee Hoon Seo, Seong kab Kang. Those Christians leaders had not been working with camp logics. They kept themselves in following core Christianity’s values such as cross faith even though they were attracted to get into both camps. The common thing all of three leaders is that they were martyrs at the time periods of camps conflicts. What I would like to highlight of those three leaders is that they tried to accepted and cared for those belonging to both camps. Such sacrificial dedication has been mark of care for the marginalized,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s between polarized camps. I believe that these three values provide way to resolve conflicts both in Korean society and Christians bodies that have been intensified since Korean independence.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Key Words: Korean War, the civilian victimization, massacre, National Guidance Alliance, Cold War, logic of camp, conformity, Interlocks, negative others, rigid dualism, dehumanization, martyrdom.

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

부수-30부 하드카바
색상-검정색 금박
인쇄-16절 양면

문의-010 8761 2966

남북분단과 6·25전쟁 시기(1945-1953) 민간인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최 태 육